

瑞山·泰安 文化遺蹟(下)

1991

瑞山文化院

瑞山·恭安 文化遺蹟(下)

1991

瑞 山 文 化 院

*History and Culture in
Sŏsan-Tae'an Regions, Korea (Ⅱ)*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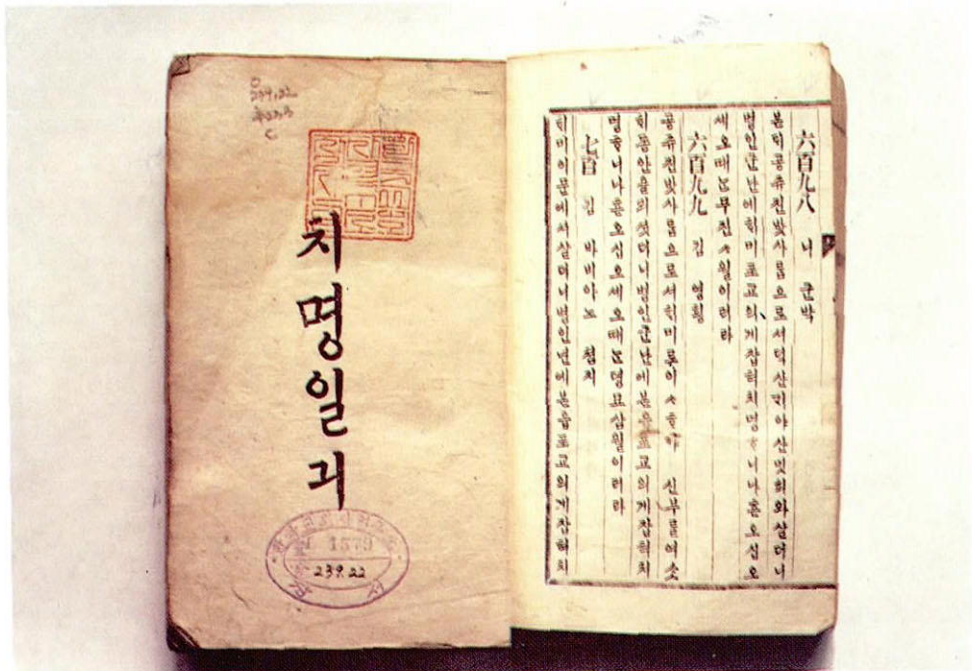
Sŏsan Cultural Center



개심사 대웅전



홍주사 대웅전



《치명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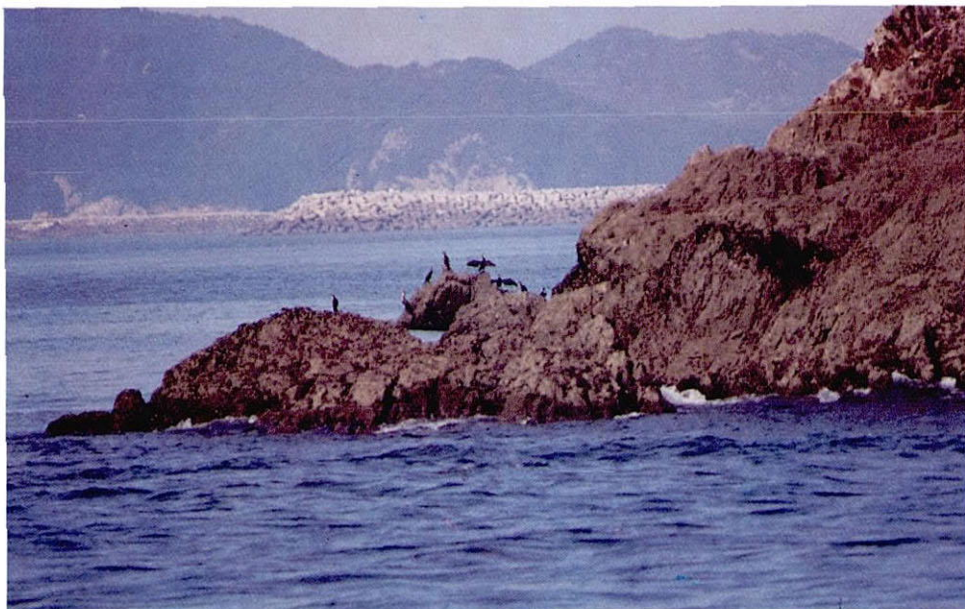
해미 관아건물



고파도 산신당



황도 서낭당



펭귄 갈매기



한국특산어류(모래무지)



거아도해변의 해당화군락



천연기념물인 모감주나무군락

目 次

古建築分野·····	朴萬植外 ···	1
天主教分野·····	趙 珖 ···	99
民俗分野·····	金泰坤 ···	141
方言分野·····	趙載勳外 ···	247
動物分野·····	金昌漢外 ···	333
植物分野·····	康祥俊外 ···	379
魚類分野·····	崔信錫 ···	473

古 建 築 分 野

朴 萬 植

(忠南大學校)

李 達 勲

(大田大學)

I. 寺刹建築

1. 瑞山郡

(1) 開心寺

① 位置 ; 瑞山郡 雲山面 新昌里 1

② 遺跡現況 ;

開心寺는 北쪽에 있는 象王山과 南쪽에 있는 伽倻山을 連結하는 산등성중 西쪽에 位置하고 있는 古刹이다.

산의 중턱을 깎아서 造成된 경내는 지금 10여채에 가까운 建物들이 들어서 있는데, 寺刹 入口에 安養樓가 있고 大雄殿으로 가기 위해서는 安養樓 남쪽 側面 옆에 架設된 來門을 이용하여야 한다. 景내 中心에 있는 5層石塔을 사이에 두고 大雄殿과 安養樓가 南北으로 位置하고 있고 東西 方向으로는 無量壽殿과 尋劍堂이 서로 마주 바라보고 있다. 無量壽殿과 接近하여 그 동쪽과 북쪽에 각각 요사가 1채씩 있고 그 동쪽에 冥府殿이 南向하여 건립되어 있다.

ㄱ) 大雄殿(寶物 第143號) (사진 1)

景내의 中心을 이루고 있는 大雄殿은 1941년에 實施한 解體修理 工事時 宗道里를 받치고 있는 長舌에서 『成化二十年甲辰六月二十日瑞山地象王山開心重創...』 이라는 墨書銘이 발견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朝鮮 成宗 15年(1484)에 건립된 건물임이 밝혀졌다.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多包樣式의 佛堂建物로 建立年代가 확실한 가장 오래된 건물중의 하나로서 多包樣式에 대한 編年上의 標本이 되고 있는 이 건물은 잘 쌓은 石造基壇위에 덩벙柱礎石을 놓고 배흘림이 있는 기둥을 세워 正面 3間, 側面 3間の 平面으로 南向하여 건립되었다.

正面 3間중 中央間에는 四分閤門을 달고 그 左右 來間에는 三分閤 빗살문을 달은

그 内部에 우물마루를 깔고 中央間 後面으로 불단을 造成하여 釋迦如來坐像을 主尊으로 하여 좌우에 觀世音보살과 地藏보살을 安置하고 있다.

建築樣式은 창방위에 평방을 놓고 柱間包을 各間에 2具씩 配置한 多包樣式이나 지붕의 形態, 包臺工, 연등천정, 그리고 伏花盤의 구성등에서 일부 柱心包 樣式의 手法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朝鮮初의 柱心包式이 多包式으로 轉換할 무렵의 過渡期的 樣式, 즉 일종의 折衷 樣式이라 할 수 있다.

공포의 구성은 內3出目, 外2出目으로 짜았는데, 외부로 突出된 2段의 牛舌은 강직하게 밑으로 짧게 뻗어 있고 樑頭는 예리하게 잘려 3分頭形狀으로 되었다.

架構는 前後 平柱위에 大樑을 걸고 大樑위의 中道里 外側에 牛眉樑을 사용 하였으며, 中道里와 2重樑을 支持하는 곳에는 花盤과 두공으로 짜인 臺工을 사용하여 宗樑을 받치고 있다.

宗樑의 上部 중앙에는 包가 짜여진 大型의 波蓮臺工을 設置하여 宗道里와 함께 屋蓋荷重을 받도록 하였는데, 특히 臺工 左右편에는 多包式 건물에서 보기도문 소슬合掌이 걸구되어 있고 지붕은 겹처마 맞배지붕을 이루고 있다.

ㄴ) 冥府殿(地方文化財資料 第194號)

大雄殿 右側에 위치하고 있는 冥府殿은 自然石 기단위에 덩벙柱礎石을 놓고 圓形 기둥을 세워 正面 3間, 側面 3間の 平面으로 구성한 후 그 内部에 우물마루를 깔고 그 後面으로 佛壇을 조성하여 地藏보살과 十大王을 安置하였다.

공포는 無出目 二翼工樣式이나 裝飾的인 면이 강조되었고 내부로는 樑棒으로 되어 大樑의 端部를 받쳤다.

架構는 前後 平柱위에 大樑을 걸고 그위에 樑棒이 걸구되어 있는 柱頭를 놓고 宗樑을 받친 2重樑 가구이며, 宗樑 상부에는 波蓮臺工을 設置하여 宗道里를 받쳤는데 여기에 뜬창방이 걸구되었고 천정은 연등천정으로 되어 있다.

ㄷ) 尋劍堂

大雄殿 前面 좌측에 있는 尋劍堂의 建立時期는 1926年 修理工事중 凍樑 長舌間에서

發見된 上樑文에 의하면 『成化13年二重創』『甕正9年六重創』등의 銘文이 보여 初創된 以來 수차에 걸쳐 重創된 건물이나 建築樣式上 대체로 大雄殿과 同年代인 朝鮮初期로 推定하고 있다.

이 건물은 自然石 基壇위에 덩벙柱礎石을 놓고 배흘림이 있는 圓形기둥을 세워 원래는 正面 3間, 側面 3間の 平面으로 건립된 듯 하나 左端으로 4間을 後補시켜 현재와 같은 ㄱ字形의 平面으로 되었다.

공포는 外部 前面으로만 卽 1出目 三翼工系統으로서 柱頭와 잇물려 빠져나온 一翼工의 先端에 小累를 놓고 二翼工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여기서는 一翼工 끝에 파편각의 둥그스럼한 모양이고 小累도 생략되어 있다. 그러나 외부로 향해 垂舌形으로 길게 뻗은 二翼工 끝에는 小累를 놓고 三翼工이 결구된 外目道里를 받친 長舌를 받쳤으며, 또 중방이 결구되어 있는데 이 手法은 우리나라 最古의 木造建物인 鳳停寺 極樂殿에서도 볼 수 있는 技法이다.

建物 내부에는 모두 우물천정을 하여 架構材를 가렸으나 側面에서의 架構는 兩內高柱를 세우고 大樑과 退樑을 결구한 후 大樑 상부에 童子柱形 臺工을 세워 宗道里와 함께 屋蓋荷重을 받도록 하였고 後面의 지붕은 홀처마로, 前面은 겹처마의 맞배지붕을 올렸다.

ㄴ) 無量壽殿

大雄殿 前面의 中庭을 향해 건립된 無量壽殿은 自然石 基壇위에 덩벙柱礎石을 놓고 배흘림의 圓形기둥을 세워 正面 6間, 側面 3間으로 세워졌으나 현재 부엌과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右端間에 3間을 덧붙여 ㄱ字形의 平面을 이루고 있다.

공포는 前面의 기둥에만 결구되었는데 冥府殿과 같은 無出目 二翼工系統이며, 창방 위에는 花盤을 1具씩 배치하여 柱心道里 長舌를 받쳤으나 右端 2間에는 圓形의 花盤을 놓았다. 建物 내부로는 모두 우물천정이 되어 있으며, 지붕은 겹처마 八作지붕을 이루고 있다.

ㄷ) 安養樓

中庭을 사이에 두고 大雄殿과 마주 보고 있는 安養樓는 自然石 기반위에 덩벙柱礎石을 놓고 圓形기둥을 세워 正面 5間, 側面 3間の 平面으로 區劃한후 그 내부에 우물마루를 깔고 梵鍾, 法鼓, 雲板, 木魚 등의 四物을 保管하고 있다.

공포는 斜切된 柱頭와 잇물려 長方形의 간결한 部材가 끼워져 있으며, 창방위에는 3具씩의 小累가 配置되어 柱心道里 長舌을 받쳐주고 있다.

架構는 前後 平柱위에 大樑과 宗樑을 걸은 2重樑 가구이며, 宗樑 상부에는 제형 臺工을 設置하여 宗道里를 받쳤다.

지붕은 겹처마 八作지붕을 올렸는데 건물의 입구쪽으로 『象王山開心寺』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2) 文殊寺

① 位 置 ; 瑞山郡 雲山面 胎封里

② 遺跡現況 ;

文殊寺는 象王山의 서북쪽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데 寺刹의 創建年代는 미상이다. 雲山面에서 海美面으로 향하는 國道변의 左側에 태봉골이 있는데 이곳에서 村路를 따라서 문수동에 이르면 그 북쪽의 계곡위에 文殊寺가 所在하고 있다.

경내의 앞면은 계곡이기 때문에 돌로 높은 築臺를 쌓아 寺域을 조성하였으며, 主殿인 極樂寶殿을 중심으로 그 左右側에 修道堂과 두채의 요사가 있다. 그리고 계곡의 뒷쪽 맞은 편에도 築臺가 쌓인 넓은 건물터가 남아 있어서 創建代에는 이 寺域이 매우 넓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ㄱ) 極樂寶殿(地方有形文化財 第13號) (사진 2~4)

極樂寶殿은 正面 3間, 側面 3間으로 平面을 區劃한 내부에 우물마루를 깔고 中央間 後面으로 면하여 佛壇을 조성하여 阿彌陀佛을 主佛로 하여 金銅如來佛, 彌勒佛, 羅漢像 등을 함께 安置하였다.

構造는 石造기단위에 덩벙柱礎石을 놓고 圓形기둥을 세운 후 各間에 柱間包를 2具씩

配置한 多包樣式으로 構成하였다. 공포의 구성은 内外 모두 2出目으로 짜았는데 외부로 突出된 仰舌形狀의 牛舌위에 연꽃을 彫刻하였고 그 内端도 雲形으로 화려하게 裝飾하여 朝鮮後期 建築樣式의 특징을 볼 수 있다.

架構는 前後 平柱위에 大樑을 걸고 童子柱를 세워 宗樑을 받고 있는 2重樑 가구인데 宗樑의 上端部에 걸쳐서 우물천정을 架設하였고 지붕은 겹처마 맞배지붕을 이루고 있다.

(3) 日樂寺(地方文化財資料 第193號) (사진 5)

① 位 置 ; 瑞山郡 海美面 皇洛里

② 遺跡現況 ;

皇洛里 日樂山 산기슭 南편에 位置하고 있는 日樂寺는 現在 경내의 중심으로 大雄殿이 있고 그 앞으로 高麗 中葉期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3層石塔과 그리고 요사가 남아 있다.

大雄殿은 自然石으로 높게 築造한 基壇위에 덤벙柱礎石을 놓고 圓形기둥을 세워 正面 3間, 側面 2間の 平面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正面 3間에 모두 쌍여닫이 빗살문을 달고 있으며, 그 内部에 우물마루를 깔고 如來佛과 毘盧舍那佛을 安置하고 있다. 그리고 지붕은 겹처마 맞배지붕을 이루고 있으며, 建物正面에 『大雄殿』 현판이 걸려 있다.

(4) 浮石寺(地方文化財資料 第195號) (사진 6)

① 位 置 ; 瑞山郡 浮石面 翠坪里

② 遺跡現況 ;

西海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展望 좋은 島飛山의 서편 산기슭에 位置하고 있는 寺刹로서 現在 경내에는 極樂殿을 中心으로 하여 앞으로는 安養樓가 있고 우측에 隣接하여 尋劍堂과 浮石寺라는 현판이 걸려 있는 요사채가 있다.

浮石寺의 創建에 관해서는 統一新羅 時代의 文武王 17年(677)에 의상 大師가 創

建하고 朝鮮時代에 無學大師가 重建했다는 說과 高麗가 멸망된 후 당시의 忠臣인 柳琴軒이 이곳에 學堂을 짓고 세월을 보내다가 죽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學堂을 寺刹로 改造하여 浮石寺를 세웠다는 逸話가 전해지고 있다.

ㄱ) 極樂殿 (사진 7)

경내의 中心에 위치하고 있는 極樂殿은 正面 3間, 側面 3間으로 平面을 畵한 후 그 내부에 우물마루를 깔고 中央間 후면으로 面하여 佛壇을 조성하여 阿彌陀三尊佛을 安置하였다.

構造는 自然石으로 높게 築造한 基壇 위에 큰 礪石의 碁坪柱礎石을 놓고 圓形기둥을 세웠는데, 공포는 外一出目 二翼工系統의 樣式으로 構成하였고 창방 위에는 各間에 1具씩의 花盤形의 草刻盤을 配置하여 柱心道里 長舌을 받쳐주고 있다.

架構는 前後 平柱위에 大樑을 걸고 그위에 童子柱 位置에 包를 짜서 宗樑을 받친 2重樑架構이며, 宗樑 下端에 걸쳐서 우물천정을 設置하였고 지붕은 겹처마 맞배지붕을 이루고 있다.

ㄴ) 安養樓 (사진 8)

極樂殿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安養樓는 正面 5間, 側面 2間으로서 내부를 모두 通間으로 하여 우물마루를 깔았는데, 이곳에 浮石寺의 風景을 吟詠한 『安養樓前滄海潤 島飛山上白雲臺』의 金笠의 詩句와 『寺名浮石疑沈水 石井浮石根於水 山號島飛恐上天 山若飛來埋或天』이라고 쓰여진 당시의 文人들의 詩句들이 남아 있다.

構造는 隣近 산들의 笠石기단 위에 礪坪柱礎石을 놓고 굵은 圓形기둥을 세웠는데 공포는 無出目 一翼工樣式이며, 창방위에는 3具의 小累가 각각 配置되어 柱心道里 長舌을 받쳐주고 있다.

가구는 前後 平柱위에 大樑과 宗樑을 걸은 2重量 가구이며, 宗樑위에는 제형 臺工을 놓아 宗道里와 함께 屋蓋荷重을 받도록 한 五樑집으로 지붕은 홑처마 맞배지붕을 이루고 있다.

ㄷ) 尋劍堂

極樂殿 右側에 隣接 배치되어 있는 尋劍堂은 正面 4間, 側面 2間으로 平面이 構成되었는데, 各間을 退마루가 달린 온돌방으로 모두 드렸다.

構造는 自然石으로 높게 築造한 基壇에 碁坪柱礎石을 놓았는데 부분적으로 배흘림이 뚜렷한 圓形기둥과 八角으로 다듬은 기둥을 혼합하여 세웠다. 공포는 典型的인 無出目 一翼工樣式으로 창방위에는 5具의 小累가 끼워져 柱心道里를 받쳐주고 있다.

가구는 1高柱 5樑집으로 보이나 내부에 우물천정이 되어 있어 확인할 수 없으며, 지붕은 홑처마 八作지붕을 이루고 있고 건물의 정면에 『尋○堂』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ㄹ) 요사채

尋劍堂의 지붕과 한지붕으로 이어져 있고 건물의 정면에 『浮石寺』라는 작은 편액이 걸려 있는 이 건물은 正面 6間, 側面 1間으로 平面이 構成되었는데 現在 온돌방을 드려서 요사채로 사용되고 있다.

구조는 自然石 基壇위에 碁坪柱礎石을 놓고 배흘림이 뚜렷한 圓形기둥을 세운후 공포는 無出目 二翼工系統의 樣式으로 결구되었는데 그 手法이 一部 古式을 따르고 있어 주목되고 있으며, 창방위에는 花盤이 各間에 1具씩 배치되어 柱心道里 長舌을 받쳐주고 있다.

가구는 前後 평주위에 대들보를 걸었는데 그 위는 우물천정이 架設되어 있고 지붕은 홑처마 八作지붕을 이루고 있는데, 특히 構造가 부분적으로 一部 變更은 있으나 景內의 現存 建物中 가장 오래된 건물로 보여지고 있다.

(5) 天藏庵 (사진 9)

① 位 置 : 瑞山郡 高北面 長要里

② 遺跡現況 :

燕巖山の 남쪽 산중턱에 築臺를 2段으로 높게 쌓아 寺域을 조성한 景內에 大雄殿과

山神閣 그리고 요사가 있는데 大雄殿 앞에는 7層으로 보이는 高麗後葉期の 石塔이 원래의 모습을 잃은 채 서 있다.

大雄殿은 2벌대의 自然石 기단위에 덩벙柱礎石과 圓形기둥을 세워 正面 6間, 側面 2間の 平面에 겹쳐마 八作지붕으로 건립한 후 그 내부에 阿彌陀佛과 觀世音보살, 그리고 地藏보살을 함께 安置하고 있다.

(6) 望日寺 (사진 10)

① 位 置 ; 瑞山郡 大山面 大山里

② 遺跡現況 ;

大山里的 동편에 있는 望日山の 서쪽 산중턱에 있는 寺刹로서 境内에는 大雄殿과 山神閣, 그리고 요사채가 있다.

望日寺의 창건년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나 周邊에서 朝鮮時代に 製作된 瓦片이 出土되고 있어 朝鮮時代に 조성된 寺刹로 보여지고 있다.

大雄殿은 正面 3間, 側面 3間に 걸쳐마 八作지붕으로 최근에 건립된 建物인데 阿彌陀佛을 主佛로 安置하고 있다.

(7) 三吉寺(海月庵) (사진 11)

① 位 置 ; 瑞山郡 大山面 花谷里

② 遺跡現況 ;

花谷리에 位置하고 있는 三吉山の 남동편 산중턱에 있는 寺刹로서 현지에서는 海月庵이라고도 불리우고 있다.

西海岸이 내려다 보이는 산중턱을 깎아서 조성한 境内에는 樹齡 약 320여 년 된 느티나무 옆으로 朝鮮後期에 重修된 圓通殿, 그리고 山神閣과 요사가 있었으나 최근에 圓通殿과 山神閣이 있던 곳에 大雄殿을 新築하기 위하여 解體하여 지금은 약 3年 전에 건립한 요사 1채만이 남아 있다.

(8) 東寺

① 位 置 ; 瑞山郡 浮石面 芝山里

② 遺跡現況 ;

鳥飛山の 동편 산중턱에 있는 寺刹로 自然石으로 높게 조성된 境内에는 圓通殿과 요사가 있다.

圓通殿은 正面 5間, 側面 3間으로 구획된 내부에 觀世音보살과 羅漢像이 安置되어 있고 지붕은 홑처마 八作지붕을 이루고 있는데 근래에 대부분이 補修되어 그 원형을 잃고 있다.

(9) 竹寺 (사진 12)

① 位 置 ; 瑞山郡 仁旨面 成里

② 遺跡現況 ;

成리에 있는 金剛山 줄기의 飛龍山 남동편에 높게 솟아 있는 암벽 밑에 위치하고 있는 寺刹로서 境内에는 圓通殿과 鐘閣, 그리고 요사가 配置되어 있다.

竹寺의 創建에 대해서는 記錄이 없어 알 수 없으나 一說에 의하면 인근에 살고 있는 豐田里 住民들이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하여 세운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圓通殿은 수년전에 화재로 인하여 없어지고 그 자리에 새로 건립하였는데, 正面 3間, 側面 2間에 겹처마 八作지붕을 이루고 있으며, 내부에 근래에 製作된 阿彌陀佛과 觀世音보살을 함께 安置하였다.

(10) 頌德庵

① 位 置 ; 瑞山郡 海美面 大谷里

② 遺跡現況；

海美面에서 德山으로 가는 大谷里 國道邊 우측에 位置하고 있는 頌德庵 경내에는 藥師殿과 2채의 요사가 있다.

藥師殿은 正面 3間, 側面 2間の 平面으로 區劃한 내부에 現地에서 미록불로 불리우고 있는 朝鮮中期頃에 製作된 石佛立像 1具를 安置하였다.

構造는 自然石 기단위에 덤벙柱礎石을 놓고 圓形기둥을 세웠고 공포는 初翼工系統으로 구성하였으며, 지붕은 겹처마 八作지붕을 올렸다.

(11) 看月庵 (사진 13)

① 位 置；瑞山郡 浮石面 看月島里

② 遺跡現況；

看月島리에 있는 작은 섬에 위치하고 있는 看月庵은 李太祖의 王師였던 無學스님이 創建한 암자로서 그당시 無學스님이 이곳에서 달을 보고 홀연히 깨쳤다 하여 암자 이름은 看月庵이라 하였고 또한 섬의 地名도 看月島라 한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후 朝鮮末期頃에 폐허화된 것을 1941年頃 다시 重建한 암자로 案内文에 記錄되고 있다.

看月庵은 方形的 초석위에 圓形기둥을 세워 正面 5間, 側面 3間으로 平面을 區劃하였다. 공포는 無出目 一翼工系統인데 翼工의 外端을 翼工뿌리로 하지 않고 大樑의 鰭목에 맞춰 方形狀으로 切斷하였고 창방위에는 5具의 小累가 배치되어 柱心道里 長舌을 받쳐주고 있다.

지붕은 겹처마 八作지붕인데 거센 海風을 막기 위하여 건물 四面에 돌아가면서 처마 끝선에 맞춰 防風壁을 쳤다.

2. 泰安郡

(1) 興住寺

① 位 置；泰安郡 泰安邑 上玉里

② 遺跡現況；

泰安 읍내의 뒷산인 白華山の 줄기인 동편 산중턱에 位置하고 있는 寺刹로서 境內에는 中門에 해당하는 萬歲樓와 石塔 그리고 大雄殿이 伽藍中心의 軸線上에 배치되어 있고 그 左右에 요사채가 있다.

ㄱ) 萬歲樓 (사진 14~15)

境內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된 보여지고 있는 萬歲樓는 正面 3間, 側面 3間の 平面으로서 境內에서 밖으로 傾斜진 地勢을 이용하여 안에서는 單層으로, 밖에서는 重層건물로 만들었는데 그 내부를 僧兵들의 武器貯藏所로 한때 사용하였다는 說이 전해 오고 있다.

공포는 建物 前面으로만 짜여진 一出目 二翼工 系統으로서 柱頭와 엮물려 外部로 突出된 翼工끝에 小累를 놓아 行公첨차를 받았으며, 柱心두공 위에 다시 再柱頭를 놓아 이와 엮물려 二翼工을 놓고 外目道里가 걸구된 大樑의 外端을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창방이 걸구된 柱間에는 花盤形의 草刻盤을 柱間이 比較的 넓은데도 불구하고 1具씩만 配置하고 있다.

架構는 前後 平柱위에 大樑을 걸고 그 上部 양측에 包가 짜여진 童子柱을 세워 宗樑을 받도록 하고 그 중앙에 波蓮臺工을 設置하여 宗道里와 함께 흘처마 맞배지붕으로 된 屋蓋荷重을 받치도록 하였는데, 특히 宗道里 左右로 高麗時代 柱心包建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슬合掌이 걸구되어 있어 공포의 構成, 花盤의 配置 手法과 함께 柱心包 건축에서 翼工系 樣式으로 變遷되어 가는 過程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건물로 보여 지고 있다.

ㄴ) 大雄殿

大雄殿은 원래 圓通殿이 있던 곳에 1985年 경에 正面 3間, 側面 2間에 内外 2出目으로 구성된 柱間包를 柱間에 2具씩 配置한 多包樣式으로 다시 新築한 佛殿으로 그 내부에

阿彌陀佛을 위시하여 觀世音보살과 彌勒보살상이 安置되어 있다.

(2) 泰國寺

① 位 置 ; 泰安郡 近興面 程竹里

② 遺跡現況 ;

安興城 내의 북편에 位置한 寺刹로서 境內에는 圓通殿과 요사가 있다.

최근에 건립된 건물로 보이는 圓通殿은 1벌대의 自然石 기단위에 伏蓮이 陽刻된 圓形礎石을 놓고 圓形기둥을 세워 正面 3間, 側面 2間の 平面을 만든 후 그 내부에 觀世音보살을 主佛로 安置하였다.

공포는 初翼工系統이고 창방위에는 花盤이 各間에 1具씩 配置되어 柱心道里 長舌을 받치고 있으며, 지붕은 겹처마 맞배지붕을 이루고 건물의 정면에 『圓通殿』의 현판이 걸려 있다.

(3) 太乙庵

① 位 置 ; 泰安郡 泰安邑 東門里

② 遺跡現況 ;

白華山の 중턱에 위치하고 있는 太乙庵 境內에는 大雄殿과 두채의 요사가 있으며, 서편 약 10m 地點에는 寶物 第432號로 指定 保存되고 있는 泰安磨崖三尊佛이 있다.

大雄殿은 최근에 다시 重建된 건물인데 加工이 잘된 4벌대의 長臺石 기단위에 圓形礎石과 圓形기둥을 세워 正面 3間, 側面 2間の 平面으로 구성된 후 그 내부에 阿彌陀佛을 主佛로 安置하였다.

공포는 창방위에 다시 평방을 놓고 柱間包를 各間에 1具씩 배치한 多包式으로 구성하였으나 樣式上의 변형이 매우 심하며, 지붕은 겹처마 八作지붕을 이루고 있다.

II. 官衙建築

1. 瑞山市

(1) 瑞山郡 官衙 (그림 1)

① 位 置：瑞山市 邑内洞 492

② 遺跡現況：

朝鮮時代 瑞山郡 官内の 地方 行政을 隨行하던 곳으로서 輿地圖書 瑞山郡 公廨條에 의하면 客舍와 東軒을 비롯해서 많은 建物名 및 間數를 기록하고 있으나 지금은 衙門과 外東軒만이 남아 있다.

ㄱ) 外東軒(地方有形文化財 第41號) (사진 16)

官衙門 서북측에 西南向으로 1977년에 다시 復元된 外東軒은 正面 5間, 側面 2間에 四面으로 半間씩의 退間을 만들었다.

기단은 加工한 장대석으로 2段 築造하여 네모뿔형 柱礎石을 놓고 圓形기둥을 세웠는데, 柱上部의 공포는 無出目 一翼工系統으로 구성하였고 창방 위에는 雲工이 끼워진 小果를 각간에 3具씩 配置하여 柱心道里 長舌을 받쳐주도록 하였는데 退間에는 모두 1具씩만 配置하였다.

東軒 내부에는 우물천정을 만들어 架構材를 모두 은폐시켰고 지붕은 겹처마 八作 지붕이며, 건물의 정면에 『瑞寧館』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ㄴ) 官衙門(地方有形文化財 第41號) (사진 17)

官衙門의 平面은 正面 3間, 側面 2間으로 구획하여 南向하여 배치시킨 二層門樓 건물인데, 下層의 正面 3間에 三門을 달아 通行하도록 하였고 上層에는 樓閣을 만들고 左側 北端間에 2層으로 오르는 계단을 架設하였다.

構造는 낮은 기단에 方形 판석을 먼저 놓고 그위에 柱形長礎石을 놓아 圓形기둥을

세우고 樓閣을 設置하였는데 樓閣의 四面으로는 鷄子蘭干을 돌렸다.

기둥 上部의 공포는 無出目 二翼工系統으로 翼工을 창방과 直交시켜 柱頭와 결구한 후 그의 柱心部에 작은 柱頭와 翼工을 하나 더 놓아서 大樑을 받도록 하였고 내부로는 草刻을 한 보아지를 突出시켜 大樑의 內端을 받쳤다. 그리고 창방 위에는 雲工이 결구된 花盤形의 草刻盤을 중앙간에 3具, 兩端間과 側面間에는 각각 2具씩을 배치하여 柱心道里 長舌을 받쳤다.

가구는 前後 平柱위에 大樑을 걸고 大樑 上部 양측에 낮은 동자주를 세운 후 그위에 뜬창방과 柱頭를 놓아 宗樑과 內目道里를 받치도록 하였다. 宗樑 上部 중앙에는 뜬창방이 결구된 波蓮臺工을 설치하여 宗道里와 함께 屋蓋荷重을 받도록 하였으며, 지붕은 겹처마 八作지붕을 이루고 있는데, 建物 정면에 『瑞寧郡門』이라는 현판이 걸려있다.

2. 瑞山郡

(1) 海美縣 官衙 (그림 2, 사진 18. 19)

① 位 置 : 瑞山郡 海美邑 邑內里

② 遺跡現況 :

朝鮮朝 初期 太宗 18年(1418)부터 孝宗때(1659년 代)까지 약 200여년간 忠淸道 兵馬節度使가 駐在했던 國防의 要衝地이었던 海美縣은 朝鮮 成宗 22年(1491)에 兵馬節度使營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城壁을 쌓고 兵營의 官衙인 官廳建物들을 整備하였다.

輿地圖書 海美縣 公廨條에 의하면 客舍와 東軒 외에도 많은 建物名 및 間數를 기록하고 있으나 지금은 근년에 復元 건립된 湖西左營의 東軒을 중심으로 冊室과 客舍, 그리고 衙門이 四塊石 담장내에 일곽을 이루면서 配置되고 있다. 그리고 1980年과 1981年의 2次에 걸쳐서 본래 官衙터를 忠南大學校 博物館의 主管으로 발굴한 바 있는데 그 結果 東軒과 客舍터를 確認하였고 客舍 앞마당은 돌을 깔았고 돌레의 담장을

막담으로 돌렸으며, 남쪽에 衙門을 두고 그 앞에는 다시 목책을 쳐서 二重으로 요새를 防備한 흔적을 찾아냈다.

ㄱ) 東軒

官衙 内の 中心에 위치하고 있는 東軒은 正面 5間, 側面 3間の 平面으로 構設한 후 前面 5間に 모두 四分閣 머살문을 달은 내부에 우물마루를 깔았다.

構造는 1段의 장대석 기단위에 네모뿔형 柱礎石을 놓고 배흘림이 있는 圓形기둥을 세웠는데 공포는 典型的인 無出目 一翼工으로 構成하였다.

가구는 1高柱 五檼집으로 宗樑위에는 뜰창방이 결구되어 있는 키가 높은 제형대공을 설치하여 宗道里와 함께 지붕 荷重을 받도록 하였고 지붕은 겹처마 八作지붕을 이루었는데 中央 御間에 『湖西左營』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ㄴ) 冊室

東軒의 후면에 위치하고 있는 冊室은 正面 5間, 側面 2間の 平面으로 構成되었다.

構造는 自然石으로 2벌대로 쌓은 기단위에 덩벙柱礎石을 놓고 方形기둥을 세웠는데 공포는 省略하고 간결한 道里 系統으로 처리하였다.

가구는 前後 평주위에 大樑과 宗樑을 결구한 2重量 가구이며, 宗樑 위에는 제형대공을 設置하여 종도리와 함께 屋蓋荷重을 받도록 하였고 지붕은 홑처마 八作지붕을 이루고 있다.

ㄷ) 官衙門

海美縣 官衙 정문으로 건립된 이 衙門의 평면은 正面 3間, 側面 2間の 二層門樓 건물로서 아래층 3間に 三門을 달아 通行을 하고 上層에는 樓閣을 만들었는데 四面으로 鷄子난간을 돌렸다.

構造는 1段의 화강석 기단위에 柱形長礎石을 놓고 圓形기둥을 세웠는데 공포는 典型的인 無出目 二翼工系統으로 構成하였고 창방 위에는 雲工이 결구되어 있는 長花盤을 중앙간 3具, 양협간과 측면간 2具씩을 배치하여 柱心道里를 받쳐주고 있다.

가구는 前後 평주위에 大樑과 宗樑을 결구한 2重樑 가구이며, 宗樑 위에는 뜬창방이 결구되어 있는 파련대공을 설치하여 종도리와 함께 屋蓋荷重을 補強하도록 하였고 지붕은 겹처마 八作지붕을 이루고 있다.

3. 泰安郡

(1) 泰安縣 官衙

位 置：泰安郡 泰安邑 東門里

② 遺跡現況；

朝鮮時代 泰安縣 官内の 행정을 隨行하던 곳으로 輿地圖書 公廨條에 의하면 客舍를 비롯해서 많은 建物名 및 間數를 記錄하고 있으나 현재는 읍사무소 민원실로 사용하고 있는 牧愛堂과 그 앞의 近民堂, 그리고 近民堂과 附屬建物이 남아 있고 官衙의 입구에 憬夷亭이 있다.

ㄱ) 牧愛堂 (사진 20)

朝鮮時代 泰安縣 官衙의 東軒 建物로 보이는 牧愛堂은 2벌대로 쌓은 장대석 기단위에 네모뿔형 柱礎石을 놓고 方形기둥을 세워 正面 6間, 側面 3間으로 平面을 構成하였다.

그리고 그 내부는 전면으로 退間을 두도록 기둥이 배열되어 있으나 現在 泰安邑 事務所 民願室로 사용되고 있어 内部 구조가 적지 않게 變形되어 있다.

공포는 無出目 一翼工系로 翼工은 柱頭와 엮물려 외부로 突出되었고 柱礎의 竅斷面은 直線으로 사절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樑棒으로 되어 大樑의 端部를 받치고 있는데 翼工뿌리의 끝을 길게 突出시키지 않고 둥글게 마감하여 놓았다. 또 창방이 결구된 柱間에는 各間에 3具씩의 小果을 놓아 柱心道里 長舌을 받도록 하였다.

架構는 前方 退柱와 後方 平柱 사이에 内高柱를 세운 후 여기에 退樑과 大樑 을 결구한 一高柱 五樑집이며, 지붕은 홑처마 八作지붕을 이루고 있는데 건물의 정면에 「牧愛堂」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ㄴ) 近民堂

이 건물의 後面(내측)에 『近民堂』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어 現在 건물의 名稱을 近民堂이라 부르고는 있으나 위치가 牧愛堂 前面에 있고 건물의 形態도 소슬三門形으로 되어 있어 官衙의 內三門으로 보여지고 있다.

構造는 柱形長礎石을 놓고 圓形기둥을 세운 후 소슬삼문을 달은 중앙간의 좌측으로 3間, 우측으로 2間씩의 翼室을 각각 달아 庫房으로 사용하였다.

공포는 간결한 민도리집 系統이며, 지붕은 左右 翼室은 홑처마 우진각지붕이나 이보다 한결 높은 中央間은 맞배지붕을 이루고 있다.

ㄷ) 附屬建物

官衙 境內的 近民堂과 懷夷亭 사이에 位置하고 있는 이 건물은 正面 2間, 側面 5間に 右側으로 꺾여서 다시 정면 3間, 側面 3間을 덧붙친 ㄱ字形 平面으로 되어 있다. 建物 중앙의 넓은 大廳空間을 중심으로 그 左右에 온돌방과 부엌, 庫房등을 드리고 있으나 전에 泰安警察署 官舍로 轉用한 관계로 内部空間이 적지 않게 변경되어 있다.

構造는 자연석으로 쌓은 기단위에 네모뿔형 柱礎石을 민도리집 系統으로 간결하게 처리하였으나 비록 柱頭는 省略되긴 하였으나 公共建築物에서 흔히 볼수 있는 形態의 翼工形의 部材가 建物外側으로 끼워져 있는 곳이 있어 特異하다.

이와함께 架構方式도 一般 古住宅 건물에서는 보기드문 大樑, 中宗樑, 宗樑 등 三重樑이 결구되고 있어 그 規模가 크며, 宗樑 중앙에는 뜰창방이 결구되어 있는 제형대공을 設置하여 宗道里와 함께 옥개荷重을 받치고 있다.

지붕은 홑처마 八作지붕을 이루고 있으며, 宗道里 下端에 『大韓光武五年辛丑初十日申時上樑子坐午向』이라는 上樑文이 있어 1901년에 건립된 건물임을 알 수 있다.

(2) 洗心閣 (사진 21)

① 位 置 ; 泰安郡 所遠面 茅項里

② 遺跡現況：

이 건물의 原 所在地였던 所斤浦는 西海岸의 管理를 위하여 世祖 12年(1466) 所斤浦鎮이 되어 좌도수군첨절제사를 두고 唐津浦萬戶, 波知島萬戶, 安興梁萬戶를 관할하도록 하였는데, 以後 所斤浦鎮에 中宗 9年(1514)에 石材로 所斤鎮城을 築造하였다.

洗心閣은 이 所斤鎮城내에서 그당시 첨사가 執務하던 廳舍建物이었는데 그후 이 건물을 臨時로 所斤面事務所로 사용하다가 1914年에 所斤面 所遠面에 吸收되면서 이 건물은 신덕리로 이진되어 所遠面の 청사로 사용되었다.

또한 이 건물은 1964年 所遠面の 새 廳舍 新築으로 인하여 다시 만리포 海水浴場 廣場 입구로 移建되어 그 建物名을 洗心閣이라 命名한 후 夏季 公務員 休養所 건물로 이용하다가 지금은 用途 廢棄 상태로 放置되어 있다.

세심각은 正面 6間, 側面 3間の 平面으로 구성되어 그 規模가 비교적 큰 건물인데 가공이 잘된 장대석으로 쌓은 기단위에 네모뿔형 柱礎石을 놓고 方形기둥을 세웠다. 기둥위에는 공포를 省略하였고 내부에 모두 우물천정을 설치하였다. 지붕은 홀처마 八作지붕으로 되어 있으며, 전면에 洗心閣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III. 鄉校建築

1. 瑞山市

(1) 瑞山鄉校(地方文化財資料 第196號)

① 位 置 ; 瑞山市 東門 655

② 遺跡現況 ;

瑞山市 東門里에 소재하고 있는 瑞山鄉校는 朝鮮 太宗 6年(1406)에 創建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鄉校의 全體配置는 地面을 대체로 2段으로 정지한 첫단에 外三門과 明倫堂, 그리고 正面 6間, 側面 2間에 홀처마 맞배지붕으로 東齊와 側面 1間으로 된 西齊가 ㄷ字形으로 配置되어 있다.

또한 明倫堂 안마당에는 朝鮮 定宗代에 植栽하였다는 수령 500여년이 된 은행나무 1그루가 자리잡고 있어 경내가 한층 古風스러워 보이고 있다.

그리고 15段의 계단으로 오르는 둘째단에는 方形기둥위에 홀처마 맞배지붕으로 된 內三門과 大成殿, 그리고 그 前面 좌우에 國內 유학자들의 위패를 安置하고 있는 正面 3間, 側面 1間에 홀처마 맞배지붕의 東西兩廡가 배치되어 全體的으로 大成殿과 明倫堂을 중심축으로 하는 前堂後廟配置法을 따르고 있다 (사진 22).

ㄱ) 大成殿 (사진 23. 24)

大成殿의 平面形式은 正面 3間, 側面 3間으로 되어 있는데, 前面 半間通을 開放하여 前退를 두고 있는 開放型 평면이다. 窓戶는 正面 3間중 중앙간에는 四分間 빗살문을, 그리고 兩夾間에는 쌍여닫이 빗살문을 달았는데 그내부는 通間으로 하여 우물마루를 깔고 공자의 위패를 奉安하였다.

構造는 2벌대로 쌓은 自然石 기단위에 前面 柱列에만 높이 1.76m의 높은 柱形 長礎石을 놓고 원형기둥을 세워 特異하고 後面으로는 덩벙柱礎石 위에 원형기둥을 세웠는데 건물의 四隅部에 활주를 세워 길게 뻗은 처마를 補強하여 주고 있다.

공포는 典型的인 無出目 一翼工系이며, 창방위에는 雲工이 결구된 小累가 각간에 4具씩 배치되어 柱心道里 長舌을 받쳐주고 있다.

가구는 二重樑으로 된 一高柱 五樑집인데 宗樑위에 뜬창방이 결구된 波蓮臺工을 設置하여 宗道里와 함께 옥개하중을 받쳐주고 있으며, 특히 大成殿의 지붕이 일반적으로 맞배지붕인데 반해서 例外的으로 홑처마 八作지붕을 이루고 있다.

ㄴ) 明倫堂 (사진 25)

경내의 입구에 內三門과 나란히 위치하고 있는 明倫堂은 正面 5間, 側面 2間の 평면을 이루고 있는데, 내부를 모두 通間으로 하여 우물마루를 깔아 講學의 場所로 삼았다.

構造는 낮은 自然石 기단위에 덩벙 주초석을 놓고 굽은 원형기둥을 세웠는데 공포는 省略되었다.

가구는 前後 平柱위에 대들보를 걸고 그위에 등자주를 세워 宗樑을 받은 二重樑 五樑집인데 部材가 比較的 細長한 편이며 宗樑위에는 제형대공을 놓고 종도리와 함께 옥개하중을 받고 있으며, 특히 明倫堂의 지붕 形態가 일반적으로 八作지붕인데 반해서 홑처마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다.

2. 瑞山郡

(1) 海美鄉校(地方文化財資料 第197號)

① 位 置: 瑞山郡 海美邑 烏鶴里

② 遺跡現況:

朝鮮 太宗 7年(1407)에 創建하고 憲宗 10年(1844)에 다시 改築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海美鄉校는 海美 邑城의 左側을 끼고 雲山面 方向으로 가다 海美邑 所在地를 막 뻗어난 烏鶴里 좌측의 낮은 野山에 위치하고 있는데, 鄉校 입구에는 수령 약 300여년 된 고목의 느티나무가 줄지어 서 있다.

이 鄉校의 全體配置構成은 홍살문을 지나면 外三門이 없이 곧바로 明倫堂이 있고 그 左右로 東西兩齋가 있는데, 東齋는 正面 3間, 側面 2間에 홀처마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고 西齋는 正面 5間, 側面 2間에 홀처마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다 (사진 26).

明倫堂 空間에는 8段의 계단으로 오르도록 되어 있는 大成殿 空間 입구에는 正面 3間, 側面 1間에 맞배지붕으로 된 內三門이 있고 그 옆으로 둘러 진 四塊石 담장안에 大成殿이 배치되어 전체적으로 大成殿과 明倫堂을 중심축으로 하는 前堂後廟配置法을 따르고 있다 (사진 26).

ㄱ) 大成殿

大成殿의 平面은 5間, 側面 3間으로 區劃하여 그 規模를 比較的 크게 잡았는데, 正面 5間중 中央 3間에만 前面 1間通을 개방한 平面構成이다.

窓戶는 中央 3間에 모두 四分間 빗살문을 달았으며, 그 내부는 通間으로 하여 장마루를 깔고 위패를 奉安하였다.

構造는 시멘트로 덮은 기단위에 前面 柱列 中央 2개소에만 높이 72cm의 柱形八角長礎石을 놓았고 나머지는 모두 덩벙주초석을 놓고 원형기둥을 세웠다.

공포는 無出目 二翼工系統인데 比較的 樣式을 잘 따르고 있으며, 창방위에는 중앙에 小累가 끼워져 있는 長花盤을 각간에 2具씩 배치하여 柱心道里 長舌을 받쳐 주고 있다.

架構는 二重樑으로 된 一高柱 五樑집으로 宗樑위에는 뜬창방이 결구된 높은 제형 대공을 설치하여 宗道里와 함께 옥개荷重을 받치고 있으며, 지붕은 홀처마 八作지붕을 이루고 있다.

ㄴ) 明倫堂 (사진 27, 28)

경내의 입구에 位置하고 있는 明倫堂은 正面 5間, 側面 2間の 평면으로 구획하였는데, 5間중 中央 3間에는 通間으로 하여 장마루를 깔고 儒生들의 講學의 場所로 사용하였고 兩端 1間에는 온돌방을 각각 드린 후 온돌아궁이의 함실을 만들기 위하여 溫突房 앞으로 半間の 마루를 드렸다.

構造는 자연석으로 높게 쌓은 기단위에 덩벙柱礎石을 놓고 원형기둥을 세웠고 그 위 공포는 典型的인 無出目 一翼工 樣式이며, 창방위에 小累가 各間에 3個씩 끼워져 柱心道里 長舌을 받쳐 주고 있다.

架構는 前後 平柱위에 대들보를 걸고 동자주 대신에 包를 짜서 宗樑을 받쳤고 宗樑 上部에는 뜬창방이 결구된 제형대공을 설치하여 宗道里와 함께 지붕 荷重을 받쳤고, 지붕은 홑처마 八作지붕을 이루고 있다.

1975년에 東齊 및 內三門 補修가 있었고 82년에는 明倫堂 지붕 補修, 그리고 87년에는 明倫堂 基壇 補修工事が 있었다.

3. 泰安郡

(1) 泰安鄉校(地方文化財資料 第198號)

① 位 置 ; 泰安郡 泰安邑 東門里

② 遺跡現況 ;

泰安鄉校는 朝鮮 太宗 6년(1406) 大將軍 金중구가 東門里에 草家로 創建한 후 朝鮮 肅宗 46年(1720)에 지금의 位置로 다시 移建한 것으로 전하여 지고 있다.

이 鄉校의 配置는 낮은 野山을 背景으로 하여 南向하여 건립되었는데, 入口쪽으로 面하여 홍살이 세워져 있고 이곳에 지나면 正面 3間, 側面 1間の 소슬三門形의 外三門이 나 있다.

이 外三門을 들어서면 明倫堂이 있는데 明倫堂 앞마당 左右에는 수령 250여년 된 큰 은행나무 2그루가 있고 明倫堂 후면으로는 우측에 正面 5間, 側面 2間에 홑처마 八作지붕으로 된 東齊와 正面 3間, 側面 2間에 홑처마 맞배지붕의 西齊가 각각 마주보고 配置되어 있다.

明倫堂 空間의 뒤에는 四塊石 담장을 두른 일곽의 垞地에 內三門과 大成殿이 배치되어 있어서 泰安鄉校는 全體的으로 前堂後廟配置法을 따르고 있다.

ㄱ) 大成殿 (사진 29. 30)

大成殿의 평면은 正面 3間, 側面 3間으로 구획한 후 前面 1間通을 開放하여 前退를 만든 開放型 평면이며, 窓戶는 正面 3間에 모두 쌍여닫이 板張門을 달고 그 내부를 우물마루로 깔아 位牌을 奉安하였다.

構造는 加工이 잘 된 자연석을 2벌대로 築造한 기단위에 前面 柱列에는 圓形 長礎石을, 두번째 柱列에는 원형의 柱坐가 彫出된 方形礎石을, 그리고 그 뒤에는 덩벙 柱礎石과 방형礎石을 混合하여 놓고 원형기둥을 세웠다.

공포는 無出目 二翼工系統으로 볼 수 있으나 樣式的 變形이 매우 심한 편이며, 창방위에는 중앙에 小累가 끼워진 花盤形의 草刻盤을 각간에 1具씩 配置하여 柱心道里를 받쳤다.

架構는 三重樑으로 된 一高柱七樑집으로서 그 規模가 比較的 크며, 中宗樑 상부에 뜬창방이 걸구된 제형대공을 설치하여 宗道里와 함께 옥개荷重을 받도록 하였고 지붕은 겹처마 맞배지붕을 이루고 있다.

ㄴ) 明倫堂 (사진 31. 32)

境內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明倫堂은 正面 5間, 側面 2間の 평면으로 구획한 후 中央 3間에는 우물마루를 깔아 儒生들의 講學場所로 이용하고 그 兩斷 1間씩에는 온돌방을 드렸는데 후에 前面 1間通을 달아 내어 前退로 만들었다.

構造는 가공된 장대석으로 築造한 기단위에 후에 달아 낸 前面 柱列에는 낮은 원형長礎石을, 그리고 후면에는 원형柱座가 彫出된 礎石을 각각 놓고 원형기둥을 세웠는데 공포는 無出目 一翼工으로 구성되었고 建物 후면의 창방 위에만 小累가 3個씩 끼워져 있고 전면에는 막을 처리하였다.

架構는 前後 平柱위에 대들보를 걸고 그위에 童子柱를 세워 宗樑을 가구한 二重樑 가구이며, 宗樑 상부에는 波蓮臺工을 설치하여 宗道里와 함께 屋蓋荷重을 받고 있으며, 지붕은 홑처마 八作지붕을 이루고 있다.

IV. 書院建築

1. 瑞山市

(1) 聖巖書院(地方文化財資料 第205號) (사진 33)

① 位 置 ; 瑞山市 邑内洞 673-1

② 遺跡現況 ;

聖巖書院은 문희공 柳思庵 위숙과 文貞公 鶴州 金弘郁 兩先生의 香祀를 지내는 곳으로서 肅宗 45年(1719)에 創建되었고 景宗 1年(1721)에 聖巖書院의 賜額을 받았다.

聖巖書院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는 소슬三門形의 外三門을 들어서면 그 좌우로 면하여 正面 3間, 側面 2間에 홀쳐마 八作지붕으로 된 東西兩齋가 서로 마주 바로보고 있고 여기에서 사당으로 오르는 階段 위에는 聖巖書院 重建碑가 세워져 있다.

그리고 이 계단을 올라 內三門을 들어 서면 四塊石 담장을 두른 일곽의 대지내에 正面 3間, 側面 2間의 평면으로 구획된 사당이 배치되어 있는데 前面 半間에 前退를 만든 후 그 내부에 우물마루를 깔고 位牌를 奉安하였다.

構造는 시멘트 기단위에 전면 柱列에는 方形礎石위에 柱形長礎石을, 후면에는 덩벙柱礎石을 각각 놓은 후 원형기둥을 세웠는데, 공포는 無出目 二翼工系統이나 변형된 形式이다.

창방위에는 雲工이 끼워진 小累가 정면과 측면간에 3具씩, 그리고 후면으로는 雲工이 없이 小累만이 4具씩 배치되어 柱心道里를 받고 있으며, 架構는 一高柱 五樑집에 지붕은 겹쳐마 八作지붕을 이루고 있다.

2. 瑞山郡

(1) 松谷書院(地方文化財資料 第207號) (사진 34. 35)

① 位 置 ; 瑞山郡 仁旨面 艾井 495

② 遺跡現況 ;

瑞山에서 浮石面으로 가는 國道 右側으로 주변이 松林으로 우거져 있는 展望 좋은 곳에 건립되어 있는 松谷書院은 朝鮮 肅宗 20年(1694)에 創建되었다가 1870年 大院君의 書院 철거령에 따라 撤去된 後 다시 1909年 柳養穆등에 의거 再建된 書院으로 現在 松谷祠에는 鄭臣保를 主享으로 9名の 位牌를 配享하고 있다.

경내 입구에는 外三門과 講堂, 그리고 東西兩齋가 ㄷ字形 平面으로 구성되어 한 건물에 건립되어 있는데 그 앞 마당 진입로 入口 좌우측으로 면하여 수령 550年 된 향나무가 위치하고 있어 경내의 古風스러운 분위기를 한층 더 크게 하여주고 있다.

松谷祀는 正面 3間, 側面 2間으로 평면을 구획한 후 그 내부를 通間으로 하여 우물마루를 깔고 그 후면으로 9名の 位牌를 配享하였다.

構造는 1段의 장대석 기단위에 회강석 네모뿔형 柱礎石을 놓고 方形기둥을 세웠는데 柱上部에 柱頭는 생략되었고 간결한 樑棒만을 建物 内外 방향으로 결구시켰다.

架構는 前後 平柱위에 大樑과 宗樑을 걸은 二重樑이며, 宗樑 상부에 뜬창방이 결구된 제형대공을 설치하여 종도리와 함께 屋蓋荷重을 받고 있으며, 지붕은 홑처마 八作 지붕을 이루고 있다.

V. 樓亭 建築

1. 瑞山郡

(1) 鎮南樓

① 位 置 ; 瑞山郡 海美邑 邑內里

② 遺跡現況 ;

海美 邑城의 南門에 해당하는 門樓로서 花崗石 龕에 門樓大石에 『皇明弘治四年辛亥建』이라는 記錄이 있는데, 이는 朝鮮 成宗 22年(1491)에 해당하며, 憲宗 13年(1847)에 縣監 曺 營將 朴閔換에 의하여 大修築되었다.

鎮南樓는 正面 3間, 側面 2間으로 평면을 구획한 후 그 내부를 通間으로 하여 우물마루를 깔고 그 四面에 간결한 난간을 돌려 樓로 사용하였다.

構造는 礎石위에 柱形八角形의 長礎石을 놓고 圓形기둥을 세웠는데, 공포는 전형적인 無出目 二翼工樣式이며, 창방 위에는 小累가 끼워진 長花盤이 中央間 3具, 兩夾間과 側面間에 각각 2具씩 배치하여 柱心道里를 받쳤다.

架構는 前後 平柱위에 大樑을 걸고 그위에 包를 짜서 宗樑을 받고 있는 二重樑 구조이며, 宗樑 상부에는 扞창방이 걸구된 波蓮臺工을 設置하여 종도리와 함께 屋蓋荷重을 받도록 하였고 지붕은 八作지붕을 이루고 건물의 정면에 『鎮南樓』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1971년에 解體 復元하였다.

2. 泰安郡

(1) 懷夷亭(地方有形文化財 第123號) (사진 36)

① 位 置 ; 泰安郡 泰安邑 東門里 573

② 遺跡現況 ;

『憬夷』란 건물의 名稱은 『憬』은 遠行을, 『夷』는 平安하라는 意味로서 『멀리 航海하는 使臣의 平安함』을 祈願하기 위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景夷亭의 건립년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朝鮮 定宗 1年(1339)에서 2年 사이로 推定되고 있으며, 그 후에도 여러차례 重修한 흔적이 보이고 있다.

이 건물은 지세에 따라서 먼저 잘 가공된 장대석으로 3~4벌대로 기단을 조성한 후 다시 1段의 自然石 기단을 놓아 二重의 비교적 높은 기단을 만들었는데, 그 위에는 큰 할석의 덩벙柱礎石을 놓고 원형기둥을 세웠다.

景夷亭의 平面은 正面 3間, 側面 3間으로 구획하여 기둥 사이에 간결한 난간을 두른 후 그 내부를 通間의 우물마루를 깔아 넓은 樓 空間을 만들어서 朝鮮時代 中國의 使臣이 安興港을 통하여 들어 올 때 休息을 취하던 場所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태안 방어사가 軍事에 관한 명령을 내릴때에도 이곳을 사용하였던 곳으로 전하여 지고 있다. 또한 每年 正月 보름날 밤에는 住民들이 이곳에 모여서 宰牛祭를 지내며 住民들의 安寧을 祈願하기도 하였다.

공포는 전형적인 無出目 二翼工系統이며, 창방으로 결구된 前後面의 柱間에는 長花盤을 각각 3具씩을 배치한 反面 측면간에는 중앙간 2具, 兩端間 1具씩을 배치하여 柱心道里를 받쳐 주고 있는데 이는 구조적인 部材로서 뿐만 아니라 莊嚴한 外觀을 이루려는 官衙建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手法이다.

架構는 大量 상부 兩側에 동자주를 세워 宗樑을 받도록 하였으며, 宗樑 중앙에 파련대공을 설치하고 여기에 종도리와 뜬창방을 가구하여 二重道里로 지붕荷重을 받치도록 하였고 지붕은 겹처마 八作지붕을 이루고 건물의 전면에 『憬夷亭』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VI. 祠 宇 建 築

1. 瑞山郡

(1) 富城祠(地方文化財資料 第199號) (사진 37. 38)

① 位 置 ; 瑞山郡 地谷面 山城里 645-5

② 遺跡現況 ;

地谷面 富城山 남쪽으로 位置하고 있는 富城祠는 孤雲 崔致遠先生의 影幀을 奉安하고 있는데, 원래 朝鮮 宣祖時에 地方 士林들이 祠宇를 건립한 후 位牌와 影幀을 모시고 『道忠祠』라 名하였다가 建물이 훼손되자 1913年에 現 위치에 再建하고 富城祠라 命名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富城祠는 正面 3間, 側面 1間の 外三門을 들어서면 그 좌우로 네모뿔형 柱礎石에 方形기둥을 세운 홀처마 八作지붕의 東西兩齋가 있으며, 이곳을 지나 조금 높게 整地한 일곽의 대지에 四塊石 담장을 돌려 祠堂을 만들었다.

內三門을 들어서면 正面 3間, 側面 2間으로 된 祠堂이 있는데 前面 1間通을 開放하여 前退을 만들었으며, 그 내부는 우물마루를 깔고 影幀을 安置하였고 窓戶는 正面 3間 모두 三分閣띠살문을 달았다.

構造는 가공이 잘 된 自然石 기단과 圓形礎石을 놓고 원형기둥을 세웠는데 공포는 無出目一翼工系이며, 창방 위에는 小累가 중앙간 4個, 양협간 3個씩을 놓아 柱心道里 長舌을 받쳤다.

架構는 一高柱五樑 집으로 宗樑위에는 뜯창방이 결구된 제형대공을 설치하여 宗道里를 받치고 있으며, 지붕은 겹처마 八作지붕을 이루고 있다.

1974年과 1981年에 祠堂을 補修하였고 1986年과 1987年 사이에 내삼문과 외삼문을 각각 新築하였다.

(2) 鄭忠信 祠堂(振忠祠) (地方文化財資料 第206號) (사진 39)

① 位 置：瑞山郡 地谷面 大要里 677

② 遺跡現況：

振忠祠는 忠武公 鄭忠信(1576~1636) 將軍의 影幀을 봉안하고 있는 由緒깊은 곳으로 瑞山에서 大山面으로 가는 國道邊 좌측의 地谷面에 위치하고 있다.

잘 정리된 경내의 中心에 위치하고 있는 이 祠堂의 평면은 正面 3間, 側面 2間으로 구획되어 있는데 前面 1間通을 개방하여 前退를 갖고 있으며, 그 내부는 通間으로 하여 우물마루를 깔고 중앙간 후면에 影幀을 安置하였다.

構造는 원형의 礎石위에 원형기둥을 세우고 공포는 典型的인 無出日 一翼工系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柱礎石, 기둥, 창방, 그리고 大樑은 시멘트 部材인 반면에 柱心道里와 長舌, 보머리, 翼工등은 舊材인 木材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1970年 開築時 部材의 부족으로 인한 結果로 보여지고 있으며, 창방과 柱心道里 사이에는 小累가 중앙간 4個, 양협간 2個씩이 끼워져 있다.

架構는 一高柱五樑집으로 지붕은 겹처마 八作지붕을 이루고 종도리 下端에 『檀紀 四千三百二年己酉月十九日巳時上樑』이라는 上樑文이 記錄되어 있고 건물의 정면에 國務總理 金鍾泌의 親筆인 『振忠祠』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朝鮮 仁祖 14年(1636)에 王命으로 건립된 후 1800年 5世孫 鄭世奧가 당진 정미면으로, 다시 1897年에 9世孫 鄭在乚이 현위치로 移建하였으며, 1970年에 開築하였다.

(3) 崇德祠 (사진 40)

① 位 置：瑞山郡 浮石面 江堂里 312

② 遺跡現況：

浮石面 江堂里에 所在하고 있는 崇德祠는 朝鮮 李太祖王의 4째아들인 懷安大君의 位牌를 奉安하고 있는데, 경내 입구에 세워진 正面 3間, 側面 1間에 홀처마 맞배지붕의 外三門을 들어서면 좌측으로 崇德祠 沿革碑가 우측으로는 崇德祠碑가 最近에 건립되어 있다.

內三門으로 구획된 내부에 南向하여 건립된 祠堂은 正面 3間, 側面 2間の 一字形

평면으로 構成되었는데, 前面 1間通을 開放하여 前退를 만들었으며, 그 내부에는 우물마루를 깔고 위패를 安置하였다.

構造는 2벌대의 장대석 기단 위에 90cm 높이의 八角柱形長礎石을 전면에 놓고 원형기둥을 세웠는데, 후면으로는 방형기둥을 세웠다.

공포는 납도리집 系統이나 柱上部에 간결한 樑棒이 결구되어 있으며, 지붕은 홑처마 八作지붕을 이루고 있다.

1988년에 외삼문을 新築하였으며, 막들담장 施設을 하였다.

(4) 宣靖廟 (사진 41)

① 位 置 : 瑞山郡 雲山面 余美里 168

② 遺跡現況 :

雲山面 余美리에 所在하고 있는 이 祠宇는 定宗 恭靖王 第 4男인 宣靖君의 位牌를 奉安하고 있는 곳이다.

宣靖廟의 平面은 正面 3間, 側面 2間으로 畵軸하였는데 前面 1間通을 開放하여 前退를 두었으며, 그 내부에 마루를 깔고 位牌를 奉安하였다.

構造는 자연석으로 築造한 기단위에 전면에만 80cm 높이의 柱形長礎石을 놓고 원형기둥을 세운 反面 후면에는 방형기둥을 세웠다.

기둥상부의 공포는 無出目 二翼工 形式으로 볼 수 있으나 裝飾과 變形이 큰 狀態이다.

架構는 一高柱五樑 집으로 宗樑위에 제형대공을 설치하여 종도리를 받고 있으며, 지붕은 겹처마 맞배지붕을 이루고 있다.

2. 泰安郡

(1) 崇義祠(地方文化財資料 第300號) (사진 42~44)

① 位 置：泰安郡 南面 兩潛里 338

② 遺跡現況：

우리나라 蘇州賈氏의 始祖인 中國人 가유약 將軍과 아들 가성將軍 및 孫子 가침 將軍의 位牌를 奉安하고 있는 祠堂으로 정유재난때 父子가 釜山에서 함께 戰死하자 孫子인 가침이 中國으로 歸國하지 않자 哲宗이 이를 알고 二忠一孝의 정문을 下賜한 祠宇이다.

崇義祠는 외삼문을 들어서면 좌우로 제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조금 높게 정지한 일곽의 대지에 四塊石 담장을 둘러 祠堂을 모시고 있는데, 祠堂의 입구인 正面 3間の 내삼문에는 哲宗이 下賜하였다는 二忠一孝의 정문이 걸려 있다.

正面 3間, 側面 2間으로 구획된 이 祠宇는 전면에 半間の 前退을 만들고 그 내부를 우물마루의 通間으로 하여 중앙간 북단에 3個의 감실을 만들어 父子와 孫子의 位牌를 각각 봉안하였다.

構造는 1段의 장대석 기단위에 네모뿔형 柱礎石을 놓고 방형기둥을 세웠으며, 주 상부에 납도리의 柱心道里와 長舌만이 간결하게 걸구되었다.

架構는 一高柱五樑집으로 宗樑 上部에 제형대공을 설치하여 종도리와 함께 屋蓋 荷重을 받도록 한 五樑집으로 지붕은 홀처마 맞배지붕을 이루고 있다.

(2) 安陽祠 (사진 45. 46)

① 位 置：泰安郡 近興面 安基里

② 遺跡現況：

松林이 육어진 낮으막한 野山에 입구로 면하여 正面 4間, 側面 2間に 홀처마 우진각지붕으로 된 東齊인 守軌齊와 西齊가 나란히 위치하고 있으며, 이보다 조금 높게 整地된 일곽의 대지에 民齊先生의 道學을 추모하기 위하여 건립된 安陽祠가 있다.

祠堂 입구에는 正面 3間, 側面 1間の 소슬 三門形의 내삼문이 있고 安陽祠 주위에는 四塊石 담장이 둘러져 있다.

安陽祠는 正面 3間, 側面 2間の 평면인데 前面 1間은 우물마루의 通間으로 하여

民齊先生의 鎭影과 位牌를 奉安하였다.

構造는 1벌대로 쌓은 1段의 장대석 기단위에 전면에만 圓形礎石과 원형기둥을 세웠고 후면으로는 방형초석을 놓고 방형기둥을 세웠다. 공포는 柱頭를 省略한 채 樑棒만을 初翼工 뿌리로 하여 결구하였는데 이 부재도 内部로는 생략되어 簡略化 하였고 창방 위에는 7개의 小果가 배치되어 柱心道里 長舌를 받고 있다.

가구는 一高柱五樑집으로 宗樑 상부에 키가 높은 제형대공을 設置하여 종도리를 받고 있으며, 지붕은 전면으로만 겹처마로 八作지붕을 이루고 있다.

또한 『孔夫子嶽降二千四百七十九年戊辰三月二十六日未時入柱上樑』이라는 上樑文이 있으며, 입구에 세워져 있는 沿革 案内文에 의하면 1928年 戊辰 11월에 祠宇 本堂을 創建하고 守軌齋 1棟 5間 및 齊直舍 4間을 세웠는데 1956年 丙申 正月에 守軌齋가 全燒한 것을 同年 2월에 重建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1969年 乙酉 2월에 祠宇 本堂을 重修하였다.

(3) 利城君 祠堂 (사진 47. 48)

① 位 置 ; 泰安郡 所遠面 松峴里

② 遺跡現況 ;

이 祠堂은 瑞山에서 泰安으로 가는 國道邊 우측의 松峴里에 大小山 밑에 소재하고 있다.

利城君은 본래 朝鮮 成宗의 10째 아들로서 이름은 李愼, 字는 公肅이고 諡호는 章平으로서 燕山君 3年(1497)에 李城君에 被封되었으며, 병자호란 당시 所近里를 거쳐 松峴里에 落鄕하여 生活하다가 別世하였다. 그후 李城君은 明宗이 即位하자 兩朝願從의 功으로 一等功臣이 되었는데, 이 祠堂은 그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

海松이 울창한 野山 입구로 면하여 南向하여 正面 3間, 側面 2間으로 건립된 이 사당은 건물의 전면으로 退間을 두었고 그 내부를 우물마루의 通間으로 하여 位牌를 봉안하였다.

構造는 시멘트 기단위에 건물의 전면으로 柱形長礎石위에 원형기둥을 세웠으나 후면에는 네모뿔형 柱礎石위에 방형기둥을 세웠다.

기둥위에는 공포를 省略하여 간결하게 架構를 꾸몄으며, 지붕들은 一高柱五檼 집으로 宗樑위에 제형대공을 설치하여 여기에 종도리와 뜬창방을 결구하여 二重道里로 屋蓋荷重을 받치도록 하였다.

지붕은 겹처마 八作지붕이며, 比較的 規模가 작은 祠宇로서 1990年 門中에서 丹青工事を 實施하였다.

(4) 忠烈祠 (사진 49)

① 位 置 : 泰安郡 南面 達山里 山 98

② 遺跡現況 :

낮은 野山을 배경으로 시멘트블록 담장으로 둘러 쌓여진 境内를 들어 서면 그 좌우로 正面 3間, 側面 2間에 홀처마 八作지붕으로 된 建物 2棟이 배치되고 있는데 좌측의 건물은 一高柱五架檼집으로 『檀紀四千三百年丁未五月十四日』의 상량문이 있는 比較的 規模가 작은 건물이다.

또한 우측에 있는 건물은 前後 평주위에 大樑과 宗樑을 결구한 二重樑五架椽 집으로 내부에 마루를 깔고 後面 중도리에 『麗朝忠臣右正言贈成均大司成李存吾之閣』라는 정려 편액을 걸어 保存하고 있다.

(5) 高氏祠堂 (사진 50)

① 位 置 : 泰安郡 南面 兩潛里 283

② 遺跡現況 :

四塊石 담장으로 둘러진 경내에 北向으로 건립되어 있는 이 祠宇는 建物 正面에 걸려 있는 創建記 편액에 『戊寅8月』(1938)로 記錄되어 있고 또 기와는 『丙寅 4月』이라는 銘文이 있다.

이 祠宇의 平面은 正面 3間, 側面 2間으로 구획하였는데 前面 1間에 退마루를 달았다. 構造는 1段의 낮은 장대석 기단위에 덩벙柱礎石을 놓고 方形기둥을 세웠고 공포는 생략되어 간결한 道里집으로 구성하였다.

架構는 一高柱五〇집이며, 지붕은 홀처마 맞배지붕을 이루고 있다.

VII. 旌 閭 閣

1. 瑞山郡

(1) 金可近 孝孫門 (사진 51)

① 位 置 ; 瑞山郡 雲山面 葛山里 17

② 遺跡現況 ;

朝鮮 英祖 50年(1774)에 命旌된 정려로서 本貫은 安東이며 忠武公 金時敏의 5代孫인 仁祖때의 문장가였던 安豐君 金得信의 孫子인 金可近의 祖父에 대한 지극한 孝誠을 讚揚하기 위하여 건립되었다.

이 旌門은 正面 1間, 側面 1間으로 勾畵한 후 3面에 홍살을 두른 내부에 편액대신 石材로 家形의 碑石을 만들어 그곳에 『孝孫贈嘉喜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衙郡 摠府副摠管行折衝將軍兼中樞府事金可近之門崇禎大王五十年甲午四月命旌』의 命旌記를 陰刻하였다.

構造는 柱形 長礎石위에 원형기둥을 세운 후 공포는 典型的인 無出目 二翼工으로 構成하였고 창방 위에는 3具의 長花盤이 배치되어 柱心道里를 받고 있으며, 지붕은 겹처마 八作지붕을 이루고 있다.

(2) 金弘翼 忠臣門 (사진 52)

① 位 置 ; 瑞山郡 音巖面 遊溪里 山88-1

② 遺跡現況 ;

이 旌門은 本貫은 慶州이며, 號는 默齊인 金弘翼의 병자호란때 武功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되었다.

正面 1間, 側面 1間으로 평면을 만든 후 前面으로만 洪살을 두른 내부에 『有明朝 鮮忠臣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義禁府事五衙都摠官諡忠敏公行通訓大連山縣監金弘翼之

門 崇禎紀元後英宗辛酉命旌』의 편액이 걸려 있다.

構造는 八角柱形長礎石 위에 원형기둥을 세웠는데, 공포는 창방을 뿔목으로 하여 無出目一翼工으로 구성하였으며, 창방위에는 5個의 小累가 끼워져 柱心道里 長舌을 받쳐주고 있다. 지붕은 겹처마 八作지붕을 이루고 있다.

(3) 金有慶 孝子門 (사진 53)

① 位 置 ; 瑞山郡 音巖面 遊溪里 山88-1

② 遺跡現況 ;

朝鮮 英祖 27年(1761)에 孝貞公이란 시호와 함께 命旌된 정려로서 英祖 20年(1744)에 大司憲이 된뒤 工曹判書, 副提學, 都承旨 등을 지낸 金有慶의 父親에 대한 지극한 孝誠을 후세에 기리기 위하여 건립되었다.

이 旌門은 金弘翼 忠臣門과 한 울타리 내에 있는데, 正面 1間, 側面 1間으로 평면을 구획한 후 3面에 홍살을 두른 내부에 『孝子崇祿大夫行議政府左參贊兼經筵事五衙都摠府都摠官世子左賓客致仕奉朝賀贈諡孝貞公金有慶之門上之二十七年辛未十二月 日 命旌』의 정려문 편액을 걸었다.

構造는 八角 주초석 위에 원형기둥을 세운 후 공포를 전형적인 無出目二翼工으로 構成하였으며, 창방위에 3具의 長花盤이 배치되어 柱心道里 長舌을 받쳐주고 지붕은 겹처마 八作지붕을 이루고 있다.

(4) 金鶴芳 孝子門 (사진 54)

① 位 置 ; 瑞山郡 大山面 大路里 680

② 遺跡現況 ;

朝鮮 純祖 28年(1828)에 命旌된 정려로서 어려서부터 學問을 좋아하고 슬기로워서 일찌기 武科에 급제하여 司憲府의 監察을 거쳐 通政大夫에 이른 金鶴芳의 父親에 대한 효성을 後世에 기리기 위하여 건립되었다.

이 旌門은 正面 1間, 側面 1間으로 平面을 勾畵한 후 前面으로만 홍살을 두른 내부에 정려문 편액을 걸었다.

構造는 方形礎石위에 방형기둥을 세웠는데 공포는 道里系統으로 처리하였고 지붕은 홑처마 八作지붕을 이루고 있다.

(5) 林榮周 孝子門

① 位 置 ; 瑞山郡 地谷面 花川里

② 遺跡現況 ;

朝鮮 高宗 29年(1892)에 命旌된 정려로서 어려서 부터 父母에 대한 孝誠이 지극했던 林榮周의 孝行을 讚揚하기 위하여 건립되었다.

이 旌門은 別棟의 정려각을 건립하지 않고 現在 民家の 사랑채에 『孝子贈朝奉大夫童蒙教官任榮周之門上之二十九年壬辰四月命旌』의 정려문 편액을 걸고 있다.

(6) 崔孝敏, 崔萬澄 孝子門 (사진 55)

① 位 置 ; 瑞山郡 音巖面 道堂里 山1351-22

② 遺跡現況 ;

朝鮮 英祖 13年(1737)과 朝鮮 純祖 31年(1831)에 각기 命旌된 정려로서 同知中樞府事를 지낸 崔孝敏의 孝心과 그의 次子인 崔萬澄의 孝誠을 後世에 기리기 위하여 건립되었다.

이 旌門은 正面 2間, 側面 1間에 전면으로만 홍살을 두른 내부에 『孝子嘉喜大夫中樞府事崔孝敏之門』과 『孝子故學生崔萬澄之門』의 정려문 편액이 걸려 있다.

構造는 方形의 柱形 長礎石위에 원형기둥을 세운 후 공포를 생략하고 간결한 道里系統으로 架構하였으며, 지붕은 홑처마 八作지붕을 이루고 있다.

(7) 昌寧成氏 烈女門 (사진 56)

① 位 置；瑞山郡 八峰面 虎里

② 遺跡現況；

孔夫子 誕降 2485年(1933)에 鄉校 儒林에서 남편의 뒤를 따라 殉死한 張基德의 妻인 昌寧成氏의 정렬을 기리기 위하여 表旌하였다.

이 旌門은 正面 1間, 側面 1間으로 구획된 내부에 『烈女學生張基德妻昌寧成氏之門』의 열려문 편액을 걸었다.

構造는 네모뿔형 柱礎石에 원형기둥을 세웠으며, 지붕은 홑처마 맞배지붕을 이루고 있다.

(8) 鞠賢南 孝子門 (사진 57)

① 位 置；瑞山郡 浮石面 芝山里

② 遺跡現況；

朝鮮 肅宗 21年(1695)에 命旌된 正려로서 鞠賢南의 父親에 대한 孝行을 後世에 기리기 위하여 건립되었다.

이 旌門은 正面 1間, 側面 1間으로 平面을 구획한 후 4面으로 홍살을 두른 내부에 正려문 편액을 걸었다.

構造는 1벌대의 柱形 長礎石을 놓고 방형기둥을 세웠으며, 지붕은 홑처마 맞배지붕을 이루고 있다.

(9) 崔鎬周 孝子門 (사진 58)

① 位 置；瑞山郡 地谷面 山城里

② 遺跡現況；

1842年에 命旌된 正려로서 父親에 대한 孝行을 後世에 널리 讚揚하기 위하여 건립하였다.

이 旌門은 正面 1間, 側面 1間으로 평면을 만든 후 정면으로 만 홍살을 두른 내부에

『孝子正三品通政大夫秘書院承領注崔鎬周之門』의 정려문 편액을 걸었다.

構造는 낮은 柱形 장초석위에 방형기둥을 세웠으며, 지붕은 홑처마 맞배지붕을 이루고 있다.

2. 泰安郡

(1) 棠山里 三代孝子碑閣 (사진 59, 60)

① 位 置 ; 泰安郡 梨園面 棠山里 605

② 遺跡現況 ;

이 旌門은 李學堯, 李鍾國, 李龜鎬등 3대에 걸쳐 내려온 孝行을 後世에 널리 讚揚하기 위하여 건립되었다.

正面 3間, 側面 1間の 소슬삼문형으로 西向하여 건립된 旌門은 높게 솟은 중앙간 전면에 홍살을 두르고 그 内部에 세분이 下賜받은 정려문의 편액을 위에서 아래로 차례로 걸었으며, 그 좌우 1間씩의 翼室에는 우물마루를 깔고 祠堂과 祭器庫로 각각 사용되고 있다.

構造는 자연석으로 築造한 기단위에 八角의 장초석을 놓고 中央 부분에는 원형기둥을 세웠으나 양 끝의 기둥은 八角으로 다듬은 기둥을 세웠다.

공포는 중앙간 기둥 위에는 無出目一翼工으로 구성하였는데 翼工뿌리를 둥글게 마무리 하였고 창방 위에는 小累가 5개 끼워져 있어 주심도리를 받고 있다.

架構는 大槩에 뜬창방이 결구된 제형 대공을 직접 놓고 종도리를 받치고 있는 三標집으로 지붕은 겹처마 맞배소슬 지붕을 이루고 있다.

(2) 李希列 頌德碑閣 (사진 61)

① 位 置 ; 泰安郡 泰安邑 東門里

② 遺跡現況 ;

泰安邑에서 瑞山市로 가는 國道邊 좌측에 인접되어 있는 이 碑閣은 前 參判 李希列 송덕비의 保護閣이다.

正面 1間, 側面 1間으로 구획하여 4面에 홍살을 두른 내부에 頌德碑가 세워져 있다. 構造는 八角 장초석 위에 원형기둥을 세웠으며, 공포는 전형적인 無出目 二翼工 樣式으로 구성하였다. 창방위에는 雲工이 끼워진 長花盤을 각간에 2具씩 배치하여 柱心道里 長舌를 받쳤으며, 지붕은 겹처마 사모지붕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비각 좌측으로 4基와 頌德碑와 1基씩의 孝行碑와 選政碑가 나란히 세워져 있다.

(3) 金宗熙 孝子門 (사진 62)

① 位 置; 泰安郡 泰安邑 東門里 415

② 遺跡現況;

孝子 金宗熙와 그의 妻 慶州金氏의 지극한 孝行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되었다.

四塊石 담장으로 둘러져 있는 이 旌門은 正面 1間, 側面 1間으로 평면을 만든 후 4面으로 홍살을 두른 내부에 『孝子金宗熙婦慶州金氏之門』의 정려문 편액을 걸었다.

構造는 가공된 장대석으로 쌓은 기단위에 八角의 柱形 장초석을 놓고 圓形기둥을 세웠는데, 공포는 無出目 二翼工系統으로 구성하였다. 창방위에는 小累가 끼워진 長花盤을 前後面에 3具씩, 兩側 面間에는 2具씩을 配置하여 柱心道里 長舌를 받쳤으며, 지붕은 겹처마 八作지붕이다.

(4) 孫倬洙 孝子門 (사진 63)

① 位 置; 泰安郡 梨園面 官里 889

② 遺跡現況;

이 旌門은 孝子 孫倬洙의 父母에 대한 孝行을 널리 기리기 위하여 건립되었다.

正面 1間, 側面 1間으로 구획한 후 전면에만 홍살을 두른 내부에 『孝子孫倬洙之門』의

정려문 편액을 걸었다.

構造는 네모뿔형 長礎石위에 원형기둥을 세웠는데, 공포는 無出目 一翼工 系統이며, 창방위에는 雲工이 결구된 小累가 4具씩 배치되어 柱心道里를 받았다.

지붕은 겹처마 맞배지붕이며, 이 정려문 左側에는 수령 約 150여년 된 큰 百日紅 나무가 있다.

(5) 密陽朴氏 孝婦門 (사진 64)

① 位 置：泰安郡 近興面 安基里

② 遺跡現況：

咸成根의 妻인 密陽朴氏가 시모 모시기를 精誠으로 하였고 남편 모시기를 至誠으로 한 그의 孝行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하였다.

正面 1間, 側面 1間으로 구획한 후 3面으로 홍살을 두른 내부에 『烈女恭人密陽朴氏之門』의 열려문 편액이 걸려있다.

構造는 1段의 장대석 기단위에 네모뿔형 長礎石을 놓고 그위에 원형기둥을 세웠는데 공포는 無出目 二翼工으로 構成하였다. 창방 위에는 長花盤을 前後面 3具씩, 兩側面은 2具씩을 놓아 주심도리를 받쳤으며, 지붕은 겹처마 八作지붕을 이루고 있다.

(6) 東萊鄭氏 烈女門 (사진 65)

① 位 置：泰安郡 南面 新場里

② 遺跡現況：

朴明道의 妻인 東萊鄭氏의 남편에 대한 지극한 孝行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되었다.

正面 1間, 側面 1間으로 평면을 만든 후 4面으로 홍살을 두른 내부에 『學生朴明道妻烈婦東萊鄭氏之門』의 정려문 편액이 걸려 있다.

構造는 시멘트 기단위에 원형의 柱形 장초석을 놓고 원형기둥을 세웠는데, 공포는 無出目二翼工으로 가구하였으나, 柱頭가 省略되는 등 退化된 手法이며, 창방위에는 裝飾화된 花盤을 1具 놓았다.

지붕은 겹처마 우진각지붕을 이루고 있다.

VIII. 神 堂

1. 泰安郡

(1) 黃島里 神堂 (사진 66)

① 位 置 ; 泰安郡 南面 黃島里

② 遺跡現況 ;

이 神堂은 울창한 古木으로 둘러 쌓여진 皇島里 마을 뒷산에 블록담장을 치고 그 안에 원당과 각시당 등 2동의 건물을 나란히 배치하였다.

좌측에 있는 원당은 正面 1間, 側面 1間으로 구획된 내부에 畵像을 봉안하고 지붕은 겹처마 八作지붕으로 만들었는데 出入을 지붕 形態로 보아 側面間에서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원당의 좌측으로 隣接되어 正面 1間, 側面 1間の 조적조로 건축된 내부에 각시화상을 安置한 각신당이 사모지붕을 이루며 배치되었는데, 이 神堂에서는 每年 陰曆 正月 初이튿날부터 初三日까지 豐漁祭를 성대하게 드리고 있다.

IX. 古 住 宅

1. 瑞山郡

(1) 金基鉉 家屋(重要民俗資料 祭199號) (사진 67~70)

① 位 置 ; 瑞山郡 音巖面 遊溪里 465

② 遺跡現況 ;

한다리 마을이라 부라는 平地마을에 낮은 野山을 背景으로 배치된 이 家屋은 ㄷ字形의 안채와 ㄱ字形의 사랑채가 전체적으로 튼 ㅁ字形의 평면을 이루면서 자리잡고 있다. 또한 입구로 면하여 대문간과 행랑채, 그리고 안채의 중문 옆에 광채와 草堂이 위치하고 있다.

ㄷ字形의 안채는 건물의 中央 부분에 있는 2間通間의 大廳을 중심으로 그 좌우로 안방과 건넌방이 있고 이어서 부엌과 庫房등이 붙어 있다.

構造는 가공이 잘된 1段의 장대석 기단위에 네모뿔형 柱礎石을 놓고 방형 기둥을 세웠는데 공포는 간결한 굴도리 집으로 꾸몄다.

架構는 一高柱五樑집으로 宗樑위에 제형대공을 設置하여 종도리와 함께 옥개荷重을 받도록 하였고 지붕은 홑처마 八作지붕을 이루고 있다.

附屬建物들은 여러 부분이 改造되었지만 안채와 사랑채의 狀態로 보아 대체로 19세기 중반에 건립된 古宅으로 보이고 있다.

(2) 柳基詳 家屋 (사진 71. 72)

① 位 置 ; 瑞山郡 雲山面 余美里

② 遺跡現況 ;

松林이 옥어진 낮은 野山을 背景으로 南向하여 자리잡은 이 古宅은 一字形의 안채와 행랑채, 광채, 그리고 중문채가 안마당을 중심으로 튼 ㅁ字形을 이루면서 배치되었고

다시 그 우측으로 사랑마당을 가운데에 놓고 ㄱ字形의 사랑채와 행랑채가 각각 달려 있다.

正面 7間, 側面 2間の 안채는 2間通間の 넓은 大廳을 중심으로 그 좌우에 2間の 안방과 1間の 건넌방을 만든 후 안방 옆으로 2間通間の 큰 부엌을 드렸다.

構造는 2벌대로 쌓은 기단위에 방형주초석을 놓고 방형기둥을 세웠는데, 柱上部는 남도리 系統으로 구성하였다.

架構는 一高柱五檼집으로 宗樑 위에는 뜬창방이 결구된 제형대공을 놓고 종도리와 함께 옥개荷重을 받치도록 하였고 지붕은 홑처마 八作지붕을 이루고 있다.

己未年인 1919년에 建築되었으며, 周邊 景觀과 잘 어울리고 原形 保存이 比較的 잘 된 古住宅이나 1989년에 중문채를 헐어내고 그 자리에 現代式 建물을 新築하였다.

(4) 柳正魯 家屋 (사진 73. 74)

① 位 置 ; 瑞山郡 雲山面 余美里 168

② 遺跡現況 ;

뒷산의 松林과 後園의 대나무 숲으로 우거진 展望 좋은 곳에 南向하여 건축된 이 古宅은 대문을 들어서면 입구로 면하여 正面 3間, 側面 2間の 一字形 평면에 홑처마 八作지붕으로 된 사랑채가 있다. 그리고 그 右側으로 안채가 外部에서 직접 들여다 보이지 않도록 꺾여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中門을 들어서면 안채가 있다.

ㄱ字形의 평면으로 된 안채는 먼저 2間通間の 넓은 大廳을 만들고 그 좌측에 1間の 건넌방을 만들었는데, 이 방 앞으로 半間의 퇴마루를 두어 그 밑에 온돌아궁이의 함실을 드렸다. 그리고 꺾어지는 부분에 2間の 큰 안방을 드렸는데, 뒷쪽으로 半間의 퇴마루를 만들고 이어서 2間の 부엌과 1間の 온돌방을 만들었다.

構造는 가공이 잘 된 장대석으로 기단을 쌓은 후 네모뿔형 주초석을 놓고 方形의 기둥을 세웠는데, 공포가 없이 道里계통으로 가구하였다.

架構는 一高柱五檼집으로 종량위에 제형대공을 세워 종도리와 함께 옥개荷重을 받도록 하였고 지붕은 홑처마 八作지붕을 이루고 있다.

(4) 宣美齊 (사진 75. 76)

① 位 置 ; 瑞山郡 雲山面 余美里

② 遺跡現況 ;

宣靖廟 바로 옆에 隣接해서 南向으로 건립된 이 古宅은 ㄱ字形의 안채와 ㄴ字形의 중문채가 안마당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튼 ㅁ字形으로 배치되었다.

ㄱ字形 平面의 안채는 2間通間の 대청 空間을 중심으로 그 우측으로 2間通間の 건넌방을 드렸고 大廳 좌측인 꺾어지는 부분에는 2間通間の 안방을 만들었는데, 이 안방에 이어서 2間の 부엌을 드렸다.

構造는 가공이 잘 된 장대석으로 기단을 조성한 후 그 위에 네모뿔형 柱礎石을 놓고 방형기둥을 세웠다.

架構는 前後 平柱위에 大樑과 宗樑을 걸은 二重量 架構이며, 종량위에는 제형 대공을 설치하여 종도리와 함께 옥개荷重을 받도록 하였고 지붕은 겹처마 八作지붕을 이루고 있다.

2. 泰安郡

(1) 李性鎭 家屋 (사진 77. 78)

① 位 置 ; 泰安郡 近興面 安基里 492

② 遺跡現況 ;

낮은 야산을 背景으로 南向하여 정성드려 건축되어진 이 古宅은 庭園으로 잘 꾸며진 안마당을 사이에 두고 ㄱ字形의 안채과 중문과 행랑이 달린 ㄴ字形의 사랑채가 전체적으로 튼 ㅁ字形을 이루며 배치되고 있다.

ㄱ字形의 안채는 2間通間の 넓은 大廳을 중심으로 하여 그 右側으로 半間の 다락이 달린 2間の 옷방을 드렸는데, 다락밑은 온돌아궁이의 함실을 드렸다. 大廳의 좌측으로는 2間通間씩의 넓은 안방과 부엌을 각각 드렸으며, 부엌 옆으로 부엌에서 사용할 수

있는 1間の 찬방과 헛간, 그리고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1間の 광과 헛간을 드렸다. 또한 그 전면에 꺾이어서는 2間通間の 온돌방과 1間の 부엌을 다시 드려 生活空間을 極大化 하였다.

構造는 잘 가공된 1段의 장대석 기단위에 네모뿔형 주초석을 놓고 방형기둥을 세웠고 주상부에는 납도리 系統의 간결한 構造로 처리하였다.

架構는 一高柱五樑 집으로 宗樑 상부에 제형대공을 놓고 종도리와 함께 屋蓋荷重을 받도록 하였으며, 안채의 지붕은 겹처마 八作지붕이고 사랑채는 원래 초가이었으나 지금은 우진각 함석지붕으로 되어 있다.

이 古宅은 종도리 長舌 측면에 『昭和5年』이라는 上樑文에 의해 1930년에 건축된 건물임을 알 수 있다.

(2) 上玉里 崔氏宅(傳統建造物 第4號) (사진 79. 80)

① 位 置 ; 泰安郡 泰安邑 上玉里

② 遺跡現況 ;

泰安邑에서 瑞山市로 가는 國道를 따라 얼마쯤 가다가 그 좌측으로 다시 약 5km쯤 더 가다 보면 上玉리에 이르는데 이 古宅은 背山臨畚이 되는 周邊 造景이 수려한 곳에 ㄷ字形의 안채와 ㄱ字形의 사랑채가 거의 툼 ㄹ字形을 이루면서 東南向으로 배치되고 있다.

안채는 正面 7間, 側面 2間으로 되었는데 大廳 좌측에는 전면으로 함실과 다락이 달린 온돌방을 드렸으며, 大廳의 우측으로는 前退가 달린 2間の 방과 부엌, 그리고 倉庫가 있는데, 倉庫 앞에 안채로 다니는 中門이 나 있다.

안채 앞에 있는 사랑채는 正面 6間 가운데 中門의 좌측으로는 방과 헛간이 있으며, 그 右側 3間에는 방과 난간이 設置된 樓마루를 드려 家長이 주로 사용하는 사랑방으로 사용되었다.

構造는 모두 장대석으로 기단을 築造한 후 안채에서는 네모뿔형 주초석을, 사랑채에서는 덩벙주초석을 놓아 方形기둥을 세웠다. 기둥 위는 도리집 系統으로 간결하게

처리하였고 架構는 四樑집으로 구성하였는데, 1989년에 부분적으로 舊材를 사용하여 다시 초가집으로 復元하여 傳統建造物 4號로 지정하여 管理하고 있다.

(3) 李東換 家屋 (사진 81~84)

① 位 置 ; 泰安郡 梨園面 棠山里 605

② 遺跡現況 ;

대나무가 우거진 낮은 야산을 背景으로 높은 築臺을 쌓아 造成된 대지위에 ㄱ字形의 안채와 ㄴ字形의 바깥사랑채가 전체적으로 튼 口字形을 이루며 南向하여 배치되고 있다.

ㄱ字形으로 된 안채는 2間通間の 大廳을 중심으로 우측으로는 前退가 달린 건넌방이 있고 그 좌측으로는 2間の 안방을 드렸는데, 안방 앞에는 부엌과 그리고 부엌에서 사용한 庫房과 外部에서 사용하는 倉庫가 각각 1間씩 붙어 있다.

또한 ㄴ字形의 바깥사랑채는 꺾어지는 부분에 전면으로 退마루가 달린 3間の 넓은 사랑방을 드렸는데, 그 좌측에는 1間씩의 中門과 광이 있고 사랑방 후면으로는 1間씩의 온돌방과 中門, 그리고 외양간 등이 달려 있다.

構造는 잡석 기단위에 덩벙柱礎石을 놓고 方形기둥을 세웠는데 樣式은 간결한 납도리집 系統이며, 架構는 前後 平柱 위에 大樑과 宗樑을 걸구한 二重樑架構로서 宗樑 위에는 제형대공을 설치하여 종도리와 함께 荷重을 받치고 있다.

지붕은 홑처마 八作지붕으로 建築 당시는 草家이었으나 지금은 한식기와를 올렸고 종도리 長舌에 『崇禎紀元後丁酉二月十六日午時上樑』이라는 上樑文이 있어 1897년에 건립된 건물임을 알 수 있다.

X. 生 家

1. 瑞山郡

(1) 貞純王后生家(地方紀念物 第68號) (사진 85. 86)

① 位 置 ; 瑞山郡 音巖面 遊溪里 464

② 遺跡現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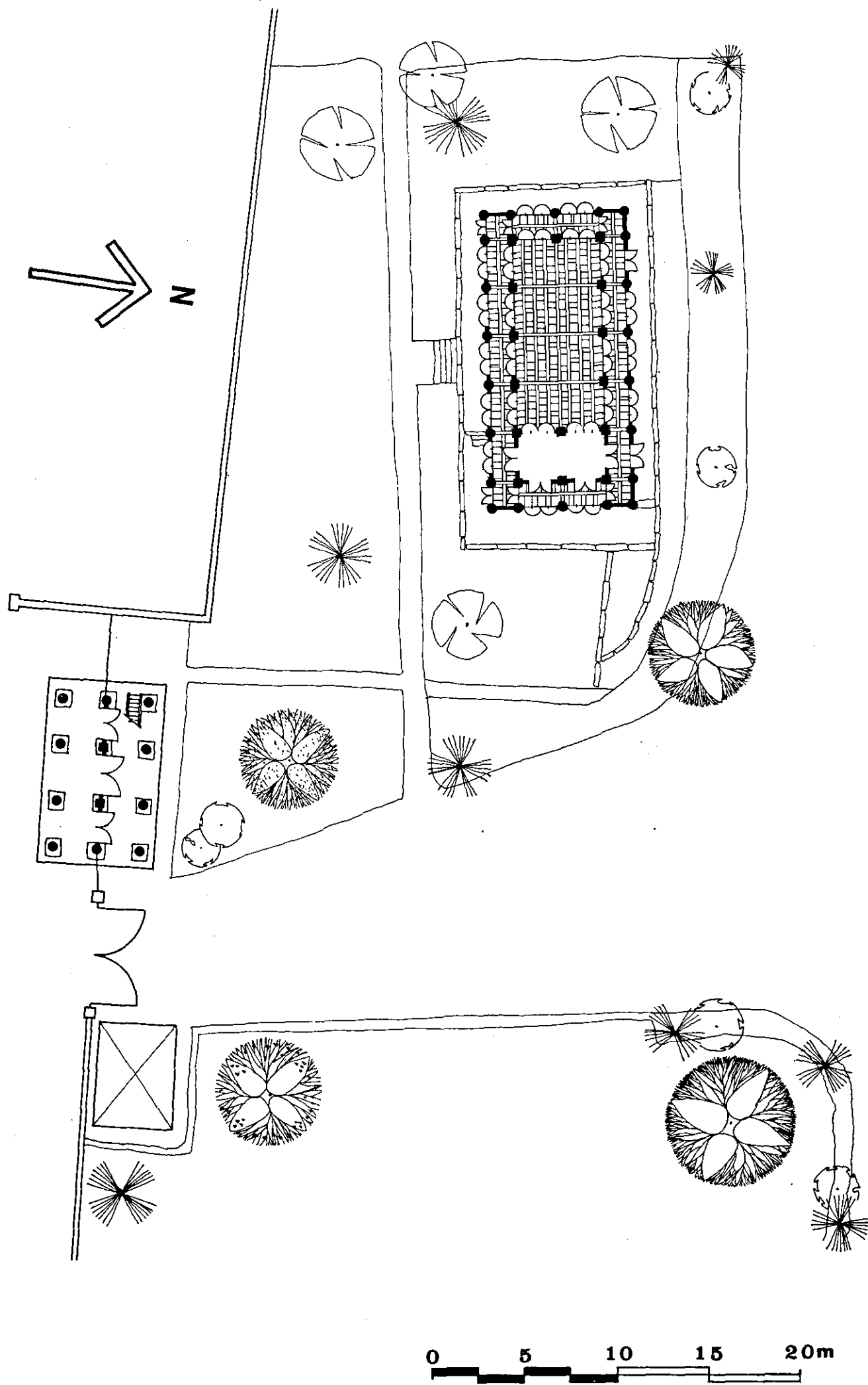
이 古宅은 朝鮮 孝宗때의 文臣인 鶴州 金弘郁이 老夫을 모시고 있음을 알고 孝宗이 鶴州公의 老夫 金積에게 下賜한 家屋인데, 英祖 21年(1745)에 이 家屋에서 태어나 英祖 35년에 王妃가 된 金弘郁의 4代孫인 金한노의 딸 貞純王后의 生家이다.

口字形으로 된 안채는 口字의 北側 중앙에 正面 3間, 깊이 2間の 넓은 大廳을 두고 그 우측으로는 1間の 庫房과 2間の 안방, 그리고 2間の 부엌과 1間の 광이 이어져 있으며, 大廳의 좌측으로는 1間씩의 제실과 건너방, 부엌, 광 등이 있는데, 그 옆으로 행랑채 사이에 안채를 通行하는 中門이 나 있다. 또한 口字의 남측으로는 1間씩의 광과 부엌, 그리고 2間の 온돌방과 1間の 庫房이 配置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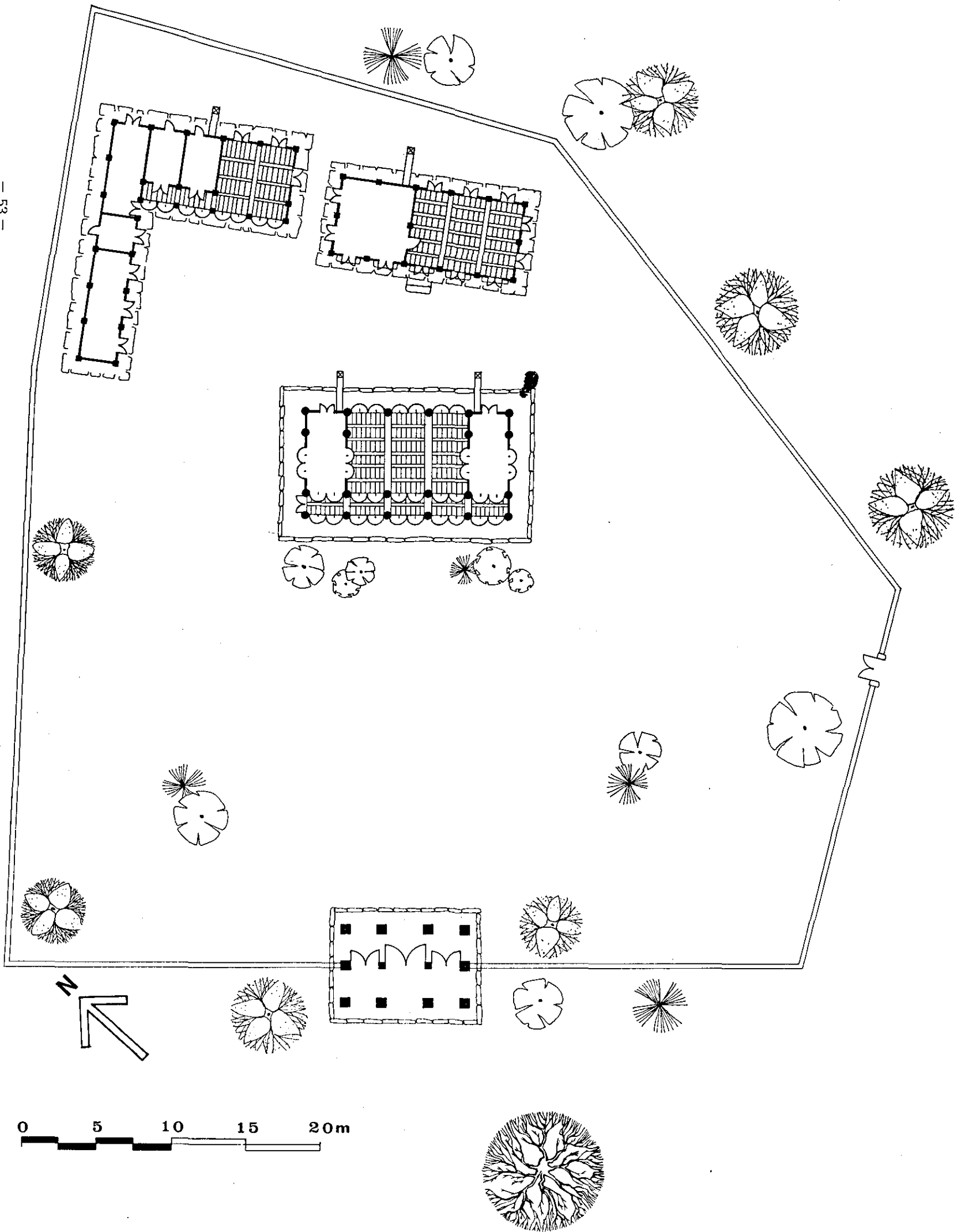
構造는 가공이 잘 된 장대석 基壇위에 큰 할석의 덩벙주초석(1개소에만 네모뿔형 주초석)을 놓고 方形기둥을 세웠는데, 大廳 전면의 기둥 높이가 3.36m로 住宅建築에서는 보기 드물게 높은 기둥을 세웠다.

이는 平面上으로는 각 室이 모두 같은 線上에 連結되어 있지만 지붕은 大廳部分이 제일 높고 다음에 翼室부분, 그 다음에 행랑부분의 順으로 지붕 높이가 모두 약간씩 差異가 나며 낮아지고 있는데 따르는 한 手法인 듯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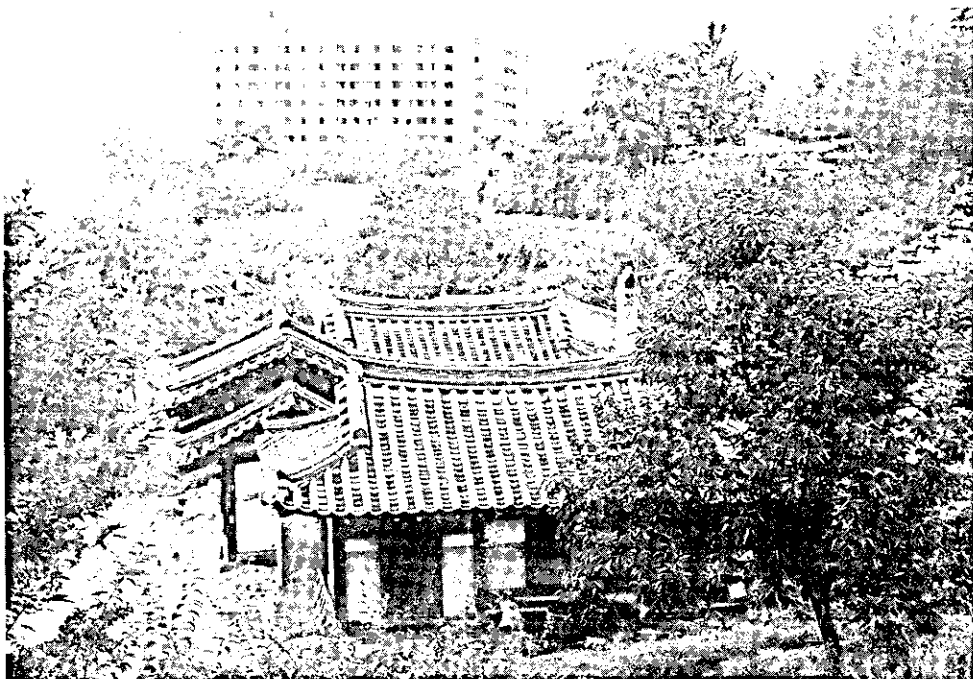
架構는 一高柱五樑집으로 宗樑 상부에는 재형대공을 設置하여 종도리와 함께 옥 개荷重을 받치도록 하였고 지붕은 모두 홑처마 맞배지붕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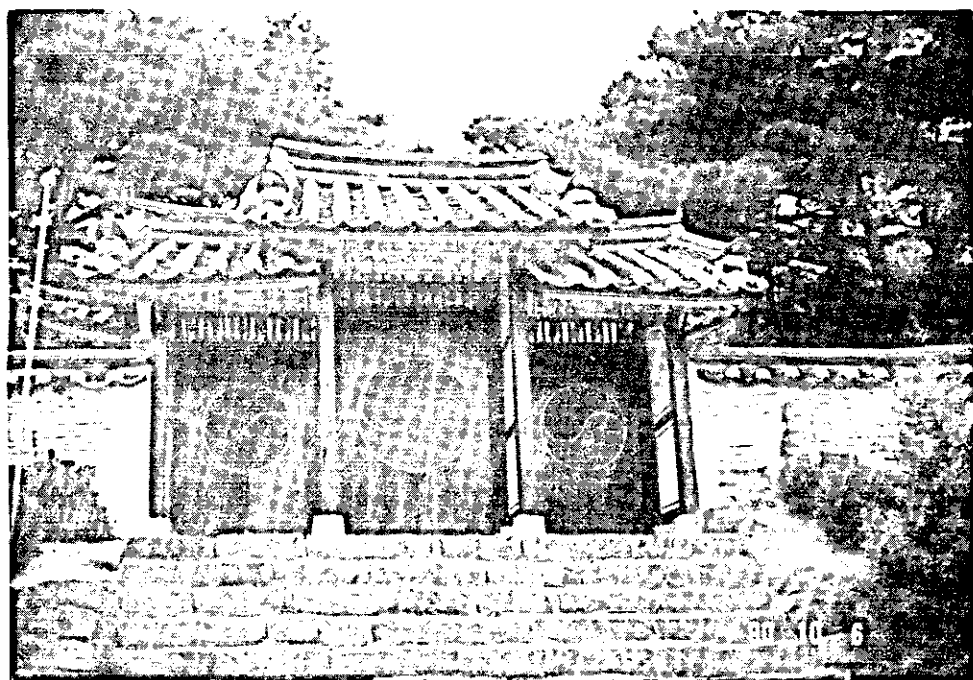
[그림 1] 서산관아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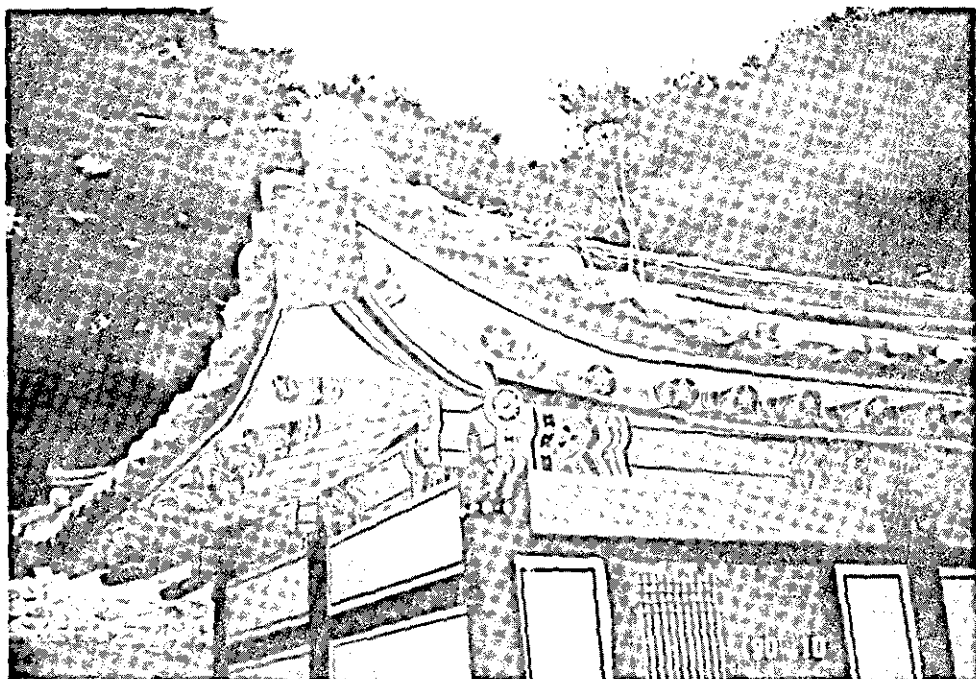
[그림 2] 해미관아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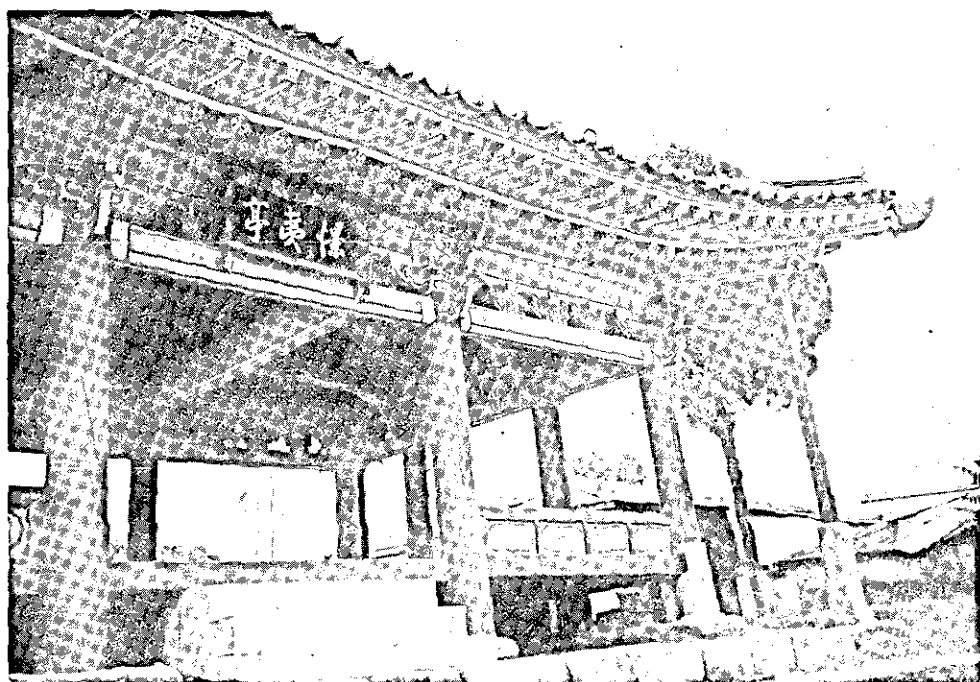
[사진 33] 성암서원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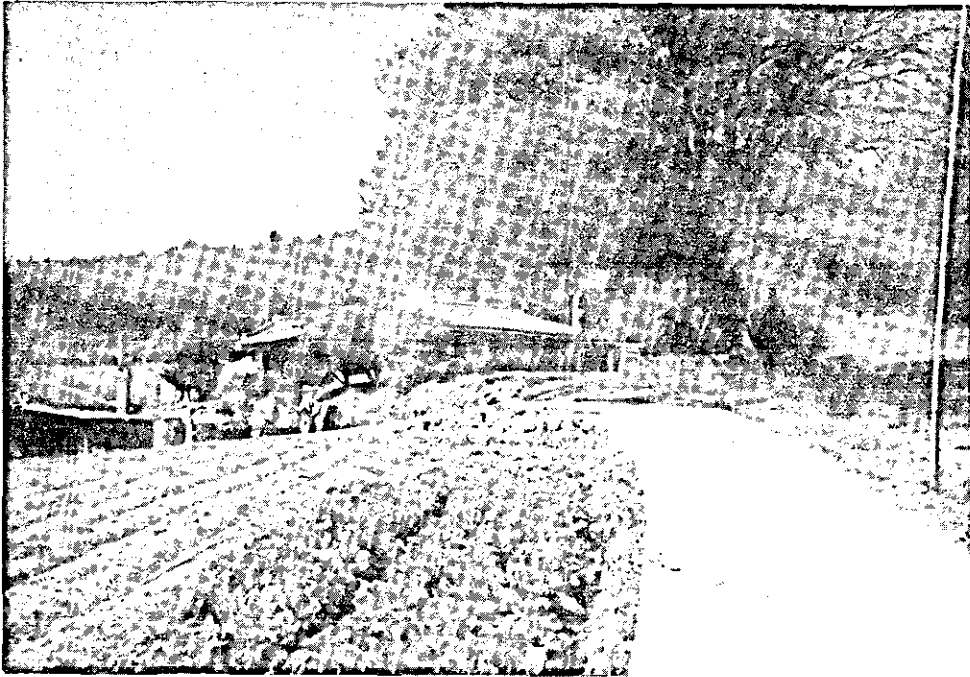
[사진 34] 송곡서원 외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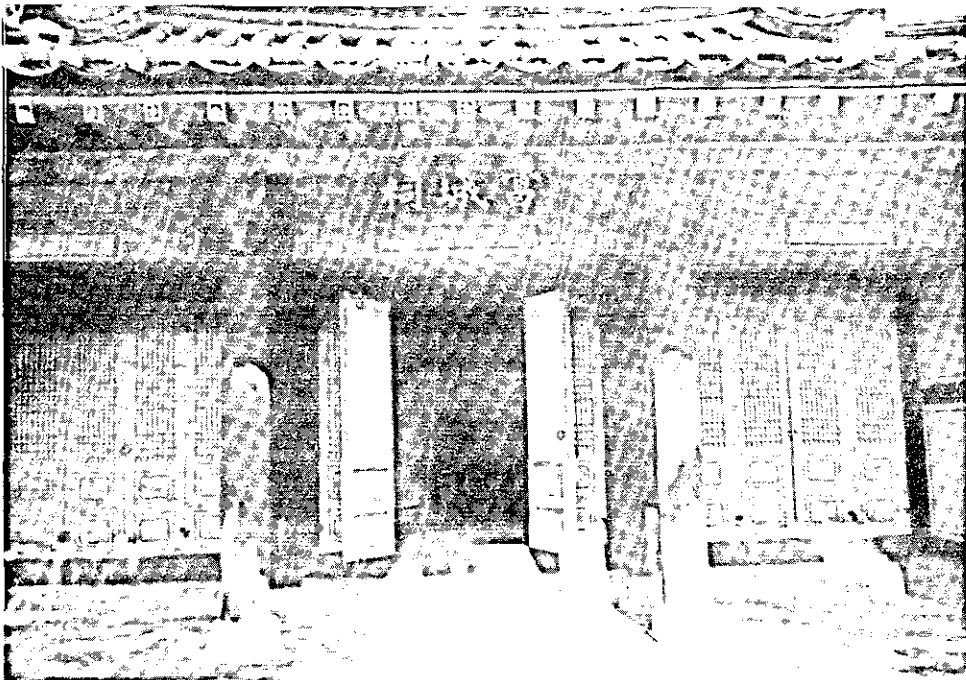
[사진 35] 송곡서원 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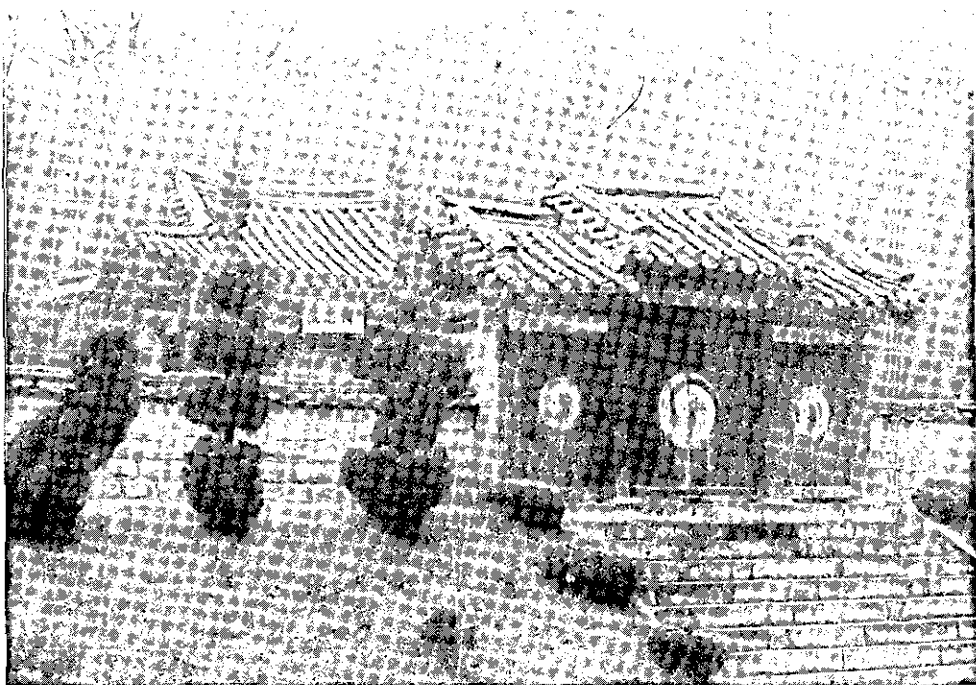
[사진 36] 경이정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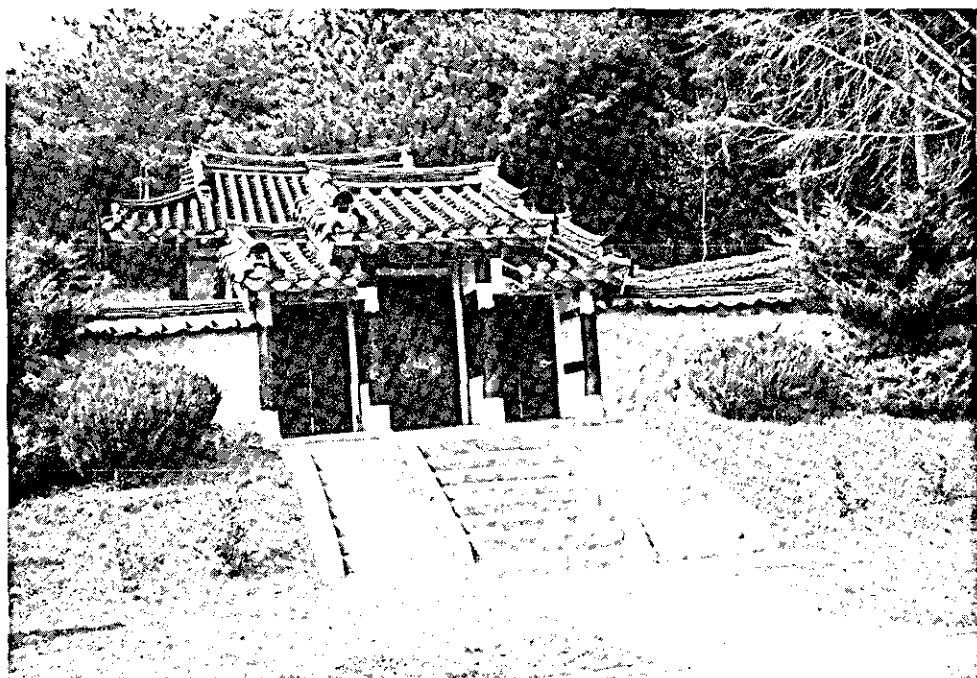
[사진 37] 부성사 원경



[사진 38] 부성사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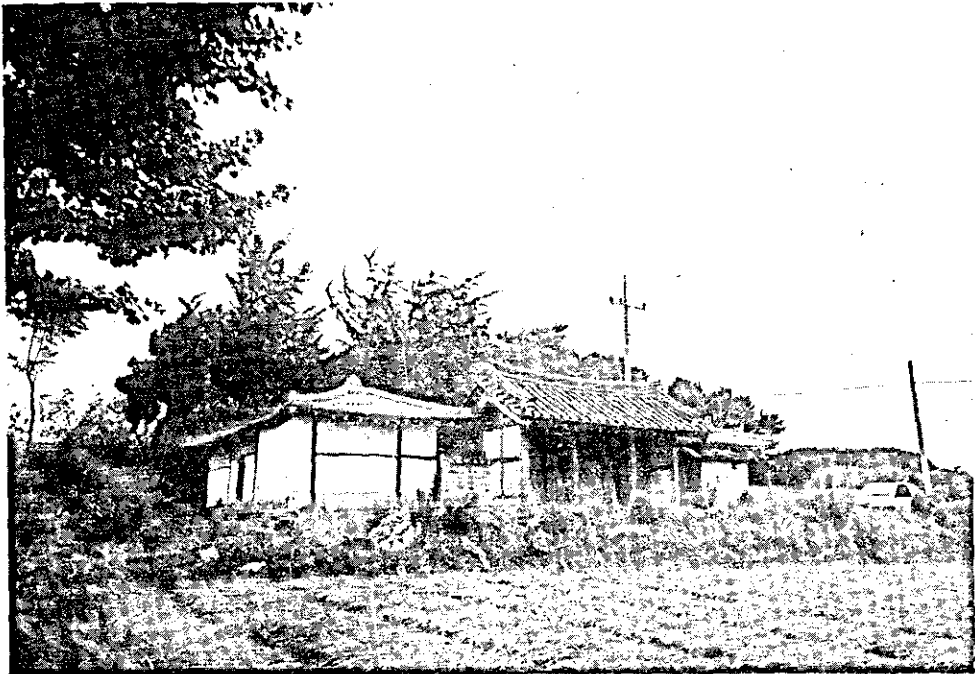
[사진 39] 진충사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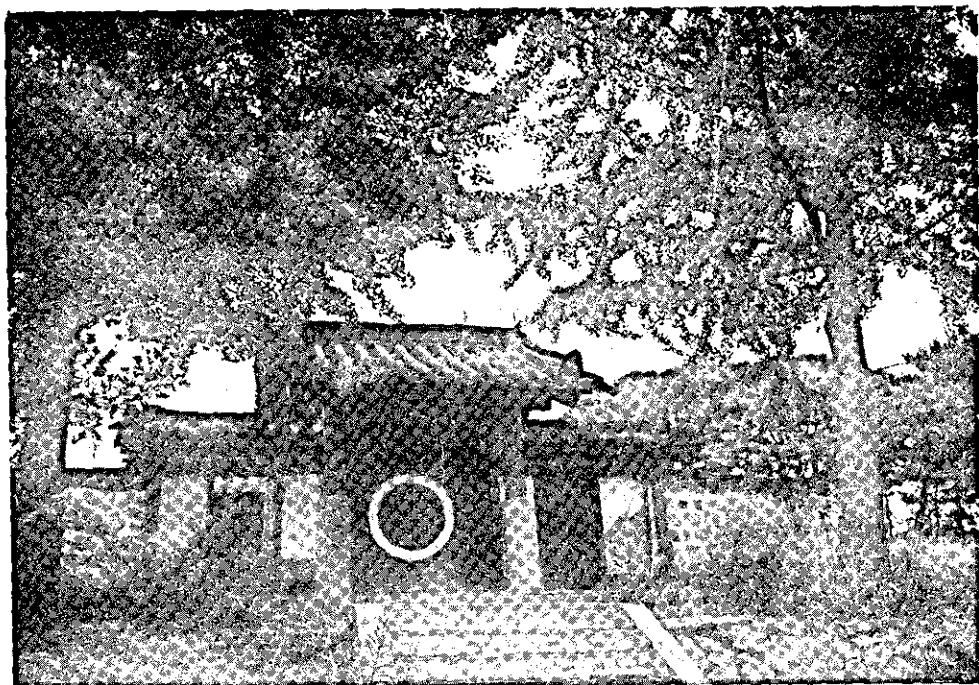
[사진 40] 송덕사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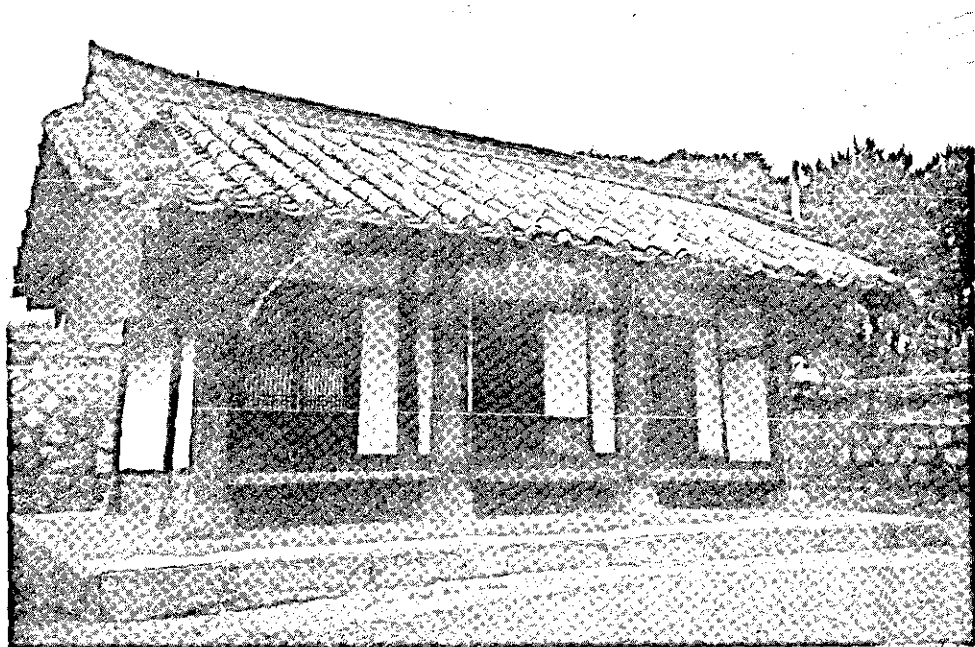
[사진 41] 선정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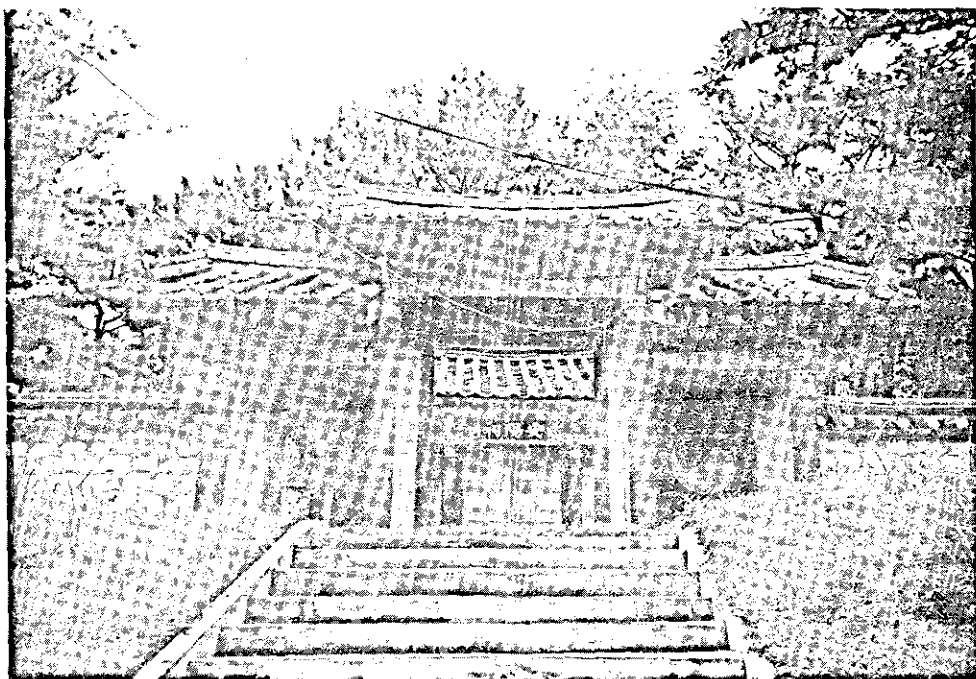
[사진 42] 충의사 원경



[사진 43] 충의사 외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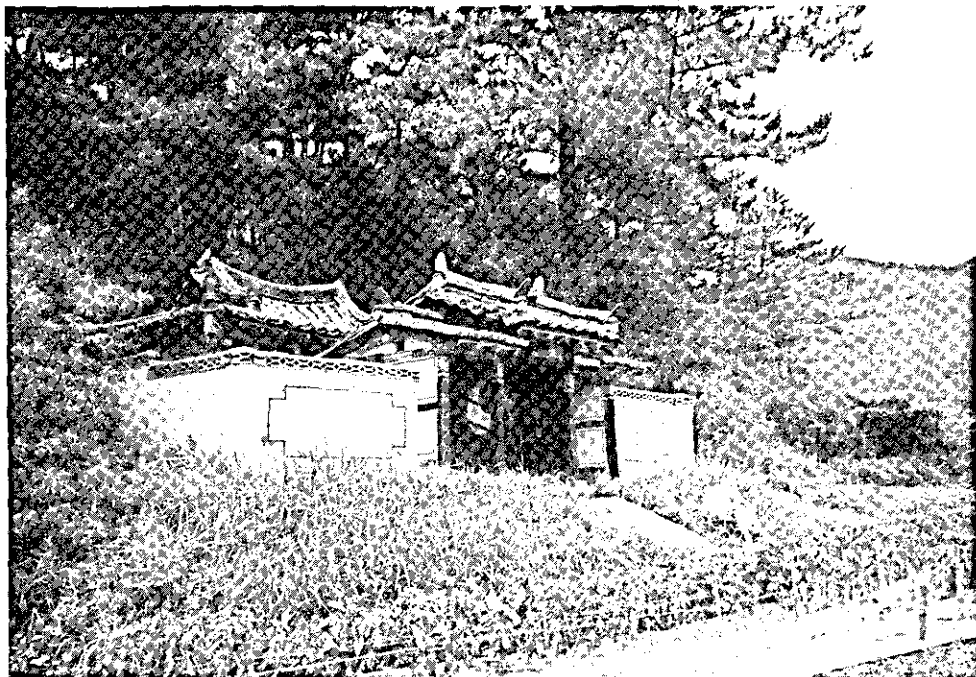
[사진 44] 충의사 모습



[사진 45] 안양사 외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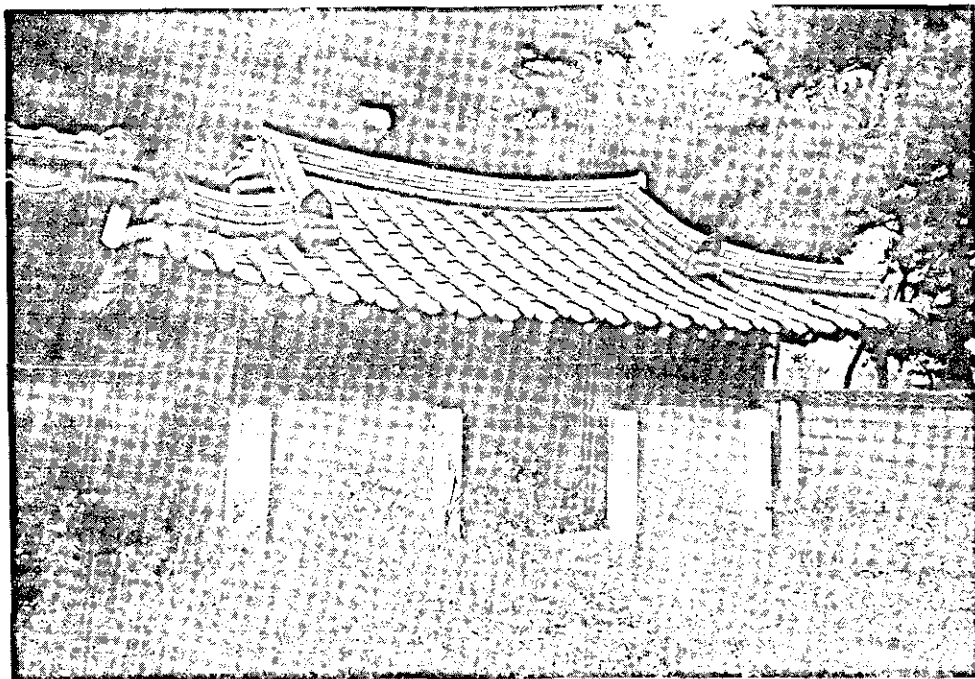
[사진 46] 안양사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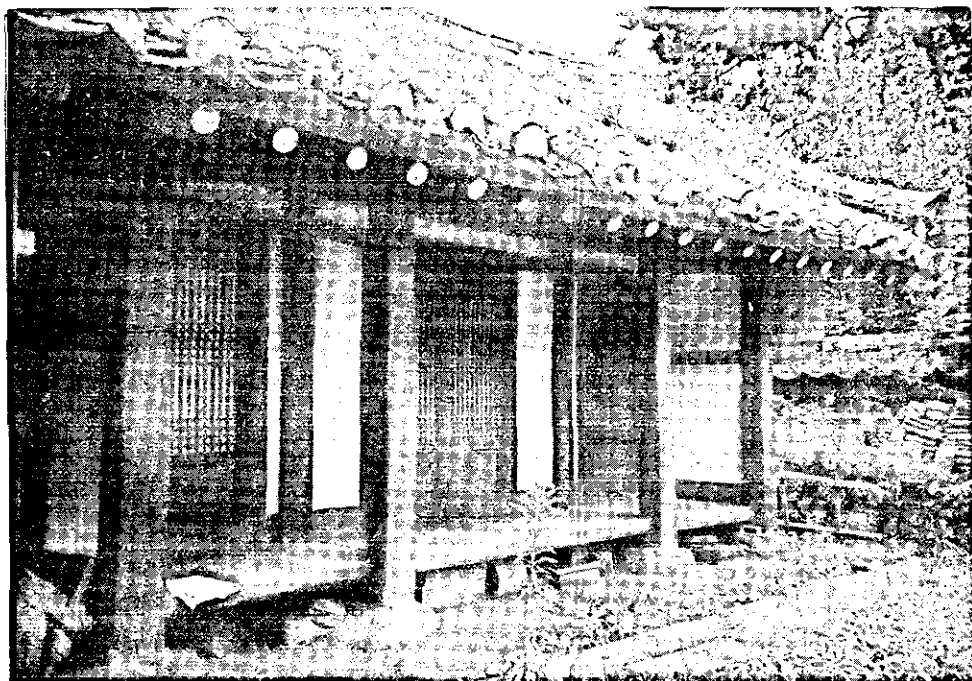
[사진 47] 이성군사당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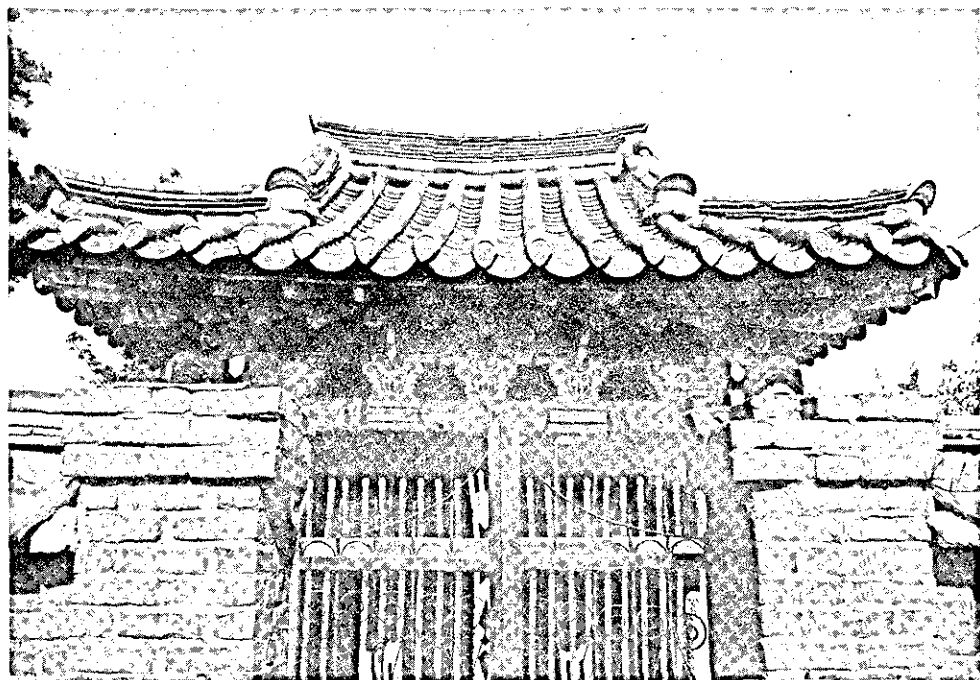
[사진 48] 이성군사당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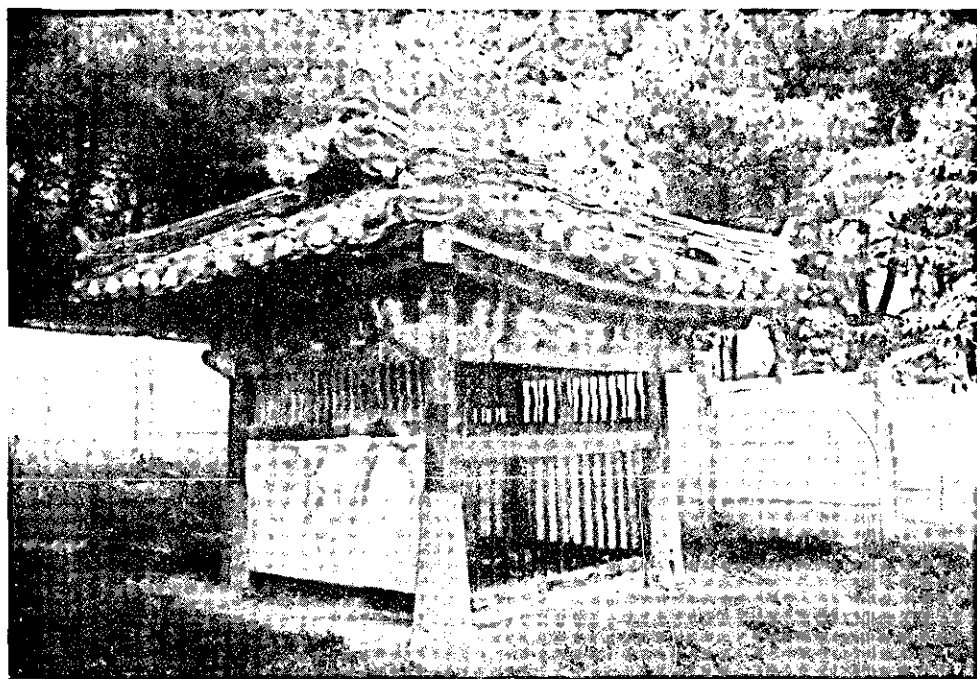
[사진 49] 충열사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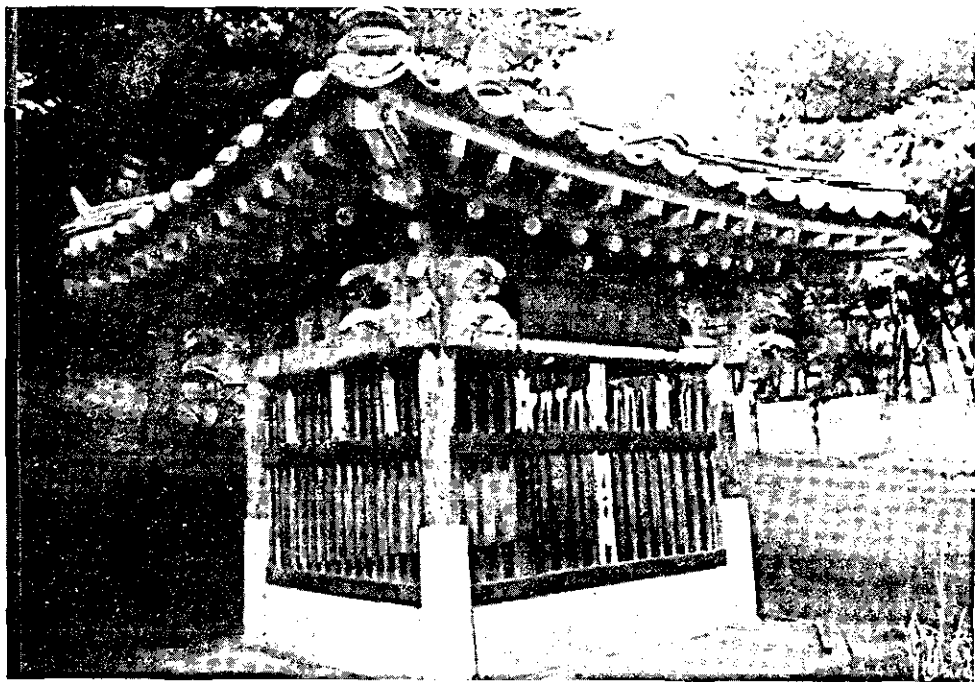
[사진 50] 고씨사당 모습



[사진 51] 김가근 효손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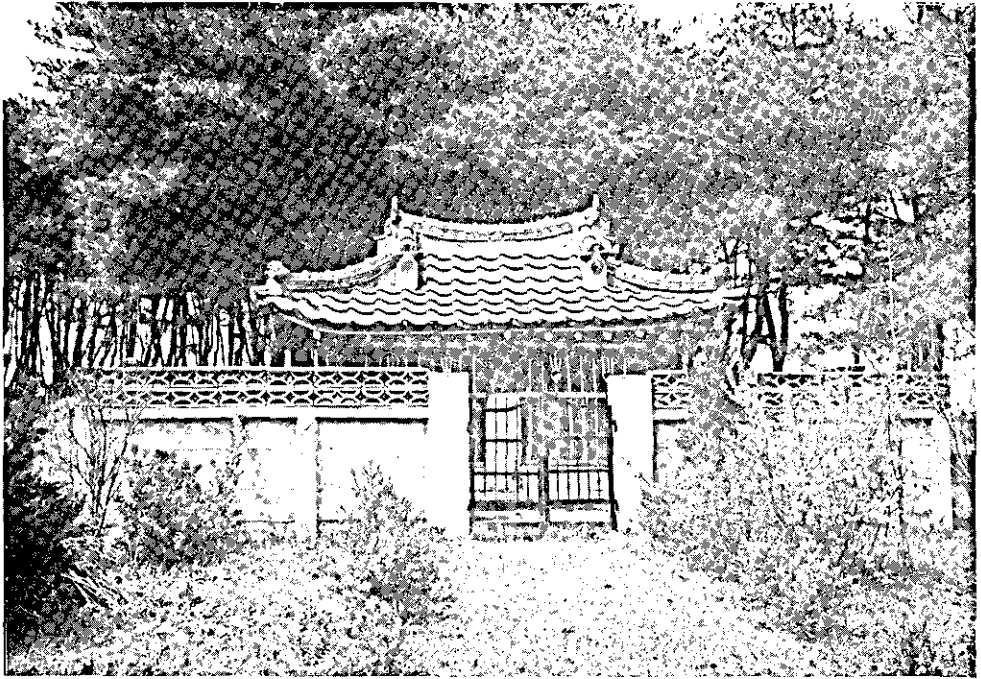
[사진 52] 김홍익 충신문 모습



[사진 53] 김유경 효자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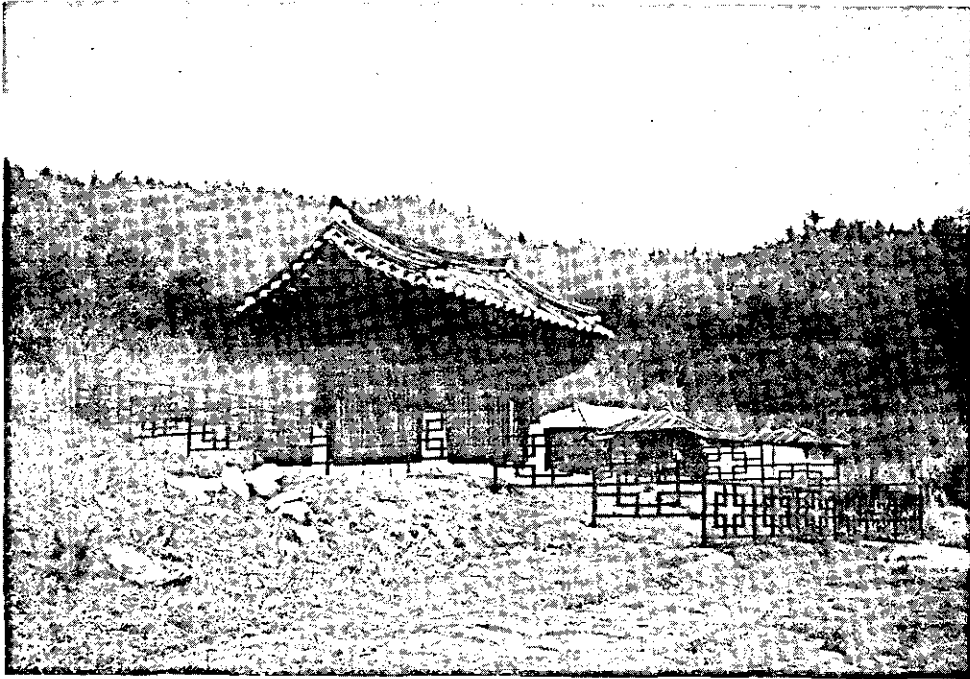
[사진 54] 김학방 효자문 모습



[사진 55] 최효민 효자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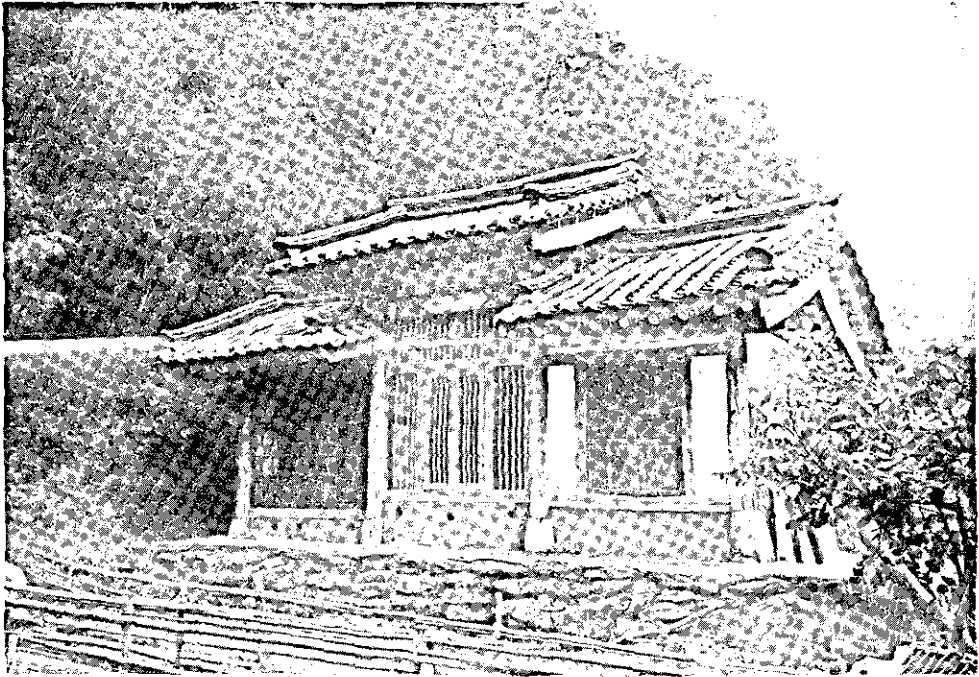
[사진 56] 창녕성씨 열녀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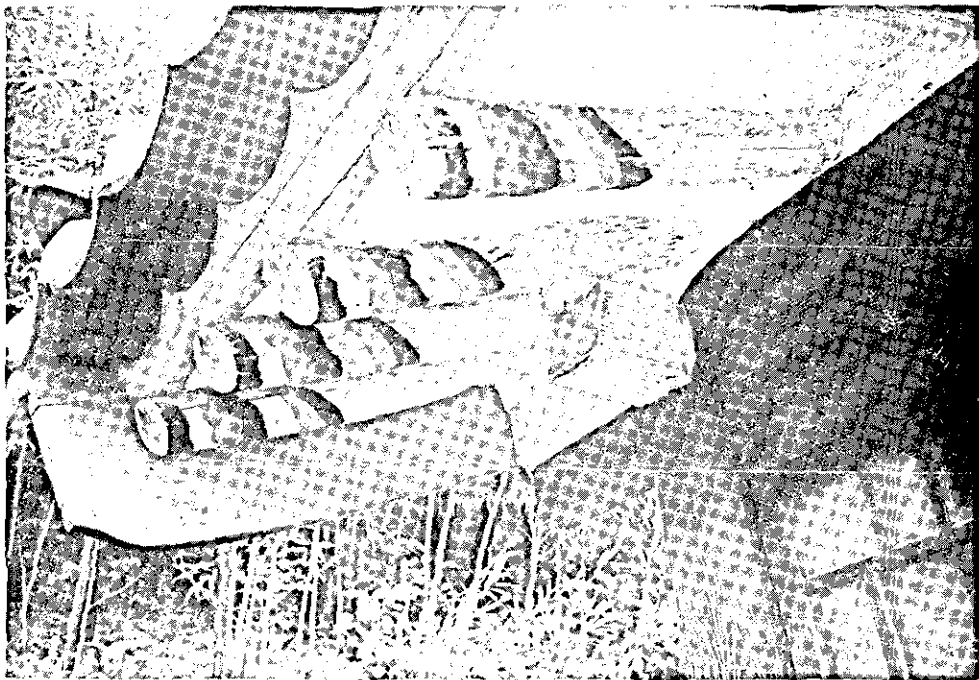
[사진 57] 국현남 효자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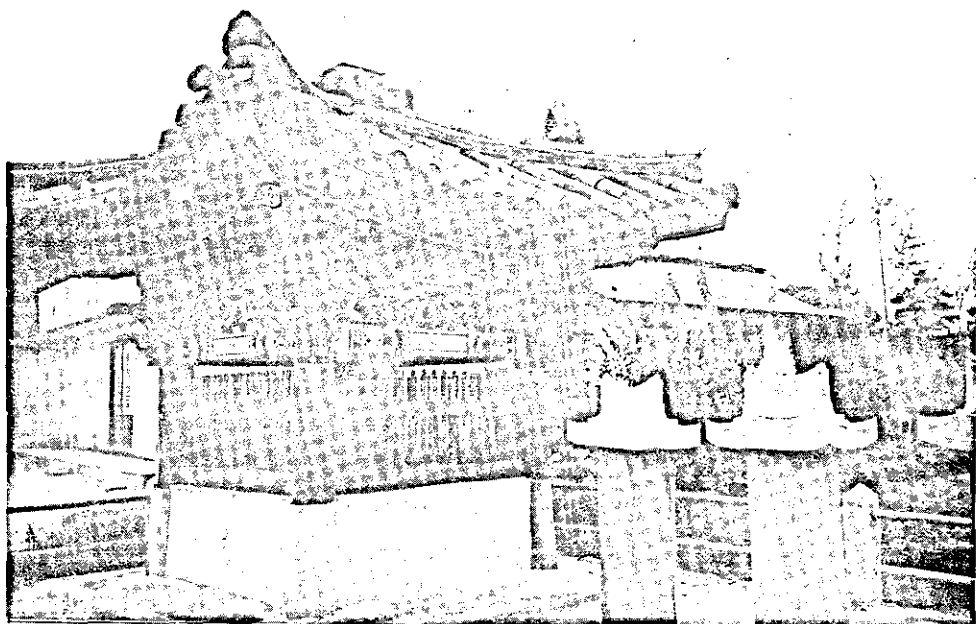
[사진 58] 최호주 효자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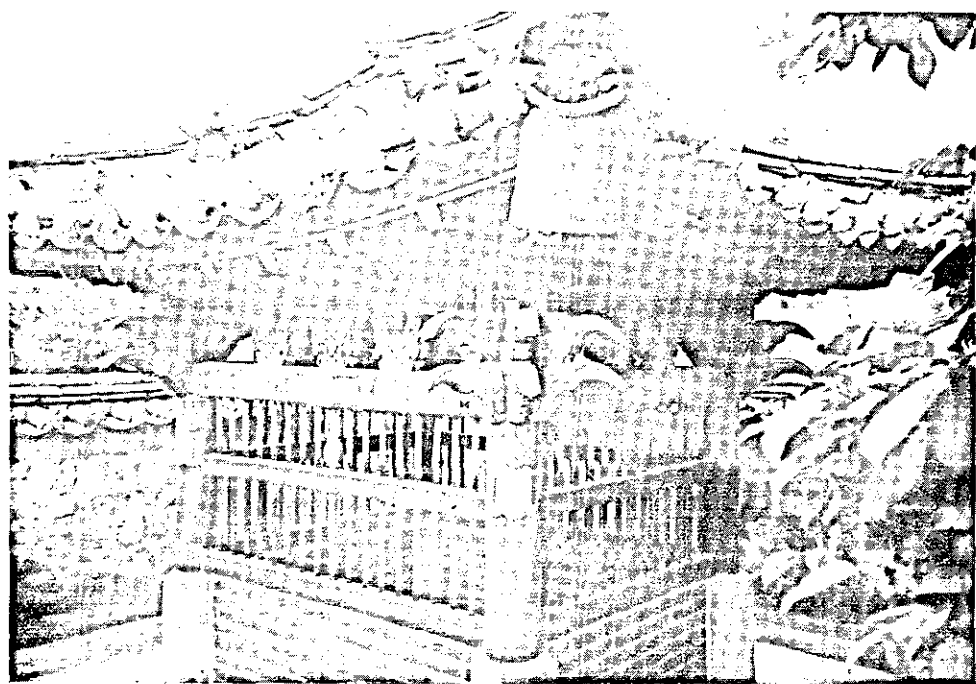
[사진 59] 삼대효자비각 모습



[사진 60] 삼대효자비각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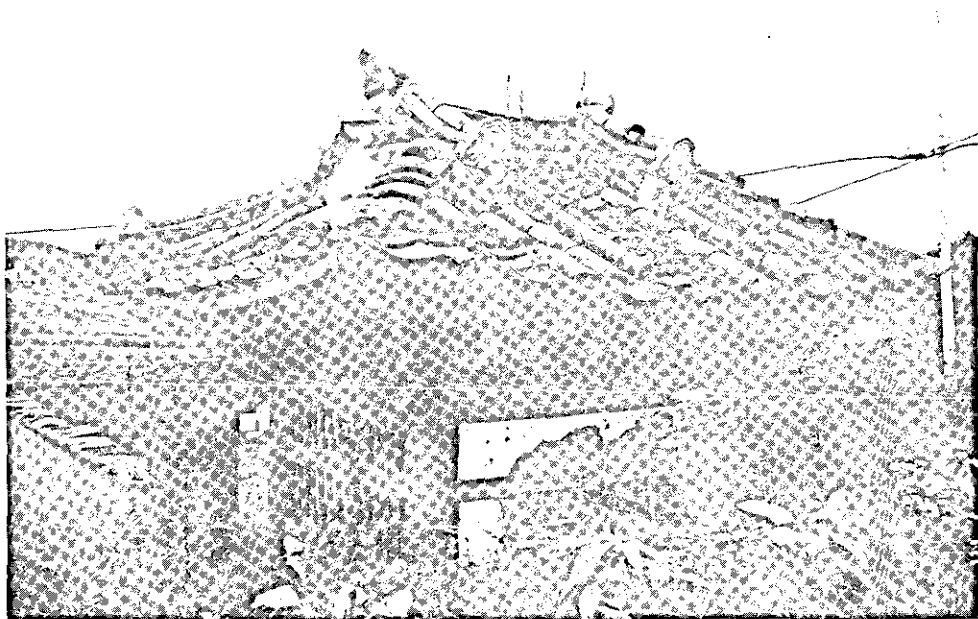
[사진 61] 이회렬 송덕비각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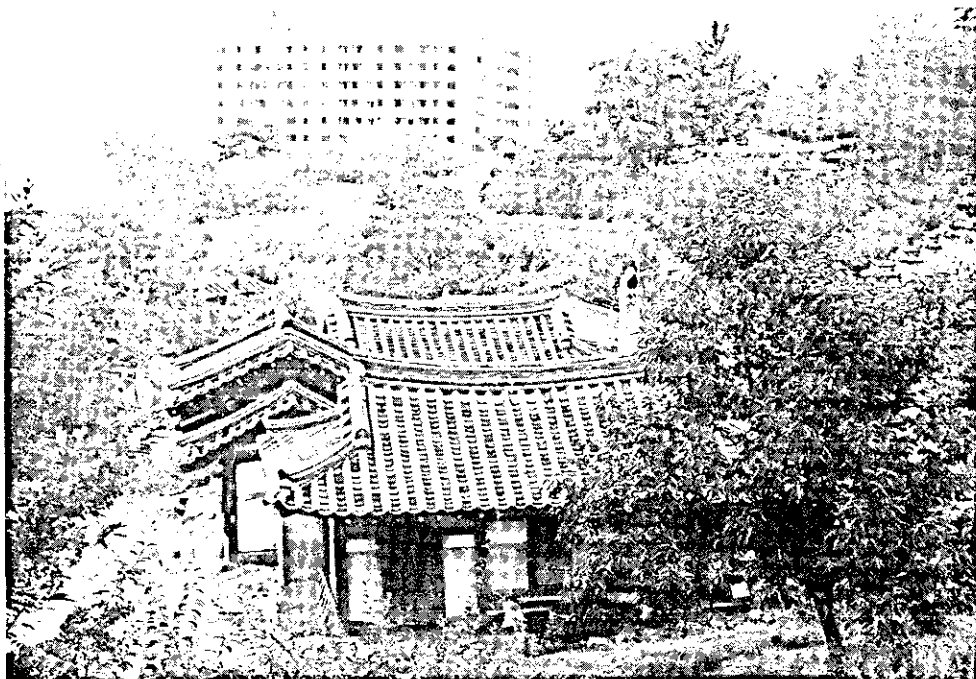
[사진 62] 김종회 효자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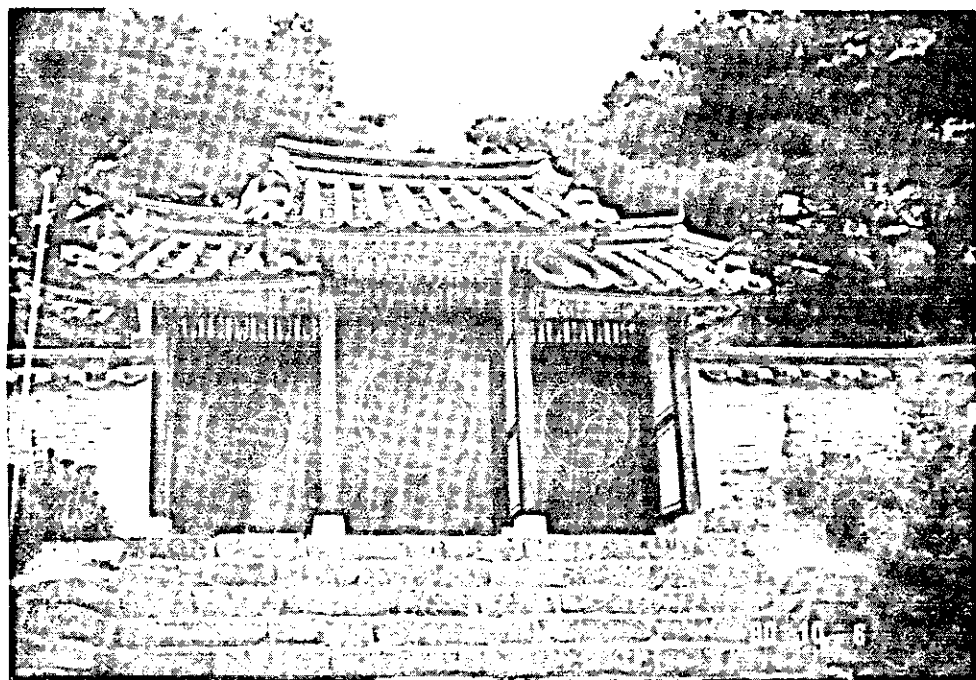
[사진 63] 손탁수 효자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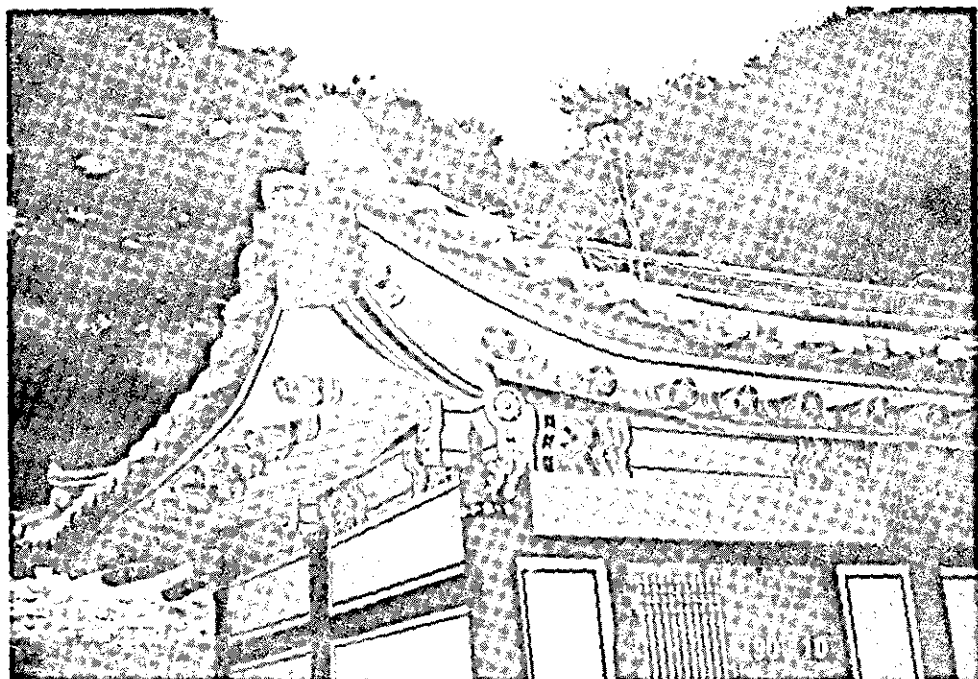
[사진 64] 밀양박씨 효부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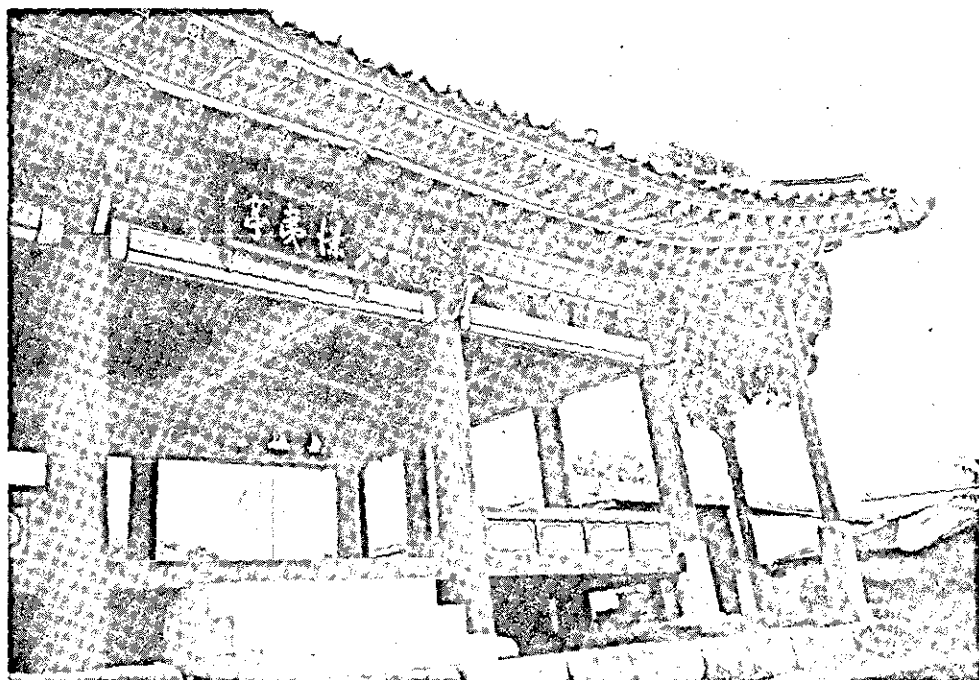
[사진 33] 성암서원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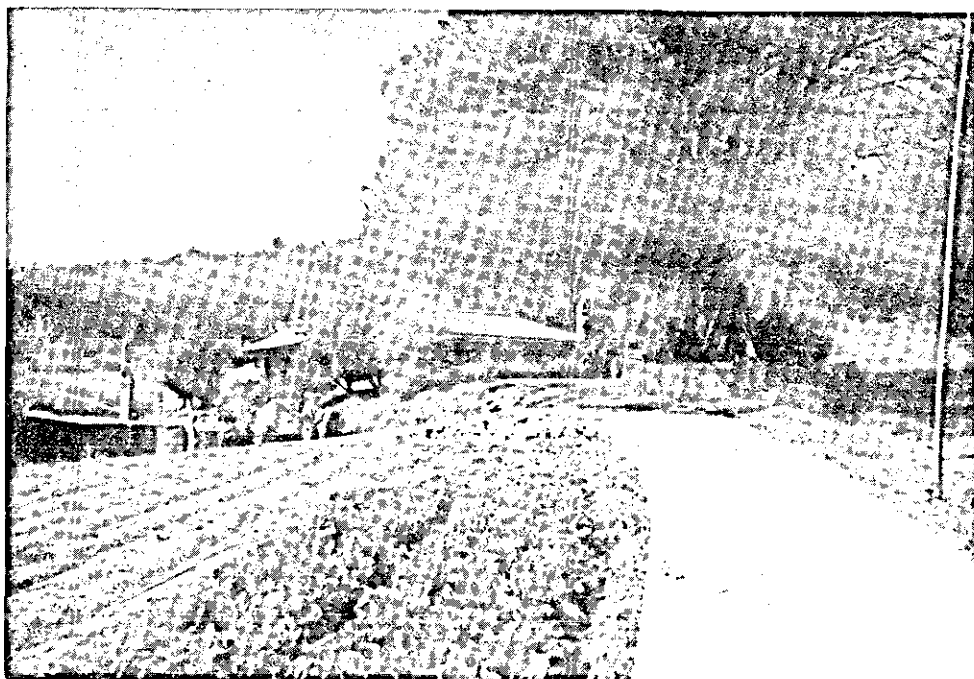
[사진 34] 송곡서원 외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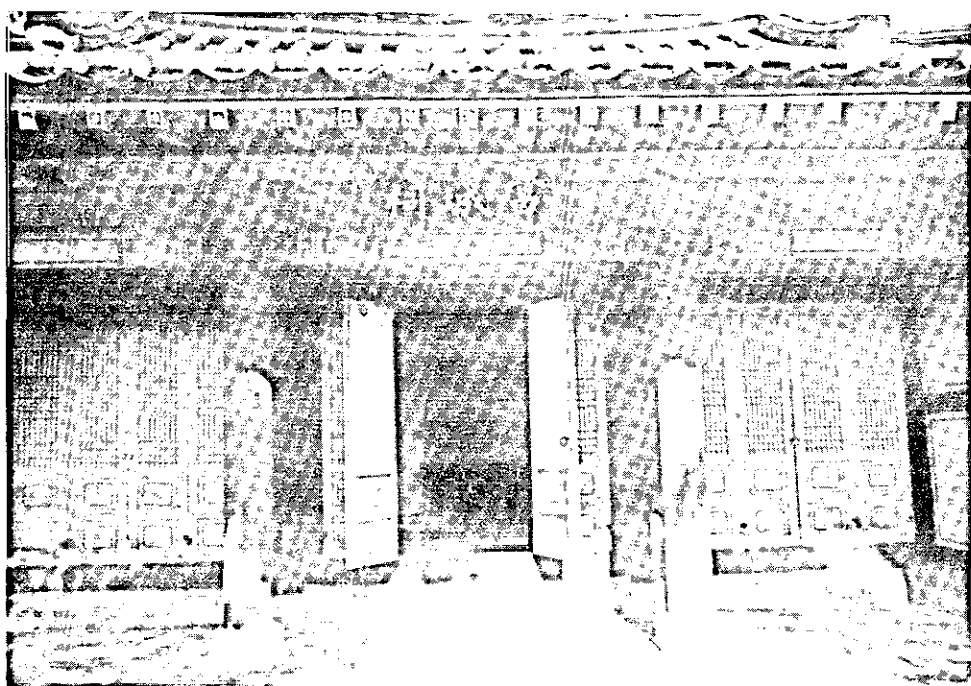
[사진 35] 송곡서원 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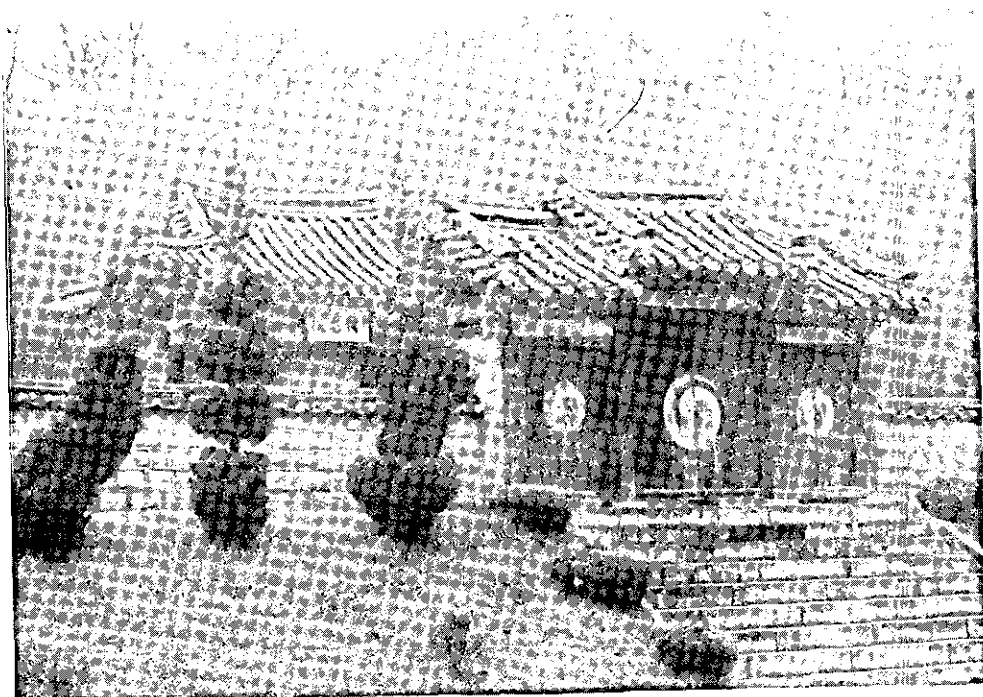
[사진 36] 경이정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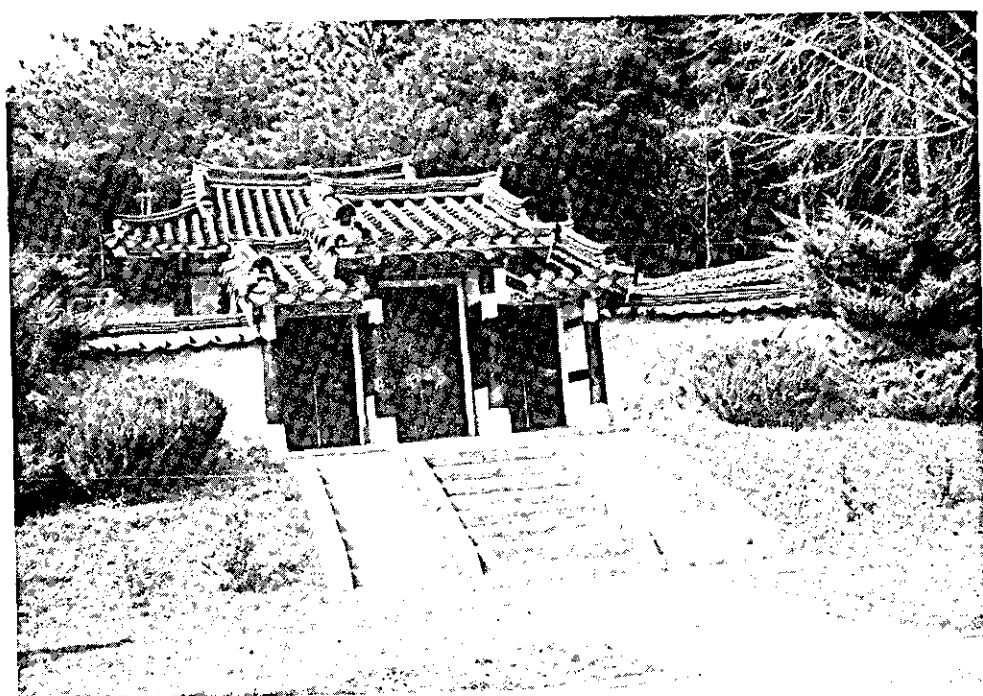
[사진 37] 부성사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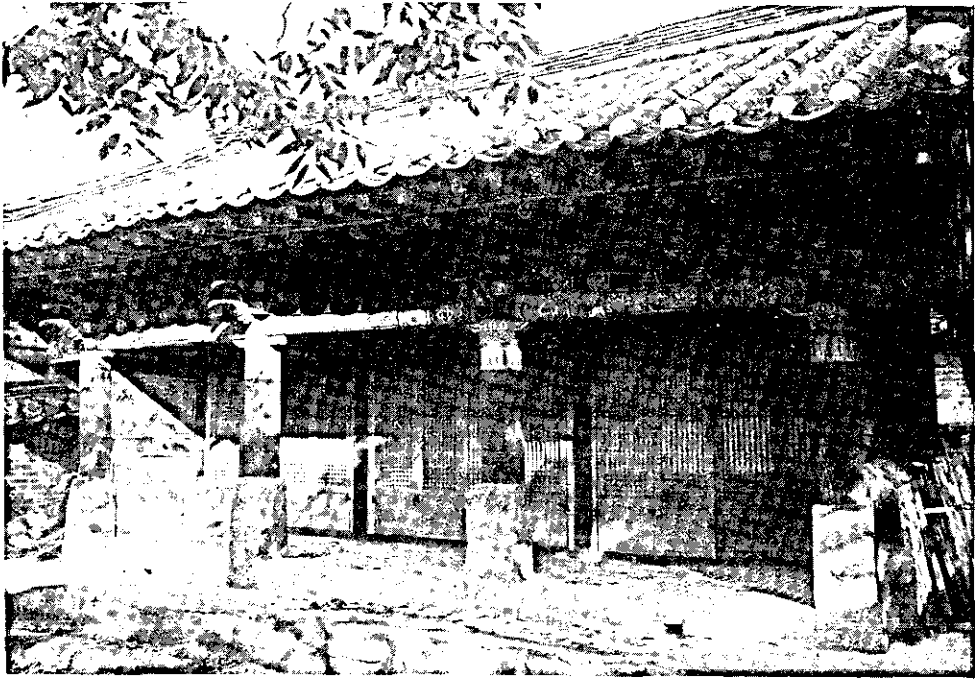
[사진 38] 부성사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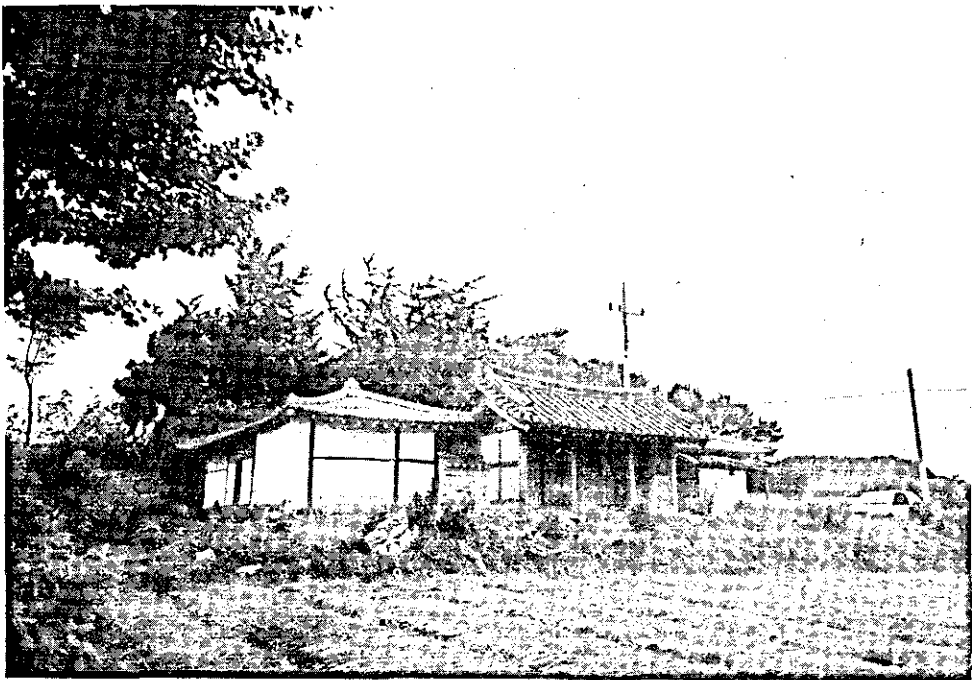
[사진 39] 진충사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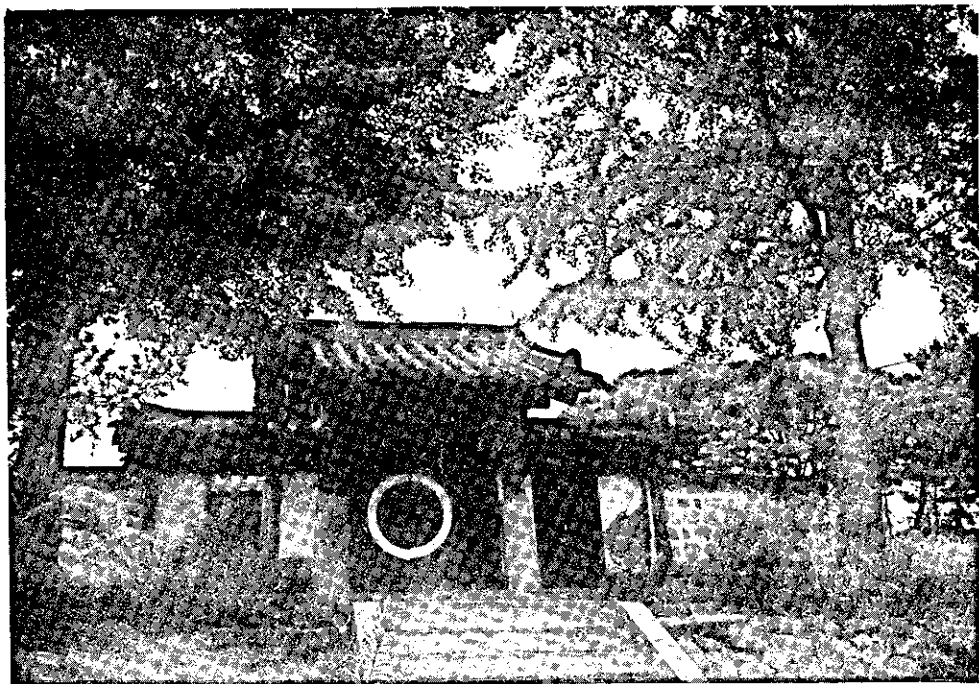
[사진 40] 승덕사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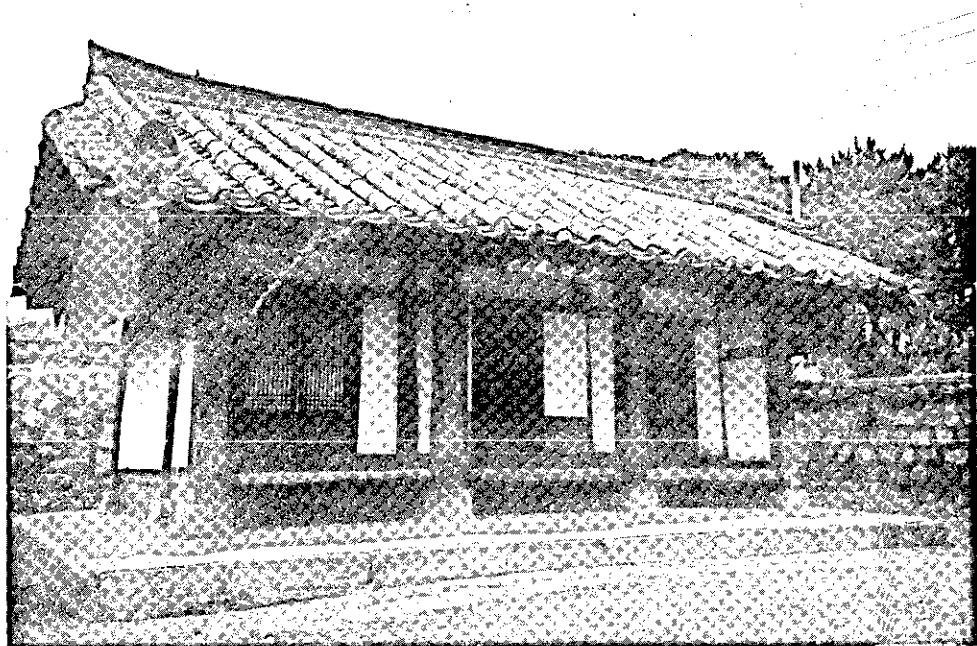
[사진 41] 선정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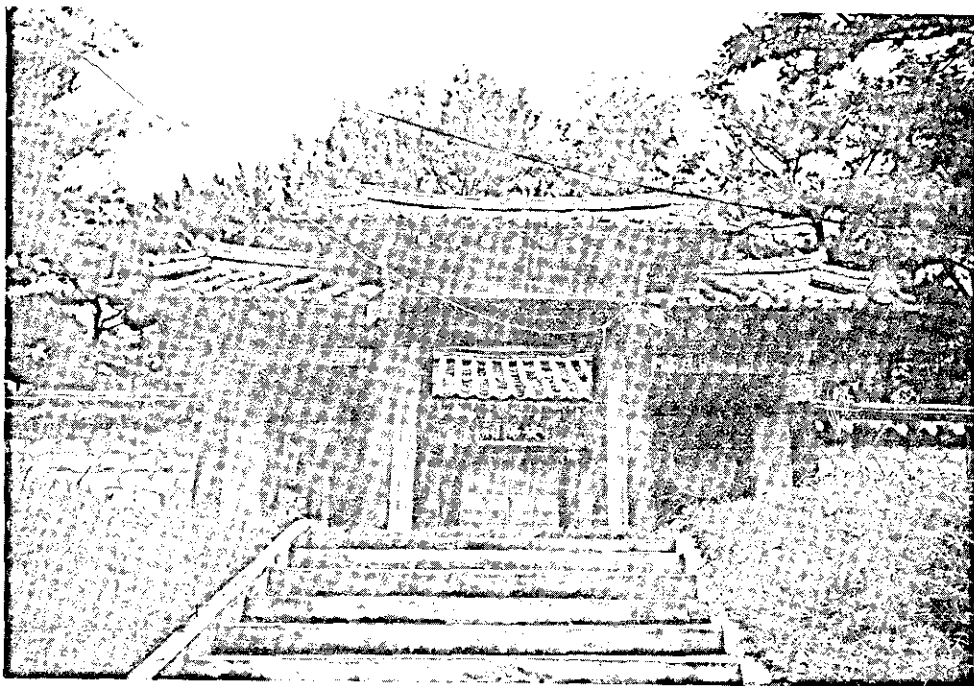
[사진 42] 충의사 원경



[사진 43] 충의사 외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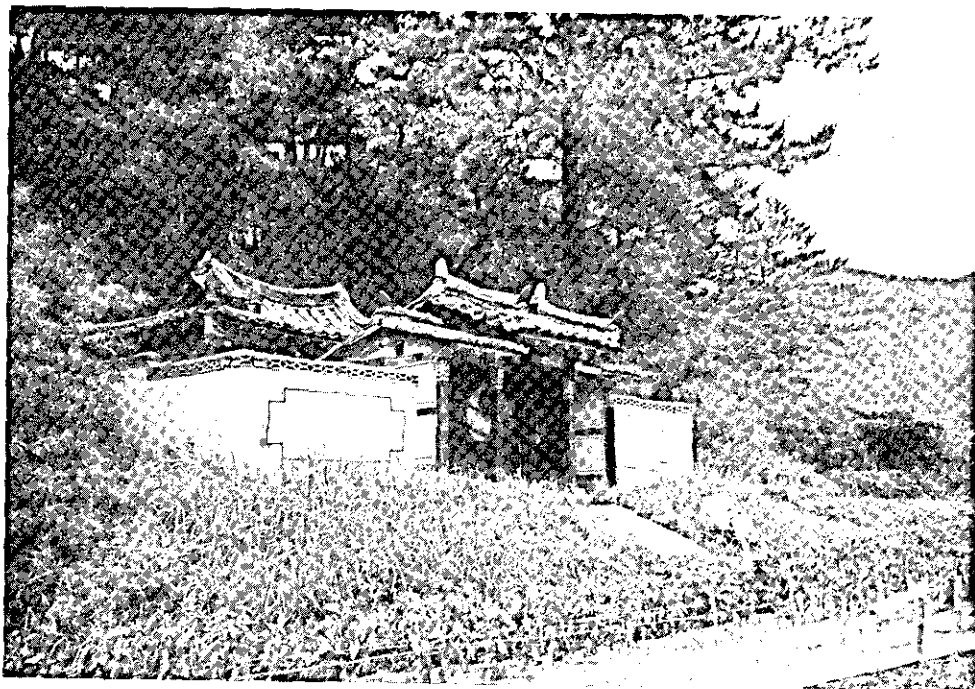
[사진 44] 충의사 모습



[사진 45] 안양사 외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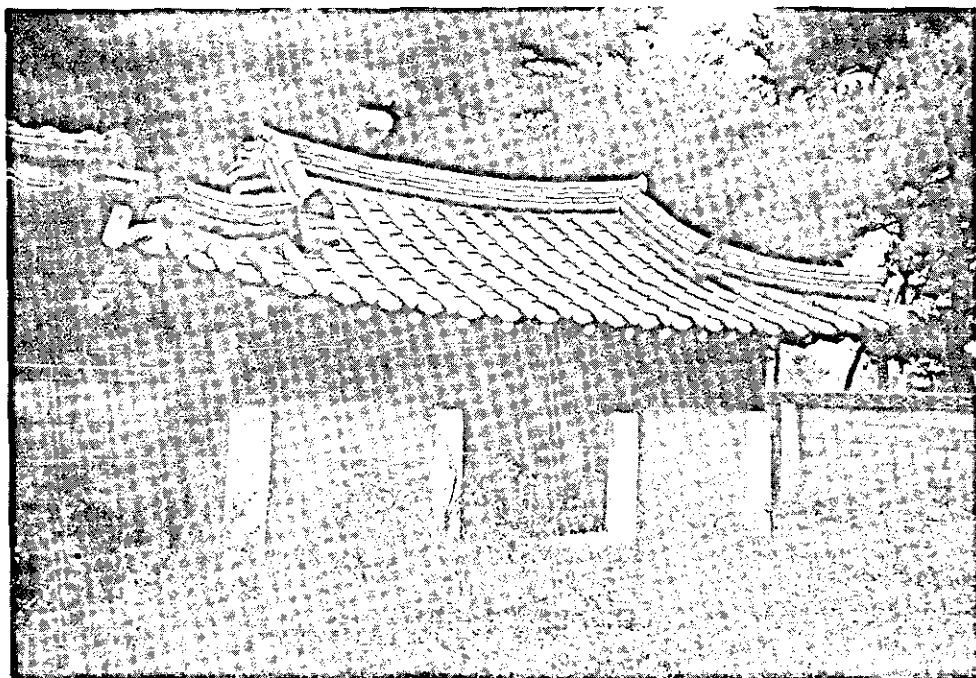
[사진 46] 안양사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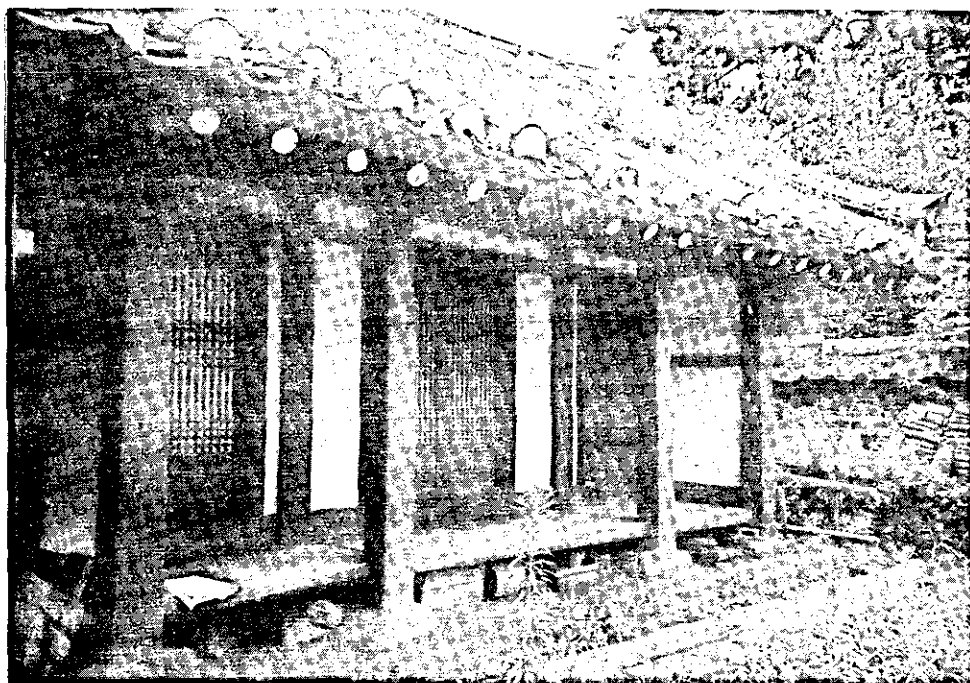
[사진 47] 이성군사당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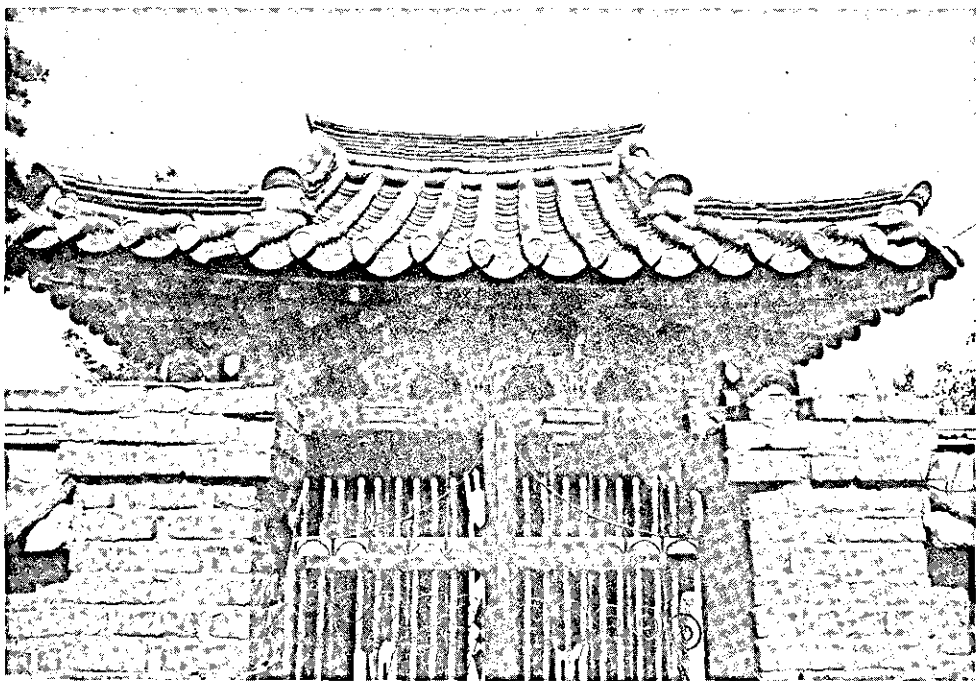
[사진 48] 이성군사당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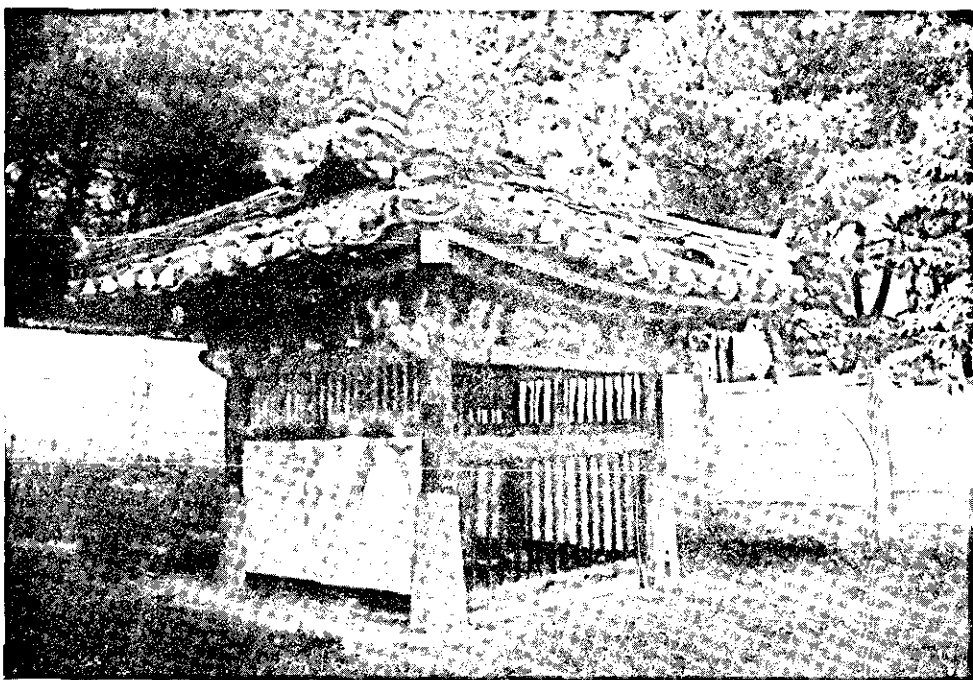
[사진 49] 충열사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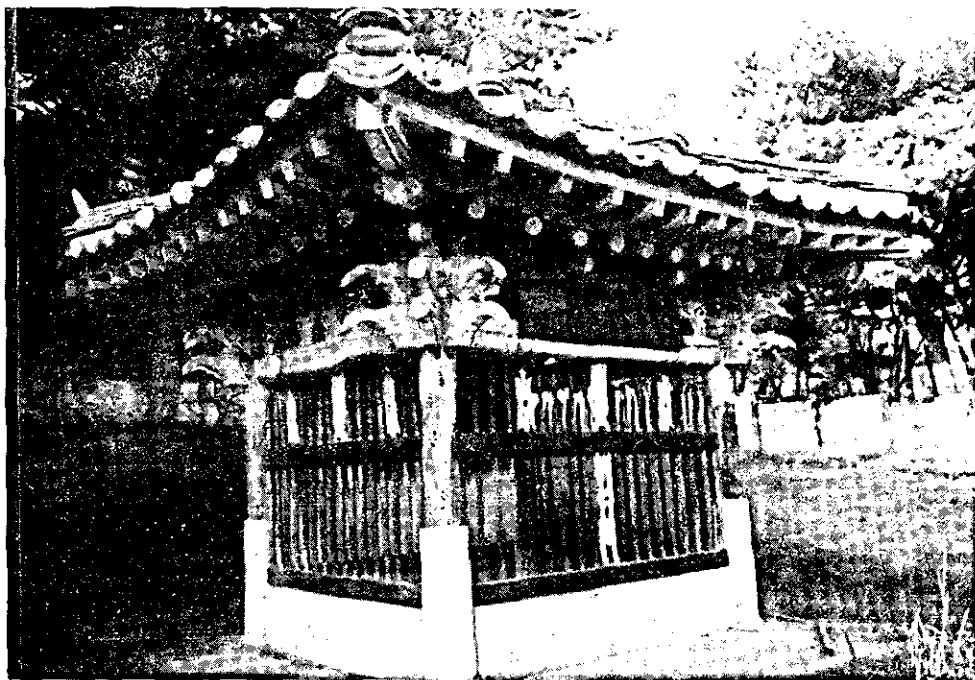
[사진 50] 고씨사당 모습



[사진 51] 김가근 효손문 모습



[사진 52] 김홍익 충신문 모습



[사진 53] 김유경 효자문 모습



[사진 54] 김학방 효자문 모습



[사진 55] 최효민 효자문 모습



[사진 56] 창녕성씨 열녀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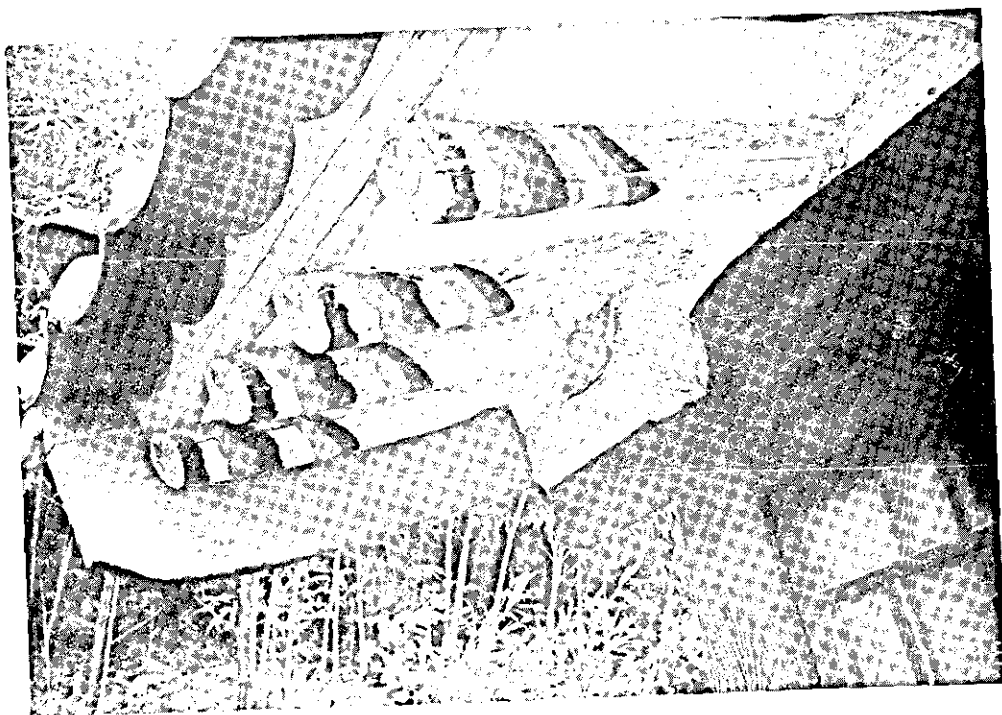
[사진 57] 국현남 효자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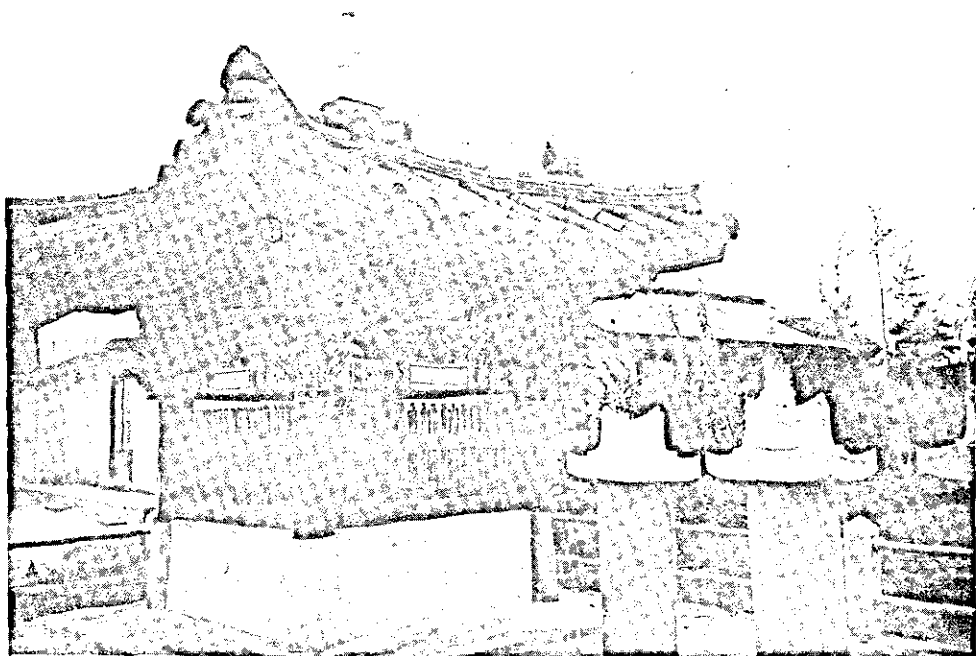
[사진 58] 최호주 효자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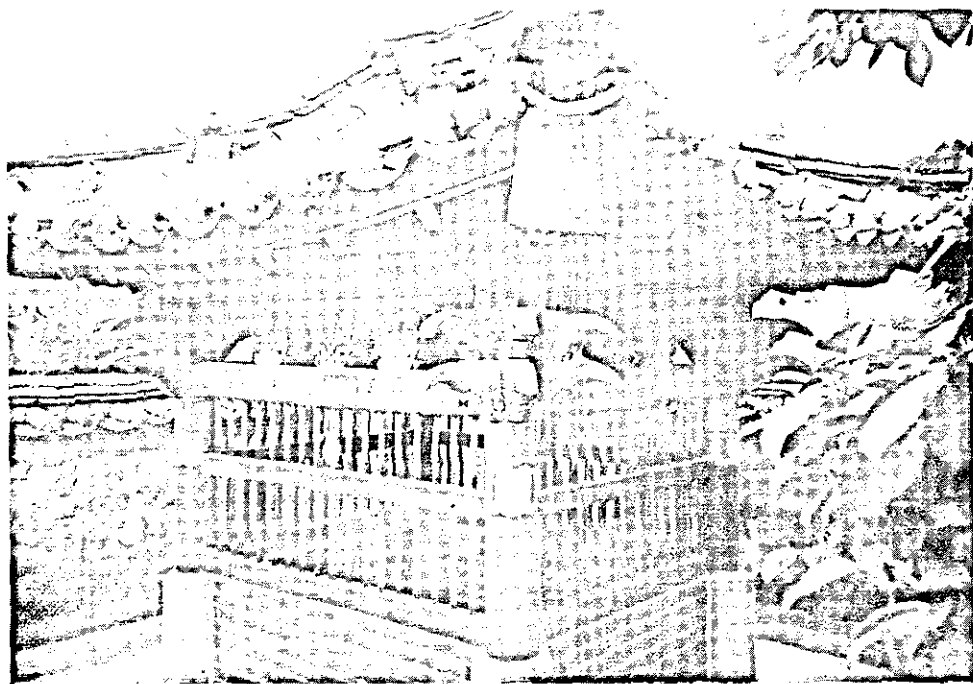
[사진 59] 삼대효자비각 모습



[사진 60] 삼대효자비각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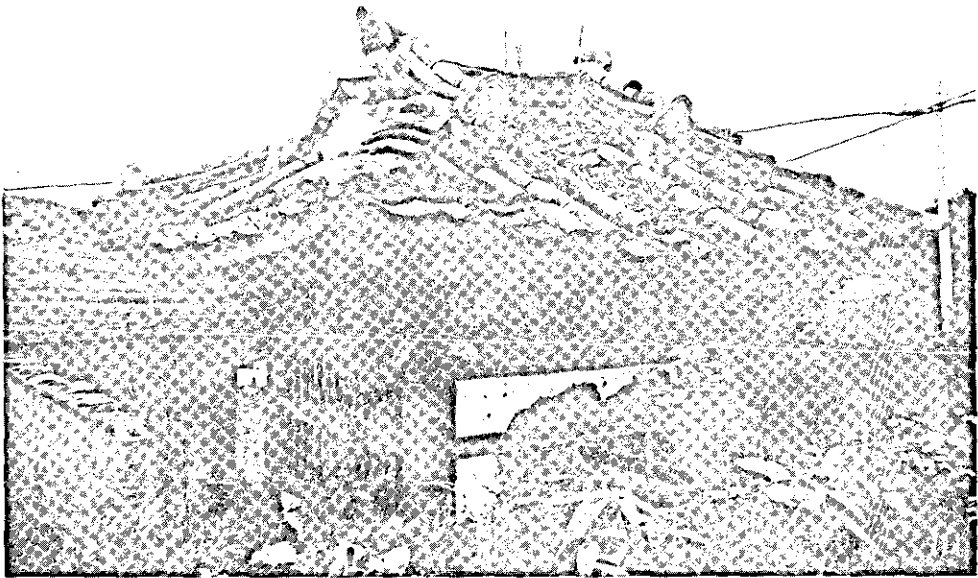
[사진 61] 이회렬 송덕비각 모습



[사진 62] 김종희 효자문 모습



[사진 63] 손탁수 효자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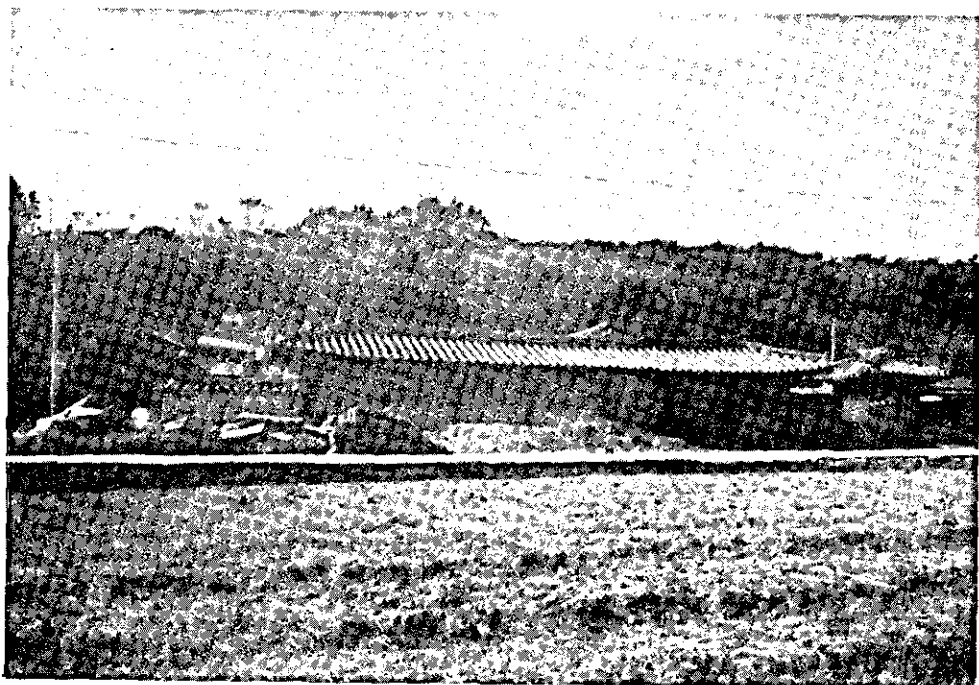
[사진 64] 밀양박씨 효부분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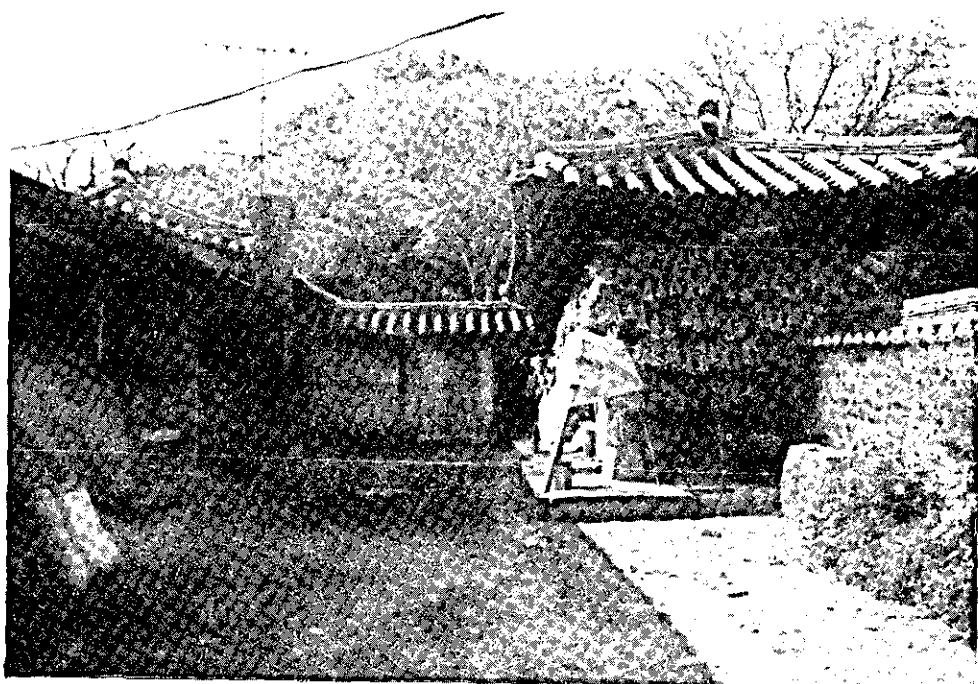
[사진 65] 동래정씨 열녀문 모습



[사진 66] 황도리신당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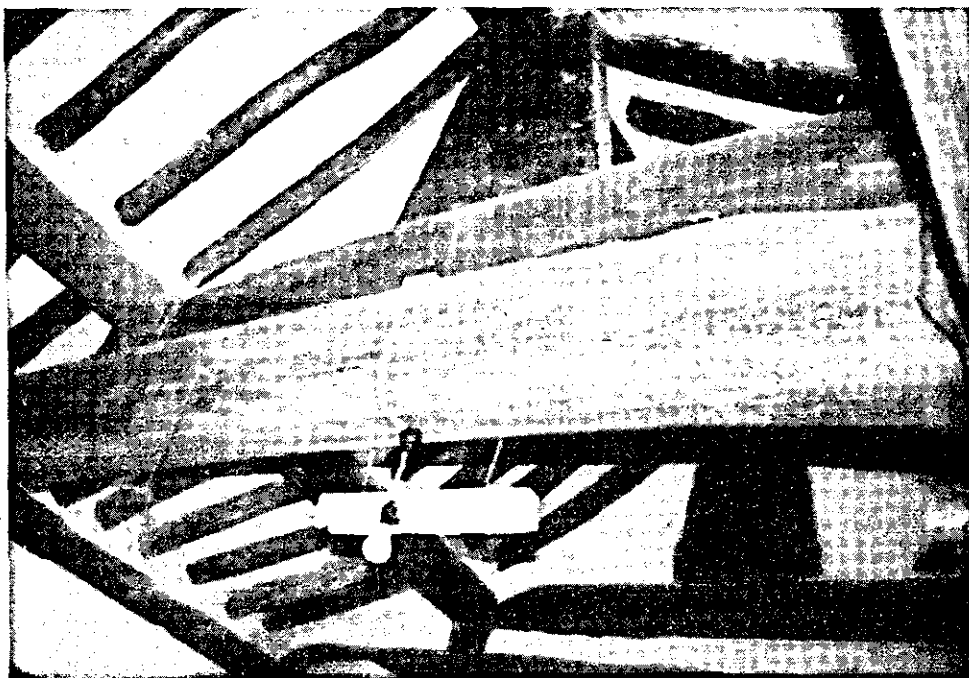
[사진 67] 김기현 가옥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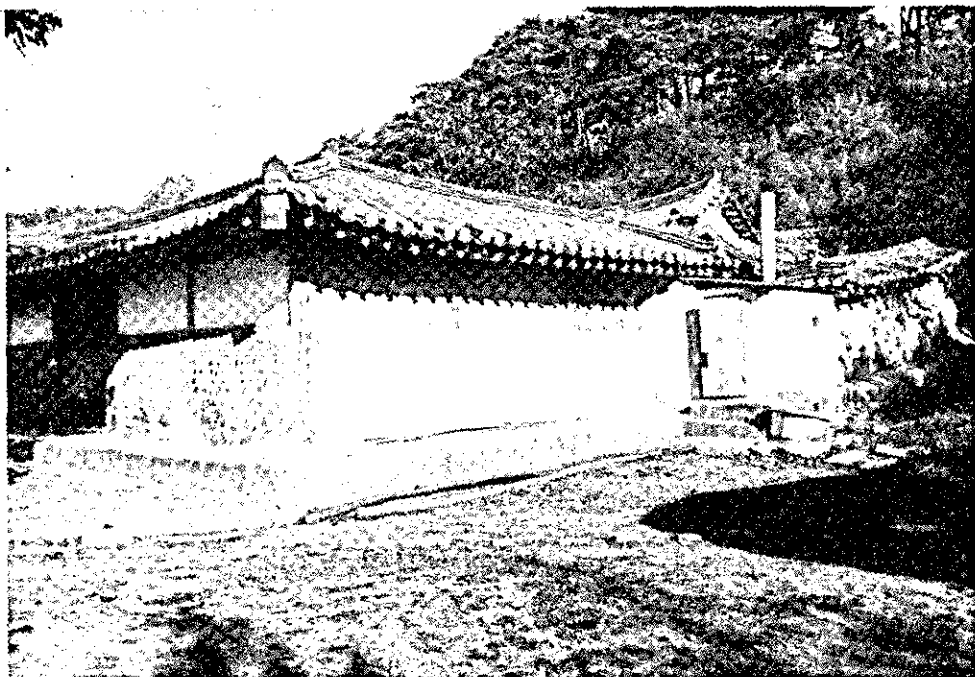
[사진 68] 김기현 가옥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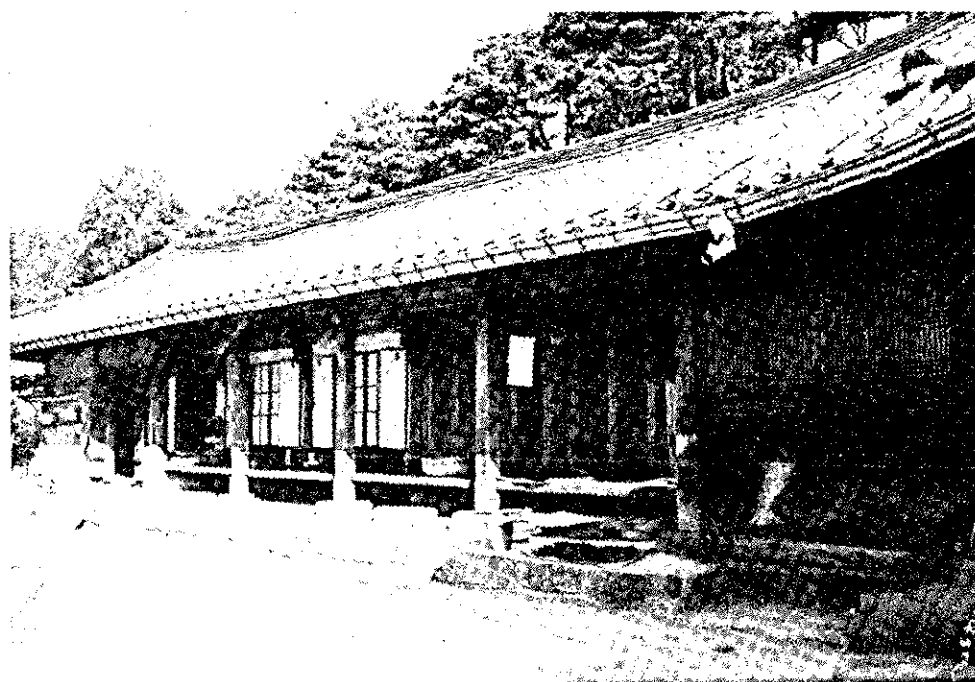
[사진 69] 김기현 가옥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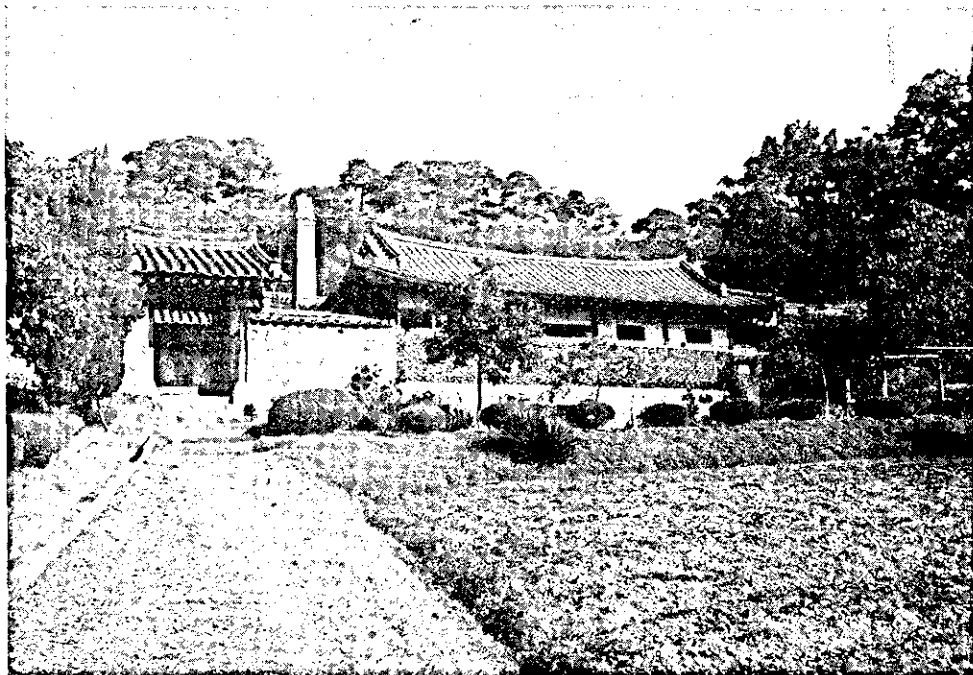
[사진 70] 김기현 가옥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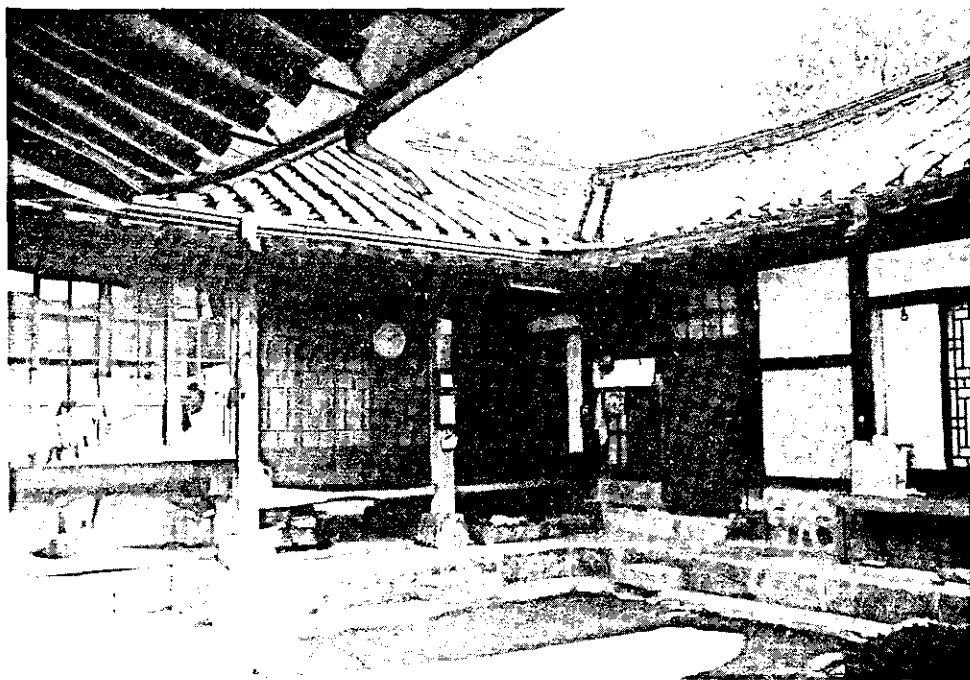
[사진 71] 류기상 가옥 모습



[사진 72] 류기상 가옥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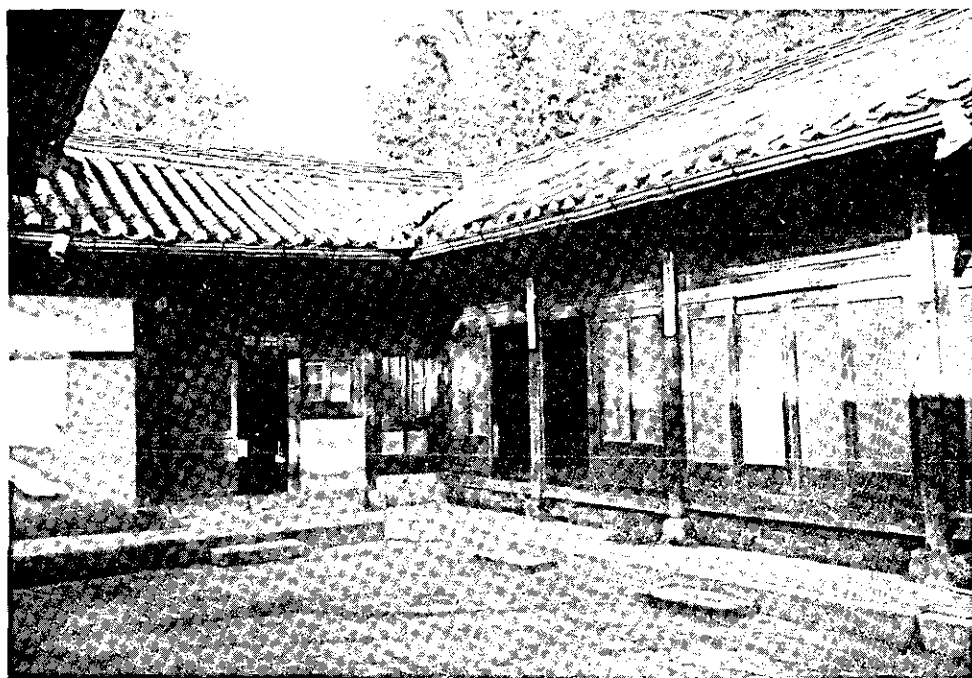
[사진 73] 류정노 가옥 원경



[사진 74] 류정노 가옥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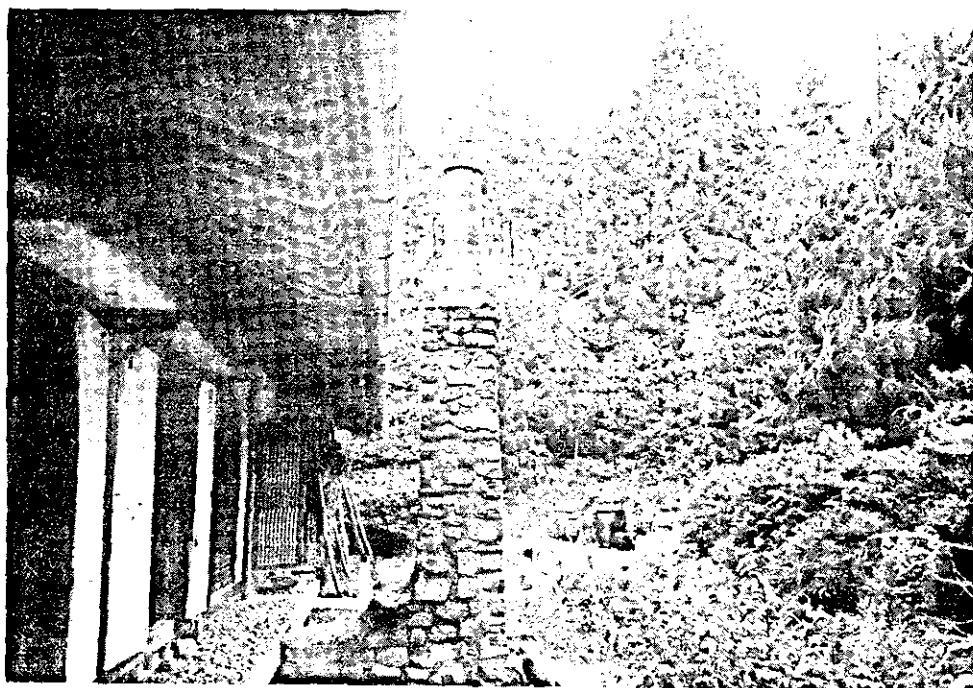
[사진 75] 선미제 모습



[사진 76] 선미제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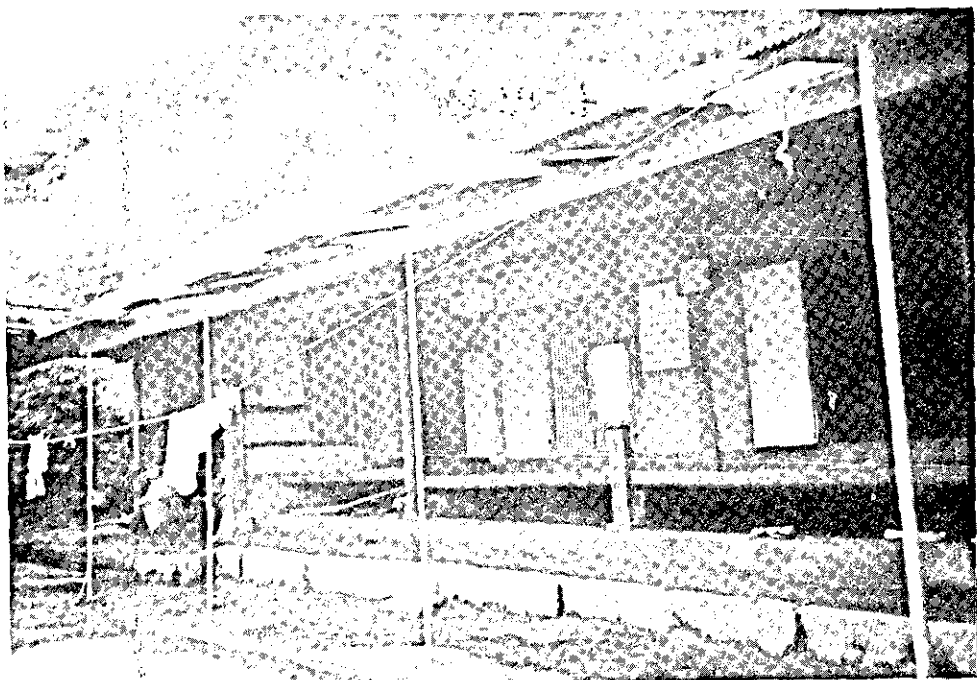
[사진 77] 이성진 가옥 모습



[사진 78] 이성진 가옥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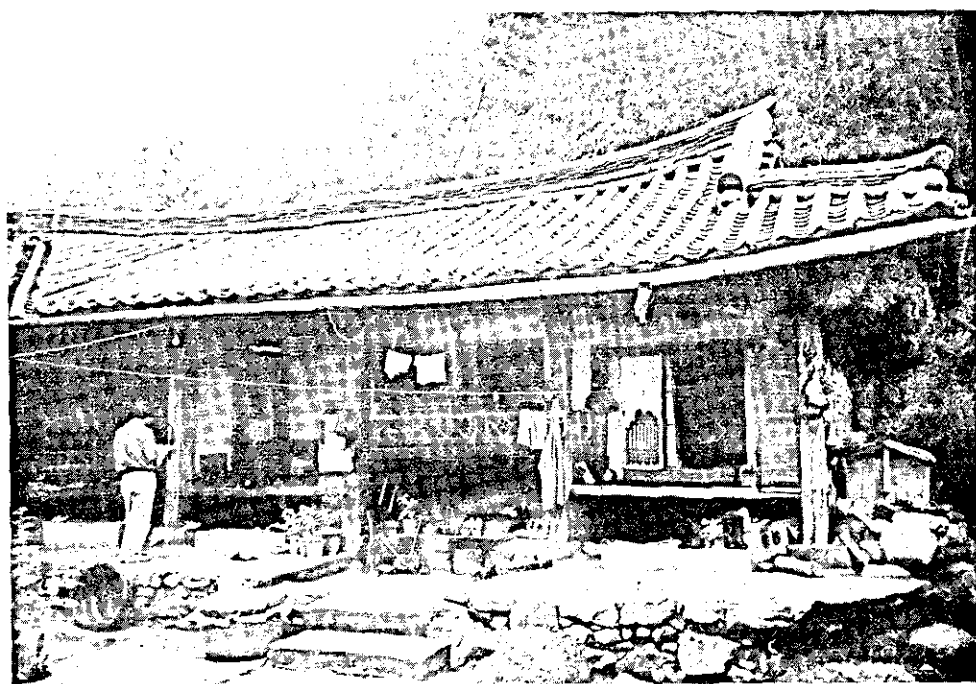
[사진 79] 상옥리 죄씨댁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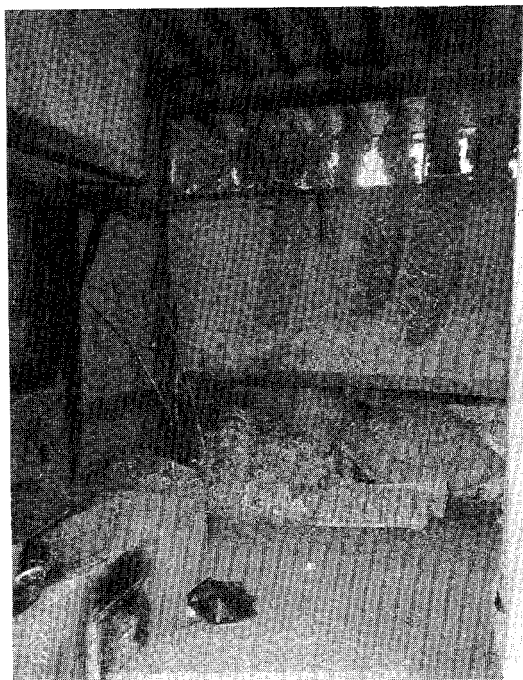
[사진 80] 상옥리 죄씨댁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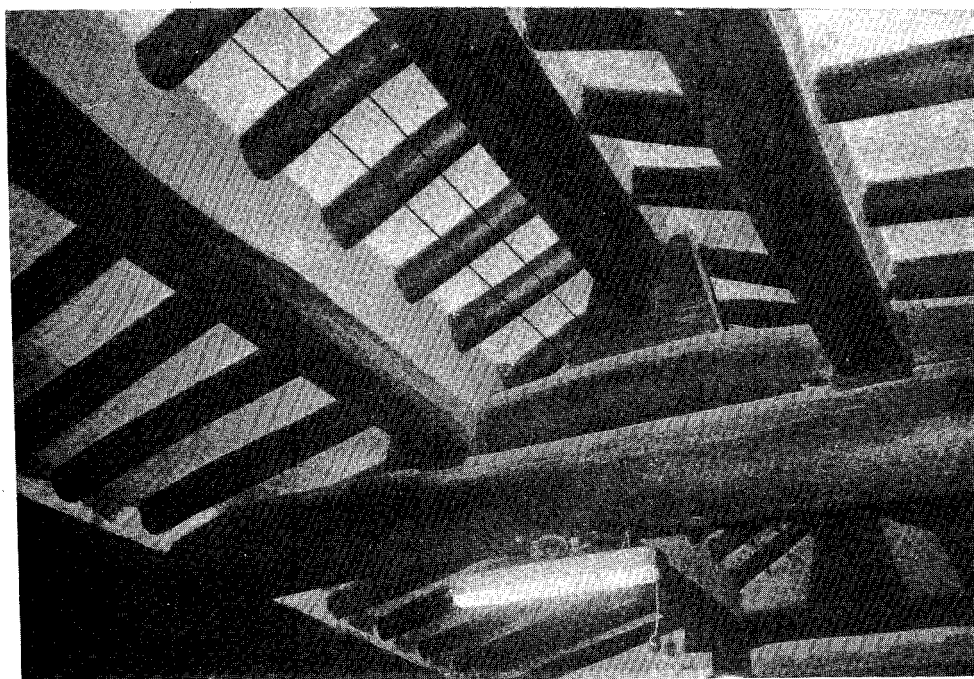
[사진 81] 이동환 가옥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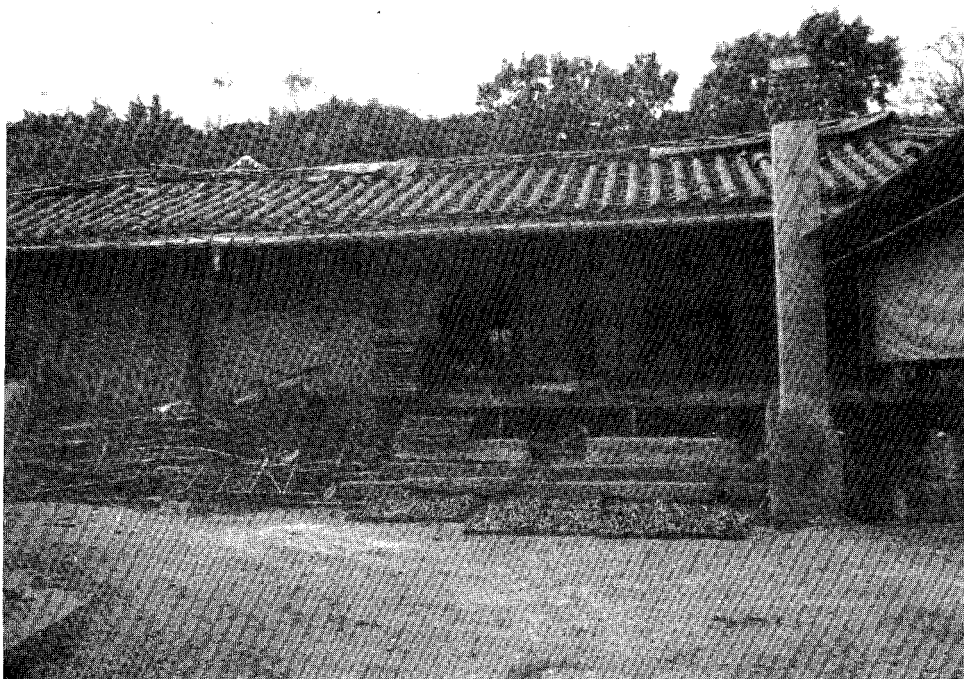
[사진 82] 이동환 가옥 내부



[사진 83] 이동환 가옥 부엌



[사진 84] 이동환 가옥 세부



[사진 85] 정순왕후생가 모습



[사진 86] 정순왕후생가 내부

天主教分野

趙 珣
(高麗大學校)

I. 조사과정

본고에서는 서산/태안 지방의 문화유적 가운데 천주교 관계의 문화유적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 지역의 천주교 문화유적에 관한 올바른 검토를 위해서는 천주교 신앙이 이 지역에 전파된 과정을 먼저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이 지방에 전파된 천주교 신앙의 성격을 시기별로 밝혀 봄으로써 각 시기별 신앙 내지는 천주교 문화의 특성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서산/태안 지방의 천주교 문화 유적에 관한 이해의 전제로서 이 지역에의 천주교 전파와 그 특성을 먼저 밝혀 보고자 한다.

한편, 이에 이어서 서산시와 해미면에 소재하고 있는 천주교 문화 유적을 주목하면서, 이 지역의 천주교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의 업적들을 그들이 직접 남긴 서한이나, 그들의 활동을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밝혀 보려 한다.

원래 문화유적의 지표조사에 있어서는, 역사시대의 문화유적인 경우에는 특히, 그 문화유적의 유래와 성격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헌자료나 구전자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문화유적의 개념을 서산/태안 지역에 현재 남아있는 유적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이 지역에서 활동한 사람들의 서한문 및 이 지역에서 활동한 사람들에 대한 증언자료들을 함께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즉, 본고에서는 서산/태안 지역의 천주교 유적과 그에 관한 문헌자료 등을 함께 포함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지역의 사적지에 관한 사진자료 및 문헌자료 발췌문을 함께 제시하여 이 지역의 천주교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서산/태안 지역의 천주교 문화유적에 대한 제1차 현지 조사는 1990년 8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 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제1차 현지조사를 갖기 이전 기왕에 간행된 문헌자료들을 통해 이 지역에 산재한 천주교 관계 유적들을 사전 조사했다. 그리고 제1차 현지조사의 과정에서는 현지 인사들의 도움을 받으며 문헌자료를 통해 확인된 유적지를 답사했으며, 천주교 관계의 새로운 문화유적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했다.

제2차 현지 조사는 1990년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3일 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제2차 현지 조사에서는 유적지들을 거듭 확인했고 유적지에 대한 촬영 작업을 진행시켰다.

또한 제3차 현지 조사는 1990년 11월 25일에 진행되었다. 이 제3차 현지 조사에서는 사진자료의 보완을 위한 작업들이 진행되었다.

이 현지조사 작업과정에는 책임조사원 조 광 및 조사원 정홍준 외 고려대 대학원 조선후기사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한편, 이와 같은 현지조사 작업과 병행하여 1990년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계 문헌에 관한 조사·정리 및 발췌작업을 계속 진행시켰다.

서산/태안 지방의 천주교 유적지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작업은 이미 1935년 서산 천주교회의 주임 신부였던 바로(Barraux, 范, 1903~1946) 신부에 의해 진행된 바 있다. 그는 이 지역의 천주교 유적중 가장 대표적인 해미의 천주교 유적지를 조사했다. 즉, 그는 1866년부터 1868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진행된 병인교난(丙寅敎難) 때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순교한 해미를 주목했다, 그가 이 조사 발굴작업을 진행시킨 것은 1935년 4월 2일이었다. 그는 이 과정에서 李周弼(당시 85세)을 비롯한 목격 증인들의 증언을 청취하여 기록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들의 증언에 따라 해미면 조산리에 소재한 병인교난 시의 생매장 터를 발굴 확인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발굴 과정과 함께 해미 지방의 천주교 순교자에 관한 기록을 정리하여 《海美殉教者略史》를 간행했다.¹⁾

이 기록은 이 지역의 천주교 유적지에 관한 첫번째 조사보고서로서 그 사료적 가치는 매우 높다. 그러나 이 기록을 본격적 발굴보고서로서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왜냐하면, 그 발굴조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나 보고서를 작성한 이들이 발굴조사에 관한 본격적 수련을 거쳤거나, 과학적 방법에 의한 발굴 및 보고서 작성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발굴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아무도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그들은 생매장 터의 발굴에 신중을 기하고자 했고, 이를 충실히 기록하고자 했다. 그러므로 이 기록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료적 가치는 부정될 수가 없을 것이다.

한편, 1935년의 생매장 터 발굴 이후 해미 읍성 안에 있는 관아도 천주교도의 순교와 관련된 사적지로 주목받게 되었다. 그후 1956년에는 해미읍성 서문밖 개천의 다리로 사용되던 큰 돌을 순교자 관계 기념물로 주목하여 서산 천주교회로 옮겨 보관했다.(이

1) [Barraux], 1935. 《海美殉教者略史》, 瑞山: 瑞山天主教會

다리용 큰 들은 1986년에 제자리로 다시 옮겨 놓았다.)²⁾ 한편 1975년에는 해미읍 조산리 생매장터에 ‘해미순교탑’을 건립했고, 1982년에는 ‘해미읍성 순교기념비’를 세우게 되었다. 그리고 1980년 이래 진행된 해미읍성의 발굴 정화계획의 추진 과정에서도 이곳의 천주교 유적지들이 주목을 받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일련의 작업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해미의 천주교 유적에 대한 본격적 조사작업은 진행되지를 못했다. 1950년대 이후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이 지역의 천주교 유적 개발과 관련된 사업들은 1935년의 조사 기록과 그밖의 구전 자료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지역 일대의 천주교 문화유적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조사가 요청되어 왔다.

그리고, 이 지역의 천주교 문화유적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표조사와 병행하여 문헌자료에 대한 조사 정리작업이 전개되어야 한다. 이 지역의 천주교 유적에 관한 문헌자료로는 먼저 《치명일기》를 들 수 있다.

이 《치명일기》는 高宗 初 興宣大院君에 의해 단행된 천주교 박해인 병인교난(丙寅敎難) 때의 순교자들에 관한 기초적 조사 기록이다. 이 조사 간행 작업은 조선교구 제8대 교구장으로 임명된 뮈텔(Mutel, 閔德孝) 주교에 의해 진행되었다. 뮈텔 주교는 1891년 2월 이후 병인교난 때의 순교자들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일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향후 4년에 걸쳐 이 수집 작업을 진행시키면서, 그동안 전국에서 모은 순교자의 행적을 지역적으로 정리한 뒤 1895년 《치명일기》라는 이름 아래 서울에서 활판으로 간행했다. 뮈텔 주교가 이 책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책자는 병인교난으로 인해 순교한 사람들 가운데 모범적인 인물들을 뽑아 그들을 성인품에 올리기 위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간행된 것이었다. 뮈텔주교는 《치명일기》를 통해 순교자들의 순교지, 연령, 순교일자, 순교방법 등 간단한 행적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간행해서 전국 교회에 배포하여 그 순교자들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했다. 그 결과 《치명일기》에 수록된 877명의 순교자 가운데 24명이 1968년에 복자(福者)가 되었고 1984년에는 성인품(聖人品)에 오를 수 있었다.

이 《치명일기》에는 서산/태안 지역 출신의 천주교 신도로서 서울이나 공주, 홍주

2) 瑞山東門本堂, 1987. 《瑞山東門本堂 七十年史》, 瑞山: 天主教大田教區 瑞山東門教會, pp.292~3.

등지에서 순교한 8명의 신도가 포함되어 있다.³⁾ 그리고 오늘날 서산군의 일부인 해미에서 순교한 37명의 순교자와 함께 “농바우” 출신 신도 26명이 그곳 해미에서 순교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치명일기》의 자료는 해미 지역의 천주교 문화유적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자료로 생각된다(사진 1 참조).

《치명일기》와 더불어 이 지역의 순교사실에 관한 문헌자료로는 《병인박해 순교자 증언록》(이하 《증언록》으로 약칭한다)을 주목할 수 있다. 이 《증언록》은 1876년부터 1923년까지 뫼텔, 르장드르(Le Gendre), 드브레(Devred) 신부 등이 주관이 되어 수집한 자료이다. 이 자료들의 작성연대를 시기별로 보면 1876~1899년까지의 자료는 시복(諡福) 예비조사의 단계에서 수집된 목격증언이나 전문(傳聞) 증언들이다.

그리고 1899~1900년에는 시복을 위한 서울교구의 교회 재판이 개척되었는데 이 재판과정에서도 증언자료들이 첨가되었다. 또한 1900~1921년까지는 병인교난의 순교자 중 26인을 뽑아 교황청에 시복 수속을 준비해 나갔다. 이 기간 중에도 증언자료가 다시 보완되었다.

한편, 1921~1926년 사이에 교황청에서 시복 수속을 위한 교회재판이 진행되었다.

이 교황청 재판 과정에서도 증언기록의 일부가 다시 보완되었다. 《증언록》에는 이 4 시기의 증언들이 혼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증언록》 가운데에는 서산 동면 강당리 출신인 김 요셉과 그의 아내 최마리아가 홍주에서 순교한 사실을 비롯하여⁴⁾ 해미에서 순교한 39명의 순교자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 39명 가운데 15명의 순교자는 《치명일기》에도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인물들이다. 한편 서산/태안 지역 관계 천주교 순교자에 관한 이 《증언록》의 기록이 작성된 시기는 1876년부터 1899년 사이였다. 그 증언자들은 상당수가 사건을 직접 목격한 증언이었다. 그러므로 이 《증언록》이 가지는 사료가치는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그 증언 내용에 대한 신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사진 2 참조).

서산/태안 지방의 천주교 문화유적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위의 자료들

3) 1895. 《치명일기》 pp.126~133 참조.

4) 《병인박해 순교자 증언록》 서울:韓國教會史研究所, 정리번호 116, 117, 148.

이외에 《Mutel 文書》를 또한 주목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Mutel 文書》는 조선교구 제8대 교구장인 뮈텔 주교가 자신의 재임기간인 1890년부터 1925년 사이에 주고 받은 서한을 비롯한 자료를 말한다. 《Mutel 文書》는 동양언어로 쓰여진 1287건의 문서와, 라틴어 혹은 프랑스어로 쓰여진 12,164건의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다.⁵⁾

이 《Mutel 문서》는 당시의 교회사를 밝히는 데에 제1차적 사료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 근대사를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도 매우 귀중한 사료로 평가되고 있다. 이 《Mutel 文書》에는 서산/태안 지방에 관한 각종 교세통계표를 비롯하여 (사진 3 참조), 서산/태안 지방에서 천주교 선교에 종사하던 성직자들이 뮈텔 주교에게 보낸 서한들이 포함되어 있다. 즉, 서산 천주교회의 초대 주임 신부였던 安學滿 신부의 라틴어 서한 16편, 제3대 주임신부였던 멜리장(Mélizan) 신부의 프랑스어 서한 7편 및 초기의 서산 천주교회 관계 통계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Mutel 文書》에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자료들은 서산/태안 지방의 천주교 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자료들이다.

한편, 서산/태안 지방의 천주교 관계 문헌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연대기 자료에 대한 검토작업도 시도했다. 《承政院日記》, 《備邊司謄錄》, 《朝鮮王朝實錄》, 《高純宗實錄》《各司謄錄》 등의 문서를 통해서 이 지역의 천주교 관계 기사들을 찾아 보았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관찬 사료들에 나타난 서산/태안 지방의 천주교 관계 기사들은 매우 단편적이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천주교 문화유적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을 받기는 어려웠다. 반면에 교회 내의 문헌자료들은 이 지역에서 전개된 천주교 관계의 사실들을 풍부히 전해 주고 있으며, 또 그 사료적 가치도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주로 천주교 관계의 문헌들을 중심으로 하여 서산/태안 지역 문화유적 지표조사의 보조자료를 선택하였다.

5) 李元淳, 1986. 〈Mutel 文書〉《韓國天主教會史研究》서울:韓國教會史研究所, p.422.

II. 서산／태안예의 천주교 전파

조선에 천주교가 전파된 때는 18세기 후반기인 1784년이였다. 1784년 9월 李承薰·李櫟 등의 서울 水標橋 신앙집회가 계기가 되어 창설된 조선 천주교회는 楊根 등 경기 일원을 비롯하여 충청도 지역으로까지 곧 확산되었다. 충청도 지역의 천주교 전파는 李存昌의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존창이 천주교에 입교한 과정에 관해서는 두가지의 견해가 있다. 그 하나는 이존창 자신이 1801년에 체포되어 심문당하던 과정에서 밝힌 것이고, 또 하나는 달레(Dallet)의 《韓國天主教會史》에 기록된 내용이다. 즉, 이존창은 자신에게 천주교를 가르쳐준 인물이 서울의 金範禹였다고 답한 바 있다.⁶⁾ 한편, 달레는 이존창이 權日身의 제자였음을 말하며, 이존창과 충청도 內浦 지방예의 천주교 전파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일신 프란치스코 사베리오의 집에는 存昌이라고도 부르는 李단원이라는 청년이 있었다. 그는 넓고 기름진 內浦 평야의 접경에 있는 충청도 天安郡 여사울 良民의 농가에서 태어났다. 그는 타고난 재주가 비상하여, 처음에는 자기 집에서 글을 배우고 있었으나, 오래지 않아 더 완전하게 배우고 싶은 욕망으로 인하여 어떤 유명한 선생을 찾아 배우겠다는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때 權氏 집안 학자들의 평판은 한창 높았다. 이단원은 그들을 찾아가 제자가 되었다. 권일신 사베리오는 자기 제자의 좋은 자질과 훌륭한 품성에 매혹되었다…… 권일신은 이내 천주교를 그에게 알려주고, 믿어야 할 중요한 신조뿐만 아니라, 특히 천주교인의 본분과 그 실천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단원(존창)은 루도비코 곤자가라는 본명으로 세례를 받고, 자기 스승으로부터 고향에 돌아가 이번에는 자기도 전교하라는 사명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고향에 돌아가 잠깐 동안에 자기 가족과 친척과 친구, 그리고 그의 지식과 덕행의 평판으로 끌려오는 많은 사람들을 입교시켰다. 저 유명한 內浦 천주교회의 처음 기초는 이렇게 다져졌다. 그때부터 內浦는 늘 열심히 천주교인들과 순교자들의 못자리가 되었다.⁷⁾

6) 〈邪學罪人 李家煥等推案〉《推案及鞫案》, 서울: 아세아문화사, 12, p.124; 《日省錄》 正宗, 己未年 8月 3日 條.

7) 달레 著, 崔奭祐·安應烈 訳, 1979 《韓國天主教會史》, 上, 서울: 韓國教會史研究所, pp.312~313.

이상의 자료를 볼 때 이존창에게 천주교 신앙을 직접 전수한 인물로는 金範禹와 權日身을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⁸⁾ 그러나 이상의 상이한 내용을 전해주는 두 사료를 검토해 볼 때, 金範禹는 이존창의 심문기록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權日身은 朝鮮側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달레의 기록임을 주목해야 한다. 그런데 심문기록은 비록 이존창 자신의 언급이라 할지라도 구금된 비정상적 상황에서 개진된 기록이므로 평상시의 객관적 상황과는 상당한 차이를 드러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존창의 입교를 전후한 시기의 동향과 입교 이후의 활동을 자세히 전하고 있는 달레의 기록에 사료적 가치가 더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존창이 자신의 심문과정에서 왜 권일신이 아닌 김범우로부터 천주교를 전수 받았다고 말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궁구해 보아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1801년 신유교난(辛酉敎難) 당시의 상황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교난 당시 이존창은 권철신과 함께 체포되어 심문을 당했다. 이존창에게 신앙을 접수했던 권일신은 1791년 천주교 문제로 말미암아, 고초를 겪은 끝에 이미 死去했고, 1801년의 신유교난 때에는 권일신의 형인 권철신만이 체포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존창은 스승 권일신의 친형인 권철신과 자신과의 연결을 차단시킴으로써, 권철신을 보호하려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존창은 자신에게 천주교 신앙을 전수해준 권일신보다는 이미 사망한 인물인 김범우를 자신의 스승으로 지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⁹⁾

이존창이 세례를 받았던 때는 교회창설 직후인 1785년 경으로 추정된다. 그는 이미 이때에 세례를 받아 ‘내포의 사도’로 활동하게 되었고, 1786년에 조직된 ‘假聖職者團’의 일원으로 내포지방의 선교에 책임을 맡고 있었다.¹⁰⁾ 이존창이 주로 활동했던 내포

8) 朱明俊 等, 1982. <忠淸道の 天主教傳來> 《韓國教會史論叢》, 서울: 韓國教會史研究所, p.38에서는 李存昌에게 신앙을 전수한 인물이 金範禹임을 말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달레의 서술 내용보다는 이존창의 심문기록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

9) 박해시대 천주교신도들이 체포 당한후 심문 과정에서 천주교를 가르쳐준 인물에 관해 추궁을 당할 때 흔히 이미 사망한 신도들의 이름을 지목함으로써, 관헌들의 추적을 막아보려 했던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이존창도 이러한 사례와 마찬가지로 김범우를 자신의 스승으로 지목한 듯 하다.

10) 달레, 위의 책, 上, p.324.

지방은 忠淸道의 아산, 합덕, 대흥, 홍주, 서산, 청양, 홍산 등을 말한다. 이 지역은 무한천과 삼교천을 내륙 수로로 활용하여 아산만 일대에서 배를 타고 항해가 가능했던 곳이었다.¹¹⁾

서산/태안 지방은 내포지방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존창이 서산/태안 지방에서 직접 선교활동에 참여했던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서산/태안 지방의 인접 지역인 예산, 홍산 등의 지역에서 이존창은 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서산/태안은 이존창의 간접적 활동범위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 오늘날의 서산/태안 지방에서는 천주교회사의 초창기부터 천주교와 관련된 인물들의 행적이 발견된다.

내포지역에서 형성된 초기 천주교회사의 신앙공동체는 양인 농민층을 위주로 한 공동체였다.¹²⁾ 이 지역의 교회사에서 드러나는 이와 같은 특성은 그 후의 박해시대 전 시기를 거쳐 거의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오늘날의 서산/태안 지방에 속하는 곳 중 천주교의 순교 사적과 가장 관련이 깊은 곳은 해미이다. 해미의 첫 순교자로는 1799년 2월29일에 순교한 朴取得을 들 수 있다. 그는 洪州 출신으로 1797년 홍주 관아에 체포되어 7개월 동안 네 차례에 걸쳐 혹독한 심문을 당한 후 해미 진영으로 이송되었다. 그는 해미 진영에 이송된 이후에도 계속 심문을 당했다. 그가 체포되어 있던 “18개월 동안 단 하루도 고문을 당하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였다. 그는 30여세의 나이로 해미 감옥에서 교수형을 받아 순교했다.¹³⁾

1799년 12월13일 해미 감옥에서 李步玄 프란치스코와 印은민 마르티노가 배를 맞아 죽음으로써 순교자가 되었다. 이보현은 德山 황모실의 부유한 良人 출신이었다. 그는 24세 때에 黃沁에게서 천주교를 배워 입교했다. 그는 그후 고향을 떠나 타관 생활을 계속하다가 박해가 일어나자 체포되었고, 감사의 명에 의해 출신지 관아로 이송되었다. 그러나 당시 해미의 營長이 덕산과 해미 두 고을을 관장하고 있었으므로 그는 해미로 이송되었다. 해미에서 그는 두 차례에 걸쳐 심문을 당했고, 천주교 신앙의 포기를 거

11) 朱明俊 등, 위의 논문, p.31.

12) 趙 珖, 1988. 《朝鮮後期 天主教史 研究》, 서울: 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 p.49

13) 달레, 위의 책, 上, pp.410~416.

부한 결과 옥졸들에게 타살되어 27세의 나이로 순교하였다.¹⁴⁾

印은민 마르티노는 李步玄의 知人이었다. 그는 德山 주래골에서 태어난 양반 출신이었으며, 황사영에게서 천주교를 배웠고 주문모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그는 공주로 이사하여 살다가 공주의 포졸들에게 체포되었다. 그는 공주와 청주에서 심문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배교를 강요당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그는 자신의 출생지로 이송되어 해미 진영으로 보내졌다. 해미 영장도 그를 배교시키려고 했으나 그는 이를 거부했다. 그리하여 그는 1799년 12월15일 이보현과 같은 날에 63세의 나이로 타살되어 순교했다.¹⁵⁾

한편 1801년의 신유교난 과정에서 김사집 포란치스코는 1801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해미 진영에 구금되어 있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혹독한 고문을 당했으나 배교를 거부하고 신앙을 고수했다. 그러다가 그는 당시 충청도의 兵營이 있던 淸州에 이송되어 1801년 12월 22일 청주 장터에서 곤장을 맞아 숨을 거두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8세였다.¹⁶⁾ 그리고 신유교난이 끝난 다음인 1805년에도 해미 진영에는 신자들이 체포·구금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얼마 후에 석방되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편 1813년 4월 15일에는 保寧에 살던 黃바오로가 체포되어 해미 진영에 이송되었다. 그는 해미 감옥에서 심문을 받은 이후 그해 8월에 공주 감영으로 다시 이송되어 그곳에서 10월 19일에 순교했다.¹⁷⁾

해미 감옥에서 옥사한 대표적 인물로는 金震厚(1738~1814)를 들 수 있다. 김진후는 면천군 솔피(現 唐津郡 牛江面 松山里) 출신이었다. 그는 교회창설 초기에 영세입교했다. 그는 1791년 이래 4~5회에 걸쳐 체포·석방되었고, 전주, 홍주, 공주 등 여러 관아에서 무수한 고문으로 배교를 강요당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그는 1801년의 신유교난 때 체포되어 배교한 후 유배를 당했으나 곧 解配되었다. 1805년 그는 다시 해미 관아에 잡혔으나, 전일의 배교를 뉘우치고 자신의 신앙을 고수했다. 그는 그후 10여년을 해미 감옥에서 보내다가 1814년 10월20일 76세를 일기로 옥사 순교했다.¹⁸⁾

14) 달레, 위의 책, 上, pp.422~425.

15) 달레, 위의 책, 上, pp.425~426.

16) 달레, 위의 책, 上, pp.607~608.

17) 달레, 위의 책, 中, p.15, 42.

18) 달레, 위의 책, 中, pp.46~47.

1817년 10월 해미의 포졸들은 천주교에 대한 또 다른 탄압을 시도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德山 배나다리(現 禮山郡 插橋邑 龍洞里 三區)에서 신도 30여명을 체포하여 해미 관아로 압송했다. 이때 체포된 신도들 가운데 다수가 배교하여 석방되었지만, 정윤보 스테파노와¹⁹⁾와 민첨지 베드로, 안나, 송첨지 요셉, 孫연옥 요셉, 孫여심 등은 끝까지 신앙을 지속했다. 이상의 6인 가운데 민첨지 베드로는 結成 출신으로 木川 최악골에 살다가 배나다리로 이사하여 지냈다. 그는 1817년 10월 그의 형수인 안나를 비롯한 여러 신도들과 함께 해미 관원에게 체포되어 해미로 압송되었고, 해미 감옥에서 2개월을 지내다가 그의 형수 안나와 함께 굶어 죽었다. 당시 그들의 나이는 모두 60세 이상인 노인이었다.²⁰⁾

송첨지 요셉은 雇工 출신이었다. 그도 1817년 해미 관아에 붙잡힌 뒤 배교를 거부하고 해미 옥중에서 세상을 떠났다.²¹⁾ 한편, 孫연옥 요셉은 洪州 출신으로 배교를 거부하고 계속 수감되어 있다가 1824년에 옥사했다. 그리고 孫연옥의 부친인 孫여심도 아들이 체포된지 3일 후에 체포되어 해미 진영에 압송되었고 이곳에서 20여 차례나 혹독한 형벌을 받았다 그러나 그도 배교를 거부하고 해미 감옥에서 10여년 동안을 지내다가 중병에 걸려 사망했다.²²⁾

1825년 해미 진영에서는 주변의 천주교 신도들에 대한 체포 작업을 다시 전개했다. 그 과정에서 裴청모 아우구스티노와 河 바르바라가 체포되어 해미감옥에 구금되었다. 배청모는 당진 태생으로서 1799년에 순교한 배관점의 아들이다. 그는 부친의 체포직후 淸州 병영에 부친과 함께 수감되었다. 그의 부친이 1799년 사형을 당하자 그는 부친의 시신을 매장할 수 있는 허가를 얻어 부친을 장사지낸 후 탈출했다. 그는 탈출 후 1년간 뱃사공 노릇을 한 다음 4~5년 간을 公州 땅에 은신하여 지냈다. 그후 그는 면천 강문이로 거처를 옮겨 그의 천직인 목수일로 생활을 해나갔으며, 신도들을 위해 교회서적을 필사하는 일에도 종사했다. 1825년 박해가 일어나자 그는 다시 체포되어 해미 진영에 압송되어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 그는 배교를 하지 않았지만 2~3년이 지난 후

19) Daveluy, *Notes pour l'histoire des Martyres de Corée*, [MS], pp.260~261.

20) 달레, 위의 책, 中, p.97

21) 달레, 위의 책, 中, p.98

22) 달레, 위의 책, 中, p.99

석방될 수 있었다. 석방된 후 그는 매달 초하루와 보름날 해미진영에 출두하여 근황을 알려야 했다. 그러다가 그는 1829년 6월26일 세상을 떠났다.²³⁾

한편, 河 바르바라는 당진 출신이었지만 면천으로 시집을갔다. 그는 남편 친구 중의 한 사람으로부터 천주교를 전수받았다. 그는 과부가 된 뒤에 신도 부인과 처녀들을 가르치는 일에 종사했고, 그의 선교범위는 內浦 평야 일대에 이르렀다. 그는 이와 같이 ‘전교회장’으로 활동하다가 牙山 반대마골에서 1825년 3월 해미의 관원들에게 체포되었다. 그는 배교를 강요하는 문초를 여러번 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다. 얼마 후 그는 매달 두번씩 관장 앞에 출두한다는 조건 아래 감옥에서 석방되었지만 오래지 않아 병들어 세상을 떠났다.²⁴⁾

1830년대에 들어가서 해미지방의 순교사실에 관한 기록이 나타난 것은 1838년이였다. 즉, 이 해 8월 20일에는 해미에서 조홍운 안드레아가 순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²⁵⁾

이 기록을 보면, 해미 지방에서는 서울에서 기해교난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전부터 박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동향과는 무관하게 지방 관아 단위로 전개된 박해 가운데 하나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중앙에서 박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방에까지 그 여파가 미치게 마련이었다.

즉, 1839년에는 己亥敎難이 일어났고 그 교난의 여파는 충청도에까지 미쳤다. 이 교난의 과정에서 충청도 각 지방에서는 많은 신도들이 체포된 후 배교를 선언하고 석방되었다. 이 때 해미 진영에서도 천주교 신도들이 체포되어 심문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전 베드로가 순교했다. 그는 원래 면천 양데 출신이었다. ‘그는 몸이 작고 얼굴이 못생기고 병충이고 절름발이요, 머리도 몹시 막혀 있어서 누구에게나 멸시를 당하고 놀림을 받는 사람이었다.’²⁶⁾ 그러나 그는 해미 진영에 압송된 이후 다른 많은 신도들이 배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끝까지 신앙을 고수했다. 그러다가 그는 1839년 9월 중에 굶주림과 杖毒으로 옥사했다. 그의 나이는 30세가 넘었다.

23) 달레, 위의 책, 中, p.108

24) 달레, 위의 책, 中, p.109

25) Daveluy, *ibid.*, p.359

26) 달레, 위의 책, 中, p.485

서산/태안 지역에서 천주교 관계 사건이 가장 집중적으로 전개된 곳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미 지방이었다. 그러나 해미는 한때 내포지방의 8개 군현 중 유일하게 진영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부근의 군현으로부터 이송당한 천주교 신도들이 이곳에서 구금되어 있거나 사형을 당했다.

이런 까닭으로 이곳에서는 많은 신도들이 순교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서산/태안 지역 출신의 신도들도 이 박해의 과정에서 차차 출현하게 되었다. 서산 출신의 신도로는 金綱伊 시문을 들 수 있다. 그는 1795년 이전에 영세 입교했다. 영세 후 그는 자신의 동생인 金昌貴 다두와 함께 향리를 떠나 전라도 高山으로 이사하여 살았다. 그는 거기서 周文謨 신부를 알게 되었고, 주문모 신부도 그의 집에 여러번 머물렀다고 한다. 그는 1801년의 신유교난 때 경상도로 피신하여 진보의 머루산(현 경북 영양군 석보면 포산동)에서 농사를 지으며 신앙 생활을 영위했다. 그러다가 그는 1815년 동생과 함께 체포되어 安東을 거쳐 원주로 이송되었다. 원주에서 그의 동생은 유배형을 받았지만 그는 배교를 거부한 결과 사형선고를 받고 집행을 대기하던 중 1815년 11월 5일 옥에 갇힌지 8개월 만에 50세의 나이로 옥사했다.²⁷⁾

이 이후에도 오늘날의 서산/태안 지방 출신 신도들에 관한 기록은 계속해서 발견된다. 즉, 1860년경부터 서산 강당리(現 瑞山郡 雲山面 龍岩里)에는 공주 출신인 김선양 요셉 일가가 살고 있었다.²⁸⁾ 그리고 이때에 즈음하여 김 스테파노도 서산 강당리에 살고 있었다.²⁹⁾ 또한 이들을 비롯하여 서산출신 신도로서 1866년에 시작된 병인교난 때에 순교한 사람들이 산전되고 있다.

즉, 《치명일기》의 기록을 검토해 보면 서산 강당리에 살던 심 시몬은 京捕에게 잡혀 서울로 와 1866년 11월 서울에서 순교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김 스테파노는 해미에서 순교했고, 서산 용나인 출신 임 야고보는 1868년 5월 13일 홍주에서 순교했다.³⁰⁾ 한편, 이상의 순교자들과 그밖의 순교자들의 순교를 증언한 사람들 가운데 서산 출신

27) 달레, 위의 책, 中, pp.70~73.

28) 《치명일기》 715번

29) 《병인박해 순교자 증언록》 정리번호 120번.

30) 《치명일기》 189번, 688번, 678번.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즉, 서산 용나인에 살던 임 필립보는 그의 형 임 야고보와 그의 모친 그리고 유서방 부자의 순교를 증언하였다. 서산 쇠길리에서 1894년 제물포로 이사온 정 마르코는 그의 사촌 정 필립보의 순교를 증언했고, 서산 성창골에서 1894년 제물포로 이사와 살던 김 태오도로는 공주에서 순교한 김광로에 대해 증언했다. 그리고 서산 문수골의 이 베드로는 수원에서 교수형을 받고 순교한 자신의 아버지 이 베네딕토에 관해 증언하고 있다.³¹⁾ 이로 미루어 볼 때, 적어도 서산 강당리와 용나인에는 1860년대 당시 신도들의 교우촌이 형성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해미 지방에서도 천주교 신자들이 거주하고 있었음을 1866년의 기록들을 통해 확인해 줄 수 있다. 병인교난 때에 해미에서 순교한 사람들 가운데 김선양 바오로와 박춘경은 해미 역말에서 살았다. 그리고 김 프란치스코와 최 마리아는 해미 원벌에서 살았으며, 김정옥 파비아노는 해미 이문에 거주했고, 최 야고보는 해미 삼진리에서 살았다.³²⁾ 이렇듯 해미 관내의 역말이나 원벌에서는 다수의 신도들이 살았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문이나 삼진리에서도 신도들의 존재가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여러 지방의 신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승을 하직하던 신앙고백의 장소였던 해미는 이로써 1860년대에 이르러서 신도들의 구체적 삶이 전개되는 곳이 되었다.

1866년에 시작되어 6년여 간에 걸쳐 계속되었던 병인교난이 종료된 이후 우리나라의 역사는 곧 개항기에 접어들었다. 개항기 조선천주교회에서 당면의 관심사가 되었던 것은 신앙의 자유였다.

이 신앙의 자유는 1882년 경에 이르러 묵인되기 시작했고 1886년에 체결된 제국주의적 불평등조약인 한불조약의 결과 그 범위가 좀 더 확대되어 갔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가 高宗에 의해 공인된 때는 1895년이었으며, 1899년의 敎民條約에 의해 신앙의 자유가 법적으로 확인되었다.³³⁾

개항 직후인 1880년부터 충청도 지방의 전교는 두세(Doucet, 丁加彌) 신부가 맡았다 그는 1881년에는 주로 서산 소길리에 머물면서 충청도의 신도들을 관장했다. 1890년

31) 崔爽祐, 1987. 〈서산지방 교회사 소고〉《瑞山東門本堂七十年史》 pp.339~340. 참조

32) 《치명일기》 715번, 708번; 704번, 705번; 700번; 706번

33) 趙 珖, 1990. 《한국천주교회사》 II, 서울: 크리스찬출판사, pp.13~18

그가 서울로 전임된 이후, 충청도 지역의 선교를 퀴를리에(Curlier, 南一良), 洪秉喆 신부, 크렘프(Krempff, 慶元善) 신부 등이 합덕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하고 있었다. 당시 오늘날의 서산/태안 지방의 천주교 선교도 이상의 성직자들이 책임을 맡고 있었고 이 지역에는 公所가 설정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후 1908년 서산 및 해미공소들은 結城의 水谷(現 洪城郡 龜項面 公里) 본당으로 소속이 바뀌어 폴리(Polly, 沈庇榮) 신부가 관장했다. 그러다가 1914년에 이르러 성직자 부족으로 水谷 본당이 폐지되자, 이곳은 다시 合德 본당 관하에 들어 가서 라리보(Larribeau, 元亨根) 신부의 지도를 받게 되었다.³⁴⁾

서산본당의 직접적 전신인 팔봉면 금학리 본당이 세워진 때는 1917년이다. 이 해를 보통 서산 천주교회가 창설된 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곳에 초대 주임신부로 安學滿 신부가 파견되었다 (사진 4 참조).

안학만 신부는 서울의 뮌텔 주교에게 이 지역의 전교상황에 관한 연말 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해 보내고 있으며, 서산과 안면도 지역의 전교에 매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다가 그는 1919년 이곳을 떠났고 그의 후임으로 폴리(Polly, 沈庇榮) 신부가 부임했다. 폴리 신부는 1921년 초에 본당의 위치를 가재 즉, 팔봉면 상흥리로 옮겼고, 얼마 후 전임되어 갔다 (사진 5). 그의 뒤를 이어 멜리장(Mélijzan, 梅履霜) 신부가 1921년 제3대 주임신부에 취임했다.

제4대 주임신부는 바로(Barraux 范) 신부였다. 그는 1932년에 부임하여 1946년 이곳에서 사망할 때까지 서산지역의 천주교 선교를 위해 헌신했다. 그는 1937년 현재의 서산 동문천주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그는 1935년 해미의 순교자 집단 매장터를 발굴하고 《海美殉教者略史》를 간행한 바 있다. 바로 신부의 뒤를 이어 콜랭(Colin, 高一琅) 신부가 부임했다. 그는 1950년 9월 21일 공산군에게 체포되어 대전으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행방불명이 되었다. 그의 뒤를 이어 여러 외국인 선교사와 한국인 신부들이 서산 천주교회의 주임신부를 역임했다.

이들 중 이 지역의 순교 사적지 정리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로는 먼저

34) 최석우, 위의 논문, pp.340~343

제10대 주임 신부인 申均植 신부를 들 수 있다. 그는 1954년 해미의 순교 유물인 ‘자리개돌’을 서산본당으로 옮겨 기념물로 세웠다. 한편, 李圭男 신부는 1975년 해미에 순교탑 건립공사를 착공했고 이 공사는 그의 후임인 백 요한 신부에 의해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具滋五 신부는 1984년에 해미순교자 생매장터의 대지 1500여평을 확보했고 李寅夏 신부도 순교자 선양에 큰 관심을 표출해 왔다³⁵⁾.

서산 동문 천주교회는 1989년말 현재 2,013명의 신도가 소속되어 있다. 동문천주교회는 1917년에 세워진 서산본당의 맥을 잇고 있으며, 1987년에는 서산시 석림동에 본당을 분할하였는데, 석림동 본당의 신도수는 1,423명을 헤아리고 있다. 이에 앞서 서산본당에서는 1964년 태안 본당(서산군 태안읍 동문리 4구 450번지 소재)을 분리시켰고, 1974년에는 운산본당(서산군 운산면 용장리 2구 소재)을 1985년에는 해미 본당(서산군 해미면 읍내리 303번지 소재)을 독립시켰다. 1989년말 현재 태안본당의 신도수는 2,023명이며, 운산 본당에는 840명의 신도가 있고, 해미 본당에는 596명의 신자들이 있다.³⁶⁾

이상에서 우리는 오늘날의 서산/태안 지역에 천주교 신앙이 전파된 18세기 말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의 천주교회사가 전개되어 나간 줄거리를 간추려 보았다. 이상에서 언급된 내용들은 서산/태안 지역의 천주교 문화유적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 전제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에 기반하여 서산/태안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천주교 문화유적에 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III. 서산시와 천주교 문화유적

1. 서산 동문천주교회 (사진 7 참조)

서산의 현존하는 천주교 문화를 상징하는 건축물로는 서산시 동문동에 소재하고 있

35) 《瑞山東門本堂七十年史》 p.148 등 참조.

36) 위의 책, p.149 및 韓國天主教中央協議會의 統計資料 참조.

는 동문천주교회를 들 수 있다. 서산 동문천주교회는 1937년 바로(Barraux) 신부에 의해 세워진 건물이다. 이 건물의 연조는 비록 얼마 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성당 건물은 1917년에 창설된 서산본당의 결실 중의 하나이며, 18세기 말엽 이래 이 지역에 전파되기 시작한 천주교 신앙이 응축된 곳이라 하여도 큰 착오는 없을 것이다. 이 건물이 세워져 있는 대지는 1934년 6월 13일 바로 신부에 의해 확보되었고, 대지확보 및 건축기금의 대부분은 바로 신부의 프랑스 本家에서 조달되었다.³⁷⁾

이 건물의 설계자나 실제의 정확한 평수는 불확실하나 고딕 양식을 모방한 이 건물은 준공 당시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성당 건물의 구내에 1945년에 수녀원 건물이 세워졌고 1947년에는 천사유치원 건물이 세워졌다.

2. 바로 신부의 묘소 (사진 8 참조)

한편, 서산 동문천주교회 구내 뒷산에는 바로 신부의 묘소가 안치되어 있으며, 그 묘소 앞에는 묘비가 세워져 있다. 이미 수차에 언급한 바 있는 바 바로 신부는 본성이 어진 인물로서 주변의 신도들로부터 聖人 神父로 칭송을 받아왔다. 그가 상항리에 재임했을 때는 부근의 나병환자들을 친자식처럼 돌보아 주었다 한다. 그는 청빈 생활을 즐겨했고 전교에 열정적 인물이었다. 그는 특히 한국의 순교자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결과 1935년에는 해미의 순교자 묘소를 발굴해 낼 수 있었고, 《海美殉教者略史》를 간행했다. 그리고 1937년에는 현재의 동문본당 건물을 완공했다.

그는 천주교의 중심적인 信心 가운데 하나인 聖體에 대한 신심이 특히 강했다. 그의 죽음도 이 성체신심과 관계되었다. 그는 1946년 1월 초 열병으로 사경을 헤매던 신도에게 병자성사와 성체를 봉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 환자가 성체를 넘기지 못하고 토해내자 바로 신부는 이를 자신이 대신 삼켰고, 이로 말미암아 그도 열병에 감염되어 1946년 1월 13일 선종했다. 이리하여 그는 ‘성체신심의 순교자’로 불리울 수도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그가 아끼던 서산 성당의 뒷산에 안장되었던 것이다.³⁸⁾

37) 위의 책, p.219

38) 위의 책, p.219

3. 콜랭 신부의 추모비 (사진 9 참조)

서산 동문천주교회의 정문 입구에는 이 본당의 제7대 주임인 콜랭(Colin, 高一琅) 신부의 추모비가 서 있다. 콜랭 신부는 1902년 프랑스에서 태어나 1927년 파리의방전 교회의 선교사로 서품을 받은 이후 조선에 나왔다. 그는 1949년에 서산 본당의 제7대 주임신부로 부임했다. 그런데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남한의 대부분이 북한 공산군의 치하에 있게 되었다. 공산군의 남진 과정에서 그는 피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다. 그러나 그는 성직자가 성당과 신도를 버리고 피난할 수 없다는 관행에 따라 성당을 지켰다.

그해 8월 16일 그는 서산의 공산당국에 체포되어 내무서에 구금당했다. 구금 중 국군 등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고 9월 21일 미국군의 서산 폭격이 있은 이후 현지의 공산당국에서는 체포된 서산의 인사들을 대전으로 이송하기 시작했다. 이 이송작업은 9월 22일에 단행되었다. 이들은 홍성을 경유하여 대흥을 지나 신양 장터에 이르렀다. 이곳에서 이들은 심한 폭격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이에 공산당국에서는 이들을 야간에 도보로 대전으로 압송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군의 반격이 임박한 상황에서 공산당국자들이 이들을 대전과 공주 사이의 어느 곳에서 처형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³⁹⁾ 사실 국군은 9월 25일을 전후하여 大田을 탈환하고 9월 26일에는 조치원 부근에까지 나아가고 있었다.⁴⁰⁾

이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9월 22일 야간에 체포된 인사들을 대전으로 이송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콜랭 신부가 이송 도중 죽음을 당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러나 그의 시체가 확인되지 아니한 까닭에 그는 행방불명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그의 죽음은 거의 확실한 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동족 상잔의 부끄러운 전쟁 과정에서 희생된 무고한 인물들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그는 성당을 지키고자 했던 충직한 결의로 인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고, 여기에서 그의 성실함은 많은 이의 사표가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서산 천주교회의

39) 위의 책, p.287

40) 合同參謀本部, 1984. 《韓國戰史》 서울: 합동참모본부, p.442. 참조.

신도들은 1976년 추모비를 세워 그 유덕을 기리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산시에서는 동문천주교회와 바로 신부의 묘소, 콜랭 신부의 추모비와 같은 문화유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그 연조가 오래되지 아니한 것들이라 하더라도 서산지방의 천주교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토하고 넘어가야 될 것들로 생각된다.

IV. 해미면의 천주교 문화유적

1. 순교자의 수

오늘날의 서산/태안 지역에서 가장 풍부한 천주교 문화유적을 가지고 있는 곳은 해미이다. 해미에서는 [표 1]을 통해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1799년 부터 1839년 까지 모두 16명의 신도들의 행적이 확인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적어도 12명은 해미 감옥에서 교수형을 당했거나 타살되었다. 그리고 그들중 일부는 굶어죽거나 杖毒으로 말미암아 옥사하기도 했다. 한편, 병인교난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해미에서 순교한 사람들 가운데 그 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53명은 [표 2]를 통하여 제시되고 있다.

[표 1] 해미 관계 천주교 신도 (1799~1839)⁴¹⁾

번호	성명	세례명	연령	해미와의 관계	거주지	순교지	순교일자	순교형태	비고
1	朴取得	라우렌시오	30's	순교지	홍주	해미	1799.2.29	교수	
2	李步玄	프란치스코	27	〃	덕산 황모실	〃	1799.12.13	타살	
3	印은민	마르티노	63	〃	덕산 주래골	〃	〃	〃	
4	金사집	프란치스코	58	구금지	덕산 배방고지	청주	1801.12.22	〃	
5	黃	바오로		〃	보령	공주	1813.10.19	참수	

41) 이 표는 Dallet의 《韓國天主教會史》 및 Daveluy의 기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이다.

6	金震厚	비오	76	〃	면천 솔피	해미	1814.10.20	옥사	1805년체포
7	정윤보	스테파노		〃	덕산 배나다리	〃 (?)	1817.11(?)	?	
8	민(침지)	베드로	60's	〃	〃	〃	1817.11(?)	아사	
9		안나	60's	〃	〃	〃	〃	〃	8의형수
10	송(침지)	요셉		〃	?	해미	1817	옥사	
11	孫연옥	요셉		〃	홍주	〃	1824	옥사	1817년체포
12	孫여심			〃	〃	〃	1827(?)	〃	〃
13	%청모	아우구스티노		〃	면천 강문이	?	1829.6.26	병사	1825년체포
14	河	바르바라		〃	면천	?	?	〃	〃
15	조홍운	안드레아		순교지	?	해미	1838.8.20	?	
16	전	베드로	30's	〃	면천 양대	〃	1839.9.	杖毒死	

[표 2] 병인교난 당시 해미의 순교자 (1866~1868)⁴²⁾

번호	성명	세례명	연령	거주지		순교일	순교형태	치명일기	정리번호
1	김경오	바오로	57	면천 원마루	해미 안우리	1866	참수	711	87
2	김백선					1866		707	
3	김선양			해미 역말		1866.10.11	교수	715	
4	김성연			면천		1868.4.		695	
5	김순장							欠	
6	김여집	파비아노	50's	공주 진밭	해미	1866	참수	710	38,158
7	김여홍			공주 진밭	해미	1866	참수	709	
8	김영횡			공주 진밭	해미	1867.3		699	
9	김윤집			전라도	면천	1868.4.		1696	
10	김정옥			해미 이문		1866.11.22		700	
11	김춘겸		45	면천		1868.4.		694	

12	김	테레사					欠	70
13	김	라우렌시오					欠	161
14	김	스테파노	28	서산 강당리		1866.	교수	688 120
15	김	프란치스코		해미 원벌		1866		704
16	김	프란치스코		덕산			欠	3
17	문	마리아	61			1868.5.23	생매장	719 93
18	박춘경	프란치스코	56	영동	해미 역촌	1866.11 (1867.4)	교수	708 163
19	방명서		28	홍주		1866.	교수	682 120
20	방순기		19	면천		1868.4.		683 87
21	방순기 의 아내		18	면천		"		684 87
22	박	바르바라	74	덕산 신프런	덕산 황모실	1868.5.	옥사	717 93
23	박	바오로	36	홍주		1866.12.29	교수	欠 81
24	박	요한	42	홍주 원머리		1868.5.23	생매장	718 81,93
25	박	요한	40	홍주		1866.12.29	교수	欠 81
26	방	마리아	35	덕산 신프런	덕산 황부실	1868.5.3	생매장	716 93
27	방	안토니오		덕산 황부실		1866.11.12		72 154
28	손복록		38	홍주(?)			교수	691 86,157
29	손사중		47	홍주 신리		1866	교수	690 86,157
30	손치환	요한	60	홍주 신리		1866	교수	689 86,157
31	신	막달레나	28	강원도		1868	교수	692 157
32	염사연			덕산 개산			欠	
33	염지량	에벤시오		홍산 구신	덕산 개산	1866.11		27
34	유군삼	시 로	39	경가고초골	홍주 대전골	1867.5		702 162
35	유	시 로	34	덕산	신창	1866.	교수	685 120
36	유시로 의 처			"	"	"		686 120
37	이군명	바오로		공주 청장리	해미 미점촌		欠	39
38	이군박		55	공주 진밭	덕산 개야산	1868.4—		698

39	이선경		55			1866.	참수	713	
40	이순백					1866	참수	712	
41	이	마테오	34			1866	교수	693	157
42	이	에메렌시아	34	면천		1868.	교수	687	120
43	조유진		21	홍주 서면	신창 창말	1868.4.		697	87
44	정정심	가브리엘	51	홍주 신리		1866.11		714	
45	장안드레 아의 치							欠	70
46	장마티아 의 손자							欠	70
47	장마티아 의 손부							欠	70
48	장마티아 의 손부							欠	70
49	조	베로니카	18	농바위		1868.4		欠	3
50	최	마리아		해미 원벌		1866.		705	
51	최	야고보		수원 갯등이	해미 삼진리	1867.7.1		706	
52	표	안드레아	36	덕산 황부실		1867.9.	교수	720	92
53	홍	시 문	30's	천안 소폴리		1868.봄.		欠	163
54	농바위	교우26명				1868.4.		701	

- No 6 김여흥(兄)과 No 7 김여집(弟) 형제는 No 1 김경오의 자
- No 24 박요한(사위)과 No 17 문마리아(장모)는 함께 생매장
- No 15 김프란치스코는 No 50 최마리아와 함께 순교
- No 16 김프란치스코는 김대건신부의 4촌
- No 25 박요한과 No 23 박바오로는 형제간
- No 29 손사중은 No 30 손요한의 당질
- No 19 방명서와 No 20 방순기는 형제
- No 33 염지량 : 부자와 함께 피체 치명, 아들은 No 32 염사연
- No 42 이에메렌시아는 No 35, No 36 유시로 내외와 함께 체포(687)
- No 43 조유진의 신분은 中人(697)

42) 이 표는 《치명일기》와 《병인박해 순교자 증언록》을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이 표의 '정리번호'는 《병인박해 순교자 증언록》의 정리번호를 뜻한다.

병인교난 기간 해미지역에서 순교한 사람으로는 위의 53명 이외에 ‘농바위’에서 체포된 신도 26명이 있다. 위의 [표, 2] No. 29의 조 베로니카가 농바위 출신 신도로서 No. 54에 나오는 농바위 교우들과 같은 시기에 순교하고 있음을 보면, 그는 No. 54의 농바위 출신 26명의 신도 가운데 하나임에 틀림없고, 증언자도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문헌자료를 통하여 해미에서 죽은 순교자를 모두 뽑아 보면 병인교난 이전의 순교자 12명과 병인교난 때의 순교자 43명, 그리고 농바위 출신 신도 25명(조 베로니카가 제외된 숫자) 합계 90명 정도에 이르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신도들 이외에도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역사적 서술은 가능성에 근거한 서술이 아닌 확실한 문헌자료에 근거한 서술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 해미의 순교사적지 안내판에 기록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요청된다. 현행 ‘서문밖 순교성지’의 안내문에는 “1799년부터 1880년까지 약 2천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이곳에서 처형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생매장 순교성지(여숫골)’ 안내문에는 ‘해미천 좌우 주변에서 1866년부터 1872년 사이에 1천명 이상의 신자들이 생매장 당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해미 읍성 내의 ‘殉教紀念碑’에도 “병인박해(1866)에서 무진박해(1868) 동안만도 박 요한, 문 마리아, 방 마리아를 비롯하여 천여명이 순교했고, 1791년에서 1882년까지 복자 김대건 신부의 증조부 김 비오를 비롯하여 박 라우렌시오, 인 말당 등 수천명에 이르니 어찌 필설로 일일이 밝힐 수 있으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내문이나 비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1천여명 혹은 2천여명이나 수천명 이란 숫자의 정확성에는 상당한 의문의 여지가 있으며, 이와 같은 숫자는 사실과 달리 과장된 숫자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오해 내지는 과장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밝혀 보아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1935년 해미의 집단매장터를 확인한 직후에 쓰여졌던 《海美殉教者略史》를 우선 주목할 수 있다. 이 글의 결론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여러 독자시여, 해미에서 진리를 위하여 혹형을 당함으로 생명을 희생한 자가 이상에서 기재된 이외에 오히려 더 많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 수 만이라도 조그마한 1개 읍에서

이만한 치명자의 수를 내게 되었으니 전국을 통하여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 전국을 통하여 미분명한 모든 수를 제하고 명확한 수를 들어 2천명이라 부르되 일반이 각 역사책이나 혹은 신문 지상에 보도되는 것을 보시는 바와 같이 혹은 몇 만명이니 혹은 10만여명이니 하여 실상인즉 우리의 추측 이상의 많은 수를 가지고 있는듯 합니다. 진리를 위하여 그와 같은 영웅과 호걸들이 많았으니 독자 여러분은 그런 사실을 무심히 듣지 말고 각오와 많은 연구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⁴³⁾

이상의 인용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35년 당시에는 전국에서 순교한 사람의 숫자를 2000여명으로 추정했다. 이 숫자는 현재 각종 문헌자료를 통하여 추출될 수 있는 순교자의 숫자에 매우 가까운 것이다. 그런데, 《海美殉教者略史》를 읽은 사람 중 일부가 이 2000여명이란 숫자를 해미지방의 순교자로 확대 이해한 결과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오류가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해미 지방의 순교자 숫자에 관한 과도한 추정은 피해나가야 할 것이다. 원래 순교자란 그 數的 多寡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인으로서의 삶과 그 證據의 죽음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순교란 양적인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 질적 측면을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단 한명의 순교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의미 부여 여하에 따라서는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점은 해미 지방의 순교자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틀림없이 적용된다.

해미 지방 순교자의 숫자는 문헌을 통해 밝힐 수 있는 90명이란 숫자 보다는 확실히 많을 것이다. 해미 지방 순교자의 숫자가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은 《치명일기》의 기록을 통해서도 암시되고 있다. 즉 1866년 해미에서 교수형을 당한 손사중은 다른 신도 30여 인과 함께 교수되어 순교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순교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치명일기》에 5~6인 내외로 나타나고 있으며 나머지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남아 있지 아니하다.⁴⁴⁾ 그리고 1868년에 순교한 조유진의 경우에 있어서도 “해미 포교에게 잡혀 함 수십여명이 한가지로 치명하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43) 《京鄕雜誌》 No.30, Vol.822. 1936년 1월호, p.50.

44) 《치명일기》 690.

그러나 1868년 그와 동시에 순교한 다른 수십여명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⁴⁵⁾ 그리고 1868년 4월에 순교한 김춘겸의 경우 “해미로 잡혀와 함 네 사람이 한가지로 치명하니”라고 되어 있으나, 그를 제외한 나머지 세 사람의 순교자를 확인할 수가 없다.⁴⁶⁾ 이밖에도 《치명일기》에는 순교 월일을 각각 달리하여 “다른 교우와 한가지로 치명했다”고 표현된 순교자들이 있는 바⁴⁷⁾, 이 경우에도 그 동반 순교자들의 이름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헌을 통해 밝힐 수 있는 90명의 순교자 이외에도 또다른 순교자들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하여 순교자의 숫자가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는 없는 것이며, 순교자의 숫자를 무한정 늘리려는 시도는 박해 당시의 역사적 사실과는 큰 차이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미 지방의 순교자 숫자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보다는 다수의 순교자들이 남긴 순교의 의미에 주목해야 한다. 이곳 해미에서 전개된 순교의 주인공들은 거개가 ‘불학무식한 농투산이’로 지칭되던 사람들이었다. 종전에 이들은 양반 관료나 지주에 얽매어 지내며 자신의 인격 자체가 중세 봉건적 질곡 속에 매몰되어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들이 천주교 신앙을 갖게 된 후 이들은 양반 관료나 나랏님으로부터도 강제될 수 없는 자신 양심의 존재를 터득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양심의자유, 신앙의자유를 지키기 위해 자신에게 가해지는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했던 것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양심과 신앙은 생명보다도 중요했으므로 이들은 이를 위해 생명을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있어서 순교는 자신의 인격을 되찾기 위한 노력의 표현이기도 했으며, 이들은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확보하려던 노력의 과정에서 자신을 산화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 19세기 조선의 순교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의 일단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외에도 교회사적 의미를 별도로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해미 지역의 순교자들에 관해서도 그 숫적 측면에 더이상 경탄해서는 아니되고 그 질적 의미를 음미해 나가야 한다. 19세기 조선 왕조에서 진행된 순교의 주

45) 《치명일기》 697

46) 《치명일기》 694

47) 《치명일기》 685, 702

체는 이름 없는 민중들이 대부분이었다. 이 비특권적 민중의 각성은 우리 역사의 위대한 발전을 뜻하는 사실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각성을 통해 봉건사회의 어둠이 걷혀 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 순교자의 활동무대였던 해미는 하찮은 인민들이 자신의 존귀함을 확인한 장소이며, 새로운 깨달음의 장소인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해미의 사적지가 갖는 올바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병인교난 당시의 순교 상황

해미 지방에서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가장 격렬하게 전개된 시기는 1866년부터 1868년까지를 들 수 있다.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병인교난 때의 사람들은 79명이다. 이들 중 24명이 병인교난이 발생한 해인 1866년에 해미에서 순교했다. 그리고 이들 중 순교의 月日을 밝힐 수 있는 8인은 모두가 10월 이후에 순교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1866년 10월 이후부터 해미 진영에서는 순교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한편, 1867년에는 모두 4명이 순교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1866년의 대규모 박해 이후 박해가 한 때 소강상태에 이르렀음을 말한다. 그러나 1868년에 이르러 해미 지방에서의 박해는 더욱 가속화했다. 이는 1868년 4월에 발생한 오페르트(Oppert)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1868년 4월과 5월에 걸쳐 해미에서는 39명의 신도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다.⁴⁸⁾ 그리고 이들 가운데 1868년 4월에 집단 처형된 농바위 출신 신도 26명 가운데 1인은 배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당했다.⁴⁹⁾ 또한 1868년 5월 3일과 5월 23일에는 신도들을 생매장한 사건이 발생했다. 배교자까지 처형하거나 신도들을 생매장하여 살해한 잔인한 방법이 등장한 것은 大院君의 生父 南延君의 묘를 파괴하려 했던 오페르트 사건에 대한 보복적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병인교난 때에 체포된 신도들은 대개의 경우 체포된 10여일을 전후하여 처형되기도

48) [표 2]의 순교일자 참조.

49) 《병인박해 순교자 증언록》 정리번호 87.

했다. 그런데 조선 왕조에서는 사형의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요 사형사건에 대해서는 三省推鞠의 절차를 밟음으로써 오판에 의한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한 장치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병인교난시 邪學罪人인 천주교인의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先斬後啓에 준하여 천주교도들에 대한 처형이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서울의 左·右捕盜厅에 체포된 신도들의 경우에도 대개는 옥에 갇힌지 10여일을 전후해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⁵⁰⁾

그리고 해미 진영에 체포된 신도들 가운데 다수도 이와 같이 단기간 안에 처형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물론 여기에도 예외는 있었다. 대부분의 신도들이 혹독한 고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고수할 경우 죽음에 처해졌지만 김춘겸과 같은 이는 1866년에 체포되었다가 1868년에 순교했다.⁵¹⁾

해미진영에서는 앞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집단 처형이 성행했다. 우리는 집단처형에 관한 여러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다.⁵²⁾ 그리고 그 처형의 방법과 장소도 다양했다. 해미 진영의 순교자 가운데 일부의 신도들은 杖毒으로 말미암아 해미의 감옥에서 옥사하기도 했다. 또한 교수형이 해미 감옥에서 직접 집행되기도 했다.⁵³⁾ 또한 교수형은 해미의 서문 밖에서 집행되기도 했다.⁵⁴⁾

그리고 1866년에는 5명의 신도들에게 斬首刑을 집행하기도 했다.⁵⁵⁾ 신도들에 대한 참수형은 당시의 관행으로 보아 서문 밖에서 집행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868년 5월 3일과 5월 23일에는 해미천 가에서 신도들을 생매장하여 죽였다.⁵⁶⁾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병인교난 당시 순교의 참혹성은 현대인의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수백명을 헤아릴 수 있을 신도들이 해미에서 자신의 신앙을 증거했다.

50) 위의 증언록, 정리번호 120.

51) 《치명일기》 694

52) 《치명일기》 685, 689, 695~7, 709~713.

53) [표 2]의 Nos.14, 18, 23, 26, 28, 29, 30, 31, 35, 41, 42, 52.

54) [표 2]의 No.3

55) [표 2]의 Nos.1, 6, 7, 39, 40.

56) [표 2]의 Nos.17, 24, 25.

3. 해미의 순교사적지

해미읍성을 비롯한 이곳의 각종 구조물들은 역사학의 분야나 고건축의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문화유적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해미 읍성의 여러 건물들은 조선 후기 천주교사의 전개 과정과도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천주교 신도들은 해미의 남문을 통해 해미 관아로 연행되어 갔고 (사진 10 참조), 해미 관아에서 심문을 받았다(사진 11 참조). 또한 그들은 해미의 감옥에 구금되어 고초를 겪었다. 이곳의 감옥에서 金震厚와 孫여심은 10여년 동안 구금되어 있다가 옥사했으며 그밖에 많은 신도들이 이곳 감옥에서 교수형을 처해졌거나 타살되었다. 이 감옥 건물은 일제시대 초기에 헐려져 나갔고, 오늘날 이곳에는 '해미순교기념비'가 세워져 있다(사진 12, 13 참조). 그리고 해미 감옥터의 일부에는 일명 호야<回花>나무가 서 있다. 이 나무의 수령은 최소 200년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병인교난을 증언하는 나무로 소중히 보존되고 있다. 일설에 의하면 당시의 관원들은 이 나무에 신도들을 묶어 놓고 고문을 가했다 하며, 그 고문의 흔적으로 고문 당시에 이용되었던 철사줄이 나무에 박혀 있다(사진 14 참조).

한편, 해미 진영에서는 감옥에 갇혀 있던 일부 신도들의 형을 집행할 때에 서문밖에서 이를 실시했다. 서문 (사진 15 참조)은 형의 집행을 눈앞에 둔 신도들이 통과하던 곳이며, 신도들은 서문 밖 개천에 다리로 놓인 길이 420cm, 폭 150cm 두께 30cm의 自然石을 밟고 지나가 형장에 이르러 순교했다. 이 자연석 다리를 지나 서문밖에서 교수형이 집행되기도 했고 참수형도 이곳에서 집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하여 이곳 서문 밖에는 오늘날 '순교현양비'가 세워져 있다, (사진 16 참조). 그리고, 순교자들이 밟고 지나갔을 자연석은 1956년 6월 14일 서산 천주교회로 옮겨져서 '순교기념물'로 전시되었다가 1986년 8월 29일 해미로 다시 옮겨졌다. 일설에 의하면 병인교난 당시 “刑執行使令의 지시와 구령에 따라 刑吏들이 순교자들의 四肢와 머리를 하늘 높이 치켜올려 공중낙하시켜 떨어지는 압력으로 殺傷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살상방법은 물리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일로 생각되며, 따라서 이 구전의 사실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재검토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 자연석은 흔히 ‘자리개질을 처 죽였다’하여 자리개돌로 불리우고 있다. 그러나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 돌이 서산 천주교회에 옮겨졌을 때 돌에 새겨넣었던 “순교기념물”로 파악해 줄이 타당한 듯하다. 현재 이 기념물은 원래 놓여 있던 자리로 부터 이동하여 그 인접 지역에 전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기념물이 원래 놓여 있던 도로 위에 그 기념물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⁵⁷⁾(사진 17, 18 참조).

해미 지역의 순교사적지 가운데 특이한 것은 생매장터이다. 1876년에 간행된 달레의 《韓國天主教會史》에서는 천주교 신도들을 생매장하여 처형했던 사실을 전하고 있다. 즉, 달레는 “다른 곳에서는 굉장히 깊고 넓은 구덩이를 파서 살아 있는 천주교인의 무리들을 포개 넣고 그 위에 흙과 돌 따위를 쌓아서, 죽이고 묻는 일을 한꺼번에 해치운다”고 말했다.⁵⁸⁾ 그리고 《치명일기》에도 방 마리아, 박 요안, 문 마리아 등이 해미에서 생매장되어 순교했음을 말하고 있다.⁵⁹⁾

그리고 1935년 서산 천주교회의 바로 신부는 1868년 생매장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 이를 목격한 해미의 李周弼과 朴承益으로부터 증언을 듣고 서산과 해미 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들이 지목한 지역을 발굴한 결과 10여명 가량의 유해를 수습하고 유해들과 함께 십자가 고상의 석은 형적까지도 확인함으로써 이들이 천주교 신도였다는 물증까지도 확보하게 되었다. 바로 신부는 위의 두 사람 이외에 이곳에 천주교 신도들이 생매장되었음을 자신의 부모나 친구 혹은 이웃으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第1次 傳聞證人인 李致心, 李秉俊, 吳泳培, 韓範東, 任仁弼, 李基南, 朴濟壽, 李教成, 金基鎬, 昔氏 등의 증언을 추가로 청취했다. 그리고 이들 이외에 이 지방의 천주교 신도들로 부터도 생매장에 관해 그들이 傳聞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⁶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서산군 해미면 조산리에 소재한 1868년도의 천주교신도 생매장터를 확인하게 되었다. 이곳이 생매장터로 확정된 이후 이곳을 소유하고 있던 高相得이 값 409평을 서산 천주교회에 회사하였다. 이로써 이곳이 순교사적지로 정비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후 1975년에 이르러

57) 《瑞山東門本堂七十年史》 p.292.

58) 달레, 위의 책, 下, p.480.

59) 《치명일기》 No.716, 718, 719.

60) 《海美殉教者略史》, pp.3~4.

이곳에 ‘해미순교탑’이 세워졌다(사진 19 참조). 그리고 1984년도에는 ‘해미 순교탑’의 인접토지 1712평을 확보했고, 여기에 다시 2000평을 더하여 생매장터의 성역화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⁶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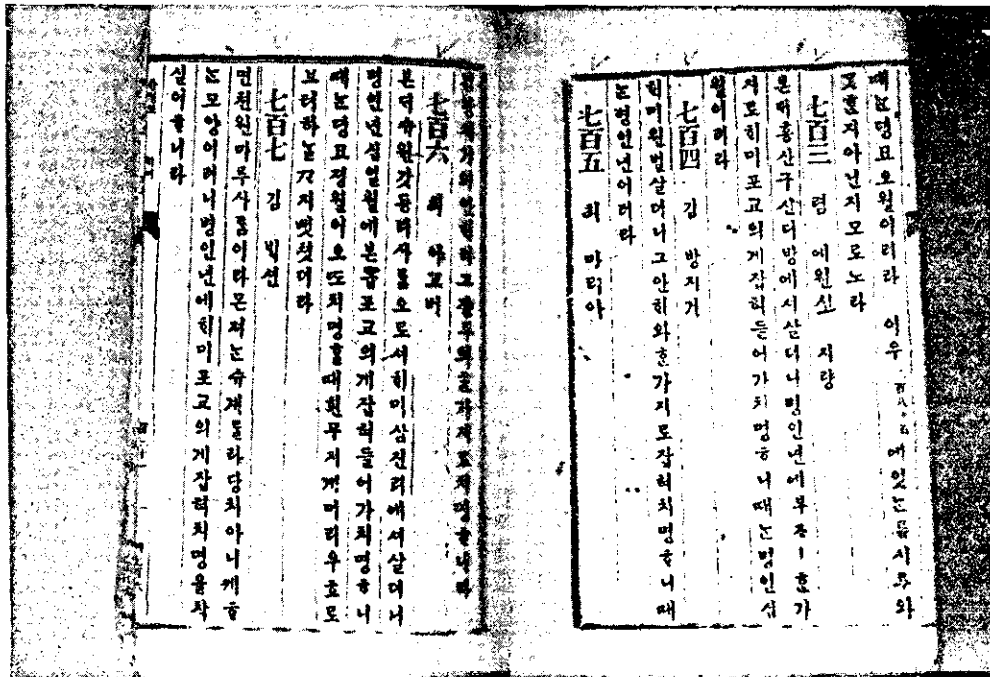
한편, 1935년 해미면 조산리의 생매장터에서 발굴된 10여구의 유해는 서산군 音岩面上紅里 가재골 순교자 묘지에 안장되었다. 이 묘지는 원래 白氏門中 묘지였다. 그런데 조산리에서 발굴한 유해를 다른 곳에 매장할 수 있는 허가를 관청으로 부터 얻지 못했기 때문에 사설 묘지허가를 받은 백씨 문중의 묘역 가운데 제일 좋은 최상단부 1,000여 평을 할애받아 이곳에 그 유해를 이장했다.⁶²⁾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미는 천주교 순교자와 관련된 많은 유적지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유적지나 유물들에 관한 향간의 구전에 대해 엄밀한 검토 없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듯한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며 해미 지역의 천주교 유적·유물들에 관한 올바른 설명과 해석들이 보편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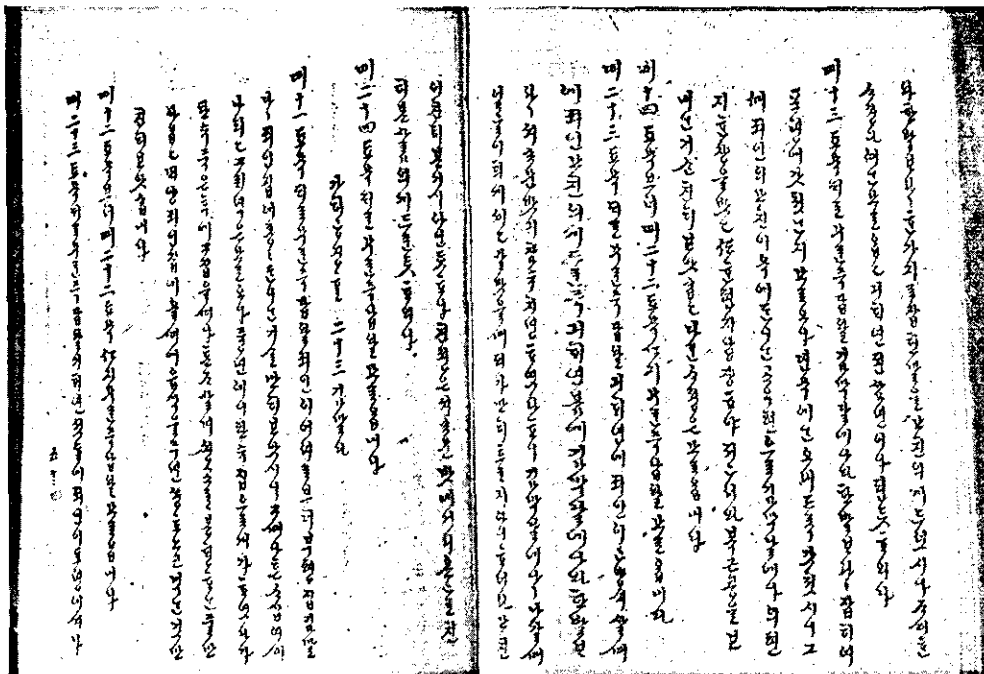
요컨대, 본고에서는 오늘날의 서산/태안 지역의 문화유적 가운데 천주교의 문화유적을 검토해 보았다. 천주교 계통의 문화유적은 다른 종류의 문화유적 만큼 다양하거나 다수에 이르지 않는다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곳에 천주교가 전래된 18세기 말엽부터 이곳에서 형성되어온 천주교 문화는 그 질과 양에 있어서 결코 과소 평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서산시와 해미면을 중심으로 하여 천주교 문화유적의 지표조사 작업을 진행시켜 본 것이다. 그러나 천주교 문화유적이 태안 지방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서산군의 모든 면 단위 행정구역 내에까지 천주교 문화를 조사하기 위한 시도를 전개하지는 못했다. 여기에 이번의 문화유적 지표조사 작업중 천주교 부분이 갖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특히, 18세기 말엽 이래 이 지방에 전파된 천주교는 비특권적인 민중 중심의 교회였으며 신조였다. 그렇다면 서산/태안 지역의 깊은 산골 마을 어디엔가에 그 천주교 문화의 특성을 간직하고 있는 또다른 문화유적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숨겨진 문화유적들을 찾는 작업은 내일의 과제로 돌리고 여기에서 본고를 마치고자 한다.

61) 《瑞山東門本堂七十年史》 p.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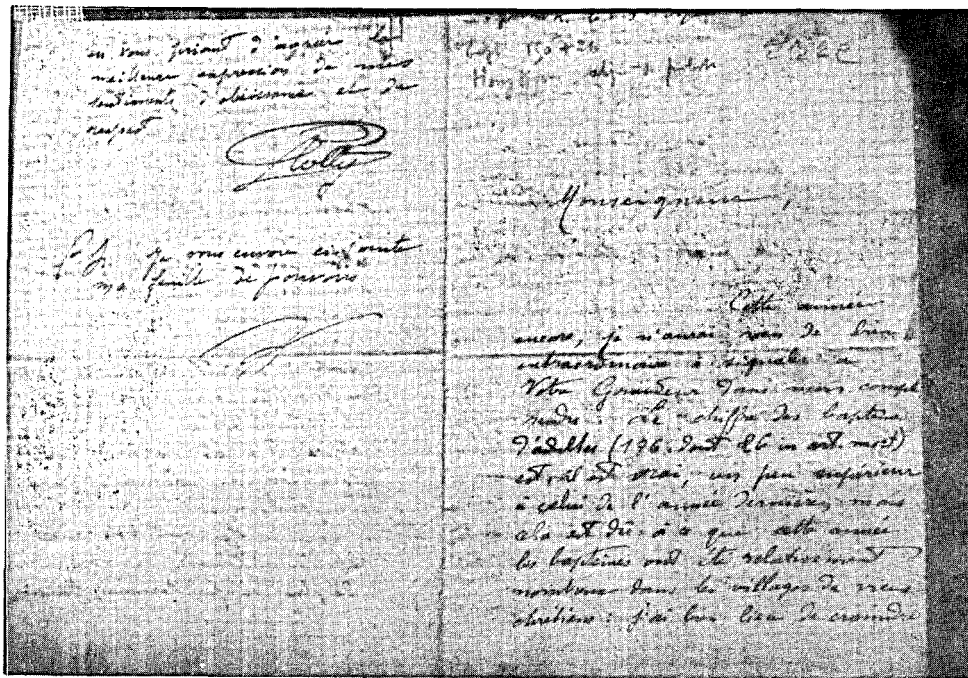
62) 위의 책, p.2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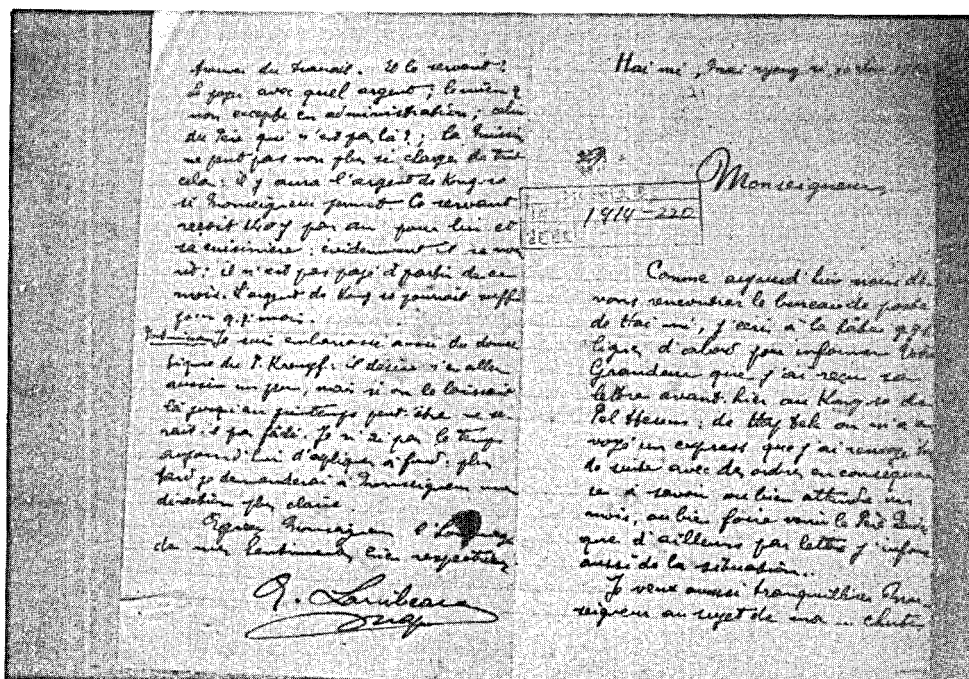
[사진 1] 《치명일기》 (1895년) 해미 순교자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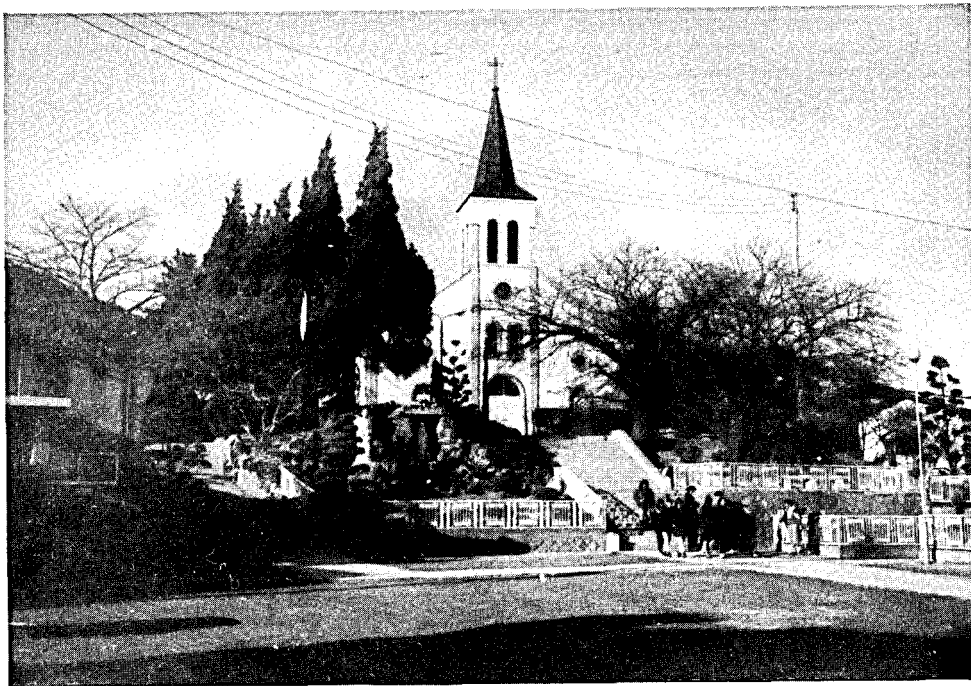
[사진 2] 《병인박해 순교자 증언록》 (189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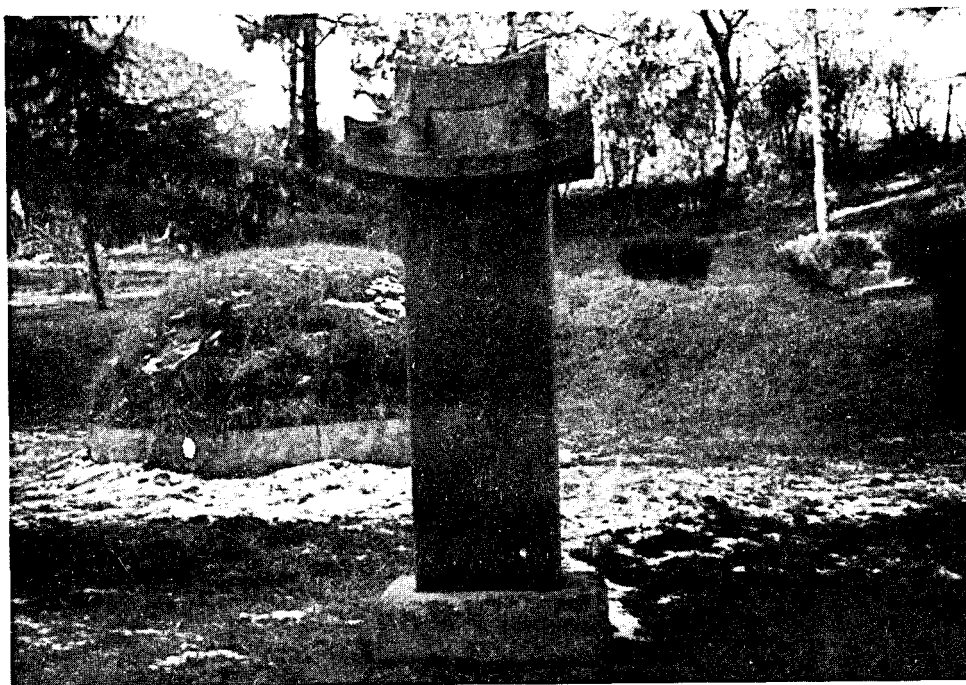
[사진 5] 沈応榮 神父 서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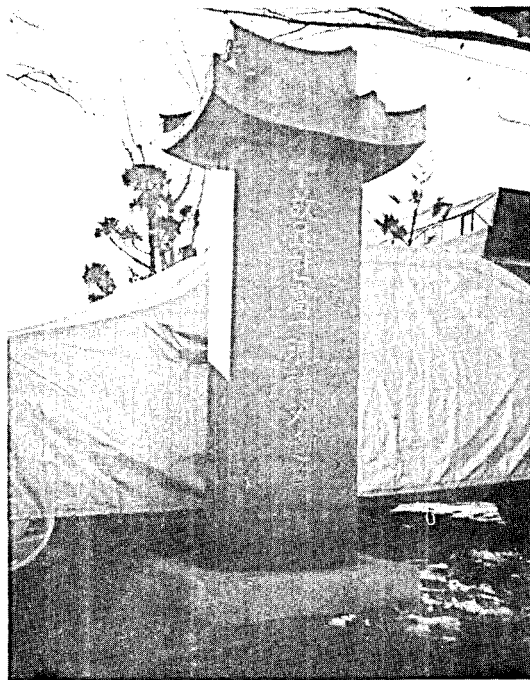
[사진 6] 元亨根 神父 서한문



[사진 7] 서산 동문천주교회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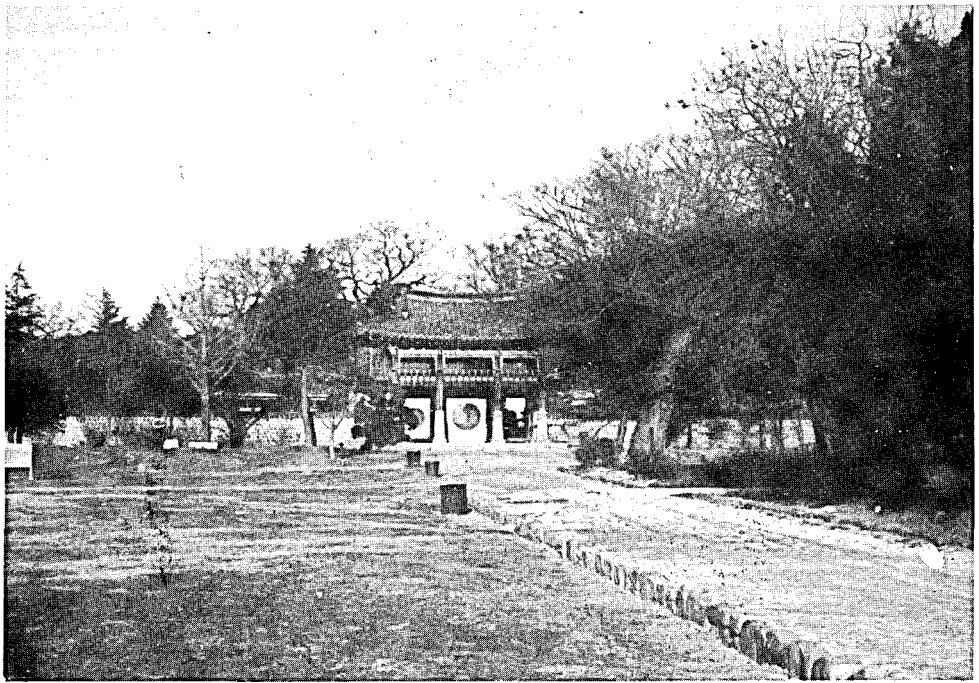
[사진 8] 바로신부(서산 천주교회 제4대주임) 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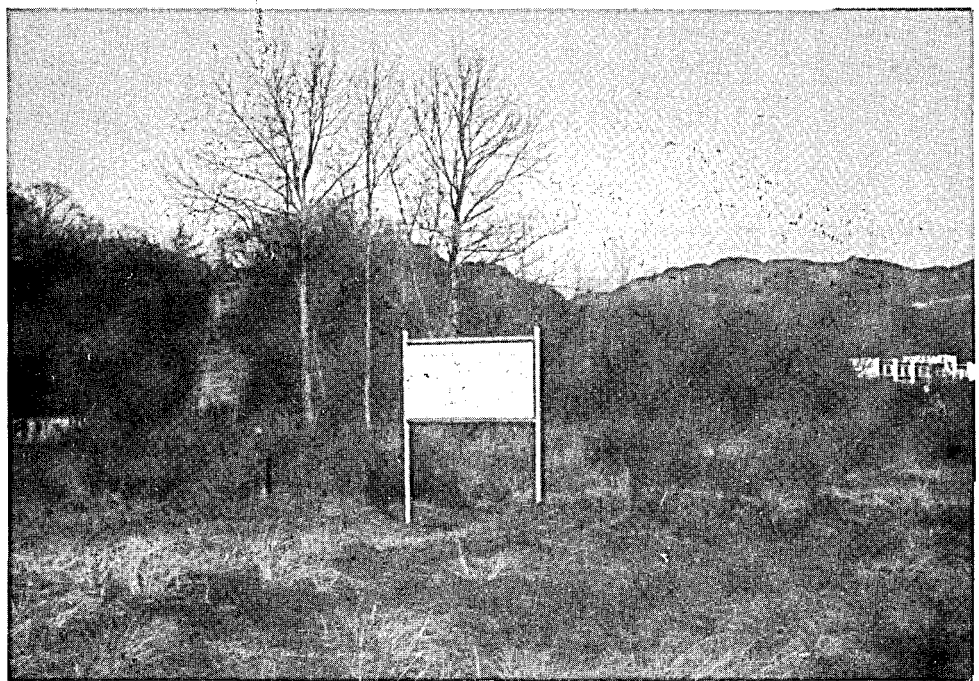
〔사진 9〕 콜랭신부(서산 천주교회 제7대 주임) 추모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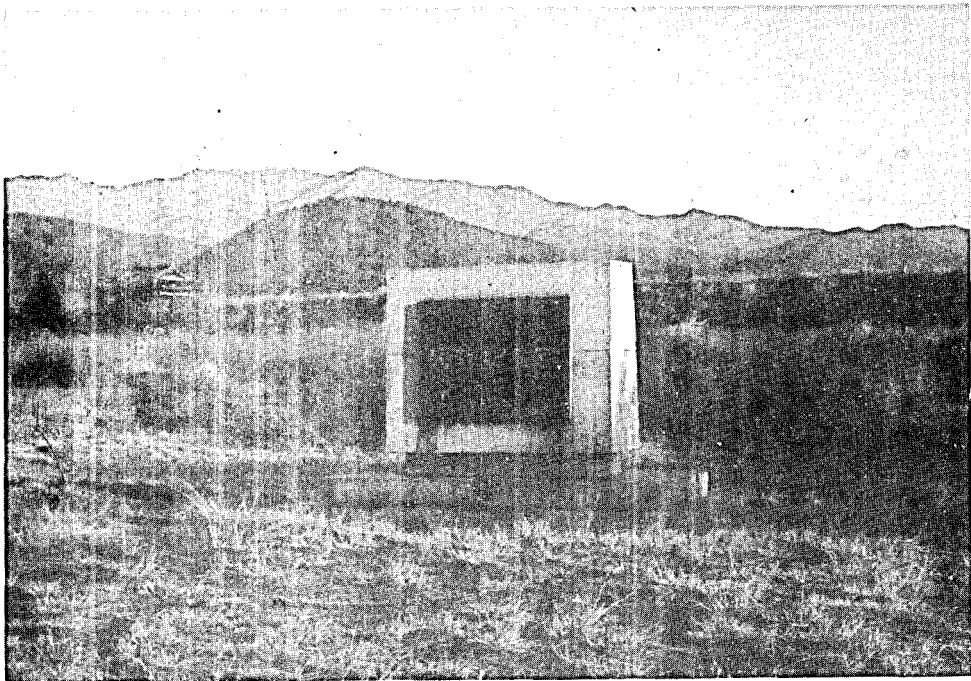
〔사진 10〕 해미 읍성남문(鎭南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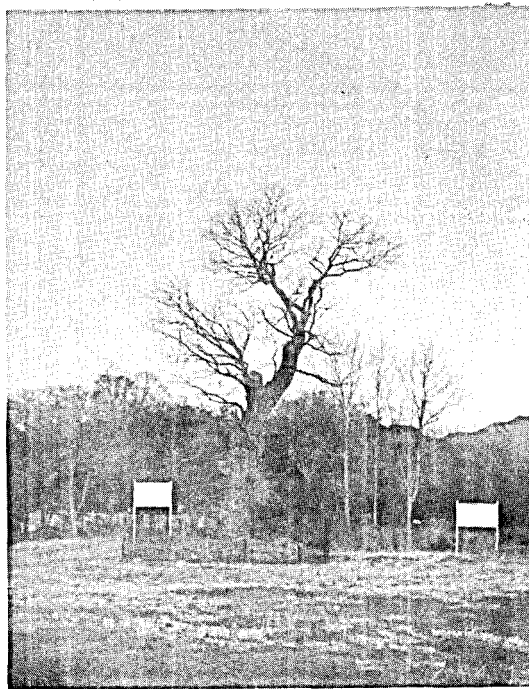
[사진 11] 해미 관아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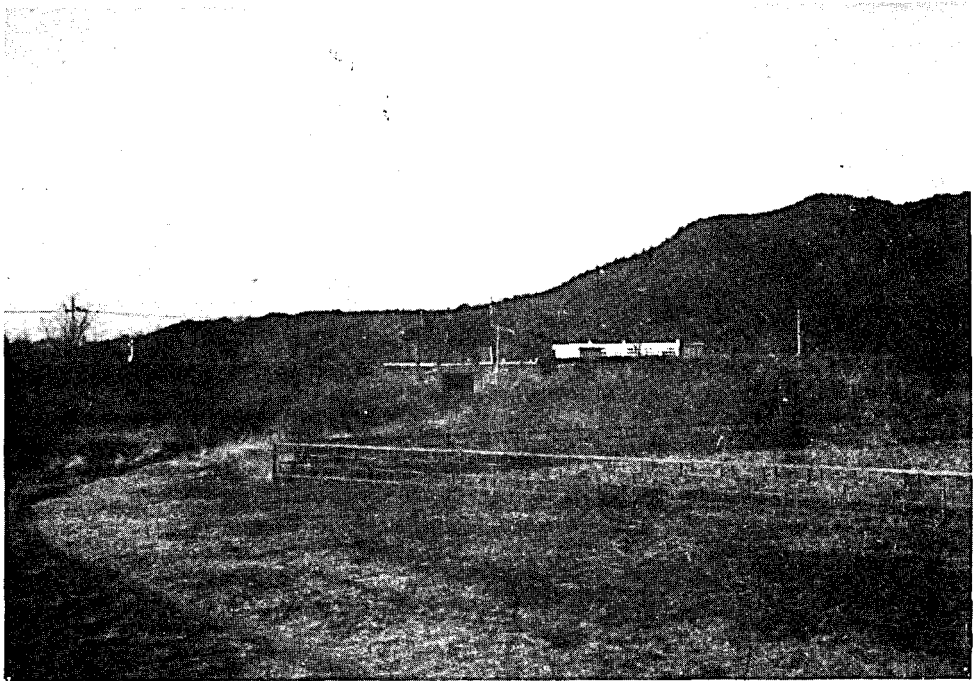
[사진 12] 해미 감옥터



[사진 13] 해미 순교기념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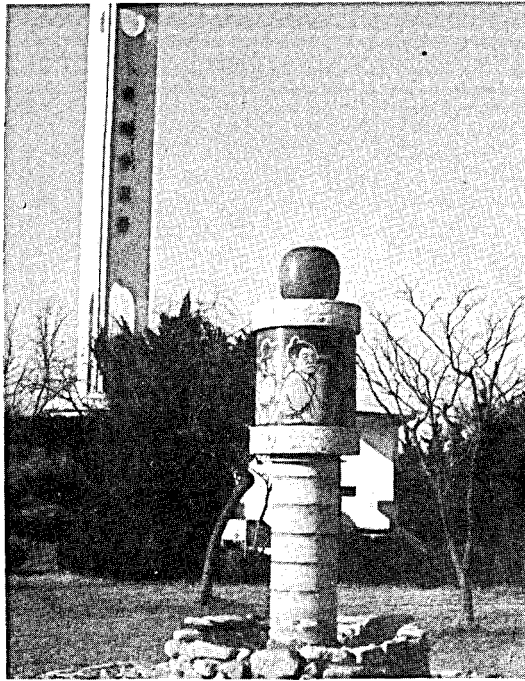
[사진 14] 해미 감옥터의 호야나무



[사진 15] 해미 서문



[사진 16] 해미 서문밖 순교현양비



[사진 19] 해미 순교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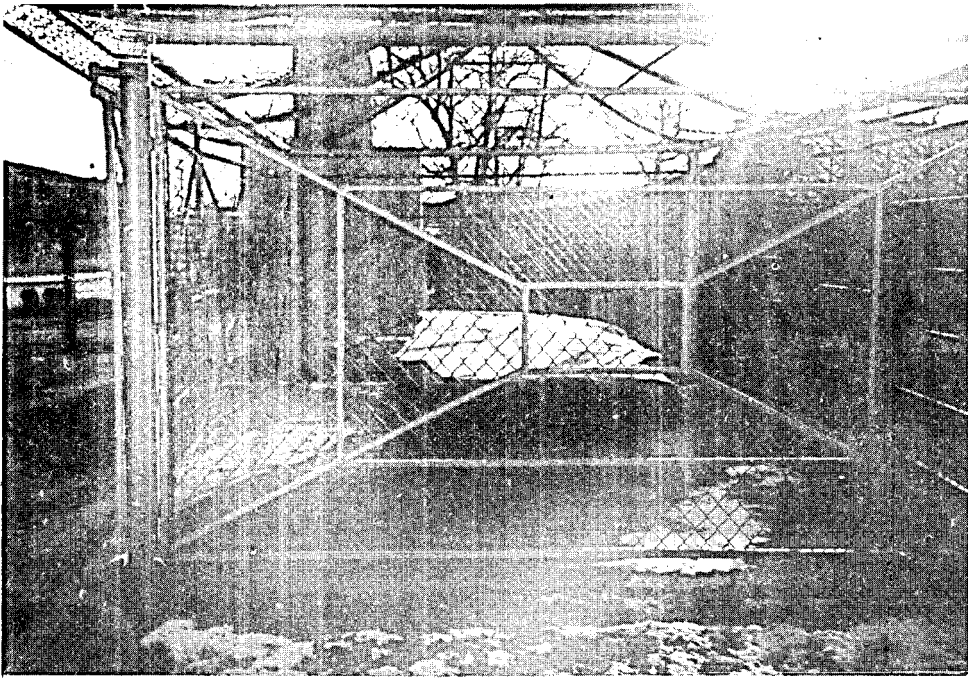


[사진 20] 여숫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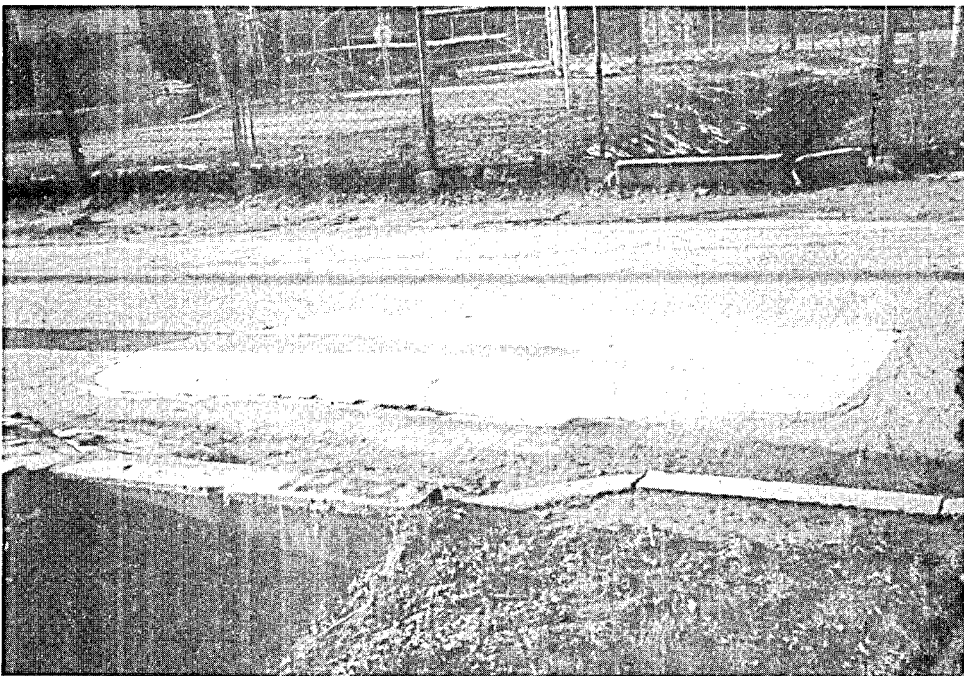
民 俗 分 野

金 泰 坤

(慶熙大學校)



〔사진 17〕 해미 순교자 기념물 : 자리개들



〔사진 18〕 자리개들의 원위치

I. 調查方法

1. 조사시기와 조사지역

서산·태안군(이하 서·태안으로 약칭)의 民俗調査는 1985. 2~1987. 8 사이의 1차적으로 조사하여 정리 보고(서산민속지, 서산문화원, 1987. 12)되고, 1990. 7~9 사이에 2차로 보완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지역은 서·태안 전역조사를 염두에 두고, 이 지역을 地形과 生業의 특성을 고려해 山間지대, 平野지대, 海岸과 島嶼지대로 나누어서 地域標本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서·태안 1市 2郡 16개 面에서 한 마을씩 선정하였다. 선정된 마을은 자연부락으로 40~100戶 사이의 중간 마을이었다.

조사방법은 民俗學의 現場調査方法으로 민속현장의 관찰과 住民들과의 面談調査를 병행했는데, 선정된 한 마을을 調査班이 합동으로 미리 선정된 調査項目을 가지고 분담해서 조사하는 방법을 택했다. 조사분야와 조사반원은 다음과 같다.

I. 社會傳承(李澤熙)

1. 마을의 구성, 2. 가족과 친족조직, 3. 사회계층, 4. 연령집단, 5. 노동집단, 6. 예능집단, 7. 신앙집단

II. 生活傳承(李相彦·李澤熙·金大鎭)

1. 生業, 2. 衣·食·住, 3. 交易과 經濟, 4. 交通·통신, 5. 民具

III. 歲時風俗과 儀禮傳承(金明子)

1. 세시풍속, 2. 通過儀禮

IV. 民間信仰(金泰坤)

1. 민간신앙, 2. 慣習

V. 言語傳承(崔雲植·金昌振·洪泰漢)

1. 언어(방언·語法·은어·지명·命名)
2. 口碑(신화·전설·민담·민요·동요·속담·수수께끼)

VI. 藝能傳承(張長植)

1. 藝能(음악·연극·무용·그림·조각·民藝 등)
2. 오락·遊戲(웃놀이·연날리기·자치기·고니·꼬리따기·제기차기·수건돌리기·종지돌리기·춘향아씨놀이·고재각씨놀이 등)
3. 競技(줄다리기·불싸움·보싸움·닭싸움·소싸움·씨름·팔씨름·다리씨름·외발씨름 등)

調査報告方法은 제한된 지면에 조사물 전반을 다 보고할 수 없기 때문에 서·태안 民俗을 分野別로 집약해 보고하고, 八峰面 陽吉里 한 마을의 民俗 전반을 資料標本으로 선정하여 民俗現場 그대로의 原資料를 제시하고자 한다. 陽吉里의 民俗을 자료표본으로 선택한 이유는 양길리가 서·태안의 中央部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山間(八峰山)과 平野·海岸의 지형을 고루 겸하여 山間·평야·海岸·島嶼로 이루어진 서·태안의 지형적 특성을 고루 겸하고 있는 잇점이 있기 때문이다.

II. 社會傳承

서·태안지역의 민속 조사는 1개 市 2개 郡 16개 面에서 각각 1마을을 선정, 19개 마을에 걸쳐 진행되었다. 따라서 서·태안 전체, 혹은 특정 면지역의 전체 속에서 선택한 마을의 위상이나 유기적 관계를 살피는 것보다는 조사대상 마을의 개별적 모습을 관찰, 조사하는 입장이 앞섰다.

조사의 주안점은 1) 마을의 구성 2) 행정과 조직 3) 인구와 가족 4) 계층과 집단 등이었다.

마을의 구성은 인문·지리적 환경, 교육과 문화, 주민구성, 경제 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이다. 행정과 조직은 공적 행정체제와 마을마다 다른 인력동원 조직, 혈연·지연단체, 경제적 소조직체 등에 관해 조사한 것이다.

인구는 주로 연령별 인구분포[=연령집단], 인구 변동과 그 요인, 성씨별 분포등에 관해 살폈으며 가정에 대해서는 통혼권, 가장권이나 주부권의 승계, 가족 구성원간의

역할 분담, 가족의 구성 규모, 외지 출타자의 구성 등을 조사했다. 계층에 관해서는 반상의식의 잔존을 확인하고 계층의식의 변천추이를, 집단에 관해서는 놀이집단, 신앙집단, 노동집단의 존재 여부와 변천 등을 각각 조사했다.

조사방법은 마을마다 사정을 잘 아는 전·현직 이장을 중심으로 조사하면서 이장이 추천하는 마을의 유력 인사와의 면담 방식으로 했다. 여건의 제약으로 조사가 미비한 부분은 추후 각 부락 이장에게 다시 설문지를 우편으로 보내 보충조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설문조사도 이장이라고 해서 모든 통계수치를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완벽을 기할 수는 없었다. 결국 이 조사 내용은 제보자의 제보 내용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면사무소나 군청의 일부 통계자료를 참고한 것이다. 그러나 통계상의 수치보다는 현지 주민들의 제보 내용이 숫적인 정확도에서 열세인 반면 현지의 분위기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훨씬 우세하기 때문에 제보자의 제보 내용에 의존하는 것이 오히려 뜻이 있다는 기준을 설정하고 내용을 기술했다.

조사일정은 다음과 같다.(조사일정이 다른 부분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따로 밝혀둔다).

- ① 86. 12. 21=서산시 덕지천리
- ② 12. 26 오후=대산면 독곶리 2구
- ③ 12. 27 오전=부석면 창리
- ④ 12. 27 오후=인지면 야당리 2구
- ⑤ 12. 28 오전=근흥면 정죽리 3구
- ⑥ 12. 28 오후=태안읍 평천리 3구
- ⑦ 12. 29 오전=팔봉면 양길리 2구
- ⑧ 87. 1. 5 오후=소원면 파도리 1구
- ⑨ 1. 6 오전=고남면 고남리 1구
- ⑩ 1. 6 오후=안면읍 황도리
- ⑪ 1. 7 오전=원북면 이곡리 2구
- ⑫ 1. 7 오후=이원면 포지리 2구
- ⑬ 1. 8 오전=남면 몽산리 2구

① 1. 8 오후=서산시 덕지천리(2차조사)

⑭ 1. 9 오전=운산면 여미리

⑮ 1. 9 오후=고북면 장료리 1구

⑯ 1. 10 오전=운암면 유계리 2구

⑰ 1. 10 오후=해미면 동암리

⑱ 1. 11 오전=지곡면 중왕리 1구

⑲ 1. 11 오후=성연면 명천리 1구

이 가운데 ①, ⑭~⑲부락은 李鐸熙가 조사, 집필하였으며 ②~⑬부락은 金昌辰이 조사, 집필하였다.

서산군은 1914년 태안군, 서산군, 해미군을 합하여 편성되었다. 원래 서산은 백제 시대에는 基郡이었다가 신라 진흥왕 7년(893년) 崔致遠을 富城郡守로 삼고 治所를 현재의 지곡면 산성리에 두었다. 고려 인종 22년(1443년)에는 현으로 격이 낮아졌다. 명종 12년(1182년)에는 호장이 관속을 이끌고 현령을 죽인 뒤 반역을 꾀하다가 순찰사에 의해 평정되어 폐군된 뒤 운주에 소속시켰다가 충렬왕 10년(1284년)에 鄭仁鄉이 왜구 구축에 공을 세워 다시 서산군으로 승격되고 다시 강격하였으나 조선조 태종 13년(1413년) 이후 군, 현의 승격을 거듭하였으며 1785년 군이 되었다.

1914년 3개 군을 합하여 서산군이 된 뒤로는 1957년 정미면과 대호지면을 당진군에 이속시키고 1986년 4월 1일 안면읍 고남출장소를 고남면으로 승격시켜 3개 읍 16개 면 그리고 1989년에 다시 泰安郡이 나누어지면서 서산읍이 瑞山市로 승격되었다. 1987년 1월1일부터 梨北面의 면명을 以北(北韓)과 同音인 점을 감안, 梨園面으로 개칭했다.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행정적 처우의 승격, 강격을 거듭하면서도 현재의 서산군 일대가 끊기지 않고 군·현을 유지해온 것은 나당연합군의 3국 통일과 함께 중국과의 해상교통 요지로 부각되면서 중국인들의 귀화정착, 임진왜란 이후 서울 양반들의 피난 낙향(이 사실을 택리지를 참고하면 이유를 밝힐 수 있다-필자주), 왜구를 막기 위한 30여 곳의 군사시설 배치, 조창의 설립등이 주요 원인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중국과의 해상교통의 요지라는 지정학적 특성이 역사적 배경의 핵심요인이다.

최근 일고 있는 이 일대의 부동산 투기 붐은 이와 같은 역사의 재현을 전망한 데다

대단위 간척사업에 따른 광대한 토지의 형성이 상호 상승작용을 하여 조정된 현상으로 파악된다.

근래에는 6·25를 전후하여 유입한 피난민(태안읍 평천리의 경우가 대표적이다)과 5·16당시 타의에 의해 집단으로 정착한 [덕지내 하구 간사지가 그 예이다] 이 주민들이 자활책의 일환으로 간사지 간척사업, 황무지 개간사업 등에 전력하여 농업 부문의 기반을 더욱 다지게 되었다.

지형적으로 서·태안은 가야산맥이 남북으로 뻗으며 북으로부터 당진, 예산, 홍성군 등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가야산맥은 서쪽으로 분맥을 이루어 태안반도를 형성하고 다시 남으로 달려 안면도를 이룬다. 안면도 일대는 50~60m 정도의 구릉성 산지로 이루어지고 태안반도의 해안일대는 해안산악지형을 형성, 토지는 비교적 적으로 그 나머지 지역은 구릉성산지의 저지대와 평야지대가 발달해 있으며 비옥한 편이다.

최근에는 심한 굴곡과 간만의 차가 심한 천해를 이용하여 간척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태안반도 남쪽의 서산/A·B지구 간척이 끝나가고 북쪽의 C지구도 곧 착공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소규모 간척이 활발하여 농경지를 계속 넓혀가고 있다.

지질상으로는 해안지대에는 부천계 결정편마암계가, 중앙부의 해미, 음암, 서산, 인지, 팔봉, 태안 일대에는 화강암계가, 태안반도의 이원, 원북, 소원 일대에는 대동계인 결정편마암 사이의 토층이 분포하고 있다.

기후는 기온의 경우 연평균기온 11.4℃이며 인접 예산군에 비해 8월은 평균 0.3℃ 낮고 1월에는 0.2℃ 낮다. 여름에는 바다의 영향을 받아서 온도가 낮고 겨울에는 북서계절풍을 막아줄 해안 지형이 발달하지 않아서 낮은 것이다. 연평균 최고기온은 16.7℃, 연평균 최저기온은 6.1℃이다.

강수량은 연평균 1,180mm인데 이는 다우지역인 금강상류지역보다 100mm가량이 적은 것이며 연 강수량의 57%가 여름철에 내린다.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인식은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였으며 대학진학률은 마을마다 차이가 있지만 마을별 대학생수는 대개 6~7명 선이었다.

유치원의 보급도 일반화되어 있어 각 국민학교 병설 유치원을 주로 이용하며 읍지역,

해미 등지에는 소수의 사설 유치원도 있다.

국민학교는 읍·면마다 3~4개교 씩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는 통학거리 4km 이상되는 국민학교는 거의 없다. 지역적 원격지(4km이상의 통학거리가 되는)에는 분교를 설치해서라도 취학아동들에게 무리가 가는 통학상의 원거리는 거의 해소되었다. 그러나 국민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어 60년대 대비 50% 정도로 줄었다. 이에 따라 읍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학년당 1~2학급으로 편성된 소규모 학교일 뿐만 아니라 1학급 편성이 20~30명으로 이루어지는 국민학교도 상당수 있다.

중학교는 읍지역에 2개교, 면지역에는 1개교 정도 설치되어 있다. 중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면도 소수 있다.

면소재지 지역 국민학교의 설치가 1920~30년대에 이루어진 반면 그 외 지역의 국민학교는 50~60년대, 중학교는 60~70년대에 주로 설립되었다.

고등학교의 진학은, 중학교 진학이 지역별로 진학대상 학교가 정해져 있는데 비해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외지로 나가는 경우도 많다. 서·태안의 고등학교는 서령고, 서산농고, 태안고, 태안여상, 안면고, 해미고 등이 비교적 연조와 규모가 있는 학교들이고 최근에 설립된 고등학교도 3~4개교 있다. 고등학교까지의 진학률은 매우 높으며 대학진학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외지 도시의 고등학교로 진학하려는 경향이 높다. 도시의 고등학교로 유학을 하는 결정 요인은 첫째가 본인의 실력 수준이고, 둘째는 집안의 경제력이다. 본인의 실력이 뛰어나다면 부모들은 가정 경제적으로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도시의 학교로 보내려고 한다.

고등학교 진학 대상지역은 외지의 경우 대전, 천안지역이 탁월한 수치를 보이며 서산 북부지역에는 평택, 부천지역도 포함된다. 서산 남부지역에서는 홍성으로 진학하기도 한다. 현지에서 진학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읍지역을 선호하여 서산, 태안지역으로 진학하려는 경향이 우세하다. 그 외에는 통학상의 편의에 따라 가까운 곳으로 선택한다.

대학은 단일학교로는 교대 선호도가 가장 높아 인근 공주교대 진학자가 많았으며 교대합격은 여러 마을에서 자녀 교육의 목표이자 모델이 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학비부담이 적고 취업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대학진학의 대상지역은 대전,

서울이 대부분이며 인근 홍성군에 있는 전문대학 진학도 상당수에 이른다. 진학하려는 대학의 결정에는 경제적 요건이 가장 큰 영향의 요소여서 세칭 「일류」지향보다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학, 취업이 보장되는 대학을 주로 선호한다. 그러나 본인이 대학에 들어갈 학력만 있으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보내겠다」는 의욕이 주민들 대부분의 경우에서 관찰되었다.

부락별 문화시설로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100% 가까운 보급율을 보이고 있다. 텔레비전의 거의 전 가구 보급에 따라 라디오의 필요성이 적어져 라디오가 없는 가구도 있기는 하지만 학생들이 있는 가구에는 개인용 카세트 라디오가 있어 한 가구에 여러 대의 라디오가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평균 가구당 1대 이상으로 라디오가 보급되어 있다. 텔레비전의 보급은 10~15%, 비디오세트의 보급은 5~10%로 아직은 저조하고 가스레인은 2년여 전부터 유행하기 시작해 40~50% 보급을 보이고 있으며 급격히 확산될 전망이다.

식수원은 읍단위 지역은 상수도를 이용하고 기타 지역은 80%이상이 소형모터펌프를 이용한 간이 상수도 시설을 갖추고 있다.

전축의 보급은 20%내외, 냉장고는 약 50%이고, 신문은 20~30%의 가구에서 구독하고 있다.

전기가 들어온 것은 60~70년대 중반이전이며 電化가 완비됨에 따라 천수답 수리불안 전답의 영농여건이 급격히 개선되었다. 즉, 어느 지역에서는 관정을 개발하여 전기 모터 펌프를 사용, 지하수를 끌어올려 쓸 수 있으므로 실제로 천수답은 거의 없어졌다.

행정조직은 시-군-읍·면-리-반의 체제로 기본 행정권은 면단위이다. 면사무소에는 각 마을을 담당하는 직원이 마을당 1명 정도로 편성되어 있다. 이장의 선출은 원칙적으로 2년마다 선거에 의해 하게 되어 있으나 후보 경선에 의해 투표를 해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마을에 따라서 이장 선출 방식은 2가지로 대별되는데 대동회에서 투표하는 방식, 개발위원회에 의한 간선방식이 그것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대동회에서 선출하면 개발위원회에서 재투표하여 최종 결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마을마다 사정이 비슷하여

출마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조사과정에서 만난 이장들 중에는 한번 이장을 맡은 이래 10여년을 계속 맡고 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2~3회 연임이 가장 많아 4~5년 이상 계속 맡고 있다고 한다. 계속 연임을 하는 경우 일부 마을에서는 2년 임기가 끝나면 신임투표를 하기도 하며 다른 일부에서는 여론에 따라 대동회에서 유력인사가 중임을 권유하고 의견을 묻는 식으로 하여 이론이 없으면 다시 맡기는 형식을 취한다.

이장은 마을의 모든 행정업무를 관장하고 대외적으로 마을을 대표하며, 개발위원회의 위원장이 됨과 동시에 각 반장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한다. 이장에게는 면사무소에서 일정액의 수당을 매월 지급하며 주민들은 매년 추곡과 하곡 철에 1말 반~2말 씩 수곡을 하여 준다.

대부분 이장들의 연령층은 40대 후반~50대 초반 사이의 장년들이다.

이장이 위원장이 되는 개발위원회는 대개 10~13명으로 구성되는데 반별로 2명 정도 인원을 배정하여 위원을 선임하여 주요 임무는 마을 행정의 자문 역할이다.

각 반의 편성은 지역부락 단위를 준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장의 임기나 선출방식에는 정해진 원칙은 없다. 이장이 바뀌면 반장도 바뀌는 경우도 있으나 규정은 아니며 맡으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토의 후 추대 형식으로 뽑는다. 대개 30대~40대 초반의 중년층에서 맡으며 이장을 보좌하고 주요행정 연락을 반원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주임무로 한다. 반장은 전원 개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지만 표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이 외의 준 공조직으로 부인회, 청년회, 청소년회, 경노회 등이 마을마다 조직되어 있다. 활성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 마을에 다 있다.

새마을 지도자는 학식과 명망에 따라 여론에 따라 추대하지만 임기나 특정업무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주로 마을에서 상을 당했을 경우 일을 치루기 위한 인력동원체제가 있다. 내륙지방에서 상포계를 발인계와 동일시하여 조직하는 반면 서산 일대에서는 상포계는 발인계와 엄격히 구분되어 조직, 운영되고 있다. 발인을 위한 인력동원 방식은 대동연반계가 있고 발인계 형식이 있다. 대동연반계는 전 주민을 계원으로 하는 조직이고 발원계는 대개 자연 부락단위로 모여서 이루어지는 상호경계 부조와 발인꾼을 담당

하는, 성격이 대동연반계보다 다소 강한 조직이다.

대동연반계는 상여작모를 두고 상여작모가 일의 진행을 전담하는 경우와 대동회와 통일조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다. 이 두 경우 모두 발인꾼은 윤번제로 돌아가며, 편의상 개인 윤번이 아닌 그룹 윤번을 정해놓는 경우도 있다. 이 그룹 윤번을 통이라고 하는데 한 마을을 대략 3~4개 통으로 나눈다,

경제적 상호부조를 위한 조직이나 친목도모를 위한 조직도 거의 형태로 매우 많이 구성되어 있다. 상포계, 쌀계, 혼계, 동갑계, 동창계, 어촌의 일수계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탁월한 발달을 보이는 것은 상포계와 쌀계이다.

마을의 행정에 있어서 행정구역의 명칭은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통폐합에 의해 2~4개부락을 1개 행정리 단위로 편성하면서 여러 개 마을 이름 가운데 글자를 모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래의 마을 이름은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다. 현재의 50대 이상은 주로 전래의 자연부락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그 이하 세대는 행정리 명칭에 익숙해져 있어서 전래 마을 이름이 머지 않아 소멸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인구는 1966년의 27만5천5백38명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기 시작하여 70년에는 27만8백26명, 75년에는 26만5천6백59명, 80년 24만9천2백42명, 84년 24만2천4백94명 등으로 나타났다. 인구밀도 상으로는 1km²당 80년 238.4명에서 84년 227.6으로 10.8명이 줄었다. 가구당 인구는 77년 5.7, 79년 5.5, 81년 5.2명이던 것이 84년에는 5명으로 줄었다.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은 서산, 태안이며 안면, 해미 등도 비교적 고밀도 지역이다. 반면 인구가 적은 지역은 이원면이 가장 적고, 성연, 지곡, 팔봉면 등도 소밀지역이다.

인구밀도 상으로 보면 서산, 태안, 고북, 음암, 인지, 해미의 순서로 높은 편인데 서산-태안, 서산-홍성을 연결하는 도로를 중심으로 발달한 평야지대에 인구가 밀집하여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구의 연령별 분포는 대략 5세급으로 나누어 볼 때 10대 후반을 정점으로 그 이하 연령의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20대 초반~30대 후반까지는 크게 감소하고 있다. 40대이후의 인구는 비교적 분포의 안정성을 나타낸다.

10대 이하 인구의 감소 원인은 2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산아제한이다. 현재 출산 연령에 있는 인구의 대부분 2자녀를 갖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며 딸만

둘 낳고도 단산하는 경우가 많다. 40~50대 층의 제보자들은 요즘 결혼 적령기의 젊은이들은 한 자녀만 낳겠다는 사람들도 많다고 말하며 근심스런 표정을 짓는다. 이에 비해 10여년 전의 부부들은 2남 1녀를, 20여년 전의 주부들은 2남 2녀를 이상적인 자녀수로 생각하였다.

둘째 이유는 출산연령의 빈약이다. 20대 후반~30대 후반까지 15세 간의 인구는 그 층이 가장 빈약하다. 그런데 이 연령층이 바로 출산 연령이다. 산아제한과 더불어 출산연령층의 빈약으로 0~4세 급간 인구는 10대 후반인 15~19세 급간 인구의 약 반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10대 후반 인구가 가장 많은 것은 고등학교까지 학령기 인구이므로 유동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직장을 찾아 도시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인구의 유동도 심해진다. 고등학교까지는 거의 대부분 진학을 하게 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지에 정착하는 인구는 매우 적다. 대부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면 직장을 찾아 도시로 떠난다. 따라서 20대 초반의 인구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일단 도시로 나가면 그곳에서 결혼, 정착하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 또한 민방위 훈련이나 예비군훈련 관계로 주민등록상 전출을 해야 하므로 실제의 모든 생활 근거가 옮겨지는 것이다.

20대 후반~30대 후반까지 인구가 가장 빈약한 연령층을 이루는 것은 70년대의 폭발적인 인구 도시 집중의 결과를 반증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마을이 30대 인구층이 숫적으로 가장 열세이며 40대 이후 인구 분포는 안정적이다.

또 한가지 특징적인 것은 20세 전반 여자 인구의 회소성이다. 이 사실은 농촌 젊은이들의 결혼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며 20대의 이농 원인을 규명해 주는 현상이기도 하다.

20대 전반 인구의 이농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계층에 알맞다고 여겨지는 직업이 농촌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 대부분 이들은 직업을 찾아 농업에 종사하는 것보다 손쉽게 더 많은 돈을 벌어 보겠다는 생각으로 도시에 집중한다. 이 연령층의 여성 인구는 농업 종사자가 아닌, 다른 직업을 가진 배우자를 구하는 예비적 단계로 도시에 나가 직장 생활을 하며 이 여성 인구가 농촌에 다시 정착하는 일은

회귀한 예가 된다. 따라서 숫적으로 농촌에 남아 있는 경우가 여자에 비해 많은 결혼적령기 남성들의 결혼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농 인구의 계속적인 부단한 유출로 가구수도 감소하여 농촌지역은 60년대 말 이후 마을마다 연평균 1가구 이상이 줄어온 반면 읍단위 지역은 전입, 분가 등에 따라 다소 늘었다. 전체적으로는 서산군 전체로 78년 4만6천9백53가구이던 것이 82년까지 4만9천33가구로 증가했다가 다시 84년 4만8천6백90가구로 감소했다.

서산군의 촌락형성은 散村의 발달이 타월하다. 서산-태안, 서산-홍성선의 남쪽과 군의 동부내륙을 제외한 태안반도 지역은 대부분 산촌이다. 서산 해안지방의 산촌이 발달한 원인은 역사적, 사회 경제적 배경에 있다.

역사적으로는 ① 세곡미 안전수송을 위한 고려시대의 개척사업 ② 지방 행정 중심의 지곡 산성에서 현 서산 읍내치로의 이천 ③ 향·소·부곡의 설치 ④ 왜구침탈에 대비한 피난 ⑤ 조선조 지정학적 위치상 군사취락의 복구·건설 ⑤ 임·병 양란 이후 인구의 사회적 증가의 급격한 발생 등에 의해 산촌이 발달했다.

경제적으로는 산지와 구릉지가 많아 경작지의 규모가 작고 불연속적이어서 경작지를 따라 散村化하였으며 해안이 산악지형이어서 농경 가능지가 계곡의 저지대, 구릉사면을 따라 발달하여 집촌 형성을 저해한 것이 散村化현상을 촉진 시키기도 했다.

인구의 성씨별 분포는 서산군 전체로는 동족촌락의 발달이 우세하나 조사 대상 마을에서는 그다지 많이 조사되지 않았다. 서산군 전체에서 볼 때 발생 연도에 따른 동족촌을 살펴보면 500년 이상이 15개 마을, 400년 이상이 22개 마을, 300년 이상이 32개 마을, 200년 이상이 10개 마을 들이다.

씨족조직은 대성의 경우 동족촌락을 중심으로 대종회와 파종회가 조직되어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군에 총회가 있고 면에 지회를 두어 면별로 종회를 한다.

가장권·주부권의 승계는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는데 농·어촌지역으로 갈수록 본인의 능력이 닿을 때 까지 물려주지 않고 자식 부부가 50대에 이르러 대를 물리는 형태이고 읍단위지역이나, 교육, 문화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자식의 2세가 국민학교에 취학하는 시기를 전후하여 물려준다. 이 둘을 절충하여 대외 경제권은 일찍 물려주고 대내 경제권은 늦게 승계하는 형태도 있다.

6·25이후 주부의 역할 범위는 급격히 확대되었다. 그 이전에는 여자가 장에 가는 것도 흥분 정도였으나 현재는 일을 하는데 있어서 남녀구분은 없으며 품삯도 남녀가 동일한 마을도 있었다. 가정내에서의 의사결정권도 주부의 참여가 높아 거의 남편과 대등한 권한을 행사하며 경우에 따라 남자의 결정권이 우세한 사안도 있고 여자가 우세한 경우도 있다. 가정의 의사결정에는 중대한 문제일 경우는 가족회의를 통해서 뜻을 모으지만 소소한 일은 부부가 결정한다. 특히 재산의 구입, 처분 등은 아들이 중학생 이상만 되면 의견을 물어 결정 과정에 참여시킨다.

가족의 구성 규모는 대수별로 보면 2대 가족이 가장 많고 그 외에는 3대 가족이 많다. 단대가족은 대개 노인만 남고 자녀들은 모두 도시에 나가 정착하여 생긴 노인 단대가족으로 마을마다 5~6가구가 있다. 이들 가구는 노인부부가 도시로 나가길 꺼려 자식들만 내보내고 현지에 남아 선대의 제사를 모시고 전답과 선영을 관리하지만 부부중 하나와 사별하게 되면 자식들이 도시로 모셔 가게 된다. 따라서 당분간 농가의 감소는 계속될 전망이다.

가족수별 가정규모는 4~6명 규모가 대부분이고 가구당 평균 인구는 5명을 약간 밑도는 정도이다.

외지출타 인구는 넓게 볼 경우 생활근거를 완전히 옮겼으나 가족의 일부가 현지에 남아있는 출타자가 있으나 부모와 가족 대부분이 현지에 남아 있는데 가족 가운데 1~2명이 출타하여 본가와 교류가 계속되고 있는 출타자로 조사 범위를 국한하였다. 출타자의 연령은 18·9세를 포함하여 20대가 주류를 이룬다. 마을마다 40~50명의 출타자가 있는데 직장관계로는 서울, 인천, 수원을 망라하는 서울 경기 일원이 가장 많다. 학업관계 출타자는 천안, 대전, 서울, 공주, 서산시, 태안읍 등지에서 고등학교나 대학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다.

주민들의 사회적 신분의식은 현저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양반이나 상인, 천민 등의 계층을 따지던 것은 8·15와 6·25를 겪으며 거의 소멸 됐으며 현재는 그런 계층의식을 학식과 재력이 대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동족마을 일수록 씨족관념이나 반상 의식이 강해서 50대 이상의 주민들은 드러나게 가리지는 않지만 마음 속에 생각을 전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결혼을 하거나 집안간의 교류가 있을 때는 확인 요건이

되며 심한 경우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의례적 절차일뿐 결정요인이 되지는 않는다. 그 변천추이는 일제시대까지 분명하게 남아 있었지만 8·15, 6·25를 지나며 많이 이완 되었다. 지금의 60~70대는 이에 대한 기억을 비교적 뚜렷하게 하고 있으나 50대는 「그랬다」고 수궁하는 정도에 머물고, 30~40대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 지방의 마을별 놀이로 가장 뚜렷한 유형은 벚가리농악이다. 음력 정월 대보름에 벚가리대를 세우고 2월 초하루를 머슴의 명절이라 하여 다시 쓰러뜨리며 농악놀이를 한다. 이 놀이에 젊은 세대들의 참여는 저조하며 50~60대 사람들이 주로 놀이를 벌인다. 지곡면 중왕리와 같이 젊은이들도 참여하는 특별한 예도 있으나 대부분의 마을이 노인층에서 농악기를 다룰 줄 알며 놀이에 참여한다. 마을마다 농악기 1습을 갖추지 않은 곳은 없었다.

신앙집단의 특징적 발달은 조사되지 않았다. 단지 70년대를 시발로 개신교의 전파가 눈에 띄는 현상이다. 마을마다 20여명의 신자가 있으며 부녀자들이 주류를 이루는 점이 특이하다 할만하다. 가택신앙이나 비손 등이 점차 소멸하고 있으며 무당이나 점쟁이 등은 미신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현저하다.

노동집단은 20~30대 인구의 이농으로 40~50대가 주요 노동력이며 집단 노동형태는 고지와 품앗이는 남아있으나 두레는 50년대를 전후해 거의 없어져 마을마다 용대기가 보관되어 있을 뿐이었다. 고지도 점차 소멸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앙기의 보급에 따라 모내기에만 필요한 고지는 현재도 교통이나 농로망이 정비된 곳에서는 하지 않고 이앙기를 이용하며 기타 지역에서만 일부 존속되어 있다. 두레가 없어진 것은 제초제의 발달로 김을 땔 필요가 없어진 데다 영농방법의 변화에 따라 과거에는 호미로 깊이 파 벼뿌리를 잘라줘야 새 뿌리가 잘 발달하여 충실한 결실을 맺는다고 알고 있어 두레패가 김을 땔때 호미를 사용했으나 그 방법이 잘못된 것으로 다시 알려져 요즘은 깊이 팔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80년대에 들어서는 기계화영농단이 만들어져 고지나 두레와 동일한 기능을 대행하고 있다. 고지가 모내기, 두레는 김매기 때만 있었던 것에 비해 기계화 영농단은 각종 농기계를 정부지원으로 구비하고 영농의 전과정을 걸쳐 작업을 소화해가며 농촌 일

손을 덜어주는 대신 임금을 받는다. 기계화 영농단은 면마다 몇개마을을 지정,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기계화 영농단은 놀이나 친목의 기능이 배제된 순수 경제적·노동적 성격의 노동집단이라는 점이 고지나 두레와 다르다.

[이상 참고자료 ① 1985년판 서산군 통계연보 ② 건설부 국토지리원 편, 韓國地方 지방편 II, 1984. 12]

III. 生活傳承

1. 생 업

(1) 半農半漁

해안선을 끼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 어업을 겸하고 있는 농업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어업이 성한 지역은 안면도(安眠島) 일대와 대산·근흥·소원면 등이다.

(2) 地形과 地勢

서·태안은 산악지형으로서 가야산맥의 이동으로 당진·예산·홍성 등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서산시를 기준으로 남동부에 비옥한 평야지대가 해안을 따라서 발달되었으며, 그 나머지는 구릉산지(丘陵山地)의 계곡과 저지대에 경작지가 형성되어 있다.

최근에는, 서산 A·B지구의 간척 사업을 완성하여 광범위한 농경지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어업은 농업으로 전환되었다.

해안선은 굴곡이 심한 리아스식해안으로 크고 작은 간척이 계속되고 있으며, 넓은 갯벌을 이용한 양식어업이 활발하다.

대체로 북서지역은 산세가 험준하며 경지도 좁은 편이다.

(3) 農業

논농사는 수도답 위주이고, 2모작은 4%정도가 행해지고 있다.

수도작은 통일계의 벼를 거의 재배하지 않고 일반벼를 재배하고 있다.

밭작물은 마늘이 특산이어서 마늘을 재배하지 않는 마을은 거의 없다. 마늘의 소출은 평당 1점으로 잡는다.

원래, 서산의 마늘은 6쪽마늘로서 전국적인 명성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호남 마늘의 재배면적이 넓어지고 있다. 호남마늘은 6쪽마늘에 비해 생육기간이 2개월 정도가 길지만, 알이 크고 박토에서도 잘 자라는 잇점이 있어서 호남 마늘의 재배면적이 늘어가고 있다.

마늘재배 방법의 혁신적인 변화가 눈에 띄는데, 과거에는 가을 파종 후에 쪼이나 퇴비를 덮어 주었다가 이른 봄에 불을 질러 태워주었으며 요즘은 그 대신 비닐을 씌워서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의 증식도 억제시키고 있다. 2년 전부터 비닐을 씌워서 쪼를 덮어 주거나 불을 놓는 방식은 점차 없어지고 있다.

마늘의 연작은 실패율이 높아서 생강을 輪作하는 경우도 많다.

담배도 일제때부터 재배가 시작되어 내륙마을의 경우 10여호씩 재배를 하고 있으며, 인삼도 많지는 않으나 재배되고 있는데, 인삼은 대개 외지인이 들어와서 재배해 간다. 대마를 재배하여 삼베길쌈을 하는 농가가 더러 있으나 대마의 재배는 면장의 허가를 얻어서만 재배할 수 있다.

기타 각종 약초, 원예, 채소 등도 재배하지만 전체적인 것은 아니다.

마을에는 작목반이 있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조직된 농촌경제조직의 하나이다. 작목반은 서울의 농산물도매시장 상인들과 연계되어, 특화작물을 재배하면 계약한 상인들이 전량 수납·판매해 주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하는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의 한 형태이다.

한우를 사육하다가 소값 파동으로 큰타격을 입자 지금은 시세가 좋은 개를 사육하는 지역이 일부 있다.

전문적인 양축농가는 마을에 한 두 가구정도가 있으나, 일반 농가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가축사육에서 재미를 못본다'고 생각하고 있다.

버섯재배·양봉·양잠이 국지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나 많은 것은 아니다. 60·70년

대에 서산·당진 양잠육성 계획에 따라 양잠이 많았었으며, 음암면에서는 양잠전시장도 있다고 하지만 현재 많지는 않다.

(4) 漁業

어업이 성한 지역은 안면도와 태안반도의 근흥면·소원면·대산면 일대이다. 주종은 해태양식·굴양식·바지락조개양식 등의 양식어업이 많고, 소형어선들은 연안조업으로 아나고·숭어·꽃게·걱쟁이 등을 잡는다. 채취어업으로는 낙지와 패류, 갯지렁이 등이 있다.

20톤급 이상의 대형어선은 동지나해까지 나아가 조업하며 판매는 목포·장항·군산·안흥 등의 큰 항구에서 한다.

1986년도에는 일기관계로 인한 해태양식의 전반적인 실패로 큰 타격을 입었다.

(5) 鹽田

활염은 6·25전까지 했으나 지금은 모두 천일염이다.

염전도 간척사업이 활발해져 점차 논으로 변해가고 있으나, 아직은 염전이 많다.

2. 의·식·주

(1) 衣生活

옛날에는 직접 삼베·모시·무명·명주 길쌈으로 피륙을 짜서 옷을 만들어 입었다. 여름에는 모시·삼베옷을 입고, 겨울옷으로는 무명·명주로 만든 것을 입었으나, 무명·명주·광복도 전에는 혼하지가 않았다. 명절때에는 보통 명주옷을 많이 해 입었다.

지금도 삼을 삼아서 길쌈하는 곳(해미면 동암리, 원북면 이곡리, 이원면 포지리 등)과, 모시를 짜는 곳(고북면 장효리, 이원면 포지리)이 있으나 성행하지는 않은 상황이며, 명주짜기는 누에를 치지 않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다.

삼베나 모시길쌈은 모두 팔기 위해 하는 것이어서 옷을 만들어 입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니다.

이부자리는 목화를 재배하여 갈아서 씨를 땀 목화솜을 넣어 만드는 곳이 간혹 있다. 지금은 속옷에서 부터 겉옷에 이르기까지 모두 시장에서 사다가 입는다. 설이나 추석 등의 명절이나 잔치때에 입는 옷도 장에 가서 바느질 집에다 맞추어 입는다. 집에서 옷을 만들어 입는 경우는 거의 없다.

(2) 食生活

밥에다 갯국치·배추·무우김치 등의 김치, 찐지·장찌개를 먹고 살기는 전이나 지금이나 매일반이다.

옛날에는 김치만 해도 소금하고 새우젓이나 넣고 담갔었는데, 지금은 갖은 양념과 조미료를 넣게 되었다. 요즘은 자기가 부지런하기만 하면 부침개질도 먹고 고기도 사다 먹을 수 있다.

농·어촌생활에 있어서 연료의 변화가 가장 큰 변화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뿔감으로 나무를 때고는 있지만, 어느 마을이나 적어도 60%이상의 가옥에서 가스를 사용하여 음식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하는 때에는 무슨 음식이든지 조리해서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연탄은 주로 난방을 위해서만 쓰며, 석유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요즈음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마을의 구판장에서 사다가 조리해 먹을 수 있고, 시장에 나가 사다 먹기도 한다.

쌀·보리·콩·팥, 고추·마늘·파, 무우·배추 등은 집에서 필요한 만큼을 심어서 먹는다. 식초를 만들어 먹는 집이 많다. 대부분의 집에서 갯국치를 찌서 먹고 있다. 두부도 많이들 만들어 먹는다.

큰 일 때, 떡은 방앗간에서 만들어 오거나 직접 집에서 만들기도 하며, 술은 밀을 갈아, 누룩을 찌서 만든다.

(3) 家屋構造

우선 집의 방향은 집이 위치하고 있는 곳의 지형지세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바다쪽을 향한 서향집이 많다.

집의 형태로는 본체가 ‘一’자꼴, ‘ㄱ’자꼴·‘ㄷ’자꼴, 본체와 아랫채를 합쳐서 ‘二’자꼴·‘ㄷ’자꼴·‘ㄹ’자꼴의 여러가지가 있으며, 지붕의 형태도 ‘一’자꼴·‘二’자꼴·‘ㄱ’자꼴·‘ㄷ’자꼴·‘ㅁ’자꼴의 각각 다른 형태로 되어 있다.

지붕은 짚·함석·슬레이트·기와 등의 여러 지붕이 있는데, 기와·슬레이트·짚 지붕만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기와와 슬레이트, 함석과 슬레이트, 짚과 슬레이트 지붕의 복합지붕집도 많다. 이것은 과거에서 현재로 살아오며 필요한 곳을 신축할 때에 새 지붕을 슬레이트로 얹게 되었기 때문에 생긴 변화이다. 전에는 짚지붕의 초가와 기와지붕의 기와집과의 두 가지 집 뿐이었으나, 짚이 함석으로, 다시 슬레이트로 바뀌게 되었으며, 근래에 신축했거나 개축한 곳일수록 슬레이트지붕이 대부분이다.

집의 규모는 6간의 작은 집에서부터 40간이나 되는 큰 집에 이르기까지 각각 크기가 다르며, 작은 집은 6자 1간의 토담벽집이고 큰 집은 8자 1간의 석회벽집으로 되어 있지만,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로 근래에 지은 방이나 팡은 시멘트단벽으로 되어 있다.

집의 둘레를 싸리울타리·토담·돌담·시멘트블록담·시멘트담 등의 담장이 두르고 있다. 거의 모든 집에서는 시멘트 담장을 새로 쌓고 대문을 달아 놓아서 집이 외부와 단절되어 있는 상태이다.

집의 정문인 대문은 두 짝으로 된 나무문이 전형적인 것이나, 외짝으로 된 나무문과 철문도 있다. 대문이 두 군데인 곳도 있으며, 대문이 달려 있지 않은 집도 있다.

안방의 미닫이문을 열고 방에 들어서면 아랫목 담벽에는 다락으로 오르내리는 다락문이 어디에나 있으며, 벽장까지 있는 집도 있다. 또, 어떤 집 안방에는 윗방으로 통하는 미닫이문이 달려 있는 곳이 있다.

부엌은 어느 곳이나 안방보다 넓으며 부뚜막에 술 세 개를 걸게 되어 있다. 부뚜막 위로는 안방의 벽장과 다락의 뒷부분이 돌출되어 있다. 부엌벽에는 찬장이 선반 위에 놓여 있고, 한 쪽에는 펄감나무와 김치·젓갈을 담은 독들이 있다. 부엌의 뒷문밖은 집의 뒷뜰로서 장독대가 있는 것이 보통이다. 뒷뜰이 없는 집은 장독대가 뜰안에 있다.

장독대의 뒷쪽은 시누이대밭이 집 뒤의 울타리를 이루고 있는 데가 많다.

쪽문은 변소에 드나들기 위한 작은 문이다.

토뒤주는 탈곡한 벼를 넣어 두는 곳인데, 토담에서 시멘트로 고쳐 지은 것이 대

부분이다.

사랑방부엌은 흔히 외양간과 맞붙어 있고, 사랑방부엌술에다 소의 여물을 쏜다.

변소와 굴뚝은 집의 건물 밖으로 나와 있다는 사실이 공통점인데, 간혹 건물 안에 변소가 있는 집은 편리를 위해서 최근에 새로지어 놓은 것이다.

안방은 집주인 내외가 쓰며, 윗방은 큰 아들내외가 쓰는 방인데, 집의 규모가 크고 방이 많은 집일수록 빈 방이 많고, 반대로 규모가 작고 방수가 적은 집은 빈 방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큰 집은 살림에 여유가 있으므로 아들·딸을 도시에서 공부시켜 대처(大處)에 나가 살게 하였기 때문에 평소에는 빈 방이 많은 것이며, 식구들이 그냥 놀러사는 작은 집에서는 방의 여유가 없는 것이다. 사랑방도 평소에는 쓰이지 않으나, 도시에 나가 공부하던 아들이나 딸이 방학을 하여 돌아와 있을 때의 거처가 된다.

집의 안팎을 살펴보면 원형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곳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대문의 위치를 바꾸거나 새로 해 단다든지, 방·창고·변소를 새로 내거나 개축한다든지, 집밖에다 축사·창고를 새로 짓는다든지 또는, 울타리를 새로 쌓는다든지 등과 같은 다소간의 변화가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3. 교역과 경제

쌀은 일반벼를 대부분 재배하기 때문에 정부수매를 이용하지 않고 도정하여 사매(私賣)한다. 사매의 방법도 과거에 비하여 많은 변화가 있다. 전에는 도정한 쌀을 시장으로 내다 팔았으나 요즘에는 방앗간에 맡겨놓으면 수집상들이 와서 사간다.

하곡(보리)은 자급식량분을 제외하고 전량을 수매한다.

기타의 발작물은 수집상이나 농협계통 출하를 통해 생산기에 대부분 판매하고 일부는 시장을 통해 사매한다.

시장의 기능은 물물교환이나 농산물판매의 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생활필수품의 구매기능만 강화되어 있다. 서산·태안·해미 등의 큰 시장은 상설시장에 정기시장을 겸하고 있으나, 나머지의 정기시장은 점차 퇴화하고 있다. 특히 우시장은 옛날처럼

소를 몰고 가서 파는 것이 아니라 차가 와서 소를 싣고가므로 원거리의 시장도 이용이 가능해져 해미·태안 정기시장의 우시장은 근래에 없어졌고, 서산정기시장에만 남아 있다.

경제성인 계로 쌀계가 매우 성행한다. 그대신 이율이 높은 장리쌀은 없어졌다. 쌀계는 10~200가마니의 규모가 있다. 대개 6명이 조직한다.

어촌계는 70년대말에 마을의 어촌계를 흡수·통합하여 면단위 어촌계로 만들었으므로 마을에는 면단위 법인어촌계의 간사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

기타 혼수계·상포계·친목계 등이 있으나 경제적인 것보다는 상호부조의 기능을 지닌 계이다.

4. 교통과 통신

도로포장율은 높지 않다.

교통은 서산·태안을 중심으로 서산-만리포선(포장), 서산-운산선(포장), 서산-대산선(일부포장), 태안-내리선(일부포장), 운산-해미선(비포장), 태안-남면-안면-영목선(일부포장)이 주도로이며, 이 노선에는 직행버스가 운행되지만 나머지 비포장 간선도로에는 시내버스가 들어간다.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은 섬을 제외하면 없다. 시내버스는 학생들의 통학편으로 가장 많이 이용된다.

교통보조 수단으로 오토바이가 마을에 15~20대씩 있으며, 자전거는 필요한 가구에 다 갖고 있다.

통신은 87년 내에 전화가 모두 다이얼식으로 교체된다. 광역통화권 사업에 따라 서산군을 1통화권으로 묶는 다이얼식 자동전화는 마을마다 50%이상이 가입신청을 해 놓았다. 일부는 1월 현재 개통되어 통화가 되고 있으며, 87년말까지는 개설품사가 끝난다.

다이얼식 자동전화 이전의 전화는 면지역을 1통화권으로 하는 수동식 전화인데, 1부락마다 전신전화 취급소를 두고 전화 가입을 하지 못한 주민들의 유료 통화에

이용되 있으며, 일부 부락은 부락 전체에 이 공용의 전화밖에 없는 곳도 있다.

5. 민 구

(1) 飲食道具

다음의 도구들은 집안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데에 소용이 되는 것들이다. 밥을 짓고, 떡을 하며, 반찬을 만드는 데에 쓰이는 음식도구들은 또한 식생활과 관련을 지닌다고 하겠다.

술(무쇠·양은)·냄비·밥상·주발·공기·탕기·접시·투가리(뚝배기)·종기, 독(김치, 새우젓), 항아리(간장·된장·고추장), 칼·도마 등은 매일매일의 식생활에 있어서 최소한의 필수품들이다.

또한, 절구(돌·나무: 절구통·절굿대·메갱이·걱음배), 맷돌, 경그레, 찻다리, 용머리(두부틀), 멧방석, 체·얼매이, 시루·목판·안변·등고리, 조리·소쿠리·광주리, 젓대(나무주걱), 뒷박(바가지·플라스틱) 등도 필요하다.

이밖에 밥통·밥고리·키, 뒤주·동자동이, 소뎡뚜껑·아궁이뚜껑, 풍구·깎방석·고무래·꼬챙이, 좇병·양병·노랑병·소주장군, 누룩바퀴 등이 있는데, 지금은 쓰이지 않거나 용처가 변경된 것들도 있다.

전기와 수도의 100%보급으로 등장한 것이 냉장고와 보온밥통이고, 두명과 물지게는 그 효용가치를 상실했다. 그리고, 가스렌지의 가설로 조리방법의 편리와 함께 형성된 가장 큰 농·어촌 부업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2) 農器具

농업에 사용되는 도구나 기계이다.

논·밭을 가는 기구들은 쟁기(나무·쇠)·쇠스랑(3발·4발), 팽이·가래·삽 등이 있다.

논·밭을 고르는 데 쓰이는 기구는 씨레(8발·9발 16발장씨레), 고무래, 열발(또는 12발) 쇠스랑 등이 있다.

씨앗을 뿌리는 데에는 종두리(씨바구니)가 쓰인다.

거름을 주는 데에는 거름통·거름지게·거름바가지와 삼발이(「호구·운수」라 고도 함)·쇠스랑(4발), 삼태기(짚), 하꼬(箱, 양철삼태기의 일본말)·개똥오쟁이 등을 사용한다.

논에 모를 낼 때에는 못줄을 대고 하는데, 지금은 모내는 이앙기로써 하는 곳도 있다. 논·밭을 매는 도구로서 호미·풀괭이·파병이(「파비」)·어랭이 등이 쓰인다.

논에 물대는 도구로서는 두레박·고레박으로 물을 떠올렸으나, 지금은 양수기가 그 일을 대신해 주고 있다.

벼·보리를 거둘 때는 낫이 쓰이고, 마늘을 캐 때는 마늘창, 고구마나 감자를 캐는 데에는 삽이나 괭이, 호미도 쓰인다.

벼를 터는 데에는 벼홀테(또는 「천태도끼」라고도 함)가 쓰이다가 타작기를 사용했으나, 이제는 복식수확기인 콤바인을 쓰는 곳도 있다. 이밖에 콩·팥·깨 등을 터는 데에는 도리깨를 사용한다.

말리는 도구로는 명석·밀대방석·걸대·고무래(「당그레」라고도 함) 등이 있다.

나락(벼)을 고르는 데에는 풍선기와 죽가래가 쓰인다.

알곡을 내기 위한 매통이 있으나, 지금은 모두 방앗간에서 해 온다.

운반기구로 지게, 바지게, 바구니·소쿠리·꾸덕, 망태기, 길마, 우차·마차, 손수레, 리어카, 자전거, 오토바이, 경운기 등이 있다.

계량기구로는 말(통말·사모말)·되(사모서), 저울(손저울·얹은뱅이저울) 등이 있다.

축산도구로는 구유, 여물술·낫·고무래·젓쟁이·여물주걱·여물바가지, 작두(손·발·기계), 작은삽, 멍에·구라, 소망(綱) 등이 쓰인다.

농산제조 기구로는 새끼꼬는 기계, 자리틀, 가마니틀, 메탕이, 씨앗이, 전짓게, 물레, 베틀·벳솔·톱·고드래 등이 있다.

(3) 生活用具

음식도구와 농기구 이외에 쓰이는 기구로는 갈퀴(대·철사), 숯돌·숯돌받침·모터

(「그라인더」), 도끼·톱·망치·자귀, 대야, 요강, 화로(질·쇠), 인두·다리미·다듬
잇들과 방망이·홍두깨, 메탕이·석가래, 빨래판, 두더지덫, 모종삽, 다람치(또는 「다
래끼」라고 함)·그물, 사닥다리(두발·세발), 빗자루(대·수수·싸리), 부고절이, 옷장,
발판·삼발이(산에서 깔고 앉는다), 사모등·등잔·남포, 흙손·흙칼·얼매이·오삼,
고양이항아리, T.V. 플랫시, 침척(針尺)·대척(竹尺) 등이 있다.

(4) 漁業用具

고기를 잡는 데에는 배·살장대, 발장그물·오광망·삼마이그물·투망·통발, 쭈꾸
미 잡는 고동 등이 쓰인다.

(5) 金養殖用具

김(해태)을 양식하는데 쓰이는 기구로는 김발대·발장·굴껍질·김바구니, 김틀·
김틀받침·김틀삼발이, 족바(김절단기), 탈수기, 김빠는 고무래, 김돛박 등과, 김건조
장이나 김건조실이 필요하다. 그리고, 김을 나르는 데 튜브나 배도 쓰인다.

(6) 기타 採取用具

갯벌에 나가서 바지락이나 낙지, 또는 굴과 갯지렁이를 채취하는 데에 장화, 바지
락호미, 낙지가래, 갯지렁이통·지렁이·쇠스랑·바구니 등이 쓰이며, 굴을 떼어 내는
조새가 있다.

이상의 민구는 ① 명칭, ② 용도, ③ 사용방법, ④ 형태, ⑤ 구조와 부분명칭, ⑥ 제작
방법과 재료, ⑦ 구입처와 가격, ⑧ 수명 및 보수방법, ⑨ 사용여부와 사용되던 시기,
⑩ 크기와 무게, ⑪ 조사일자와 제보자 등을 조사 하였다.

IV. 歲時와 儀禮傳承

1. 세시풍속

(1) 瑞山の 歲時風俗 概觀

서·태안 18개 지역을 대상으로 세시풍속을 조사하였다. 세시풍속은 해마다 같은 시기에 치러지는 주기전승으로서 전국 어디서나 행해지는 보편적인 민속 현상이기에 지역적인 특성을 가려내기가 결코 용이하지가 않다.

애초 세시풍속이 농경과 직접 관련하고 있어 농경의례로도 일컬어지지만 그것은 점차 농경 뿐 아니라 어업 등 여타 생업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이번에 조사한 18개 지역중에는 농업이 주생업인 마을이 있는 반면 어업이 주생업인 마을이 있고 또는 농어업을 함께 주생업으로 하는 마을도 있다. 그러나 주생업이 농업 또는 어업일지라도 농업하는 지역에서는 어업을, 어업지역에서는 농업을 부분적으로나마 하고 있다.

주생업에 따른 세시풍속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으나 부분적으로는 드러난다. 어촌지역에서는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풍어제를 지낸다. 반면 그 밖의 세시행사가 치러지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기농(祈農)·풍농(豐農)행사인 ‘벗가리’가 전승되고 있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었다. 그 밖에 명절놀이는 율놀이로 제외하고는 거의 사라져 가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게 세시풍속이 생업과 직접적으로 관련하고 있지만 현재 각 지역에서 세시풍속이 제대로 시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茶禮나 성묘 등 일상의 가정생활과 직접 관련된 세시행사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약화되거나 사라져가는 형편이다. 그러기에 제보자들로부터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자료를 조사하는 데에는 어려움도 많았다. 또 현재까지 전승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오랜 기간이 지나는 동안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양상도 많이 달라져 있었다. 그리고 제보자들의 기억력 내지는 체험의 한계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었다.

비록 현재에는 관행되지 않더라도 과거의 것을 비교적 소상하게 기억하는 제보자가 있는가 하면 모르거나 또는 예전에는 경험했거나 본 적이 있으나 기억을 못하는 제보자도 있었다. 따라서 제보자의 기억력의 한계로 인해 누락된 것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곧 여기 조사된 내용 외에도 또 얼마든지 있으리라는 가능성이다.

우선 마땅한 제보자를 만날 때 좋은 자료를 풍부하게 얻을 수 있겠는데 제보자는 가능한 주생업에 맞추고 평생 그 지역에서 살아온 연로한 분을 찾느라 애썼다. 아울러 기억력이 좋고 비교적 구변이 있는 분이어야 하기에 적절한 제보자를 찾는 일도 결코 쉽지가 않았다. 간혹 마을의 사정상 연로한 분을 만날 수 없을 때에는 불가피 중년층의 제보자가 선택되기도 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세시풍속이 약화·변화되거나 또는 사라지고 있는 형편인데 대체로 생활에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 지켜지고 있는 편이었다. 그러나 흔히 ‘미신’으로 일컬어지는 안택고사·홍수매기 등의 민간신앙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생활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세시행사도 거의 행하지 않는다. 명절(세시 명절)이기에 행사는 집안의 살림형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세시풍속 자료를 분류·기술하는 데에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이 글이 일정 지역의 민속현상을 조사한 현장 보고서의 성격을 지니기에 종전의 익숙한 대로 월별 순차적인 기술을 하고 마지막에 윤달의 풍속을 수록했다. 세시 풍속이 태음력에 따른 주기전승이기에 여기에서의 월별은 음력이다. 그리고 자료를 기술하는데 있어 현지에서 제보자가 말한 그대로 기록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각 주를 달아 처리했다. 민속놀이도 같은 시기에 시행되는 것은 세시풍속의 범부에 포함시켰다.

V. 信仰과 慣習傳承

民間信仰의 조사대상은 家神信仰·洞神信仰·巫俗·讀經·自然物崇拜·英雄崇拜·風水·占卜·豫兆·禁忌·呪符·邪鬼信仰·民間醫療 등과, 慣習 분야의 조사대상은 倫理·道德·法·相續·所有 등이었다.

가신신앙은 성주·조왕·삼신·地神이 보편적으로 신앙되고, 지역에 따라 독祭·水門祭·섬祭가 있어서 주목된다. 山間마을에서는 족제비를 신성시하는 「엿」신앙이

있고, 해안지대와 평야지대에서는 龍神을 신앙하는 요소도 있다. 祖上이 家神으로 신앙되는 예는 극히 희박한 편이다. 家神 중에서 성주神이 가족의 吉凶禍福을 주관하는 최고의 神으로 신앙된다.

洞神신앙은 대체로 음력 정월 14일 밤에 洞民들이 합동으로 洞祭를 지내고, 洞神으로 모신 堂神은 山神과 서낭神이 보편적이며, 西海岸에서는 국수堂·장군堂이 있어서 국수神과 林慶業將軍을 모셔 신앙한다. 임경업장군은 農換神으로 漁民들에 의해 신앙된다. 神堂의 形態는 堂나무(神樹)를 기반으로 祭壇이 있거나 堂집이 있는 일반적인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巫俗은 정통한 무당이 인멸되어, 순수한 巫俗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무속이 독경 신앙과 혼합되어 절충된 형태로 변형된 모습으로 전승된다. 「순거리」(선무당), 「법사」(法師)는 무당과 같이 神病體驗을 통해 神이 내렸지만 정통한 굿을 하지 못해 祭儀 때에는 「經군」을 불러 독경으로 대체시켜 독경의식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무속의 降神現象은 傳承되지만 무속의 제의는 인멸된 실정이다.

讀經은 원형태 그대로 전승되면서 한편으로는 「순거리」와 짝잡되어가는 현상을 보인다.

自然崇拜는 山·바위·나무·물 등이 신앙의 대상이 되고, 숭배신앙이 되는 動物은 호랑이·족제비·구렁이이며, 소·말·개·돼지·닭 등도 간접적인 神聖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風水는 墓자리와 집터에서 좌향을 따지며 명당터를 중시하고, 占卜·豫兆·禁忌·呪符 등이 神祕력을 지니고 전승된다.

敬畏視되는 邪鬼로는 처녀의 死靈인 「왕신」과 「도깨비」, 「삼태귀신」(총각의 死靈), 「客鬼」, 「용궁수배」 등이 있어서 인간을 괴롭힌다고 믿는다.

民間醫療는 토사광란과 「상한」(想思病), 학질 등에 대한 민간 자체의 처방으로 自然物로부터 얻는 약과 신앙에 의존한다.

慣習에서 孝를 중시하고 윗사람을 공경하며, 남녀의 内外 거리를 지키는 풍속이 전승되고, 相續에는 長子 위주가 되어 祖上の 제사를 받들게 하며, 딸에게는 대체로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다.

VI. 言 語 傳 承

언어전승으로는 방언, 지명, 설화, 민요 속담, 수수께끼 등을 조사하였다. 그런데 이것들은 각각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자료조사의 방법이 다를 수 밖에 없고 자료의 양도 대단히 많은 것이어서, 두사람이 분담하여 조사하였다. 방언 및 지명은 김창진이, 설화(전설·민담)·민요·속담·수수께끼는 최운석이 맡아서 조사하였다. 이들의 조사방법 및 자료의 특성을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방언, 지명

(1) 방언

이번 서산 지역 방언 조사는 처음부터 한계점을 안고 시작되었다. 방언 조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종합적 민속 조사의 한 부분으로서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완벽한 조건을 갖춘 제보자를 만나서 적어도 일주일여의 시간을 갖고 방언 조사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킬 수 없었다. 민속 조사를 하루에 한 마을 또는 두 마을을 하였는데, 그 상황에 맞추어서 최선을 다하였다. 정신 문화 연구원에서 나온〈방언 조사 설문지〉를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상황에 따라서는 자연적인 발화를 통한 조사도 하였다. 그 결과, 설문지의 제1~3권까지는 거의 다루었고, 두 번 이상 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한 항목에서도 세세한 부분까지는 정밀하게 조사하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는 한계였다. 서산 지역 방언의 음운적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되는데, 그 하나는 쉽게 발음하려는 경향이다. 다시 말하면 언어의 경제성이 다른 성질보다도 가장 세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다음의 일곱가지 경우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구개음화(口蓋音化) 현상이 나타난다. 특히, 연구개음(軟口蓋音)인 /ㄱ/이 /ㅣ/모음의 영향으로 경구개음(硬口蓋音)인 /스/으로 바뀌는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길>질, 기름>지름, 길다>질다, 김(海苔)>짐기둥>지둥, -끼리>-끼리, 찌다>찌다」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 약간 변형으로 다음과 같은 예들고 있다. 「겨

드랑>저드랑, 가깝다>가잡다, 도끼>도치, 키>치, 계시다>지시다」등이 그것이다.

둘째, ㅁ모음 역행 동화 현상이 나타난다. 한 품사 안에서 일어나는 예는 다음과 같다. 「방망이>방맹이, 찹빔>챔빔, 종일>정일, 호랑이>호랭이, 남비>냄비, 모자(母子)>모재, 가리다>개리다, 죽이다>척이다」。 다른 품사와 결합하면서 일어나는 예는 다음과 같다. 「복(福)이여>복이여, 영감이>영깼이, 장(場)이>쟁이, 이장(里長)이>이쟁이, 기억이>기엑이, 반갑기도>반깼기두」.

세째, 축약(縮約)현상이 나타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마을>말, 고을>골, 주인>전, 늘은밥>눈밥, 세우기>세기, 귀여운>귀연, 때문에>때미, 거기로>그루, 모여>뫼, 몰라유>몰류, 들어와요>들와유」.

네째, 음성모화 현상이 나타난다. /-어요/>/-이유/에 의한 충청도식 어투와 요왕(龍王)>유왕 등의 예는 /요/>/유/의 변화를 보여준다. /아/>/어/의 예는 「나물>너물, 남>넙, 하다>허다, 까불다>꺼불다, 하여간>허여간」등이다. 또, 「오>우」의 예는 「못>뫓, 저고리>저구리, 조왕>주왕, 호랑이>후랭이」등이 있다.

다섯째, ㅁ모음화 현상이 나타난다. ㅁ모음은 혀앞소리(前舌母音)이며 고모음(高母音)이기 때문에 가장 발음하기 쉬운 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발음하기 어려운 다른 위치의 음들을 서산 지역의 언중(言衆)들은 가장 손쉬운 ㅁ모음으로 대체해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먼저, /~아/>/~어/>/~이/의 예로는 「갈아요>갈이유, 했어요>했이유, 있을거요>있을끼유, 구렁이>구랑이, 저>지, 너>니」등이 있다. 또, /~우/>/~이/의 예로는 「메뚜기>메띠기, 죽이다>직이다」등이 있다. 그리고, /-에/>/-이/의 예로는 「세살>시살, 네살>니살, 소제>소지, 세수>시수, 그런데>그런디, 할 텐데>할 턴디, 집에>집이」등과 「폐백>피백」의 유사한 예도 나타난다. 또, /-으/>/-이/의 예는 「드라다>디리다, 들려주다>딜여주다, 구슬>구실」등이 있고, /-의/>/-이/의 경우는 「의견>이견, 닭의 똥>달기 똥, 이웃의 노인>이우지 노인」등이 있다. 또한, /위/>/이/의 경우도 있는데, 「뒤주>디지, 뱃쥐>메찌」등이다.

여섯째, 전설모음화(前舌母音化) 현상이 나타난다. 특히, /아/>/애/의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상여>생여, 아명>애명, 바다>바대, 초당>초댕, 샷갯>셋갯, 담벼락

>뎡뿌락, 만들다>맨들다」등이 그 예이다. /어/>/에/의 경우도 나타나는데 「저자>제자, 청어>청에, 덩이>덩이」등이다.

일곱째, /어/>/으/의 고모음화(高母音化) 현상이 나타난다, /으/는 /어/보다 입을 적게 벌리고 발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짓말>그짓말, 없다>웁다, 석줄>숙줄, 서숙>스숙, 어사>으사, 성인>승인, 건너>근너, 거들다>그들다」등이 그 예이다.

서산 지역 방언의 두번째 음운적 특징은 고형(古形)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개(犬)/를 /가이, 가히/라고 하는데, 이는 조선 시대의 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다른 지방에서는 가히>가이>개로 변해 버렸지만, 서산 지역에서는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뱀/을 /비암/, /게(蟹)/를 /그이/라고 발음하고 있는 것도 같은 경우이다. 그밖에도 /샘(泉)/을 /사암/으로, /돼지/를 /돼야지/로, /새끼/를 /사내끼/로, /소경(盲人)/을 /소이경/으로 발음하는 것도 같은 현상으로 생각된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묘(墓)/를 서산의 동부 내륙 지방에서는 /모이/로, 서부 해안 지방에서는 /무이, 무요/로 발음하고 있는 현상이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요/가 옛날에는 /오이/의 2중 모음으로 발음되었으리라는 점이다. 위의 /소경/은 고어가 /소경/이므로, /쇼경/>/소이경/>/소경/의 변천을 겪었다고 보여지는데, 서산은 아직 /소이경/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모이/와 /무이/에서 /묘/에 가까운 원형은 /모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동부내륙 지방이 더 전통을 유지하고 있고, 서부 해안 지방이 모이>무이의 음성 모음화의 변화를 거쳤다고 볼 수 있다.

고형을 유지하고 있는 또 하나의 경우는 /가새(剪)/, /무수/, /갯(邊)/등에서 스음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특수한 현상을 나타내는 용언들의 경우가 있다. 「모르다>몰르다」는 유추(類推)현상을 보여준다. /모르/의 고형은 /모르/이므로 /몰르/는 고형이 아니다. 그렇다면, /몰르다/는 그 부사형인 /몰러/에서 「ㄹ>르ㄹ」로 유추한 현상이 아닐까 한다. 또한 이 현상은 ㄹ음의 역행 동화로도 볼 수도 있다. 즉 /르/의 ㄹ음이 앞의 /모/에 영향을 주어 발음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첨가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날아오다>ներօօօօ」의 경우는 ㄹ음의 순행 동화로 볼 수 있다. 발음도 더 편하며, 또 강한 효과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다르다>달브다」의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확실한 원인을 알기 어렵다.

전반적으로 볼 때, 서산 지역의 방언은 발음 시간이 타지역보다 길며, 어감이 부드러운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으로 요약된다. 특히, 조사(助詞)나 어미(語尾)가 정감이 넘치는 부드러운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장 전체가 그러한 느낌을 준다. 즉, 「했디유, 했디여, 했디야, 하니께, 해봉께, 했남?, 했다나? 았남이요?, 못히여, 물류, -부팀, -까정 있이유」 등등이 그 일부의 예이다.

(2) 지명

서산 지역의 지명을 조사한 결과, 우선 드러나는 특징은 마을 사람들이 부르는 지명은 고유어가 많고, 공식적 행정구역 명칭은 한자어라는 점이다.

고유어로 된 지명들은 세가지 점에서 좋은 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그 지명이 가리키는 곳의 지형적 특징을 알기 쉽다는 점이다. 즉, 「웃말, 아랫말, 앞굴, 뒷굴, 큰말, 작은말, 샘골, 양지뜸」 등등은 흔히 나타나는 지명인데, 그 마을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다. 둘째는 그 지역의 역사를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창말’이나 ‘구창터’등도 많이 나타나는 지명인데, 여기는 옛날에 창고가 있던 곳들이다. 따라서 옛날에 교통 상으로나 또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말우리’, ‘말등구리’라는 지명도 있는데, 말이 울고 말이 텅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사해 본 결과, 여기는 조선 시대에 창고가 있어서 말들이 세미(稅米)를 운반했던 곳임을 알게 되었다. ‘요왕배미, 유왕배미’라는 곳이 있는데, 옛날에 용왕굿을 지냈던 곳이다. ‘배다리’라는 곳은 배가 닿았던 다리가 있는 곳이며, ‘빚돌머리’는 비석이 있던 곳이다. 세째는 한자어보다 정감이 있다는 점이다. ‘鳴川(명천)’ 보다는 ‘우르내’가, ‘冷川(냉천)’ 보다는 ‘찬샘’이 井筏(정벌)보다는 ‘샘벌’이, ‘項村(향촌)’ 보다는 ‘목말’이 뜻도 알기 쉬울 뿐더러 우리에게 더 정답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에 반해, 공식적 행정구역 명칭들은 무조건 한자어로 되어 있다. 이러한 지명들은 정감이 부족한 것을 물론, 뜻마저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이북면

(梨北面)의 경우에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이원(梨園)과 북일(北一)이 합쳐지면서 각각 한 자씩을 따서 이북면이 되었다. 이렇게 무리하게 한자를 조합해 놓았기 때문에, 글을 보지 않고 말만 들었을 때에는 뜻을 알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오해하기 십상이다. 결국은 이 폐단 때문에 1987년 1월부로 이원면(梨園面)으로 돌아 가고 말았다. 그러나, 지금은 오해는 하지 않게 되었지만, 말로만 들어서 뜻을 알 수 없는 것은 여전하다. 다른 한 예를 들면, 야당리(野堂里)라는 마을이 있다. 한자를 보기 전에는 이 마을 이름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도 야촌(野村)과 원당(元堂)이 조합된 결과이다. 대부분의 행정구역 명칭은 통폐합때 이런 식으로 조합되었는데, 본지역 주민들 마저도 그 뜻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행정구역 명칭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리하게라도 꼭 한자어를 써야만 하는 지는 재고해야 될 문제라고 느꼈다.

지명 조사에서 두번째로 드러나는 특징은 주민들 중에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명의 유래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을 찾기 힘들었다는 점이다. 이는 그 지명에 대한 지식의 전승이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주민 자신들도 알고는 싶지만 알 수 없어 답답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므로 향토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문제부터 더 늦기 전에 향토사가 들에 의해 연구되어져야 한다고 느꼈다.

세번째 특징은 두번째와 연결되는 사항으로, 고유한 지명이 점차로 잊혀져 가고 있거나, 왜곡 변화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한자어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사자가 《전국 지명 총람》에서 조사한 지명을 질문하였을 때, 모르겠다는 주민도 있었고, 오랫동안 들어본다는 주민도 있었다. 또, 음운이 바뀌어가는 현상도 볼 수 있었다. ‘분홍재’가 ‘부홍재’로, 또 ‘서낭재’가 ‘사낭재’로 바뀌어 뜻이 바뀌어 버리는 예도 있다. 도비산도 되비산, 뒷박산 등으로 바뀌기도 하는데, 어느 쪽이 원이름인지 알 수 없다. ‘한다리’나 ‘전라산’등의 경우에는 그 뜻에 대한 해석이 여러가지로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아름답고 정겨운 고유어로 된 지명이 한자어지명보다 많으며 그 원형을 가깝게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세대가 내려갈수록 전승에 무관심해져서 원형이 왜곡되고, 나아가 지명 자체가 잊혀져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다가, 행정

구역상의 지명들은 전부 한자어인데, 조합된 경우가 많아서 재고해야 될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설화, 민요, 속담, 수수께끼

조사자는 선정된 마을의 노인회관이나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찾았고, 그러한 장소가 없는 마을에서는 호별 방문을 하여 지역 주민을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함께 만났다. 조사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신화, 전설, 민담, 민요, 속담, 수수께끼의 중요성을 먼저 설명하고,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구연을 부탁하고 녹음하여, 이를 정리하였다.

먼저, 설화의 경우를 적어 보겠다, 조사자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연자에게 구연을 부탁하였다. 구연자가 구연할 의사를 표시하면, 성명과 연령을 물은 다음, 구연하고 녹음하였다. 녹음된 내용은 원음 그대로 적었다. 그런데, 서로 마주 앉아 주고 받던 전설이나 민담을 글로 옮김에 따라 현장성이 사라졌고, 구연내용도 구연자 특유의 말씨·사투리·문장 감각 때문에 이해에 어려움이 없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의 앞에 줄거리를 실어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자료의 끝에는 구연자의 인적사항, 만나게 된 경위와 채록 상황, 청중 반응 등을 적어 현장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설화를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구연 경력 등을 적어 그 자료의 전승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설화 자료 중 구전신화(口傳神話)라고 할 수 있는 자료는 별로 없었다. 홍수에 관한 것들이 더러 채록되기는 했으나 전설적 성격이 더 강한 것 같아서 전설로 정리하였다.

전설의 경우를 보면, 지명전설(地名傳説)의 내용이 아주 다양하였다. 해안 쪽에서는 용바위(龍岩), 용난굴(龍窟)전설과 같은 용과 관련된 전설과 섬 이름에 관한 전설이 많이 채록되었다. 그리고, 가야산에 가까운 내륙지방에서는 호랑이와 관련된 전설, 풍수 전설이 많이 채록되었다. 인물전설로는 <학이 날개로 보호한 아이>, <무학대사와 한양성>과 같은 무학대사와 관련된 전설이 많이 채록되었다. 그리고, 이인(異人) ‘김복선’, ‘토정’의 이야기도 더러 채록되었다.

이 지역에는, 배가 왕래하기에 편하도록 운하공사를 했었다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곳의 지맥(地脈)을 끊으려고 땅을 파니, 피가 흘러서 공사를 중단하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첨가되어 있어 매우 흥미롭다.

민담은 흥미와 교훈성은 강조되지만 지역적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지역의 민담의 특성을 말하기는 어렵다. 다른 지방에서 전파·전승되고 있는 민담들이 이 지역에서도 전파·전승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많은 설화 구연자 중 성연면 명천리 195에 사시는 이억룡(남, 71세, 농업, 한문수학)씨와 인지면 야당리2구 250에 사시는 이 봉을(남, 75세, 농업, 국문해독)씨는 매우 유능한 구연자였다. 이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자료를 모두 채록하지 못해 아쉬움을 느낀다. 민요의 채록은 설화를 채록한 뒤에 하였다.

채록된 자료는 노동요, 의식요와 비기능요이다. 어른들,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화를 채록한 뒤에 그들을 대상으로 민요를 채록하였으므로 어린이들 사이에서 많이 불려질 것으로 생각되는 유희요는 채록하지 못했다, 노동요는 농업노동요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의식요는 상여노래가 많았다. 비기능요로는 노랫가락, 창부타령 등이 많이 채록되었다.

민요는 농사 방법의 개량,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보급등 생활양식이 바뀔에 따라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그래서, 채록된 자료의 양과 질이 미미한 편이다/

속담과 수수께끼는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약간의 자료를 수집했으므로, 두드러진 특징을 찾을 수는 없다.

3. 方 言

(일러두기)

1. 이 조사는 두 가지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 하나는 체계적인 조사로서, 한국 정신문화연구원에서 발행한 《한국 방언 조사 질문지》에 의하였다. 다른 하나는 자연적인 조사로서, 다른 분야의 조사 중에서도 또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나오는 방언을 수집하였다.

2. 체계적인 조사는 원칙적으로 제보자를 밝히고, 앞의 책의 순서에 따라 기록하였다. 그러나, 자연적인 조사는 가능한 한 제보자를 밝히되 불가능한 경우 : 생략하였으며, 그 기록도 시간적인 순서에 따랐다.

3. 조사된 방언의 기록은 표준어를 표제어로 하여 앞쪽에 적고, 현지 방언은 뒷쪽에 적었다. 방언의 표기는 한글과 발음기호의 두 가지로 하되, 한글을 앞에 적고 발음기호를 뒤에 적었다.

보기. (1) 씨레(I.015) : 쓰레 S't : -re

4. 방언의 표기는 쓰는 한글은 소리나는 대로 적되, 어법을 고려하였다

5. 방언의 표기에 쓰는 발음기호는 국제음성부호(I.P.A)의 간이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통일하였다.

아[a] 애[ɛ] 야[ja] 얘[jɛ] 어[ə] 예[e] 여[jə] 예[jɛ] 오[o] 와[wa] 왜[Wɛ] 외[φ] 요[jo] 우[u] 위[wə] 웨[we] 위[y] 유[ju] 으[ɪ] 의[tj] 이[i] ㄱ[k.q] ㄱ' [k'] ㄴ...n] ㄷ...t.d] ㄷ' [t'] ㄹ[l.r] ㅁ[m] ㅂ[p.b] ㅂ' [p'] ㅅ[s] ㅅ' [s'] ㅇ[h] ㅈ[tʃ,dʒ] ㅈ' [tʃ'] ㅋ[kʰ] ㆁ[h]

6. 방언의 표기를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호를 사용하는데, 그 용법은 다음과 같다. X조사지역에는 조사항목이 지시하는 대상이 없어서 방언형을 조사하지 못했을 때 X표를 한다. 단, 지금은 지시 대상이 없으나 그 명칭만은 남아 있을 경우에는 X표를 한 뒤에 그것을 기록한다.

보기. (2) 디딜방아(I.040) : X지질방아[tʃi-dʒil-p'ang-a]

△지시대상은 있으나 그 명칭이 없을 때 △표를 한다. 단, 그 명칭이 방언형으로 어휘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대상을 풀이했을 경우에는 ()안에 그것을 기록한다.

보기. (3) 확(I.042) : △(절구안[tʃəl-gu-an])

? ① 지시 대상과 명칭은 모두 있으나 제보자의 응답을 얻지 못하였을 때 ?표를 한다. 단, 응답은 얻었으나 제보자 자신이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표 다음에 그 응답형을 기록한다.

보기. (4) 여울광(I.459.1) : ?

② 제보자의 응답에 대하여 조사자가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응답형 뒤에

? 표를 한다.

보기. (5) 부지깽이 : 불자락 막대 ? [pul-tʃ'a-rak-mak-t'ɛ]

◎미심쩍은 방언형에 대하여 재확인해서 이상이 없는 때 ◎표를 한다.

보기. (6) 바구니(I.035) : ◎전라도 바구리[tʃəl-la-do-ba-gu-ri]

※ 자연발화에서 얻어진 형태가 조사자에 의한 응답형과 다를 때는 ※표를 하고, 그 뒤에 기록한다.

보기. (7) 벼(I.001) : 벼[pjɔ] ※배[pe]

+제보자가 아닌 협조자로부터 얻어진 방언형 앞에는 +표를 한다. 또, 제2의 협조자로부터 얻어진 방언형 앞에는 丰표를 한다.

보기. (8) 기와집(I.138) : 개와집[kɛ-wa-dʒip] + 기와집[ki-wa-dʒip] 丰지와집[tʃi-wa-dʒip]

A>B한 조사항목에 대하여 A(舊形), B(新形)의 두 방언형이 쓰일 경우 >표를 써서 그 관계를 나타낸다.

보기. (9) 엉덩이(I.242) : 궁덩이[kuih-dɛu-i]>응덩이[tih-dɛh-i]

A(B)두 방언형이 쓰이지만 A가 B보다 좀더 일반적으로 쓰이는 경우에 A는 밖에 놓고 B는 ()안에 넣는다.

보기. (10) 꼬빼(I.452) : 꺾빼[kɔp-p'ɛh-i] (꺾빼[kɔp-p'ɪ])

A, B←A, B가 모두 쓰이나, B는 다른 방법으로 부터의 차용이라고 제보자가 밝혀줄 경우에 ←표를 하여 그 지역을 적는다.

보기. (11) 반찬(I.074) : 반찬[pqan-tʃ'an] 건건이[kən-gə-ni]←경상도
卑, 敬 조사된 방언형의 卑稱일 경우에는 卑, 敬稱일 경우에는 敬으로 뒤에 표시한다.

보기. (12) 어머니 : 어머님 敬[ə-mə-nim]

標, 方 표준말과 방언의 예를 각기 들어야 할 경우에 표시한다.

보기. (13) 標있어요 方있어유[i-s'i-ju]

7. 조사항목에 붙여서 응답한 助詞나 語尾는 音의 辨別에 필요한 경우에만 기록하였다.

보기. (4) 짚(I.027) : 짚(으로)[tʃi-bi-ro]

8. ① 방언 기록의 번호는 서산군 전역을 통해 1, 2, 3……식으로 일련번호를 붙이며 그 뒤에 읍, 면, 리 등의 지명을 적는다. 그 아랫줄에는 마을 안의 제보자가 바깥에 따라 I, II, III……식으로 일련번호를 붙인다.

② 방언 개별 항목의 번호는 한 마을 안에서는 제보자에 관계없이 (1), (2), (3)……식으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새로운 마을에서는 새로이 일련번호를 붙여 나간다.

9. 특별한 전문적인 일에 관계되는 전문용어는 일반 방언들과 분리시켜 따로 독립시켰다. 곧, 염전 용어, 길쌈 용어, 김 양식 용어, 머물때 용어만 이에 해당한다.

VII. 藝能과 競技傳承

민속놀이는 크게 개인놀이와 집단놀이로 나뉘어진다. 개인놀이와 집단놀이를 엄밀하게 구별하기는 어려우나, 놀이의 성격상 분류될 수 있다. 곧, 여러 사람의 집단적 힘이나 화합이 아니고는 원칙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것을 집단놀이로 취급할 수 있으며, 개인놀이는 집단적인 힘이 없이도 한두 사람에 의해 수행될 수 있는 개별적 차원의 놀이를 뜻한다.

개인놀이는 놀이 주체자들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놀이 양상이 다른데, 소년 소녀의 놀이, 남자 어른들의 놀이 및 부녀자들의 놀이로 대별되며, 집단놀이는 대체로 한 마을 이상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 놀이로서, 지역적 특성-향토성이 강조되는 향토 축제의 성격을 연다.

조사 대상지역인 서산·태안군은 섬과 바다에 연결해 있는 해안지방과 내륙과 연결해 있는 내륙지방이 고루 분포해 있는 지역으로써, 어촌과 농촌 및 산촌의 촌락적 제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전승되어 오는 민속놀이도 촌락적 특성을 갖고 있으리라는 가능성이 있으나 다른 지역의 민속놀이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어촌과 농촌 및 산촌에서 조사된 민속놀이가 비슷하며, 교통의 발달과 산업화에 따라 놀이의 개별성을 일탈하여 보편성을 띠는 놀이들이 주로 전승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집단놀이 인 줄다리기나 농악 등도 다른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집단

놀이인 줄다리기나 농악 등도 다른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것들로서 그나마 자발적인 전승력을 상실한 채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개인놀이도 놀이 주체자에 따라 전승 양상이 다른 것이 보편적인 현상인데, 조사된 민속놀이들은 놀이 주체자들의 뚜렷한 구별이 안될 뿐더러 놀이가 벌어지는 계절이나 절기의 구분까지도 모호한 점이 특색이다. 바꿔 말하면, 남자 놀이를 여자도 하고, 여자 놀이를 남자들이 하는 등 놀이 주체자의 교체 현상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똑같은 한 놀이가 어느 마을에서는 겨울에만 하는데 반해 어느 마을에서는 계절에 상관없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전승시기까지도 혼재하고 있다.

서·태안에서 조사된 민속놀이는 모두 70여 가지로, 어른 놀이보다는 아동놀이가 주종을 이룬다. 이것은 아동놀이는 현재에도 전승되고 있으나, 어른 놀이는 전승력을 상실한 채 기억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로 제보자를 어른으로 택해서 조사할때 놀이종류가 단순할 뿐만 아니라, 놀이 방법의 착각과 망각 현상이 현저하게 드러나는 까닭에 놀이의 전체적 모습을 알 길이 없다.

아동놀이의 경우, 현재 전승되고 있는 현장까지도 조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놀이의 전과정을 생생하게 조사할 수 있었으며 놀이방법 또한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아동놀이는 놀이 주체자인 아동들의 창조력에 의해 비슷한 유형의 놀이로 분화 발전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들이 하는 놀이 중 그 명칭이 국적 불명인 것이 더러 있다는 점을 또한 특색으로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징어놀이를 오징어 가상·오징어 가이생·오징어 깎 등으로 지칭하는 마을이 있었는데, 가상이나 가이생은 일어 ‘開戰’의 와음으로 볼 수 있고, 깎은 영어 ‘Game’의 와전으로 볼 수 있으나,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 이런 양상으로 고착되어 전승되고 있는가는 더 구명해야 할 과제라 생각된다.

조사된 놀이의 윤곽을 살펴보기 위해 놀이명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고누·구슬치기·가마타기·공기놀이·갈퀴치기·그네타기·네거리놀이·나이먹기·낫치기·넙뛰기·농악·대한말·돌차기·달팽이놀이·두꺼비집 짓기·댕공치기·방패놀이·발밟기·비행기놀이·발걸음떼기·병신놀이·부채놀이·보싸움·비석치기·별놀이·보물뺏기·십자가놀이·시계놀이·색깔찾기·씨름·세발뛰기·술레잡

가 · 시계추 놀이 · 신발 던지기 · 요술공주 놀이 · 오징어놀이 · 얼음불 · 육해공군 · 여의봉 놀이 · 이름대기 · 안경놀이 · 열발놀이 · 얼굴지우기 · 진뻗기 · 집뻗기 · 자치기 · 자동차놀이 · 제기차기 · 종경도놀이 · 천당뻗기 · 숫자놀이 · 팽이치기 · 깡통차기 · 꽃단지 · 땅재먹기 · 찌름찍기 · 해바라기 놀이 · 연 날리기 · 옷놀이 · 쥐불놀이 · 고무줄 넘기.

VIII. 標本地域(八峰面 陽吉里)의 民俗 資料

1. 양길리의 지리 · 역사적 환경

(1) 地理的 環境

八峰面은 瑞山市와 泰安郡의 중간 거리에 자리잡고 있다. 팔봉면 소재인 어송리는 서산시에서 西西北 방향 13.1km 떨어져 있다.

어송리는 八峰山(321m)이 있고, 그 支脈이 사방으로 뻗어내려 面 전체가 대부분 산지를 끼고 있는데, 조사 대상인 陽吉里는 서쪽 일부가 西海와 접하고 나머지는 팔봉산 줄기인 풍륜산을 끼고 있다. 바다와 접해 있는 양길리 서쪽에는 方吉浦가 있어서 가로림만을 통해 작은 배가 드나든다. (그림 1 참조)

양길리 한 가운데에 비포장 도로가 지나는데, 이 도로를 중심으로 길가에 民家들이 띄엄띄엄 자리잡고 있다. 양길리 남쪽의 풍륜산에서 두 줄기의 내(川)가 흐르는데 마을 한가운데를 지나 方吉浦로 들어가는 陽吉川이 있다. 이 마을은 산을 등지고 논 · 밭이 있는 들판을 안고 바다와 접해 있는데 총면적은 334.6ha이다.

(2) 歷史的 環境

팔봉면 古波島(일명 古波知島)에는 고려 때에 波知島營이 있어서 水軍萬戶를 두어 이 지역을 지키게 했다. 또 고려 말에는 팔봉면 진장리에 蓴城鎮城을 쌓아 왜구로부터 泰安지역을 지키게 했다. 조선조 태종 때에는 고파도에 있던 파지도영을 旧島로 옮겼고,

그 후 청청·전라·경상 三南의 稅穀을 보관하기 위해 지금의 어송리에 水豊倉을 두고, 이 창고를 지키기 위해 종종 11년에 虎里山城을 쌓았다. 그리고 숙종 때에 수군만호를 다시 고파도에 두었다. 조선 말기인 1860년대의 대원군 천주교 탄압 때에는 천주교 신자들이 팔봉면으로 숨어와 은거하던 중에 프랑스 신부가 금학리에서 선교 활동을 한 적도 있다.

조선조에는 이 지역이 水豊倉面과 文峴面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때에 두 면이 합쳐 八峰山의 이름을 딴 八峰面으로 바뀌게 되었다.

양길리에는 淳興安氏가 310여년간 代를 이어오고 있다.

2. 민 속

(1) 社會傳承

1) 마을의 구조

① 人口

양길리 2구는 총82호에 인구 420명인데, 이중 남자가 214명, 여자가 206이다. 이곳의 인구 현황은 <표1>과 같다.

표 1. 연령별 인구분포

나이별 남녀별	0~4	5~9	10~14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남 자	8	21	26	33	19	18	5	16	17
여 자	10	18	33	27	9	6	12	20	6
45~49	50~54	55~59	60~64	65~69	70~74	75~79	80이상	계	
12	10	8	7	5	6	3	.	214	
14	14	5	9	7	3	7	6	206	

이 <표1>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다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20세를 분기점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다. 즉 15~19세가 60명인데, 20~24세는 28명으로 줄어든다. 28~29세가 더욱 줄어 24명이 되고 30~34에 이르면 17명으로 최저 수준이 된다. 이것은 15~19세를 100%로 잡았을 때, 20~24세가 47%, 25~29세가 40%, 30~34가 28%가 된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移農으로 마을을 떠나는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15~19세를 정점으로 그 이하 나이의 인구가 오히려 감소되는 것이다. 즉 15~19세가 60명, 10~14세가 59명으로 비슷한데, 5~9세는 39명, 4세 미만이 18명으로 줄어든다. 이것은 가족계획이 근년에 들어 점차 뿌리를 내려 산아제한을 하고 있는 현상으로 보인다.

셋째는 60세 이후가 되면 남자의 수보다 여자의 수가 더 많아진다는 점이다. 즉, 60세 이후의 10개의 경우 중 1개를 제외하고는 9개의 경우에 여자수가 남자수보다 많은 것이다. 이는 여자가 장수한다는 일반적인 경향을 보여준다.

1980년 이후의 가구수의 변동상황을 양 근모 이장에게 설문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 가구수의 변동상황

연 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가구수의 증 감	85(-2)	85	83(-2)	83 ⁻³ / ₊₃	86(+3)	86 ⁻² / ₊₂	82(-4)
변 동	서울로		서울로	상 경 (3가구)	채석장으로	강 경 (2가구)	임시전입자 퇴거(3가구)
사 유	이 사		이 사	전 입 (3가구)	임시 전입	전 입 (2가구)	상경(1가구)

위 표에서 보듯이, 집안전체가 마을을 떠난 숫자가 7년 동안에 10가구가 된다. 그리고 모두가 서울로 간다. 20대의 청소년들도 거의 서울, 인천으로 간다.

오히려 이 마을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1983년에 3가구, 1985년에 2가구가 있다.

고향을 떠났다가 결혼해서 들어온 경우가 4가구, 이웃마을에서 이사온 경우가 1가구이다.

② 行政組織

양길리 2구의 행정조직으로는 이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가 있다. 이장은 제보자인 양근모(40세)씨이다. 이장은 산림계 간사의 일도 겸하고 있다. 현재 새마을 지도자는 39세이며, 부녀회장도 39세이다. 이 마을에는 새마을 청소년회가 아직 조직되지 않았다.

③ 生活 조직

노동조직으로 두레나 품앗이는 이제는 없다. 모내기 등을 할 때는 품삯을 주고 일꾼을 쓴다. 하루에 두끼 식사와 실참(새참)을 대접하는 경우에는 ‘먹매’라 하여 일당 6,000원을 준다. 식사없이 실참만 대접하는 경우에는 ‘상백이’라고 하여 일당 7,000원을 준다.

풍장놀이는 10여년 전까지 남아 있어 부락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했으나, 지금은 거의 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도 정월 대보름에는 일년에 한번 풍장을 치고 논다.

④ 階層조직

양길리 2구에는 노인들이 조직되어 있다. 노인당이 있어서 아침식사가 끝나면 10시 이후로 모이기 시작한다.

양길리에서는 광복 전후까지도 양반 상놈을 찾았다. 전주이씨가 특히 양반행세를 했는데, 광복이후 없어지기 시작해서 6·25때 거의 없어졌다. 반상을 가릴때는 일단 본관과 성을 따지고 다음으로는 생활 형편을 따졌다. 예를 들면, 같은 씨족이라도 가난하여 남의 집 머슴을 살거나 하면 상놈으로 쳤다. 결혼할 때 특히 이것을 따져서, 며느리는 좀 낮은 집에서도 데려왔지만, 시집을 보낼 때는 어슴버스한(맞먹는) 집으로 보냈다. 지금 40대 아주머니들까지만 해도 시집을 때 반상 따지는 것을 많이 겪었다고 한다.

2) 家族・친족의 構造

① 家族構造

양길리 2구의 가구당 평균 가족수는 5.1명이다.

가족의 형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지를 통해 이장에게 조사하였다. 다음의 <표 3>과 <표 4>가 그것이다.

이 표에 나타나듯이, 이 마을 가족 형태의 특징인 3세대형이 기본 형태라는 것이다.

표 3. 가족의 크기

가족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이상	계
가구수	2	5	6	11	20	23	13	1	1	·	82

표 4. 가족의 형태

가족형태	독 신	부부2인	부부+자녀 (2대)	3대동거	4대동거	합 계
가 구 수	2	5	34	40	1	82

이 마을의 결혼 풍속은 40대까지는 대부분 중매였다. 그런데, 지금의 30대에서부터 연애 결혼이 시작되더니, 지금의 20대는 오히려 대부분이 연애 결혼을 한다.

제보자 양근모 이장에 따르면, 이 마을의 통혼권은 점차 확대되었다고 한다. 지금의 60대는 주로 본면이나 태안읍이 통혼권이였다. 그런데 50대는 거기에다 지곡면, 부석면, 남면 등지가 추가되었고, 40대는 거기에 대산면 등지까지 추가, 확대되었다. 30대 이하의 남자들은 태안읍, 서산읍, 남면, 당진군, 예산군, 서울 등지로 많이 장가간다. 여자들은 더욱 도회지를 찾아서 서울, 인천, 경기도, 서산읍 등지로 많이 시집간다.

재산 상속과 제사 지내는 것은 거의 예외없이 장남이 맡는다.

살림권은 대개 적당할 때 며느리에게 물려주는데, 며느리가 학부모가 된 뒤가 된다.

② 親族 構造

양길리에는 뱡길리(方吉里) 安氏가 조선시대 때부터 병조판서를 했던 안국인(安國仁)이래 11대째 310여년간 집성촌을 이루며 살아오고 있다. 이 안씨는 본래 순흥

안씨인데, 방길리(양길리의 옛 이름)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니까 위와 같이 불리우게 되었다. 이들은 매월 1월 1일 모여서 종회를 갖는다. 또한, 문중계는 하지 않지만 일이 있을 때마다 임시회를 열어 특별 회비를 거두어 일을 해나간다. 음력 10월에는 시제를 지낸다.

3) 文化와 教育

① 交通・通信

양길리를 지나가는 도로는 아직 비포장 도로이다. 버스는 1971년에 완행 버스가 들어왔는데, 지금은 1일 12회 운행되고 있다. 아직 직행버스는 들어 오지 않았다. 이렇게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곳 주민들의 소원은 도로 포장인 돼서 직행 버스가 다니는 것이다.

마을 안에는 교통수단으로 자전거가 5대, 오토바이가 8대 있다.

전화는 1976년 들어왔는데, 현재 가입 댓수는 47대이다. 방식은 자석식으로 어송리에 교환소가 있다. 87년 6월 이전에 자동화가 될 예정이다.

② 文化施設

전기는 1973년에 들어왔다. 86년 현재 양길리 안에 있는 문화시설 현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5. 문화시설 현황

가구수	앰 프	T.V	라 디 오	신 문	냉 장 고	세 탁 기	전 축
82	1공용	83 칼라 39	82	22	39	3	5

의료기관으로는 어송리에 보건진료소가 있다. 그러나 대개 서산읍의 병원으로 간다. 간이 상수도 시설을 마을에서 공동으로 잘 해 놓아서 생활에 편리하다.

③ 教育・宗教

양길리에는 1927년에 개교한 팔봉국민학교가 있다. 학교당 3학급으로 전체 18학급에 전교생은 760여명이다. 1학급당 학생수는 40~43명이다.

중학교는 진장리에 있는 팔봉중학교로 통학한다. 1969년 개교하였는데, 남녀 공학이다. 중학교 진학율은 100%이다.

고등학교는 남학생은 서령고, 서산고, 서산농고와 가끔은 대전, 천안, 인천, 부천 등지에도 보낸다. 여학생은 서산여고, 태안여상 및 경기, 인천 등지의 산업체 학교 같은 곳에 보낸다. 산업체 학교에 가는 경우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직장 다니며 공부하는 것인데, 전체 여학생의 1/3정도가 된다. 고등학교 진학율은 90%이상이 된다.

학생이 대학에 들어갈 실력만 있으면 논밭을 팔아서라도 대학을 보낸다. 현재 대학생은 12명인데 대학진학율은 10%쯤 된다. 현재 대학원생도 1명 있다.

양길리에는 감리교회가 하나 있는데, 20여가구에 40여명이 다닌다. 주로, 아주머니와 학생들이 신도이다. 불교 신도는 30여가구에 40여명이 된다. 팔봉산 밑에 있는 봉흥사나 예산 수덕사에 다닌다. 천주교 신자는 1가구에 5명이 있다. 유교를 신봉하는 사람은 2가구에 2명이 있다.

현재 밑에는 서낭당이 10여년 전까지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서낭제를 지냈다. 그런데 농로 확장 때 서낭나무인 느티나무가 파헤쳐진 뒤에는 저절로 그런 풍습이 없어졌다.

4) 經濟 活動

① 生産 활동

양길리 2구 82가구를 직업별로 보면 농가가 73호, 교사가 2호, 광산 임시 직업이 2호, 방앗간이 1호, 상업이 1호, 비농가가 3호이다.

농사의 경지면적은 전체 344.6ha에서 논 39.3ha, 밭 35.3ha로 74.6ha이다. 그리고, 임야가 220ha, 기타가 50ha이다.

농가 1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1.0ha이다.

농기계 보유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농기계 보유 현황

농기계	이앙기	동력 경운기	동력 부운기	분무기	살분무기	동력 탈곡기	탈곡기	콤바인	바인더	트랙터	손수레
대 수	5	42	27	29	5	16	16	·	2	·	29

양길리는 논외 수리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 저수지가 없으니 100% 천수답이다. 그래서 산밑내나 장벌넛갈에서 양수기로 물을 끌어들여 쓰거나, 샘을 파서 물을 댈다. 이런 관계로 논이 좋지 않다. 농가 1가구당 벼농사를 보통 8마지기 짓는데, 1마지기에서 잘 돼야 3퇘 나온다. 쌀 24가마를 1가마당 6만 7천원에 계산하면 약 160만원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는 경비가 많이 든다. 1마지기당 이앙기로 모를 심어주는 데에 6,000원이며, 논갈이는 3,000원, 벼베기는 10,000원이다. 그밖의 일을 하는 데도 일정한 면적을 아주 맡기는 고지(도급)나 먹매나 상맥이로 사람을 써야 한다. 이런 때에 인건비가 들어간다. 만약에 집안 식구들끼리만 하는 농사 즉, 존락질로만 하고 인건비를 안쓰더라도 1년에 농사 경비가 20만원 이상 든다.

생강 농사는 전체 농가의 8할 정도가 참여하는데, 가구당 평균 경지면적은 1,000평이다. 이면적에서 20작 정도 나오는데, 1작당 6만원~6만 5천원하니, 전체 수입은 120~130만원쯤 된다.

마늘 농사는 농가의 6, 7할 정도가 참여하는데, 가구당 평균 500여평쯤 한다.

양배추는 85년에 1가구가 하였는데, 수지가 맞지 않아서 86년에는 3, 4가구로 줄었다.

담배는 85년에 15가구가 하였는데, 86년에는 2가구로 늘었다. 그러나 수지가 안 맞는 편이다.

이와 같은 농사 소득을 총합계하면 300여만원 정도된다. 그러나, 이 정도는 中農 이상이니, 경지 면적이 적거나 아주 없는 사람들은 품을 팔게 된다. 이들은 15~20명이 이른다.

② 消費활동

농가의 소득으로는 먹고 생활할 형편 밖에는 안된다. 그런데, 대개 자녀들을 고등학교까지 보내므로 이 학비가 농가 부채의 큰 원인이 된다. 또한 영농 자금도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부채가 되고 만다. 그래서, 현재 농가 부채가 호당 300~400만원씩 된다. 이러다 보니까 새해 영농 자금을 받으면 일단 그 전에 밀린 빚부터 갚은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즉, 빚으로 빚을 갚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농민들은 근본적으로 농가 소득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지 않으면 빚을 도저히 갚을 길이 없다고 말한다.

생활 필수품 같은 것은 서산읍에 가서 구입하는 것이 보통이다.

조사일자: 1986년 12월 29일

제 보 자: 양근모(남, 40세, 상업·이장, 중졸)

본 적: 충남 서산군 팔봉면 양길리

주 소: 양길리 2구 680번지

5) 生活傳承

① 生業

팔봉면 양길리는 논농사와 밭농사를 주요생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농촌이다. 논농사는 수도작이며, 밭농사는 과거에는 보리농사를 지었는데 지금은 생강이나 마늘 등 특수작물을 지배하여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다. 팔봉면 양길리 2구 147번지에 사는 이문재씨의 농가를 중심으로 양길리의 생업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문재씨는 22년 동안 팔봉면 양길리에서 살아온 농부이다. 현재 이문재씨가 소유하고 있는 농토는 田地가 천 오백여평이며, 畓地가 천 사백여평이다. 밭에는 주로 생강, 마늘, 고추, 참깨 등을 지배한다. 가축으로는 한우가 3마리, 개가 1마리 있다. 이문재씨는 그의 父母와 부인, 그리고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4학년에 다니는 아들 3형제를 합하여 모두 입급식구의 생계를 꾸려가는 가장이다.

이문재씨가 밭에 생강을 재배한 지는 10여년 전인데, 과거에는 밭에다 보리와 콩을 심었지만은 수익성이 없던 차에 보리나 콩보다 소득이 좋은 마늘과 생강이 마을에서 재배되어 결실이 있자 이씨도 밭에다 마늘과 생강을 심게 되었다.

생강은 올해 밭에다 1,000여평 정도를 심었다. 대개 생강은 4월말쯤에 밭에다 심는데

종자 생강은 저장하는 땅굴에서 꺼내온다. 생강종자는 생강의 눈을 자르면 되는데 이것을 발이랑에다 하나씩 간격을 두어 심는다. 그리고 배토를 해준다. 생강을 심어두면 여러 가지 일손이 드는데 예를 들면 발이랑 돌우기와 11번~12번 정도하는 제초작업이 있다. 발매기를 할 때는 온 집안 식구들이 협동한다. 만약에 그래도 일손이 모자라면 품을 산다. 생강수확은 10월 20일 경부터 시작되는데 생강수확이 끝나면 마늘을 심게 된다. 생강을 수확하면 저장을 하는데 생강의 저장은 다른 농작물의 저장에 비해 땅굴을 파서 저장하므로 특이하다고 볼 수 있다. 우선에 땅굴을 팔 장소를 물색하는데 산비탈 등지가 적격이다. 왜냐하면 깊이 땅을 파더라도 水脈이 없기 때문이다. 땅굴을 팔 장소가 결정되면 사람을 사서 땅을 파는데 먼저 아래로 5m 정도 파 내려간다. 직경은 약 1m 이상으로 하여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게 한다. 약 5m 정도 파내려 가면 다시 옆으로 몇 갈래의 굴을 파들어 간다(아래의 그림을 참조하기 바람). 생강을 땅굴에 저장하게 되면 겨우내 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습도도 알맞게 조절되어 썩지도 않는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한 후 봄이 되면 농협이나 시중에 판매를 하게 된다.

이문재씨의 올 생강수입은 1,000여평에 124만 5천원 정도인데 예년에 1,000여평 정도 생강을 심어서 3~4백만원의 수입을 올린것에 비하면 형편없는 수입인 셈이다.(그림2 참조) 왜냐하면 올 생강가격은 마늘값과 함께 엄청나게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예년에 3~4백만원의 수익을 올리더라도 다른 농작물에 비해 생강 재배에 드는 농비가 비싼 편이기 때문에 많이 남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농작물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기 때문에 소득면에서는 낮다. 생강농사에서 총 3~4백만원의 수익을 올리면 농비 2백만원을 제하면 1백50만원~2백만원 정도의 순이익을 올릴수 있었다. 올해의 생강농사는 비료값, 품값, 농약비 등을 제하면 오히려 손해를 본 셈이다.

생강을 농협에 내다 팔기도 하고 중간상인들에게 팔기도 한다. 또 작년에는 중간상인들이 마을에 들어와서 생산되기 전에 발전체를 사가기도 했다. 농민들에게 제일 좋은 판로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지만 여기서 서울까지 왕복 수송비와 숙식비 등이 과다하게 지출되어 좀처럼 갖다오기 어렵다.

벼농사는 1년에 잘해야 논 천 사백평에 15가마~20가마의 백미를 생산할 수 있다. 이러한 산출량으로는 소득을 기대할 수 없고 집에서 1년 내내 소비하면 알맞은 양이다.

이문재씨의 경우는 순전히 밭농사로 소득을 올린다고 볼 수 있다.

소는 8월에 사들여 왔는데, 소값이 쌀 때 샀는데도 사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잘 자라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된다. 그리고 대부받아서 산 소이기 때문에 별로 이익을 보지 못한다.

일년에 마늘과 생강 등 발작물로부터 올린 소득이 약 500만원 정도인데 여기서 농비로 지출되는 것이 가장 많다. 농비 중에 비료대금이 가장 많이 나가며 퇴비를 사들이고, 농약대금을 치르고 비닐하우스를 덮는다든지 하는데 필요한 짚값, 그리고 밭을 매거나 수확을 할 때 사람을 사는 데 필요한 품값으로 많이 지출된다. 아직 아이들이 국민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교육비의 부담은 느껴보지 못하였으나 아무래도 아이들이 점점 자라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교육비의 부담감이 커질 것 같아서 농사를 지은 한 해 수입으로는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밭에다 여러 가지 수익성이 좋은 특수작물을 재배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생각 중이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담배재배도 하였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담배재배는 일손이 너무 많이 들고 생강소득이 더 나아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담배재배는 까다로운 재배방식도 있고, 일기(기후)나 토질이 담배성장과 맞아야 수확도 많기 때문이다.

② 衣·食·住

다음은 팔봉면 양길리 2구 859번지인 李起千(74)씨와 그의 아들 李康山(48)씨 네의 가옥구조이다.

본채는 8칸 넓이의 ‘一’자형이며, 아랫채는 7칸의 ‘一’자형으로 이루어진 기와 지붕집이다. 이 집에서 4대째 산다.

이 집은 동향의 집이며 돌담을 두르고 있고 쪽문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변소에 가는 문이며 또 하나는 창고로 드나드는 문이다.

대문의 오른쪽 본채 마루에 있는 뒤지는 토담으로 지어서 토뒤지라고 하며 탈곡한 벼를 집어 넣는 곳이다.(그림3 참조)

부엌에는 여늬 집과 마찬가지로 부뚜막 위에 무쇠솥 두 개와 양은솥 한 개가 걸려 있고, 그 위로는 안방의 다락 뒷편이 돌출되어 있으며, 가스레인지도 따로이 있다.

사랑 부엌에는 부뚜막 위에 큰 무쇠솥 두 개가 놓여 있으며 소여물을 쑤는다고 한다.

사랑안방에는 祭器들과 광주리·소쿠리 등이 들어 있으며, 이 방 앞의 마루에는 먹을 쌀이 넣어진 나무뒤지가 있다.

사랑웃방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는 무쇠술이 하나 부뚜막에 걸려 있다. 이 술에다가도 소의 여물을 쓴다. 여기는 연탄아궁이이다.

③ 交易과 經濟 및 交通·通信

생강을 저장하기 위해서 땅굴을 팔때나 버를 탈곡할 때, 농작물을 수확할 때, 모 내기를 할 때에는 품앗이를 한다. 품앗이는 서로 1:1로 노동력을 교환하는 것인데 하루를 단위로 한다. 만약에 다른 집에서 자기 집에 품앗이를 했는데 품앗이를 약속한 날에 그 집에 품앗이를 갈 수 없으면 일당을 주고 다른 사람을 사서 보낸다. 일당은 남자면 6천원이고, 여자면 5천원이다. 품앗이를 하면 품앗이를 제공받는 집에서는 아침과 점심 사이의 실참과 점심, 점심과 저녁 사이의 실참, 그리고 저녁을 제공한다. 실참은 간단한 요깃거리를 준비하는데 주로 술이나, 고구마 등을 삶아오고 점심과 저녁은 품앗이를 제공받는 집에서 최대한으로 성의로 준비를 하게 된다. 그리고 담배도 한 갑씩 준다.

또 모자라는 노동력을 충당하고 일의 능률을 올려 하루라도 빨리 일을 끝내기 위하여 ‘고지’라는 것이 있다. 고지는 개인이 하는 고지와 집단으로 하는 고지가 있다. 개인이 하는 고지는 하루 일당을 보통 일당의 두배인 1만2천원을 지불하는데 주인과 일배당량을 미리 정한다. 일반적으로는 논 1마기기의 모내기가 하루 일거리의 기준이 된다. 집단으로 하는 고지는 논이나 밭에 열 사람이 일하는 것이 보통이라면 다섯 사람의 고짓꾼을 사서 개인에게 평균 일당의 두 배를 지불하는 것이다. 일거리가 정해지면 하루에 그 일을 다 마쳐야만 한다. 고짓꾼은 정해진 일거리를 하루에 마치기 위하여 새벽 6시부터 나와서 일을 시작한다. 원칙적으로 주인집에서는 고짓꾼에게 실참이나 끼니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나 요즘들어 품을 구하기가 어렵고 먹고 살기도 괜찮아졌기 때문에 고짓꾼들에게 최소한의 대접은 한다.

양길리에는 계의 종류로 쌀계, 상포계, 친목계, 상포계 등이 있다.

①살 계: 마을에 몇 개의 쌀계가 있지만 제보자는 계원이 아니므로 자세한 것은

모른다. 쌀계는 논농사를 어느 정도 해야만이 들 수 있는 계라고 생각한다.

② 상포계 : 양길리의 상포계는 마을 주민이 모두 계원이다. 물론 한 가정의 가장이 계원이다. 마을에서 상이 나면 계원(주민)은 쌀 한 되와 수수 한되를 가지고 간다. 마을 전체가 계원이 아닌 쌀 한 말짜리나 두 말짜리의 상포계도 조직되어 있는데 보통 11명의 계원으로 구성한다. 이 계는 상이 났을 때만 태워주는 계이다.

그밖에 동갑끼리나 동창끼리 하는 친목계와 집안끼리 하는 종친계가 있다.

※ 이 자료는 서산군 팔봉면 양길리 2구 147번지에 살고 있는李文載(남, 39세)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문재씨는 64세와 61세의 부모님을 모시며 농어를 주업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영세농이지만 앞으로 자랄 3형제의 자녀들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농사에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이문재씨와의 대담은 1986년 12월 29일에 있었다.

④ 民具

1. 학절구

옛날에는 인절미를 만드는 찰쌀밥을 쳐서 떡을 만들거나, 보리를 찧어 먹던 돌절구이다. 요즘은 풋고추나 마늘·생강 등을 찧어서 김치를 담그는 데에 쓰인다.

학절구 입의 지름은 70cm, 위의 둘레는 227cm, 아랫둘레는 167cm, 높이는 46cm이다.

2. 메갱이

학절구에다 보리를 찧던, 돌로 된 절굿공이다. 지금은 쓰지 않아서 자루마저도 빠진 채로 있다.

3. 나무절구통

쓰임새는 학절구와 같으나 절구통은 통소나무를 파서 만들었다.

나무절구통에서 절구질을 하는 데에는 참나무로 만든 절굿공이인 절굿대가 있어야 쪼게 되며, 절구질 때 절구통 속에서 가장자리로 나오는 것을 저어서 가운데로 넣어주는—소나무로 만든 꺾음배도·쓰인다.

4. 모 말

쌀을 비롯한 곡식을 되는 데에 쓰이던 측량도구이다.

요즈음 쓰이는 원통형의 것이 아니라 사모의 형태를 지닌 말이다.

이 모말에는 한말이 드는데 이것은 옛날에 나라에서 고사하여 써온 단위의 말로서 열 말이 한 가마가 된다. 지금의 말과는 양이 다르다.

모말의 재료는 소나무이며, 지금은 쓰이지 않는다.

5. 땃 돌

쌀·보리·수수·밀·콩·팥 등의 곡식을 가는 도구이다.

땃돌을 위 아래의 둥근 돌 두개가 한 짝을 이루고 있으며, 아랫돌의 한복판에 땃돌 중쇠가 박혀 있다. 이것을 솥쇠라고 하는데, 윗돌의 아랫쪽 한복판 에는 솥쇠를 박는 암쇠가 있어서 이것을 주축으로 잇돌이 돌아가면서 곡식이 갈리게 된다. (형태와 크기는 서산읍 덕지천리의 의·식·주 중에서 ㄴ, 식생활 11. 땃돌을 참조할 것)

땃돌의 돌은 제주도에서 나는 고석돌 이다.

6. 매 판

땃돌질을 할때, 밑바닥에 까는 둥근 방석이다.

짚을 엮어서 만들었다.

7. 땃돌받침대

두부콩을 땃돌에다 갈 때, 큰 그릇위에 올려놓고 땃돌을 받쳐 주는 첩다리이다. 이것은 그외에는 체를 올려놓고 떡가루를 치고, 술도 거르고 기름도 받아내며, 두부도 짜고, 콩나물 시루를 엮고서 물을 주는 일 등에도 쓰인다.

소나무를 깎아서 'Y'자꼴로 만들었다.

8. 돛자리

왕골을 엮어서 만든 정방형의 자리이다.

여름에 마당에 깔아 놓고 밥을 먹거나, 앉아서 놀거나, 잠을 자거나 하며, 제사때 젓상앞에 까는 데에도 쓰인다.

9. 멍 석

곡식이나 고추 등을 널어 놓고 말리는 데에 쓰인다.

짚으로 새끼 날을 짜서 엮은 큰 자리이다.

10. 쟁 기

논과 밭을 가는 도구이다.

쟁기의 몸인 술이 나무로 되어 있는 나무쟁기와 술이 쇠로 된 쇠쟁기도 있다.

이것들은 시장에서 사온다.

11. 쓰 레(「써레」)

쟁기로 갈아놓은 논밭의 바닥을 고르는 데에 쓰인다.

여덟개의 쓰렛발이 흙바닥을 고른다.

12. 소시랑(「쇠스랑」)

밭을 고르는 데에 쓰이는 연장이다/

네 개의 쇠발에 나무자루를 낀 갈퀴 모양의 도구이다.

13. 켕 이(「괭이」)

밭고랑이나 땅을 팔 때 쓰이는 연장이다. 종자를 들일 때에도 쓰인다.

괭잇날의 쇠끝이 ‘ㄱ’자형을 이루고 있다.

14. 굽괭이(「굽괭이」)

밭골의 풀을 굽어 내는, 풀쭈는 괭이이다.

괭잇날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다.

15. 열개미

보리밭 이랑의 풀을 매고, 싹이 돌아난 보리밭 두둑의 흙을 떠서 밭골의 보리에 뿌리어 덮어주는 도구이다.

열개미는 철사바구니의 형태를 하고 있어서 여기에다 흙을 뜨면 철망사이로 흙이 걸러진다.

16. 대갈퀴

산에서 나무할 때 나뭇가지나 낙엽을 긁어 모으거나, 지저분한 것을 긁어 모으는 데에 쓰인다.

긴 대나무자루 끝에 열 개의 갈퀴발이 부챗살처럼 퍼져 있는데, 갈퀴발은 갈고랑이져 있다.

17. 쇠갈퀴

이것은 대갈퀴와 용도는 같으나, 갈퀴발이 대나무 대신에 철사로 되어 있다.

18. 삽

땅을 파고 흙을 떠내는 데에 쓰인다. 삽날이 뾰족한 보통이 평삽이다.

19. 낫

낮은 육절낫과 왜낫이 있다.

육절낫은 ‘ㄱ’자형의 날이 달렸으며 산에서 너무할 때 사용하고, 왜낫은 낫날이 ‘一’자꼴로 되어 있는, 벼·보리나 풀을 벨 때 쓰는 낫이다. 육절낫이 왜낫보다 무겁다.

20. 호미

논·밭의 김을 매는 데에나, 감자를 캐 때 쓰인다.

호미날이 평평한 삼각형의 것과 역삼각형으로 되어서 길고 뾰족한 것의 두가지 형태가 있다.

21. 새끼꼬는 기계

그전에는 새끼를 직접 손으로 꼬았으나, 이제는 기계를 이용해서 끈다.

22. 파람개비(「파람개비」)

나락을 날려서 잡물을 없애고 알곡을 고르는 데에 쓰인다.

툽니바퀴가 열결된 손잡이를 돌리면 네 개 달린 날개가 돌아서 바람을 낸다.

요즘은 동력탈곡기로 탈곡을 하기 때문에 파람개비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23. 치(「키」)

쌀을 까부르는 데에 쓰인다.

버들로 짠 것인데 앞은 평평하게 벌어져 있고 뒤로 갈수록 오목하게 파인 형태이다. 요즘은, 쌀은 정미소에서 쪼개 오기 때문에 치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

24. 도리채(「도리깨」)

곡식의 알맹이를 두드려서 터는 타작도구이다.

도리채채, 도리채꼭지, 도리채회초리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것도 요즘에는 별로 쓰이지 않는다.

25. 구수(「구유」)

외양간의 앞에 놓여져 있는 소의 여물을 담아주는 밥통이다.

통 소나무의 옆을 우묵하게 파서 만들었다.

26. 쇠물박(「여물바가지」)

소의 여물을 여물술에서 퍼 구수에 담아주는 바가지이다.

27. 지게·바지게

지게는 짐을 얹어 등에 지고 나르는 운반 용구이다.

요즘은 경운기가 있어서 지게를 별로 사용하지 않고, 산에서 나무해 올 때에 쓰이는 정도이다.

지게는 지게꼬리줄, 지게다리, 지게가지, 지게막대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바지게는 싸리나뭇가리를 엮어서 짐지 못하도록 만든 발채이다. 이것을 지게 위에 얹으면 더 많은 짐을 지어 나를 수 있다.

28. 사다리

높은 곳에 올라갈 때, 디디고 올라갈 수 있도록 소나무로 만든 도구이다.

29. 고무래

곡식을 말리기 위해 명석 위에다 헤쳐퍼고 긁어 모으는 데 쓰인다.

작은 송판에 소나무자루를 달아서 ‘T’자꼴로 만들었다.

30. 채

떡가루를 치고, 술을 걸르고,醬물을 걸르고, 기름을 발이는 데에 쓰인다.

위, 아래가 통하는 대나무통이 아랫부분을 철사그물로 막았는데, 그물눈의 크기에 따라서 쓰임새가 달라진다.

31. 열맹이

채와 똑같은 형태인데, 그물눈이 채보다는 더욱 성기다.

깨의 탐새기를 거르거나, 채를 쓰지 않아도 되는 낱알을 고를 때에 사용한다.

32. 삼발이

거름을 뒤집거나 퇴비를 퍼는 데에 쓰이는 도구이다.

자루 끝에 쇠발이 네 개 달려 있으며, 양식기인 포오크와 똑같은 형태이다.

33. 손쓰레

소동 말린 것을 거두는 연장이다. 쇠갈퀴이다.

34. 열두발소사랑

발을 팔라서 꾸미는 데에 쓰이는 쇠스랑이다.

발이 열두 개이므로 열두 발 소시랑이라고 한다.

35. 거름통

거름을 담아 나르는 통이다.

플라스틱제의 양동이를 쓰고 있다.

36. 솥돌·솥돌받침

칼이나 낫을 갈아서 날을 세우는 돌이 솥돌이며, 솥돌을 받쳐 고정시키어서 갈기에 편하도록 나무로 만든 것이 솥돌받침이다.

37. 거름지게

양쪽 끝에 있는 고리에 거름통을 달아서 지어 나르는 지게이다.

그전에 쓰던 무지게(물지게)를 지금은 거름지게로 쓰고 있다.

38. 거름바가지

기름을 퍼내는 데 쓰이는 바가지이다.

39. 앵병판(「안변」)

정월 명일 때에 먹는 흰떡 쌀을 올려 놓고 치는 떡판이다.

단단한 참나무로 된 나무판이다.

40. 삼태기(「안변」)

부엌의 재나 외양간의 소똥, 돼지우리의 돼지똥 등을 담아 나르는 데에 쓰인다.

짚을 엮어서 만들었다.

41. 꾸

옛날에 뿔을 따담아서 다니는 데 쓰이던 바구니이다.

짚으로 새끼꼬아서 만들었다.

지금은 파종(파종용 파)을 담아 두었다.

42. 바구리(「바구니」)

물건을 담아 두는 대나무 바구니이다.

전에는 대오리로 직접 만들어서 썼으나 지금은 서산場에 가서 사온다.

43. 생강소쿠리

생강을 캐어서 담아 나르는 데에 쓰이는 도구이다.

대나무를 절어서 만든 것이다.

44. 발타작기

이삭에서 낱알을 털어내는 틀이다.

발판을 밟으면 틀이 돌면서 철사에 이삭이 닿아 낱알이 훑어진다.

서산場에서 사 온 것이다.

45. 바소쿠리

감자·마늘 등을 캐어서 담아 나르는 소쿠리이다.

싸리나무로 테를 둥글게 절어서 만들었다.

46. 두 명

옛날에 샘물·우물물을 길어다 붓고 쓰던 크고 배가 부른 항아리이다.

지금은 집집마다 수도가 있으므로 물 항아리로는 쓰이지 않고 비어 있다.

47. 항아리

김치를 담가서 넣은 오지그릇이다.

아래 위가 좁고 배가 바랭이보다 작다. 부엌에 놓여 있다.

48. 독

새우젓이 들어 있는 큰 질그릇이다.

운두가 높고 중배가 약간 부르다. 부엌 안에 놓여 있다.

49. 조 리

쌀을 일거나 국수 삶은 것을 건져 낼 때 쓰인다.

대오리를 절어서 만들었다.

50. 작 두

소에게 먹일 풀이나 짚을 썬 데에 쓰인다. 손으로 썬 손작두와 발로 썬 발작두의 두 가지가 있다.

나무토막의 바탕 위에다 아랫쪽의 작두날을 고정시켜 놓고, 아랫쪽의 작두날에 날끝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윗날의 손잡이를 내려 눌러서 짚을 썰 수 있는 것이 손작두이다. 발작두는 작두날의 손잡이에 해당하는 부분에 디딜판이 달려 있는데,

디딜판 앞에는 고리에 줄이 달려 있어서 사용하는 사람이 선 채로 줄을 잡아 작두의 윗날을 들어 올리고 한 발로 디딜판을 내려 밟아서 작두질을 한다.

손작두는 혼자서 쓰지만 발작두는 혼자서 사용하지 못한다. 두 사람이 한組가 되어야 쓸 수 있는 발작두 보다는 손작두가 많이 쓰이고 있다.

51. 창

마늘을 켤 때에 쓰인다.

나무 자루 끝에 날이 선 뾰족한 창 모양의 쇠가 달렸다.

52. 생강틀 자세

땅굴 속에다 생강을 저장하는 데, 생강을 넣고 꺼내는 데 쓰인다.

땅굴 위에다 두 나무 다리를 세우고 자세를 걸쳐 놓고, 자세에 줄을 감아 들어 올리고 내리는, 도르래의 역할을 하는 바퀴이다.

53. 부고걸이

집밖의 대문 왼쪽에 달아 놓은 새끼줄이다.

새끼를 외로 꼬아서 걸어 놓았는데, 訃告는 좋은 것이 아니니까 집안으로 들여 놓지 않는다.

54. 벧 솔

삼베를 짤 때 삼실에 풀바르는 데에 쓰이던 솔인데, 지금은 절구를 털어주는 솔로 바뀌었다.

이것 말고도 베틀의 부분도구들이 여기저기 구석에 처박혀 있다.

55. 제 기

제기는 제기접시, 제주잔, 잔대, 향로·향로대, 편틀 등이 있다.

제기접시는 굽이 꽤 높은 제사음식 그릇이며, 목기이다. 제주잔과 잔대도 모두 목기이다. 향로는 청동의 것이며, 향로대는 목기로 되어 있다. 떡을 피어 놓는 편틀은 소나무제품이다.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9일

제 보 자 : 李康山(이강산, 팔봉면 양길리 2구 859번지), 48세

② 이문재(팔봉면 양길리 2구 147번지)

6) 八峰面 陽吉里의 歲時風俗

조사일자 : 1986년 12. 29

제 보 자 : 李起駿(남, 78세, 한문수학)

본 적 : 忠南 瑞山郡 八峰面 陽吉里

주 소 : 충남 서산군 팔용면 양길리 2구 854

제 보 자 : 安相喜(여, 64세, 이기준씨 부인)

주 소 : 위와 같음

제 보 자 : 안상오(여, 61세, 안상희씨 동생, 자매가 한 마을에 살고 있다.)

주 소 : 충남 서산군 팔봉면 양길리 2구

제 보 자 : 金海東(남, 72세, 국중퇴, 한문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팔봉면 양길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팔봉면 양길리 2구 881

참고사항 : 양길리의 세시풍속 자료는 안상모씨 댁에서 주로 이기준·안상희씨 부로부터 조사하였다. 이들 부부는 안상오씨댁에 일을 보러왔다가 조사자와 우연히 만나게 되어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李씨는 이 마을에서 3대째(李씨 기준) 살고있어 세시행사 내용을 비교적 많이 기억하고 있었다. 행사 하나하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안상희씨의 제보가 큰 도움이 되었다. 조사 도중 뒤늦게 만난 김해동씨로부터 미비한 점을 보충 조사하였다. 金씨는 10대째(金씨 기준) 이 마을에 살고 있어 역시 세시 행사에 대하여 많은 기억을 하고 있었다. 金씨는 노래를 잘 부르고 구변이 좋아 제 보자로도 적합했으나 시간 관계상 긴 이야기를 나눌 수 없어 아쉬웠다. 이 자리에서 「회심곡」한 곡을 불렀다.

正月

설날(정월 초하루)

茶禮

정월 초하룻날 아침 일찍 일어나 미리 장만해 둔 설빔으로 갈아입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 이를 차례(茶禮)라 한다. 젓상에는 떡국, 탕, 포, 육, 채, 과일, 등을 제물로 놓으며 차례 때의 제사는 4대 봉사다. 장손집에서는 네분 조상을 모두 모신다. 젓상은 큰 상에 네 분 조상의 제물을 함께 차리는 수도 있지만 두분(부부 함께 모시므로 실제로는 네분)끼리 모시거나 각기 따로 모신다. 이는 가정에 따라 다르다. 제사는 웃대 조상부터 차례로 지낸다.

차례를 지내기 전에 성주상을 차려놓고 성주부터 모신다.

세배와 덕담.

차례를 지내고 주로 남자들이 제물을 조금 음복한다. 그리고는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한 뒤 웃어른에게 세배를 한다. 세배는 차례 후 곧 하는 수도 있다. 이것은 그때 그때의 형편에 맞게 한다.

세배할 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만수무강하십시오” 등의 덕담을 드린다. 그러면 세배를 받으신 어른도 복 많이 받으라든가, 건강하라든가 등의 덕담을 준다.

설날 집안에서 웃어른에게 세배를 드린 후 틈이 나면 친척이나 이웃 어른에게 세배를 간다. 이 때에도 역시 덕담을 주고 받는다. 덕담은 세배 때 뿐 아니라 정초 친지를 처음 만나면 으레 주고 받는 인사말이다.

성묘

산소가 가까이 있는 가정에서는 설날 조상의 묘에 성묘를 간다. 성묘는 주로 남자들이 중심이 되어 가는데 아침에 이미 제사를 올렸기 때문에 제물은 특별히 장만하지 않는다.

무구안택(안택고사)

정초에 좋은 날을 잡아서 무구안택을 지낸다. 무구안택(무고안택) 또는 안택소사라고도 한다. 고사는 정쟁이(經장이)나 선거리(무당)가 집에 와서 해준다.

제의 날이 되면 아침 일찍 대문 앞에 황토 세 무더기를 놓고 금줄을 친다. 황토는

‘정쟁이’가 산에 가서 파온다. 금줄은 왼손으로 꼬은 왼새끼다. 보통 새끼는 왼 손 바닥에 짚을 놓고 오른 손으로 꼬지만 금줄은 오른손 바닥에 짚을 놓고 왼손으로 끈다. 주부도 목욕재계하여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한다.

무구안택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어둑할 무렵부터 시작된다. 우선 시루떡(백무리 또는 팔시루떡)을 찢어 시루를 솥에서 떼지 않고 시루에 덮었던 보자기만 조금 열어 놓고 조왕상을 차린다. 조왕상에는 밤, 대추, 사과, 배 등 과일과 淸水를 놓는다. 경꾼(또는 선거리)이 조왕經을 외우며 축원한다. 축원이 끝나면 소지를 올려 조왕에의 제의를 마친다. 이어 성주상을 차린다. 성주의 자리는 안방 웃목이다. 성주상에는 과일과 淸水 그리고 떡을 시루채 놓는다. 경꾼이 다시 성주에게 축원을 한다. 성주에 빈 뒤 떡을 나누어 먹고 잠시 뒤 성주대를 잡아 거기에다 고사 지내는 집안 사람들의 그해 신수를 물어 점친다. 가족들의 그해 신수를 모두 보는데 누구는 어느 달(月)에 멀리 가지 말라든가, 누구는 어느 方向을 피하라든가, 어떤 姓씨 가진 사람을 피하라든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 등의 점괘가 나온다. 이렇게 성주대가 제시한 점괘에 따라 일년간 처신하는 것이 좋다.

가정에 따라서는 이날 장판에서 지신제를 지내고 밖에 나가 요왕제(요왕제 우물에서 지냄)나 ‘독제’(독에서 지냄)를 지내기도 한다. 지신제날을 별도로 잡아서 지내기도 하는데 이때에도 조왕, 성주에게 함께 제를 올린다. 다만 지신에게 지내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므로 깊은 밤에 오랫동안 제를 지낸다.

이 밖에도 이 마을에는 10여년 전(70년대)까지 서낭당이 있어 서낭제를 지내는 가정도 있었으나 서낭당이 없어 지면서 서낭제도 사라졌다. 무구안택이나 지신제도 거의 지내지 않는다. 그리고 당제가 150년 전까지 있었으나 당제후 사람이 숨지는 일이 생긴 후부터 지내지 않았다고 한다.

홍수매기

그 해 액살이 낀 사람은 홍수매기를 하여 액살을 막아 주어야 한다. 홍수매기는 밤새 안택고사를 지내고 새벽에 이어서 하는 수도 있고 또는 달리 날을 정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개는 무구안택할 때에 이어서 한다.

홍수매기 역시 경꾼이나 무당이 삼거리로 나가서 한다. 이 때에 쓰는 시루떡은 따로 찌야 한다. 무당이 새로 찐 시루떡, 과일 그리고 횡수(橫數)가 든 사람의 생년월일을 쓴 종이를 가지고 삼거리로 나간다. 짚을 넓직하게 펴 깔고 그 위에 가지고 간 제물을 얹어 놓는다. 액막이(액막이) 축원을 한 뒤 떡을 동서남북으로 떼어버린다. 이는 액살을 멀리 떼어버린다는 뜻이다.

제의를 마치고 제물은 그 자리에 그대로 둔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떡을 가지고 가서 나누어 먹는다.

正月初의 금기

예전에는 정월에 가리는 것도 꽤 있었으나 요즘에는 거의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요즘도 정월 초하룻날 여자가 남의 집 출입하는 것을 꺼린다. 초하루 뿐 아니라 정월에 여자가 새벽 일찍 남의 집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立春

입춘일이면 ‘立春大吉’ ‘建陽多慶’ 등의 입춘첩을 써서 대문이나 집 안의 기둥, 방 천정등에 붙인다. 입춘첩은 입춘이 드는 때에 붙이며 이렇게 붙여야 집안이 평안하고 농사도 잘 된다.

正月 대보름

오곡밥

정월 열나흘날 저녁에 맷쌀, 찰쌀, 수수, 조, 팥 등을 섞어 오곡밥을 짓는다. 오곡밥은 고사리나물, 무우나물, 도라지나물, 시래기나물 등 나물과 함께 먹는다. 또 오곡밥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 하여 “보름에 오곡밥 아홉 그릇 먹고, 남자들은 나무 아홉 짐 지고 여자들은 삼아홉 광주리 삼는다.”는 말도 있다.

열나흘날 저녁밥을 먹은 뒤 특히 아이들에게 ‘평알 수수 알갱이’라 하여 누룽지를 긁어 준다. 아이들이 평알 수수(오곡밥 누룽지)를 먹으면 그 해 운수가 좋다는 말이 있다.

모깃불

정월 열나흘날 저녁이나 보름날 아침에 집 마당과 밭에서 모깃불을 피운다. 집안 구석구석을 쓸어내어 검불을 모으고 나뭇가지들을 모아 태우고 밭에서도 나뭇가지들을 모아 태운다. 이렇게 모깃불을 피우면 여름 동안 모기가 달려들지 않는다.

부럼과 귀밝이술

정월 대보름날 아침 일찍 부럼을 깨문다. 주로 밤을 깨무는데 부럼을 깨물면 종기가 나지 않는다. 처음 깬 부럼은 “내 부름”(부럼)하며 마당에 내 던진다.

또 이날 아침에 귀밝이술이라 하여 찬술을 마신다. 예전에는 명절이면 집에서 술을 담았으므로 담근 술(청주)을 마셨다. 귀밝이술은 귀를 밝게 해준다.

보름밤 지키기

정월 열나흘날 잠을 자면 눈썹이 센다. 그래서 아이들은 잠을 피하려고 애쓴다. 아이들이 잠을 자면 눈썹에 밀가루 분을 발라 잠이 깬 뒤 놀라게 해 주기도 한다.

귀신날(야광귀)

열나흘날 밤에 귀신이 이집 저집 다니며 신발을 신어본다. 만일 맞는 신발이 있으면 신고 가버린다. 신을 도둑맞은 사람은 그 해 운수가 사납다. 그래서 밤에 모두 신발을 감추고 잠자리에 든다.

그러나 이 풍속은 벌써 오래 전에 사라졌다.

벚가리 세우기

정월 대보름날 마을 넓은 들의 한 가운데에 벚가리(벚가릿대)를 세운다.

대나무와 소나무와 같은 장대에 동아줄을 세 가닥 또는 네 가닥 정도 매어 땅에 고정시킨다. 벚가리 맨 꼭대기에는 흰 종이에 쌀을 넣어 싸서 짚으로 묶어둔다. 벚가리 세울 때는 각 가정에서 마련해온 술·떡 등을 먹으며 풍장도 치고 마을 잔치를 벌인다.

正月놀이

웃놀이

웃놀이는 정월에 가장 많이 노는 보편적인 놀이다. 대개 설달 그믐부터 시작하여 길게는 정월 그믐까지 논다, 가정에서 가족끼리도 놀지만 마을에서 여럿이 모여 시합도 벌인다. 특히 남자들은 술내기도 많이 한다. 웃은 밤나무나 참나무를 깎아 만든다.

널뛰기

예전에 젊은 여자들은 정월에 널을 뛰었다. 널판은 참죽나무로 만들었는데 널뛰기 풍속은 사라진 지 무척 오래다

연날리기

남자 아이들은 연을 날린다. 설달 그믐께부터 시작하여 대개 정월 대보름 무렵까지 띄운다. 서로 높이 날리기 시합을 벌이다가 상대방의 연줄을 끊는 연싸움도 있다.

정월 열나흘날에는 연을 멀리 날려 보낸다. 연꼬리에 솜방망이를 달아 불을 붙이면 타올라 연줄이 끊어진다. 연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멀리 날아가는 것이 좋다.

쥐불놀이

정월 열나흘날 저녁이나 보름날 저녁에 아이들은 논둑이나 밭둑을 태우며 쥐불놀이를 한다.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 끌고 다니며 논둑과 밭둑의 마른 풀에 불을 댕겨 놓는다. 이렇게 쥐불을 놓으면 쥐나 벌레의 피해를 막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

풍장(농악)

정월 대보름날 벚가리 세울 때와 2월 초하루 농군의 날 벚가리를 내릴 때에 풍장을 치며 논다. 예전에는 풍장도 크게 놀았으나 요사이는 농사 일등 여러가지 일에 워낙 바빠서 전처럼 크게 놀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월 보름날과 2월 초하루에는 풍장을 치며 하루를 즐겁게 보낸다.

二月

농군의 날

2월 초하루를 농군의 날, 또는 머슴의 날이라고도 한다. 정월 대보름에 세운 벧가리를 이날 내린다.

예전에는 2월 초하룻날이면 부자집에서 농부들을 데려다가 술·떡 등 푸짐하게 음식을 대접했다. 벧가리를 내릴 때에도 부자집에서 음식을 푸짐하게 해온다. 농부들은 풍장을 치며 온갖 음식을 나누어 먹는 등 마을 잔치를 벌인다.

벧가리에 매었던 동아줄은 섬에 나누어 넣은 뒤 부자집 광에 들여놓는다. 이렇게 동아줄을 넣는 것을 “벧섬 들인다”고 한다.

벧가리占

정월 대보름날 벧가리를 세울 때 맨꼭대기에 매달았던 쌀봉지를 뜯어보고 그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친다. 이때 종이에 넣어 매달았던 쌀이 붙어 있으면 풍년이 들고 그대로 있으면 풍년작, 만일 줄어 들었으면 흉년이 든다.

그런데 이 종이 속의 쌀은 반드시 비가 왔다 해서 붙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 해 농사 운수에 따르는 것이다.

비우달 보기(좀생이占)

2월 초엿새날 달과 별의 거리를 보고 그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친다. 이날 달이 별을 앞서가면 풍년이 들지만 별이 달을 앞서가면 흉년이 든다.

여기서 달은 먹을 것을 가진 어른이고 별은 아이다. 만일 먹을 것이 충분하지 못하면 아이들이 어른을 앞질러 빨리 간다. 그래야만 얻어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먹을 것이 충분할 때에는 뒤따라 가도 얼마든지 얻어 먹을 수 있다. 먹을 것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풍족한 것으로 곧 농사의 풍작을 말한다.

장 담그기

장은 정월 그믐께도 많이 담그지만 2월에 주로 담근다. 대개 초닷새나 엿새쯤에 담그는데 그러면 장맛이 달고 좋다.

三月

한식

한식날 가정에 따라서는 산소에 간다. 집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산에 가서 간단히 제를 올리고 산소에 사초도 한다. 한식 때 제사를 받는 조상은 정월 차례와 마찬가지로 4대조까지의 조상이다.

四月

초파일

사월 초파일 불탄일에 부처님을 믿는 가정에서는 주부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 불신자가 아니더라도 간혹 어울려서 절 구경을 간다.

五月

단오

단오날 아침에 상추나 찰벼에 내린 이슬을 받아 거기에 분을 개어 얼굴에 발랐다. 그때 바르는 분은 박화분이라는 고체로 된 분이다. 평소에도 사용할 때에는 물에 풀어 개어서 얼굴에 바른다.

또 예전에는 단오날 그네도 뛰었다.

그네줄은 대개 4월 그믐께에 마을의 큰 소나무 같은 곳에 맨다. 단오날 실컷 뽀 뒤엔 그네줄은 그대로 두어 자연스레 삭아 없어지게 하는 수도 있고 또는 얼마 있다가 끊어내기도 한다.

六月

流頭

6월 보름 유두날, 예전에는 유두제를 지내는 가정이 있었다. 유두제는 자기네 논이나 밭이 있는 독에 나가서 지낸다. 독제는 정월에도 가정에 따라서는 지내는데 이는 여름 장마에도 독이 무너지지 않고 무사하기를 비는 것이다. 유두제는 없어진 지 무척 오래 되었다.

七月

七夕

칠월 초이레 칠석날 부처님을 믿는 가정에서는 주부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 일반가정에서는 명절로 여기지 않아 평상시와 똑같이 지낸다.

八月

秋夕

추석날에는 송편, 기지떡(중편), 시루떡, 인절미 등 갖가지 떡을 만들고 술도 빚고 햇과일을 장만하여 아침에 조상에게 차례를 지낸다. 설날 차례 때에는 떡국을 조상에게 올리지만 추석 때에는 송편이나 밥을 올린다. 그밖에 탕어, 육, 포, 과일 등의 제물을 차린다.

산소가 가까운 곳에 있는 가정에서는 추석날 성묘를 간다. 별초는 8월 초순이나 열흘 이전에 미리 했기 때문에 추석날에는 성묘만 한다. 집에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제물은 특별히 장만하지 않는다.

十月

시향

10월 중 5대조 이상의 조상에게 제사를 드린다. 이를 시향 또는 시제, 시사라 한다. 시향은 친족이 모두 모여 산소에서 제사를 지낸다. 시향일은 가정마다 다르다. 10월 중 일정한 날을 정하거나 또는 해마다 좋은 날을 잡는다. 대개 일정한 날에 지낸다.

김장

김장은 입동이 지난 뒤에 한다. 예전에는 입동이면 날씨가 추워져 입동 전에도 김장을 했지만 요사이의 입동 이후에도 날씨가 온화하여 입동이 지나 한참 있다가 김치를 담근다. 김치에는 배추김치·깍두기·총각김치·동치미·무우짬지 등 여러가지가 있다.

十一月

동지

동지가 초순을 들면 애동지, 중순에 들면 중동지, 하순에 들면 노동지라 한다. 중동지와 노동지에는 팔죽을 쑤지만 애동지에는 팔떡을 한다. 애동지에 팔죽을 쑤면 아이들에게 좋지 않기 때문이다. 팔죽 속에는 찹쌀로 동그랗게 빚어 만든 새알심을 넣는다.

팔죽을 쑤면 성주, 조왕, 지신 등에 한 그릇씩 떠놓고 대문에 술가지로 뿌린 뒤, 가족들이 먹는다.

十二月

수 세

설날 그믐날 밤새 집안 구석 구석에 불을 밝혀 둔다. 이것이 수세이다.

이날 밤 주부들은 떡을 찌고 전을 부치는 등 세찬준비에 바쁘다. 떡을 찌면 먼저 집안의 최고 家神인 성주 앞에 놓아 간단하게나마 예를 갖춘다. 또는 성주, 조왕, 지신, 요왕(요왕, 우물)등 주요 가신에게 떡을 놓아 간단히 제를 모시는 가정도 있다.

윤 달

윤달을 군달이라 한다. 이 달에 특별히 하는 일은 없지만 노인이 있는 가정에서는 당사자가 원할 경우 수의를 지어 놓는다.

7) 八峰面 陽吉里의 通過儀禮

出生儀禮

조사일자 : 1986. 12. 29

제 보 자 : 이순옥(여, 70세, 18세에 혼인)

본 적 : 충남 서산군 태안

주 소 : 충남 서산군 팔봉면 양길리 2구 881

제 보 자 : 安相喜(여, 64세)

주 소 : 충남 서산군 팔봉면 양길리 2구 854

출생의례는 산전 후 의례에 대하여 조금 조사되었다. 주로 제보자가 체험했거나 이웃에서 보거나 들은 것을 토대로 했기에 자료는 극히 부분적이다.

태몽과 기자속

꿈에 뱀을 보고 아들을 낳았다. 뱀이 뱃속에 들어가는 꿈이었는데 그 뒤 아들을 낳아 현재 27세(조사 당시)이다. 아기를 낳지 못하면 삼신을 받는다. 주로 샘에 가서 삼신에게 빈다. 쌀을 가지고 가서 그 쌀로 밥을 짓고 미역국을 끓여 샘에 바치고 비손을 한다. 또는 집의 안방 아랫목 삼신 자리에 삼신상을 차리고 삼신에게 빈다. 이때 무당이 빌거나 또는 집안의 주부(시어머니)가 직접 빌기도 한다.

산후의례

아기를 낳으면 삼칠일동안 대문 앞에 금줄을 친다. 금줄은 원새끼줄로서 줄 사이

사이에는 아들일 경우 종이·고추·숯을 끼우고 딸일 경우 종이와 숯을 끼워둔다. 또 아기를 낳으면 3일·7일·21일날 삼신상을 차린다. 삼신상에는 밥 세그릇, 미역국 세그릇을 떠 올린다. 여기 올렸던 밥과 국은 산모를 비롯하여 남편, 아이들 등 가족들이 나누어 먹는다.

백일과 돌

요즘에는 백일 잔치를 하는 가정이 많으나 예전에는 흔하지 않았다. 돌잔치를 했다. 돌잔치 때에는 뽕명(무명)바지 저고리를 입혔다. 특히 저고리는 색동으로 했으며 여자 아이들도 요즘처럼 치마 저고리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남자 아이와 마찬가지로 두렁이(두렁이)를 입혔다. 돌상 위에 실·붓·벼루·종이·떡·돈 등 여러가지를 놓고 아이에게 마음대로 집게 해 앞날을 예측해 보기도 했다. 만일 아이가 실을 제일 먼저 집으면 장수(長壽)하고 붓이나 벼루를 집으면 공부를 잘할 것이라 하고 돈을 집으면 부자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돌상 차리는 풍속은 오히려 요즘 더 성행하는 것 같다.

婚 禮

조사일자 : 1986. 12. 29

제 보 자 : 이순옥(여, 70세, 20세에 혼인)

본 적 : 충남 서산군 태안

주 소 : 충남 서산군 팔봉면 양길리 2구 881.

의 혼

혼기에 찬 처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멀고 가까운 친척 또는 이웃에 중매를 부탁한다. 예전에는 중매인이나 집안의 어른들이 전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에 막상 당사자들은 얼굴조차 알지 못했다. 제보자 이순옥씨의 경우 시댁의 작은 할아버지의 중매로 혼인을 했는데 물론 신랑감의 얼굴도 모르고 했다.

양가에서 혼인할 것이 합의되면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사주를 보낸다. 사주(四柱)는 백지에 신랑의 생년월일시를 적어 5간으로 접어 큰 봉투에 넣은 뒤 싸릿대에 끼우고 청홍실로 매어 사주보에 싸서 중매인이 신부집에 전한다. 또 사주를 보낼 때 저고리감을 함께 넣기도 한다. 제보자 이씨댁에서는 사주저고리를 받자 친정 어머니가

성주에게 올려 놓았다. 그래서 “자식을 많이 본 것 같다”고 제보자 이순옥씨는 말한다. 李씨는 슬하에 10남매를 두고 있다.

택일은 사주를 받은 신부집에서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 신랑집에서 한다. 李씨의 경우도 신랑집에서 택일을 해 신부집에 보내왔다.

초례는 신부집에서 치른다.

혼례식

혼례식날 신랑은 말을 타고 신부집에 온다. 이때 신랑집을 대표하여 신랑의 아버지나 조부 또는 백부가 상객으로 동행하고 그밖에 함진애비 등 두 세명이 따른다. 함 속에는 기본적으로 저고리 치마감을 두벌씩 넣는다. 생활이 풍족한 가정에서는 이밖에도 패물이나 옷감을 더 많이 넣을 수도 있다. 이는 가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신랑 일행이 신부 마을에 도착하면 신부집에서 안내를 맡은 사람이 나와 임시로 마련한 거처로 안내한다. 신부집에서 간단한 술상을 차려오고 요기가 끝나면 신랑은 사모관대로 성장한 뒤 초례 때에 맞추어 초례청에 들어간다. 이때 목오라를 들고 가는데 대문간에 미리 차려놓은 조그마한 상 앞에 오리를 놓고 절을 한다. 신랑이 절을 하는 동안 신부의 숙모나 큰 오라버니(오빠)댁(그러니까 신부의 큰 올케)가 치마 속에 숨겨 갖고 들어가 쌀독에다 감춘다. 신랑이 절을 마치고 나면 사람들이 “어딜 보고 절을 했느냐”고 놀리며 한바탕 웃는다.

초례상은 마당에 차린다. 상 위에는 촛대 둘, 들쭉나무와 사철나무를 각기 꽃은 꽃병 두개가 신랑·신부 양쪽에 놓이며 그밖에 사과·밤·대추·떡 등이 놓인다. 꽃병에는 청실과 홍실이 각기 걸려 있다. 또 신랑·신부 자리에서 각기 암탉과 수탉을 들고 서 있다.

초례청에서 신랑은 대문쪽에 신부는 그 맞은편인 안방쪽에 선다. 주례자의 주관으로 대례(또는 초례)가 거행된다. 신랑과 신부는 손목에 청실과 홍실을 각기 걸고 술잔을 전한 뒤 절을 한다. 이때 신랑·신부 모두 술을 마시지는 않고 입에 살짝 댔다가 놓는다.

혼례식이 끝난 뒤 신랑과 신부쪽에서 들고 있던 닭을 날려 보낸다. 이때 닭이 푸드득대며 높이 날 수록 좋다.

이렇게 하여 대례가 끝나면 신부는 하늘의 부축을 받고 안방으로 들어간다.

신랑은 후에 들어가거나 다른 방으로 들어간다. ‘관디 벗김’이라 하여 사모관대를 벗고 신부집에서 준비한 옷으로 갈아 입는다. 신부는 원삼 족두리를 그대로 입고 있거나 또는 다른 옷으로 갈아 입기도 한다. 신랑은 간단한 요기상을 받고 이를 물리고 난 뒤 상객과 함께 별도의 큰 상을 받는다. 여기 올린 갖가지 음식은 후에 신랑 집으로 보내진다. 상객은 사돈택 어른과 인사를 나눈 뒤 혼례일 당일 돌아간다.

신방은 신부집 안방에서 치른다. 이때 친척이나 이웃 사람들은 ‘신방 지키기’라하여 창문에 구멍을 뚫고 들여다 본다. 만일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귀신이 들여다 본다는 것이다.

新 行

신부집에서 신방을 치르고 다음날 신부는 신랑과 함께 시댁으로 간다. 그야말로 ‘시집을 가는 것’이다.

신행길에는 신부와 함께 여러 사람이 동행한다. 상객으로 신부의 아버지 또는 오빠가 동행하고 그밖에 신부의 시중을 들어줄 친척, 하님 그리고 짐꾼이 따르고 신랑이 앞장 선다. 가마 속에는 요강을 넣는다.

신부집에서는 이 때 폐백에 쓸 전닭, 대추, 밤, 떡 등의 음식과 찹쌀, 팥등을 가지고 간다. 특히 닭의 입에는 밤을 물리고 양쪽 귀에는 대추를 끼어(끼어) 산 꿩처럼 보기 좋게 한다. 폐백용 음식은 폐백 동구리에 담고 찹쌀과 팥은 주발에 담는다.

이밖에 신행길에 상객이 없어 하님과 심부름 하는 사람만 동행할 때도 있다. 신부가 신랑집 마을에 이르면 신랑이 신부의 마을에 갔을 때와 마찬가지로 잠시 임시 거처에 들어 쉬었다 가기도 하지만 대개는 바로 신랑집에 들어간다. 시부모에게 드리는 폐백은 다음날 드린다. 폐백드릴 때에 신부는 친정에서 준비해온 닭·대추·밤·술 등을 상 위에 놓고 신랑·신부가 함께 어른에게 근친의 차례로 큰 절을 하고 술을 올린다. 제일 먼저 술을 받은 시부모는 새 며느리에게 대추를 던져주며 부귀다남하라고 당부한다.

새 색씨는 시댁에 온 지 삼일만에 부엌에 나가 밥을 짓는다. 친정에서 가지고 온 팥을 넣어 밥을 지은 뒤 먼저 시부모님께 아침 진지를 올린다.

근 친

신부가 시댁에 온 후 친정에 첫 나들이하는 것을 근친이라 한다. 흔히 3일만에 친정을 가게 되어 3일 근친이라는 말도 있지만 예전에는 석달만에 또는 1년이나 3년만에 가는 수도 있었다. 시집 와서 첫 농사를 다 짓고 수확한 곡식으로 떡과 술을 만들어 첫나들이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친정에 가면 대개는, 오래 있을 경우 열흘 정도 머물다가 시집으로 돌아온다. 신랑·신부가 신부집 마을에 오면 동네 청년이나 신부집 친척들이 ‘신랑달기’를 하며 꿀탕을 먹이기도 한다.

신랑을 거꾸로 매달고 또는 말을 잘못한다고 트집을 잡는다. 아무리 말을 제대로 해도 무언가 꼬투리를 잡고는 꿀탕을 먹이는 것이다. “굴복 따러 가자(굴따러 가자)”며 신랑을 둘러 매고 가서 캄캄한 해안에 내려 놓기도 하는 등 여간 장난이 심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요즈음 신랑달기는 심하지 않다.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나중에는 신부집에서 내놓은 푸짐한 음식을 먹으며 함께 즐겁게 어울린다.

喪 禮

조사일자 : 1986. 12. 29

제 보 자 : 李起駿(남, 78세, 한문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팔봉면 양길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팔봉면 양길리 2구 854.

임종과 사자상

어른이 임종을 하면 즉시 여자들은 머리를 풀고 남자들은 흰 도포를 입는다. 이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 왼쪽 팔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경우는 오른쪽 팔을 빼고 입는다.

사자상에는 밥 세 그릇, 물 세 그릇을 올려놓고 쥔신 세 켄레와 함께 대문 밖에 내놓는다. 밥과 물은 모두 쏟아 얹어놓았다가 장사를 다 지낸 후에 상(床)채로 들여온다.

염 습

장례는 3일장, 5일장, 7일장으로 하는데 3일장으로 할 경우, 염은 24시간이 지난 후에 한다.

염을 할 때에는 이불, 요, 도포, 바지 저고리, 속바지 저고리 등을 준비한다.

염하는 것을 “염 잡숫는다”고 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쌀을 입에 넣으면서 아들이 “아부지, 아부지……”라고 세번 부르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어머니, 어머니……”를 세번 부른다. “천년 만년 잡수시요”라고도 하며, 백지 다섯장을 꼬얌처럼 접어서 양가슴에 하나씩 넣으면서 “천장이요, 만장이요……”라고 한다.

‘염 잡숫는 것’은 누구나 하는 절차이지만 그 때에 하는 말은 집집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다.

성복제

입관 후에 상주들은 수질, 요질 등을 모두 갖춘 굴건재복을 한다.

수질은 삼과 짚을 함께 꼬아서 만든다. 동아줄 끈 것이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꼬불하게 물렸으면 모친상이고 부친상일 때는 그 반대의 모양으로 하였기 때문에 수질한 것을 보면 누구의 상인지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복나무 지팡이를 짚는다. 굴건재복을 모두 갖춘 다음에 흰 시루떡과 붉은팍시루떡, 주, 과, 포 등의 제물을 차리고 성복제를 지낸다.

발인제

산소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내는 제사가 발인제이다. 이때도 제물을 잘 차려 제사를 지낸다. 술을 올리고 축을 읽으면서 온 가족이 절하면서 하직인사(祭)를 드린다.

하관과 빈혼제

이곳에서는 하관을 할때 관채로 쓰는 경우가 드물다. 관채 쓰면 나무가 내려 앉아 시커멓게 썩기 때문에 주로 퇴관을 한다.

나무관은 주로 솔나무나 오동나무를 쓰며, 관채 묻는 경우에는 관에 옷칠을 하기도 한다. 퇴관한 관을 불에 태운다. 봉분을 한 후에는 시신을 가뒹눴으니 놀라지 말라는 뜻으로 봉분제를 지낸다. 봉분제를 지내면 평토제는 생략한다. 상제들이 산소에 갈 때와 똑같이 갔던 길을 따라 그대로 되돌아와 집에서 빈혼제를 지내면 장례 절차는 모두 끝이난다.

탈 상

탈상은 여자가 남자보다 먼저 죽었을 경우에는 1년이 지난 후에 택일하여 한다. 여기서는 주로 100일이나 1년만에 탈상을 한다. 탈상 때까지는 초하루 보름에 떡을 장만하여 제를 드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는 상식을 올린다.

祭 禮

조사일자 : 1986. 12. 29

제 보 자 : 李起駿(남, 78세, 한문수학, 상례 제보자)

제 보 자 : 이순옥(여, 70세, 혼례 제보자)

기제사

돌아가신 선조의 기일에 지내는 제사가 기제사이다. 기제사는 4대 봉사로서 종손 댁에서는 연8회에 걸쳐 제사를 지낸다. 그러나 조상 가운데 재취 부인이 있었을 경우 기제사의 횟수도 그만큼 늘어난다.

제사는 대체로 기일(忌日)의 子正에 지낸다. 작고일 전날 밤 늦게 젓상을 준비하기 시작하여 子正이 되면 제를 지내는데 그래서 흔히 작고일 전날 밤에 기제를 드린다고 말한다.

제사를 드릴 때는 그날 제사에 해당되는 조상 뿐 아니라 고비(考妣)를 합사(合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물은 명절차례 때와 비슷하며 가정 현편이나 계절 등에 따라 다소의 변화가 있다.

茶 禮

설날과 추석날 아침에 집에서 차례를 지낸다. 차례 역시 기제사와 마찬가지로 四代 奉祀인데 장손집에서는 1대부터 4대까지의 조상 모두에게 제를 올린다. 젓상은 4대까지의 조상을 함께 차리거나 2대 조상끼리, 또는 각기 1대씩 따로 차리기도 한다.

제물은 떡국 또는 밥과 국, 탕, 포, 육, 채, 과일 등을 놓는다.

차례 후에는 조상의 묘를 찾아가 간단히 예를 올린다. 집에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산소에서는 크게 제를 지내지 않고 명절 인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밖에 가정에 따라서는 한식날 산소에 가서 제사를 드리기도 한다.

시 향

4대조까지의 조상은 집에서 제사를 모시지만 5대조 이상의 조상에 대해서는 1년에

1번씩 산소에서 함께 제를 모신다. 이를 시향, 시제 또는 시사라고 한다.

시향은 10월 중 좋은 날을 잡아 온 문중이 모인 가운데에 산소에서 지낸다. 그래서 시향 때가 되면 원근에 사는 친족이 모두 모인다. 주부들은 묘제(시향)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으나 제사 며칠전부터 제물 장만 등으로 분주하다. 산소에서의 제사가 끝나면 모두 장손객에 모여 음복을 하고 이듬해 시사 일을 의논하는 등 문중의 갖가지 일에 대한 회의를 열기도 한다.

8) 八峰面 陽吉里의 民間信仰

調査日字：1986. 12. 29

提 報 者：성명：김병숙(70세, 여, 17세 때 신장리에서 출가)

① 洞神信仰

1. 山祭

名稱：「山祭」

神格：山神

位置：팔봉산

形態：절 뒤편의 산봉우리에 은행나무와 제단이 있다. 예전에는 당이 있었으나 헐고 산중턱에 새로 지었다.

祭儀：祭日：정월 초에 날을 잡아서.

祭物：시루를 찌서 놓고, 소고기, 삼색실과 술1잔을 차린다.

祭次：중이 목탁을 치며 염불을 해 주고 절은 100번 해야 좋다고 한다.

② 風水信仰

묘자리나 집터를 잘 잡으면 자손이 잘 되므로 지관을 들어서 잡아야 한다.

③ 邪鬼信仰

1. 도깨비

벋자락 몽둥이나 도리깨 장치에 피가 묻으면 도깨비가 되므로 내버리지 말아야 한다.
도깨불은 처음에 새파랗게 일었다. 새빨개지고 질질 끌리면서 가다가 꺼진다.

2. 왕신

처녀가 죽으면 왕신이 된다. 그러면 왕신단지를 해얌쳐 신곡이나 재물이 생기면 떼어 놓고 위한다. 집안 사람이 시집을 가면 왕신도 따라가므로 시집을 가려면 왕신에게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하며 어디를 출타하여 집을 비울 때도 인사를 해야 한다. 경을 읽어 왕신을 잡아 내기도 한다.

④ 豫非・禁忌

○ 구렁이는 엽이므로 나와도 잡지 않는다.

* 구렁이를 잡아 내었다가 아들이 크게 앓은 적이 실제 있었다 한다.

○ 아침에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

○ 까마귀가 울면 초상이 난다.

○ 아침 거미가 내리면 손님이 오고 저녁 거미가 내리면 근심이 생긴다.

○ 아이가 아프면 아이가 태어난 자리에 밥을 해놓고 삼신을 위해야 한다.

○ 밥 먹고 이내 누우면 소가 된다.

○ 족제비나 두꺼비가 길을 가로지르면 재수가 좋다.

○ 이가 빠지면 윗이는 윗지붕에 던지고 아랫이는 아랫지붕에 던지며 ‘까치야 까치야 현이빨 가져가고 새이빨 가져 오너라’한다.

○ 사마귀가 나면 초상집에 가서 곡하며 ‘내 사마귀도 죽었다’하고 바늘로 파낸다.

○ 티눈이 나면 초상바늘로 파낸다.

○ 장을 담글 때는 버선을 불이고 고추와 솥을 달아 금줄을 띠고 밥을 떠다 놓는다.

○ 문지방에 올라서면 재수가 없어 안된다.

○ 밤에 손톱을 깎으면 재수가 없다.

○ 남의 집에 가 손톱을 깎으면 그집과 의가 상하므로 안 된다.

⑤ 民間醫療

1. 다락지

세 길목에 돌을 놓고 떡을 올려 놓는다,
덴넨 자리를 비벼 다락지 난 곳을 갖다 댈다.

2. 죽은개

단오날 이슬을 받아 가루비누를 개서 바르면 죽은개가 안 생긴다.

3. 토사광란

아궁이 흙을 물에 끓여 우려 마신다.

4. 배가 아플 때

육모초를 생즙내어 마신다.

5. 더위 먹었을 때

오이꼭지를 생즙내어 마신다.

6. 황달

쭈을 뜯어 다려 마시거나 오이꼭지, 참외꼭지를 가루내어 대롱으로 코에 붙여 넣는다.

7. 어혈

인분을 먹는다

8. 담

꿀을 고추장에 개서 먹거나, 고추감주를 해서 먹는다.

술에 고추가루를 타서 먹기도 하고 사금파리를 삶아 그 물을 마시기도 한다.

갈단추 뿌리를 삶아 감주를 해 마신다.

◎ 慣習

서산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慣習은 倫理・道德・法・相續・所有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는데, 조사대상지역 전역이 공통성을 띠고 있어서 地域別로 따로 분류하지 않고, 개괄적으로 한데 묶었다. 조사지역과 祭報者, 조사시기와 조사방법은 전향의 民間信仰과 동일하다.

1. 相續

재산은 아들들에게 분배하지만 장남에게 많은 몫을 준다. 장남은 조상의 제사를 지내야 하기 때문이다. 딸은 출가의인이므로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는다. 종가인 경우는 종산이나 논을 주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조상의 제사를 돌보게 하는 데 그 땅들은 공동명의로 하여 팔지 못하게 한다. 태안읍 평천리의 金東月氏는 종산 3정보와 논 세마지기(마지기)를 받았고, 팔봉면 양길리에서는 논을 2마지기씩 준다.

2. 마을의 共同財産

대개의 경우 마을 공동소유의 산과 논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海岸 島嶼지역의 마을에서는 어장을 공동관리하며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공회당, 경로당 등을 짓기도 하고 다른 마을공동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마을기금으로 마련한다.

그러나 이런 공동수익으로 모든 마을 행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필요한 경우 걸립을 돌며 쌀·돈 등을 주렴하는 데 정월 초에 농악을 울리며 하며 걸립을 도는 것은 대표적 예이다.

3. 마을의 自治規律

현재로서는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였지만 예전의 경우 동네의 화목과 부모에게 효도하는 등의 미풍양속을 깨치는 경우 마을에서 자체적인 규제를 가하였다.

이러한 처벌은 대동회의 장이 맡아 하였는데 부모에게 불효를 하면 공회당 앞에서 물불기를 때리고 조리를 들렸다.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간통을 하면 문을 걸어 잠그거나, 술을 빼고 지붕을 걸어 마을에서 내쫓는다.

예전에는 어른 앞에서는 술·담배를 못하고 말대꾸를 하는 것은 고사하고 어른 앞을 가로질러 가지도 못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

○ 놀음이나 불효를 하면 공회당에서 불기를 때린다.(海美面 冬岩里)

○ 잘못된 사람을 진흥회에서 마을 대표들이 벌을 주는데 불효자는 물불나를 치고,

과부가 다른 남자를 보아 아이를 낳으면 쫓아낸다. 50여년 전까지 지켜졌었다.(雲山面 餘美里)

○ 대동회에서 잘못하면 처벌한다.(聖淵面 鳴川里)

○ 불효나 잘못을 하면 대동회에서 불러다 처벌하는데 도둑질을 한 사람과 간통한 사람은 술을 빼고 지붕을 벗겨 내쫓는다.(近興面 程竹里)

○ 대동회에서 처벌하며 불효하면 명석 매를 3번씩 때리고 도둑질이나 간통을 하면 문을 걸어 잠그고 내쫓았다.(泰安邑 平川里)

○ 못된 것이나 불효를 하면 북을 지고 조리를 들렸다. 처녀 총각이 눈이 맞아 바람을 피우면 처녀 집에서 총각을 데려다 때렸다.(古南面 古南里)

○ 불효·불륜을 저지르면 동네 상계의 계장이 혼내고 때려 바로 잡았다. 약 20여년 전 동네 어른인 김 영익氏(지금은 타계)가 동네 화목과 효도를 내용으로 하는 향약계를 조직하려 했으나 중단되었다.(遠北面 梨谷里)

○ 나쁜 짓을 하면 물불기를 치고 조루 돌리고 심한 경우는 지붕을 걷어 몰아내었다.(南面 夢山里)

9) 八峰面 陽吉里의 方言

조사일자 : 1986. 12. 29

제 보 자 : 정정영(남, 46세, 농업, 국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팔봉면 양길리

주 소 : 위와 같음

조사상황 : 조사자가 이장 집을 찾았는데 그 방 안에 남자 몇 분이 있었다. 조사자가 지명에 대해 물으니 위에 적은 제보자가 이야기해 주었다. 거기에서 나온 방언을 기록하였다.

조사내용 : (1)~(22)

(1) 뱀 : 배암[pe-am]

(2) 개구리(L413) : 개구리[ke-gu-ri]

- (3) -데-디[-di]
 標있는데 方있는다 [In-nin-di] 標 그랬는데 方 그랬는다 [ki-rən-nin-di]
- (4) 들어다 보다 : 덜여다 보다 [ti-rjə-da bo-da]
- (5) 그냥 : 기양 [ki-jah]
- (6) 다리밋들 : 다리밋독 [ta-ri-mi-t'ok]
- (7) 죽인다 (I.591.1보충) : 직인다 [tʃi-gin-da]
- (8) 나중애 (II.72) : 야중애 [ja:dʒuh-e]
- (9) 고목나무 : 고묵나무 [ko-muh-na-mu]
- (10) 날다 : 널다 [nə:l-da] 標 날았다. 方 널렀다 [nəl-lə-t'a]
- (11) 박이다 : 백이다 [pɛ-gi-da]
- (12) -어요 : -이유 [-i-ju] 標 잇어요 方 잇이유 [i-s'i-ju]
- (13) 비스듬하다 : 비저듯하다 [pi-dʒə-dit-ha-da]
- (14) 조리 (I.078) : 조랭이 [tʃo-rɛh-i]
- (15) 배추 : 배차 [pɛ : tʃ^{ha}]
- (16) 김치 (I.065) : 짐치 [tʃim-tʃhi]
- (17) 간장 (I.067) : 장물 [tʃah-mul]
- (18) 국물 (I.075) : 멀국 [məl-guk]
- (19) 경장지 : 정쟁이 [tʃəh-dʒɛh-i] (※經 읽는 사람)
- (20) 길 : 질 [tʃil] (※길이의 단위)
- (21) 길(道) : 질 [tʃil]
- (22) 바람개비 : 파랑개비 [p^{ha}-rah-ge-bi]

10) 八峰面 陽吉里의 地名

조사일자 : 1986. 12. 29

제 보 자 : 양근모 (남, 40세, 농업, 국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팔봉면 양길리

주 소 : 위의 곳 2구 680

제 보 자 : 정정영(남, 46세, 농업, 국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팔봉면 양길리

주 소 : 위의 곳 2구 478

조사사항 : 전반적인 지명에 대해서는 양근모씨가 많이 협조해 주었는데, ‘장군대지’에 대해서는 정정영씨가 이야기해 주었다.

조사내용 : 양길리~한재밀

양길리(陽吉里) : 본래 서산군 문현면의 지역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사양리와 우길리, 방길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한 리를 이루어 팔봉면에 편입되었다. 이름은 사양리의 陽과 우길리의 吉을 따서 합하여 만들었다.

가래기 : 왜양말 남쪽에 있는 마을

되챙이 : 벌말 동쪽에 있는 마을

두명굴 : 왜양말 서남쪽에 있는 마을인데, 모양이 두명처럼 생겼음.

등덩이 : 왜양말 서쪽에 있는 마을

매봉재 : 매봉으로 넘어가는 고개

바위배미 : 장빨보 남쪽에 있는 논인데 논 가운데 바위가 박혀 있음.

방굴 : 왜양말 동쪽에 있는 마을인데, 밤이 많음. 원래는 ‘밤굴’임

발전모랭이 : 양지편 북쪽에 있는 모룽이인데, 밭 옆으로 돌아감.

벌말 : 왜양말 북쪽 벌판에 있는 마을

벽시 : 도챙이 동쪽에 있는 마을인데, 질그릇 굽던 곳임.

빗돌머리 : 두명굴 북쪽에 있는 골짜기 인데, 빗돌(군수 송덕비)이 서 있음

새양굴 : 양길리에서 으뜸가는 마을인데 좋은 샘이 있어서 원래는 ‘샘굴, 사암굴’로 불렸음. ‘샘굴’ 말이라고도 함.

산밀 : 왜양말 남쪽에 있는 마을인데, 팔봉산 밑에 자리잡고 있음

산밀내 : 산밀으로 흐르는 내

삼형제배미 : 세 논배미가 나란히 이웃하고 있는데, 생김새도 똑같고, 마지기수도 똑 같아서 이렇게 부름.

솔따배기 : 매봉재 너머의 마을

아홉마지기 : 등뎡이 동쪽에 있는 논인데, 한 논이 아홉마지기 크기나 되며 땅도
걸어서 근방에서 가장 좋은 논임

양지편 : 왜양말 서쪽에 있는 마을인데 양지바른 곳에 자리잡음

웃나무골 : 산밑 동쪽에 있는 골짜기인데, 웃나무가 많았음

왜양말 : 새양골 서쪽에 있는 마을

잘필 : 왜양말 서쪽에 있는 마을

장군대지(將軍埤地山) : 가래기 남쪽에 있는 산. “저쪽으로 가면 거기에 장군 대
지라고 있는데, 장군이 났었대요. 그랬는디, 어머니가 빨래를 허구서 방을 덜여다보니까
어린애가 천장에 붙었다가 방바닥으로 내려가구 해서 이거 겁난다구 기양(조사자 :
애기가 날개가 달렸단가요?) 날개가 달린게 아니구 어린애가 뭐, 다리가 한 짝 없고
팔이 한 짝 없는 장군을 났었다구 그래요.(조사자 : 힘이 좋았나요?) 힘이 존 건
없는디 천장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께 겁난다구 이 다리미독으로 눌러서 직였는데,
야중에 알아보니까 장군을 직였다고 그래서 장군대지라고 그런대요. (조사자 : 그 근
방에 말이 났었나요?) 말이라는 건 몰르구 저 용마바위가 있어요. 저 양길리 3구
가면 거기가 그 말발짝이 백였다고 용마바위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 장군이
탈라구 그게 용마 말발짝이 있었는지 그거는 모르지유 (조사자 : 그 용마가 그 바위를
밟고 갔답니까?) 예, 그 용마가 밟구 갔다구 해서 용마바위라고 지금도 바위가 있어요
(조사자 : 용마가 그 산에서 났나요?) 아니 그 건너 산이쥬. 바로 그 건너 산의
용마바위가 있어요”

장빨넛갈 : 장빨 옆으로 흐르는 내

큰골 : 풍륜산에서 제일 크고 깊은 골

평밭 : 양길리에 있는 밭인데, 평평하고 너름

풍륜산 : 마을 앞산으로, 팔봉산의 한 줄기임

한째 : 양지말 서쪽에 있는 큰 고개

한째밑 : 한째 밑에 있는 마을

11) 八峰面 陽吉里의 藝能과 競技傳承

① 오징어 놀이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9일

제 보 자 : 김성태(15세, 남, 중학교 2년생)

주 소 : 충청남도 서산군 팔봉면 양길리 2구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오징어 가상’, 또는 ‘오징어 뺏다리’로 불린다.

- 1) 노는 시기 : 봄·가을
-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 3) 놀 이 자 : 남자,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다, 10명 이상이라야 적당하다.
- 4) 놀이방법
 - 편을 갈라, 이긴 편은 공격을 하고 진 편은 수비를 한다.
 - 공격편은 ‘머리’ 안에, 수비편은 ‘몸’안에 각각 들어간다.
 - 공격편은 양감질로 나와서 직접 ‘점’을 찍거나, 양감질로 나와서 ‘허리’를 뛰어 넘은 후에 양 발로 걸어서 ‘점’을 찍을 수 있다. (그림4 참조)
 - ‘점’을 찍은 공격자는 수비 진영인 ‘몸’안에 쳐들어가서 수비자를 찌히고 ‘가’를 밟으면서 ‘만’을 부른 다음 자기 진영인 ‘머리’에 들어가면 이긴다.
 - 수비편은 ‘몸’안에서 쳐들어온 공격자를 방어하거나, 밖으로 나와서 방어할 수 있다.
 - 수비자가 밖으로 나올 때는 ‘점’을 밟고 나와 양감질로 다니면서 공격을 막는다. 양감질로 다니다가 ‘허리’를 뛰어 넘으면 양 발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 ‘허리’를 넘고 있는 상대방을 공격해서 쓰러뜨리거나 선을 밟게 할 수 있다. 이때, 선을 밟거나 쓰러진 사람은 실격이 된다.
 - 밖으로 나온 수비자가 자기 진영으로 되돌아갈 때에는 반드시 ‘점’을 밟고 들어가야 한다.
 - ‘점’을 밟고 있는 공격자를 수비자는 절대로 공격할 수 없다.

- ‘머리’안에 있는 공격편이 수비편에 의해 끌려 나가면 실격이 된다. 수비편이 끌려 들어가도 실격이 된다.
- ‘머리’안에 있는 공격편이 ‘가’를 밟으면 실격이 된다.
- ‘머리·몸’ 밖에 있는 공격자나 수비자가 서로 싸우다가 넘어지거나 선을 밟으면 실격이 된다. 양감질일 때 양 발이 땅에 닿으면 실격이 된다.
- 공격편이 수비 진영을 공격할 때, ‘가·다’ 방향으로 건너뛸 수가 없고 ‘나’ 방향으로 지나야만 한다. (그림 5)
- ‘몸’ 안에서 양 편 모두 쓰러져도 무방하나, 선을 밟거나 밖으로 나가면 실격이 된다.
- 공격편이 수비편을 모두 실격시키거나, 공격편 중 한 사람이라도 ‘가’를 밟고 ‘머리’ 안에 들어가면 공격편이 이긴다.
- 공격편을 모두 실격시키면 수비편이 이긴다.
- 공격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지 않고 다시 한다. 수비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 다시 한다.

② 십자가 놀이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9일

제 보 자 : 김성태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십자 가상’으로 불린다.

- 1) 노는시기 : 봄·가을
- 2) 노는장소 : 넓고 평평한 곳
- 3) 놀 이 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여자들이 많이 한다.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다. 8명 이상이라야 적당하다.
- 4) 놀이방법

- 편을 갈라, 이긴 편이 공격을 하고 진 편이 수비를 한다.
- 공격편은 외곽 사각형 중 하나에, 수비편은 가운데 사각형에 각각 들어간다.
- 공격편은 반시계 방향으로 네 개의 사각형을 밟고 돈다. 공격편 중 한 사람이라도 작정한 바퀴 수[보통 5바퀴 돈다.]를 다 돌면 이긴다. 이때, 방향을 바꾸어 돌거나 지나친 칸으로 되돌아 갈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실격이 된다.
- 수비편은 가운데 사각형과 밖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수비를 할 수 있다. (그림 6·7 참조) 밖으로 나오거나 안으로 들어가면서 공격자를 끌어당기거나 밀어내서 밖으로 나가게 한다. 이때, 넘어지거나 밖으로 나온 공격자는 실격이 된다.
- 수비자가 가운데 사각형과 밖을 오갈 때 공격자도 수비자를 끌어 당기거나 밀어서 공격자 진영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 이때, 넘어지거나 공격자 진영으로 들어온 수비자는 실격이 된다.
- 놀이자들이 선을 밟으면 실격이 된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비자를 모두 실격시키거나 공격편 중 한 사람이라도 정해진 바퀴를 다 돌면 공격편이 이긴다.
- 수비편이 공격편을 모두 실격시키면 수비편이 이긴다.
- 공격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지 않고 다시 한다. 수비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 다시 한다.

③ 팔자(八字)놀이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9일

제 보 자 : 김성태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팔자 가상’으로 불린다.

2) 노는시기 : 여름 · 가을

2) 노는장소 : 넓은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남자들이 많이 한다, 5~6명 이상이라야 적당하다.

4) 놀이방법

- 술레[이를 ‘오니’라고 부른다.] 1명을 정한 다음 각자 편한대로 8자의 통로에 선다.
- 시작과 함께 술레는 다른 사람을 치러 따라 다닌다. 술레 아닌 사람은 술레를 피해 도망다닌다. (그림 8)
- 술레가 아닌 사람은 통로로 다니거나 $\longleftrightarrow$ 표 방향으로 건너 뛰어 도망다닐 수 있다.
- 술레는 통로만으로 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손으로 친다. 술레에게 체인 사람은 곧바로 술레가 된다.
- 선을 밟거나 밖으로 나간 사람은 술레가 된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놀이를 계속한다.

④ 안경 놀이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9일

제 보 자 : 김석태(10세, 남, 국민학교 3학년)

주 소 : 충청남도 서산군 팔봉면 양길리 2구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안경 가상’으로 불린다.

1) 노는시기 : 봄 · 여름 · 가을

2) 노는장소 : 넓은 곳

3) 놀이자 : 남자 6~7명 이상이라야 적당하다.

4) 놀이 방법 (그림 9)

- 편을 갈라, 이긴 편은 공격을 하고 진 편은 수비를 한다.
- 공격편은 원 ‘가·나’중 한 원에, 수비편은 밖에 각각 선다.
- 시작과 함께 공격편을 원 ‘가’에서 원 ‘나’로 왔다 갔다 하는데, 작정한 수대로 [보통 왕복 다섯 번 한다.]하면 이긴다.

- 수비편은 ‘안경’안에 들어 갈 수 없고 둘레를 돌아다니면서, 또는 그림 160과 같이 뛰어 넘으면서 공격편을 끌어당기거나 밀어낸다. 이때, 수비자가 선을 밟아서 안된다. 수비자에 의해 밖으로 나가거나 넘어진 공격자는 실격이 된다.(그림 10)
- 공격자도 수비자를 끌어당겨 넘어뜨리거나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 공격자에 의해 안으로 들어오거나 넘어진 수비자는 실격이 된다.
- 이와 같은 방법을 계속해서, 공격자가 수비자를 모두 실격시키거나 공격자 중 한 사람이라도 다섯 번 왕복을 하면 공격편이 이기게 된다.
- 수비편이 공격편을 모두 실격시키면 수비편이 이긴다.
- 공격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지 않고 다시 한다. 수비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 다시 한다.

⑤ 사람 놀이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9일

제 보 자 : 김석태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사람 가상’으로 불린다.

- 1) 노는시기 : 봄 · 여름 · 가을
 - 2) 노는장소 : 넓고 평평한 곳
 - 3) 놀 이 자 : 남자
 - 4) 놀이 방법 (그림 11)
- 술레 한 사람을 정한다.
 - 술레가 아닌 사람은 통로로 다니거나 ↔표 방향으로 건너 뛰어 도망다닌다.
 - 술레는 ‘통로로만 다니면서 도망다니는 사람을 손으로 친다.
 - 술레에게 채인 사람은 곧바로 술레가 된다.

- 선을 밟거나 밖으로 나가면 실격이 된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놀이를 계속한다.

⑥ 얼음 불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9일

제 보 자 : 최기승(13세, 남, 국민학교 6년생)

주 소 : 충청남도 서산군 팔봉면 양길리 2구

- 1) 노는시기 : 봄 · 가을
- 2) 노는장소 : 장애물이 없는 넓은 곳
-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여자들이 많이 한다. 6~8명 정도면 적당하다.
- 4) 놀이방법
 - 술레 한 사람을 뽑고, 도망다닐 수 있는 범위를 적당히 정한다.
 - 술레가 다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손으로 치고, 술레 아닌 사람은 술레를 피해 도망다닌다.
 - 술레가 치려고 할 때, 도망다니던 사람이 “얼음”하고 외치면 술레가 칠 수 없다. 그러나, “얼음”한 사람은 움직일 수 없다.
 - 술레에게 채인 사람은 곧바로 술레가 된다.
 - 다른 사람이 술레 몰래 ‘얼음’이 된 사람을 “불”하면서 쳐 주면 다시 움직일 수 있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되, 술레외의 놀이가 전원이 ‘얼음’이 되었을 경우, 그 중에서 술레 한 사람을 정한 후 다시 시작한다.

⑦ 꽃단지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9일

제 보 자 : 최기승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돌림바퀴’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겨울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여자들이 많이 한다.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다.

4) 놀이방법 (그림 12)

- 편을 갈라, 이긴 편은 공격을 하고 진 편은 수비를 한다.
- 공격편은 안의 원 ‘가’안에, 수비편은 바깥 나 ‘원’안에 각각 들어간다.
- 공격편은 원 ‘가’안에 있다가 바깥 원을 건너 뛰어 밖으로 나온다. 이때, 공격편이 원 ‘나’를 밟으면 실격이 된다.
- 수비편은 공격편이 나가지 못하도록 손으로 친다. 수비편에게 채인 공격자는 실격이 된다.
- 밖으로 나온 공격자는 수비편 몰래 원 ‘나’의 안에 한 다리를 넣고 찍는다. 이때, 발로 찍으면서 ‘발로 찍은 ‘수’를 크게 센다.
- 수비편은 공격자가 찍지 못하도록 자기 진영의 둘레를 돌아 다니면서 손으로 쳐야 한다. 또는 공격편을 쫓아서 밖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이때는 ‘앙감질로 다녀야 한다. (그림 13)
- 공격자는 찍다가 수비자가 치려고 하면 안의 원이나 밖으로 도망가서 다니다가 수비자 몰래 또 찍는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열 번을 찍고 공격편 진영인 원 ‘가’로 들어가면서 “만세”를 부르면 이긴다.
- 공격편은 한 차례에 계속해서 열 번을 찍을 수 있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 여러 차례 찍어 찍은 수의 합이 열번이 되면 된다.
- 앙감질로 쫓아 다닌 사람이 양 발을 땅에 대면 실격이 된다.

- 수비편 모두가 실격이 되거나, 공격편 중 한사람이라도 ‘열 번’을 찍고 자기 진영으로 들어가면 공격편이 이긴다.
- 공격편 모두가 실격이 되면 수비편이 이긴다.
- 공격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지 않고 다시 시작한다. 수비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 다시 시작한다.

⑧ 오재미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9일

제 보 자 : 최기승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사항 : 이 놀이를 조사 마을에서 ‘오재미 치기’로 불린다.

1) 노는시기 : 초겨울

2) 노는장소 : 넓고 평평한 곳

3) 놀 이 자 : 여자,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다.

4) 놀이용구 : 모래 주머니나 콩주머니 1개[이것을 ‘오재미’라 한다.]

5) 놀이방법

- 편을 가라, 이긴 편은 사각형 안에 들어가고, 진 편은 사각형의 좌우측 측면에 선다.
- 진 편은 모래 주머니를 던져 상대방편을 공격하고, 이긴 편은 사각형 안에 서 모래 주머니를 받거나 피하는 수비를 한다.
- 모래 주머니에 맞은 사람은 실격이 돼서 밖으로 나간다. 모래 주머니를 받으면 ‘한푼’으로 친다. 이때, 실격된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을 살려 불러들일 수 있고, 실격된 사람이 없으면 점수로 계산해서 저축한다. (그림 14)
- 진 편이 던진 모래 주머니에 동시에 둘 이상이 맞았을 때 ‘푼’이 없으면 다 실격되나, ‘푼’이 있으면 맞은 수 만큼 ‘푼’을 제한다. 예를 들면, ‘두 푼’이 있는데, 세사람이 맞았을 경우 두 사람은 살고 마지막 한 사람만 실격이 된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각형 안에 있는 사람이 모두 실격될 때까지 하는데, 한 사람이

남았을 경우 10번 던져서 맞히지 못하면 죽었던 자기편이 모두 들어온다. 이때, 모래 주머니를 받으면 가장 먼저 실격한 사람만 들어온다.

○ 사각형 안에 있는 사람이 선을 밟으면 실격이 된다.

○ 진 편이 사각형 안의 사람을 모두 실격시키면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 다시 시작한다.

⑨ 땡공치기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9일

제 보 자 : 김정태(12세, 남, 국민학교 5년생)

주 소 : 충청남도 서산군 팔봉면 양길리 2구

1) 노는시기 : 봄 · 여름

2) 노는장소 : 넓고 평평한 곳

3) 놀 이 자 : 남자, 1 : 1로 하거나 편을 나누어서 한다. 편을 나눌 때 한 편에 2~3명이면 적당하다.

4) 놀이용구 : 구슬 1개씩

5) 놀이방법

○ 편을 갈라 이긴 편이 먼저 하고 진 편은 그냥 지켜본다. (그림 15)

○ 1번 구멍에 왼손의 엄지를 대고 손가락 끝에 오른 손목을 대고, 구슬을 엄지와 중지로 튕겨서 2번 구멍에 넣는다. 이대 자기편 중 한 사람만 넣으면 되나, 한 사람도 넣지 못했을 경우 공격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간다. 상대방이 할 때에는 자기편 구슬을 그냥 땅에 놓는다.

○ 2번 구멍에서 3번 구멍으로 던진다. 이때, 상대방의 구슬이 땅에 놓여 있을 경우, 상대방 구슬을 한 번만 ‘까면’ 다음 구멍으로 이동할 수 있다. 상대방 구슬을 못맞추거나 구멍에 ‘넣지 못하면’ 자기 구슬을 제자리에 놓고, 자기편 다음 순서가 계속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①번 구멍에서 ⑥번 구멍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구멍 이동 순서〉

1→2→3→4→3→5→3→6→3→5→3→4→3→2→1→2→3→6→3

- 구멍 이동 순서에 따라 마지막 ③번 까지 오면 ‘범’이 된다. 이때는, 상대편의 구슬을 직접 맞히거나 순서에 관계없이 구멍으로 이동하면서 상대편 구슬을 맞힌다. ‘범’에게 맞은 구슬은 실격이 되어 그 판이 끝날 때까지 참여할 수 없다.
- 구멍을 이동할 때 상대편 구슬과 자기편 구슬이 놓이게 된다. 따라서, 여러가지 경우가 발생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든 짱알

자기가 가고자 하는 구멍이 아닌 다른 구멍에 구슬이 들어갔을 때를 ‘든짱알’이라고 한다. 이때는 실격이 되어 못하는데, 자기 구슬은 손에 든다. 다시 할 경우 1번에서 6번으로 올라갈 때 ‘든 짱알’이 되면 1번부터 하고, 6번에서 1번으로 내려올 때에 ‘든 짱알’이 되면 6번부터 시작한다.

◆ 손댄 짱알

자기가 해야 될 구멍 이외의 구멍에 손을 댔을 때 ‘손댄 짱알’이라고 한다. 이때도 실격이 되고 구슬은 손에 든다. 자기 차례가 되어 다시 시작할 때는 ‘든 짱알’과 같다.

◆ 깐 짱알

남의 구슬을 맞히고 자기 구슬이나 맞은 구슬이 구멍에 들어갔을 때 ‘깐 짱알’이라고 부른다. 이때, 구슬이 구멍에 들어갈려고 하면 손으로 막을 수 있다. ‘깐 짱알’이 되면 실격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한다. 올라갈 때는 1번부터 하고, 내려올 때는 6번부터 한다.

◆ 범

구멍 이동 순서에 따라 마지막 3번 구멍까지 왔을 때, ‘범’이 된다. 자기편 중 한 사람이라도 ‘범’이 되면, 각자 한 번씩 마음대로 다니면서 상대편 구슬을 맞추어 실격시킨다. 이때, 자기편 구슬을 맞히면 맞은 사람은 실격이 된다. 또, 상대편도 각각 한 번씩 움직이면서 피하거나, 구멍 이동 순서에 따라 이동해서 범이 될 수 있다. 범이 돼서 상대편 구슬을 모두 실격시킬 때까지 계속한다. 어느 한 편이 모두 실격되면

그 판이 끝나게 된다.

⑩ 땅 재먹기 (그림 16)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9일

제 보 자 : 김정태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유리 텅기기'로 불린다.

1) 노는시기 : 여름

2) 노는장소 : 평평한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남자들이 많이 한다. 편가르지 않고 각자 하는데 2~3명이면 적당하다.

4) 놀이용구 : 유리 조각 사금파리 1개씩[크기는 엄지손톱보다 조금 크게 한다]

5) 놀이방법

○ 모서리를 원심으로 삼아 두 뼘 정도의 1/4원을 그린 후 자기집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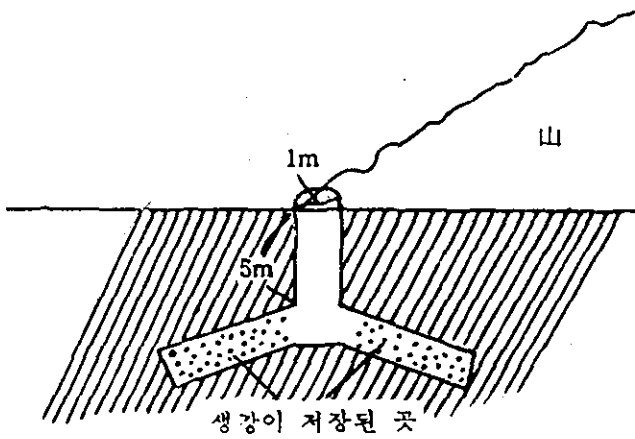
○ 자기 집에서 유리를 한 번 치고 나갔다가 두 번째에 자기집으로 들어와야 한다. 들어오지 못하거나 밖으로 나가거나, 또는 선에 닿으면 실격이 된다.

○ 유리를 치고 나갔다가 들어온 경로에 선을 그어 자기 땅으로 한 다음 [그림의 빗금 친 곳] 꺾어진 모서리의 A·B·C중 한 곳에서 한 뼘으로 원을 그려 자기 땅으로 한다. 엄지를 모서리 B에 대고 원을 그린다. 만약, 한 뼘을 재지 않고 그냥 하면 실격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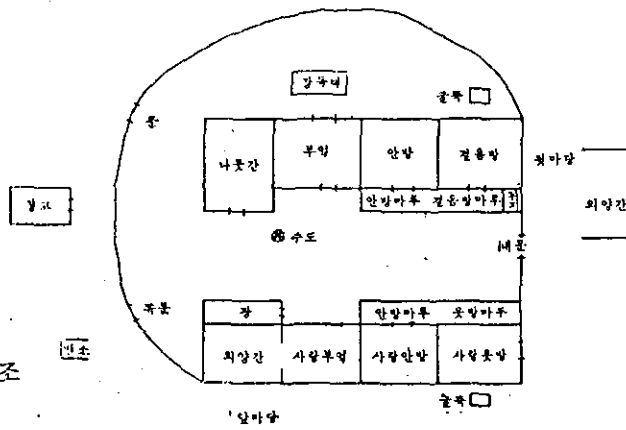
○ 자기가 넓힌 땅의 모서리와 상대편 땅과의 거리가 한 뼘이 되면 양쪽 땅 중 한 곳을 상대가 선택해 주면, 그 선택된 땅을 자기 땅으로 한다. 바꿔 말하면 한 뼘 거리 되는 부분에 선을 그어 나누어진 A·B 중에서 한 곳을 차지하게 된다.

○ 자기 유리가 상대편 땅에 들어가면 실격이 된다. 따라서, 상대편 땅은 뺏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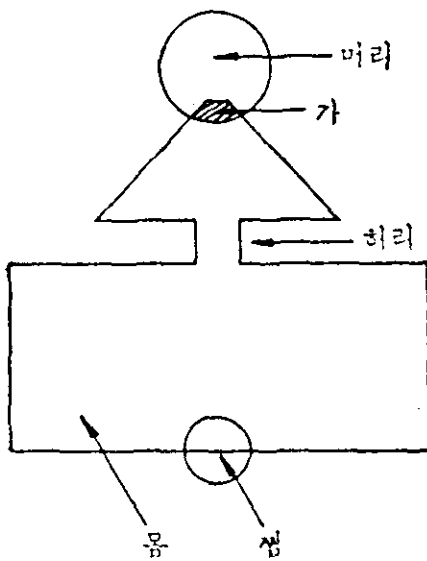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남은 땅이 한 뼘으로 훑어서 모두 닿으면 자기 땅으로 하고 판이 끝난다. 이때, 많은 땅을 차지한 사람이 이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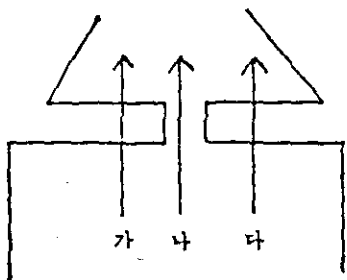
[그림 2] 생강을 저장하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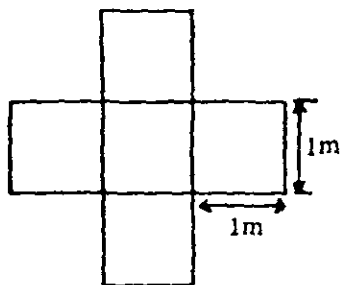
[그림 3] 양길리의 가옥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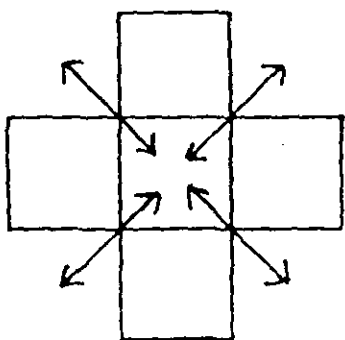
[그림 4] 오징어 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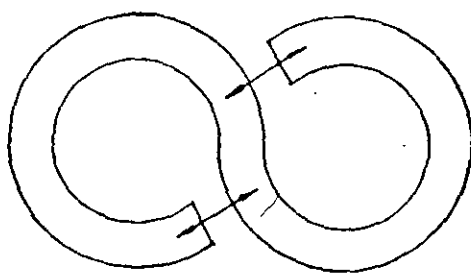
[그림 5] 오징어 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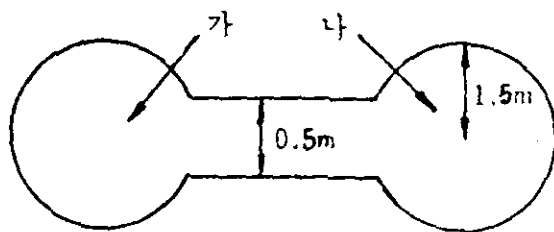
[그림 6] 십자가 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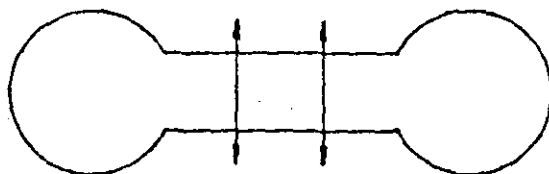
[그림 7] 십자가 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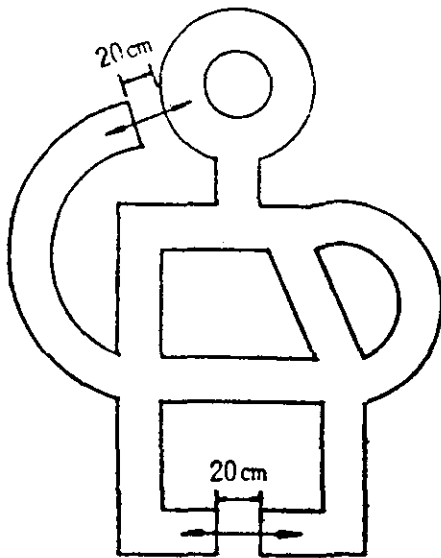
[그림 8] 팔자 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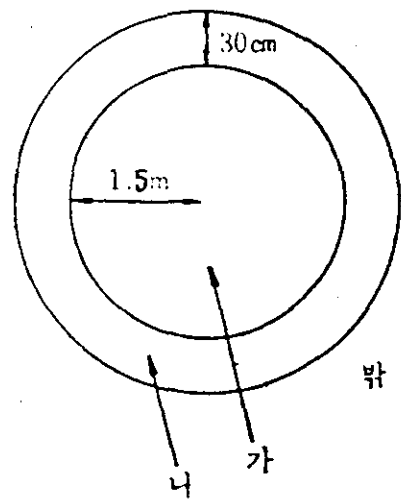
[그림 9] 안경 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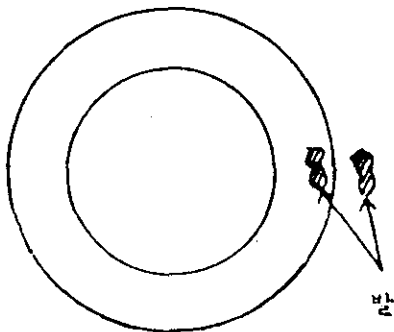
[그림 10] 안경 놀이



[그림 11] 사람 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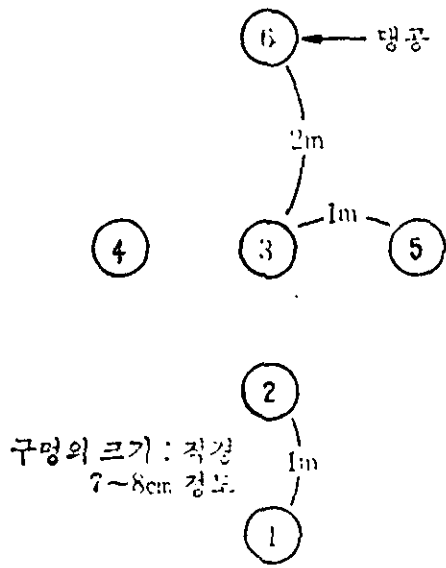
[그림 12] 꽃단지 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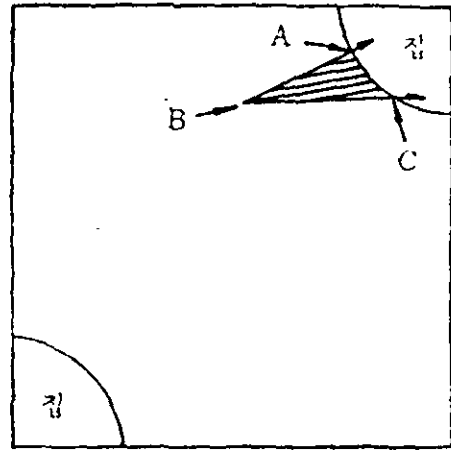
[그림 13] 꽃단지 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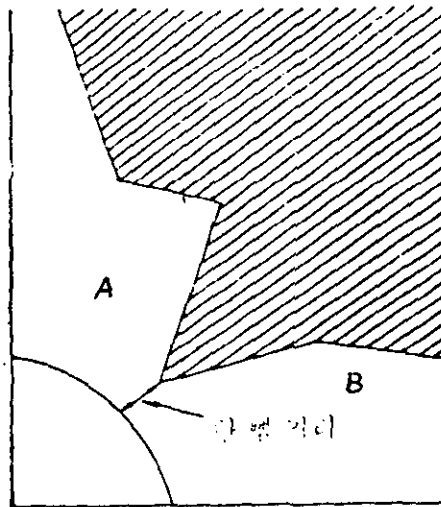
[그림 14] 오재미



[그림 15] 땡공치기



[그림 16] 땡재먹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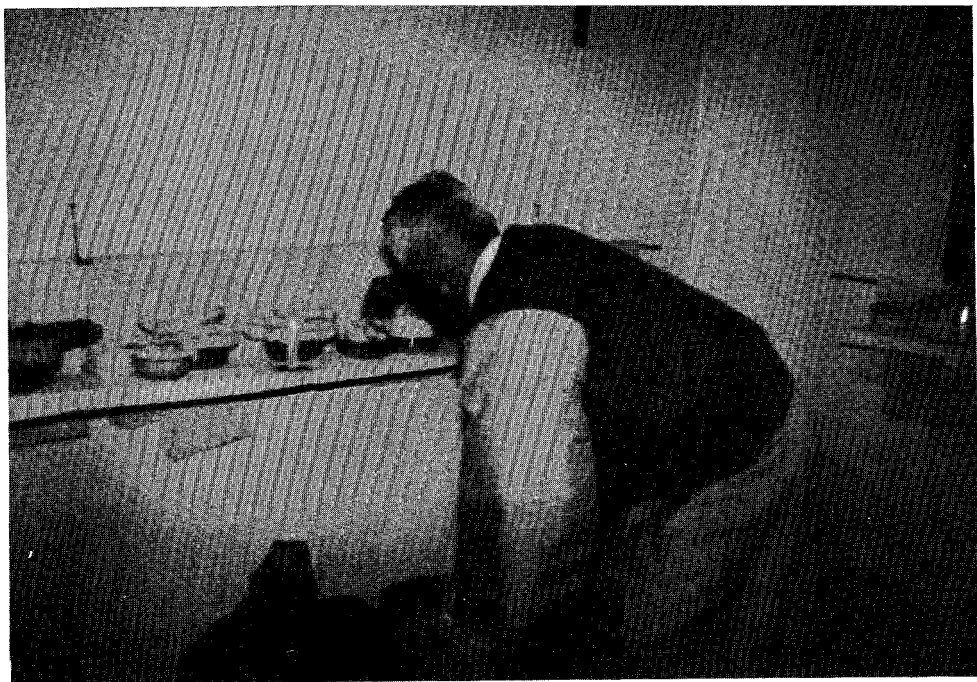
[그림 17] 땡재먹기



[사진 1] 영신당에 오를뻐기(부석면 창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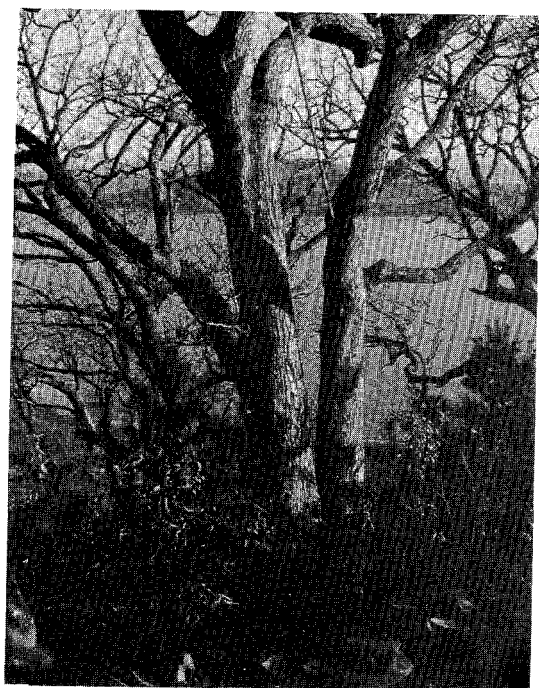
[사진 2] 영신당에 올린 뻐기(부석면 창리)



[사진 3] 영신당 제물진설(부석면 창리)



[사진 4] 고파도 산신당(팔봉면)



[사진 5] 황금산 산신당(대산면 뚝곳리)



[사진 6] 황도 서낭당(안면읍)

方 言 分 野

趙 載 勳

(公 州 大 學)

成 洛 秀

(韓國教員大學校)

一. 들어가는 말

본고는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군, 태안군 일대의 방언을 조사, 채록, 분석한 것이다.

여기에 사용한 질문지는 “韓國精神文化研究院, 語文學研究室”에서 펴낸 「韓國方言調查質問紙」로서 “第1篇”에서 “第五篇”까지에 해당된다.

이 질문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 語彙

1. 農事: (1) 耕作 (2) 打作 (3) 搗精 (4) 穀物 (5) 蔬菜
2. 飲食: (1) 副食 (2) 主食 (3) 別食 (4) 그릇 (5) 부엌
3. 家屋: (1) 家具 (2) 房 (3) 建物 (4) 마당 (5) 우물
4. 衣服: (1) 洗濯 (2) 服飾
5. 人體: (1) 머리 (2) 얼굴 (3) 눈 (4) 코·귀 (5) 세수 (6) 上體 (7) 下體 (8) 피부병 (9) 질병 (10) 生理
6. 育兒: (1) 발달 (2) 재롱 (3) 놀이
7. 人倫: (1) 가족 (2) 결혼 (3) 친척
8. 經濟: (1) 마을 (2) 대장간 (3) 單位 (4) 數
9. 動物: (1) 물고기(1) (2) 물고기(2) (3) 벌레 (4) 가축 (5) 산짐승 (6) 날짐승
10. 植物: (1) 꽃 (2) 나물 (3) 열매 (4) 과일 (5) 野生樹
11. 自然: (1) 산 (2) 돌 (3) 하루 (4) 時候 (5) 날씨 (6) 방향
12. 狀態: (1) 길이·두께 (2) 넓이·높이 (3) 수량·무게 (4) 색채·농도·깊이 (5) 감각·정서 (6) 맛 (7) 성품·인상
13. 動作: (1) 요리 (2) 수혜 (3) 갈무리 (4) 사육 (5) 놀이 (6) 이동 (7) 감각 (8) 교육 (9) 인체

II. 文法

(1) 代名詞 (2) 助詞 (3) 敬語法 (4) 時制 (5) 使動・被動 (6) 連結法尾 (7) 補助用言 (8) 副詞

Ⅲ. 音韻

(1) 單母音 (2) 二重母音 (3) 音長・聲調 (4) 抑揚 (5) 子音脫落 (6) 不規則活用 (7) 子音縮約 (8) 硬音化 (9) 非音節化 (10) 母音調和 (11) 움라우트 (12) 外來語

이중에서 “Ⅲ. 音韻”은 “서산시·서산군”은 “음운구조”만 다루고 나머지는 “비고”에 분석한 것으로 대신하였다.

“비고”란에 기록한 음운은 “서산시·서산군”과 “태안군”이 별로 다르지 않으므로, “서산시·서산군”의 음운구조에 나타난 음운으로 표기하였다.

조사된 자료는 가능한 한 표준어의 표기에 맞추어 표기했으며, 이는 음운의 표기라기보다는 형태소를 밝혀 적은 것에 가깝다.

뒤의 종합편에서는 이 방언의 특징을 음운, 문법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二. 서산시·서산군

○ 피조사자 : 이광희(여자, 70세)

조 사 자 : 전익진

조 사 지 : 충남 서산시 읍내동

조 사 일 : 1990. 8. 26

○ 피조사자 : 배동선(남자, 41세)

조 사 자 : 전익진

조 사 지 : 충남 서산군 대산면 뚝곶리

조 사 일 : 1990. 9. 20

I. 어 휘

1. 農事

(1) 耕作

표준어	방언	비고
벼	베	/jə/→/e/
벼이삭	베이삭	/jə/→/e/
(이삭)팬다	(베(이삭))팬다	
벼(열매)	베	/jə/→/e/
뉘	뉘(/nwi/)	/y/→/wi/
뽕씨	씨나락/뽕씨	/jə/→/e/
못자리	못자리	
짐매다	짐매다	/k/→/č/
애벌(매다)	아시(매다)	
두벌(매다)	두벌(매다)	
일꾼	늬	
결두리	실참	
뽕과리	깡가리	/wɛ/→/ɛ/ /wa/→/a/
쟁기	쟁기	
보습	보십	/i/→/i/
쇠	세	/φ/→/e/
벗	벗	
극쟁이	곡쟁이	
씨레	쓰레	/ə/→/i/

번지	번대
호미	호미
자루	자루
괭이	괭이 /k/→/k ^h /
쇠스랑	삼소시랑 /φ/→/o/
삽	삽
농기구	연장

(2) 打作

벧단	벧다발	/jə/→/e/
벧가리	벧가래	/jə/→/e/
벼훑이	천치	
그네	그네	
개상	개상	
짚	집	/p ^h /→/p/
새괘기	집어락테기	
꼬다	(샌내끼)꼬다	
노끈	노깡이	
도리깨	도리깨	
명석	명석	
(짚)방석	맷방석	
광주리	광주리	
바구니	바구리	/n/→/l/
떡동구미	떡구리	
삼태기	삼태미	/k/→/m/

(3) 搗精

절구	절구	수수	쭈수	/s/→/s'/
절구공이	줄긋대/절긋대	수숫잎	쭈수잎	/s/→/s'/
디딜방아	디딜방아	깨	꽤	/ɛ/→/wɛ/
확	확 /wa/→/a/	참깨	참꽤	/ɛ/→/wɛ/
맷돌	매	들깨	들꽤	/ɛ/→/wɛ/
암쇠	웃작(암세)	(곡식)사다	팔다	
숫쇠	아랫작(숨세)	(곡식)팔다	돈산다	
쌌기	미식미	옥수수	옥수깻이	
빔	쌌기			

(4) 蔬菜

왕겨	왕겨 /wa/→/wɛ/	무우	무수	/s/첨가(고어)
등겨	등겨	우무말랭이	무수말랭이	/s/첨가(고어)
키	치 /k ^h /→/č ^h /	장다리무우	콩다리무수	/s/첨가(고어)
까불다	까불르다			/s/→/s'/
어레미	얼맹이	시래기	씨라기	

채소 채소 /ɛ/→/a/

나물 너물 /a/→/ə/

고깻이 꼬깻이

파 파

파씨 파씨

고구마 고구마

감자 보리감자

가지 가지

(3) 穀物

보리	보리	
깁부기	깁베기	/u/→/e/
밭	밧	/t ^h /→/s/
밭둑	밧둑	
밭두둑	밧두둑	
밭고랑	밧고랑	
밭이랑	밧이랑	
팻	팻	/t ^h /→/s/
조	스숙	
조이삭	스숙이삭	

2. 飲食

(1) 副食

김치	침치	/k/→/č/	가루	가루	
깍두기	깍두기		흰떡	힌떡	/ü/→/i/
간장	지랑	고어	가래떡	가래떡	
두부	두부		백설기	백설기	
불리다	불리다		밀기울	밀지울	/k/→/č/
콩나물	콩나물		국수	국수	
상추	부루／상추	고어	꾸미	꺄	/u/→/we/
오이	우이	/o/→/u/	새알심	새알시미	/i/첨가
오이소박이	우이수백이	/a/→/ε/	수제비	수제비	
오이지	우이지	/o/→/u/	과줄	과줄	
부추	쫄	고어	튀밥	광밥	
김	김		옛기름	옛지름	/k/→/č/
반찬	반천	/a/→/ə/	식혜	감주	
국물	국물		감주	감주	

(2) 主食

술	숫	/tʰ/→/s/
가마	가마숫	/tʰ/→/s/
이남백	아남백	/i/→/a/
노리	조랭이	
주걱	주걱	
누룽지	누룽갱이	
눌은밥	눌음밥	/n/→/m/
송늬	송늬	/ju/→/i/ /n/→/m/

(3) 別食

(4) 그릇

그릇	그릇	
시루	시루	
시루번	시룻번	
뚜껑	뚜껑	
술뚜껑(쇠)	숫뚜껑	
술뚜껑(나무)	숫뚜껑	
장독뚜껑	장독뚜껑	
항아리뚜껑	항아리뚜껑	
사발뚜껑	사발뚜껑	
주발뚜껑	주발뚜껑	
뚝배기	뚝배기	

바가지	바가지		시렁	실경	/k/ 첨가(고어)
			선반	선반	
(5) 부엌			서랍	서랍	
부엌	부엌	/k ^h /→/k/	궤	궤(짝)	
아궁이	아궁이		자물쇠	문통	
부뚜막	부뚜막		열쇠	인을세	/jə/→/jĩ/ /jise/
부지깥이	부지깥이		배개	버개	/e/→/ə/
고무래	고무래		퇴침	테침	/φ/→/e/
부삽	부삽		누비이불	늬빋니불	/u/→/wi/ (nwipinnipul)
숯	숯	/č ^h /→/s/			
참숯	참숯	/č ^h /→/s/			
화로	화루	/o/→/u/	(2) 房		
화롯불	화롯불	/o/→/u/	마루	말래	/l/ 첨가 /u/→/ε/
부젓가락	부젓가락		미닫이	밀창문	
다리쇠	삼발이		둘찌귀	둘찌귀	/y/→/wi/ (/tolc'əkwi/)
석쇠	적세	/s/→/č/	벽	벽	
담뱃대	담뱃대	/ε/→/o/	굽도리	굽도리	
성냥	성냥		흙손	흑손	/lk/→/k/
부시	부싯돌		풀비	풀비	
굴뚝	굴뚝		종이	종이	
그을림	끄림	/k/→/k'/	구겨지다	구겨지다	
넙다	맷다		구기다	구기다	

3. 家屋

(1) 家具

살강 살강

(3) 建物

지붕 지뵤 /u/→/ə/

사닥다리	사닥다리		또아리	똥아리	/ŋ/첨가
기와집	지와집	/k/→/č/	도랑	또랑	/t/→/t'/
초가집	초가집		개울	개울	
이엉	이엉		수렁	수랑	/ə/→/a/
엮다	엮다		거품	거름	
이다	헤이다		구멍	구멍	

용마름 용마루

기둥 지둥 /k/→/č/

4. 衣服

주춧돌 주춧돌

서까래 서까래

(1) 洗濯

쳐마 쳐마

빨래 빨래

추녀 추녀

빨다 빨다

낙수물 추녀물

애벌 아시

고드름 고두름 /i/→/u/

두벌 두벌

다듬잇돌 다듬이

다듬이질 다듬이질

(4) 마당

울타리 울타리

다리미 대리미 /a/→/ɛ/

담 담

인두 인두

뜰 뜨란

다리다 대리다 /a/→/ɛ/

뒤곶 뒤곶

(2) 服飾

장독대 장독대

변소 벤소／뒹간 /jə/→/e/

허리띠 허리띠

두루마기 두루매기 /a/→/ɛ/

(5) 우물

샘 샘

염낭 주먼지

우물 우물

고쟁이 고쟁이 /a/→/ɛ/

두레박 두레박

잠방이 잠뱅이 /a/→/ɛ/

두더기 누데기 /ə/→/e/

버선 버선

대님 재님 /t/→/č/

(대님)매다 (재님)치다 /t/→/č/

짚신 집신 /p^h/→/p/

삼다 삼다

나막신 나막신

옷감 옷감

(옷감)꿨다 (옷감)꿨다

혼수감 혼수감

홀옷 홀것

형겹 흥겹 /ə/→/i/

집다 집다 /k/→/č/

재봉틀 재봉틀

골무 골무

가위 가새 고어

반질고리 반질그릇

호다 흠치다

베 베

숨 숨 /o/→/u/

목화 목화

씨아 씨아시

누에 뉘 /ue/→/we/

고치 고추

번데기 번디기 /e/→/i/

누에나방 누에나비

뽕나무 뽕나무

오디 오대 /i/→/ɛ/

5. 人體

(1) 머리

머리 머리

대가리 대가리

돼지머리 돼지머리

머리카락 머리카락

가마 가마

가르마 가름마 /m/첨가

(가르마)타다 (가름마)타다 /m/첨

가

비듬 비듬

(2) 얼굴

턱 턱

수염 섬 /uja/→/jə/

턱수염 턱섬 /uja/→/jə/

콧수염 콧섬 /uja/→/jə/

구렛나룻 구렛나루

목 목

모가지 모가지

얼굴 얼굴

뺨 뺨

볼 볼

보조개 보조개

주름살 주름

(3) 눈			(5) 세수		
눈	눈		세수대야	시숫대	/e/→/i/
검은자위	검은자위		비누	비누	
흰자위	흰자위	/i/→/i/	목욕	목욕/목간	
눈두덩	눈두렁	/t/→/l/	목물	등목	
(눈두덩)붓다	(눈두렁)붓다		거울	거울	
눈썹	눈썹		빗	빗	
눈곱	눈곱		얼레빗	얼레빗	
다래끼	눈다락지		·참빗	참빗	/a/→/ε/
소경	쉬경	/o/→/wi/	(6) 上體		
애꾸	애꾸	(/swikjən/)	손	손	
			원손	엔손	/φ/→/e/
			오른손	오른손	
			손바닥	손바닥	
			손가락	손구락	/a/→/u/
			마디	매디	/a/→/ε/
			대마디	대마디	
			겨드랑	저드랑	/k/→/č/
			젖	젖	/o/→/u/
			배꼽	배꼽	
(4) 코·입			(7) 下體		
코	코		허리	허리	
입술	입술		다리	다리	
혀	섭바닥	/h/→/s/ /jə/→/ə/	엉덩이	웅덩이	/ə/→/i/
병어리	병어리		궁둥이	궁둥이	/u/→/i/
말더듬이	반병어리				
귀	기	/y/→/i/			
귓볼	기볼알	/y/→/i/			
귀에지	깃숙	/y/→/i/			
귀머거리	기머거리	/y/→/i/			
귀먹다	기먹다	/y/→/i/			

넓적다리	넓적다리		홍역	흔역	/ŋ/→/n/
무릎	무릅	/p ^h /→/p/	감기	고뿔	
오금	오금(다리)				
저리다	절리다	/l/첨가	(10) 生理		
정강이	정갱이	/a/→/ɛ/	팔꿈질	팔꼭질	
뼈	빼	/jə/→/e/	사레	사레	
복사뼈	복승아뼈	/jə/→/e/	트림	트름	/i/→/ĩ/

(8) 피부병

부스럼	부스럼		재채기	재치기	/e/→/i/
고름	고름	/i/→/u/	하품	하품	
사마귀	사막		기지개	짐지개	/k/→/č/
두드러기	두드레기	/ə/→/e/	줄음	줄림	
땀띠	땀떼기		방귀	방기	/y/→/i/
버짐	버짐		(방귀)뀌다	(방기)끼다	/y/→/i/
기계충	기계충		구린내	구룬내	/i/→/u/
주근깨	주근깨		고린내	고룬내	

6. 育兒

(1) 발달

명	명		갓난아이	갓난애기	
			돌	돌	
			어린애	어린내	/n/첨가
			여자아이	기집애	
			남자아이	남자애	
			기저귀	지제기	/k/→/č/
					/ə/→/e/
			똥	똥	

(9) 질병

언청이	어청이	/n/탈락 /ə/→/e/			
곰보	곰보				
천연두	손님				
학질	하루살이				

오줌	오줌		사금파리	새금파리	/a/→/ε/
마렵다	매렵다	/a/→/ε/	소뽕질	소뽕장난	
누다	누다		숨바꼭질	감추기장난	
뉘다	뉘다 (/nwita/)	/y/→/wi/	목말	목말	
싸다	싸다		자치기	테끼치기	
지리다	지리다		작은막대	жат데기	
포대기	퍼대기	/o/→/ə/	큰막대	테끼작/멧데기	
			제기	제기	

(2) 재롱

재롱(떨다)	재롱(떨다)		쥐불놀이	쥐불 (/cwipul/)	/y/→/wi/
죄암죄암	재암재암		웃	웃	/čh/→/s/
곤지곤지	곤지곤지		도	도	
도리도리	도리도리		개	개	
짜짜궁	짜짜궁		걸	걸	
아장아장	아장아장		웃	사짜	
부라부라	부라부라		모	모	
안다	안다		그네	그네	
안기다	앵기다	/a/→/ε/ /n/→/ŋ/	썰매	썰매	
버릇	버릇		팽이	팽이	
엄살	엄살		얼레	연자쇠	
새암	셈	/εa/→/ε/	굴렁쇠	굴렁세	/φ/→/e/

7. 人倫

(3) 놀이

공기	공기	
고누	고니	/u/→/i/

(1) 가족

어머니	어머니
엄마	엄마

어미	에미	/ə/→/e/	매제	매제	
아버지	아버지		매부	매부	
아빠	아빠		시숙	시숙	
아비	애비	/a/→/ε/	시동생	시동생	
할머니	할머니		도련님	데련님	/o/→/e/
할아버지	할아버지		서방님	서방님	
형	성	/h/→/s/ /jə/→/ə/	홀아버	홀애비	/a/→/ε/
			홀어미	과부	
언니	언니		환갑	한갑	/wa/→/a/
누나	누나/누님		환갑잔치	한갑잔치	/wa/→/a/
오빠	오빠		효자	효자	
아우	아우				
아우보다	아우보다				
아우타다	아수타다	/s/첨가			

(2) 결혼

결혼	결혼				
결혼잔치	결혼잔치				
며느리	메누리	/jə/→/e/ /i/→/u/			
처녀	츠녀	/ə/→/i/			
새색시	새색시				
사위	사위 (/sawi/)	/y/→/wi/			
올케	올케				
시누이	시늬 (/sinwi/)	/ui/→/wi/			
매형	매향	/ja/→/ja/			

(3) 친척

백부	큰아버지	
중부	둘째아버지	
숙부	작은아버지	
삼촌	삼촌	/o/→/u/
조카	조카	
조카딸	조카딸	
이모	이모	
고모	고무	/o/→/u/
남	넴	/a/→/ə/

8. 經濟

(1) 마을

이웃	이웃
----	----

마을	말	/ai/→/a/	포기	포기	
이야기	애기	/ija/→/je/	뺨	뺨	
마을간다	마실간다	/s/첨가	자루	자루	
가게	가게		두름	두름	/i/→/u/
구멍가게	상점		축	축	
얼마	얼마		못	못	
잔돈	잔돈		꾸러미	꾸레미	/ə/→/e/
거스르다	거슬르다	/l/첨가	접	접	
거스름돈	거슬름돈	/l/첨가	필	필	
우수리	우수리		병	비응	/jə/→/ji/
에누리	에누리				
덤	듬	/ə/→/i/			

(3) 數

(2) 대장간			하나	하나	
			둘	둘	
대장간	대장간		셋	싯	/e/→/i/
풀무	불무／풍구	/ph/→/p/	넷	닛	/e/→/i/
모두	모두		다섯	다섯	
모루채	무루채		여섯	여섯	
벼리다	벼리다		일곱	일곱	
바퀴	바키	/y/→/i/	여덟	여덟	

(3) 單位

마지기	마지기		열	열	
마리	마리		세다	시다	/e/→/i/
쌍	쌍		스물	스물	
컬레	컬레		설흔	설흔	
그루	그루		마흔	마흔	
			췌	췌	

예순	예순	미꾸라지	미끄락지	
일흔	일흔	송사리	송사리	
여든	여든	중고기	중게기	/o/→/e/
아흔	아흔	피라미	피래미	/a/→/ɛ/
백	백	올챙이	올챙이	
하루	하루	개구리	개구락지	
이틀	이틀	두꺼비	두께비	
사흘	사흘			
나흘	나흘			
닷새	닷새			
엿새	엿새			
이레	이레			
여드레	여드레			
아흐레	아흐레			
열흘	열흘			

(2) 물고기(2)

멸치	메르치	/i/첨가
젓	젓갈	
갈치	갈치	
가오리	갱괌이	
게	그이	/e/→/ii/(고어)
새우	새우	
다슬기	고등	
우렁이	우렁	
달팽이	달팽이	

9. 動物

(1) 물고기(1)

고기	게기	/o/→/e/
생선	생선	
민물고기	민물게기	/o/→/e/
고기	(살)케기	
미끼	이깎	
지느러미	지느레미	/ə/→/e/
아가미	애개미	/a/→/ɛ/
창자	창세기	

(3) 벌레

서캐	서캐	
벼룩	베룩	/jə/→/e/
모기	모기	
장구벌레	곤두벌레	
파리	파리	
쉬	쉬	/y/→/wi/
	(/swi/)	

쉬슬다	쉬슬다	/y/→/wi/	암소	암소	
구더기	구디기	/ə/→/i/	송아지	송아지	/č/→/čʰ/
지렁이	지렁이	/ə/→/e/	고삐	코삐	/k/→/kʰ/
회충	헤(충)	/φ/→/e/	끌다	끌다	
거머리	그머리	/ə/→/i/	명에	명에	
벌레	벌레		소입막이	쉬망 (/swimaŋ/)	
날벌레	날벌레		외양간	오양간	/φ/→/o/
바구미	바구미		두엄	뒤엄	/u/→/wi/ /twijəm/
굼벵이	굼벵이				/ə/→/jə/
노래기	노래기		발채	바지개	
진딧물	진디(물)		작대기	작대기	
하루살이	하루살이		구유	구수	/s/첨가
거미	거미		여물	여물	
메뚜기	메떼기	/u/→/e/	여물광	여물광	
여치	유치	/jə/→/ju/	쇠죽	소이죽	/φ/→/oi/
버마재비	방앗개비		쇠죽바가지	소이죽바가지	/φ/→/oi/
소금재이	소금쟁이				
방개	방개		염소	염생이	
반딧물	개똥벌레		말	말	
벌	부리	/ə/→/u/ /i/첨가	망아지	망아지	
			마구간	마굿간	
땅벌	땅부리		뛰다	뛰다(담박질하다)	
진드기	진딧물		개	가이	/ε/→/ai/
			수캐	수카이	/ε/→/ai/
(4) 가축			암캐	암카이	/ε/→/ai/
소			강아지	강아지	
황소	황소		고양이	괭이	/oja/→/wε/

암코양이	암쟁이	/oja/→/wɛ/	올가미	올무	
수코양이	수쟁이	/oja/→/wɛ/	삼쟁이	삼쟁이	
닭	닥	/lk/→/k/	쥐	지	/y/→/i/
수닭	수탁	/lk/→/k/	박쥐	박지	/y/→/i/
암닭	암탁	/lk/→/k/	다람쥐	다람지	/y/→/i/
병아리	빙아리	/jə/→/i/	두더쥐	두데기	
닭털	닥털	/lk/→/k/			
닭의 머리	중두리		(6) 날짐승		
벼슬	베슬	/jə/→/e/	새	새	
모이	모시	/s/첨가	깃	깃(털)	
닭똥	닥똥	/lk/→/k/	매	매	
닭장	닥장	/lk/→/k/	솔개	소로개	
달걀	달걀		까치	까치	
노른자위	노른자		까마귀	까그매	
흰자위	흰자	/ij/→/i/	빼꾸기	빼꿍새	
거위	거위	/y/→/wi/	뜸부기	뜸베기	/u/→/e/
	(/kəwi/)		딱다구리	딱따구리	
돼지	도야지	/wə/→/oja/	평	평	
돼지우리	돼지집		까투리	깨투리	/a/→/ɛ/
오래오래	고래고래		장끼	쟁끼	/a/→/ɛ/
산돼지	산도야지	/wə/→/oja/			

(5) 산짐승

여우	여수	/s/첨가
노루	노루	
토끼	테끼	/o/→/e/
덧	덧	/čh/→/s/

10. 植物

(1) 꽃

꽃	꽃	/čh/→/s/
꽃봉오리	꽃봉우리	/čh/→/s/
봉선화	봉숭아	

해바라기	해바라기		능금	능금	
파리	파리		배	배	
파리불다	파리불다		돌배	독배	/l/→/k/
진달래	진달래		껍질	껍줄	/i/→/u/
철쭉	철쭉		보늬	속껍질	
도깨비바늘	도깨비바늘		복숭아	복숭아	
취	취	/lk/→/k/	홍시	홍시	
덩굴	덩쿨	/k/→/k ^h /	과일	과일	
			자두	자두	
			호두	호두	

(2) 나물

냉이	나신깁이	고어
질경이	질깁이	/ja/→/e/
달래	달리	/ε/→/i/
씀바귀	씀바기	/y/→/i/
고들빼기	고들빼기	
고비	해치미	
벨기	빼비	

(3) 열매

딸기	딸기	
개암	개암	
머루	머루	
다래	다래	
고염	계염	/o/→/e/

(4) 과실

사과	사과	
----	----	--

(5) 野生樹

도토리	도투리	/o/→/u/
떡갈나무	떡갈나무	
상수리	상수리	
상수리나무	참나무	
뿌리	뿌리	
그루터기	등걸	
줄기	줄기	
가지	가쟁이	
삭정이	삭쟁이	/ə/→/e/
솔가리	솔걸	
갈퀴	갈키	/y/→/i/
그러모으다	긱어모으다	
도끼	두치	/o/→/u/ /k'/→/č ^h /

11. 自然

(1) 山

산마루	산꼭대기	
기슭	산중턱	
묘	모이	/jo/→/oi/
언덕	언덕배기	
비탈	비탈	
벼랑	낭떠러지	
메아리	매아리	

(2) 돌

바위	바위	
돌	돌맹이／돌막	
자갈	자갈	
모래	모새／모래	
흙	혹	/lk/→/l/
이끼	이끼	
이끼끼다	이끼찌다	/k'→/č/

(3) 하루

아침	아침	
아침방	아침(밥)	
새벽	새벽	/ja/→/ə/
새벽밥	새벽밥	/ja/→/ə/
낮	낮	
저녁	저녁	

저녁밥

저녁(밥)

노을	북새	
해거름	땅거미	
별	비율	/ja/→/jil/
	(/pjil/)	
은하수	은하수	
달무리	달마루	
해무리	헨마루	

(3) 時候

내일	니얼	
글피	글피	
그글피	그글피	
어제	어제	
그저께	그저끼	/e/→/i/
그끄저께	그끄저끼	/e/→/i/
요즈음	요새	
선달그믐날	순달그믐날	/ə/→/i/
작은설	죽은설	/a/→/i/
묵은세배	묵은시배	/e/→/i/

(4) 날씨

이슬비	이슬비	
가랑비	가랑비	
소나기	쏘내기	/s/→/s'/
		/a/→/ε/
번개	번개	

벼락	베락	/jə/→/e/	(1) 길이 · 두께		
우박	우박		굵다	굵다	
홍수	홍수		깎다	깎다	
가을	갈	/aĩ/→/a/	뽀죽하다	빼죽하다	/jo/→/e/
가을하다	가을건이		길다	질다	/k/→/č/
겨울	줄	/k/→/č/	짧다	짧다	
		/jəu/→/ɪ/	작다	작다	

진눈깨비	진눈깨비		(2) 넓이 · 두께		
회오리바람	회오리바람				
먼지	몬지	/ə/→/o/	높다	높다	
아지랑이	아지랭이	/a/→/ɛ/	높이다	높이다	
			낮다	낮다	

(5) 방향			낮추다	낮추다	
구석	구석쟁이		넓다	늪다	/ə/→/i/
위	위(/wi/)	/y/→/wi/	넓히다	늪히다	/ə/→/i/
윗마을	웃마을	/y/→/u/			

아래	아래		(3) 수량 · 무게		
덜	덜		없다	웁다	/ə/→/i/
앞	앞		없애다	웁애다	/ə/→/i/
뒤	디	/y/→/i/	많다	많다	
결	결	/k/→/č/	가볍다	개볍다	/a/→/ɛ/
모퉁이	모텡이	/u/→/e/	쉽다	십다	/y/→/i/
몹	몹		어렵다	에렵다	/ə/→/e/
어디	워디	/ə/→/wə/			

12. 狀態			(4) 색채 · 농도 · 깊이		
			깊다	죵다	/k/→/č/
			얕다	얕다	

구워	구어	/wə/→/ə/	바꾸다	바꾸다	
삶다	삶다	/s/→/s'/	바뀌다	바끼다	/y/→/i/
끓다	끓다		나누다	나누다	
끓이다	끓이다				

식히다	식히다		(3) 갈무리		
마시다	마시다		짚다	짚다	
붓다	붓다		짹다	짹다	
젓다	줏다	/ə/→/i/	훈다	훈다	
무치다	무치다		매달다	매달다	
튀다	티다	/y/→/i/	매달리다	매달리다	
튀기다	티기다	/y/→/i/	괘다	괘다	/we/→/e/
			쌍다	쌍다	

(2) 수혜			쌍이다	쌍이다	/a/→/ε/
달다	달다		문다	문다	
달라고	달라구	/o/→/u/	밟다	밟다	
꾸다	꾸다		꽃다	꽃다	
흠치다	흠치다		얼다	을다	/ə/→/i/
땀다	땀다	/t/→/t'/	얼리다	을리다	/ə/→/i/
씻다	씻다		마르다	말르다	/l/침가
숨기다	숨기다		말리다	말리다	
줍다	줏다	/p/→/s/	씩다	씩다	
읽다	읽다		씩이다	씩히다	/ə/→/e/
잊다	잊다		버리다	베리다	/ə/→/e
뒤지다	디지다	/y/→/i/			
뒤집다	디집다	/y/→/i/	(4) 사육		
말다	말다		실다	실다	
말기다	맬기다	/a/→/ε/	실리다	실리다	

묶다	묶다		뛰다	떠다	/y/→/i/
묶이다	묶이다		쫓다	쫓다	
치우다	치우다		오다	오다	
기르다	길르다	/l/첨가	가져오다	가져오다	
가두다	가두다		끝다	끝다	
감히다	감히다		끝리다	끝리다	

(5) 놀이

만들다	맨들다	/a/→/ε/	돌리다	돌리다	
부수다	부시다	/u/→/i/	괴다	게다	/φ/→/e/
자르다	잘르다	/l/첨가 /č/→/č'/	뜨다	뜨다	
꿇다	꿇다		웁다	웁다	
꿇기다	꿇기다		웁기다	엥기다	/o/→/e/ /m/→/n/

맞추다	맞추다
잇다	잇다

이어서	잇어서
잇고	잇구

떼다	떠다	/e/→/i/
메우다	메우다	
뚫다	뚫다	

(6) 이동

가다	가다
기다	기다
걸다	걸다
걸리다	걸리다

(7) 감각

켜다	써다	/k ^h /→/s'/
		/jə/→/ə/

보다	보다	
보이다	베다	/oi/→/e/
올려다보다	올려다보다	
들여다보다	디려다보다	/i/→/i/

지껄이다	지껄이다
훑다	훑다
알다	알다
알리다	알리다
놀라다	놀라다

제가	지가	/e/→/i/	-(으)세요	여기 앉으 <u>슈</u>
너	너			
너희	느이	/ə/→/i/ /i:/→/i/ /h/탈락		(청유)
네가	니가	/e/→/i/	-자	같이 가 <u>잔</u>
			-세	마시 <u>세</u>
			-(으)비시다	가 <u>슈</u>

2. 조사

		(서술)	
-이/-가	책 <u>이</u> 많다	-는/-는다	나 가 <u>느</u> 다.
	소 <u>가</u> 간다.		밥 먹 <u>느</u> 다
-은/-는	보리 <u>는</u> 눈이 심구,	-네	나 죽 <u>네</u>
	배 <u>는</u> 밭이 심는다.	-아/-어요	집이 가 <u>슈</u>
-을/-를	물 <u>을</u> 준다		
	도야지 <u>를</u> 잡는다.	(의문1)	
-에/-에게	저 사람 <u>한테</u> 물어라	-니	비 오 <u>니</u> ?
	집 <u>이</u> 간다.	-나	눈 오 <u>나</u> ?
	총소리 <u>에</u> 놀랐다.	-아/-어요	비 와 <u>슈</u>
-와/-과	나 <u>하</u> 구 같이 가자		
-아/-야	칠수 <u>야</u>	(의문2)	
	바둑 <u>야</u>	-니	위디 가 <u>니</u> ?
		-는가	집이 가는 <u>가(ㄱ)</u> ?
		-(으)세요.	위리 가 <u>슈</u> ?

3. 경어법

	(명령)		(의문3)
-어/-아라	여기 앉 <u>어</u>	-이니	이게 돈 <u>이</u> 냐?
	집이 가 <u>라</u>	-인가	이게 돈 <u>인</u> 가(ㄴ)?
-게	이것 좀 사 <u>게</u>	-이어요	오늘이 장날 <u>이</u> 유?

(의문4)

-이나 이게 책이나?
-인가 동생인가(ㄴ)?
-이어요 돈이유?

(부가의문)

-그랬잖아 그랬잖아?
-그랬지 그랬지?
-(으)시 집이 기시니?
 위디 기시유?
 누워 기시유?
 입으셔야겠유?

4. 시제

-겠- 가졌남?
 비 오졌다?
-는/ㄴ- 밥 먹는다
 나 가는다
-았/았- 가았다
 죽었다
-더- 가더라
 죽었더라
 가더

(관형형)

-은 죽은 사람
-았/었던 어제 가았던
 내가 살았던
-는 집이 가는 사람
-고 있는 가고 있는디
-을 집이 가르사람
 밥 먹을 놈

5. 使動, 被動

닭개하다 닭개하다
 닭이다 닭이다
빨게하다 빨게하다
 빨리다 빨리다
쓰게하다 쓰게하다
 씨우다 씨우다
실리다 실리다
 닭이다 닭이다
 뚫리다 뚫리다
만져지다 만져지다
 갈리다 갈리다
 홀리다 홀리다
 기다려지다 지다려지다

6. 연결어미

- (으)면 - (으)면

-(으)면서 -(으)면서
 -지(를) -지(를)
 -(으)니(까) -(으)님께
 -느라고 -느라구
 -게 -게
 -라/다고 -라/다구

일부러 일부러
 알맞게 마치맞게
 살짜기 살찌기
 모두 모두/전부/다
 송두리째 통채
 얼마나 을매나
 어찌 워찌
 왜 왜
 예 예
 그래 기여

(7) 補助用言

싶다 싶다
 -는가/나 보다 -는가/나 보다
 버리다 빠리다
 대다 대다
 않다 않다

III. 음 운

(8) 부사

찬찬히 찬찬이
 널리 넓게
 잘 잘
 좋이 좋게
 깨끗이 깨끗히
 빨리 빨리
 곧장 바로
 갑자기 갑자기
 나중에 나중에
 먼저 먼저
 설마 설마
 하마터면 까닥했으면

(1) 단모음

티 티(/t^{hi}/)
 쥐(鼠) 지(/ci/)
 틀(機) 틀(/t^{hi}l/)
 꿀(密) 꿀(/k'ul/)
 테(輪) 테(/t^{he}/)
 쇠(金) 세(/se/)
 털(毛) 털(/t^həl/)
 꼴(形) 꼴(/k'ol/)
 태(胎) 태(/t^{he}/)
 달(月) 달(/tal/)
 뒤(後) 뒤(/twi/)

단모음구조

혀의앞뒤 혀의고저		혀의앞		혀의뒤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	설	i	(y)	ï	u
중	설	e	(ø)	ə	o
저	설	ε		a	

(* ()안은 이 방언에 없음)

이중모음

여럿	여럿(/jəlat/)
물결	물결(/mulk'jəl/)
예의	예의(/jeij/)
계획	계획(/kehek/)
양념	양 <u>니</u> 음(/jaɲnjim/)
고약	고약(/kojak/)
유리	유리(/juli/)
석유	석유(/sekju/)
요	요(/jo/)
담요	담 <u>노</u> (/tamnjo/)
웬일	웬닐(/wennil/)
퀘작	퀘작(/kwec'ak/)
왜국	왜국(/wɛkuk/)
헛대	헛대(/hwett'ɛ/)
원망	원망(/wɔnmɑŋ/)
권투	권투(/kwɔnt ^h u/)
왕	왕(/waŋ/)
과부	과부(/kwapu/)

의논	의논(/ijnon/)
무늬	무니(/muni/)
영원히	<u>이</u> 용원히(/jijwɔnhi/)
열쇠	<u>이</u> 을세(/jils'e/)

이중모음구조

단모음 반모음	단모음							
	i	e	ε	ï	ə	a	o	u
j	je	jɛ	jɪ	jə	ja	jo	ju	
w	wi	wɛ	wɛ		wə	wa		
ï				ï				

(3) 자음

배	배(/pɛ/)
밥	밥(/pap/)
바보	바보(/papo/)
마음	맘(/mam/)
가마	가마(/kama/)
가슴	가슴(/kasim/)
다리	다리(/tali/)
가다	가다(/kata/)
낫	낫(/nat/)
내	내(/nɛ/)
사내	사내(/sanɛ/)
산	산(/san/)
다리	다리(/tali/)
달	달(tal/)

자리	자리(/čali/)
가자	가자(/kača/)
짜다	짜다(/č'ata/)
가짜	가짜(/kač'a/)
차다	차다(/č ^h ata/)
숨차다	숨차다(/samč ^h ata/)
사다	사다(/sata/)
농사	농사(/noŋsa/)
검사	금사(/kimsa/)
사공	사공(/sakoŋ/)
국	국(/kuk/)
강	강(/koŋ/)
깎두기	깎두기(/k'akt'uki/)
맹꽁이	맹꽁이(/meŋk'oŋi/)
흰	흰(/hin/)
어흥	어흥(/əhiŋ/)

자음구조

조음점 조음방법	양	치	경구개		연 구 개	성 문
	순	경	파찰	마찰		
단 순	p	t	č	s	k	
긴 장	p'	t'	č'	s'	k'	
대 기	p ^h	t ^h	č ^h		k ^h	h
비 강	m	n			ŋ	
설 측		l				

三. 태안군

○ 피조사자 : 나순호(남자, 63세)

조 사 자 : 김석중

조 사 지 :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

리 4구

조 사 일 : 1990. 8. 28

○ 피조사자 : 오수옥(남자, 63세)

조 사 자 : 김석중

조 사 지 :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

리 4구

조 사 일 : 1990. 8. 24-29

○ 피조사자 : 김갑순(남자, 60세)

조 사 자 : 김석중

조 사 지 :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

리 4구

조 사 일 : 1990. 8. 18

○ 피조사자 : 가예호(여자, 68세)

조 사 자 : 조복희, 함안나, 이대구

조 사 지 : 충남 태안군 남면 달산리

조 사 일 : 1990. 7. 20-1990. 7. 29

○ 피조사자 : 한광호(남자, 50세)

조 사 자 : 한기태, 오수태, 이대구

조 사 지 : 충남 태안군 태안읍, 인령

리

조 사 일 : 1990. 9. 28-1990. 10. 5

○ 피조사자 : 심의갑(남자, 72세)

조 사 자 : 심상우, 이대구

조 사 지 : 충남 태안군 원북면 동해

리

조 사 일 : 1990. 10. 24.

I. 어 휘

1. 農事

(1) 耕作

표준어	방언	비고
벼	베	/jə/→/e/
벼이삭	베이삭	/jə/→/e/
벼(열매)	나락	
뉘	뉘 (/nwi/)	/y/→/wi/
땃씨	씨나락	
못자리	못자리(판)	
김매다	지슴매다	/k/→/č/
애벌	초벌	
두벌	재벌	
(논을)훅친다	(논을)훅친다	
놉	품팔이	
겉두리	실참	
팽가리	팽가리	
쟁기	쟁기	

보습	보십	/i/→/i/	꼬다	꼬다	
쇠	쇄	/φ/→/we/	노끈	노끈	
벧	벧	/jə/→/e/	도리깨	도리깨	
극쟁이	꼭쟁이	/k/→/k'/	명석	명석	
써래	쓰래	/ə/→/i/	(죃)방석	멧방석	
번지	판대기		광주리	광주리	
호미	호미		바구니	바구리	/n/→/l/
자루	(호밋)자루		먹둥구미	섬	
쟁이	쟁이	/k/→/k ^h /	삼태미	삼태미	
쇠스랑	소시랑	/φ/→/o/ /i/→/i/			

(3) 搗精

삽	삽		절구	절구(통)	
농기구	연장		짚는다	짚는다	
			절구공이	절굿대	
			디딜방아	디딜방아	
			확	절구밧	/t ^h /→/s/
			맷돌	매	
			암쇠	암쇄	/φ/→/we/
			숫쇠	숨쇄	/φ/→/we/
			썰기	보래	
			겨	저	/k/→/č/
			왕겨	왕저	
			등겨	등저	/k/→/č/
			키	치	/k ^h /→/č ^h /
			까부르다	까부르다	
			어래미	얼멩이	

(2) 打作

벧단	벧토매/벧단				
		/jə/→/e/			
벧가리	벧가래	/jə/→/e/ /i/→/ε/			
벼훑이	훑태				
그네	그네				
회전기	호전기	/φ/→/o/			
개상	개상				
자리개	자리개				
죃	(벧)집	/p ^h /→/p/			
새패기	베호래기				
새끼	산내끼				

(4) 穀物			호박고지	후박고지	/o/→/u/
보리	보리		장다리무	무수궁다리	/s/첨가(고어)
감부기	감배기	/u/→/e/	시래기	시라구	/ε/→/a/
밭	밧	/t ^h /→/s/	채소	푸성지	/i/→/u/
밭둑	밧둑		나물	너물	/a/→/ə/
밭두둑	밧두둑		고갱이	(숙)꼬뱅이	
밭고랑	밧구랑	/o/→/u/	파씨	파씨	
밭이랑	(밧)이랑		고구마	남감자	
팔	팻	/t ^h /→/s/	고구마줄기	감자순	
조	스숙		감자	복감자	
수수	쭈수	/s/→/s'/	가지	가지	
수수잎	쭈숫넙	/n/의 첨가			

2. 飲食

(1) 副食					
참기름	챙지름	/a/→/ε/ /k/→/č/	김치	짐치	/k/→/č/
들기름	들지름	/k/→/č/	깍두기	깍두기	
(곡식)사다	팔다		간장	지랑/장물	고어
(곡식)팔다	돈사다		간장종지	지랑종재기	
옥수수	옥수수		두부	두부	
강냉이튀김	광밥		콩나물	콩너물	/a/→/ə/
			콩나물국	콩너물국	/a/→/ə/
			콩나물밥	콩너물밥	/s/→/ə/
			콩기름	콩지름	/k/→/č/
(5) 蔬菜			상추	부루/상초	고어
무	무수	/s/첨가(고어)	오이	우이	/o/→/u/
무우잎	무수잎	/s/첨가(고어)	오이소박이	우이소백	
무말랭이	무말랭이				

오이지	우이장아찌		칼국수	칼국수	
부추	줄	고어	고명	적심	
김	짐	/k/→/č/	새알심	샬심	/εa/→/ε/
반찬	반찬		수제비	수제비	
건건이	건건이		튀밥	광밥	
국물	국물		엿기름	엿지름	/k/→/č/
젓국	젓국		식혜	식혜	
(김치)국물	멸국		감주	감주	

(2) 主食

술	숯	/t ^h /→/s/
가마술	가마숯	/t ^h /→/s/
이남박	함박	
(쌀을)인다	(쌀을)인다	
조리	주랭이	/o/→/u/
주걱	주걱	
구두주걱	구두칼	
누른밥	누름밥	
송늬	송늬	/ju/→/i/

(3) 別食

가루	가루	
흰떡	흰떡	/ii/→/i/
가래떡	가래떡	
백설기	백무루떡	
밀기울	밀지울	/k/→/č/
국수	국수	

(4) 그릇

그릇	그릇	
시루	시루	
시루밑	시루밋	/t ^h /→/s/
시루번	시룻번	
뚜껑	뚜껑	
솔뚜껑	소당개	
장독뚜껑	장뚜개	
항아리뚜껑	항아리뚜개	
사발뚜껑	사발뚜개	
주발뚜껑	주발뚜개	
독배기	투가리	
바가지	바가지	

(5) 부엌

부엌	부엌	/k ^h /→/k/
아궁이	아궁지	/č/첨가
부뚜막	부뚜막	

부지깽이	부지땡이	/k'→/t'/	선반	선반	
고무래(자)	고무래		서랍	서랍	
고무래(곡식)	당그래		궀	궀	
부삽	부삽		자물쇠	자물통	
숫	숫	/čh/→/s/	열쇠	열세	/φ/→/e/
참숫	참숫	/čh/→/s/	베개	버개	/e/→/ə/
화로	화루	/o/→/u/	목침	목침	
화룻불	화룻불	/o/→/u/	퇴침	토침	/φ/→/o/
부젓가락	부젓가락		누비이불	뉘비이불	/u/→/wi/
다리쇠	삼바리			(/nwipiipul/)	

석쇠	적세	/s/→/č/			
담뱃대	담뱃대		(2) 房		
물부리	물주리	/p/→/č/	마루	말레	
담배설대	설대		미단이	미다지	
담배통	대꼭지		돌쩌귀	돌쩌기	/ə/→/e/
성냥	성냥		암쇠	암세	/φ/→/e/
부시	부시		숫쇠	숨세	/φ/→/e/
굴뚝	굴뚝		벽	벽	
그으름	끄름	/k/→/k'/	담벼락	담베락	/jə/→/e/
그을렀다	끄렀다	/k/→/k'/	굽도리	굽지	
넵다	맵다		흠손	흑손	/lk/→/k/

3. 家屋

(1) 家具

살강	살강／설강
시렁	시렁

종이	종이
구겨지다	구겨지다
구기다	구기다

(3) 建物

지붕	지붕		두레박	두레박	
사닥다리	사닥다리		또아리	똥아리	/ɒ/첨가
기와집	지와집	/k/→/č/	도랑	똥강	
초가집	초가집		붓도랑	붓도랑	
이영	이영/나래		개울	개울	
워다	워다		수렁	수렁	
이다	이다		거품	거품	
용마름	용마루		수채	수채	
기둥	지둥	/k/→/č/	구멍	구멍	

주춧돌	주주
서까래	서까래
처마	처마
추녀	추녀

4. 衣服

(1) 洗濯

낙숫물	추녀물/낙숫물		빨래	빨래	
기스락물	지랑물		빨다	빨다	
고드름	고드름	/i/→/ə/	빨랫방망이	빨랫방맹이	/a/→/ɛ/

빨랫돌	빨랫돌
빨랫터	빨랫터
빨랫줄	빨랫줄

(4) 마당

울타리	울타리		다듬이돌	다듬이돌	
담	담		다듬이질	다듬이질	
뜰	뜨란		다리미	대리미	/a/→/ɛ/
뒤결	뒤란		인두	인두	
장독대	장뚝		다리다	대리다	/a/→/ɛ/
변소	뒹간				

(5) 우물

샘	삼	/ɛ/→/ja/
---	---	----------

(4) 服飾

허리띠	허리띠
-----	-----

가죽허리띠	각띠		배	베	
형겹허리띠	허리띠		숨	숨	
두루마기	두루매기	/a/→/ε/	목화	목화	
염낭	복주머니		목화다래	다래	
한복주머니	봉창		씨아	싸아시	
양복주머니	주머니		누에	누에	
고쟁이	고쟁이		고치	고치	
잠방이	잠뱅이	/a/→/ε/	번데기	번디기	/e/→/i/
누더기	누터지/누테기	/a/→/e/	누에나방	누에나비	
버선	버선		오디	오데	/i/→/e/
대님	재님	/t/→/č/			

(대님)메다 (재님)치다

.5 人體

짚신 짚세기

미투리 미투리

(1) 머리

나막신 나묵개

머리 머리

옷감 옷감

대가리 대가리

혼수감 혼수감

돼지머리 돼지대가리/머리

홀옷 홀것

콩나물대가리 콩나물대가리

겹옷 겹것 /k/→/č/

머리카락 머리카락

형겹 홍겹 /a/→/i/

가마 가마

깁다 깁다

가르마 가름마 /m/첨가

재봉틀 재봉침/재봉틀

가르마타다 가름마타다

골무 골무

비듬 비늘/비듬

(골무)끼다 (골무)찌다

가위 가새 고어

(2) 얼굴

반짓고리 반짓그릇

턱 턱

호다 호다

수염 섬 /uja/→/ja/

턱수염	턱섬
콧수염	콧섬
구레나룻	구렛나룻
목	목
모가지	모가지
얼굴	얼골/얼굴
뺨	뺨/불/불대기
볼	볼
보조개	보조개
주름살	주름살
이마주름살	이마주름살
눈주름살	눈주름살

(3) 눈

눈	눈	
검은자위	눈동자	
흰자위	흰동자	/ii/→/i/
눈두덩	눈탱이	
눈썹	눈썹	
속눈썹	속눈썹	
다래기	눈다라지	
소경	수경/봉사	/o/→/u/
애꾸	애꾸	

(4) 코·귀

코	코
입술	입술

혀	혀	
혓바늘	셋바늘	/h/→/s/ /jə/→/e/
혀끝	혀끝	
귀	기	/y/→/i/
귓볼	기부랄	/y/→/i/
귀에지	기창	/y/→/i/
귀이개	기우개	/y/→/i/
귀먹어리	기먹어리	/y/→/i/
귀먹다	기먹다	/y/→/i/

(5) 세수

세수대야	세숫대(와)	
비누	비누	
목욕	목욕	
목물	등목	
거울	거울/민경	
빗	빗	
얼레빗	어림빗	
참빗	챜빗	/a/→/ε/
다리	다루	/i/→/u/

(6) 上體

손	손	
왼손	엔손	/φ/→/e/
오른손	오른손	
손바닥	손바닥	

손가락	손가락		흰사마귀	흰사막	/i/→/i/
마디	마디		두드러기	두드레기	/ə/→/e/
대마디	대마디		땀띠	땀떼기	
겨드랑	저드랑	/k/→/č/	버즘	버듬	/č/→/t/
젓	젓	/č/→/s/	기계충	기계충	/o/→/u/
배꼽	배꼽		죽은개	죽운개	/i/→/u/
			기미	지미	/k/→/č/

(7) 下體

허리	허리
다리	다리
가부좌	젓개고 앉다

엉덩이	웅덩이	/ə/→/e/
-----	-----	---------

궁둥이	궁뎡이	/u/→/e/
-----	-----	---------

넓적다리	허벅다리
------	------

무릎	무릅	/p ^h /→/p/
----	----	-----------------------

오금	오금뎡이
----	------

저리다	저리다
-----	-----

정강이	정깁이	/a/→/ɛ/
-----	-----	---------

뼈	뼈/뺨다구
---	-------

복상뼈	복송아뼈
-----	------

(8) 피부병

부스럼	부스럼
-----	-----

고름	고름	/i/→/u/
----	----	---------

사마귀	사마귀 (/samakwi/)	/y/→/wi/
-----	--------------------	----------

검은사마귀	검은사막
-------	------

기미끼다	지미찌다
------	------

여드름	여드름
-----	-----

멍	(피)멍
---	------

(9) 질병

언청이	엇챙이/일챙이	/ə/→/e/
-----	---------	---------

곰보	곰보
----	----

천연두	손님
-----	----

확절	하루살이
----	------

홍역	혼역	/ŋ/→/n/
----	----	---------

감기	고뿔/장기	/m/→/ŋ/
----	-------	---------

(10) 生理

딸꾹질	פק기
-----	-----

사레	사레
----	----

트림	트름	/i/→/i/
----	----	---------

재채기	챌치기	/ɛ/→/i/
-----	-----	---------

하품	하품
----	----

기지개	기지개
-----	-----

줄음	줄음
----	----

줄다	줄다			/a/→/ja/
방귀	방구	/y/→/u/	곤지곤지	지게지게
구린내	구린내		도리도리	도리도리
고린내	꼬랑내	/k/→/k'/	작짜꿍	작짜꿍
			따로따로	걸음마

6. 育兒

(1) 발달

갓난아이	갓난아이		안다	안다	
돌	돌		안기다	앵기다	/a/→/ε/ /n/→/ŋ/
어린애	어린내	/n/첨가	버릇	버릇	
여자아이	기집애		엄살	계병	
기저귀	기저기		새암	샘	/εa/→/ε/
똥	똥				
오줌	오줌				

(3) 놀이

마렵다	매렵다	/a/→/ε/	공기	공기	
누다	누다		고누	고니	/u/→/i/
뉘다	뉘다 (/nwita/)	/y/→/wi/	사금파리	새금파리	/a/→/ε/
싸다	싸다		소꿉질	소꿉장난	
지리다	지리다		숨바꼭질	숨기장난	
지린내	찌른내	/č/→/č'/	목말	꽃센다	
포대기	퍼대기	/o/→/ə/	자치기	자치기	

(2) 재롱

재롱(떨다)	재롱(떨다)		견막대	жат대	
재암재암	지암지암	/ε/→/i/	제기	제기	
			쥐불놀이	쥐불놀이 (/čwipulnoli/)	

웃	웃	/čh/→/s/	아비	애비	/a/→/ɛ/
도	돼지/도		할머니	할머니	
개	개		할아버지	할아버지	
걸	걸		형	형	
웃	사룻		언니	언니	
모	모		누나	누나	
두동무늬	둑		오빠	오빠	
석동무늬	석		아우	동생/아우	
넉동무늬	막		아우보다	아수보다	/s/첨가(고어)
그네	그네		아우타다	아수타다	/s/첨가(고어)

그네뛰다 그네뛰다

그네타다 그네타다

(2) 결혼

밑신개	발판		결혼	결혼	
썰매	썰매		결혼잔치	잔치	
얼음지치다	얼음타다		며느리	메누리	/ja/→/e/ /i/→/u/
팽이	팽이	/ph/→/p'/	처녀	츠녀	/ə/→/i/
얼레	자세		새색시	새댁	
굴렁쇠	도롱태		사위	사위	/y/→/wi/ (/sawi/)

7. 人倫

(1) 가족

어머니	오머니	/ə/→/o/	매형	매형	
엄마	엄마		매제	매제	
어미	에미	/ə/→/e/	매부	매부	
아버지	야버지		시숙	시아주버니	
아빠	아빠		시동생	시동생	

도련님	데린님	/o/→/e/	잡화상	상점	
서방님	서방님		얼마	얼마	
홀아비	홀애비	/a/→/ε/	잔돈	잔돈／잔전	
홀어미	과부		거스르다	테다	
환갑	한갑	/wa/→/a/	거스름돈	거슬름돈	/l/첨가
환갑잔치	한갑잔치	/wa/→/a/	우수리	우사리	/u/→/a/
			에누리	에누리	
			덤	뒸	/ɔ/→/u/

(3) 친척

백부	큰아버지	
중부	두째큰아버지	
숙부	작은아버지	
삼촌	삼촌	/o/→/u/
조카	조카	
조카딸	조카딸	
이모	이모	
고모	고무	/o/→/u/
남	넌	/a/→/ə/

(2) 대장간

대장간	승냥간	
풀무	불무	/p ^h /→/p/
모루	모룻둑	
모루채	망치(小)／메(大)	
벼리다	벼리다	
바퀴	바키	/y/→/i/

(3) 單位

8. 經濟

(1) 마을

이웃	이웃	
이웃에	이웃에	
이야기	얘기	/ija/→/jε/
마을간다	마실간다	/s/첨가(고어)
가게	전방	
구멍가제	구멍가제	

마지기	마지기	
마리	마리	
쌍	쌍	
컬레	컬레	
그루	그루	
포기	포기	
뺨	뺨	
자루	자루	
두름	두름	/i/→/u/

축	축		다섯말	닷말	
못	못		여섯	여섯	
꾸러미	꾸레미	/ə/→/e/	여섯대	여섯개	
접	접		여섯되	엿되	
필	필		여섯말	엿말	
병	병		일곱	일곱	
			여덟	여들	
			아홉	아홉	
(4) 數			열	열	
하나	하나		세다	세다	
한개	한개		스물	스물	
한되	한되		설흔	서른	/h/탈락
한말	한말		마흔	마은	
들	들		쉰	쉬운	
두개	두개		예순	예순	
두되	두되		일흔	이른	/h/탈락
두말	두말		아흔	아은	/h/탈락
셋	셋		하루	하루	
세개	세개		이틀	이틀	
세되	스되	/ə/→/i/	사흘	사흘	
세말	스말	/ə/→/i/	나흘	나흘	
넷	넷		닷새	닷새	
네개	네개		엿새	엿새	
네되	느되	/ə/→/i/	이레	이레	
네말	느말	/ə/→/i/	여드레	여드레	
다섯	다섯		아흐레	아래	/h/탈락
다섯개	다섯개				/i/탈락
다섯되	닷되				

열흘	여를	/h/탈락	갈치	갈치	
			가오리	가오리	
9. 動物			게	괴	고어
			새우	새우	
			다슬기	고동	
(1) 물고기(1)			(바다)다슬기	끼고동	
고기	게기	/o/→/e/	우렁이	우렁	
생선	생선		(바다)우렁이	빼트리고동	
민물고기	민물게기	/o/→/e/	달팽이	달팽이	
고기	게기	/o/→/e/			
고기덩어리	게기덩어리	/o/→/e/			
미끼	이깎		(3) 벌레		
지느러미	날감지		서캐	서캐	
아가미	구세미		벼룩	베룩	/ja/→/e/
창자	창자/창수		모기	모기	
미끄라지	미꾸라지		장구벌레	곤두벌레	
송사리	송사리		파리	퍼리	/a/→/ə/
피라미	피래미	/a/→/ε/	쉬	쉬	/y/→/wi/
올챙이	올챙이			(/swi/)	
개구리	깨구리	/k/→/k'/	쉬슬다	쉬깔리다	
개굴개굴	개굴개굴		가시	고자리	
두꺼비	두께비	/ə/→/e/	구더기	구디기	/ə/→/i/
			지렁이	지렁이	/ə/→/e/
(2) 물고기(2)			회충	헤	/φ/→/e/
멸치	멸치		거머리	그머리	/ə/→/i/
(날것)	생것	/s/→/s'/	벌레	벌레	
(마른것)	건포		쌀벌레	다라미	
젓	젓갈		날벌레	날벌레	

굶뱅이	굶뱅이		고빼	고뺑이	
그리마	설렁이		멍에	멍에	
노래기	노래기		소입막이	소망	
진땀물	땀물		외양간	오양간	
하루살이	하루살이		두엄	두엄	
거미	거미		밭채	바지개	
메뚜기	메뚜기		작대기	작대기	
방아개비	땅개비		구유	구쉬 (/kwswi/)	/s/첨가
여치	유치	/ja/→/ju/	여물	여물	
버마재비	사마귀		여물광	여물간	
소금쟁이	소금쟁이		쇠죽	소죽	
방개	방개		쇠죽바가지	여물바가지	
반딧물	반딧물		염소	염생이	
벌	부리	/a/→/u/ /i/첨가	말	말	
땅벌	땅부리	/i/첨가	망아지	망아지	
진디기	진디		마구간	말마장	

(4) 가축

소	소		개	가이	고어
황소	황소		수개	수카이	고어
암소	암소		암개	암카이	고어
송아지	송아치		강아지	강아지	
쇠고기	수이고기	/φ/→/ui/	개새끼	개새끼	
쇠꼬리	소퐁대이		고양이	괭이	/oja/→/wε/
쇠뿔	소뿔		암코양이	암괭이	/oja/→/wε/
쇠발톱	소발톱		수코양이	수괭이	/oja/→/wε/
			야옹야옹	야옹냐옹	
			도둑고양이	도둑괭이	

닭	닥	/lk/→/k/	삼행이	살가지	
수닭	수탁	/lk/→/k/	쥐	지	/y/→/i/
암닭	암탁	/lk/→/k/	박쥐	박지	/y/→/i/
병아리	병아리		다람쥐	다람지	/y/→/i/
닭털	닥털	/lk/→/k/	두더지	디제기	/u/→/i/
닭이우리	닥우리				/t/→/c/
					/ə/→/e/

벼슬 벼슬

모이 모시 /s/첨가(고어)

닭똥 닥똥 /lk/→/k/

닭장 닥장 /lk/→/k/

달걀 달갈 /ja/→/a/

노른자위 노른젓

흰자위 흰젓 /i/→/i/

거위 거위 /y/→/wi/

돼지 돼지

돼지우리 돼지우리

오래오래 오래오래

산돼지 산돼지

(5) 산짐승

여우 여수 /s/첨가(고어)

노루 노루

토끼 테끼 /o/→/e/

덧 돛 /ə/→/o/

올가미 올무

(5) 날짐승

새 사이 /ε/→/ai/

깃 깃털

매 마이 /ε/→/ai/

솔개 소르개 /i/첨가

까치 까치

까마귀 까그메

빼꾸기 빼꼭새

빼꼭빼꼭 빼꼭빼꼭

뜸부기 뜸부기

딱다구리 따다구리

평 평

까투리 깨투리 /a/→/ε/

장끼 쟁끼 /a/→/ε/

10. 植物

(1) 꽃

꽃 꽃 /c^h/→/s/

꽃봉오리	꽃봉오리	/čh/→/s/	껍질	껍질
봉선화	봉숭아		나무껍질	나무껍데기
해바라기	해바래기	/a/→/ɛ/	복숭아	복숭아
취	척	/lk/→/k/	홍시	홍시
취덩굴	척넝쿨	/lk/→/k/	과일	과실
덩굴	넝쿨	/t/→/n/ /k/→/kʰ/	자두	자두
			호두	호두

(2) 나물

냉이	나싱개	고어
질경이	질쟁이	/jə/→/e/
달래	달리	/ɛ/→/i/
씀바귀	씀바기	/y/→/i/
썰기	썰기	

(2) 열매

딸기	딸구	/i/→/u/
개암	개금	
머루	머루	
다래	다래	
고염	게염	/o/→/e/

(3) 과실

배	배	
아그배	아그배	
돌배	독배	/l/→/k/
사과	사과	

(4) 野生樹

도토리	도토리	
떡갈나무	떡갈나무	
상수리	상수리	
상수리나무	상수리나무	
뿌리	뿌리	
그루터기	등걸	
줄기	줄기	
가지	가지	
삭정이	삭쟁이	/ə/→/e/
솔가리	솔골	
갈퀴	갈쿠	/y/→/u/
글어모으다	굽는다	
도끼	도끼	

11. 自然

(1) 山

산무루	자빠기
-----	-----

기슭	중턱		땅거미	땅거미
묘	모이	/jo/→/oi/	별	별
뿔자리	모이자리	/jo/→/oi/	은하수	은하수
언덕	언덕		달무리	달머리
비탈	비탈		해무리	햇머리
벼랑	낭어덕			
메아리	산울림			

(4) 時候

내일	내일
글피	글피
그글피	그글피
어제	어제
그저께	그저께
그쵸저께	그쵸저께
요즘	요즘
설탕그믐	슬달그믐

/ə/→/i/

(2) 돌		
바위	바위(/pawi/)	
돌	돌맹이	
자갈	자갈	
모래	모새	고어
흙	흙	/lk/→/k/
흙더미	흑무디기	/lk/→/k/
이끼	잉끼	/ŋ/첨가
이끼끼다	잉끼찌	/ŋ/첨가

(5) 날씨

눈개	흙비
이슬비	이슬쟁이
소나기	쏘낙비
	/s/→/s'/
번개	번개
벼락	노승
우박	우박
홍수	홍수
가을	갈
	/ai/→/a/
겨울	겨울
진눈개비	진흑개비

(3) 하루	
아침	아침
아침밥	아침밥
새벽	새벽
새벽밥	새벽밥
낮	낮
저녁	저녁
저녁밥	저녁밥
노을	복새

희오리바람	헤오리바람	/ɸ/→/e/	깎다	깎다	
먼지	문지	/ə/→/u/	깎아야	깎어야	/a/→/ə/
아지랑이	아지랭이	/a/→/ɛ/	뽀족하다	뽀죽하다	/o/→/u/
			뽀족하게	뽀죽하게	

(6) 방향

구석	구텡이		깎다	깎다	
위	위 (/wi/)	/y/→/wi/	짧다	짧다	
윗말	웃말	/y/→/u/	짧아서	짧아서	/a/→/ə/
아래	야튼데		짧은	짧은	
밑	밑		작다	작다	
밑이	밋이	/tʰ/→/s/	작아서	작아서	/a/→/ə/
밑에가	밑에가		(三寸宅)	작은집	
앞	앞		(小家)	작은집	/č/→/č'/
뒤	뒤 (/twi/)	/y/→/wi/	(伯父宅)	큰집	
결	옆		(大家)	큰 집	

(2) 넓이·높이

모퉁이	모텡이	/u/→/e/	높다	높다	
몹	몹		높기는	높기는	
어디	어테	/i/→/e/	높이다	높이다	
			낮다	알다	
			낮추다	낮추다	
			넓다	넓다	
			넓어야	넓어야	
			넓은	넓은	
			넓히다	넓히다	

12. 狀態

(1) 길이·두께

굵다	굵다
굵어서	굵어서
굵은	굵은

(3) 수량·무게

없다	웁다	/ə/→/i/	묻어졌다	묻어졌다	
없어서	웁어서	/ə/→/i/	묻어지지	묻어지지	
없애다	웁애다	/ə/→/i/	되다	데다	/φ/→/e/
없애려면	웁앨려면	/ə/→/i/	되겠다	데겠다	/φ/→/e/
많다	많다		볶다	볶다	
많아도	많어도	/a/→/ə/	볶어지다	볶어지다	
많기는	많기는		밝다	밝다	
가볍다	가볍다		밝아지다	밝어지다	/a/→/ə/
가벼워서	가벼워서		밝히다	밝히다	
가벼운	가벼운		밝아야	밝어야	/a/→/ə/
쉽다	십다	/y/→/i/			
쉬운	시운	/y/→/i/	(5) 감각 · 정서		
쉽고	십고	/y/→/i/	춡다	춡다	
어렵다	어렵다		추우면	추우면	
어려우니	어려우니		춡고	춡구	/o/→/u/
어렵고	어렵고		추위	추위	/y/→/wi/ (/č ^h uwi/)
			더위	더위	/y/→/wi/ (/tawi/)
(4) 색채 · 농도 · 깊이			차다	차다	
깊다	깊다		차서	차가워서	
깊으니까	깊으니까	/a/→/e/	차니	차니	
깊은	깊은		차기	차기	
얕다	얕다		시원하다	시원하다	
얕으면	얕으면		가렵다	가렵다	
맑다	맑다		가려워	가려워	
맑아야	맑아야	/a/→/ə/	간지러워	간지러워	
맑아진다	맑아진다	/a/→/ə/			
묻다	묻다				

간지럽혀라	간지럽피워라	끓어서	끓어서	
가엸다	가엸다	끓다	끓다	
가엸어서	불상해서	끓어서	끓어서	
가엸어라	가엸어라	끓다	끓다	
부럽다	부럽다	끓었다고	끓었다고	
부러워진다	부러워진다	끓다	끓다	
부러워도	부러워도	끓었다	끓었다	/a/→/ə/
부럽다고	부럽다고	끓기	끓게	
섭다	섭다	사납다	사납다	
설워서	설어워서	사나운	사나운	
설움	설움	사나워서	사나워서	
섭게	섭게	무섭다	무서웁다	/u/첨가

(6) 맛

맵다	매웁다	/u/첨가	비슷하다	비슷하다	
매운	매운		같다	같다	
매워서	매워서		같아서	같이서	/a/→/ə/
짜다	짜다		다르다	다르다	
짜서	짜서		달라서	달아서	
짜다고	짜다고		다른데	다른데	
뽀다	뽀다	/t/→/tʰ/ /ə/→/i/	(말이)	틀린다	
뽀어서	뽀어서		아니다	아니다	
뽀은	뽀은		아니요	아니요	

(7) 성품·인상

끓다	끓다	(값)싸다	싸다
		싸고	헐하고, 싸고
		싼	싼

헐값에	헐값에		삶아졌다	삶어졌다
가깝다	가깝다		끓다	끓다
가까운	가까운		끓는다	끓는다
가깝게	가깝게	/k'→/ch/	끓여라	끓여라
두껍다	두껍다		끓인	끓인
두꺼운	두꺼운		식히다	식히다
두께가	두께가		식혀서	식혀서
얇다	얇다		마시다	마시다
얇은	연한		마신다	마신다
(공책)	얇다		마셔라	마셔라
			마셨다	마셨다

13. 動作

(1) 요리

먹다	먹다		붓다	붓다
먹어야	먹어야		부어서	부어서
먹고	먹고		붓고	붓고
먹는다	먹는다		젓다	젓다
먹이다	멕이다	/ə/→/e/	저어서	저어서
먹히다	멕히다	/ə/→/e/	젓지	젓지
먹히지	멕히지		무치다	무치다
굽다	굽다		무쳐라	무쳐라
굽는다	굽는다		무친	무친
굽고	굽고		(나물)	무쳤다
삶다	삶다		(흙을)	묻혔다
삶아야	삶아야		(埋藏)	묻혔다
삶고	삶고		튀다	튀다
			튀다	튀다
			튀기다	튀기다
			튀겨	튀겨

(2) 수혜		(그릇)	행군다	
달다	달다	씻기다	씻기다	
달라고	달라고	씻긴다	씻어진다	
다오	다오	숨기다	숨기다	
꾸다	꾸다	숨긴다	숨긴다	
꾸어서	꾸어서	숨겨라	숨겨라	
꾸지	꾸지	줍다	줍다	/p/→/s/
(돈)	꾸어	줍는다	줍는다	/p/→/s/
(호미)	빌려	주위라	줍어라	/p/→/s/
(힘을)	빌리지	줍고	줍고	/p/→/s/
흙치다	흙치다	잃다	잃다	
흙치는	흙치는	잃었다	잃었다	
흙치지	흙치지	잃은	잃은	
닭다	닭다	잃지	잃지	
닭아라	닭어라	잃어버렸다	잃어버렸다	
닭아	닭어	잊어버렸다	잊어버렸다	
닭지	닭지	뒤지다	뒤지다	
(걸레로)	흙친다	뒤져	뒤져	
(비로 쓸고 걸레로)	닭아라	뒤집다	뒤집다	
(먼지를)	닭어라	말다	말다	
(물은)	흙쳐라	말아	말어	/a/→/ə/
(물방울을)	닭어라	말기다	말기다	/a/→/ɛ/
씻다	씻다	바꾸다	바꾸다	
씻어라	씨쳐라	바뀌	바꾸어	
씻자	씻자	바뀌었다	바꿨다	
(머리)	감어라	나누다	나누다	
		나뉘	나뉘	

나누지	가르지		쌓다	쌓다	
누나면	나누면		쌓아	싸, 쟁여	
			쌓고	쟁이고	
(3) 갈무리			쌓았다	쟁었다	
짚다	짚다		쌓이다	쌓이다	
짚는다	짚는다		쌓여	쌓여	
짚고	짚고		쌓인다	쌓인다	
짚어라	짚어라		묻다	묻다	
(찬밥을)찌어라	찌라		물어보아라	물어보아라	
뺨다	뺨다		밟다	밟다	
뺨는다	뺨운다		밟아	밟어	/a/→/ɔ/
뺨아서	뺨귀서		밟고	밟고	
훔다	훔다		밟지	밟지	
훔는다	훔는다		꽃다	꽃다	
훔어서	훔어서		꽃아	꽃어	
훔고	훔고		꽃지	꽃지	
훔이다	훔인다, 떨린다		꽃혀	꽃혀	
매달다	매달다		꽃아라	꽃어라	
매달아	매달어	/a/→/ɔ/	얼다	얼다	
매달지	매달지		언다	언다	
매단다	매단다		얼었다	얼었다	
매달려	매달려		얼리다	얼리다	
달라붙니	달라붙니		마르다	마르다	
궤다	궤다	/we/→/e/	말랐다	말랐다	
궤어야	궤야	/weə/→/e/	(몸이)마르다	마르다	
궤어라	궤어라	/weə/→/e/	마른다	말른다	/l/첨가
궤지	궤지	/weə/→/e/	말랐다	말렸다	/ɔ/→/ɔ/

마른(사람)	말른	/l/첨가	치우다	치우다	
(옷감을)마르	마름개 질하다		치운다	치운다	
다			치워	치워	
마라서	마름개 질해서		가르다	지르다	/k/→/č/
마르다가	마름개 질하다가		길렀다	질렀다	/k/→/č/
마름개질	마름개 질		기르고	지르고	/k/→/č/
(빨래를)말리	말리다		(소한마리)	키운다	
다			(돼지수십마	기르다	
말다	말다		리)		
말았다	말었다	/a/→/ə/	(토끼한마리)	길른다	/l/첨가
말고	말고		(배추)	가꾼다	
(종이가)말린	말린다		(꽃)	가꾼다	
다			(콩나물)	길른다	/l/첨가
썩다	썩다		(나뭇가지)	치다	
썩었다	썩었다		(아이들)	키운다	
썩히다	썩히다		(돈)	불린다	
버리다	버리다		가두다	가두다	
			갈히다	갈히다	

(4) 사육

실다	실다	
실고	실코	
실는다	실는다	
실리다	실리다	
묶다	묶다	
묶어라	묶어라	
묶지	묶지	
묶이다	묶이다	

(5) 놀이

만들다	맨들다	/a/→/ɛ/
만든다	맨든다	/a/→/ɛ/
만들어라	맨들어라	/a/→/ɛ/
바루다	퍼다	
바룬다	편다	
바루어서	퍼서	
바루면	퍼면	

부시다 부시다
 부서 부서
 흐트리다 흐틀다
 흐트리지 흐틀지
 흐트리 흐트리
 (옷들을)형클 흐트리
 어
 (모이를)홀는 허친다
 다

자르다 짜르다 /č/→/č'/
 잘라 찰라 /č/→/č'/
 자른다 찰른다 /č/→/č'/
 /l/첨가

끓다 끓다
 끓어라 끓어라
 끓긴다 끓는다
 (옷감을) 끓어
 맞추다 맞추다
 맞추어라 맞춰라
 맞추지 맞추지
 맞추어진다 맞춰진다
 잇다 잇다
 이어서 잇어
 잇고 잇고
 매다 매다
 매어야 매야
 매고 매내고

(맷장)뎌다 뎌다
 매우다 매우다
 매우지 매지
 매워야 매워야
 (구멍이)매었 매었다
 다
 (목이)매었다 매었다
 (옷이) 매어졌다
 뚫다 뚫다
 뚫는다 뚫는다
 뚫어서 뚫어서
 뚫지 뚫지

(6) 이동

가다 가다
 가야 가야
 가거라 가거라
 가기 가기
 기다 기다
 기어 기어
 기고 기고
 걷다 걷다
 걸어 걸어
 걷는다 걷는다
 걸리다 걸린다

뛰다 뛰다 /y/→/wi/
 (/t'wita/)

뛰어	뛰어
뛰다	뛰다
뛰지	뛰지
뛰게하다	뛰게하다
(내)쫓다	쫓다
쫓아야	쫓아야
쫓지	쫓지
오다	오다
온다	온다
오너라	오너라
왔다	왔다
가져오너라	가지고오너라

끌다	끌다	
끌고	끌고	
끌었다	끌었다	
끌지	끌지	
끌려	끄껴	
매다	매다	
매고	매고	
매어라	매어라	
돌다	돌다	
돈다	돈다	
돌고	돌고	
돌린다	돌린다	
괴다	고이다	/φ/→/oi/
핀다	고인다	/φ/→/oi/
괴어	고인	/φ/→/oi/

뜨다	뜨다
뜯다	뜯다
떴다	떴다
띄운다	띄운다
띄워라	띄워라
웁다	웁다
웁았다	웁았다
웁지	웁지
웁기다	웁기다
웁겼다	웁겼다
웁기지	웁기지

(7) 감각

켜다	키다	/jə/→/i/
켜야	켜야	
켜지	키지	/jə/→/i/
보다	보다	
보지	보지	
보아라	봐라	
보인다	보인다	
보여	보여	
(꼴도)보기싫	보기싫다	
다		
(아무것도)	보기싫다	
올려다보다	올려다보다	
올려다보아라	올려다보아라	

내려다보다	내려다본다		달래고	달래고	
쳐다보지	쳐다보지		때리다	떠리다	
들여다보다	털여다보다	/i/→/i/	때려서	때려서	
들여다보지	털여다보지	/i/→/i/	때리지	때리지	
(기회를)엿본	본다		토라지다	배치다	
다			토라져서	배쳐서	
지껄이다	지껄이다				
지껄인다	지껄인다		(8) 교육		
지껄이고	지껄이고		가르치다	가리치다	/i/→/i/
지껄여라	지껄여라		가르치는	가리치는	/i/→/i/
핥다	핥다		가르쳐	가리쳐	/i/→/i/
핥아	핥아		(길을)	가리켜	
핥고	핥고		가리키다	가리키다	
핥지	핥지		따르다	따르다	
알다	알다		따른다	따른다	
알게	알게		따라라	따라라	
알아야	알아야		따르지	따르지	
알지	알지		(물을)따르지	딸지	
알리다	알리다		(마라)		
(이름이)알려	알려졌다		본받다	본받다	
졌다			본받아라	본받어라	
놀라다	놀래다	/a/→/ε/	본받는다	본받는다	
놀란다	놀랜다	/a/→/ε/	읽다	읽다	
놀랐다	놀랬다	/a/→/ε/	읽어	읽어	
놀래다	놀래다	/a/→/ε/	읽는다	읽는다	
달래다	달래다		읽기	읽기	
달래야	달래야		읽혀	읽혀	

을다	을다
을는다	을는다
을어라	을어라
을지	을지
긋다	그시다
긋고	그시고
그어라	그셔라
(줄을)	친다
말리다	말리다
못하다	못하다
못한다	못한다
모시다	모시다
모시고	모시고
모셔야	모셔야
데리다	데리다
데리고	데리고
데리러	데리러

(9) 인체

긋다	긋다
긋히다	긋히다
후비다	후비다
후빈다	후빈다
후벼라	후벼라
후비지	후비지
끓다	끓다
끓아서	끓어서

끓지	끓지
끓기다	끓기다
벗다	벗다
벗기다	벗기다
벗겨	벗겨
(겉껍질을)벗	베킨다
긴다	/ə/→/e/
앉다	앉다
앉으세요	앉으시유
앉아라	앉어라
앉자	앉자
앉히다	앉히다
(밥을)앉힌다	앉힌다
(콩나물을)	앉힌다
앉힌다	
끓다	끓다
끓는다고	끓는다고
끓고	끓고
끓어야	끓어야
눅다	눅다
누워서	누워서
눅지	눅지
누워서(떠먹	누어서
기)	
늪다	늪다
늪다	늪힌다
재우다	재우다

재운다	잔다
재워라	재워라
신다	신다
신고	신고
신어라	신어라
신겨	싱겨
끼우다	끼이다
끼우고	끼고
끼워라	끼여라
(싼 것을)끼워준다	끼여준다
(가시가)끼었다	끼였다

II. 文 法

(1) 대명사

누구	누구
누가	누가
누구나	누구나
누구의	누
누구로	누구로
누구한테	누구한테
자기	지
자기의	제
자기가	지가
자기들이	즈이덜이
자기들의	즈덜
나	나
저	저
너	너
너희	느이덜

(2) 조사

-이/가	-이/가
값이	값이
돈이	돈이
사람이	사람이
코가	코가
모가	모가
-은/는	-은/는

보리는	보리는
팔은	파슨
나는	난

-을/를	-을/를
물을	무를
돼지를	돼지를
밥을	바블
동생을	동생을
-에/에게	-이/한테
사람에게	사람한테
동생에게	동생한테
밭에	바티
집에	지비
총소리에	총소리에
있는 데에	있넌디
-와/과	-랑/와
나와	나랑
여우와	여수와
살팽이와	살팽이와
-아/야	-아/야
영석아	야! 영석아

(3) 경어법(敬語法)

① 명령

-어/아라	-어/아라
앉아라	앉어라

-게 -게
 앉게 앉게
 -(으)세요 -이슈
 앉으세요 안지슈
 앉아 안저
 앉으오 안지소
 앉아요 안지슈
 앉으십시오 안지슈

/a/→/ㅏ/

커 커
 크오 크오
 큼니다 크유

④ 의문1

-니 -니
 오니? 오니?
 -나 -나
 오나? 오나?

② 청유

-자 -자
 가자 가자
 -세 -세
 가세 가세
 -(으)버시다 -유
 갑시다 가유
 가 가
 가요 가유
 가지저오 가지지유

-아/어요 -유
 와요? 오유?
 와? 와?
 오오? 오오?
 읊니까? 오유?

⑤ 의문2

-니 -니
 가니? 가니?
 -는가 -나
 가는가? 가나?

③ 서술

-는/ㄴ다 -는/ㄴ다
 크다 크다
 -네 -네
 크네 크네
 -아/어요 -유
 커요 크유

-(으)세요 -슈
 가세요? 가슈?

⑥ 의문3

-이니 -이나
 이니? 이나?
 -인가 -이다나

인가? 이다나?
 -이어요 -이유
 이어요? -이유?

⑦ 의문4

-이나 -이나
 무엇이냐? 무엇이냐?
 -인가 -인가
 -이이요 -이유
 무엇이어요? 뭐유?

⑧ 부가의문

그랬잖아 그랬잖어
 그랬지 그랬지
 -(으)시-(존대)
 -(으)시-
 제시냐? 기시냐
 가셨니? 가셨니
 계셔요 기슈
 입으셔야겠어 입으셔야것슈
 요

(4) 時制

-겠- -것-
 안 가겠다 안 간다, 안 갈라구
 한다
 오겠다 오것다

좋겠다 좋것다
 -는/ㄴ- -넌/ㄴ-
 먹는다 먹넌다
 안다 안다
 간다 간다
 크다 크다
 크다 크다
 일한 일헌
 -엇/왔- -엇/왔-
 왔었니? 왔었니?
 왔니? 왔나?

왔었니(설명) 왔니
 왔었니(판정) 왔었니
 왔었니(수사) 왔었니
 -더-
 잡더냐? 잡니?
 잡았니? 잡었니
 잡았다 잡었다
 오겠더라 올것같다

① 관형형

-은 -은
 먹은 먹은
 먹었던 먹은
 -는 -는
 먹는 먹는
 먹고 있는 먹고 있는

-을	-을
먹을	먹을
먹는	먹은
작은	죽은
작았던	적었던
오는	오는
오고있는	오고있는
온	오는
왔었던	왔던

(5) 使動・被動

닭게하다/닭이다	
	닭게하다
빨게하다/빨리다	
	빨게하다/빨리다
(빨래시킬때)	빨게하다
(어린이에게)	빨린다
젓을)	
쓰게하다/쓰우다	
	쓰게하다
실게하다/실리다	
	실게하다
닭아지다/닭이다	
	닭아지다/닭이다
(걸레는)	닭아지느냐?
(다 닭아 놓고)	
	닭아졌다

뚫어지다/뚫리다	
	뚫어지다/뚫리다
만져지다	만져지다
갈아지다/갈리다	
	갈리다
홀리다	홀린다
기다려지다	기다린다

(6) 連結語尾

-(으)면	-(으)면
오면	오면
안 오면	안 오면은
-(으)면서	-(으)면서
놀면서	놀고
잡으면서	잡으면서
가난하면서	가난하면서
그 사람이면서	
	그 사람이면서
-지(를)	
가지(를)	가지
듣지도보지도	듣도보도
-(으)니(까)	-니(까)
보니(까)	보니께
봤더니(만)	봤더니만
하니까	하니께
울더니(만)	울더니
(모기)때문에	때문에

(먹었기)때문 때문에
에

-느라고 -너라고
-게 -게
-라/다고 -라/다구
뭐라고 뭐라구
갔다고 갔다구

(7) 補助用言

싶다 싶다
-는가/나보다
고픈가8보다 고편게다
쌌나 보다 썸게구나
쌌나 봐요 썸가봐유
인가 보다 인게구나
이었나 보다 이었나 보다
쌌나 봐 썸나 봐
올까 봐서 올까 봐서
버리다 버리다
대다 대다
웃어 댜다 웃어 댜다
바빠서/바빠 바빠서

대서

않다 않다
 측지 않다
 깨끗하지 않어유
 생각하지 않았다

나무하러 안 갔어

(8) 副詞

찬찬히 찬찬하게/찬찬히
천천히 찬찬히
넌리 넓게/넌리
(소문) 넓게
(물결) 넌리
잘 잘
좋이 잘
깨끗이 깨끗이/깨끗하게
빨리 얼른/급히/속히/빨리
 얼른(오너라)
 속히(왔다)
 얼른(해 버렸다)
 빠르게(시계가 간다)
 얼른(먹었다)
 늦게(시계가 간다)
곧장 곧장/곧바로
갑자기 갑자기/느닷없이
나중에 나중에
 나중 사람들 나중 사람덜은

은

먼저/앞에 먼저
설마 설마
하마터면 까딱했으면
일부러 일부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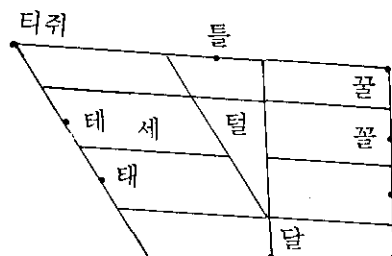
알맞게 마치맞게
 (크기가) 꼭 맞아요
 살짜기 살짝
 모두 모두
 다/전부 다
 전부/몽땅 전부
 송두리째 다
 얼마나 얼마나, 어떻게
 어찌

(이유) 어째서
 (경위) 어찌다
 (방법) 어떻게
 (반가워서) 어떻기
 왜 왜
 예 예
 그래 그래
 그래요 그래요

III. 音 韻

(1) 단모음

단모음도



단모음체계

ㅏ : ㅑ

떼(群) : 때(垢) 떼 : 때
 一 : ㄱ
 틀(機) : 털(毛) 틀 : 털
 글(文) : 결(纈) 글 : 결
 ㅓ : ㅕ
 기(旗) : 귀(耳) 기 : 기
 시(生時) : 쉬(睡) 시 : 시

(2) 이중모음

ㅗ ㅗ
 여럿 여럿
 물결 물결
 ㅜ ㅜ
 예의 예이
 계획 계획
 ㅛ ㅛ
 양념 양념
 고약 고약
 ㅠ ㅠ
 유리 유:리
 석유 세유
 ㅟ ㅟ
 요 요
 담요 담:노
 ㅠ ㅠ
 웬일 웬닐
 꺾꽂 계작

내	내
왜국	왜국
햇대	햇대
꺾	꺾
원망	원:망
권투	곤투
나	나
왕	왕
과부	과부
니	
의논	의논
무늬	무늬
왜국(倭國):외국(外	왜국:왜국
國)	
왜(何):오이(瓜)	웨:오(우)이
의자(椅子):이자(利子)	
	의자:이자
영감(令監):열(十)	이응감:이을
열쇠:열-지(-어라)	이을세:열지(열어라)

(3) 音長・聲調

장모음도

밑 들 굴 늘(板) 숙(裏) 감 매 제(罪) 메

장모음체계

1	일(一):일(事)	일:일:
꺾	뒤-(躍):휘-(曲)	따-:휘-
니	되-(升):되-(硬)	테:뒤
꺾	깨-(破):깨-(覺)	깨:깨
	매(鞭):매(驚)	매:매
니	벌(罰):벌(蜂)	벌:부리
ㅏ	밤(夜):밤(栗)	밤:밤:
ㅓ	눈(眼):눈(雪)	눈:눈:
	줄(絃):줄(연장)	줄:줄:
ㅏ	볼(顔):볼(버선)	볼:볼
꺾:니	제(祭):죄(罪)	제:제
ㅓ:니		
	들(野):덜(小)	들:들

성조체계

(1)

기(旗):귀(耳):게 기:기:그이

(꺾)

되-(化):되-(升):되-(硬)

데:데:데:

ㅞ

배(梨):배(腹):배(倍)

배:배:배

ㅡ

금(金):금(線) 금:금

ㅜ

섬(石):섬(島) 섬:섬

ㅗ

말(馬):말(斗):말(言)

말:말:말

ㅜ

술(匙):술(酒) 술:술

ㅜ

손(手):손(客):손(孫)

손:손 손

(3) 抑揚

(설명)

어디를 가니? 워디 가니 ↘

(판정)

어디를 가니? 워디 가니 ↗

(수사)

어디를 가니? 워디 가니 ↗

(4) 字音脱落

(체언)

ㅞㅞ

ㅞㅞ

	-이	-도	-하고	-만
값	값이	값도	값하고	값만
값	값이	값도	값하고	값만

(用言)

	-어/아	-지	-더라	-(는)다
값-	값어	값지	값더라	값다
값-	값어	값찌	값더라	값따
값-	값어	값지	값더라	값는다
값-	값어	값찌	값더라	값는다
값-	값어	값지	값더라	값다

(5) 不規則 活用

	-고	-으니까	-아/어	-오/소	
‘ㅈ’불규칙	돕-	돕구	도우니까	도와서	도우유
	무섭-	미섭구	미서니까	미서서	미서유
‘ㄷ’불규칙	듣-	듣구	들으니까	들어서	들유
	묻-	묻구	물으니까	물어서	물유
‘ㄹ’불규칙	들-	들구	들으니까	들어서	들유
	살-	살구	도살으니까	살아서	살유
‘ㅅ’불규칙	긋-	긋구	그시니까	그서	그시유
	낫-	낫구	나스니까	나서서	나슈
	낫-	낫구	나스니까	나서	나유
‘ㅎ’불규칙	놀-	놀구	누르니까	누러서	놀유
‘ㄴ’불규칙	흔-	흔구	흔으니까	흔러서	흔유
‘하’불규칙	하-	허구	허니까	헤서	허유

- 으 니 - 다 마 다

빨- (濯)	빠 르 니	빨 다 마 다
걸-	걸 으 니	걸 다 마 다
걸- (步)	걸 으 니	걸 다 마 다

(6) 자음축약

(活用)

농게	농게
종더라	종더라
떡하고 밥하고	떡하구 밥하구

(派生)

급혀라	급혀라
멕힌다	멕힌다
급히	급히
速히	싸게

(複合)

깨끗하군요	깨끗하군요
못했습니다	못했유

(句)

떡 했니?	떡 했니
밥 하고	밥 허구

(7) 硬音化

(체언)

밥도, 떡국도	밥또, 떡국또
밥보다, 말부터	밥버텨, 말버텨
손도, 발도	손두, 발두

(用言)

먹지, 먹겠다	먹찌, 먹겠다
입지, 입겠다	입찌, 입겠다
쏟지, 쏟겠다	쏟찌, 쏟겠다
안지, 안겠다	안찌, 안겠다
앉지, 앉겠다	안찌, 앉겠다
삼지, 삼겠다	삼찌, 삼겠다
삶지, 삶겠다	삶찌, 삶겠다
글지, 글겠다	글찌, 글겠다

(句)

할 수	헐 쭈
먹을 것	멕을 껏
어렸을 적	어렸을 껏이

(8) 非音節化

ㅁ	- 지	- 어(서)	- 었다
(반지)끼-	끼지	껴	꼰다
(안개)끼-	끼지	껴	꼰다
(꽃)피-	피지	퍼	뵈다
(팔)빼-	빼지	빼	뵈다
(짐)지-	지지	저	졌다
(공)치-	치지	쳐	쳤다
(살)찌-	찌지	찌	졌다

부시어서	부셔
마시었다	마셨다
드시었다	드셨다

지었다 졌다
 이어라 여라
 내리어라 네려라
 들리어다 들렀다

ㅌ	-지	-어(서)	-었다
(꿈)꾸-	꾸지	꿔서	꿘다
(돈)꾸-	꾸지	꿔서	꿘다
(장기)두-	두지	뒤서	뒸다
(죽)쑤-	쑤지	쑤	쑤다
(선물)주-	주지	줘서	줬다
(춤)추-	추지	춰서	췌다

싸우었다 싸웠다
 배우어라 배워라
 가꾸어라 가꿔라
 어두웠다 어뒸다
 썩우어라 썩게하라
 띄어 떼
 띄우어라 띠어라

ㄱ	-지	-어(서)	-었다
(비)오-	오지	와서	왔다
(선)보-	손 보	슨봐서	슨봤다
	지		
(활)쏘-	쏘지	썩서	췌다
(엿)고-	고지	과서	꿘다

(9) 母音調和

ㅣ

(눈을)비비- 비벼
 (줄을)당기- 당겨
 (발을)다치- 다쳐
 (문을)두드리- 두드리려
 (오랫동안)기다리- 기다려
 (집이)있- 있어
 (손으로)집- 집어

ㅍ

(말이)뽀- 뽀
 (밤이)썩- 썩
 (얼굴을)할퀴- 행켜
 (일이)쉽- 시워

ㅂ

(혹을)떼- 떼
 (어깨에)메- 메여

ㅅ

(실을)췌- 껌여

ㅊ

(말을)되- 데어
 (나물이)쇠- 세여
 (얼굴이)엷되- 엷

ㅈ

(유리를)깨- 깨쳐
 (잠을)깨- 깨여

(물어)새- 새어
 (바늘로) 꿰매- 꼬매어
 (손을)포개- 포개어
 (침을)뺨- 밧어
 (열매를)맺- 맺어

금
 흙
 틈
 이름
 금이
 흙이
 틈이
 이름이

ㄱ

(불을)끄- 꺼
 (일을)거들- 거들어
 (사람이)게으르- 게을러
 (나물을)다듬- 다듬어
 (술을)담그- 당겨
 (문을)잠그- 장겨

떡
 성(姓)
 시루떡
 석(石)
 풀섬
 섬(島)
 (넉넉히)
 떡이
 승이
 시루떡이
 석이
 풀섬이
 섬이
 넉넉히

(일어)서- 서
 (불을)켜- 켜
 (가슴을)펴- 펴어
 (넷물을)건너- 건너
 (양심이)부끄럽- 부끄러

섬
 풀섬
 섬이
 풀섬이

ㅈ

(알을)까- 까
 (손을)잡- 잡어
 (담을)쌓- 쌓아
 (밭을)밟- 밟아
 (경치가)아름답- 아름다워

장
 방(房)
 안방
 밥
 쌀밥
 찜
 왕(王)
 광(光, 화투)
 오광(五光)
 (왕왕이)
 (찜찜이)
 장이
 방이
 안방이
 밥이
 쌀밥이
 찜이
 왕이
 광이
 오광이
 왕왕이
 찜찜이

(10) 움라우트

(채언)

앞	입이	(사)들이다	디린다
다음	답이	그린다	그신다
마음	맘이	느리다	느리다
(쏟쏟이)	쏟쏟이	흐렸다	흐렸다
ㅌ		ㄱ	
중(僧)	중이	접히다	접히다
국	국이	벗기다	베끼다
떡국	떡국이	꺾이다	꺾이다
(축축히)	축축이	(손이)저리다	절리다
쑤	쑤이	(부모를)섬긴다	섬긴다
숨	숨이	(등에)엮힌다	엮힌다
동풍(東風)	동풍이	ㅈ	
(뚱뚱이)	뚱뚱이	잡히다	잡히다
ㄴ		말기다	맬기다
속	속이	깎이다	꺾이다
복(福)	복이	다린다	대린다
의복(衣服)	의복이	사권다	새긴다
(똑똑히)	똑똑이	삭인다	색인다
곰(熊)	곰이	ㅌ	
몸	몸이	굽히다	굽히다
온몸	엔놈이	굽기다	굽기다
(곰곰히)	곰곰이	묵히다	묵히다
콩	콩이	우긴다	우긴다
용(龍)	용이	뭉였다	뭉였다
(使動・被動)		축인다	척인다
ㅡ		ㄴ	
(폴을)뜯기다	뜯기다	속이다	척이다

녹이다	넥이다
뽑히다	뵙히다
볶이다	보쎌다
들볶인다	들보쎌다
높혀라	높혀라
쫓겨	쪼겨
노려	뇌려
名詞化－기	
一	
듣기(싫다)	듣기
듣기(거북하다)	듣기
크기도(크다)	크기두
ㄱ	
벗기	뵈기
일어서기	이러스기
ㅌ	
가기(싫다)	가기
붙잡기(싫다)	부잡기
ㄴ	
오기(싫다)	오기
속기(쉽다)	속끼
(다시)보기(싫다)	뵈기
얼굴이 보기싫다)	뵈기 싫다
ㅍ	
죽기(싫다)	죽끼
끓기도(했다)	끓끼두
(물)푸기(쉽다)	푸기

(11) 外來語	
(한자음)	
年	一年,二年,三年,六
年	일년,이년,삼년.육
年	一學年,二學年
年	이학년,이학년
年	六學年,五・六學
年	육학년,오륙학년
曜	
月曜日,火曜日	월요일,화요일
禮	
禮儀,婚禮	예의,혼례
料	
料理：肥料	요리：비료
流	
流水：下流：上流	유수：하류：상류
女	
女子：子女：孫女	여자：자녀：손녀
이년,저년,잡년	이년,저년,잡년
(其他)	
r	
리어카,라디오	니아까,나지오
라면,룩작	나면,룩자크
b	
버스,뵙(쓴다)	베스, 뵙쓴다
빠꾸	빠꾸
g	
껌,까스	끔,까스

四. 종합편 (방언의 특징)

충청남도 서산시(군), 태안군은 우리나라의 중부지방에 해당되며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다. 문화의 중심권-서울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으나, 그런 지리적 위치로 인해서 독특한 방언을 형성하고 있다.

이 방언의 특징은 앞에서 예시한 어휘, 음운, 문법의 자료에서 충분히 추출된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것만을 종합해서 정리해 보기로 한다. 다만, 어휘에서는 서산시(군)과 태안군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여기서는 공통점만을 추출하여 기술한다.

1. 음운(phonemes)

음운은 음소(segmental phonemes)와 운소(supra-segmental phonemes)의 구조와 음운의 변동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1. 음소의 구조

(1) 자음

조음절 조음방법	양 순	치 경	경구개		연 구개	성 문
			파찰	마찰		
단 순	p	t	č	s	k	
긴 장	p'	t'	č'	s'	k'	
대 기	p ^h	t ^h	č ^h		k ^h	h
비 강	m	n			ŋ	
설 측		l				

(2) 모음

하위고차 음운모양	하위안위	전 설		후 설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	설	i	(y)	ĩ	u
중	설	e	(ø)	ə	o
저	설	ɛ		a	

(3) 반모음

ĩ, j, w

(4) 중모음

단모음 반모음	단모음							
	i	e	ɛ	ĩ	ə	a	o	u
j	je	jɛ	jĩ	jə	ja	jo	ju	
w	wi	we	wɛ		wə	wa		
ĩ	ĩ							

2. 운소

(1) 소리의 길이(長短)

/ / : 단모음

/·/ : 장모음

(2) 절종결(terminal contour)

/↘/ : 서술, 단정, 청유……

/↗/ : 의문, 회의……

/↘/ : 명령……

/→/ : 감탄, 탄식……

3. 음운의 변동

음운의 변동은 편의상 표준어와 비교하여, 이 방언이 음운이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변동의 순서가 반대일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공시적인 비교만이 고려의 대상이다.

변동의 양상중, 예가 하나인 것은 이 방언의 특수한 어휘인 것으로 보고, 규칙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서산시(군)과 태안군이 차이가 있으므로 양 방언을 동시에 다룬다.(보기, / : 환경, v : 모음, c : 자음)

(1) 자음의 변동

① 긴장자음화

가. /s/→/ʃ/-v(c)

표준어 서산시(군) 태안군

/susu/ /s'usu/ /s'usu/

/sileki/ /s'ileki/

/soneki/ /s'oneki/ /s'onakpi/

/sanapta/ /s'anapta/

/samta/ /s'amta/

/seŋkat/ /s'eŋkat/

나. /k/→/k'/-v(c)

/k'ülīm/ /k'ülīm/ /k'ülīm/

/k'ikčeni/ /k'ikčeni/

/kolinne/ /k'olayne/

/kekuli/ /k'ekuli/

다. /č/→/č'/-v

/čakīncip/ /č'akīncip/

/čalīta/ /č'alīta/

/čilinne/ /č'ilinne/

② 조음점의 이동

가. /k'/→/č^h/ -v

/tok'i/ /toč^hi/

/kak'apta/ /kač^hapta/

/hjəŋ/ /səŋ/ /səŋ/

/hjətpaŋil/ /setpaŋil/

ㄴ. /k/→/č/ /-i/, /j/

/hjaŋnamu/ /saŋnamu/

/kimməta/ /čimməta/

/kimč^hi/ /čimč^hi/

ㅁ. /t/→/č/ /-v

/milkiul/ /milčiul/ /milčiul/

/tenim/ /čənim/ /čənim/

/jətkilim/ /jətcilim/

/tutəci/ /tičeki/

/kiwaciɸ/ /čiwaciɸ/ /čiwaciɸ/

/kičike/ /čičike/

③ 첨가

/kičəky/ /kičəkwi/

ㄱ. /l/→/ll/ /-v

/kjəul/ /čəul/

/malu/ /malɸ/

/kjət/ /čət/

/kəsilita/ /kəsillita/

/kipta/ /čipta/

/kəsillimton/ /kəsillimton/ /kəsillimton/

/kim/ /čim/

/talita/ /tallita/

/kim/ /čisim/

/malita/ /mallita/ /mallita/

/tiŋkjə/ /kiŋčə/

/kilita/ /killita/ /killita/

/č^hamkilim/ /č^hamčilim/

/calita/ /č^hilita/

/kimč^hi/ /čimč^hi/

/kjəpot/ /čəpot/

ㄴ. /m/의 첨가

/kilita/ /čilita/

/kalima/ /kalimma/

/pappota/ /pappotam/ /pappotam/

/paput^hə/ /patput^həm/ /patput^həm/

ㄷ. /m/→/ŋ/ /-k/

/omkita/ /eŋkita/

/komkita/ /keŋkita/

ㄷ. /s/의 첨가

/mu/ /musu/ /musu/

/aut^hata/ /asut^hata/ /asut^hata/

ㄹ. /h/→/s/ /-i/, /j/

/hja/ /səpatak/

/mailkanta/ /masilkanta/ /masilkanta/

/kuju/ /kusu/ /kuswi/
 /moi/ /mosi/ /mosi/
 /jəu/ /jəsu/ /jəsu/
 /kawi/ /kase/

/juč^h/ /jus/ /jus/
 /k'oc^h/ /k'os/ /k'os/

라. /t^h/→/s/ / (c)v__

/pat^h/ /pas/ /pas/
 /p^hat^h/ /p^has/ /p^has/
 /sot^h/ /sos/ /sos/
 /mit^h/ /mis/ /mis/

④ 탈락

가. /h/의 탈락

/səl^hin/ /səl^hin/
 /il^hin/ /il^hin/
 /a^hin/ /a^hin/
 /a^hile/ /ale/
 /jəl^hil/ /jəl^hil/

(2) 모음의 변동

① 전설모음화

가. /i/→/i/

/posip/ /posip/ /posip/
 /sɔsilan/ /sosilan/ /sosilan/
 /kūlim/ /k'ūlim/
 /tiljətapota/ /tiljətapota/ /tiljətapota/
 /kalic^hita/ /kalic^hita/

⑤ 귀착

가. /lk/→/k/ / (c)v__

/talk/ /tak/ /tak/
 /amt^hak/ /amt^hak/ /amt^hak/
 /č^hilk/ /č^hik/ /č^hik/
 /hilk/ /hik/ /hik/

나. /ə/→/e/

/nutəki/ /nuteki/ /nuteki/
 /tutələki/ /tutileki/
 /ənc^həhi/ /ənc^həhi/ /ənc^həhi/
 /kičəky/ /čicekwi/
 /əmi/ /emi/ /emi/
 /s'ək^hita/ /s'ek^hita/
 /pəlita/ /pelita/

나. /p^h/→/p/ / (c)v__

/čip^h/ /čip/ /čip/
 /mulip^h/ /mulip/ /mulip/

다. /č^h/→/s/ / (c)v__

/suč^h/ /sus/ /sus/

/k'uləmi/	/k'ulemi/	/k'ulemi/	/čəḡk'i/	/čəḡk'i/	/čəḡk'i/
/čiləḡi/	/čileḡi/	/čileḡi/	/ačiləḡi/	/ačiləḡi/	
/sakčəḡi/	/sakčəḡi/	/sakčəḡi/	/kapjəpta/	/kəpjəpta/	
/əljəpta/	/eljəpta/		/kaljəpta/	/keljəpta/	
/məkita/	/mekita/	/mekita/	/matk'ita/	/mek'ita/	
/mək ^h ita/	/mek ^h ita/		/s'aita/	/s'cita/	
/tolč'eki/		/tolč'eki/	/mantilta/	/məntilta/	/məntilta/
/əḡtəḡi/		/əḡteḡi/	/č ^h amkilim/		/č ^h əḡčilim/
/pətkita/	/petkita/	/pek'ita/	/paḡmaḡi/		/paḡmeḡi/
/tuk'əpi/		/tuk'epi/	/p ^h ilami/	/p ^h ilemi/	
/tutəči/		/tičeki/	/k'at ^h uli/		/k'et ^h uli/
			/ḡəpalaki/		/ḡəpaləki/
			/nollata/		/nolləta/

ᠳ. /a/→/ɛ/

/oisopaki/	/oisopeki/	/oisopeki/
/talimi/	/təlimi/	/təlimi/
/talita/	/təlita/	
/tulumaki/	/tulumeki/	/tulumeki/
/čəmpaḡi/	/ḡampeḡi/	/čəmpəḡi/
/č ^h ampit/	/č ^h əmpit/	
/mati/	/məti/	
/čəḡkaḡi/	/čəḡkəḡi/	/čəḡkəḡi/
/maljəpta/	/məljəpta/	/məljəpta/
/ankita/	/əḡkita/	
/sakimp ^h ali/	/sekimp ^h ali/	

/api/	/ɛpi/
/holapi/	/holəpi/
/akami/	/ekəmi/

ᠳ. /o/→/ɸ/→/e/

/toljənnim/	/təljənnim/	/təljənnim/
/koki/	/keki/	/keki/
/čuhkoki/	/čuhkeki/	
/t ^h ok'i/	/t ^h ek'i/	/t ^h ek'i/
/kojom/	/kejəm/	/kejəm/
/mot ^h oḡi/	/mot ^h əḡi/	
/mosita/	/mesita/	
/komkita/	/keḡkita/	

ᠳ. /u/→/e/

/k'ampuki/	/k'ampeki/	/k'ampeki/
/met'uki/	/met'eki/	

/t'impuki/	/t'impeke/		/tyčita/	/tičita/
/kuhtuḥi/		/kuhteḥi/	/pak'yta/	/pak'ita/
/mot ^h uḥi/		/mot ^{he} ḥi/	/t'yta/	/t'ita/
			/sypta/	/sipta/

② 후설모음화

가. /ɸ/→/o/			나. /ɸ/→/e/		
/sɸsilah/	/sosilah/	/sosilah/	/sɸ/	/se/	/se/
/ɸjahkan/	/ojahk'an/		/saksɸ/	/sakse/	/sakse/
/hɸčəŋki/		/hočəŋki/	/t ^h ɸč ^h im/	/t ^{he} č ^h im/	
			/ɸnson/	/enson/	
			/kulləḥsɸ/	/kulləḥse/	
나. /y/→/u/			/hɸč ^h im/	/t ^{he} č ^h im/	
/kalk ^h y/		/kalk ^h u/	/ɸnson/	/enson/	
/ynmal/		/unmal/	/kulləḥsɸ/	/kulləḥse/	
			/hɸč ^h uḥ/	/heč ^h uḥ/	/he/
			/kɸta/	/keta/	

③ 평순모음화

가. /y/→/i/			나. /ə/→/u/		
/ky/	/ki/		/ɸnson/		/enson/
/pahky/	/pahki/		/tɸta/		/teta/
/pak ^h y/	/pak ^h i/		/hɸolipalasn/		/heolipalam/
/čy/	/či/	/či/			
/pakčy/	/pakci/	/pakči/			
/talamčy/	/talamči/				
/s'impaky/	/s'impaki/	/s'impaki/	/təm/		/tum/
/kalky/	/kalk ^h i/		/pəl/		/puli/
/ty/	/ti/		/mənči/		/munci/
/t ^h ya/	/t ^h ita/				
/t ^h ykita/	/t ^h ikita/				

④ 원순모음화

가. /ə/→/u/

/təm/	/tum/
/pəl/	/puli/
/mənči/	/munci/

나. /i/→/u/

/kotilim/	/kotulum/		/t'əlt'a/	/t'ilt'a/	/t'ilt'a/
/kolim/	/kolum/	/kolum/	/čət'a/	/čit'a/	
/čhüimjən/	/čhuumən/		/əlt'a/	/ilt'a/	
/tulim/	/tulum/	/tulum/	/kəməli/	/kiməli/	/kiməli/
/čukink'ε/		/čukunk'ε/	/sət'al/	/sit'al/	/sital/
/mjənili/		/menuli/	/əpt'a/	/ipt'a/	/ipt'a/

다. /ə/→/o/

/əməni/		/oməni/	/əllita/	/illita/	
/tət/		/tot/	/čəniə/		/čh'injə/

④ 상승작용

가. /e/→/i/

/pənteki/	/ptəntiki/				
-----------	------------	--	--	--	--

/sesut'εja/	/sisut'ε/				
-------------	-----------	--	--	--	--

/ččč ^h eki/	/ččč ^h iki/				
------------------------	------------------------	--	--	--	--

/meta/	/mita/				
--------	--------	--	--	--	--

/kičək'e/	/kičək'i/				
-----------	-----------	--	--	--	--

/nukuhant ^h e/	/nukuhant ^h i/				
---------------------------	---------------------------	--	--	--	--

/hak'joe/	/hek'joi/				
-----------	-----------	--	--	--	--

다. /o/→/u/

/oi/	/ui/				
------	------	--	--	--	--

/hwalo/	/hwalu/	/hwalu/			
---------	---------	---------	--	--	--

/som/	/sum/				
-------	-------	--	--	--	--

/sanč ^h on/	/samč ^h un/	/samč ^h un/			
------------------------	------------------------	------------------------	--	--	--

/tot ^h oli/	/tot ^h uli/				
------------------------	------------------------	--	--	--	--

/toč ^h i/	/tuč ^h i/				
----------------------	----------------------	--	--	--	--

나. /ə/→/i/

/s'əle/	/s'ile/				
---------	---------	--	--	--	--

/həhkəp/	/hīnkəp/				
----------	----------	--	--	--	--

/əntəni/	/īntəni/				
----------	----------	--	--	--	--

/təm/	/tīm/				
-------	-------	--	--	--	--

/nəlt'a/	/nīlt'a/				
----------	----------	--	--	--	--

/puləptaku/	/puləptaku/	/puləptaku/			
-------------	-------------	-------------	--	--	--

/patkoləh/		/patk'uləh/			
------------	--	-------------	--	--	--

/hopak/		/hupak/			
---------	--	---------	--	--	--

/sokjəh/		/sukjəh/			
----------	--	----------	--	--	--

/komo/		/komu/			
--------	--	--------	--	--	--

/p'jocok ^h ata/	/p'jocuk ^h ata/	/pjəlak/	/pelak/
		/p'jə/	/p'e/
라. /a/→/ə/		/pjət/	/pet/
/talmattako/	/talməttaku/	/təmpjəlak/	/təmpelak/
/tallasə/	/talləsə/	/hjetpanil/	/sep'anil/
/nam/	/nəm/	/mjənili/	/menuli/
/p ^h ali/	/p ^h əli/	/pjəluk/	/peluk/
/č'alpasə/	/č'alpəsə/		
/ančala/	/ančəla/	라. /wa/→/a/	
/namu/	/nəmu/	/k'wəɰkwali/	/k'ɛɰkali/

⑤ 단모음화 · 축약

가. /jə/→/ə/			
/hjəɰ/	/səɰ/	마. /ujə/→/jə/	
/sepjək/	/sepək/	/sujəm/	/sjəm/
/hjə/	/səp'atak/	/t ^h əksujəm/	/t ^h əksjəm/

나. /ii/→/i/

/hiint'ək/	/hint'ək/	/hint'ək/
/hiinčay/	/hintčawi/	/hintčawi/

다. /jə/→/e/

/pjə/	/pe/	/pe/
/pjənso/	/penso/	
/mjəɰč ^h i/	/melč ^h i/	
/pjəsil/	/pesil/	
/čilkjəɰi/	/čilkeɰi/	/čilkeɰi/

⑥ 이중모음화

가. /y/→/wi/

/tolč'əky/	/tolč'əkwi/	
/kəy/	/kəwi/	/kəwi/
/čypul/	/čwipul/	
/nyta/	/nwita/	/nwita/
/say/	/sawi/	
/y/	/wi/	
/sy/	/swi/	
/samaky/		/samakwi/

/ty/ /twi/
 /təy/ /təwi/

나. /φ/→/we/

/amsφ/ /amswe/
 /sumsφ/ /samswe/

(2) 기타(고어로 보이는 것)

/siləh/ /silkeh/
 /kay/ /kase/ /kase/
 /ke/ /kii/ /kii/
 /nchi/ /nasinkehi/
 /mu/ /musu/ /musu/
 /aut^hata/ /asut^hata/ /asut^hata/
 /maĩlkata/ /masilkata/ /masilkata/
 /moi/ /mosi/ /mosi/
 /jəu/ /jesu/ /jesu/
 /kuju/ /kusu/ /kuswi/
 /se/ /sai/
 /ke/ /kai/
 /me/ /mai/
 /kančah/ /cilah/
 /saḥč^hu/ /pulu/
 /puč^hu/ /cul/

II. 문법(grammar)

앞의 자료에서 예시된 대명사, 부사 등은 어휘의 특징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주로 조사, 용언의 접미사의 특징을 기술해 보기로 한다.

분류는 최현배님의 「우리말본」(서울: 정음사, 1975)에 따르되, 필요에 따라 다르게 한 곳도 있다.

1. 조사

(1) 격조사

① 주격조사

{-이/-가}

② 관형격조사

{-의}

③ 부사격조사

가. 처소격 나. 낙착점 다. 사물: {-이}

(處所格)

㉠ 사람: {-한 티 / -더러}

㉡ 출발점 ㉢ 사물: {-서}

㉣ 사람: {-한티서}

㉤ 향방 ㉥ 사물: {- (으)루}

㉠사람 : { - 한
티루 }

나. 기구격(器具格) : { - (으)루(다
가) }

다. 자격격(資格格) : { - (으)루(서) }

라. 비교격(比較格) : ㉡모양 : { - (이)
랑 }

{ - 하
구 }

㉢정도 : { - 만
치 }

{ - 부다
(口) }

마. 역동격(與同格) : { - 하구 }

바. 변성격(變成格) : { - (으)루(다
가) }

④ 보조격조사
{ - 이 / - 가 }

(2) 보조사(補助詞)

① 상이보조사(相異補助詞)

{ - 은 / - 는 }

② 동일보조사(同一補助詞)

{ - 두 }

③ 홀로보조사(同一補助詞)

{ - 만 }

④ 일양보조사(一樣補助詞)
{ - 마 }, { - 씩 }

⑤ 시작보조사(始作補助詞)
{ - 부터(口(두) }

⑥ 도급보조사(到及補助詞)
{ - - 겨정 }

⑦ 특별보조사(特別補助詞)
{ - (이)야 }

⑧ 역동보조사(亦同補助詞)
{ - (이)ㄴ들 }, { - (이)래두 }

⑨ 선택보조사(選擇補助詞)
{ - (이)나 }, { - (이)든(지) }

⑩ 개산보조사(概算補助詞)
{ - 겨정 }

⑪ 종결보조사(終結補助詞)
{ - 마저 }

⑫ 덜참보조사(不滿補助詞)
{ - (이)래두 }

(3) 접속조사(接續助詞)

{ - 하구 }, { - (이)랑 }, { - 허며 }

2. 용언의 접미사

(1) 연결접미사

① 구속형(拘束形)

가. 가정 : { - (으)면 }, { - 거든 }

나. 사실 : { - (으)니(께) }, { - 아서/어 }

- 서/－여서}
- 다. 필요 : {－아야/－어야/－여야}
- ② 방임형(放任形)
- 가. 가정 : {－더래두}, {－(으)고지래두}
- 나. 양보 : {－(으)고망정}
- 다. 사실 : {－지면(은)}, {－아두/－어두/－여두}
- 라. 추정 : {－(으)런면(은)}
- ③ 나열형(羅列形)
- 가. 시간적나열 : {－(으)먼서}, {－미}, {－구(서)}, {－아/－어/－여}
- 나. 공간적나열 : {－머}, {－고}, {－거니}
- ④ 설명형(說明形)
- {－는디}, {－니}
- ⑤ 선택형(選擇形)
- {－거나}, {－든(지)}, {－나}
- ⑥ 연발형(連發形)
- {－자(마자)}
- ⑦ 중단형(中斷形)
- {－다(가)}
- ⑧ 익심형(益甚形)
- {－(으)고수록}
- ⑨ 의도형(意圖形)
- {－(으)리라구}
- ⑩ 목적형(目的形)
- {－(으)러}
- ⑪ 도급형(到及形)
- {－두록}
- ⑫ 반복형(反復形)
- {－(으)락}
- (2) 강조접미사
- {－치－}
- (3) 태접미사
- 가. 수동태 : {－이－, －히－, －리－, －가}
- 나. 사역태 : {－이／－히－／－리－／－기－／－우－／－후－, －구－, －으키, －이키, －애－}
- (4) 존대접미사
- {－(으)시}
- (5) 시제접미사
- 가. 현재 : {－φ－}
- 나. 완료 : {－았－／－었－／－였－}
- 다. 추정 : {－겠－}
- (6) 시상접미사

가. 진행 : { -는- / -니- / -ㄴ- }

나. 회상 : { -더- / -디- / -ㄷ- }

다. 예기 : { -시- }

라. 추정 : { -리- }

마. 확신 : { -지- / -스- }

(7) 종결접미사

등분 종결형	등분1	등분2	등분3	등분4
서술형	-유	-네 -데	-다	-아
의문형	-유	-나	-니	-아
칭유형	-유	-세	-자	-아
명령형	-유	-게	-라	-아

野 分 物 動

漢 昌 金
錫 亨 卞

(忠北大學校)

I. 調 査 目 的

瑞山 및 국립공원 태안 地域내의 생물 생태계의 實狀과 그 維持機構에 관한 학술조사를 수행함으로서 날로 廣範圍하게 漸増되어 가고있는 自然毀損 狀態와 그로 인한 자연 생태계의 破壞實態를 把握하여 同地域内の 自然林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귀중한 자연자원의 영구적인 保全對策 樹立에 이바지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II. 瑞山／泰安地域의 地形 및 概觀

瑞山 泰安地域은 중부 서해안 地域에 위치하여 행정구역상으로 충청남도에 속하고 위도상의 위치는 동경 126-127도 북위 36-37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서해로 뻗어나간 半島(태안반도)形으로 3面이 바다로 쌓여 있으며 屈曲이 심한 리아스식 해안으로 해안선의 總延長 816.6km이고 그 沿岸에 163개의 섬(有人島 25개)으로 되어 있다. 산세는 車嶺山脈의 支脈으로 솟은 伽倻山(677.8m)과 여기서 다시 지맥으로 八峰山(262m) 白華山(284m : 花崗岩)과 島飛山(352m)이 솟은 丘陵型의 지형을 이루어져 있다.

瑞山 泰安의 面積은 981.67km²이고 人口는 約 27萬이며 1市 2個郡 16個面の 행정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후는 연평균 기온이 11.8℃ 연평균 강수량 1,150mm이다.

동물상은 동물지리학적으로 봐서 우리나라의 다른 地域과 대부분 공통種이나, 특이한 것은 지형적 특성으로 맹수류는 거의 分布하지 않은 편이며 태안반도의 무인도 내에서만 서식하고 있는 팽이갈매기는 近興面 賈誼島 南端에 봄철에 繁殖 産卵場으로 알려졌다. 한편 각시바위 등대 및 백사장에서 가의도 중간에 위치한 암초에도 休息乃至는 棲息하고 있음이 알려졌다.

III. 調查時期 方法 및 調查區域

1. 調查時期

1990年 9月－11月 末 주로 夏季放學中

2. 調查方法

㉠ 直接調查 ㉡ 探問調查 ㉢ 文獻調查

3. 調查區域

* 陸上地域

(1) 瑞山市－瑞山市 外部地帶 및 隣接區域

(2) 瑞山郡 ㉠ 大山面 雲山里 地域

㉡ 地谷面 地域

㉢ 雲山面 地域

㉣ 聖淵面 地域

㉤ 海美 高北 地域

㉥ 八峰 浮石 地域

(3) 泰安郡 ㉠ 泰安邑 白華山 一帶

㉡ 近興面 一帶

㉢ 安眠邑 古南面 一帶

㉣ 所遠面 一帶

* 海岸地域

(1) 瑞山郡 大山面 三星 一園地 一帶 및 海岸 및 島嶼

(2) 泰安郡 所遠面 萬里浦 海水浴場 一帶

近興面 賈誼島

南面 居兒島

安眠邑 承彦里

古南面 長古島 앞

IV. 調查結果

1. 動物

調査된 陸上動物은 총 30目 117科 222種이었다. 調査地域別로 살펴보면 大山地域에서는 哺乳類 5種, 鳥類 17種, 爬蟲類 1種, 兩棲類 2種, 昆蟲類 49種으로 합계 17목 45과 74種이 調査되었고, 지곡 地域에서는 哺乳類 7種, 鳥類 12種, 爬蟲類 5種, 兩棲類 3種, 昆蟲類 63種으로 합계 17목과 59과 90種이 調査되었으며, 雲山地域에서는 哺乳類 14種, 鳥類 34種, 爬蟲類 7種, 兩棲類 7種, 昆蟲類 155種으로 합계 29목 116과 217種이 調査되었다. 이들 陸上動物의 목록은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표 1. 육상동물의 분포상황

지역 종류	서 산 시	서 산 군						태 안 군			
	서 산	대 산	지 곡	운 산	성 연	해고 미북	부팔 석봉	태 안	근 흥	소 원	안고 면남
곤 목	7	7	7	11	8	7	7	10	9	7	9

총 류	과 종	30 60	24 49	38 63	76 155	29 60	38 64	36 62	30 50	39 45	41 56	45 68
양 서 류	목 과 종	1 2 2	1 2 2	3 3 3	2 5 7	2 3 5	3 4 5	2 3 4	2 2 3	2 2 2	2 2 4	2 2 4
파 충 류	목 과 종	1 1 1	1 1 1	1 3 5	1 4 7	1 2 3	1 3 4	1 2 4	1 2 3	1 3 4	1 2 4	1 2 3
조 류	목 과 종	6 10 13	6 11 17	5 10 12	10 22 34	6 11 16	8 10 24	6 9 16	10 21 30	10 20 24	10 21 30	10 22 35
포 유 류	목 과 종	3 5 8	2 4 5	3 5 7	5 9 14	3 5 7	3 4 7	3 4 8	2 4 5	3 5 7	3 5 7	4 8 11
계	목 과 종	17 48 84	17 42 74	19 59 90	29 116 217	20 50 91	22 59 104	19 54 94	25 59 91	23 69 82	23 71 99	26 79 121

표 2. 瑞山市, 瑞山郡, 泰安邑 種別 出現상황

종명	지역	서 산 시				서 산 군				태 안 군			
		서	서	서	성	음	대	지	운	고	고	이	원
		산	산	산	연	암	산	곡	산	북	북	원	북
		시	시	시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동	석	갈	병	도	대	연	소	가	용	포	방
		문	남	산	천	당	포	화	중	구	암	리	갈
		동	동	동	리	리	리	리	리	리	리	리	리
		○	○	○		○	○	○	○		○	○	○
고	슴	○	○	○		○	○	○	○		○	○	○
두	더	○	○	○	○	○	○	○	○	○	○	○	○
멧	토	○	○	○	○	○	○	○	○	○	○	○	○
하	늘												
청	설		○				○		○				
다	람	○	○	○	○	○	○	○	○	○	○	○	○
늑			○	○					○			○	
여			○		○		○		○				
너	구	○				○	○	○		○	○	○	○
곰(반달가슴곰)													
대륙목도리담비													
족	제	○	○	○	○	○	○	○	○	○	○	○	○
오	소	○	○		○		○	○	○			○	○
수					○								
	삿					○	○		○				
표							○						
범	(호랑이)												
멧	돼	○											

사	향	노	루												
고		라	니												
노			루	○	○	○	○	○	○	○	○	○	○	○	○
산			양												
종			수	7	9	8	10	8	10	8	13	8	12	6	7

표 3. 棲息種과 棲息環境의 比較

종 류	서식환경	A	B	C	D
하	늘 다 람 쥐	○4			
늑	대				
여	우				
너	구 리	○2,4		○ 2	○4
곰	(반달가슴곰)				
대륙목도리담비					
오	소 리	○1,2,3,4			
수	달				
	삿	○2,3			
표	범				
범	(호 랑 이)				
사	향 노 루				
산	양				
고	슴 도 치	○2,3			
두	더 지	○1,2,3			○2
멧	토 끼	○1,2,3,4	○1,2		○1
청	설 모	○1,2,3,4		○2,3	
다	람 쥐	○1,2,3,4	○2	○2,3	

죽	제	비	○ 2, 3, 4	○ 1		○ 3
멧	돼	지	○ 2, 3, 4			
고	라	니	○ 1, 2, 3	○ 1, 2		
노		루	○ 1, 2, 3, 4	○ 2	○ 2	

A	삼	림	1. 상록수	2. 활엽수림	3. 혼효림	4. 침엽수림
B	초	원	1. 산지초원	2. 평지초원	3. 습원	
C	육	수	1. 호소주변	2. 계곡주변	3. 河川周邊	
D	기	타	1. 논, 논두렁	2. 밭, 밭두렁	3. 주택지, 공원	4. 岩石地域

陸上動物중에서 哺乳類는 멧토끼, 다람쥐, 등줄귀, 집쥐, 두더지가 大山 지곡 및 雲山地域 모두에서 調査되었고, 그 출현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鳥類는 제비, 휘파람새, 참새가 흔히 출현하였으며, 꿩, 멧비둘기, 까치도 비교적 많이 서식하고 있었다. 또한 雲山地域에서 박새가, 大山地域에서 천등오리, 쇠기러기가 많이 출현하고 있었다. 爬蟲類는 유혈목이가 3地域에서 흔히 調査되었고, 무자치, 누룩뱀, 살모사가 雲山地域과 지곡地域에 상당수 서식한다고 현지 주민들이 말하고 있다. 兩棲類는 청개구리와 개구리가 가장 밀도가 높았으며, 도롱뇽, 산개구리가 雲山地域에서 상당히 많이 출현하였다. 昆蟲類는 된장잠자리, 고추잠자리, 방아깨비, 귀뚜라미, 참매미, 배추흰나비, 암떡부전나비, 푸른부전나비, 남방씨-알뽕나비, 무당벌레, 일본왕개비, 말벌, 땅벌, 양봉꿀벌, 솔잎혹파리, 배짚은꽃등에, 꽃등에, 검정아기집파리가 3地域에서 흔히 출현하였다. 대체적으로 昆蟲類는 그 地域의 식생과 깊은 연관이 있으므로 식생이 양호한 雲山地域에서 곤충이 가장 풍부하였다.

중부지방의 다른 地域에 비해 비교적 드물게 출현하는 동물은 哺乳類에서 청설모, 鳥類에서 삵꾸기, 두견이, 때까치, 딱새 및 멧새가 兩棲類에서 움개구리가, 昆蟲類에서 검은물잠자리, 세뿔알락하루살이, 대만흰나비, 늦반딧불, 대모파리 및 뽕보꽃파리이었다.

(1) 動物相

본 調査對象 地域은 우리나라 서부의 平野 및 山野地帶가 대부분으로서 인가와 농경지가 많이 分布되어 있으므로 溫帶性 底地帶動物들이 주로 棲息하고 있었다. 調査結果 哺乳類 18種, 鳥類 68種, 爬蟲類 12種, 兩棲類 11種, 어류 68種, 陸上昆蟲類 35種 등이 確認되었다.

1) 哺乳類

調査對象 地域의 範圍는 비교적 넓으나, 標高가 낮은 平野地이기 때문에 특수하거나 稀貴한 哺乳動物은 찾아볼 수 없었다. 調査結果 경기도에는 두더지와 족제비 외 4種으로서 種構成이 단순하였고, 충청남도에는 멧토끼, 두더지, 다람쥐 외 15種이 서식하고 있어 타 地域보다 다양한 種構成을 하고 있었으나 設問紙 및 參考文獻(환경청, 1987)에서 나타난 표범, 범, 삿, 멧돼지 등은 직접 確認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들 哺乳動物 중에서 멧토끼, 두더지, 족제비, 오소리, 집쥐, 박쥐 등 6種은 전 지역에 서식하고 있어 出現頻度가 높았다.

2) 鳥類

鳥類의 調査는 高速道路가 통과할 예정인 河川과 灣을 중심으로 調査한 결과 모두 67種이 確認되었는데 그중 여름새가 34種, 텃새가 22種, 통과새가 9種, 겨울새가 2種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출현빈도를 보면 참새, 제비, 땃새, 왜가리 등이 9개 調査地域에서 모두 출현하여 상대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개개비와 중대백로가 8개소, 꼬마물떼새, 까치, 종다리 등이 7개소로서 비교적 널리 分布하고 있었다. 天然記念物에 해당하는 種은 제323호로 지정되어있는 붉은 배새매와 황조롱이가 確認되었다.

3) 爬蟲類 및 兩棲類

調査地域에서 爬蟲類는 도마뱀, 유혈목이, 무자치, 살모사 등 12種이 야산, 민가주변, 논, 밭에서 주로 서식하고 있었고, 兩棲類는 참개구리, 두꺼비, 청개구리, 맹꽂이 등 11種이 논, 밭, 민가주변 등에 널리 서식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爬蟲類와 兩棲類가 남획과

농약피해에 의하여 감소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도롱뇽과 물두꺼비는 한국특산
種에 해당되는데 차츰 그 수가 현저히 격감되고 있다.

4) 昆蟲類

瑞山郡, 泰安郡은 충청남도의 西部 海岸地域에 位置하고 있으며 안면도와 서산반도를
이루고 있어 지형적으로 비교적 內陸地域보다 다소 소외되었을 뿐 아니라 교통이 불
편하여 내륙과의 교류가 빈번하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瑞山市, 瑞山郡, 泰安郡의
昆蟲調査 결과는 표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30目 117科 222種이 確認되었다. 땅강아지,
말매미, 호랑나비, 꼬리명주나비, 길앞잡이, 폭탄먼지벌레, 애반딧불, 말벌, 물잠자리류
등 9種은 전 地域에서 흔히 발견되는 種이며 장구애비, 이른봄애호랑나비, 오색나비,
빨나비, 양코스키팩정벌레, 물방개, 물맴이, 늦반딧불 등은 넓은 分布를 하고 있으나 그
수는 많지 않았다.

(2) 動物相의 變化

仁川을 기점으로 唐津을 거쳐 瑞山 東部를 지나 西部 海美 고북을 걸쳐 건설될 西海
高速道路事業의 施行으로 各種 動物의 休息地가 部分的으로 破壞되거나 變形, 二分되는
現象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事業施行中 施工過程에서 發生되는 騒音, 震動, 發破
音, 粉塵 등과 事業施行 後 自動車 通行으로 發生되는 排氣가스, 騒音, 震動, 車輛燈 및
夜間照 등으로 인하여 道路周邊에 棲息하는 陸上動物의 生活 및 夜間活動에 다소 制
限을 받으리라 豫想된다.

따라서 이들 영향권내에 서식하던 陸上動物들은 주변의 다른 안정된 서식지를 찾아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환경변화에 민감한 두더지, 멧토끼, 멧비둘기, 멧새, 까치,
도롱뇽 및 일부 爬蟲類들은 서식지 이동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哺乳類들은
局地生活을 하고 夜行性으로 계획도로와 隣接한 地域에 안정된 서식지가 확보될 경우
이들의 서식환경 보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思料된다.

그리고 橋梁架設, 河床浚深, 骨材採取, 河道整備, 高水敷地 造成으로 河川의 既存 서
식지가 一部 攪亂되고 물의 濁度(turbidity)가 증가되면 어류를 포함한 수서동물군집이

변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사업이 완료되면 인간의 접근이 비교적 적은 地域을 중심으로 이들 수서동물들이 다시 서식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육식성 鳥類들의 菜食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動物의 保護對策

야생동물들은 서식지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서식지를 최대한으로 보존해주고 인간의 간섭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보호대책이다. 그러나 본 사업시행으로 일부 陸上 및 수계의 서식지 변화가 불가피해 지므로 그들의 서식지 환경변화를 최소화하도록 해야하고 인접한 안정된 서식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시행 과정중에는 各種 동물들이 棲息하고 있는 森林, 河川, 河口, 耕作地, 混地 등의 破壞를 최소화하고 粉塵, 煤煙, 騒音등의 발생과 水質汚染에 주의하도록 한다. 哺乳類 및 鳥類의 이동서식지는 天然林으로서 林相과 地形이 다양하고 溪流나 湖沼가 있으며 먹이와 은신처가 풍부한 곳이어야 한다. 이러한 서식지가 빨리 안정되기 위해서는 주변에 汚染源이 없어야 하고 인공적인 給水 및 給餌시설과 營巢材를 공급해 주어야 한다. 營巢材로는 마른 풀과 마른 짚 공급, 灌木의 보존, 인공 새집의 가설이 필요하다.

爬蟲類와 兩棲類는 濫獲과 水質汚染이 방지되면 다양한 群集이 형성될 것이며 각종 昆蟲類와 어류의 서식지도 확보될 것이다. 특히 天然記念物을 포함하여 환경청에서 環境保全法 제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1989年 3月 10日 고시한 “特定野生動植物”에 해당되는 동식물에 대해서는 濫獲과 採取를 예방하도록 한다.

(4) 稀貴 및 滅種危機의 생물

본 調査地域내에 서식이 確認된 陸上 생물중에서 稀貴 및 滅種危機의 생물과 天然記念物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생물에 대하여 調査하였다.

1) 天然記念物

○ 泰安郡 근흥면 난도 일원의 갯이갈매기(*Larus crassirostris*)서식지: 天然記念物 제334호로 지정되어 있는데(1982. 11. 16지정) 賈誼島에서 봄에 산란번식하고 이 섬을 떠나 남면 앞 암초 위에 이 새가 여러마리 날아오고 있다. 天然記念物로 지정된 난도와 더불어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 매류: 天然記念物 제323호로 지정되고 있는데 붉은배새매(*Accipiter soloensis*)와 황조롱이(*Falco tinnunculus interstinctus*)가 雲山地域에서 각각 1마리씩 목격되었다.

○ 왜가리(*Arder cinerea jouyi*)의 서식지: 충북 진천(天然記念物 제13호), 삼천포 학섬(제208호), 여수 신점리(제209호), 기타 地域에 天然記念物로 지정되고 있는데 이새가 雲山과 당진, 석문, 고대 地域에서 목격되었다.

2) 稀貴 및 危機 動物

한편 稀貴動物은 雲山地域에 6종류, 고대 地域에 3종류가 棲息하는데 다만 석문 地域에는 없었다(표 4). 이 중에서 사는 雲山地域에 소수로 서식하고 있음을 주민들로부터 청문하였고, 도마뱀과 구렁이는 雲山地域과 고대地域에 각각 소수로 서식하는데 후자는 年 수 마리가 포획된다고 한다. 무당개구리는 雲山과 고대 地域에, 두꺼비는 雲山地域에 소수로 서식하고 있다. 이들 稀貴動物은 이동성이기는 하지만 교로리와 거리 멀기 때문에 직접 피해는 받지 않을 것이다.

표 4. 調査地域內 稀貴 動物

강	종 명	학 명
포 유 류	살	<i>Felis beequalensis manchurica</i> Mori
파 충 류	도 마 뱀	<i>Leiopism laterale</i> Say
	구 령 이	<i>Elaphe schrenckii</i> Strauch
양 서 류	무 당 개 구 리	<i>Bobina orientalis</i> Boulenger
	두 껌 비	<i>Bufo bufo gargarizanus</i> Dantor
곤 충 류	남 방 부 전 나 비	<i>Zizeeria maha</i> Kollar
	* 푸 른 부 전 나 비	<i>Celastrina argiolus</i> Linne

* 특정야생동식물로만 지정되어 있음(환경청, 1989)

(5) 생태계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생물

본 調査地域중 석문과 대난지도를 제외한 나머지 고대, 雲山, 팔봉 및 마도 地域의 소나무 군락에는 솔잎혹파리가 기생하여 피해를 입히고 있었고 이들 피해목을 벌목한 地域도 있었다.

솔잎혹파리의 피해를 크게받은 소나무 군락이 죽으면 임상에 광선이 투입되므로 참나무류(줄참나무, 굴참나무 등)가 자라서 소나무를 대체하는 천이가 일어나게 된다. 그리하여 소나무군락의 피도는 감소하고 참나무류의 피도는 증가한다. 이처럼 솔잎혹파리의 피해는 크다고 본다.

(6) 減少의 原因

野生動物의 減少原因은 그들의 생활에 必要한 三大 要素인 서식지의 破壞, 먹이, 그리고 물이 必要량 以下이면 減少된다. 그러나 감소를 주는 영향은 서식지 파괴인 山林의 伐採, 濫伐, 火山, 먹이 不足, 氣象障害 등 직접영향과 도시의 膨脹, 등산객의 급증, 강력 殺蟲劑와 殺鼠劑의 濫用에 의한 피해, 原因不明의 韓藥劑와 主皮의 利用등에 있다. 우리나라는 8.15이후의 무정부 상태 6.25이후의 무질서를 틈타 싸이나라에 의한 평의 포획으로 죽은 死體를 먹은 늑대, 여우, 족제비, 삿 등이 크게 감소되었고 6.25이후 미군의 進駐以後 殺鼠劑 플라톨로 인한 들쥐, 집쥐의 사체를 먹은 늑대, 여우, 족제비 등이 滅種되었고, 원인불명의 한약제로 곰, 사향노루가 密獵되어 絶種 危機에 處하게 되었다.

표 5. 鳥類 分布 상황

학 명	국 명	서 산 시	서 산 군	태 안 군
		서대지 산	운성 해고 부팔 태근 소안 고	산 곡 산 연 미 북 석 봉 안 홍 원 면 남
Class II. Aves	새강			

Order 1. Poicipediformes	논병아리목								
Family 1. Podicipedidae	논병아리과								
<i>Podiceps ruficollis poggei</i> Reichenow	논병아리	+	+						
Order 2. Ciconiiformes	황새목								
Family 1. Aredidae	백로과								
<i>Butorides striatus amurensis</i> Schrenck	검은댕기해오라기				+				
<i>Egretta intermedia intermedia</i> Wagler	중백로	+	+	+	+	+	+	+	+
<i>Arder cinerea jouyi</i> Clark	왜가리	+	+	+	+	+		+	+
Order 3. Anserida	기러기목								
Family 1. Anatidae	오리과								
<i>Anas formosa Georgi</i>	가창오리	+	+						+
<i>Anas platyrhynchos Sinne</i>	청둥오리	+	+						+
<i>Anser albifrons frontalis</i> Baird	쇠기러기	+	+	+		+	+	+	
Order 4. Falconiformes	매목								
Family 1. Accipitridae	수리과								
<i>Accipiter soloensis</i> Horsfield	붉은배새매		+			+			
<i>Buteo buteo burmanicus</i> Hume	말뚝가리	+	+		+				+
Family 2. Falconidae	매과								
<i>Falco tinunculus interstinctus</i> Horsfield	황조롱이		+			+			+
Order 5. Gilliformes	닭목								
Family 1. Phasianidae	꿩과								
<i>Phasianus colchicus</i> Karpowi Buturlin	꿩	+	+	+	+	+	+	+	+

Order 6. Guriformes	두루미목								
Family 1. Rallidae	뚝부기과								
<i>Gallicrex cinerea cinerea</i> Gmelin	뚝부기		+	+	+	+	+	+	+
Order 7. Charadriiformes	도요목								
Family 1. Laridea	갈매기과								
<i>Larus crassirostris</i> Vieillot	괭이갈매기	+							
Order 8. Columbiformes	비둘기목								
Family 1. Columbidae	비둘기과								
<i>Streptopelia orientalis</i> Latham	멧비둘기		+	+	+	+	+	+	+
Order 9. Cuculiformes	두견이목								
Family 1. Cuculidae	두견이과								
<i>Cuculus sanorus telephonus</i> Heine	삿꾸기	+		+	+	+	+	+	+
<i>Cuculus poliocephalus</i> Latham	두견이			+		+	+	+	+
Order 10. Coraciformes	파랑새목								
Family 1. Alcedinidae	물총새과								
<i>Alcedo atthis bengalensis</i> Gmelin	물총새		+		+	+		+	
Order 11. Passeriformes	참새목								
Family 1. Alaudidae	종다리과								
<i>Alauda arvensis</i> Linne	종다리		+		+	+		+	+
Family 2. Hirundinidae	제비과								
<i>Hirundo runstica gutturalis</i> Scopoli	제비		+	+	+	+	+	+	+

[illegible]

표 6. 兩棲爬蟲類 分布 상황

학 명	국 명	서 산	서 산	군	태	안	군
		시	대지성	해고부	팔태근	소안고	
		산	곡	연	미	북	석
<i>Hynobius leechii</i>	도롱뇽	+	+	+	+	+	+
<i>Onychodactylus fischeri</i>	꼬리치레도롱뇽		+				
<i>Bombina orientalis</i>	무당개구리	+	+		+	+	+
<i>Bufo bufo gargarizans</i>	두꺼비	+	+	+	+	+	+
<i>Bufo stejnegeri</i>	물두꺼비						
<i>Hyla japonica</i>	청개구리	+	+	+	+	+	+
<i>Hyla suweonensis</i>	수원청개구리						
<i>Kaloula borealis</i>	맹꽁이	+	+	+	+	+	+
<i>Rana plancyi chosonica</i>	금개구리					+	
<i>Rana nigromaculata</i>	참개구리	+	+	+	+	+	+
<i>Rana dybowskii</i>	산개구리	+	+	+	+		+
<i>Rana rugosa</i>	옴개구리	+	+	+	+	+	+
<i>Rana amurensis coreana</i>	아무르산개구리	+	+		+	+	
<i>Geoclemys reevesii</i>	납생이						
<i>Trionyx maackii</i>	자라			+		+	
<i>Gekko japonicus</i>	도마뱀부치						
<i>Leiopisma laterale</i>	도마뱀					+	+
<i>Takydromus auroralis</i>	장지뱀						
<i>Takydromus amurensis</i>	아무르장지뱀	+	+	+	+		+
<i>Takydromus wolleri</i>	줄장지뱀						
<i>Eremias argus</i>	표범장지뱀		+	+			+

<i>Natrix vibakari ruthveni</i>	대륙유혈목이	+			+	+	+	+
<i>Rabdophis tigrina tigrina</i>	유혈목이	+	+	+	+	+		
<i>Dinodon rufozonatum rufozonatum</i>	능구렁이	+	+	+	+	+	+	
<i>Zamensis spinalis</i>	실뱀					+	+	
<i>Enhydris rufodorsata</i>	무자치	+	+	+	+		+	+
<i>Elaphe schrenckii</i>	구렁이		+	+	+	+	+	+
<i>Elaphe dione</i>	누룩뱀	+	+	+	+	+	+	+
<i>Agkistrodon saxatilis</i>	까치살모사	+						
<i>Agkistrodon blohoffii brebicaudus</i>	살모사	+	+	+	+	+	+	+
<i>Agkistrodon caliginosus</i>	쇠살모사	+	+	+	+			

표 7. 昆蟲類 分布 상황

학 명	국 명	서 산 시	서 산 군	태 안 군
		서대지운성해고부팔태근소안고 산산곡산연미북석봉안홍원면남		
Class III. Insecta	곤충강			
Order 1. Odonata	잠자리목			
Family 1. Aeschnidae	왕잠자리과			
<i>Anax parthenope</i> Selys	왕잠자리	+	+	
Family 2. Libellulidae	잠자리과			
<i>Pantala flavescens</i> Fabricius	된장잠자리	+	+	+
<i>Orithetrum albistylum</i> Selys	밀잠자리	+	+	+
<i>Symetrum pedemontanus</i> Selys	노랑띠좀잠자리	+	+	+
<i>Sympetrum infuscatum</i> Selys	깃동잠자리	+		

<i>Sympetrum frequense</i> Selys	고추잠자리	+	+	+	+	+			
Family 3. Calopterygidae	물잠자리과								
<i>Calopteryx atrata</i> Selys	검은물잠자리		+				+		
Family 4. Agrionidae	실잠자리과								
<i>Ischnura asiatica</i> Brauer	아시아실잠자리		+						
Order 2. Ephemeroptera	하루살이목								
Family 1. Ephemerellidae	알락하루살이과								
<i>Ephemerella trispina</i> Ueno	새빨알락하루살이		+						
Order 3. Orthoptera	메뚜기목								
Family 1. Locustidae	메뚜기과								
<i>Acrida cinerea</i> Thunberg	방아깨비	+	+	+	+	+	+	+	+
<i>Atractomorpha lata</i> Motschulsky	섬서구메뚜기		+	+	+	+	+	+	+
<i>Europocnemis shiraki</i> Bolivar	등검은메뚜기		+						
<i>Thilophidia vulnerata</i> De Haan	두꺼비메뚜기		+	+	+	+	+	+	+
<i>Oedaleus infernalis</i> DE Saussure	팔중이		+				+		+
Family 2. Tettigidae	모메뚜기과								
<i>Acrydium japoicum</i> Bolivar	모메뚜기		+	+	+	+	+	+	+
Family 3. Tettigoniidae	여치과								
<i>Gampsocleis sedakovi obscura</i> Walker	여치		+	+	+				
<i>Phaneroptera falcata</i> Scouli	실배짱이	+	+		+	+	+	+	+
Family 4. Gryllotalpidae	땅강아지과								
<i>Gryllotalpa africana</i> De Beauvois	땅강아지			+			+		
Family 5. Gryllidae	귀뚜라미과								
<i>Scapsipedus aspersus</i> Walker	귀뚜라미	+	+	+	+	+	+	+	+
<i>Oecanthus longicauda</i> Matsumura	긴꼬리		+				+		+

<i>Rhynocornis ornatus</i> Uhler	홍도리참노린재	+	+	+	+	+	+
<i>Sphedanolestes impressicollis</i> stal	다리무늬참노린재	+	+	+	+	+	+
Family 6. Miridae	장님노린재과						
<i>Adelphocoris triamulatus</i> stal	설상무늬장님노린재		+	+			
Family 7. Gerridae	소금쟁이과						
<i>Gerris paludum insularis</i> Motschulsky	소금쟁이	+	+	+	+	+	+
Family 8. Cicadidae	매미과						
<i>Platypleura kaempferi</i> Fabricius	덜매미	+	+	+	+	+	+
<i>Graptopsoliria nigrofusca</i> Motschulsky	유지매미	+	+	+	+	+	+
<i>Cryptotym pano dubia</i> Haupt	말매미		+				
<i>Oncotympana fuscata</i> Dkistan	참매미	+	+	+	+	+	+
<i>Meimuna mongolica</i> Distant	쓰름매미		+	+	+	+	+
<i>Meimuna opalifera</i> Walker	애매미	+	+	+	+	+	+
Family 9. Cercopidae	쥐머리거품벌레과						
<i>Bothogonia japonica</i> Ischihara	끝검은매미충		+	+	+	+	+
Order 6. Neuroptera	뿔잠자리목						
Family 1. Chrysopidae	풀잠자리과						
<i>Chrysopa intima</i> McLachlan	풀잠자리	+	+	+	+	+	+
Order 7. Mecoptera	밀드리목						
Family 1. Panorpidae	밀드리과						
<i>Panorpa cornigera</i> McLachlan	밀드리					+	+
Order 8. Lepidoptera	나비목						
Family 1. Lasioampidae	솔나방과						
<i>Dendrolimus spectabilis</i> Butler	솔나방		+	+	+	+	+

Family 2. Noctuidae	밤나방과								
<i>Agrotis ipsilon</i> Hufnagel	잎싹론밤나방	+	+		+		+		
<i>Mamestra brassicae</i> Linne	배추밤나방	+	+	+	+	+	+	+	+
Family 3. Arctiidae	불나방과								
<i>Mitochondria pulchra</i> Bulter	알락주홍불나방	+	+		+				
Family 4. Arctiidae	애기나방과								
<i>Amata fortunei</i> De l'orza	애기나방	+	+		+		+	+	+
Family 5. Geometridae	자나방과								
<i>Thetidia albocostaria</i> Butler	내눈박이푸른자나방	+			+				
<i>Semiothisa hebesata</i> Walker	세줄점가지나방	+			+	+			
<i>Bizia aezaria</i> Walker	끝갈색가지나방	+			+				
<i>Heterolocha aristonaria</i> Walker	뒷분홍가지나방	+	+						
Family 6. Sphingidae	박각시과								
<i>Theretra japonica</i> De l'orza	줄박각시	+					+	+	
Family 7. Pyralidae	명나방과								
<i>Pyralis regalis</i> Denis et Schiffermulle	은무늬줄명나방						+	+	+
<i>Nymphula turbata</i> Butler	얼룩애기물명나방						+	+	+
Family 8. Hesperidae	팔랑나비과								
<i>Daimio tethys</i> Menetries	왕자팔랑나비	+	+	+		+	+		
<i>Ochlodes subhyalina</i> Bremer et Grey	유리창떠들석 팔랑나비		+	+			+		
<i>Parnara guttata</i> Bremer et Grey	줄점팔랑나비						+		
<i>Erynnis montanus</i> Bremer	멧팔랑나비	+	+	+	+			+	+
Family 9. Papilionidae	호랑나비과								
<i>Papilio xuthus</i> Linne	호랑나비	+	+	+	+	+	+	+	+
<i>Pailio bianor</i> Cramer	제비나비		+	+		+			
<i>Byasa alcinous</i> Klug	사향제비나비						+		
<i>Parnassius stubendorfi</i> Memetries	모시나비		+		+		+		

Order 9. Coleoptera	딱정벌레목								
Family 1. Carabidae	딱정벌레과								
<i>Eucarabus sternberg</i> Roeschke	스레튼베르그 딱정벌레		+	+					
<i>Coptolabrus jacowskii</i> kraatz	양코스기딱정벌		+				+		
<i>Coptolabrus smaragdinus</i> Fischer	홍단딱정벌레		+	+			+		
Family 2. Harpalidae	먼지벌레과								
<i>Calathus halensis</i> Schaller	등빨간먼지벌레		+	+	+	+	+	+	+
<i>Macrochaeniles costiger</i> Chaudoir	줄먼지벌레		+			+			
<i>Chlaenius inops</i> Chaudoir	노란레먼지벌레		+	+		+		+	
Family 3. Branchinidae	폭탄먼지벌레과								
<i>Pheropsophus jessoensis</i> Morawitz	폭탄먼지벌레		+				+	+	+
Family 4. Cincndelindae	길앞잡이과								
<i>Cicindela gemmata</i> Felderman	아이노길앞잡이						+	+	+
<i>Cicindela japana</i> Motschulsky	좀길앞잡이		+	+					
Family 5. Gyrinide	물맴이과								
<i>Gyrinus japonicus</i> sharp	물맴이		+		+	+	+	+	+
Family 6. Staphylinidae	반날개과								
<i>Philonthus japonicus</i> sharp	좀반날개			+		+	+		
Family 7. Silphidae	송장벌레과								
<i>Promaschopus plagiatus</i> Menetries	무늬검정송장벌레			+		+			
Family 8. Coccinellidae	무당벌레과								
<i>Ptychanatis axyridis</i> pallas	무당벌레		+	+	+	+	+	+	+
<i>Coccinella septempunctata</i> Linne	칠성무당벌레		+	+	+	+		+	+
<i>Aiolocaria mirabilis</i> Motschulsky	남생이무당벌레		+	+	+			+	+
Family 9. Lampyridae	반딧불과								
<i>Pyrocoelia rufa</i> Olivier	늑반딧불		+		+		+		
Family 10. Elateridae	방아벌레과								

<i>Agrypeus binodulus</i> Motschulsky	녹슬은방아벌레	+	+	+			+	+
<i>Paralacoon argillaceous</i> Solsky	대유동방아벌레	+	+	+	+	+	+	+
Family 11. Pyrochroidae	홍날개과							
<i>Pseudopyrochroa rubricollis</i> Lewis	애홍날개	+		+				
Family 12. Scarabeidae	풍뎅이과							
<i>Anomala sieversi</i> Heyden	대마도풍뎅이		+	+			+	
<i>Lasiotrichus succinctus pallas</i>	범꽃무지	+		+	+	+	+	+
<i>Liocola brevitarsis</i> Lewis	흰점박이꽃무지						+	
<i>Poecilophiloides rusticola</i> Burmester	알락풍뎅이	+	+	+				+
Family 13. Cerambycidae	하늘소과							
<i>Corymbia Succedanea</i> Line	오리나루산꽃하늘소		+	+	+		+	+
<i>Polyzonus fasciatus</i> Fabricius	노란띠하늘소			+		+	+	
<i>Moecotypa dihyssis</i>	털두꺼비하늘소	+	+	+	+	+	+	+
Family 14. Chrysomelidae	잎벌레과							
<i>Chrysomela vigintipuncta</i> Scopolii	버들잎벌레	+	+	+		+	+	+
<i>Galleracida bifasciata</i> Motschulsky	호장근잎벌레	+	+		+		+	
Family 15. Attelabidae	거우벌레과							
<i>Apoderus jekilli</i> Roelofs	거우벌레			+			+	+
<i>Cycnotrachelus nitens</i> Roelofs	두루미목거우벌레		+		+	+		
Family 16. Curculionidae	바구미과							
<i>Aris dispilota</i> solsky	흰점박이꽃바구미	+	+	+	+	+	+	+
<i>Euaptorrhinus granulatus</i> pascoe	털보바구미	+					+	
<i>Lixus impressiventris</i> Roelofs	길쭉바구미		+	+	+			
Order 10. Hymenoptera	벌목							
Family 1. Tenthredinidae	잎벌과							
<i>Dolerus ephippiatus</i> Smith	등빨간잎벌			+			+	

<i>Athalia rosae</i> Linne	무잎벌	+	+	+	+			+	+	+
Family 2. Cynipidae	흑벌과									
<i>Dryocosmus kuriphilus</i> Yasumatsu	밤나무흑벌	+	+	+	+		+	+		+
Family 3. Formicidae	개미과									
<i>Camponotus japonicus</i> Mayr	일본왕개미				+					
<i>Formica fusca japonica</i> Motschulsky	곰개미			+	+					+
<i>Polyrhachis lamellidens</i> F. Smith	가시개미						+			
<i>Lasius niger</i> Linne	고동털개미	+	+		+		+	+	+	
Family 4. Vespidae	말벌과									
<i>Vespa crabro</i> Linne	말벌	+	+	+	+	+		+	+	+
<i>Vespa mandarina</i> Smith	장수말벌									
<i>Vespula Vulgrais</i> Linne	땅벌				+	+		+	+	+
Family 5. Polistidae	쌍살벌과									
<i>Polistes jadwigae</i> Dolla Torre	등검정쌍살벌	+		+						
Family 6. Polybiidae	뱀허물쌍사벌과									
<i>Parapolybia varia</i> Fabricius	뱀허물쌍사벌				+	+		+	+	+
Family 7. Sphecidae	구멍벌과									
<i>Ammophila infesta</i> Smith	나나니				+					
Family 8. Bombidae	디영벌과									
<i>Bombus ignitus</i> Smith	호박벌	+	+	+			+	+	+	+
Family 9. Xylocopidae	어리호박벌과									
<i>Xylocopa appendiculata circumvolans</i> Smith	어리호박벌	+		+			+	+	+	+
Family 10. Apidae	꿀벌과									
<i>Apis mellifica</i> Linne	양봉꿀벌	+	+	+	+		+	+	+	+
Order 11. Diptera	파리목									
Family 1. Tipulidae	각다귀과									

<i>Neophrotoma virgata</i> Coquillett	황각다귀		+	+		+			
Family 2. Stratiomyidae	등애등애과								
<i>Ptecticus tenebriefer</i> Walker	등애등애	+						+	
Family 3. Tabanidae	등애과								
<i>Tabanus amaenus</i> Walker	대만재등애			+	+				
<i>Tabanus chrysurus</i> loew	황소등애	+	+	+	+		+		+
Family 4. Bombyliidae	재니등애과								
<i>Cephrinus nitobei</i> Matsumura	나나니등애		+	+		+	+	+	+
<i>Bombylius major</i> Linne	빌로오드재니등애			+		+			
Family 5. Cecidomyiidae	흑파리과								
<i>Thecodiplosis japonensis</i> Uchida et Inouye	솔잎흑파리	+	+	+	+	+	+	+	+
Family 6. Syrphidae	꽃등애과								
<i>Metasyrphus corollae</i> Fabricius	별납작꽃등애			+			+		
<i>Eristalis cerealis</i> Fabricius	배짚은꽃등애		+	+	+	+		+	+
<i>Eristalomyia tenax</i> Linne	꽃등애	+	+	+	+		+	+	+
<i>Tubifera virgatus</i> Coquillett	수중다리꽃등애		+	+		+		+	
Family 7. Muscidae	집파리과								
<i>Fannia prisa</i> Stein	검정아기집파리		+	+	+		+		
Family 8. Sarcophagidae	쉬파리과								
<i>Boettcherisea peregrina</i> Robineau-Des-voidy	똥쉬파리	+	+	+	+	+	+	+	+
Family 9. Calliphoridae	검정파리과								
<i>Calliphora lata</i> Coquillett	큰검정파리		+	+				+	
Family 10. Dryomyzidae	대모파리과								
<i>Stendromyza formosa</i> Wiedemann	대모파리		+		+	+			
Family 11. Tchinidae	기생파리과								

<i>Gymnosoma rotundatum</i> Linne	둥보꽃라리	+	+	+	+	+
<i>Echinomyia mikado rirby</i>	등줄기생파리	+	+	+	+	+
총	계	30목 117과 222종				

2. 海洋生物

(1) 調査方法

1) 동물플랑크톤 同定 및 分析

동물플랑크톤의 採集에는 망목크기 160μm(No. 10)인 Nylon-net가 附着된 구경 5inch (127mm)의 Clarke-Bumpus Sampler를 사용하였으며, 1-2m 水深에서 약 2 Knots의 속력으로 10분간 수평 채집하였다. 채집한 시료는 중성 Formalin으로 최종 농도가 4%가 되도록 고정하였다(Steedman, 1976).

種의 동정은 Olympus Zoom Stereomicroscope (Mkodel SZH)와 Nikon SBR-UK Microscope로 행하였고, 分類 參考文獻으로는 Brodskii(1967), Mizuno (1976), Newell (1977), Yamaji(1979, 1983), Kim(1986), Kim(1987)등을 이용하였다. 정량분석을 위해 채집한 시료에서 대형 플랑크톤은 먼저 선별해내 시료에 포함된 전 개체수를 계수하였고, 나머지는 Stempel Pipette으로 Subsample하여 Bogorov Tray에서 계수하였다. 계수된 수는 채집기를 통하여 여과된 물의 양에 따라 단위체적(1m³)당 개체수로 환산하였다.

2) 附着動物

附着動物 採集 및 分析은 정량, 정상적인 方法을 사용하였다. 각 調査지점에 노출되어 있는 岩盤地域, 노출정도가 비교적 약한 地域, 파도의 영향을 비교적 받지 않은 地域으로 구분, 설정하여 임의로 방형구(5×5m)를 설치, 개체수를 측정하였다. 방형구는 각 調査地域 3개이상씩 설치하였고 이와 함께 정성분석도 겸하였다.

3) 底棲動物

底棲動物의 채집은 Van Veen Grab 채취기(0.1m³)를 사용하였으며 각 정점당 가능한 2회씩 채집하였다. Van Veen Grab 채취기로 저층의 퇴적물을 채취한 후, 채취한 퇴적물은 0.5mm망목 크기의 체에 넣고 현장에서 해수로 걸렀으며, 체에 남은 底棲動物은 10% 포르말린 용액으로 고정하여 실험실로 운반하였다. 底棲動物은 주요 분류군별로 나누어 출현 개체수를 구하였고, 底棲動物 중에서 다모류(Polychaete)는 屬·種의 수준까지 동정하여 각 종별로 출현개체수를 구하였다.

4) 遊泳動物

난자채어는 각 調査 정점에서 망구 1m, 망목 330m인 치어망을 시속 약 4km속도로 10분간 예인하여 채집하였다.

底棲어류의 채집에 이용된 Otter Trawl은 날개그물이 각 6m, 몸통그물이 7m이고, 망목은 날개그물 및 몸통그물이 26m, 끝자루가 20mm이었다. 각 調査정점마다 20분씩 2회이상 예인을 원칙으로 하였다. 예인속도는 시속 약 3km 정도로 하였다. 이때 그물은 8m내외가 벌어지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실제 1회 예인면적은 약 3,000m²가 된다. 자료는 비교가 용이하도록 각 調査 정점별 2회 예인을 합한 6,000m²당의 개체수 및 생체량으로 환산 정리하였다.

채집한 어류는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시켜 실험실로 운반후 종별로 개체수와 무게를 측정하였다. 어류의 동정에는 정문기(1977), Lindberg and Legeza(1967, 1969), Lindberg and Krasnyukova(1971), Masuda et al.(1986)등을 이용하였다.

계절에 따라 채집된 저서성 어류의 군집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개체수와 생체량에 대한 種多棲性指數(Shannon-Weaver)를 구하였다.

$$H' = \sum (n_i / N) \log(n_i / N)$$

n_i : 각 種의 개체수 또는 생체량

N : 총출현개체수 또는 총생체량

(2) 調査結果

1) 浮遊生物

동물성플랑크톤의 種組成 및 개체수

8月の 調査에서 동물성플랑크톤은 총 43分類群이 동정되었다. 이는 1 Protozoa, 1 Hydromedusae, 2 Siphonophores, 2 Cladocerans, 15 Copepods, 1 Chaetognaths, 1 Appendicularia, 12 whddml Planktonic Larva으로 구성되었다. 동물플랑크톤의 개체수는 평균 12,630개체/㎡으로, 0,894개체/㎡(정점 A)에서 14,837개체/㎡(정점 B)의 範圍 내에 있다.

가을에 실시된 1차 調査(1990. 10月)에서는 총 18分類群이 동정되었다. 이는 1 Protozoa, 1 Hydromedusae, 10 Copepods, 1 Chaetognaths, 1 Appendicularia, 4종류의 Planktonic Larvae으로 구성되었다. 동물플랑크톤의 개체수는 평균 1,716개체/㎡으로, 546개체/㎡에서 2,680개체/㎡의 範圍에 있다.

가을에 실시된 2차 調査(1990. 10月)에서 총 17分類群이 동정되었다. 이는 1 Protozoa, 12 Copepods, 1 Chaetognaths, 3종류의 Planktonic Larvae으로 구성되었다. 동물플랑크톤의 개체수는 평균 276개체/㎡으로, 160개체/㎡(정점 C)에서 429개체/㎡(정점 D)의 범위내에 있다.

제3차 調査(1990. 10)에서는 총 20개의 分類群이 동정되었는데, 1 Protozoa, 11 Copepods, 2 Chaetognaths, 그리고 4 종류의 Planktonic Larvae로 구성되었는데, 평균 3,565개체/㎡로, 1,412개체/㎡(정점 E)에서 7,299개체/㎡(정점 F)의 範圍를 나타내었다.

Copepods가 동물플랑크톤 군집에서 가장 우점하는 分類群이라는 것은 많은 연구자(Parsons et al., 1983 : Raymont, 1980)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Shim and Park(1982), Shin and Ro(1982), Shin and Lee(1983) 역시 한국연안 수역에서 같은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이번 調査에서도 Copepods는 종수 分布에서 동물플랑크톤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調査地域이 육지와 가깝고 수심이 얇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계절적 변동의 특정한 시기적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8. 동물성 플랑크톤의 종조성 및 현존량 (1990. 10)

단위 : 개체수 / m³

종명 / 정점	정점A	정점B	정점C	정점D	정점E	정점F
<i>Noctiluca scintillans</i>	2	2	3	4	1	5
<i>Calanus sinicus</i>	1	1	2	1	3	1
<i>Paracalanus crassirostris</i>	86	137	127	165	82	138
<i>P. parvus</i>	58	55	53	65	7	14
<i>Labidocera euchaeta</i>		1	1		2	2
<i>L. bipinnata</i>						1
<i>Pseudodiaptomus marinus</i>					1	
<i>Acartia clausi</i>	87	49	47	68	36	30
<i>Oithona similis</i>	19	19	10	13	10	20
<i>Corycaeus affinis</i>	18	7	4	5	4	11
<i>Euterpina acutifrons</i>	4		1	2		
<i>Microsetella sp.</i>	1	1			1	
<i>Sapphirina sp.</i>	12	1		2	1	
<i>Sagitta crassa f. naikaiensis</i>	1	4	4	5	2	3
LARV AE						
<i>Copepodites</i>	21	18	49	33	2	6
<i>Copepoda nauplii</i>	44	47	47	65	8	17
<i>Polychaeta larvae</i>	2	1	1	1		1
Total	357	344	352	429	160	249

調査海域의 동물 플랑크톤 개체수는 연안 地域에서 이미 발표된 자료들(Shim and Lee, 1983 : Shim and Park, 1983) 보다는 크고 천수만(Yun, 1987)과 가로림만(Kim and Huh, 1983)의 결과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전 정점간의 각 시기의 동물플랑크톤의 개체수 변화는 별로 크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調査海域의 생태 환경이 비슷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9. 계절에 따른 동물 플랑크톤 종조성의 변화 (%)

종	류	여 름	가 을
<i>Noctiluca scintillans</i>		+	+
Hydromedusae			
Unid. siphonophore		+	
<i>Muggiaea atlantica</i>			
<i>Evadne tergestina</i>			
<i>Penilia avirostina</i>			
<i>Calanus sinicus</i>			+
<i>Paracalanus parvus</i>		11	12
<i>P. crassirostris</i>		51	46
<i>P. aculeatus</i>			
<i>Centropages abdominalis</i>			
<i>C. tenuiremis</i>			
<i>Labidocera bippinata</i>			+
<i>Labidocera sp.</i>		+	+
<i>Pseudodiaptomus marinus</i>			+
<i>Acartia clausi</i>		17	16
<i>A. pacifica</i>			
<i>Tortanus sp.</i>		+	
<i>Oithona atlantica</i>			
<i>Oithona breicornis</i>		4	
<i>Oithona similis</i>		2	5

<i>Corycaeus affinis</i>	8	3
<i>Euterpina sp.</i>	+	+
<i>Microsetella sp.</i>	+	+
<i>Lucifer renaudii</i>		
<i>Sagitta sp.</i>	1	+
<i>Oikopleura sp.</i>	+	
LARVAE		
Egg		
Lamellibranchia larvae	+	
Prosobranchia larvae		
Polychaeta larvae	2	+
Cirripedia nauplius&cypris		
Copepoda nauplius&copepodite	2	14
Decapoda zoea&megalopa		
Mysid larvae		
Stomatopoda larvae		
Actinotrocha larvae		
Pluteus		
Fish larvae		

+ : 1%미만

2) 附着動物

A지구의 암반조건대에 서식하고 있는 附着動物은 총 18種으로 그 평균 棲息密度는 7,963개체/m²이었다. 이렇게 출현 개체수가 높은 것은 상부조건대에 밀집 分布하는 조무래기따개비(*Chthamalus challenger*)가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이들 부착 동물은 조위(Tidal Elevation)에 따라 각 分布 범위가 결정되어 對象分布(Zonation)를

보이고 있다. 상부조간대에는 조무래기따개비가 15,200개체/㎡로 매우 높은 棲息密度를 보이며, 상부 조간대의 대표적인 種이라고 할 수 있다. 중부조간대는 대수리(*Thais clavigera*)와 총알고둥(*Littorina brevicula*)이 대표적인 種으로서 그 출현개체수는 각각 560개체/㎡, 750개체/㎡였다. 이들은 주로 암반사이의 갈라진 틈등의 약간 그늘지고 습기찬 곳에 부착 서식하고 있었다. 하부조간대는 어깨뿔고둥(*Ocenebra jaпонica*)이 대표적인 種으로 그 棲息密度는 570개체/㎡이었으며, 특히 하부조간대는 상, 중부조간대에서는 전혀 출현하지 않던 種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중 참집게(*Pagurus samuelis*)는 간조선 부근의 자갈사이를 많이 기어다닌고 있다. 삿갓조개류인 *Chizacmaea pagmaea*는 대체적으로 전 조간대에 걸쳐서 출현하고 있다.

표 10. 암반조간대의 附着動物

단위: 개체수/㎡					
종	류	상부	중부	하부	계
Mollusca					
Polyplacophora					
<i>Acanthochiton defilipoi</i>				12	12
Bivalvia					
<i>Mytilus edulis</i>			25		25
Gastropoda					
<i>Cantharus cecillei</i>				4	4
<i>Chizacmaea pygmaea</i>		60	28	60	148
<i>Chlorostoma argyrostoma lischkei</i>			25	70	95
<i>Heminerita japonica</i>		60	170		230
<i>Littorina brevicula</i>		110	750	20	880
<i>Lunella coronata coreensis</i>		5	75	15	95
<i>Mitrella burchardii</i>				30	30

<i>Neptunea arthritica cumingii</i>			2	2
<i>Notoacmaea schrenckii</i>		20		20
<i>Ocenebra japonica</i>		20	570	590
<i>Thais clavigera</i>		560		560
<i>Unidentified</i>	8			8
Crustacea				
Cirripedia				
<i>Balanus sp.</i>	120	20		140
<i>Chthamalus challegeri</i>	15200	5800		21000
Amphipoda				
Decapoda				
<i>Hemigrapsus sanguineus</i>			15	15
<i>Pagurus samuelis</i>			35	35
종 수	8	11	11	18
총 개 체 수	15563	7493	833	23889

3) 底棲動物

본 調査海域에 출현하는 底棲動物의 평균 棲息密度는 1990年 10월에 320개체/㎡, 11월에 237개체/㎡로 나타났다. 본 調査海域에 인접하는 아산만의 경우 390-550개체/㎡(1985)이고 학암포 海域도 300-400개체/㎡(1987)에 불과하다. 이러한 底棲動物의 棲息密度는 상당히 낮은 값으로 이 地域의 底棲動物에 의한 2차 생산이 매우 빈약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북쪽의 인천항 一帶 底棲動物의 棲息密度는 500-1000개체/㎡(1988) 정도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남해 광양만의 경우 底棲動物의 棲息密度는 800-1400개체/㎡(1987), 동해 영일만의 경우 2,600개체/㎡(1985)에 달하였다. 이는 본 調査海域을 포함하는 서해 경기만의 底棲動物상이 남해나 동해의 내만역의 底棲動物에 비해 매우 빈약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1990年 10월의 하계에 실시한 1차 調査에서 채집된 底棲動物은 연체동물에 속하는

다판류(Polyplacophora), 이매패류(Bivalvia), 복족류(Gastropoda)의 3分類群과 갑각류에 속하는 등각류(Isopoda), 단각류(Amphipoda), 곤쟁이류(Mysidacea), 십각류(Decapoda)의 4分類群, 완족류(Brachiopoda), 성구동물(Sipunculida), 극피동물에 속하는 거미불가사리류(Ophiuroidea), 바다나리류(Crinoidea)의 2分類群, 그리고 다모류(Polychaeta)등 총 12개의 分類群이 출현하였으며 그 평균 출현개체수는 320개체/㎡이었다. 이중 주요 동물군은 이매패류, 완족류, 거미불가사리류 그리고 다모류로서, 이들이 총 개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총 88.1%를 나타내었다. 이중 이매패류의 출현율이 22.7%를 점유하여 중요성이 높에 나타난 것은 정점 D에서 종뿔(Muaculus senhausia)이 410개체/㎡으로 극우점하기 때문이다.

표 11. 조하대 底棲動物의 현존량(1990. 10)

단위 : 개체수/0.2㎡

정점 분류군	A	B	C	D	E	F	계
Polyplacophora	1		1	5			7
Bivalvia	3	1		82	1		87
Gastropoda			1				1
Isopoda		3					3
Amphipoda	5	1	10		3	2	21
Mysidacea		7					7
Decapoda		1		2			3
Brachiopoda	40		19	2			61
Sipunculida	1		2				3
Ophiuroidea	4	7	12	44			67
Crinoidea			1				1
Polychaete	40	6	29	28	14	6	123
분 류 군 수	7	7	8	6	3	2	12
총 개 체 수	94	26	75	163	18	8	384

정점별 출현양상을 살펴보면, 정점 D에서 底棲動物의 棲息密度가 815개체/㎡로 가장 풍부하게 출현하고 있는 반면, 정점 F에서는 棲息密度가 40개체/㎡에 불과하였다. 그외 정점 A와 C에서 각각 470개체/㎡, 375개체/㎡으로 매우 높은 棲息密度를 보였다. 그리고 정점 A, C, D에서 출현 分類群수도 7, 8, 6으로 가장 많다. 즉 A지점 부근의 정점에서 出現 分類群數와 棲息密度가 높고, 나머지 정점에서는 출현동물군수도 많지 않고, 棲息密度도 130개체/㎡이하로 비교적 빈약한 생물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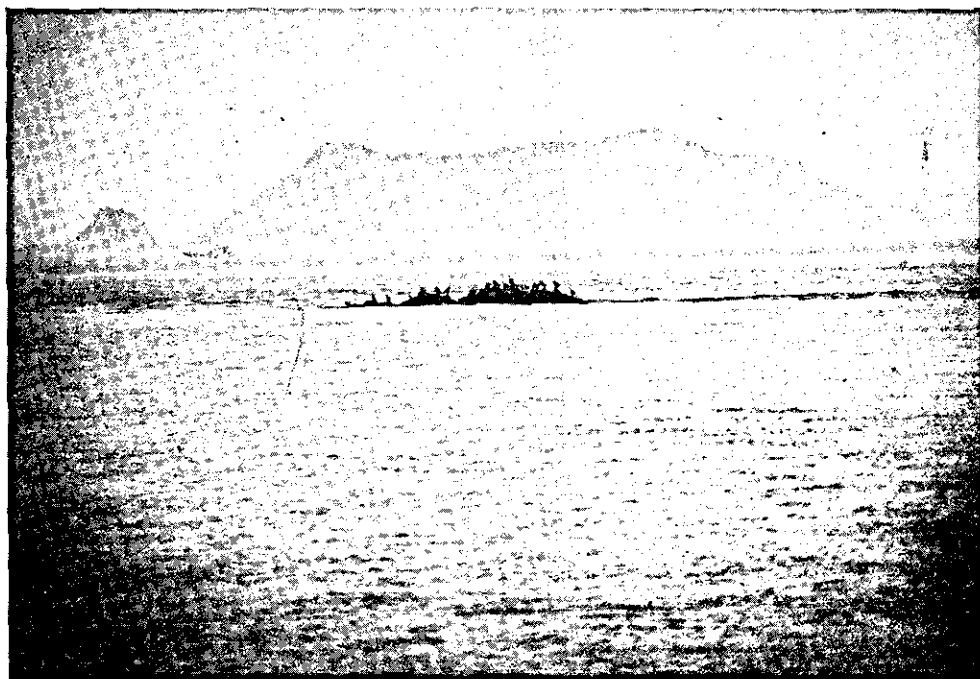
參 考 文 獻

1. 국립환경연구소, 1981, 국립환경연구소보 Vol.3
2. 국립환경연구소, 1982, 국립환경연구소보 Vol.4
3. 국립환경연구소, 1983, 국립환경연구소보 Vol.5
4. 국립환경연구소, 1986, 국립환경연구소보 Vol.8
5. 당진군, 1989, 당진군 농어촌지역 종합개발계획(1990-1994)
6. 당진군, 1982-1988, 당진군 통계연보
7. 서산군지 (신간), 1982.
8. 신동휘, 1985, 인천 연안식물 플랑크톤 군집의 조석에 따른 시간적 변화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9. 심재형, 고철환, 김상중, 이태원, 박용철, 1988. 황해 내만역의 해양생태계 분석, pp. 246
10. 일본중공위생협회 1976, 대기오염의 식물영향에 관한 조사보고서, p.129
11. 최기철 1987, 충남의 자연(담수어편),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 p.363
12. 충청남도, 1987, 1988, 충남통계연보
13.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p.293
14. 한국전력공사, 1985. 보령, 삼천포T/P 냉각수가 연안 양식수산물에 미치는 영향, 한전기술연구원, KRC-84C-J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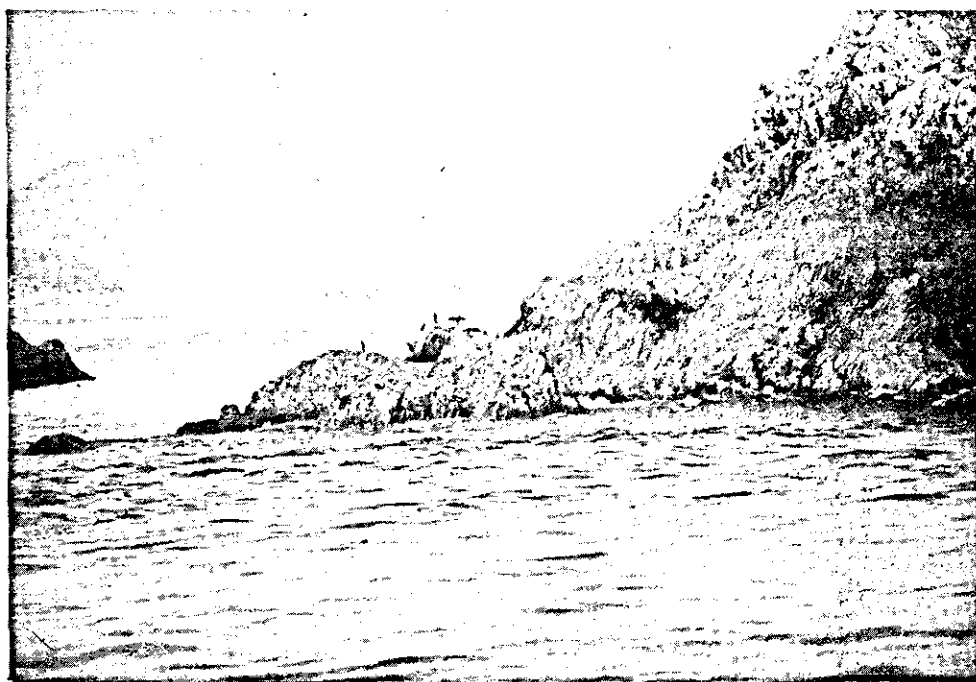
15. 환경청, 1983.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방법
16. 환경청, 1984. 환경보전, p.197
17. 환경청, 1986. 환경보전, p.55
18. 환경청, 1980.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해대책 Vol.2
19. 환경청, 1986. 전국환경보전 장기종합계획사업—수질부문 보고서
20. 환경청, 1986. 환경보전
21. 환경청, 1986. 환경오염 측정현황
22. Braun-Blanquet, J. 1964. Pflanzensoziologie. Grundzuge der Vegetationskunde, p. 865. Wien—New York.
23. Brodskii, K.A., 1967. Calanoida of the Eastern Seas and Polar Basin of the USSR. Israel Program for Scientific Translations Ltd., p.440.
24. Choi, J.S., 1988. Primary Productivity and Nutrient Dynamics in Chunsu Bay, Yellow Sea. M.S. Thesis. Inha Univ., p.68.
25. Furukawa, A.O., Isoda, H., Iwaki and T. Totsuka, 1980, Interspecific difference in resistance to sulfur dioxide. Res. Rep. Natl. Inst. Environ. Stud. Jpn. 11 : 113—126.
26. Highway Research Board, 1965, Highway Capacity manual.
27. Hill, A.C., 1971, Vegetation a sink for atmospheric pollutants, J. Air Pollut. Control Assoc., 21 : 341—346.
28. Kim, D.Y., 1986, Taxonomica : study on calanoid copepod (Crustacea : Copepoda) In the Korean Waters. Ph.D. Thesis in Hanyang Univ.
29. Newell, G.E. and R.C. Newell, 1977. Marine Plankton, A Practical Guide. Hutchinson Co., Ltd. p.244
30. Okamura, O.(ed.), 1986. Fishes of the East China Sea and the Yellow Sea. Nihon Shiko Printing, Japan, p.501
31. Raymont, J.E.G., 1983. Plankton and Productivity in the Oceans. Vol. II, Zooplankton. Pergamon Press, p.465
32. Shim, J.H. and T. Lee, 1982. A Study on the Zooplankton Off the Coast of Fusan,

Korea. Proc. Coll. Natur. Sci. 8(1) : 121—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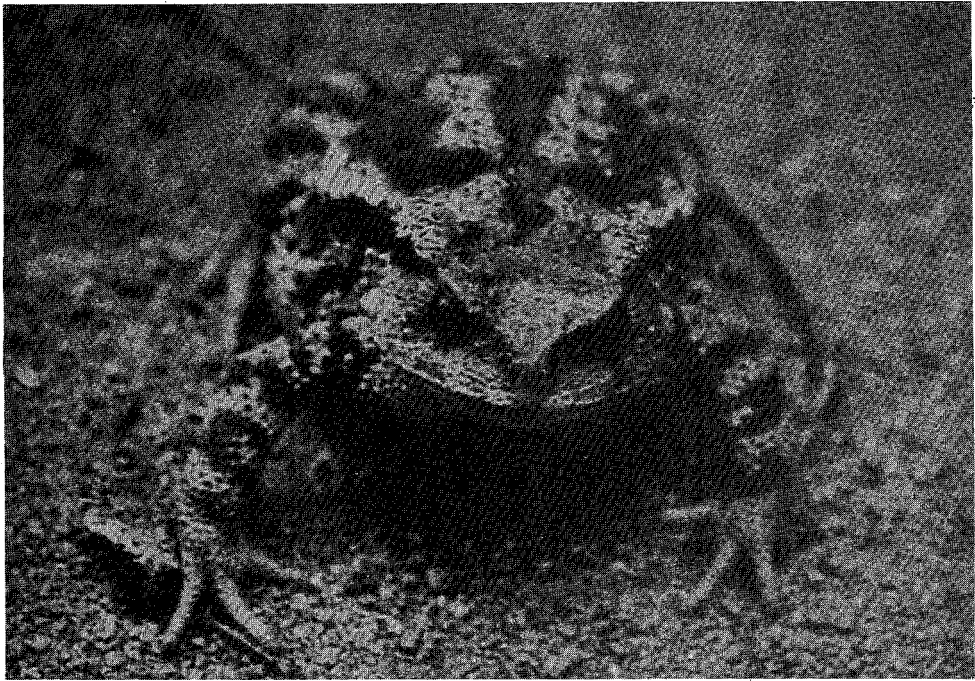
33. Shim, J.H. and C. Park, 1982. On the Composition and the Abundance Distribution of Zooplankton in the Yellow Sea in April, 1981. J. Oceanol. Soc. Kor. 17(2) : 95—111.
34. Shim, J.H. and I. Ro, 1982. The composition and abundance ditribution in the vicinity of Yeosu, Korea. Proc. Coll. Natur. Sci., SNU. 7&2) : 165—183.
35. Steedman, H.F., 1976. Zooplankton fixation and preservation. The UNESCO Press. p.350.
36. Yamaji, I., 1979. Illustration of the marine planktion of Japan. Hoikusha Publ.Co., Ltd. p.238.
37. Yamaji, I., 1983. The Plankton of Japanese Coastal Waters. Hoikusha Publ. co. Ltd. p.238.
38. Yun, K.H., 1987. Seasonal variation and production of zooplankton in ChunsuBay, Korea. MS thesis in SN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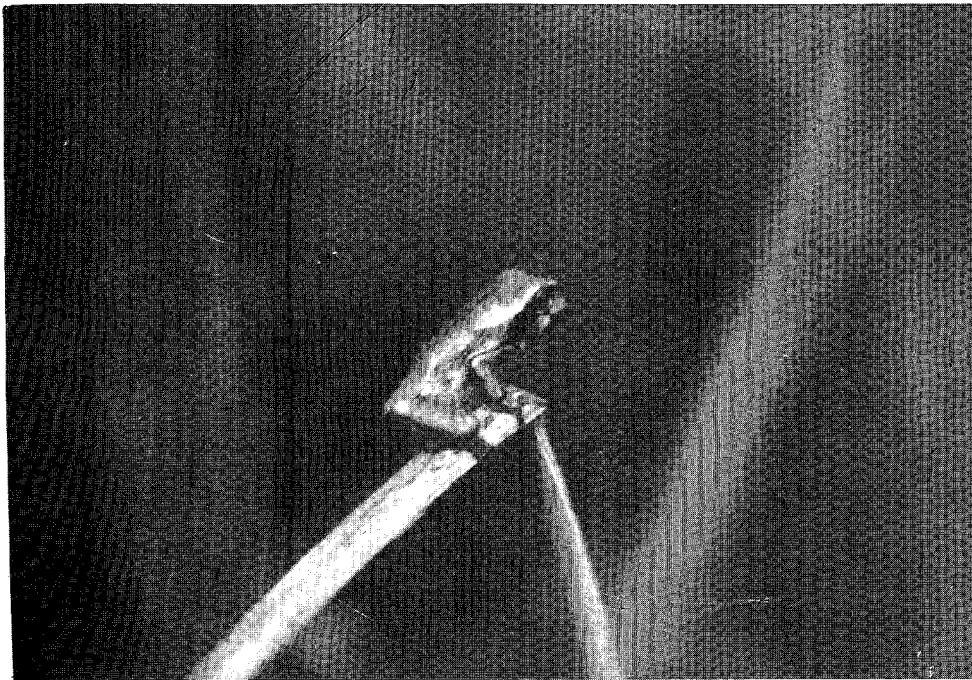
[사진 1] 펭이갈매기 모습(원경)



[사진 2] 펭이갈매기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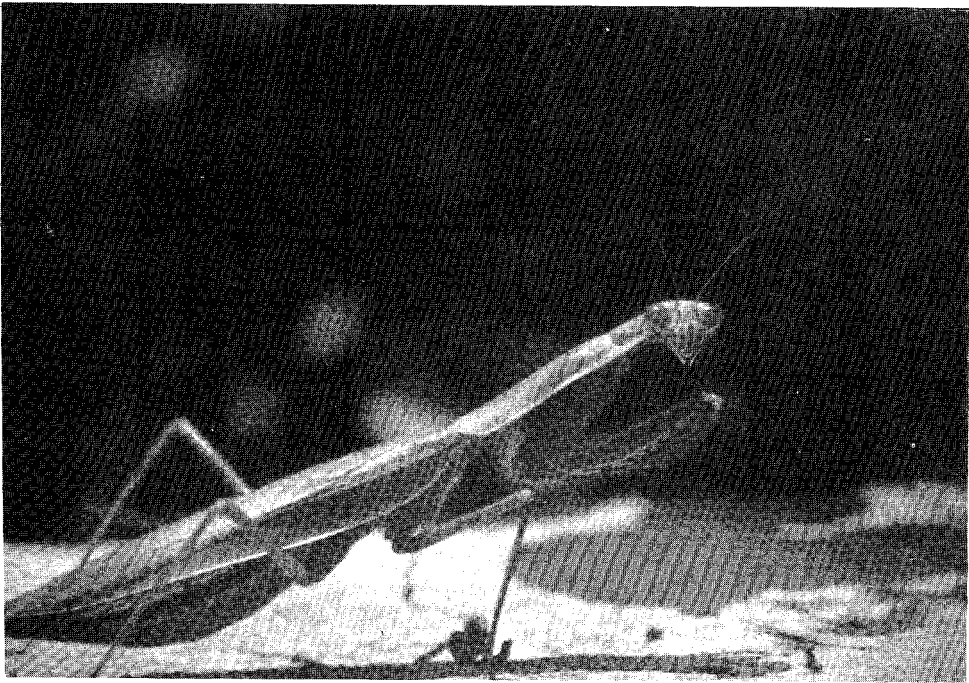
[사진 3] 뚜꺼비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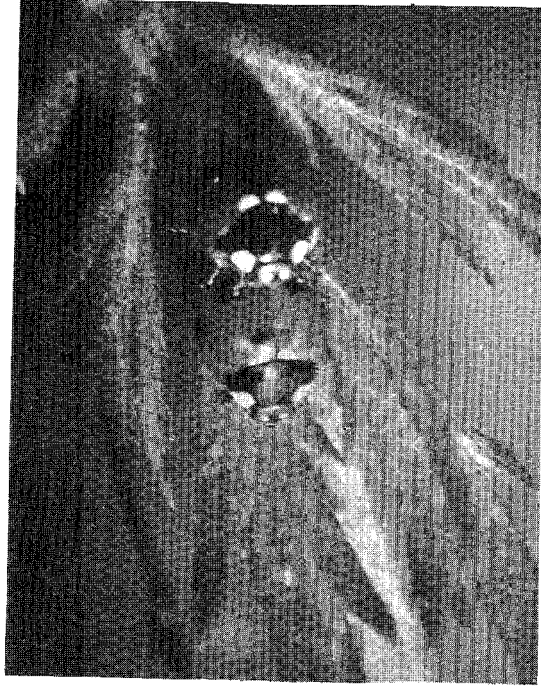
[사진 4] 청개구리 모습



[사진 5] 도마뱀 모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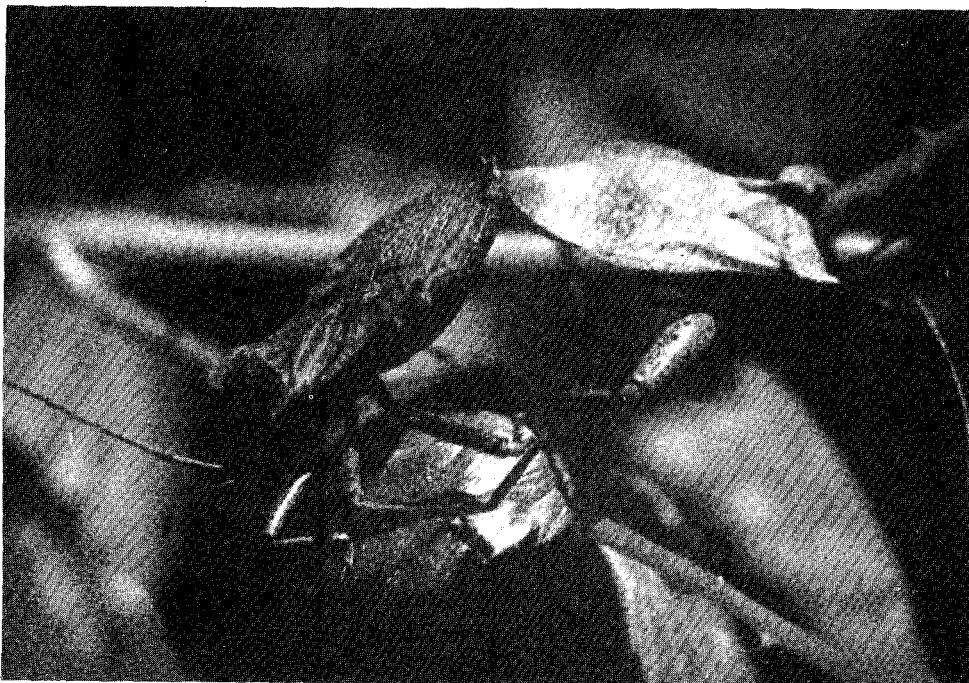
[사진 6] 사마귀 모습



[사진 7] 칠성무당벌레 모습



[사진 8] 하늘소 모습



[사진 9] 큰허리노린재 모습



[사진 10] 애사슴벌레 모습

植 生 分 野

康 祥 俊
李 昌 錫

(忠北大學校)

I. 序 論

우리나라의 중서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서산/태안지역은 대륙과의 인접지역인 관계로 일찍부터 황해바다를 통한 중국과의 문화교류가 있었던 곳으로서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훌륭한 유적과 문화가 존재한다(서산군, 1982).

과거 고대사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문명이 발달한 지역을 보면 그런 곳에는 훌륭한 삼림과 식생(Vegetation)이 있었고 이들 식생이 황폐화하게 되면 문명은 서서히 쇠퇴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고대문명의 발상지였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및 중앙 아시아에는 풍부한 삼림이 있었으나 농경과 가축사육을 위하여 무작정 벌채, 벌목을 하였기 때문에 그 지역은 오늘날과 같이 황폐하여 불구의 생태계로 변하였고 그 결과 문명도 쇠퇴하여 갔다고 한다.

따라서 서산/태안지역에 선사시대로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찾아지고 또 훌륭한 불교유적이 있다는 것은 과거에는 이곳의 삼림과 식생이 풍부했었음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서산/태안지역은 충청남도의 서북단에 위치하고 있어 당진군, 예산군, 홍성군의 3개군과 황해가 본 지역의 사면을 둘러싸고 있다. 예산군과 경계를 종주하는 광주산맥의 돌출부인 가야산(677.6m)은 충청남도 서부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서 서산·태안지역의 모든 산은 바로 이 가야산으로 부터 뻗어내려 형성된 것들인데 표고가 200m이하의 구릉지 또는 낮은산이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충청남도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은 산이 없는 관계로 식생의 수직분포라는 양상을 볼 수 없을뿐 아니라 식물상(植物相)이나 식생조성(植生組成)이 다양하지는 못하지만 황해바다의 따뜻한 해류의 영향과 수 많은 도서(島嶼)를 갖고 있으므로 식생의 분포나 농경에 뚜렷한 특징을 나타내는 지역으로서 식물구계(植物區系)로 보면 한반도 남부아구(南部亞區)에 속하고 식생의 군계수준(群系水準)으로 보면 냉온대남부(冷溫帶南部)에 속하는 지역이다(中井, 1919 ; 1945 ; Oh, 1977 ; Lee, 1978 ; Yim, 1968 ; 1984).

이렇게 식물분포상 중요한 서산·태안지역은 현재 서해안시대의 개막과 함께 귀중한 자연자원의 파괴 및 고갈이 우려되고 있고 더우기 인간의 물량적인 성장추구와 생활의 다양화로 말미암아 환경오염을 비롯한 생태계의 파괴가 심각한 현실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본 지역의 식물상과 식생의 분포를 밝힌다는 것은 과거의 문화 유적지를 찾아내어 복원을 한다든지 또한 현존의 역사적 유물, 문화재 및 자연자원인 천연기념물의 보호관리나 생태계의 보존에 있어서 중요한 일조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식물군락(植物群落)을 중심으로 현존식생도(現存植生圖, Actual vegetation map)의 작성, 중요 식물군락에 대한 식생조성, 희귀식물이나 보호되어야 할 식물에 대한 조사 및 보존방향의 제시 그리고 관속식물(管束植物) 이상의 식물상(Flora)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II. 調査地の 概観

서산·태안군은 충청남도의 서북단 동경 125°31'~126°41', 북위 36°2'~37°4'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진군, 예산군, 홍성군 및 황해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그의 넓이는 981.67 km²로서 충청남도 총면적인 8,725.90 km²의 11.3%에 해당된다(서산군, 1982) (그림 1).

서산군의 면적은 555.20 km²인데 그중 임야가 308.9 km², 농경지가 186.1 km²이고, 태안군의 면적은 464.50 km²로서 임야가 253.07 km², 농경지가 146.75 km²로서 임야면적이 전체면적의 55%를 점유하고 있다.

해안선은 모식적 리아스식 해안을 이루고 있으며 부근에는 대소 163개의 섬이 흩어져 있는데 (유인도 26개, 무인도 137개), 그 중 안면도는 넓이 86 km²로서 우리나라 제 6위의 큰 섬이다.

이 지역에는 1978년 10월에 지정된 태안해안국립공원(Taeon Coastal National Park)이 있는데, 총 면적 328.99 km²의 88.9%인 292.38 km²가 이 지역에 포함된다. 해안국립공원의 해변의 길이만도 98 km(총 길이 110.0 km)나 되므로 이곳에는 학암포, 만리포, 연포, 몽산포, 방포 등 넓은 모래사장이 있어 훌륭한 관광휴양지로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본 지역의 지질구조를 보면, 내륙에 연한 지역은 대보화강암(Daebo granite)으로, 해안지역은 결정편마암계인 연천층(Yeoncheon group)으로 되어 있으나, 서산군의 일부는 경기기초변성암(Kyunggi basement metamorphic complex)으로 되어있다(서산군, 1982).

서산·태안지역의 연평균 기온은 11.8℃, 연강수량은 1,155mm, 1월 평균기온은 -2.7℃, 8월의 평균기온은 25.6℃이다(그림 2). 기후구로 볼때, 이 지역은 차령산맥 이북과 멀악산맥의 이남 중부 서안형에 속하고, 따라서 호남지방에서 경기지방으로 옮겨가는 점이성(漸移性)기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해류의 영향을 받아 서해안의 수온변화가 상당히 심하다.

즉 쿠로시오 본류에서 분리된 쿠로시오 일부는 대륙의 사면을 따라 북상하여 대한

해협을 지나 동해로 유입되는 대만난류와 제주도 서쪽을 통하여 황해로 유입되는 황해난류를 형성한다.

황해로 유입된 황해난류는 봄인 4월부터 북상하여 여름인 8월에 발해까지 유입하려는 경향이 보이나 그 세력은 극히 미약하며, 발해에서 남하하는 중국대륙 연안수가 있어 양 해류의 상접지역인 황해 중앙부에는 환류를 형성하고 황해 저층냉수의 남하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서해안, 즉 서산·태안지역의 수온은 변화가 매우 심하며 특히 연안 천해부(淺海部)에서는 여름에는 심한 고온으로 상승하나 겨울에는 수온저하가 심하여 북부 연안은 결빙할때도 있다.

표면수온은 대륙성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겨울에는 황해 전체가 2~8℃(북부 2~4℃, 중부 5~6℃, 남부 7~8℃)의 황해 고유수(固有水)로 덮히게 되며, 여름에는 전 해역이 24℃(북부 24~25℃, 중부 26~27℃, 남부 27~28℃)이상의 높은 수온이 분포되어 연교차는 20~22℃정도가 된다 (그림 3).

이러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같은 위도상에 있는 동해안 지방보다 오히려 추운 현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서산·태안지역의 기후는 4 계절의 구분이 뚜렷하고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서 겨울은 몹시 춥고 여름은 매우 고온다습한 기온의 차이가 심한 대륙성기후를 띄고 있다.

최근에 Yim과 Kira(1975)는 식물의 생육기간의 적산온량(積算溫量)인 온난지수(溫暖指數, Warmth index : WI)와 겨울 추위를 나타내는 한냉지수(寒冷指數 Coldness index : CI)의 절대치를 합한 수치가 온도기후에 있어서 내륙도(內陸度 Continentality)의 훌륭한 지표가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지표로 계산해본 결과 서산·태안지역의 WI는 101.3℃월 CI는 -8.6℃월이고, 내륙도는 109.9 이었으며, 대전직할시의 경우는 WI=101.4℃월, CI=-18.7℃월, 내륙도는 120.3이였다. 즉 내륙도의 수치가 적을수록 대륙성 기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기후적 특성 때문에 이곳의 식생의 분포나 농경에서 뚜렷한 특징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 예로서는 감탕나무(*Ilex integra* var. *typica*), 이대(*Pseudosasa japonica*), 굴거리나무(*Daphniphyllum macropodum*) 등의 분포북한(分布北限)을 이루고 있는것이다.

III. 調 査 方 法

어떤 지역에서 식생의 전체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식생도(植生圖, Vegetation map)을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식생도란 어떤 식물군락이 어느 정도의 넓이로 분포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지도위에 묘사한 것이다.

이러한 식생도의 작성은 1:50000척도의 지도를 이용하여 식생조사지를 선정하고 상관(相觀, Physiognomy)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현지에서 식물군집의 분포범위(경계선)를 지도위에 그려넣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한정된 인력과 짧은 시간을 활용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이미 나온 논문이나 보고서등 기존자료를 충분히 이용하였다.

식생조사에서 우점도(優占度, Cover-abundance)는 Braun-Blanquet(1964)의 방법에 따랐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5 : 피도는 3/4으로 (이상) 개체수는 임의이다.

4 : 피도가 1/2~3/4으로 개체수는 임의이다.

3 : 피도가 1/4~1/2로 개체수는 임의이다.

2 : 개체수가 대단히 많거나 또는 피도가 1/10~1/4이다.

1 : 개체수가 많으나 피도는 낮다. 또는 대단히 소수이나 피도는 약간 높다

+ : 소수이며 피도는 매우 낮다.

r : 대단히 드물게 나타난다.

그리고 천연기념물인 모감주나무군락에서는 수고(樹高, Height)와 흉고직경(胸高直徑, Diameter of breast height; DBH)을 구체적으로 측정하였다. 또 수관단면도(樹冠斷面圖, Profile diagram)를 작성하여 재생양식(Regeneration pattern)도 알아보았다.

한편 서산·태안지역의 주요 산에 대한 식물상(Flora)은 물론 거아도와 가의도를 현지.답사하여 도서의 식물상도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IV. 結 果 및 考 察

1. 온도기후와 식생분포대

온도기후와 식생분포대와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Kira(1948, 1949)의 온난지수와 한냉지수가 높은 이용가치를 갖고 있다. Kira는 온난지수(WI)치와 식생분포의 대응관계를 WI=15~45범위를 아한대(亞寒帶, Subpolar zone), WI=45~85범위를 냉온대(冷溫帶, Cool temperate zone), WI=85~180범위를 난온대(暖溫帶, Warm temperate zone)등으로 구분하였으나, Yim(1979)은 이 온난지수의 범위를 약간 변형하여 한반도에 있어서 등치선(等值線, Isopleth)의 분포에 식생의 분포를 대응시켜본 결과 WI<55범위는 아고산대(亞高山帶, Subartic forest zone), WI 55~85범위는 냉온대북부(冷溫帶北部, Cool temperate forest, northern zone), WI 85~100범위는 냉온대중부(冷溫帶中部, Cool temperate forest, central zone), WI>100범위는 냉온대남부(冷溫帶南部, Cool temperate forest, southern zone) 그리고 CI>-10범위는 난온대(暖溫帶, Warm temperate forest zone), 즉 상록활엽수림대(常綠闊葉樹林帶, Evergreen broad-leaved forest zone)로 구분하였다(그림 4).

이에 따르면 태안지역은 전 지역이 냉온대 남부에 속하고, 서산군지역은 냉온대남부 및 중부의 접이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그림 5).

더우기 Yim(1968)은 냉온대 남부의 대표적인 수종은 곰솔(해송 *Pinus thunbergii*), 개서어나무(*Carpinus tschonoskii*), 및 단풍나무(*Acer formosum*)로, 중부의 것은 신갈나무(*Quercus mongolica*), 졸참나무(*Q. serrata*) 및 전나무(*Abies holophylla*)라고 밝히고 있고, Yim(1977)은 온도분포의 이론적 접근에 의하여 WI=50~90/월의 냉온대수종에서 대표종 24종류를 예시하였고, WI=80~100/월의 난온대낙엽수에서 대표종 6종류를 예시하였는데, 소나무(*Pinus densiflora*), 갈참나무(*Quercus aliena*), 비목나무(*Lindera erythrocarpa*), 팽나무(*Celtis sinensis*), 노간주나무(*Juniperus rigida*)는 냉온대와 난온대에 걸쳐서 분포한다고 하였다.

본 조사지역의 대표적인 군락으로서는 곰솔(해송)군락, 소나무군락, 상수리나무군락,

굴참나무군락, 서어나무군락, 신갈나무군락 및 모감주나무군락의 7개의 자연군락과 리기다소나무군락, 물오리나무군락, 일본잎갈나무군락, 아까시나무군락 및 은사시나무군락의 5개의 식재림군락 등 총 12개의 군락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들 군락은 모두 냉온대와 난온대에 걸쳐서 분포하는 군락들이다.

이상의 식물군락에서 대표적인 군락을 대상으로하여 그 식생조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2. 자연식생

곰솔(해송)군락 (표 1)

곰솔은 소나무와 같이 동아시아의 온대고유 2엽송(二葉松)으로 그 분포는 좁은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이 곰솔은 일본의 아오모리현(靑森縣), 동경의 하치조우섬(八丈島), 가고시마현(鹿兒島)의 사쓰난 군도, 우리나라 경기도 중부지역 및 강원도 강릉지역의 환상으로 연결된 곳에서만 자생하는 수종으로서 한반도에서는 황해쪽으로 경기도 북부(북위 37°50')에 달하고 동해에서는 강릉부근(북위 37°50')에 걸쳐서 그 이남지역에서만 분포하는 군락이다(吉岡, 1948).

서산·태안지역에서는 주로 해안가에서만 분포하고 있는데 삼림의 상태는 솔잎혹파리의 피해를 덜 받아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이곳 곰솔군락은 자연적 재생양식에 의하여 유지가 되고 있다는 자연산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어느 때인가 인간에 의하여 식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원래는 자연산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정책적으로 일부 지역에는 식재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후 종자의 산포에 의하여 자연적재생(自然的再生, Natural regeneration)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게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곰솔군락은 암석지에 강한 생활력이 있어서 암반으로 되어 있는 산지에는 거의 곰솔이 순군락(純群落, Pure stand)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태안군에서는 전 지역의 90% 이상이 곰솔군락으로 피복되어 있으나, 서산군은 대산면과 지곡면외에는 곰솔군락으로 덮여있는 지역이 넓지 않았다. 특기할 만한 것은

태안군 안면도는 길쭉한 섬으로서 양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순 곰솔군락으로 피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곳은 60%정도만이 곰솔로 덮여있고 나머지는 훌륭한 소나무군락이 지표를 덮고 있다.

곰솔군락의 교목층(Tall tree layer)에는 곰솔외에 소나무가 다소 혼생을 하고 있고, 아교목층(Subtall tree layer)에는 곰솔이외에 소나무, 굴피나무, 신갈나무가 섞여있으며, 관목층(Shrub layer)에는 떡갈나무, 진달래, 곰솔, 청미래덩굴, 싸리, 칙, 졸참나무, 조록싸리, 굴피나무, 신갈나무, 개암나무, 소나무 등이 많이 출현한다. 초본층(Herb layer)에는 쌀새, 기름새, 그늘사초, 고사리, 맑은대쑥, 참취, 마타리, 땅비싸리, 물억새, 오이풀, 도라지, 솜나물, 삼주, 미역취, 개사상자, 까치수영, 산국, 김의털, 종덩굴, 타래난초 등이 높은 상재도(常在度, Constancy)로 출현하고 있는데, 이들외에도 70여종이 나타나서 식생조성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초본층에 양지꽃, 도라지, 까치수영, 삼주, 타래난초등 양지성 식물이 출현하는 것으로 보아 곰솔이 임관(林冠, Canopy)을 거의 덮고 있으나 임관 사이의 공간을 통하여 임상(林床, Forest floor)으로의 광투과율이 높고 이러한 Sunfleck에 이들 양지성식물이 침입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나무군락 (표 2, 표 3)

소나무는 우리나라의 산야 어느곳에서나 가장 넓은 면적에 걸쳐서 분포하고 있는 주요 수종으로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식생이라고 할 수 있다.

소나무의 분포는 해안에서 부터 산악지대의 높은 고도에 까지 서식하는 수종으로서 한반도 뿐만 아니라 압록강과 두만강의 국경을 따라 북상하여 우수리강의 원류인 흥개호반(興凱湖畔)에 이르는 지역과 중국의 요동반도와 산둥 반도의 노산(勞山, 북위 36°0', 동경 120°3')에 이르는 지역 그리고 일본 아오모리현(靑森縣) 시모키타반도(下北半島), 가고시마(鹿兒島) 야쿠섬(屋久島)에 이르는 환상(環狀)의 연결지역에만 분포한다.(吉岡, 1948)

이러한 분포를 보면, 소나무는 온대에서 한대에 걸쳐서 보편적으로 분포하나 아열대에는 분포하지 않는 수종이다.

소나무는 곰솔과는 달리 솔잎혹파리의 피해를 쉽게 받는 수종으로서 서산·태안지역의 몇몇 지역은 심한 피해를 받았으나 대부분의 지역은 건전한 상태로서 임상이 훌륭하다.

태안군의 경우는 안면도를 제외하면 거의 전 지역이 곰솔로 식생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전술한바와 같으나 특히 안면도의 소나무군락은 우리나라의 타지역을 통털어 보아도 이곳과 같이 울창한 소나무숲은 어느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소나무 군락을 보유하고 있다. 안면도의 경관을 대표하는 식생으로서 절대 보존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서산군은 대산면과 지곡면을 제외하면 거의 전 지역이 소나무군락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특히 운산면지역은 거의 순수한 소나무군락으로 피복되어 있다.

소나무군락의 교목층에는 순전히 소나무만으로 임관을 형성하고 있고 다른 수종의 침입이 거의 없다. 소나무는 원추형·수관(樹冠, Crown)이라 광선의 투과량이 많아서 아교목층보다 관목층의 식생조성이 다양한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아교목층에는 소나무를 비롯하여 굴피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등이 약간씩 나타났고, 관목층에는 조록싸리, 졸참나무, 진달래, 떡갈나무, 소나무, 상수리나무, 싸리, 굴피나무, 노간주나무, 노린재나무, 갈참나무, 개암나무, 취, 생강나무 등이 많은 상재도를 보이였다. 이 관목층에는 42여종의 식물이 출현하였다.

초본층에는 그늘사초, 솜나물, 쌀새, 참억새, 삽주, 양지꽃, 맑은대쑥, 김의털, 땅비싸리, 고사리, 기름새, 참취, 미역취, 마타리, 선밀나물 등 90여종의 식물이 출현하였으나 한 지역에서는 평균 25~30여종 정도로 나타났다.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안면도 소나무군락의 수고는 10m정도인데 소나무외에 상수리나무가 높은 상재도로 출현한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생태계의 천이과정(Ecological succession)에서는 양수인 소나무림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서서히 참나무림(Oak forest)으로 천이가 진행되기 때문에 안면도 소나무군락이 참나무 특히 상수리나무군락으로 변천해 간다면 이 지역의 경관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따라서 소나무군락의 계속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하에작업(下刈作業)과 같은 적절한 관리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안면도의 소나무군락에서 아교목층은 소나무를 비롯하여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굴참나무, 산벚나무로 구성되어 있고, 관목층에는 진달래, 졸참나무, 청미래덩굴, 소나무, 쪽동백나무, 상수리나무, 조록싸리, 노간주나무등이 나타났으며, 초본층에는 애기나리, 꽃머느리밥풀, 보춘화(춘란), 새우난초, 쌀새, 그늘사초, 고사리 등이 출현한다. 특히 안면읍 승언리의 소나무군락에서는 교목층은 소나무만으로 임관을 형성하고 있어 아교목층이 전혀 없다.

즉 교목층의 소나무 수고가 18~20m정도로 매우 크고 아교목층이 없는 대신 관목층에 종다양성(種多樣性, Species diversity)이 높다. 특히 졸참나무, 개웃나무, 청미래덩굴, 수리딸기, 때죽나무, 조록싸리, 국수나무, 진달래, 생강나무, 노린재나무, 산철쭉등이 상재도가 높았다.

그런데, 이곳 소나무군락에 아교목층이 없다는 것은 임관을 구성하는 교목층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했고 기타 아교목층이나 관목층을 형성하는 것들은 별채해 버렸거나 또는 주민의 연료용으로 채취해 버렸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전술한바와 같이 안면도의 소나무 군락내에는 보춘화와 새우난초가 여러곳에 출현하는데 이것은 안면도가 황해의 영향을 받아서 온화한 때문으로 생각되며 그러한 인간의 손이 닿지않은 흔적이 있는 곳은 시급한 보호대책이 있어야 하겠다.

상수리나무군락 (표 4)

일반적으로 상수리나무는 마을근처에 분포하는데 서산·태안지역에서는 소나무군락과 곰솔군락이 대부분의 지역을 점유하고 있는 반면, 활엽수림 즉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굴참나무, 신갈나무, 서어나무 등의 군락은 혼하지가 않다.

상수리나무를 비롯한 참나무류의 군락은 표고버섯의 재배를 위하여 벌목을 해버렸기 때문에 분포면적이 좁아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참나무류의 군락은 뚜렷한 경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소나무와 같이 혼생하고 있으므로 구분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나 몇몇 지역에서 조사한 상수리나무군락의 식생조성표는 표 4와 같다.

교목층에는 상수리나무외에 소나무, 밤나무가 낮은 상재도로 출현하고 특히 덩굴성 식물인 쑥이 상수리나무나 소나무, 밤나무를 감고 올라가고 있다. 밤나무가 혼생하는

것은 민가근처이므로 식재한것의 종자가 동물이나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산포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교목층에는 소나무군락에 비하여 출현종의 수가 많은데 이것은 임상이나 하위층의 종다양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이 아교목층에 출현하는 종류는 물푸레나무, 소나무, 자귀나무, 으름, 비목나무, 붉나무, 때죽나무, 칩, 생강나무, 다래 등이 상재도는 낮으나 많이 서식하고 있고, 관목층에는 보리수나무, 쥐똥나무, 회잎나무, 생강나무, 청가시덩굴, 떡갈나무, 철래꽃, 졸참나무, 개암나무, 갈참나무 등이 비교적 많이 출현한다.

초본층에는 그늘사초, 고사리, 기름새, 참취, 애기나리, 마, 맑은대쑥, 주름조개풀, 백선, 비짜루, 무릇, 쌀새, 마, 참취, 땃대이덩굴 등 90여종이 생육하고 있다. 이와같이 마을근처에 형성되는 상수리나무군락은 소나무나 곰솔군락에 비해서 인간에 의한 교란을 심하게 받기 때문에 교란에 강한 식물이 다수 서식하는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상수리나무가 출현하는 지역은 태안군의 소원면 대소산의 동북사면, 송현리의 일부 지역, 원북면 이화산, 이교산, 금굴산등이고, 서산군에서는 팔봉산과 연화산의 넓은 지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고, 부석면 도비산의 일부 지역과 상왕산과 수정봉에는 비교적 넓은 면적에 걸쳐서 이들 상수리나무군락이 분포하고 있다.

신갈나무군락

신갈나무군락은 태안군에는 거의 출현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서산군에는 운산면의 일락산, 옥양봉, 석문봉, 가양봉 등을 중심으로 표고 300m이상의 높은 산악지대에 넓은 면적에 걸쳐서 분포하고 있다.

교목층의 수고는 약 12m정도이고 신갈나무외에 졸참나무와 굴참나무도 출현하고 있다. 아교목층에는 졸참나무, 개웃나무, 쪽동백나무, 산벚나무, 진달래등이 나타나는데 높이는 대개 4m전후이다. 노린재나무, 생강나무, 참취, 다래, 각시등굴레, 신갈나무, 쪽동백나무, 맑은대쑥, 꽃머느리밥풀, 그늘사초 등이 높은 상재도로 출현하고 있다.

신갈나무는 표고가 낮은 곳에서는 300m에서 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일반적으로는 5~600m부터 출현하는 곳이 많다. 그래서 이 종을 Upper oak라고도 부르고 있다(Wang, 1961).

우리나라의 냉온대는 참나무대로 알려져 있으며, 중부 및 남부는 *Carpinus*형인 서어나무, 개서어나무, 소사나무 등이 기후적인 자연극상종으로 알려졌다 (최 및 박, 1987). Yim은 신갈나무가 우리나라 중부지방이나 산악지대에서의 극상수종이라고 하고 있다 (Personal communication).

이렇게 생각할때 이곳의 신갈나무군락은 표고가 높은지대에서는 극상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해안지역에는 신갈나무군락이 희소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인위적인 교란을 받지 않도록해야 하겠다.

굴참나무군락

서산·태안지역에는 굴참나무군락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흔하지가 않다. 태안군에는 이 굴참나무군락이 별로 출현하지 않으나, 서산군 해미면의 일부 지역에는 소규모의 굴참나무군락이 존재한다.

이 굴참나무군락은 일반적으로 동서남북사면의 건조한 토양의 환경에 생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식별종으로는 참싸리, 큰기름새, 고깔제비꽃, 애기나리 등 26종류를 갖는 큰기름새 하위군락과 팔배나무 등 20종류를 갖는 팔배나무 하위군락으로 구분된다(김, 1988).

굴참나무는 코르크층이 두껍고 잎의 뒷면에 성상모가 밀포하고 있어서 산불이나 건조에 대한 내성이 강한 특성을 갖고 있어 2차림으로서 형성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굴참나무군락은 계룡산, 칠갑산 등 충청남도의 몇몇 산에 분포하고 있다(임 및 백, 1985 ; Kim, 1987 ; 길 및 김, 1984).

서어나무군락

서어나무군락은 태안군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으나 서산군 지곡면 환성리 대성국민학교 부근에서 아주 좁은 면적에서 볼 수 있었다. 서어나무는 비교적 습한 지소에 출현하는 식물로서 이곳의 서어나무도 이러한 습한 조건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곳의 서어나무군락과 이미 발표된 타 지역(예를 들면, 선운산, Kim & Yim, 1986 ;

내장산, Kim & Yim, 1988; 대둔산, Kim et al, 1988)의 서어나무군락과 비교해 보면 이곳 서산군의 서어나무군락은 벌채등 인간의 간섭이나 교란등으로 파괴는 되었으나 장차 이 지역에서 냉온대 남부의 식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서어나무군락에서는 쪽동백나무, 생강나무, 노린재나무, 그늘사초, 김의털 등이 높은 빈도로 출현하였다.

3. 인공식재림

리기다소나무 식재림

서산군 운산면과 대산면 운산리 망일산 동서사면 및 남서사면의 일부 지역에는 리기다소나무 식재림이 분포하고 있다. 본 식재림은 단층구조(單層構造)를 나타내고 있고 성숙림인 경우에는 높이가 8~10m, 피도는 80~90%, 유령림인 경우에는 교목층의 수고가 6~7m 정도이다. 이 리기다소나무 식재림에는 조록싸리, 노간주나무 등이 출현하는데 이것은 리기다소나무를 식재하기 전에는 이곳이 소나무림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교목층에는 소나무, 관목층에는 청미래덩굴, 줄참나무, 아까시나무가, 초본층에는 쌀새, 그늘사초가 많이 출현하고 있어 소나무군락과 그 식생조성이 유사하였다.

일본잎갈나무 식재림

일본잎갈나무는 원래 양지바른 봉괴지나 개방지의 빈양토양(貧養土壤)의 선구식물로 자라는 수종이다. 이 나무는 전신주나 토목재로 이용하여 왔기 때문에 식재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서산·태안지역에는 타 지역에 비하여 그렇게 넓은 지역에 걸쳐 식재되어 있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본 조사에서는 별로 많지가 않았다.

일본잎갈나무 식재림에는 관목층에 줄참나무,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등 참나무류가 혼생하고 있고, 진달래, 청미래덩굴 등 소나무군락에서 나타나는 종들이 출현하는 것으로 보아 식재전의 군락이 참나무인지 또는 소나무인지 구별하기가 곤란하였다.

물오리나무 식재림

이 식물은 원래 빈영양토지의 선구식물(先驅植物, Pioneer plant)인데, 과거에 우리나라의 산야가 민둥산이었을 때 토양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방용으로 많이 식재를 하였던 종이다. 이 오리나무류는 뿌리에 균의 일종인 *Actinomycetes*가 공생하여 질소고정을 하므로 비료목(肥料木)으로 이용하였다.

물오리나무 식재림의 평균수고는 7~8m 정도였고 식피율은 40~80%내외였다. 임상에는 국수나무, 산딸기, 산초나무 등 파괴된 식생에 출현하는 종류와 졸참나무, 진달래 등 소나무군락에서 나타나는 식물 및 아까시나무와 죽제비싸리와 같은 외래종이 출현하였다.

물오리나무는 수명이 짧은 식물로서 식재후 30~40년 지나면 대체로 죽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런곳의 토양은 영양염을 축적하게 되는데 이런 토양에 적응한 임상식물은 빈영양적인 토양에는 적응하지 못하여 천이가 억제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

태안군의 경우, 원북면 번계리 지역에 물오리나무 식재림이 있고, 서산군의 경우에는 운산면 원평리 원평국교 부근에 적은 면적에 이 군락이 분포하고 있다.

아까시나무 식재림

아까시나무는 북미가 원산인 콩과식물로서 붕괴지나 사태가 일어난 지역등 토양이 척박한 곳에 사방용이나 비료용으로 식재하여 왔다. 이 아까시나무 식재림에는 신갈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등이 비교적 높은 피도로 출현하고 있고 임상에는 그늘사초, 새, 맑은대쭉등이 나타난다.

태안군에는 아까시나무를 식재한 곳이 없었으나 서산군에는 부석면의 간석지부근에 식재되어 있고 특히 운산면 동암리에는 넓은 면적에 걸쳐서 아까시나무가 식재되어 있다.

은수원사시나무 식재림

원래 은수원사시나무는 은백양(*Populus alba*)을 모계(母系)로 수원사시무(*Populus glandulosa*)를 부계(父系)로 교배하여 우리나라에서 육종한 잡종이다. 암꽃을 갖는 모계의 장점과 수간이 직립하고 건조한 곳에서 잘 자라는 부계의 장점(수원사시나무는 암

꽃이 없고 수꽃만 있음)이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건조하기 쉬운 산지토양에서 높은 생산성을 가지므로 근래에 많이 식재되고 있다.

임상에는 진달래, 졸참나무 등 소나무군락에 출현하는 종류가 나타나고 또 아까시나무가 침입하고 있는데 아까시나무가 없는 은수원사시나무림에는 그 자신의 뿌리에서 많은 부정아(不定芽)가 나와 관목층을 형성하므로 다른 임상식물의 생육을 억제하는 경우가 있다. 서산군이나 태안군에는 몇몇 지역에 가끔 이 식재림이 보인다.

4. 해변의 식물군락

이곳 서산·태안지역은 황해와 접하고 있어서 해안선의 길이만도 98 km나 되고 천해부가 연안까지 연장되어 있어서 이런 곳에는 훌륭한 모래사장이 있고 또 소위 염성습지(鹽性濕地, Salt marsh)가 넓은 면적에 걸쳐서 분포하고 있다. 민(1988)의 조사에 의하면 간석을 행한 곳에는 강아지풀, 사데풀, 천일사초, 갈대, 갯자리, 산조풀, 돌피, 떡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이외에도 간석지의 대표적인 식물인 나문재, 통통마디, 갯개미취, 칠면초 등이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최 및 박(1987)의 보고에 의하면 해변사지에 발달한 황폐식생으로서는 달맞이꽃, 해국, 나문재, 강아지풀, 잔대, 솔새, 오이풀, 꿩이다리, 개소시랑개비, 명석딸기, 비짜루 등이 생육한다고 하였다.

특히 거아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구식물(沙丘植物, Sand dune plant)로는 순비기나무(*Vitex rotundifolia*)와 해당화(*Rosa rugosa* var. *typica*)군락이 있었으며, 이들과 함께 좀보리사초, 갯쇠보리, 갯메꽃, 갯완두, 갯방풍, 갯완두, 갯씀바귀, 수송나물, 통보리사초, 갯는쟁이 등이 출현하였다.

이와같이 서산·태안지역의 해안에는 훌륭한 사구식물이나 염성습지식물들이 분포하고 있는바 보호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들 식물군락의 파괴는 시간문제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위락시설을 설치하거나 텐트의 설치등 강력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

5. 천연기념물 및 희귀식물군락

태안군 안면읍 송언리 1318-1번지 방포해변에는 1962년 12월 3일 천연기념물·제 138호로 지정보호되고 있는 “모감주나무군락(*Koelreuteria paniculata* community)”이 있다.

모감주나무 또는 염주나무라고 불리는 이 나무는 열매로 염주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했으며, 중국 북지(北支) -하남성, 감숙성-가 원산으로 알려져 있으나 지금은 한국, 만주, 일본에서도 자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 황해도 초도(楚島)와 장산곶 사이의 사구에서 처음 발견이 된 이후, 1948년 덕적도 북리(北里) 해안사구, 1956년과 1957년에 이곳 태안군 안면읍에서도 발견이 되었다 (이, 1958).

그리고 경상남도 거제도의 돛섬에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내륙지방인 충북 월악산의 계곡(강 등, 1988) 및 경북 안동과 대구지방에서도 자생한다는 것이 알려졌다(양, 1990) (그림 6).

이곳 안면도 모감주나무군락은 해변 가까운 사구성입지(沙丘性立地)에 서식하고 있는데 그 수관단면도(樹冠斷面圖)는 그림 6과 같다. 즉 해변쪽에서 육지쪽으로 감에 따라 수고나 가슴높이에서의 나무의 원둘레가 굵어지고 있으며 임상에는 어린나무 즉 유묘(Seedling)도 가끔 발견이 된다. 주기적인 하예작업을 할때 종자에서 발아한 유묘(幼苗)나 치수(稚樹, Sapling)가 하초와 함께 잘리어 버리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잘린 어린나무들이 흔히 보인다. 따라서 하예작업을 할 때 모감주나무의 어린나무는 남겨두고 하초만을 제거토록 주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모감주나무가 서식하고 있는 서식지는 가는 모래와 유기물이 섞인 토양으로서 무기양분은 충분한 것 같다.

그림 7은 수고, 즉 나무의 높이를 나타낸 것인데 모감주나무의 수고빈도를 보면, 개방지(Opening site)와 폐쇄임관(Closed site) 사이에 차이가 보인다. 개방지에서는 1~2 m 크기의 나무가 많았으나 폐쇄임관하에서는 2~5m크기의 나무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시말하면, 폐쇄임관하에서는 어린나무들이 보이지 않았는데, 천술한바와 같이 하예작업때 어린나무가 베어져버렸기 때문이다.

특기할 만한 것은 개방지에서는 종자에 의해서 발아, 성장, 성숙목이 되는 종자번식(유성생식)을 행하고 있었으나 폐쇄임관하에서는 근주(밑둥)나 근계(Root system)에서 맹아(Sprout)에 의해 재생되는 즉 영양번식의 양식을 행하고 있었다.

한편, 이 모감주나무군락의 굵기 즉 가슴높이에서의 나무의 원둘레를 측정해 본 결과, 10cm에서 50cm까지 정상분포를 보이고 있고 (그림 8), 현지에서 측정된 최고로 굵은 나무는 84.0cm의 것이었다. 나무의 원둘레 분포가 정상분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어린 개체에서 부터 성숙된 개체까지 고루 분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식생조성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교목층이나 관목층이 없다는 것은 이 모감주나무의 후계수가 많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모감주나무 군락의 식생조성을 조사하였는데 표 5에서 보는바와 같이 교목층은 모감주나무만으로 형성되어 있고 아교목층은 없었으며 또 관목층도 모감주나무만으로 형성되고 있으나 그 양이 매우 낮았다. 초본층에는 쑥, 맥문동, 사위질방, 머루, 무릇, 닭의장풀, 인동덩굴, 들깨풀, 명석딸기, 칩, 새, 산거울, 쥐손이풀, 모감주나무 등이 상재도는 낮으나 많이 출현하고 있다. 이곳 모감주나무군락에서 나타난 식물의 총 종수는 36종류였다.

이상과 같이 안면도 모감주나무군락은 우리나라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유일한 자생지로서 본 조사에서 얻은 결과에 의하면 하해작업때 어린 유묘나 치수를 베어버려서는 아니될 것이며, 또 개체가 고사하게 되면 그 공간에는 Gap이 형성되는데 이러한 공간에는 종자에 의한 번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폐쇄임관하에서는 근계에 의한 영양번식을 하고 있으므로 관리를 잘하면 이 모감주나무군락은 오랫동안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이 원산인 이 모감주나무가 어떤 경로를 통하여 이곳 안면도에 정착번식하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이영로(1958)는 해류(海流)에 의한 전파설(傳播說) - Transplantation of *Koelreuteria paniculata* by sea current - 을 주장한다.

즉 모감주나무의 열매는 부력(浮力)이 크고 불투성(不透性)의 종피(種皮)를 갖고 있어서 바닷물이나 민물에 오랫동안(145일) 떠 있어도 이들 종자는 발아력이 있고 또 종피에 약간의 구멍이 있더라도 발아력은 낮으나 발아는 되었다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규명하였다.

그리고 황해바다에서 해류도(海流圖)를 알아보기 위하여 투입된 해류병(海流瓶)의 표류경향을 분석한 결과, 4월에서 8월 사이에는 서해안 전라북도에서 황해연안으로 북상하고, 반면에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의 황해 먼 바다에서 부터 전라북도 해안으로 남하하여 제주도 연안을 따라 대한해협으로 지나간다는 사실, 황해바다에서 투입된 해류병이 중국연안 강소성, 절강성이나 대만, 유구열도, 일본의 가고시마, 고찌, 아이찌 등의 태평양연안에서 발견 수집되었다는 여러가지의 자료를 근거로 한다면 해류에 의한 정착설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 다른 설에 의하면, 해방되기전 중국의 어부들이 안면도 앞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왔다가 임시 이곳 연안에 거처하던 중 중국에서 씨앗을 가져다가 심었다는 이야기가 구전되어 오고 있다고 태안군 국가지정 문화재대장에는 기술되어 있다.

한편 안면도 중장리 산 11에는 천연기념물 제 137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었던 굴거리나무군락(*Daphniphyllum macropodum* community)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그루의 나무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굴거리나무군락은 천연기념물에서 제외시켜 버렸다.

이 굴거리나무는 일제시대에 처음으로 발견이 되었는데 10여주가 생육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한다. 이 나무의 희귀성 때문에 인근 안면국민학교와 우체국에 옮겨 심어서 비교적 큰 나무로 성장했으나 결국 고사되어 버렸다고 한다.

구전에 의하면 이 굴거리나무는 중국 양자강지방에도 자생하는데 철새가 그 열매를 먹고 우리나라로 건너와 방뇨하므로써 그 열매가 이곳에 정착 발아한 것이라고 하고, 정확한 근거는 없으나 동물 특히 새에 의한 산포기작을 고려한다면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굴거리나무는 상록성인 조엽수(照葉樹, Laurel tree)로서 제주도를 비롯하여 남해안의 난온대지역에만 자생하고 있는 수종으로서 내륙지방으로는 내장산이 분포의 북한이고 해안을 따라서는 이곳 안면도가 그 분포 북한(北限)이다.

다행히 안면읍 승언리 팔학동에 살고 계시는 “편준식”씨께서 이 굴거리나무의 희귀성과 학문적 가치를 인식하셔서 그 후속수(後續樹) 들을 그분의 집 뒷뜰에서 많이 키

우고 있었다. 그러므로 편씨께서 현재 보호 식재하고 있는 “중장리의 자생지에서 기원한 이들 후속수”들을 보다 많이 키워서 원래의 자생지인 중장리 서북 해안으로 이식시켜 본래의 굴거리나무군락을 복원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된다. 편씨가 식재한 굴거리나무는 수고가 1.5m~3.75m에 이르고 원둘레는 13.0cm 정도의 것들이었다. 이 정도의 크기라면 성숙목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굴거리나무가 있는 곳은 편씨의 덕 말고도 한판사의 묘역과 그 주변의 계곡에 10여주가 있다고 하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확인을 못했다.

서산·태안지역의 회귀식물로서는 난초과(Orchdaceae)식물을 들 수 있는데 그 중 새우난초(*Calanthe discolor*)와 보춘화(보춘란, 춘란, *Cymbidium virescens*)는 난온대 삼림대 즉 상록수림대의 숲속에 자생하는 회귀식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를 비롯하여 남해안의 난온대역의 수림이나 대나무 숲에서만 서식하는 식물이다.

안면도의 방포부근에서 조사한 새우난초군락의 식생조성을 보면 표 6과 같다. 교목층에는 소나무만으로 구성된 임판이 있고 아교목층은 전연 없으며 관목층에는 졸참나무, 진달래, 때죽나무, 청미래덩굴, 덩굴나무, 개웃나무, 물푸레나무, 음나무, 조록싸리 및 줄말기둥이 있고 초본층에는 새우난초를 비롯하여 그늘사초, 억새, 애기나리, 새, 산박하, 꽃머느리밥풀, 쌀새, 마타리, 고사리, 큰기름새, 선밀나물 등이 출현하고 있다. 이 지역에 난초과 식물이 서식한다는 것은 바로 이 지역이 난온대역(暖溫帶域)임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이와같이 새우난초가 생육하고 있는 곳은 안면도 지역에서는 소나무군락이 형성되어 있는 곳인데 이런 곳에 새우난초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사람들이 접근하거나 몰래 파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호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겠다.

기타 회귀식물로서는 흰진달래(*Rhododendron mucronulatum* var. *albiflorum*), 백작약(*Paeonia japonica* var. *pilosa*), 금새우난초(*Calanthe sieboldii*)도 자생한다고 하나 역시 본 조사에서는 확인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내파수도에는 유채가 자생한다고 하는데 난온대지방에서만 생육할 수 있는 유채가 이곳 내파수에 자생한다는 사실은 학술적으로 매우 흥미와 관심을 가질만한 사실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동물에 의한 산포기작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씨앗이 전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몇몇 도서지방에서는 조엽수인 동백나무가 자생한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난온대지방의 대표종임을 고려할때 이곳이 황해의 영향을 받아서 온난한 기후임을 알수가 있다.

6. 기타 보호수 및 노거수

산림청(1984)의 자료에 의하면 본 서산·태안지역에서의 보호수는 총 69본으로 되어 있다.

서산군 부석면 취평리의 부석사 주위에는 느티나무가 약 30여주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수령 300년, 수고 20m, 원둘레 2.5m의 거목인데 이 정도의 크기라면 충청남도 서북지방에서는 가장 큰 노거수라고 할 수 있겠다. 아직 노거수나 보호수로 지정이 되지 않은 나무중 서산군 해미면 해미읍성내에 있는 회화나무(*Sophora japonica*)와 느릅나무(*Ulmus parvifolia*), 태안군 근흥면에 있는 산딸나무(*Cornus kousa*)는 정확한 수령을 알수는 없으나 그 수고와 원둘레가 보기 드문 큰 나무로서 보호수로 지정될만 하다.

그리고 태안군 거아도에는 수고 5m, 둘레 49.2cm(최소 49.0cm, 최고 63.0cm)의 사철나무(*Masakia japonica*), 수고 7m, 둘레 202.8cm(최소 152.0cm, 최고 372.0cm)의 팽나무(*Celtis sinensis* var. *japonica*)가 있고, 가의도에는 둘레가 310cm, 406cm, 수령 500~600년으로 추정되는 거목인 은행나무(*Ginkgo biloba*)가 있다.

V. 要約 및 結論

충청남도 중서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서산/태안지역의 식생 및 식물상을 조사하였으며 또한 전 지역에 걸쳐서 식생도를 작성하였다. 서산·태안지역에서 조사된 식물은 총 101과 285속 432종 이었다 (표 7).

자연식생으로는 곶송(해송)군락, 소나무군락, 상수리나무군락, 신갈나무군락, 굴참나무군락 및 서어나무군락의 6개군락으로, 인공식재림으로는 리기다소나무 식재림, 일본잎갈나무 식재림, 물오리나무 식재림, 아까시나무 식재림 및 은수원 사시나무 식재림의 5개 군락으로 구분되었으며, 또 해변의 식물군락, 천연기념물인 모감주나무군락과 회귀식물등 총 14개 군락으로 세분되었다.

서산/태안군의 대표적인 식생은 서산군의 소나무군락, 태안군의 곶송군락으로서 이들 두 군락이 이 지역의 경관을 좌우하는 주요 식생이므로 지역 개발이나 관광단지의 조성때에는 가능한 한 식생의 파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겠다.

특히 태안군 안면도 승언리 천연기념물 제 138호인 모감주나무군락은 학술적인 가치가 매우 큰 군락이므로 계속적인 보호가 요구되고 또한 이미 없어진 굴거리나무군락은 자생지에서 기원된 후속수들이 아직은 조금 남아 있으므로 원래의 자생지로 이식시켜 원상대로 복원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하겠다.

그리고 난초과 식물의 자생지는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채취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적극 보호하지 않으면 굴거리나무와 같이 이곳에서 완전히 절멸 또는 멸종되어 버릴것이므로 이에 대한 구제책도 마련해야 하겠다.

參 考 文 獻

- Braun-Blanquet, J. (1964) Pflanzensozioilogie. Springer-Verlag. Wien. New York. p. 865
- 최두문, 박원규 (1987) 충남원북지방 육상생태계의 식생연구. 공주사대 과학교육연구 pp.63-103.
- 길봉섭, 김정언 (1984) 석모도의 식생. 한생태지. 7 : 208-231
- 강상준, 김홍은, 이희선 (1988) 충북의 자연(식물편). 충청북도교육위원회. p.371
- Kim, J.U. (1987) Studies on the forest vegetation of Mt.Naejang, Korea, by classification and ordination techniques. Ph.D.Thesis. Chungang Univ. p.123
- Kim, J.U. and Y.J. Yim (1986) Classification of forest vegetation of Seonunsan area, southwestern Korea. Kor. J. Ecol. 9 : 209-223
- Kim, J.U. and Y.J. Yim (1988) Phytosociological classification of plant communities in Mt.Naejang, southwestern Korea. Kor. J. Bot. 31 : 1-31
- Kim, J.U., Y.J. Yim and B.S.Kim (1988) Classification and analysis of the forest vegetation in Mt.Daedunsan provincial park, Korea. Kor.J.Ecol. 11 : 109-122
- 김준호 (1988) '88자연생태계 전국조사(II-2). 제3차년도(충남의 식생). 환경청. pp. 215-297
- Kira, T. (1948) On the altitudinal arrangement of climate zones in Japan. Kanti-No gaku. 2 : 143-172 (in Japanese)
- Kira, T. (1949) Forest zones of Japan. Ringyo Gijutsu Kyokai. Tokyo.
- 이영로 (1958) 모감주나무의 해류에 의한 전파. 식물학회지. 1(1) : 11-20
- 민병미 (1988) '88자연생태계 전국조사(II-2). 제3차년도(충남의 식생). 환경청 pp. 103-177
- 中井猛之進 (1915) 濟州道 및 莞島 植物調査 報告書.
- 中井猛之進 (1919) 鬱陵島 植物調査 報告書.

- 오계철 (1977) 한라산 및 홍도 학술조사 보고서
- 서산군 (1982) 서산군지. 서산군
- 신창남, 권오용, 류경식 (1986) 서해안일대의 *Carpinus coreana* 군집에 대한 분석 충남대 환경연구보고, 4(1) : 1-10
- 신창남, 송호경, 박종성, 오희복 (1985) 서산군 대산지역 식물의 조사보고, 충남대 환경연구보고, 3(2) : 91-101
- 양인석 (1990) 모감주나무의 생육지. 자연보존, 제69호 p.34-35.
- 임경빈 (1968) 조림학원론. 향문사. p.280
- Yim, Y.J. and T. Kira (1975) Distribution of forest vegetation and climate in the Korean peninsula. I. Distribution of some indices of thermal climate. Jap. J. Ecol. 25 : 77-88
- Yim, Y.J. (1977) Ditto. III. Distribution of tree species along the thermal gradient. Ibid 27 : 177-189
- 임양재, 백순달 (1985) 설악산의 식생. 중앙대 출판부. pp.199
- 吉岡邦二 (1948) 日本松林의 生態學的 研究. 日本林業技術協會. 東京. pp.198
- Uyeki, H. (1933) On the forest zones in Korea. Acta Phytotaxonomica et Geobotanica. 2(2) : 73-85.

표 1. 곶솔(해송) 군락의 식생조성 (민, 1988)

Releve	numbe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T ₁	곶솔	5.5	5.5	5.5	5.5	4.5	5.5	5.5	5.5	5.5	4.5	5.5	4.5	4.5	
	소나무	2.2		1.1	1.1				+						
T ₂	곶솔	1.1	2.1	2.1	2.1	1.1			2.1	1.1		2.1	2.1	+	3.3
	소나무	+			+									+	2.1
	굴피나무									2.1					
	신갈나무					1.1									
	리기다소나무														+
S	떡갈나무	3.4	3.3	3.3	3.2	3.1	3.1	2.2	2.1	2.1	2.1	2.1	1.1	1.1	1.1
	진달래	2.1	2.1	2.2	2.1	2.1	2.2	1.2	2.2	1.1	1.1		2.2	2.1	1.1
	곶솔	+	1.1		1.2	1.1		+	1.1		4.2	3.3	2.1	+	2.2
	청미래덩굴	1.1	+	1.1	1.1	+		+	2.1	+	2.2		1.2	1.1	
	싸리		+		1.1	1.1	2.1	1.1	+	1.1	2.1	1.1	2.1	+	
	취	2.3	+	1.1		1.1			1.1	1.1	2.1				
	줄참나무				2.2	1.1			+	1.1		1.1	2.1	2.1	
	조록싸리	2.2	3.4	2.3			+		2.1			2.2			
	굴피나무			1.1		+				2.1	1.1		1.1	+	
	신갈나무			+		1.1					+	+			+
	노간주나무					+			+		+			+	
	노린재나무	+					+	+		+					
	개암나무				+							2.2			
	소나무												+		1.1
	상수리나무									+					+
	갈참나무						+		+						
	소사나무								+						

산	국			+	+	+	1.1		+		+		+	+
김 의 털		1.2	1.2	+				+	1.2	1.2			3.3	
종 덩 굴				+	+	+				+	+			+
타 래 난 초		+	+			+	+			+	+	+		
곰 술						+	2.1						1.1	2.1
무 룯						+	2.1						1.1	2.1
선 밀 나 물	+						1.1	+					1.1	
중 나 리								+		+	+	+		+
잔 대	+					+	+	+						+
꿀 풀						+			+			+		+
수 리 취				+			+					1.1		3.3
등 굴 레								1.2		+	1.2			+
원 추 리							+	+		+				2.1
꽃며느리밥풀				+		+				+				+
제 비 꽃						+			+					+
애 기 나 리				+		+				+	+			
용 담								+				+		+
제 비 쑥				+	+							+	+	
영 경 귀				+						+				1.1
처 녀 바 디								+			+			1.1
남산제비꽃						+		1.2						+
마				+	+									+
할 미 꽃										+			+	+
세잎양지꽃								+		+			+	
비 짜 루							+			+				+
닭 의 난 초							+	+		+				
들 깨 풀				+			+	+						

우 산 나 물		+	+		+
벌 등 골 나 물	+		+		+
댕 댕 이 텅 굴	+	+	+		
대 국		+	+		+
선 쏜 바 귀				+	+
솔 새				+	2.1
물 매 화	+	1.1			
여 로			+		+
웅 곳 나 물			+		+
평 의 다 리			+		+
등 골 나 물		+	+		
고 비			+	+	
은 대 난 초				+	+
알 록 제 비 꽃				+	+
애 기 풀				+	+
제비잠자리난				+	+
수 원 잔 대		+			+
산 골 무 꽃					+
지 치	+				+
평 의 밥	+			+	
초 피 나 무					1.1
청 미래 텅 굴					1.1
누 루 발	1.2				
대 나 물				1.2	
떡 갈 나 무					+
조 록 싸 리					+
신 감 채					+

노 간 주 나 무	+		
고 들 뻘 기	+		
보 춘 화	+		
각 시 붓 꽃		+	
기 름 나 물		+	
구 와 취			+
구 술 봉 이	+		
큰 잎 칼 쉼			+
취 손 이 풀			+
절 곳 대			+
왜 제 비 꽃			+
산 해 박			+
노 루 귀			+
넓 은 잔 대			+
산 쉼 바 귀			+
굴 피 나 무			+
각 시 붓 꽃			+
툼 풀	+		
홀 아 비 꽃 대	+		
조 밥 나 물	+		
두 매 고 들 뻘 기	+		
고 삼			+

표 2. 소나무군락의 식생조성 (민, 1988)

Releve	numbe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T ₁	소 나 무	4.4	5.5	5.5	5.5	2.2	5.5	3.3	5.5	5.5	5.5	4.4	5.5		5.5	5.5		5.5	5.5	5.5	4.4	5.5		5.5	3.3
	곰 솔			+																					
	물오리나무																						+		
T ₂	소 나 무	3.1		1.1	3.2	5.5		3.3	3.3					5.5		5.5	1.1		3.3	1.1		5.5			
	굴 피 나 무				1.1					2.1															
	아까시나무																	+		+					
	청미래덩굴									+				+											
	줄 참 나 무								1.1																
	상수리나무				1.1																				
	떡갈나무							1.1																	
	산벚나무											1.1													
	보리수나무																	+							
	담쟁이덩굴									+															
	곰 솔												+												
S	조 록 싸 리	3.3	3.3	3.3	3.2	2.2	2.2	2.2	2.2	2.1	2.1	2.1	2.1	1.1	1.1	1.1	1.1	1.1	1.1	1.1	+				

조 팍 나 무

난티오편개암나무

+

곰 술

+

감 나 무

+

작 살 나 무

+

H	그	늘	사	초	+	2.3	3.3	2.2		1.2	1.1	1.2	5.5	3.2	2.3	1.1	5.2	1.2	1.1	2.2	2.2	2.2	3.2	2.2	1.1	+	2.2
	숨	나	물	+		+		+	+	1.1	+		+		+	1.1	1.1	+	+		1.1	+	+	+		+	1.1
	쌀		새	1.1	1.2		1.1	1.1		+	+	1.2	1.2		2.3	2.1	2.1	2.2	1.1		2.2				3.2	3.3	1.1
	참	억	새	1.1	1.2	+		+		1.1	2.2	+	+	+		1.2				+	2.2	2.2	1.1	+	+	+	
	삽		주	+		+	+	1.1	+	1.1		+	1.1	+	+	1.1	+	+	+		1.1					1.1	
	양	지	꽃	+		+		+		+			1.1		+	+	+	+		+	1.1			+		+	1.1
	맑	은	대	쑥	1.2	1.3		1.1	+			+		+	2.3	+				1.1	2.3		+	+		2.2	
	김	의	털		1.2	2.2		1.1	1.2		3.3				2.2		3.2			2.2	1.2	1.1		1.1			+
	땅	비	싸	리	2.1		+	1.1		1.1		1.1	2.1			2.1						1.1	+			1.1	1.1
	고	사	리	1.1	1.1				+			1.1			1.1	1.1			1.1		3.3			+	1.1		2.2
	기	름	새		2.3	+			+			1.2	1.2	2.1	2.1						3.2	+	+	2.2			
	참		취	1.1	1.1				+			+	1.1		1.1	1.1		+			2.2			+		+	
	미	역	취			+	+		+		+	+	+		+		+			+	1.1			+			

뚝	갈	+	+			+	+	+	1.1.1	+	+	1.1.1		+	+	+	2.2.2
마	타	리	+	1.2.1	+		+		1.2.1	+		+	+	+	+	+	+
이	고	들	빠	기	+	+	+	+	2.1.1				2.1.1		+	+	
도	라	지		+			+	+	+	1.1.1	+	+		+	+	+	
선	밀	나	물	+	+		+	+	+			2.3.1		2.1.1			
제	비	꽃		+	+		+		+	+	+				+	+	+
기	름	나	물	+	+		+	+	+	+		+			+	+	
큰	까	치	수	영	2.3.1	1.2.1		+		3.2.1		2.1.1		1.1.1		+	
산	골	무	꽃				+	+	+	+	1.1.1	2.2.1				+	
소	나	무			+			1.1.1		+		+		+		2.2.2	+
원	추	리	+				+	+			+	2.2.2		+			
오	이	풀			+			+			+	+	+	+	1.1.1		+
산		국		+			+			+	+	1.1.1		+			+
각	시	꽃			+		+			+	+	+	+	+	+		
애	기	나	리	2.2.1			+					1.2.1	2.3.1				+
신	감	채			+		+							+			1.1.1
맹	맹	이	덩	굴		+		+			+		+				
등	굴	레	1.1.1					+	+	+	1.1.1						

조	밥	나	물	+					+	+	+
제	비	쑥		+		+	+				+
당	잔	대						+	+		+
중	나	리				+		+	+	+	
대		극		+		+	+				+
수	리	취	+			+	+		+		
노	루	발	+		+		+		+		
	새			+				1.2	1.1		
바	수	리		+		+		+			
산	해	박		+		+	+				
으	아	리		+		+		+			
할	미	꽃		+						+	+
산	숨	바	귀	+						+	+
숨	바	귀				+		+			+
기	장	대	풀		+					+	+
등	골	나	물		+					+	+
무		룻				+		2.2			
꽃	며느리	밥	풀						+		2.2

영	경	퀴								+	1.1
훤	여	로							+		1.1
구	절	초							+		
알	록	제	비	꽃						+	
개	사	상	자						+		
잔		대							+		
산	부	추							+	+	
담	쟁	이	덩	굴					+		
	마									+	+
털	잔	대								+	+
산	비	장	이						+		
평	의	다	리							+	
새	잎	양	지	꽃						+	+
	쑥								+		
갈	퀴	꼭	두	서	니					+	
구	와	취							+		
종	덩	굴							+		
개	갈	퀴	+	+							

백	선		+	+	
시	호		+	+	
보	춘	화	+	+	
대	사	초			43.3
은	방	울	꽃		3.5
굴	피	나	무	1.1	
담	배	풀		1.1	
처	녀	바	디		1.1.1
제	비	꿀	+		
대	나	물	+		
고	들	배	기		
차		풀	+		
고	추	나	물	+	
꿀		풀		+	
금	불	초			+
파	리	풀	+		
개	머	루	+		
짚	신	나	물	+	

술 새
 수 원 잔 대
 닭 의 장 풀
 개 고 사 리
 까실쑥부쟁이
 이 질 풀
 평 의 밥
 산 딸 기
 용 담
 외 대 으 아 리
 흰 꼬 리 풀
 가 는 금 불 초
 까 마 귀 머 루
 고 깔 제 비 꽃
 맥 문 동
 그 늘 골 무 꽃
 졸 참 나 무
 뱀 고 사 리

+

+

+

+

+

+

+

+

+

+

+

+

+

+

+

+

+

노랑 제비꽃

+

새콩

+

들깨풀

+

자금우 +

표 3. 소나무군락의 식생조성 (민, 1988)

Releve	number	1	2	3	4	5	6	7	8
T ₁	소 나 무	5.5	5.5	4.4	5.5	5.5	5.5	4.4	4.4
S	졸 참 나 무	1.1	1.1	2.2	3.3	1.1	2.2	2.2	4.4
	개 옷 나 무	+	2.1	3.3	3.3	1.1	4.4	2.1	+
	청 미 래 덩 굴	1.1	1.1	+	1.1	+	1.1	1.1	+
	수 리 딸 기	+	+	+	1.1	+	1.1	+	+
	덜 평 나 무	+	+	+	+	+	+	+	1.1
	때 죽 나 무	3.1	2.1	1.1		1.1	1.1	1.1	1.1
	조 록 싸 리	1.1	1.1	1.1	1.1	1.1		+	+
	국 수 나 무	2.1	3.3	1.1	+	1.1		1.1	
	진 달 래	+		2.2	1.1	1.1		1.1	1.1
	딱 총 나 무	+	+	2.2	1.1	3.3		2.2	
	산 딸 나 무	1.1	1.1	+		+	+	+	
	생 강 나 무		1.1		+	+	1.1	+	+
	붉 나 무	+	+	1.1	+		1.1		+
	노 린 재 나 무	+	+		+	+	+	1.1	+
	산 초 나 무		+		+	+	1.1		+
	산 벗 나 무	+	+	+	+		+	+	
	나 도 밤 나 무	+		1.1	1.1		1.1	+	
	합 다 리 나 무		1.1	1.1	1.1		+	+	
	팔 배 나 무		1.1	+	1.1			+	
	쪽 동 백 나 무	+		+	+	+	+		
	정 금 나 무			+	1.1	1.1	+		1.1
	소 나 무			+		1.1	+		1.1
	물 푸 래 나 무	+	+	+					+

작 살 나 무	+	+		+					+
밤 나 무	+		2.2					4.4	
백 동 백	+		+						+
청가시덩굴		+	+				+		
두 립 나 무	+	1.1							
개 머 루	+	+							
초 피 나 무	+						+		
산 옥 매	+	+							
음 나 무								+	
갈 매 나 무				+	+				
고로쇠나무	+								
큰 여 우 콩	+								
참 싸 리									
회 나 무					+				
말 채 나 무		+							
다 래		+							
화 살 나 무			+						
털조록싸리	+								

H	그 늘 사 초	3.2	2.2	1.2	3.2	3.3	2.3	4.2	3.2
	애 기 나 리	1.1	1.1	1.3	1.3	2.3	1.1	2.3	1.1
	물 역 새	+	1.2	2.2	1.1	1.1	1.1	1.1	1.2
	조 릿 대 풀	1.1	1.2	+	1.1	+	+	+	+
	보 춘 화	+		1.1	1.2	2.3	+	+	1.1
	고 사 리	1.1		1.1	1.1	1.1		1.1	1.1
	땅 비 싸 리		+	+	1.2		1.2	+	1.3
	참 취	+	+	+	+	1.1		1.1	
	삼 주		1.1	+	1.1		+	+	+

미역취	+		+	+	+		+	+
쌀새	2.1			2.1	2.1		3.2	2.1
우산나물	1.1	+		+	1.1		+	
붓꽃		1.1		1.1	+		+	
숨나물	1.1		+	+				+
새팔	1.1	+	+	+				
꽃머느리밥풀		+			1.1		+	+
댕댕이덩굴	+	+		+	+			
산골무꽃		+		+			+	+
주름조개풀		3.5	1.1				+	
말은대쑥					1.2		+2	1.1
새		1.1	1.1				+	
바위취			+	1.3			+	
등골나물	+				+			+
제비꽃			+				+	+
줄바꽃			+	+			+	
영경취				+				1.1
선밀나물	+		+					
까치수영		+						+
노루발			+					+
개밀		+						
맥문동		+	+					
남산제비꽃							+	
잔대			+				+	
고비					1.3			
개박하	1.1							1.1
세잎양지꽃	+							

쌈	바	귀	+				
여	우	콩	+				
뺨	고	사	리	+			
까	마	귀	머	루	+		
마	타	리					+
은	대	난	초				+
산	조	풀					+
나	비	나	물			+	
개	머	루				+	
신	감	채			+		
청	까	마	귀	머	루	+	
쥐	방	울	덩	굴		+	
산	부	추			+		
비	짜	루			+	+	
꼭	두	서	니		+		
원	추	리					+
조	개	풀					+
개	선	갈	퀴				+
짚	신	나	물				+
노	루	귀				+	
양	지	꽃				+	
파	리	풀	+				

표 4. 상수리나무 군락의 식생조성 (민, 1988)

Releve	number	1	2	3	4	5	6	7
T ₁	상수리나무	4.4	5.5	5.5	5.5	5.5	4.4	4.4
	밤 나 무	+		+				
	소 나 무				1.1			
	줄 참 나 무				1.1			
	쑤	1.1						
	합다리나무					1.1		
	매 죽 나 무			+				
	개 머 루			+				
	리기다소나무	+						
T ₂	물푸레나무		1.1			+		1.1
	자귀나무		+				+	+
	소 나 무		1.1				1.1	
	으 름					+		2.1
	비 목 나 무					+		1.1
	붉 나 무		+					1.1
	매 죽 나 무					2.2		
	뽕 나 무							2.1
	쑤		2.1					
	갈 참 나 무		2.1					
	생 강 나 무							1.1
	다 름 나 무							1.1
	다 래		1.1					
	땡땡이덩굴							+
	아까시나무							+

	떡갈나무						+
	청미래덩굴						+
	팔배나무						+
S	보리수나무	+	+	+			+
	쥐똥나무		+	1.1		+	1.1
	회잎나무	+	1.1		+	+	
	생강나무	+		+	+	+	
	청가시나무	1.1			1.1		2.2
	떡갈나무	1.1			1.1		2.2
	절레꽃	+	1.1				5.3
	줄참나무	+	+	2.1			
	개암나무	+			2.1		+
	청미래덩굴	+		+		1.1	
	덜꿩나무	1.1			+		+
	노린재나무			+		+	+
	조록싸리	+			+		+
	상수리나무	2.1			2.1		
	갈참나무		1.1	2.1			
	참싸리			2.1	1.1		
	으름	+	1.1				
	산초나무		+				+
	초피나무	+	+				
	매죽나무			+		+	
	산벚나무	+		+			
	인동	+		+			
	밤나무	+			+		
	진달래				+		+

담쟁이덩굴	+		+
작살나무	+		+
합다리나무			2.2
다래		1.1	
광대싸리	1.1		
화살나무		+	
고광나무		+	
박쥐나무		+	
왕머루		+	
불나무		+	
물푸레나무		+	
두릅나무		+	
병꽃나무		+	
산딸기		+	
쑥		+	
자귀나무		+	
난티잎개암나무			+
예덕나무			+
조팝나무			+
산앵도나무	+		
하늘타리	+		
명석딸기	+		
느티나무	+		
신나무	+		
싸리	+		
노박덩굴	+		
덩덩이덩굴	+		

	까마귀머루	+						
	은사시나무	+						
	오 갈 피					+		
	산 옥 매					+		
	사람주나무					+		
	느 립 나 무					+		
	개 머 루					+		
	갈 매 나 무						+	
	대뺏집나무						+	
H	고 사 리		+	1.1	+	+	+	+
	그 늘 사 초	1.1	1.2	1.2	1.2		3.3	
	기 름 새	1.1	1.1		1.2	+	+	
	참 취	+	+	+			+	+
	애 기 나 리		+	+	+	+	+	
	마		+	1.1	+	1.1		
	말 은 대 쑥	+		+	2.4		+	
	맥 문 동	+				1.1	+	+
	주 림 조 개 풀	2.1				1.1		2.4
	양 지 꽃	+	+	1.1				
	백 선	1.1			+		+	
	비 짜 루		+			+		+
	인 동	+	+					+
	무 롯	+	+					+
	나 비 나 물		+		+			+
	오 이 풀	+	+		+			
	산 국	+			+		+	
	땡 땡 이 땡 굴				+		+	+

쌀	새		1.2	2.3		
꽃머느리밥풀				1.1	+	
벌 깨 덩 굴		+				2.1
노 루 귀		1.3				+
산 씀 바 귀		+	1.1			
김 의 털			1.2	+		
큰 기 림 새	1.1					
싱	아			+		+
족 도 리		+				+
하늘말나리		+				+
신 감 채		+				+
청가시덩굴		+				+
선 밀 나 물					+	+
담쟁이덩굴		+			+	
산 골 무 꽃		+		+		
기 림 나 물		+				+
갈퀴꼭두서니	+	+				
각 시 붓 꽃	+	+				
노 루 발			+2			+
꼬리고사리	+			+		
까 치 수 영				+	+	
으 림				+	+	
새	+					+
물 래 나 물	+					+
큰애기나리		3.4				
개 별 꽃						2.3
둥근털제비꽃						+

영	경	퀴	+		
비	수	리	+		
짚	신	나	물	+	
천	남	성		+	
은	대	난	초	+	
생	강	나	무	+	
쥐	똥	나	무	+	
느	티	나	무	+	
계	요	등		+	
떡	갈	나	무		+
매	화	노	루	발	+
상	수	리	나	무	+
등	근	갈	퀴		+
삼			주		+
평	의	다	리		+
시			호		+
애	기	폴			+
사	초	sp.	2.1		2.1

표 5. 모감주나무 군락의 식생조성

Releve	number					1	2	3
T ₁	모	감	주	나	무	5.5	5.5	5.5
S	모	감	주	나	무			+
H	쇠		무		릅	+	1.1	+
	닭	의		장	풀	+	+	+
	사	위		질	방	1.1	1.1	1.1
	머				루	3.3	1.1	1.1
	개		망		초	+		
	하	늘		타	리	1.1		
	무				룻	+	+	+
	으				름	+		
	맥		문		동	1.1	2.2	+
	청	가	시	나	무	+	+	+
			쑥			1.1	1.1	2.2
	인	동		덩	굴	1.1	+	+
	계		요		동	+		1.1
	꼭	두		서	니	+		
	으		아		리		1.1	+
			취				+	+
			새				+	+
	산		거		울		+	+
	모	감	주	나	무		+	1.1
	쥐	손		이	풀		+	+
	기	름		나	물		+	
	미		나		리		+	

팽		이		밥	+	
소	리	쟁	이		+	
댕	댕	이	덩	글	+	
들		나		물	+	
물		억		새	+	
들		깨		풀	+	+
명	석	딸	기		+	+
은	대	난	초		+	
사	철	나	무			+
귀	똥	나	무			+
산	초	나	무			+
병	꽃	나	무			+
물	푸	래	나	무		+
쌀			새			+

표 6. 새우난초 군락의 식생조성

Releve	number				1
T ₁	소	나	무		4.4
S	줄	참	나	무	2.2
	물	푸	레	나	+
	음		나	무	+
	진		달	래	1.1
	때	죽	나	무	1.1
	청	미	래	덩	+
	덜	평	나	무	1.1
	개	웃	나	무	1.1
	벗		나	무	+
	팔	배	나	무	+
	조	록	싸	리	+
	줄		딸	기	+
H	억			새	1.1
			새		+
	새	우	난	초	2.2
	산		박	하	+
	그	늘	사	초	2.2
	꽃	며	느	리	밥
	쌀				풀
				새	+
	마		타	리	+
	애	기	나	리	1.1
	큰	기	름	새	+
	고		사	리	+

등	골	나	물	+
선	밀	나	물	+
산	박		하	+
참			취	+
댕	댕	이	덩	+
	취			+
뜯			갈	+
땅	비	싸	리	+
소	리	쟁	이	+
개	망		초	+
단	풍		마	+
까	치		발	+

표 7. 서산·태안지역의 식물목록

Equisetaceae	속새과
<i>Equisetum arvens</i>	쇠뜨기
<i>E. pratens</i>	물쇠뜨기
Osmundaceae	고비과
<i>Osmunda japonica</i>	고비
Pteridaceae	고사리과
<i>Dennstaedtia hirsuta</i>	잔고사리
Aspidiaceae	변마과
<i>Athyrium nipponicum</i>	개고사리
<i>Dryopteris uniformis</i>	곰비늘고사리
<i>D. uniformis</i> for. <i>coreana</i>	참곰비늘고사리
<i>Lastrea japonica</i>	지네고사리
<i>Onoclea sensibilis</i> var. <i>interrupta</i>	야산고비
<i>Woodsia polystichoides</i>	우드풀
Salviniaceae	생이가래과
<i>Salvinia natans</i>	생이가래
Ginkgoaceae	은행나무과
<i>Ginkgo biloba</i>	은행나무
Pinaceae	소나무과
<i>Pinus densiflora</i>	소나무
<i>P. thunbergii</i>	곰솔
<i>Larix gmelini</i> var. <i>principisruprechtii</i>	일본잎갈나무
Juglanceae	호도과
<i>Platycarya strobilacea</i>	굴피나무
Cupressaceae	측백나무과

- Juniperus rigida* 노간주나무
- Potamogetonaceae 가래과
- Potamogeton crispus* 말즘
- P. distinctus* 가래
- Najadaceae 나자스말과
- Najas graminea* 나자스말
- Zosteraceae 거머리말과
- Zostera nana* 애기거머리말
- Z. marina* 거머리말
- Scheuchzeriaceae 지채과
- Triglochin maritimum* 지채
- Alismataceae 택사과
- Alisma canaliculatum* 택사
- A. plantago-aquatica* var. *orientale* 절경이택사
- Hydrocharitaceae 자라풀과
- Hydrilla verticillata* 검정말
- H. dubia* 자리풀
- Gramineae 벼과
- Phyllostachys bambusoides* 왕대
- Pseudosasa japonica* 이대
- Agropyron tsukushiense* var. *transiens* 개밀
- A. yesoense* 자주개밀
- Agrostis clavata* var. *nukabo* 겨이삭
- A. palustris* 흰겨이삭
- Alopecurus aequalis* var. *amurensis* 독새풀
- Arthraxon hispidus* 조개풀
- Arundinella hirta* 새

Beckmania syzigachne 개피
Briza minor 방울새풀
Calamagrostis arundinacea 실새풀
Coix lachryma-jobi 염주
Dactylis glomerata 오리새
Digitaria sanguinalis 바랭이
Echinochloa crusgalli 돌피
E. crusgalli var. *frumentacea* 피
Elymus dahuricus 갯보리
Eragrostis pilosa 큰비노리
E. pilosa var. *multicaulia* 비노리
Festuca ovina 김의털
Ischaemum antheplhoroides 갯쇠보리
I. crassipes 쇠보리
Melica onoei 쌀새
Miscanthus sacchariflorus 물억새
M. sinensis var. *purpurascens* 억새
Oplismenus undulatifolius 주름조개풀
O. undulatifolius var. *japonicus*... 민주름조개풀
Pennisetum alopecuroides 수크령
Phragmites communis 갈대
Poa acroleuca 실폐아풀
P. annua 새포아풀
P. hisauchii 구내풀
P. nemoralis 실폐아풀
P. sphondylodes 포아풀
Setaria viridis 강아지풀

Spodiopogon cotulifer 기름새

S. sibiricus 큰기름새

Themada triandra var. *japonica* 솔새

Zoysia japonica 잔디

Z. sinica 갯잔디

Cyperaceae 사초과

Carex aphanolepis 골사초

C. bostrychostigma 길뚝사초

C. humilis 산거울

C. leiorhyncha 산팽이사초

C. lithophila 바위사초

C. neurocarpa 팽이사초

C. okamotoi 지이대사초

C. pumila 쯤보리사초

C. siderosticta 대사초

C. tegulata 구슬사초

C. tristachya 반들사초

Cyperus amuricus 방동사니

C. flaccidus 병아리방동사니

C. microiria 금방동사니

Fimbristylis dichotoma 하늘지기

Kyllingia microcephala 파대가리

Scirpus fluvatilil 매자기

Araceae 천남성과

Pinellia ternata 반하

Lemnaceae 개구리밥과

Lemna paucicostata 쯤개구리밥

Spirodela polyrhiza 개구리밥

Eriocaulaceae 곡정초과

Eriocaulon miquelianum 개수염

E. siboldianum 곡정초

Commelinaceae 닭의장풀과

Ancienma keisak 사마귀풀

Commelina communis 닭의장풀

Juncaceae 골풀과

Juncus effusus var. *decipiens* 골풀

J. leschenaultii 참비녀골풀

Luzula capitata 꿩이밥

L. multiflora 산꿩이밥

Liliaceae 백합과

Allium grayi 산달래

A. monatum 달래

A. thunbergii 산부추

Asparagus schoberiodes 비짜루

Disporum smilacinum 애기나리

Hemerocallis fulva 원추리

H. lilioasphodelus 골잎원추리

Hosta longipes 비비추

Lilium tigrinum 참나리

Lilium platyphylla 맥문동

L. spicata 개맥문동

Polygonatum humile 각시동굴래

P. odoratum var. *pluriflorum* 둥굴래

Scilla sinensis 무릇

Smilax nipponica 선밀나물

S. china 청미래덩굴

S. riparia var. *ussuriensis* 밀나물

S. sieboldii 청가시덩굴

Veratum maackii var. *japonicum* 여로

V. patulum 박새

Dioscoreaceae 마과

Dioscorea batatas 마

D. nipponica 부채마

D. tokoro 도꼬로마

Iridaceae 붓꽃과

Belamcanda chinensis 범부채

Iris rossii 각시붓꽃

Orchidaceae 난초과

Calanthe discolor 새우난초

Cephalanthera longibracteata 은대난초

Cymbidium virescens 보춘화

Pogonia minor 방울새난

Spiranthes sinensis 타래난초

Salicaceae 버드나무과

Populus deltoides 미류나무

P. euramericana 이태리포플러

P. tomentiglandulosa 은수원사시나무

Salix koreensis 버드나무

S. matsudana for. *tortuosa* 용버들

Betulaceae 자작나무과

Alnus hirsuta 물오리나무

A. japonica 오리나무

Carpinus coreana 소사나무

C. laxiflora 서어나무

Corylus heterophylla 난틱잎개암나무

C. heterophylla var. *thunbergii* 개암나무

Fagaceae 참나무과

Castanea crenata 밤나무

Quercus acutissima 상수리나무

Q. aliena 갈참나무

Q. dentata 떡갈나무

Q. grosserrata 물참나무

Q. mongolica 신갈나무

Q. serrata 졸참나무

Q. variabilis 굴참나무

Ulmaceae 느릅나무과

Celtis sinensis 팽나무

Ulmus parvifolia var. *coreana* 참느릅나무

Zelkova serrata 느티나무

Moraceae 뽕나무과

Broussonetia kazinoki 닥나무

Cudrania tricuspidata 구지뽕나무

Morus alba 뽕나무

M. bombycis 산뽕나무

Cannabaceae 삼과

Cannabis sativ 삼

Humulus japonicus 환삼덩굴

Urticaceae 켄기풀과

- Achudemia japonica* 산물통이
- Boehmeria nivea* 모시풀
- B. spicata* 좁개잎나무
- B. tricuspis* 거북꼬리
- Aristolochiaceae 쥐방울덩굴과
- Asarum sieboldii* 족도리
- Polygonaceae 마디풀과
- Aconogonum divaricatum* 상아
- Fagopyrum esculentum* 메밀
- Persicaria conspicua* 꽃여뀌
- P. nepalensis* 산여뀌
- P. longisetum* 개여뀌
- P. nodosa* 큰개여뀌
- P. perfoliata* 머느리배꼽
- P. senticosa* 머느리밀싹개
- P. thunbergii* 고마리
- P. tinctoria* 쪽
- Polygonum aviculare* 마디풀
- Rumex acetosa* 수영
- R. crispus* 소리쟁이
- Chenopodiaceae 명아주과
- Atriplex gmelini* 가는갯는쟁이
- A. subcordata* 갯는쟁이
- Chenopodium album* var. *centrorubrum* 명아주
- C. glaucum* 취명아주
- Kochia scoparia* 땀싸리
- Salicornia herbacea* 통통마디

- Salsola komarovi* 수송나물
Suaeda asparagoides 나문재
S. maritima 해홍나물
- Amaranthaceae 비름과
Achyranthes japonica 쇠무릅
Amaranthus lividus 개비름
- Portulacaceae 쇠비름과
Portulaca oleracea 쇠비름
- Caryophyllaceae 석죽과
Arenaria serpyllifolia 벼룩이자리
Cerastium holosteoides var. *hallaisanense* 점나도나물
Dianthus sinensis 패랭이꽃
Gypsophila oldhamiana 대나물
Sagina japonica 개미자리
Spergula arvensis 들개미자리
Stellaria aquatica 쇠별꽃
S. media 별꽃
- Nymphaeaceae 수련과
Nymphaea tetragona var. *angusta* 수련
- Ranunculaceae 미나리아제비과
Aconitum jaluense 투구꽃
A. pseudolaevae var. *erectum* 진범
Actaea asiatica 노루삼
Clematis apiifolia 사위질방
C. heracleifolia var. *daurica* 자주조희풀
C. mandschurica 으아리
Hepatica asiatica 노루귀

- Pulsatilla koreana* 할미꽃
- Ranunculus chinensis* 젓가락나물
- R. tachiroei* 개구리미나리
- R. japonicus* 미나리아제비
- Thalictrum aquilegifolium* 평의다리
- Lardizabalaceae 으름덩굴과
- Akebia quinata* 으름
- Berberidaceae 매자나무과
- Epimedium koreanum* 삼지구엽초
- Menispermaceae 방기과
- Cocculus trilobus* 땡땡이덩굴
- Magnoliaceae 목련과
- Magnolia liliflora* 자목련
- Lauraceae 녹나무과
- Lindera obtusiloba* 생강나무
- Papaveraceae 양귀비과
- Chelidonium majus* var. *asiaticum* 애기똥풀
- Fumariaceae 현호색과
- Corydalis maximowiczii* 산괴불주머니
- Cruciferae 십자화과
- Arabis glabra* 장대나물
- Capsella bursa-pastoris* 냉이
- Draba nemorosa* var. *hebecarpa* 꽃다지
- Erysium aurantiacum* 부지깽이나물
- Lepidium apetalum* 다닥냉이
- Rorippa islandica* 속속이풀
- Thlaspi arvense* 말냉이

Crassulaceae 돌나물과

Orostachys japonicus 바위솔

Sedum kamtschaticum 기린초

S. sarmentosum 돌나물

Saxifragaceae 범의귀과

Astilbe chinensis var. *dauidii* 노루오줌

Saxifraga fortunei var. *incislobata* 바위떡풀

Rosaceae 장미과

Spiraea prunifolia var. *simpliciflora* 조팝나무

S. salicifolia var. *lanceolata* 꼬리조팝나무

Stephanandra incisa 국수나무

Pyrus pyrifolia 돌배나무

Sorbus alnifolia 팔배나무

Agrimonia pilosa var. *japonica* 쑥신나물

Duchesnea chrysantha 뱀딸기

Potentilla chinensis 딱지꽃

P. egeii var. *groenlandica* 눈양지꽃

P. fragarioides var. *major* 양지꽃

P. freyniana 세잎양지꽃

Rosa multiflora 찔레꽃

R. rugosa 해당화

Rubus coreanus 복분자딸기

R. crataegifolius 산딸기

R. oldhamii 줄딸기

R. parvifolius 명석딸기

Sanguisorba officinalis var. *carnea* 오이풀

Prunus davidiana 산복사

P. japonica var. *nakaii* 이스라지

P. serrulata var. *spontanea* 뱀나무

Leguminosae 콩과

Albizia fulibrissin 자귀나무

Amorpha fruticosa 족제비싸리

Amphicarpaea edgeworthii var. *trisperma* 새콩

Cassia mimodoides var. *nomame* 차풀

Cercis chinensis 박태기나무

Desmodium oxyphyllum 도둑놈의갈고리

Dunbaria villosa 여우팔

Indigofera kirilowii 땅비싸리

Kummerowia stipulacea 둥근매듭풀

K. striata 매듭풀

Lathyrus japonica 갯완두

Lespedeza bicolor 싸리

L. cuneata 비수리

L. cyrtobotrya 참싸리

L. maritima 해변싸리

L. maximowiczii 조록싸리

L. thunbergii var. *intermedia* 풀싸리

L. tomentosa 개싸리

Lotus corniculata var. *japonica* 벌노랑이

Melilotus suaveolens 전동싸리

Pueraria thunbergiana 칩

Rhynchosia volubilis 여우콩

Robinia pseudo-acacia 아까시나무

Trifolium repens 토끼풀

- Geraniaceae 쥐손이풀과
- Geranium nepalense* var. *thunbergii* 이질풀
- G. sibiricum* 쥐손이풀
- Oxalidaceae 팽이밥과
- Oxalis corniculata* 팽이밥
- Rutaceae 운향과
- Dictamnus dasycarpus* 백선
- Poncirus trifoliata* 탕자나무
- Zanthoxylum piperitum* 초피나무
- Z. schinifolium* 산초나무
- Meliaceae 멸구슬나무과
- Cedrela sinensis* 참죽나무
- Polygalaceae 원지과
- Polygala japonica* 애기풀
- Daphniphyllaceae 굴거리나무과
- Daphniphyllum macropodum* 굴거리나무
- Euphorbiaceae 대극과
- Acalypha australis* 깨풀
- Euphorbia humifusa* 땅빈데
- E. pekinensis* 대극
- E. sieboldiana* 개감수
- Securinega suffruticosa* 광대싸리
- Anacardiaceae 옷나무과
- Rhus chinensis* 붉나무
- R. trichocarpa* 개옷나무
- Celastraceae 노박덩굴과
- Celastrus flagellaris* 뽕지나무

- Euonymus alatus* 화살나무
E. oxyphyllus 참회나무
Masakia japonica 사철나무
- Aceraceae 단풍나무과
Acer mono 고로쇠나무
A. pseudo-sieboldianum var. *koreanum* 당단풍
- Sapindaceae 무환자나무과
Koelreuteria paniculata 모감주나무
- Vitaceae 포도과
Parthenocissus tricuspidata 담쟁이덩굴
Vitis coignetiae 머루
V. flexuosa 새머루
- Malvaceae 아욱과
Althaea rosea 접시꽃
- Sterculiaceae 벽오동과
Firmiana simplex 벽오동
- Actinidiaceae 다래나무과
Actinidia arguta 다래
- Hypericaceae 물레나물과
Hypericum asyron 물레나물
H. japonicum 애기고추나물
Triadenum japonicum 물고추나물
- Violaceae 제비꽃과
Viola acuminata 줄방제비꽃
V. collina 둥근털제비꽃
V. ishidozana 이시도야제비꽃
V. japonica 왜제비꽃

- V. mandschurica* var. *ciliata* 제비꽃
V. raddeana 선제비꽃
V. seoulensis 서울제비꽃
V. yedoensis 호제비꽃
 Elaeagnaceae 보리수나무과
Elaeagnus umbellata 보리수나무
E. glabra var. *euglabra* 보리밥나무
 Onagraceae 바늘꽃과
Circaea cordata 쇠털이슬
Oenothera odorata 달맞이꽃
 Hydrocaryaceae 마름과
Trapa japonica 마름
 Halorrhagaceae 개미탐과
Myriophyllum verticillatum 물수세미
 Araliaceae 두릅나무과
Kalapanax pictum var. *typicum* 음나무
Aralia elata 드릅나무
 Umbelliferae 산형과
Angelica anomala 개구릿대
A. decursiva for. *albiflora* 바디나물
Cnidium japonicum 갯사상자
Glehnia littoralis 갯방풍
Hydrocotyle ramiflora 큰피막이
Oenanthe javanica 미나리
Pimpinella brachycarpa 참나물
Pseudodanum terbinthaceum 기름나물
Torilis japonica 사상자

Ericaceae 진달래과

Rhododendron mucronulatum 진달래

Pyrolaceae 노루발과

Chimaphila japonica 매화노루발

Pyrola japonica 노루발

Primulaceae 앵초과

Lysimachia barystachys 까치수영

L. clethricides 큰까치수영

Plumbaginaceae 갯질경이과

Limonium tetragonum 갯질경

Ebenaceae 감나무과

Diospyros kaki var. *domestica* 감나무

Symplocaceae 노린재나무과

Symplocos chinensis var. *pilosa* 노린재나무

Styraceae 매죽나무과

Stylax japonica 매죽나무

Oleaceae 물푸레나무과

Fraxinus rhynchophyllus 물푸레나무

Gentianaceae 용담과

Gentiana scabra var. *buergeri* 용담

G. squarrosa 구슬봉이

Apocynaceae 협죽도과

Trachelosperum asiaticum var. *intermedium* 마삭줄

Asclepiaceae 박주가리과

Metaplexis japonica 박주가리

Convolvulaceae 메꽃과

Calystegia hederacea 애기메꽃

C. japonica 메꽃

C. soldanella 갯메꽃

Cuscuta australis 실새삼

Borraginaceae 지치과

Lithospermum arvense 개지치

Verbenaceae 마편초과

Callicarpa japonica 작살나무

Clerodendron trichotomum 누리장나무

Vitex rotundifolia 순비기나무

Labiatae 꿀풀과

Clinopodium gracile var. *multicaule* 탐꽃

Isodon inflexus 산박하

Lamium amplexicaule 광대나물

Leonurus sibiricus 익모초

Lycopus ramosissimus 썩싸리

Mosla japonica 산들깨

M. japonica var. *thymolifera* 섬쥐깨풀

M. punctulata 들깨풀

Prunella vulgaris var. *lilacina* 꿀풀

Scutellaria dependens 애기골무꽃

S. indica 골무꽃

S. pekinensis var. *transitra* 산골무꽃

Teucrium japonicum 개곽향

Solanaceae 가지과

Datura stramonium 독말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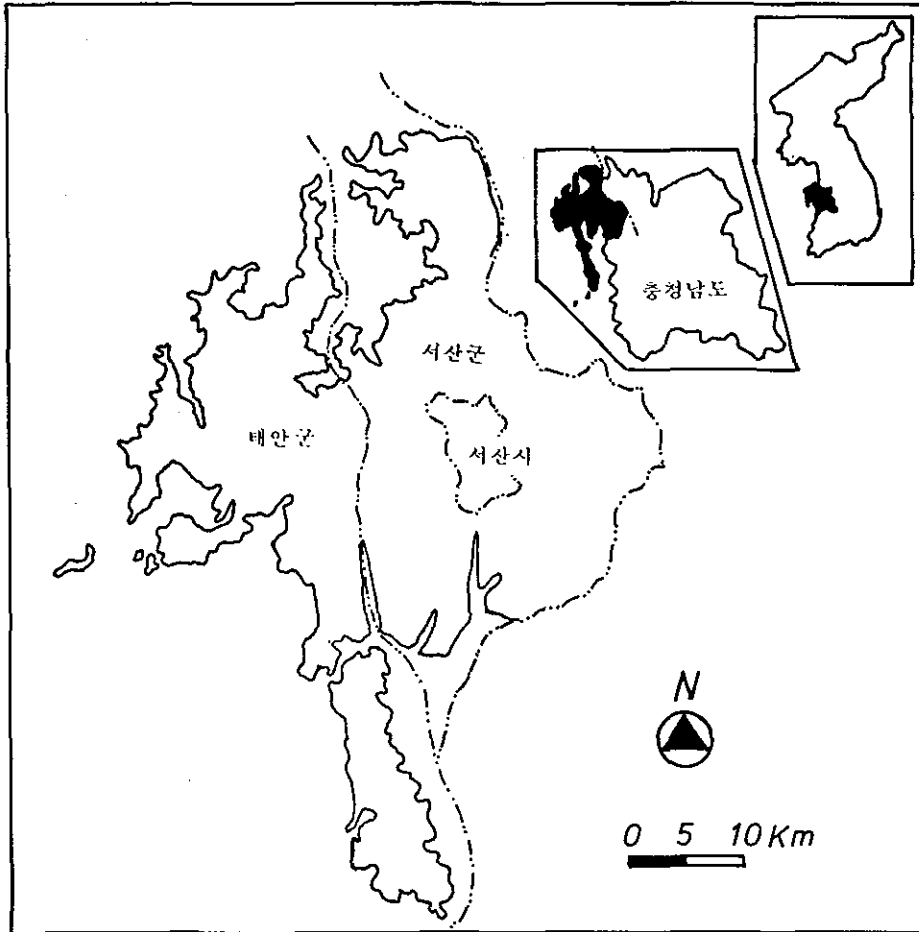
Solanum nigrum 까마중

Scrophulariaceae 현삼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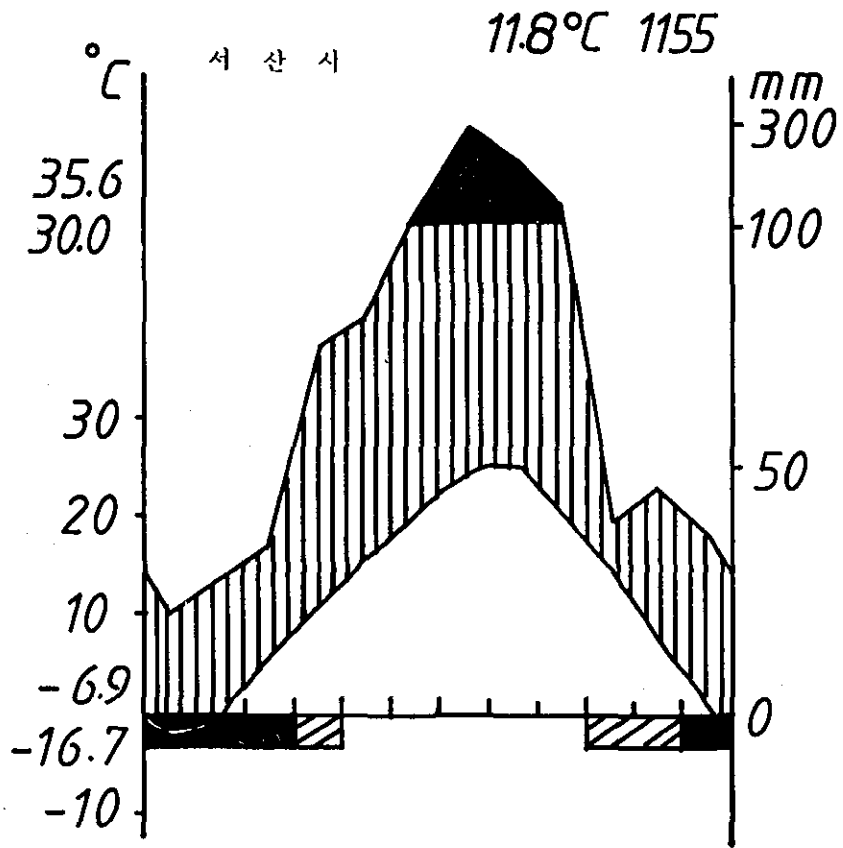
- Dopatrium junceum* 등예풀
Lindernia procumbens 발뚝의풀
Melampyrum roseum 꽃머느리밥풀
Paulownia tomentosa 참오동
Vandeuca crustacea 외풀
Veronica didyma var. *lilacina* 개불알풀
V. rotunda var. *subintegra* 산꼬리풀
 Lentibulariaceae 통발과
 Utricularia intermedia 개통발
 U. japonica 통발
 Plantaginaceae 질경이과
 Plantago asiatica 질경이
 P. lanceolata 창질경이
 Rubiaceae 꼭두서니과
 Galium spurium 갈퀴덩굴
 G. trifidum 가는네잎갈퀴
 G. verum var. *asiaticum* 솔나물
 Paederia scandens 계요동
 Rubia akane 꼭두서니
 R. cordifolia var. *pratensis* 갈퀴꼭두서니
 Caprifoliaceae 인동과
 Lonicera japonica 인동덩굴
 Sambucus williamsii var. *coreana* 딱총나무
 Viburnum erosum 털썩나무
 V. sargentii 백당나무
 Weigela florida 병꽃나무
 Valerianaceae 마타리과

- Patrinia scabiosaefolia* 마타리
- P. villosa* 뚝갈
- Valeriana fauriei* 쥐오줌풀
- Cucurbitaceae 박과
- Trichosanthes kirilowii* 하늘타리
- Campanulaceae 초롱꽃과
- Adenophora triphylla* 잔대
- A. triphylla* var. *hitsuta* 털잔대
- A. remotiflora* 모시대
- Platycodon grandiflorum* 도라지
- Compositae 국화과
- Achillea sibirica* 톱풀
- Ambrosia artemisifolia* var. *elatior* 돼지풀
- Artemisia capillaris* 사철쭉
- A. japonica* 제비쭉
- A. keiskeana* 맑은대쭉
- A. montana* 산쭉
- A. princeps* var. *orientalis* 쭉
- A. scoparia* 비쭉
- A. sylvatica* 그늘쭉
- Aster fastigiatus* 웅긋나물
- A. hispidus* 갯쭉부쟁이
- A. scaber* 참취
- A. tataricus* 개미취
- A. yomena* 쭉부쟁이
- Atractylodes japonica* 삼주
- Carpesium abrotanoides* 담배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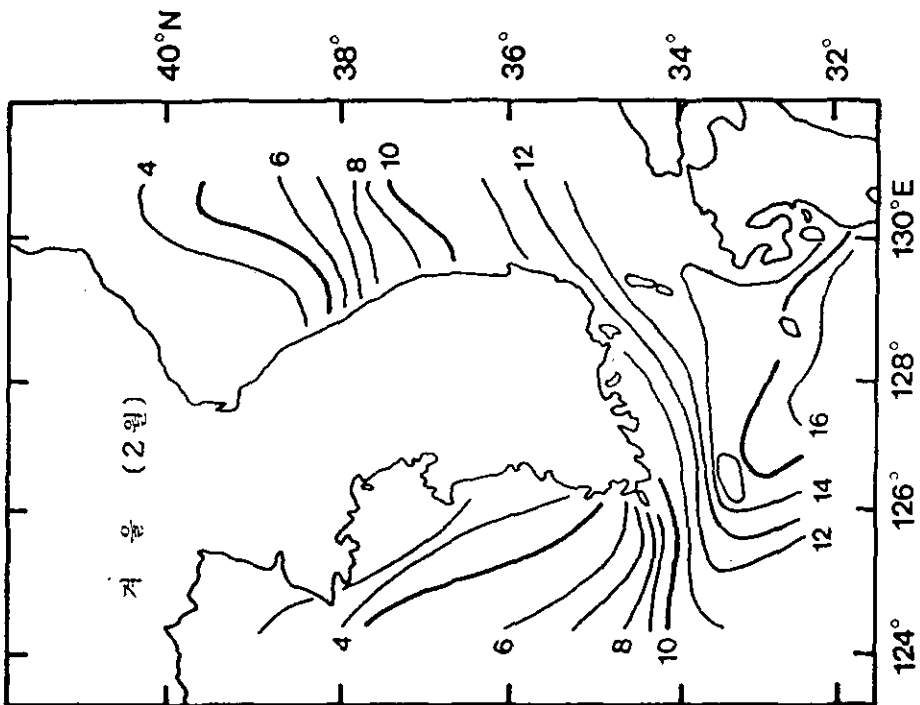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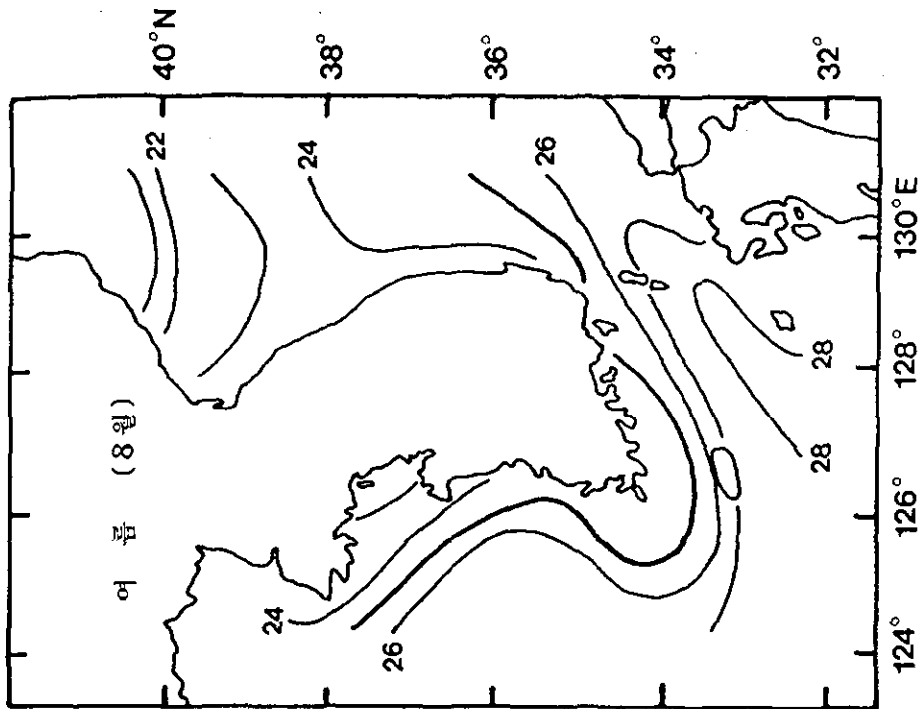
Cephalonoplos segetum 조뱅이
Chrysanthemum zawadskii 산구절초
C. zawaskii var. *latilobum* 구절초
Cirsium japonicum var. *ussuriense* 엉겅퀴
Erigeron annuus 개망초
E. canadensis 망초
Eupatorium chinense var. *simplicifolium* 등골나물
Helianthus tuberosus 돼지감자
Hemistepta lyrata 자청개
Leibnitzia anandria 숨나물
Ligularia fischeri 곰취
Petasites japonicus 머위
Saussurea gracilis 은분취
Senecio integrifolius var. *spathulatus* 숨방망이
Solidago virgaurea var. *asiatica* 미역취
Syneilesis palmata 우산나물
Ixeris chinensis var. *strigosa* 선씀바귀
I. dentata 썸바귀
I. japonica 범은씀바귀
Taraxacum platycarpum 민들레
Youngia denticulata 이고들빼기
Y. japonica 뿌리뱅이
Y. sonchifolia 고들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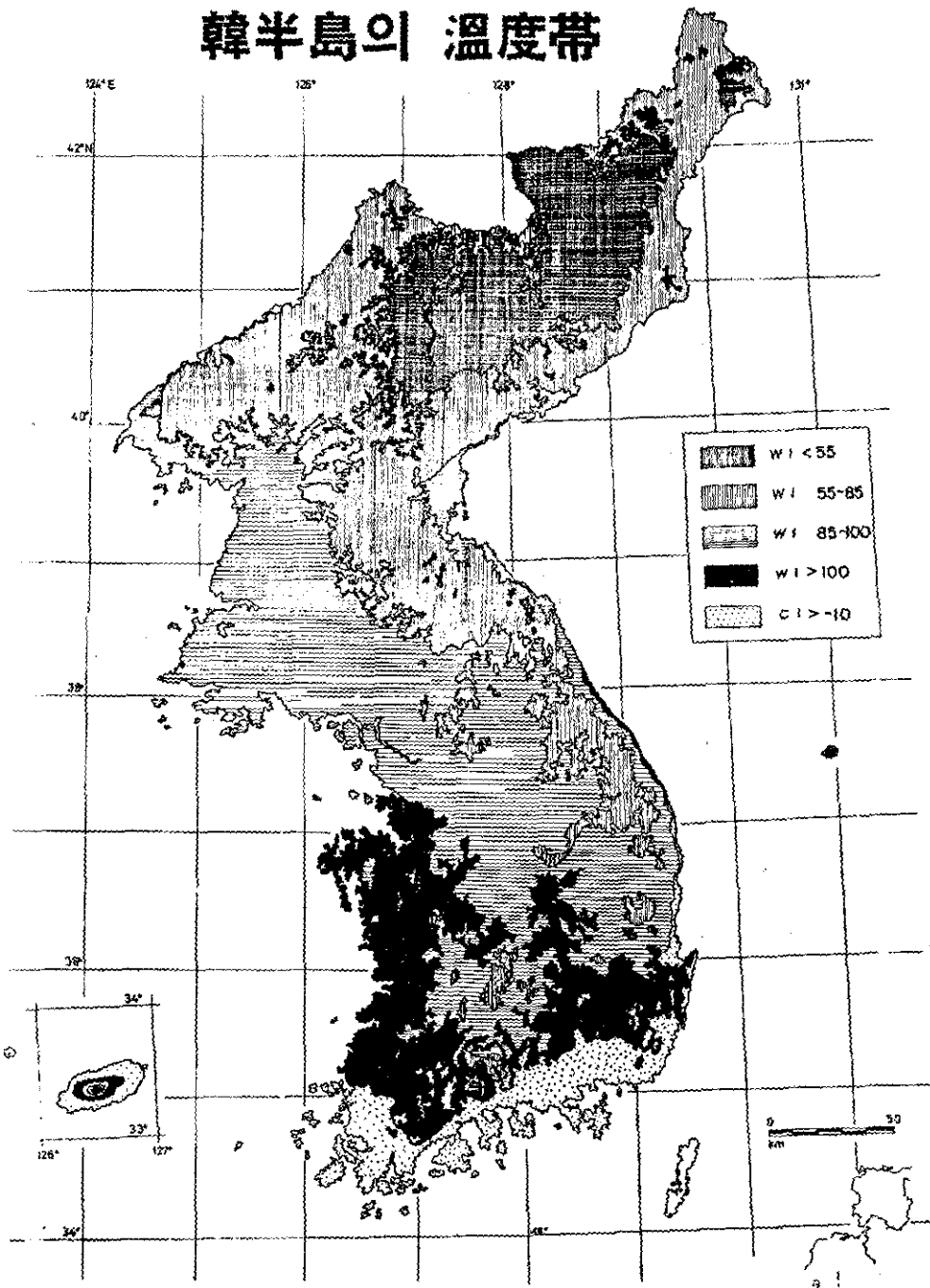
[그림 1] 서산·태안지역의 위치



[그림 2] 서산·태안지역의 기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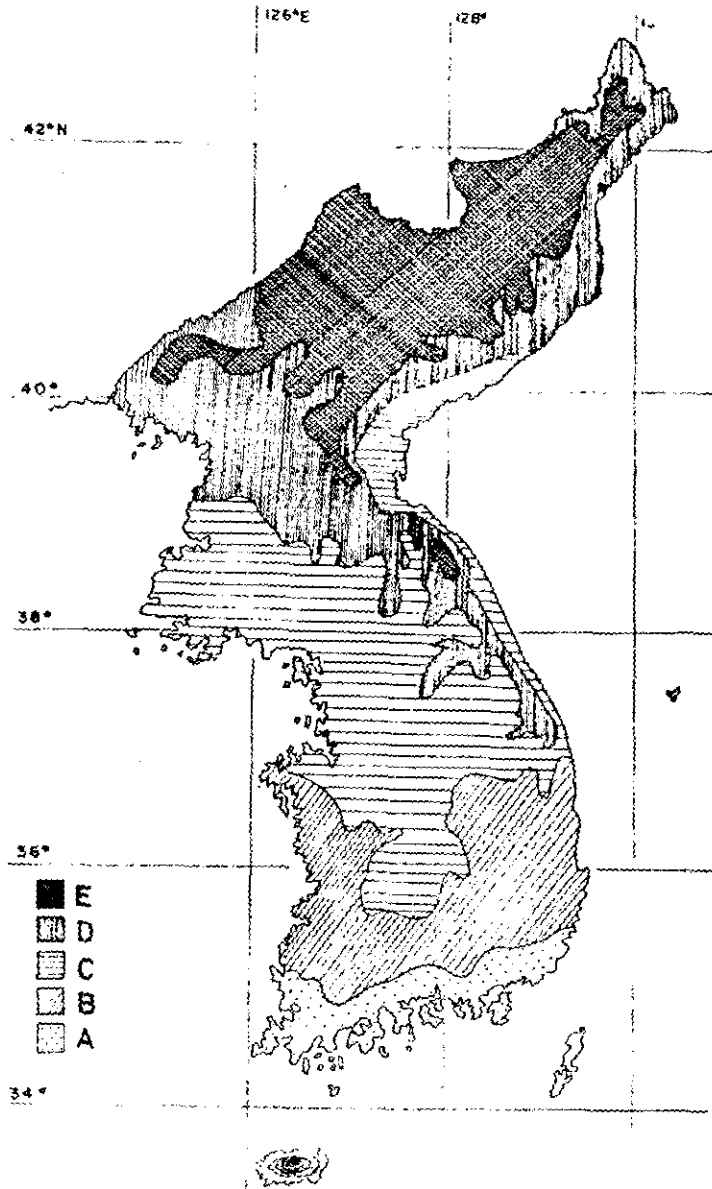


韓半島의 溫度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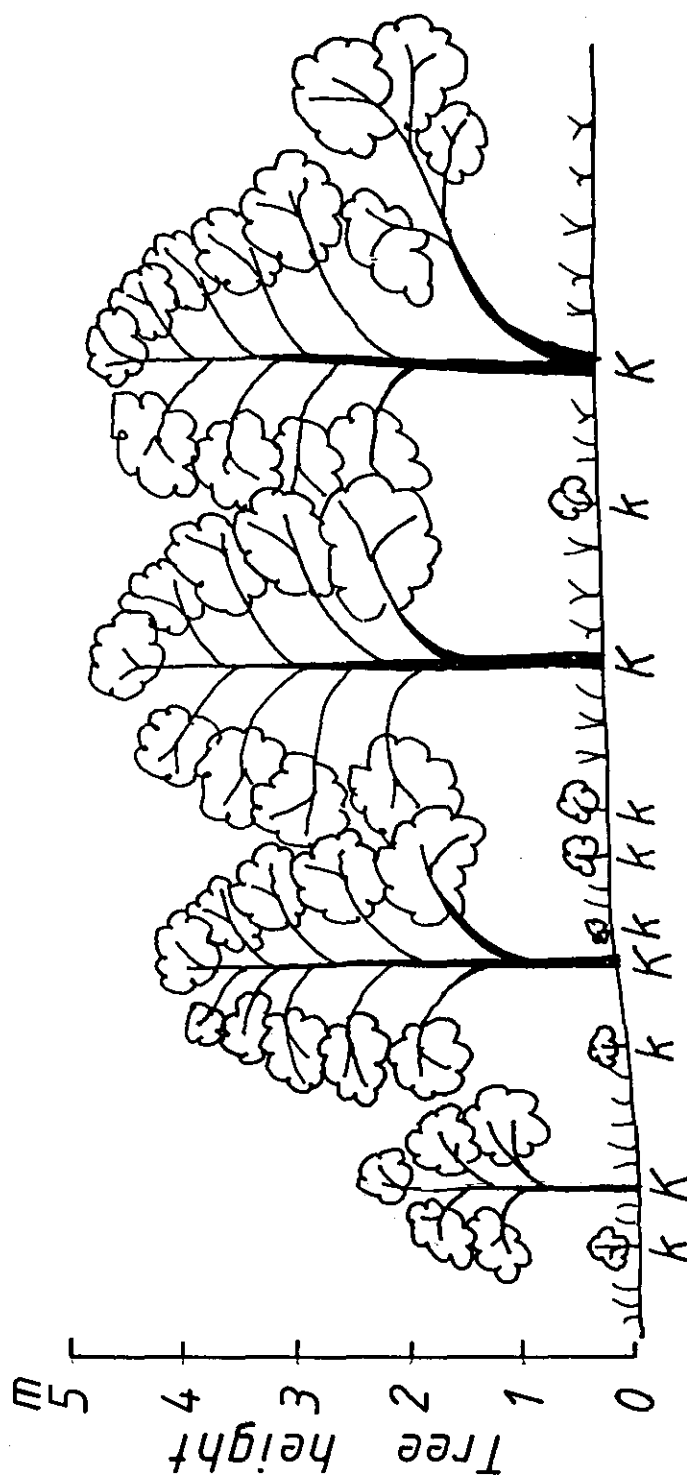
(그림 4) 한반도의 온도대

(그림 3) 황해의 수온분포



A:난온대 식생대 B:냉온대 식생대 (남부)
 C:냉온대 식생대 (중부) D:냉온대 식생대 (북부)
 E:아한대 식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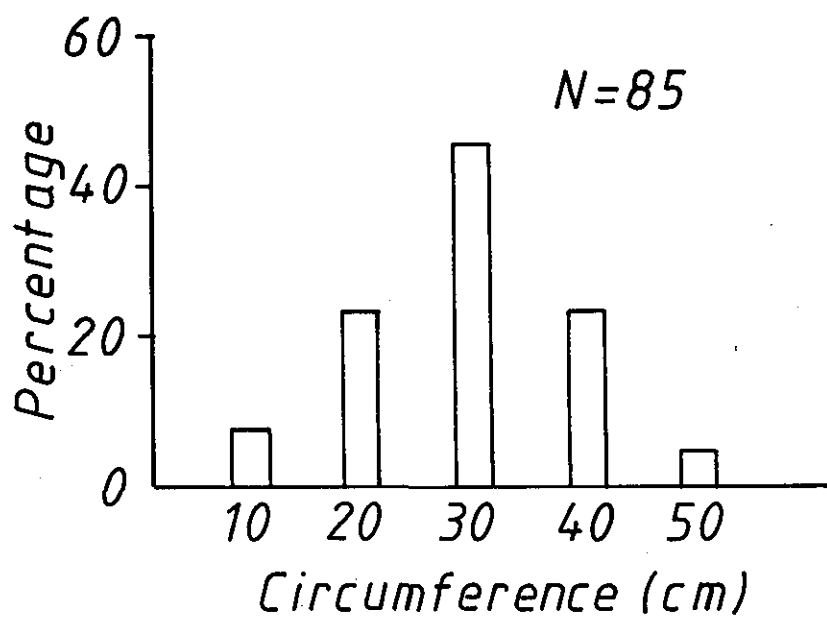
(그림 5) 한반도의 식생도



[그림 6] 모감주나무 군락의 식생단면도



(그림 7) 모감주나무 군락의 수고빈도



[그림 8] 모감주나무 군락의 흉고직경(원둘레)빈도



[사진 1] 거아도 해변의 골잎원추리 군락



[사진 2] 거아도 해변의 보리밥나무 군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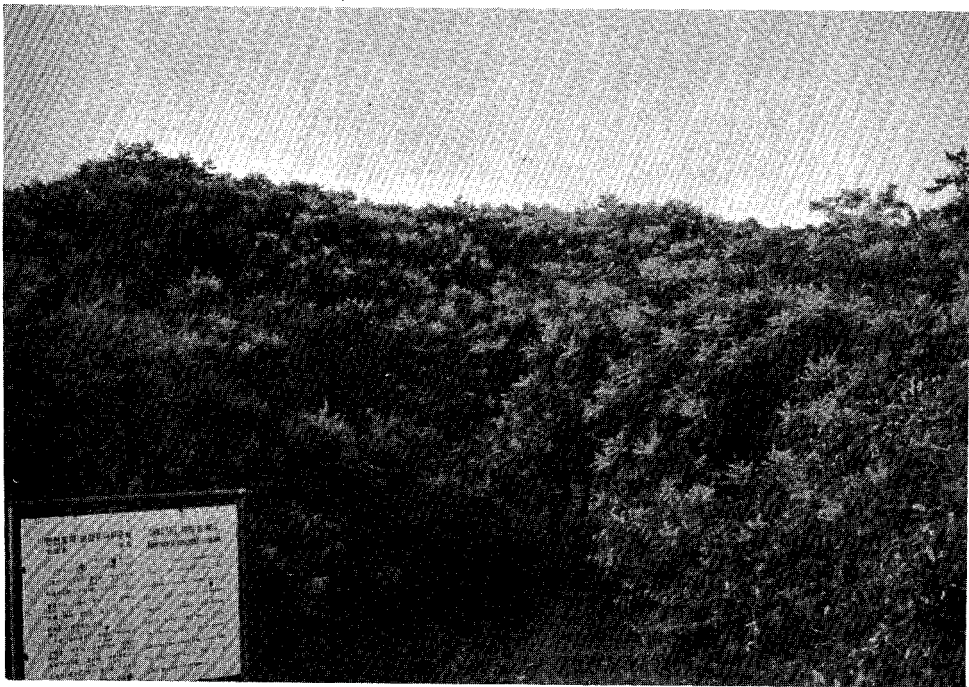
[사진 3] 거아도 해변의 곰솔군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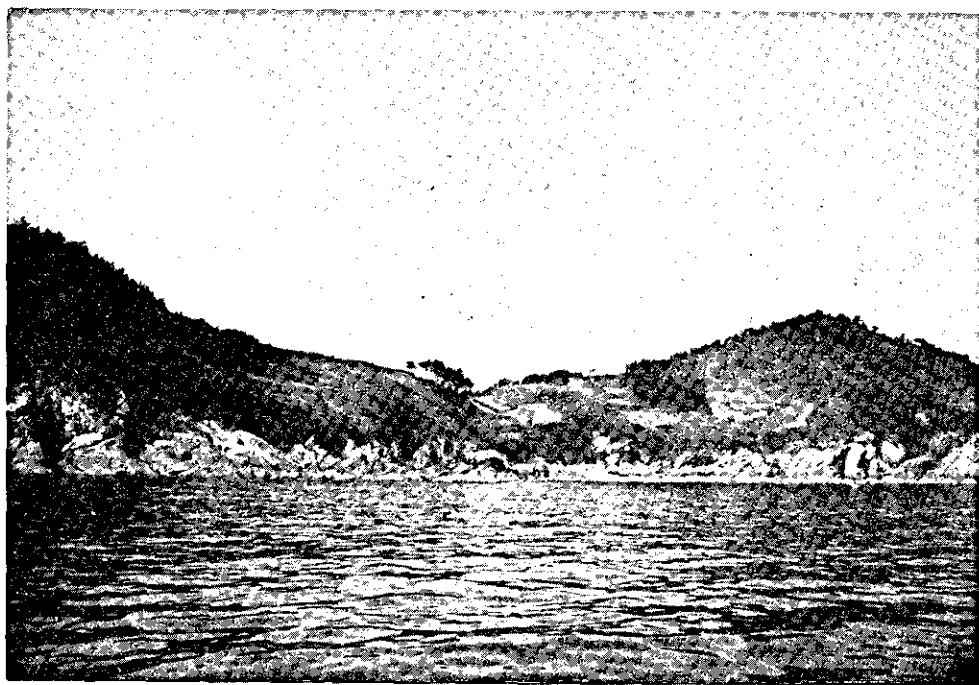
[사진 4] 거아도 해변의 갯방풍 군락



[사진 5] 서산군 운산면 소나무 유명림 군락



[사진 6] 천연기념물인 모감주나무 군락



[사진 7] 가의도의 해변 곶술군락



[사진 8] 천연기념물인 모감주나무 군락



[사진 9] 거아도 해변의 해당화 군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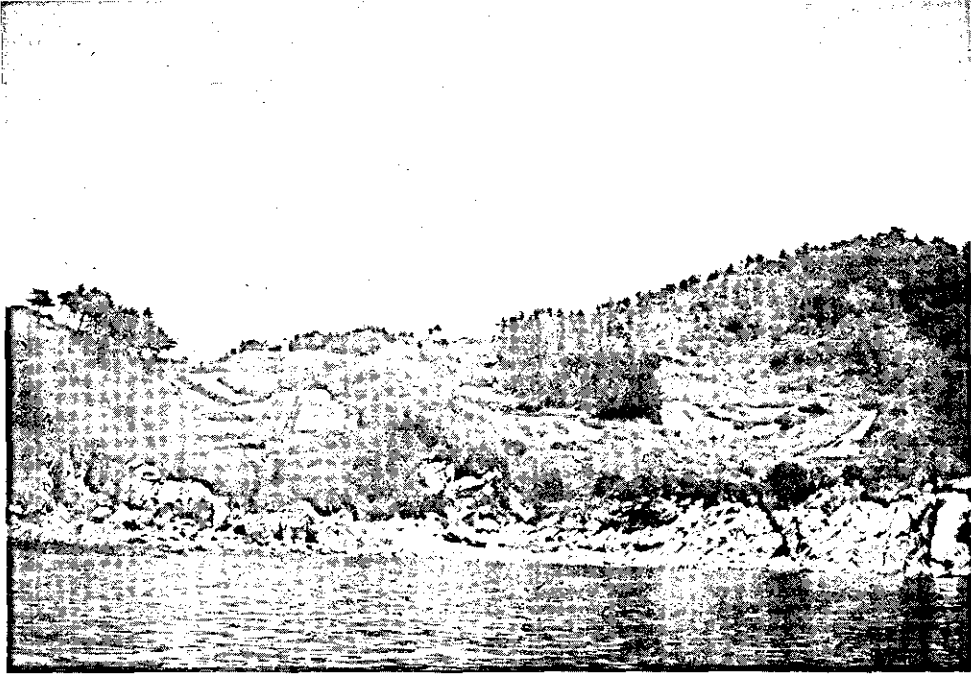
[사진 10] 안면읍 팔학동의 굴거리나무(천연기념물 제137호의 후속수)



[사진 11] 안면도 방포부근의 새우난초 군락



[사진 12] 안면도 방포부근의 새우난초 군락



[사진 13] 가의도의 원경



[사진 14] 천연기념물인 모감주나무 군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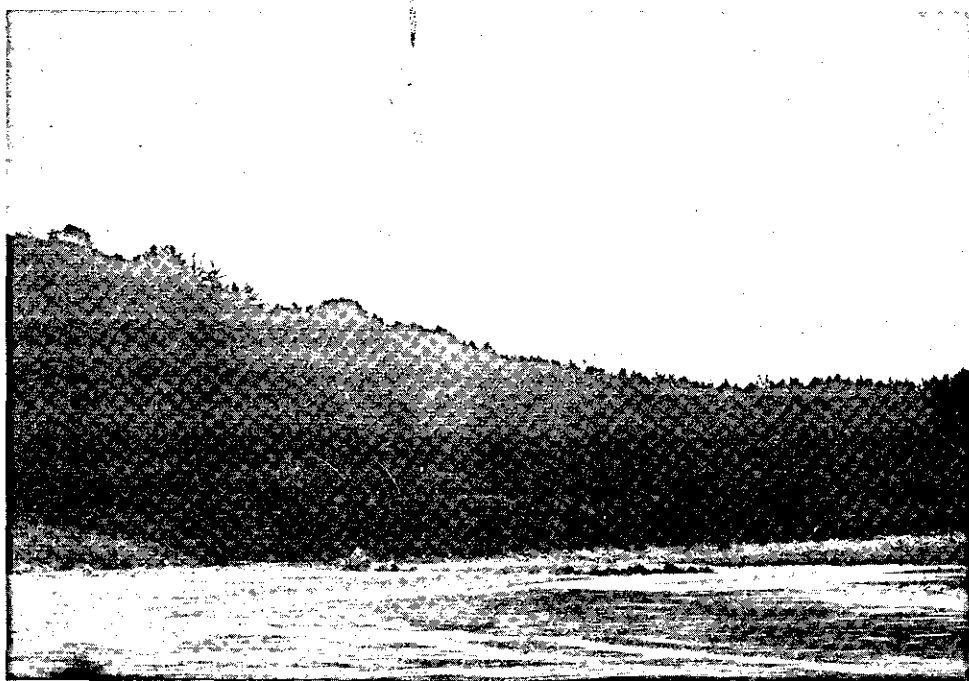
[사진 15] 거아도 해변의 갯방풀 군락



[사진 16] 거아도 해변의 보리밥나무 군락



[사진 17] 거아도 해변의 골잎원추리 군락



[사진 18] 거아도의 전경

魚 類 分 野

崔 信 錫
(忠南大學校)

I. 담 수 어

서산·태안지역은 한국의 중부 서해안 지역에 위치하며 행정구역상 충청남도에 속하고 위도상으로 동경 126-127도, 북위 36-37도 사이에 자리잡고 있다. 서산·태안지역의 면적은 981.67km²이고, 1市 2郡 16面の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산군의 지형은 해안선 굴곡이 심한 리아스식 해안으로, 연안에 유인도 25개를 포함해 163개의 섬들이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형의 본 군은 20km 이상되는 큰 하천이 없다. 가장 긴 대교천은 서산군 음암면 도당리에서 발원하여, 음암면과 운산면의 경계를 남하, 해미면으로 흘러가서 웅소성리, 귀밀리, 역대리까지 남하한 후 서해로 유입된다.

그 외 서산군의 고북면, 인지면, 태안군의 태안읍에도 여러 소하천 등이 흐르고 있다.

한편 이 지역내에는 크고 작은 저수지들이 많이 존재하며 현황을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서산, 태안군 저수지 현황

명 칭	소 재 지	구 축 기	면 적(ha)	수 심(m)
양 천 방 죽	고북면	불명	2.0	3
죽 립 지	근흥면	불명	15.0	
비 석 거 리 지	〃	38.7	17.0	
수 통 지	〃	60.12	65.6	
안 흥 지	〃	불명	1.7	0.7
달 산 지	남 면	불명	8.3	
대 산 지	대산면	43.10	32.0	
기 은 지	〃	45.2	6.3	
화 곡 지	〃	41.9	27.0	1.5
불 안 지	〃	불명	4.0	

명 지 지	〃	75.	9.9	7
강 수 지	부석면	57.12	3.6	
마 룡 지	〃	61.7	15.8	
봉 락 지	〃	40.12	3.7	
잠 흥 지	서산읍	58.6	77.0	
모 수 내 각 지	〃	불명	10.0	
중 앙 지	〃	불명	9.9	1.5
은 석 지	〃	불명	4.0	2.5
성 연 지	성연면	65.12	21.4	
법 산 지	소원면	60.5	20.8	
모 항 지	〃	32.9	13.0	
송 현 지	〃	67.10	5.0	
소 근 지	〃	61.9	6.0	
산 지 등 지	〃	72.	6.6	3
소 근 진 지	〃	75.	11.6	2
창 기 지	안면읍	51.12	11.5	
안 면 1 호 지	〃	58.12	21.5	2.5
안 면 2 호 지	〃	59.12	54.5	
안 면 3 호 지	〃	59.12	18.1	
먹 뱅 이 지	〃	불명	4.6	
도 여 지	〃	64.12	6.1	
마 당 터 지	〃	64.12	6.0	
춘 산 골 지	〃	46.9	15.9	
기 루 지 지	〃	불명	5.9	
지 포 지	〃	60.12	20.9	
꺾 골 지	〃	75.	6.0	3
고 풍 지	운산면	72.3	49.6	

용 현 지	〃	78.12	4.0	
신 창 지	〃	78.12	10.6	10
닷 개 지	원북면	52.12	27.6	
섬 벌 지	〃	58.4	14.5	
이 곡 지	〃	58.4	5.3	
신 두 유 지	〃	58.4	7.1	
동 해 유 지	〃	35.12	9.0	
사 동 지	〃	58.4	4.6	1.5-2.0
황 촌 지	〃	58.4	4.0	
음 암 지	음암면	66.12	142.7	
사 창 지	이북면	57.3	17.4	
부 무 골 지	〃	73.	4.0	3
외 포 방 족	〃	73.	2.0	3
풍 전 지	인지면	45.9	60.8	7
상 울 지	〃	50.9	3.3	
대 요 지	지곡면	54.7	25.0	
덕 적 지	〃	불명	5.0	3
인 평 지	태안읍	불명	1 49.3	
덕 송 지	팔봉면	41.2	4.0	
흑 석 지	〃	불명	5.6	
산 수 지	해미면	66.12	47.9	19
가 좌 지	〃	43.7	4.0	

- 1) 양천방족은 양천리에 있는 방족으로 수원이 풍부하지 못하여 가뭄에는 바닥을 드러내며 우세종은 붕어이다.
- 2) 죽림저수지는 정죽2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닥에 수초가 깔려있고 붕어와 잉어가 우세하다.

- 3) 비석저리 저수지는 정죽1리에 위치하며 붕어, 잉어, 가물치, 뱀장어 등이 많이 존재한다.
- 4) 수룡 저수지는 수룡리에 위치하며 붕어, 잉어가 우세하나 그 보다 이식종인 블루길의 더욱 우세하다.
- 5) 안흥 저수지는 죽림저수지와 연결되어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으며 붕어가 우세하다.
- 6) 달산 저수지는 달산리에 위치하며 간월개 마을에서는 간월저수지라고도 부른다. 간석지를 막아서 구축한 저수지로 붕어와 잉어가 우세하다.
- 7) 기은 저수지는 기은리에 위치하며 바닥에는 수초가 깔려있어 붕어와 잉어가 우세하며, 뱀장어도 많이 서식하고 있다.
- 8) 화곡저수지는 화곡리에 있고 바닥에는 수초가 깔려있어 붕어가 우세하며 뱀장어 많이 서식하고 있다.
- 9) 불안 저수지는 원래 염전을 위한 저수지로서 붕어가 우세하다.
- 10) 명지 저수지는 대로리에 있으며 붕어와 잉어가 우세하다.
- 11) 강수저수지는 강수리에 있고 붕어, 뱀장어 등이 서식한다.
- 12) 마룡저수지는 마룡리에 있으며 심포저수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바닥에는 수초가 깔려있고 잉어가 우세하며 뱀장어, 꼬리, 치리 등도 많이 서식하고 있다.
- 13) 봉락 저수지는 봉락리에 있으며 봉청 저수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수초가 자생하고 있으며 붕어와 잉어가 우세하다.
- 14) 잠흥 저수지는 잠흥리에 위치하며 본 군내에서는 두번째로 규모가 큰 저수지이다. 수원이 풍부하며 피라미, 붕어 등이 우세하다.
- 15) 모수 내각지는 서남리에 위치하며 바닥에는 수초가 많고 붕어, 뱀장어 등이 많다.
- 16) 중앙 저수지는 읍내리에 있으며 수질오염은 되어 있으나 붕어 등이 우세하다.
- 17) 온석 저수지는 온석리에 있으며 붕어가 우세하다.
- 18) 성연 저수지는 고남리에 있으며 물이 맑고 깊으며 붕어가 우세하다.
- 19) 법산 저수지는 법산리에 있으며 바닥에는 수초가 깔려있고 붕어, 잉어, 참붕어 등이 우세하다.

- 20) 모항 저수지는 모항리에 있으며 수심은 1-3m, 바닥에는 수초가 깔려 있고 붕어가 우세하며 장어도 많이 있다.
- 21) 송현 저수지는 송현리에 있으며 바닥은 점토로 되어있고 붕어, 잉어가 우세하다.
- 22) 소근 저수지는 소근리에 있으며 바닥에 수초가 깔려있어 붕어, 잉어가 우세하다.
- 23) 산지동 저수지는 송현리에 있고 붕어가 우세하다.
- 24) 소근진 저수지는 소근리에 있고 붕어, 잉어가 우세하다.
- 25) 창기 저수지는 창기리에 있으며, 수면 전체가 수초로 덮혀있다.
- 26) 안면 1호 저수지는 송언1호 저수지라고 부르기도 하며 평균 수심이 2.5m정도이고 수초가 바닥에 깔려있어 붕어가 우세하다.
- 27) 안면 2호 저수지는 송언 2호 저수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안면도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저수지이다. 수초가 수면 전체를 덮고 있으며 붕어, 잉어가 우세하다.
- 28) 안면 3호 저수지는 송언 3호 저수지라고 부르며 전 수면이 수초로 덮혀있고 붕어, 잉어가 우세하지만 가물치, 뱀장어도 많이 있다.
- 29) 먹뱅이 저수지는 송언리에 있으며 붕어가 우세하다.
- 30) 도여 저수지는 송언리에 있으며 붕어가 우세하다.
- 31) 마당터 저수지 역시 송언리에 있으며 간석지를 구축한 저수지이다.
- 32) 춘산골 저수지는 중장 2리에 있고 바닥에는 수초가 깔려있고 붕어가 우세하다.
- 33) 기두 저수지는 중장리에 있으며 붕어가 우세하다.
- 34) 지포 저수지는 안면도 남단에 가까운 장곡리에 있다. 수초가 바닥을 덮고있고 수심이 얕다. 붕어가 우세하고 뱀장어와 가물치도 있다.
- 35) 컷골 저수지는 누동리에 있으며 논을 막아서 구축한 저수지로서 붕어, 잉어가 우세하다.
- 36) 고풍저수지는 고풍리에 있으며 역천의 상류제곡을 막아서 구축한 저수지로서 피라미, 갈겨니, 붕어가 우세하다.
- 37) 용현 저수지는 용현리에 있으며 붕어, 피라미가 우세하다.
- 38) 신창 저수지는 신창리에 있으며 붕어, 피라미가 우세하다.

- 39) 닛개 저수지는 신두리에 있어, 신두1호 저수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수면 전체가 수초로 덮혀 있으며 붕어가 우세하다.
- 40) 섭벌 저수지는 신두리 섭법에 있으며 신두 2호 저수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수면은 수초로 덮혀있고 붕어, 잉어가 우세하다.
- 41) 이곡 저수지는 황촌리에 있으며 신두3호 저수지가 공식 명칭이지만 현지에서는 유골 방죽이라 부르는 사람이 많다. 붕어, 잉어가 우세하다.
- 42) 신두유지는 신두리에 있으며 바다를 막아 구축한 저수지이다. 붕어가 우세하며 뱀장어도 있다.
- 43) 동해유지는 동해리에 있으며 간석지로 구축된 저수지이다. 수초가 깔려있고 붕어가 우세하며, 뱀장어도 많다.
- 44) 사동 저수지는 황촌리에 있으며 수심은 얕고 바닥은 편평하다. 수초가 깔려있고 붕어가 우세하다.
- 45) 황촌 저수지는 간석지로 구축된 저수지로서 붕어가 우세하나 가뭄에는 바닥을 드러낸다.
- 46) 음암 저수지는 본군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저수지로서 붕어, 피라미, 흰줄납줄개 등이 매우 우세하다.
- 47) 사창 저수지는 사창리에 있으며 바닥은 수초가 깔려 붕어가 우세하다.
- 48) 부무골 저수지도 사창리에 있으며 간석지를 구축한 저수지로 붕어가 우세하다.
- 49) 외포방죽은 포지리에 위치하며 붕어가 우세하다.
- 50) 풍전 저수지는 둔당리에 소규모 저수지로서 붕어가 우세하다.
- 51) 대요 저수지는 대요리에 있으며 바닥에는 수초가 있고 붕어가 우세하다.
- 52) 덕적 저수지는 환성리에 있으며 붕어가 우세하다.
- 53) 인평 저수지는 인평리에 있으며 가사 저수지라고 부르며 붕어, 잉어가 우세하다.
- 54) 덕송 저수지는 덕송리에 있으며 간석지에 축조된 저수지로서 붕어, 잉어가 우세하며 뱀장어도 서식하고 있다.
- 55) 흑석 저수지는 흑석지에 있으며 붕어가 우세하다.
- 56) 산수저수지는 산수리에 있으며 해미 저수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다. 수원이

풍부하고 물이 맑으며 깊고, 붕어·피라미가 우세하다.

본 군내에 담수 수계는 운산면에서 발원하여 아산만으로 유입되는 역천, 해미면에서 발원하여 천수만으로 유입되는 해미천, 가야산에서 발원하여 서해로 유입되는 와룡천등과 하천의 지명이 불분명한 소하천 등 약 10여개의 하천들이 존재하며 이들 대부분은 서해로 유입되는 독립하천들로서 담수어의 분포 양상은 종다양도가 낮은 반면 우점도가 높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전 하천을 대상으로 조사된 전체 담수어는 총 17과 43종으로서 우리나라 전체 담수어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역천의 11과 25종으로 가장 다양한 어종의 분포를 보이며 소원천은 3과 3종으로 가장 빈약한 어류상을 보인다. 한국 특산종은 긴몰개, 각시붕어, 얼룩동사리, 참종개, 모래무지, 돌마자, 왜매치 등의 7종이 채집되었다. 각 하천별로 조사된 담수어의 목록은 <표 2>와 같다.

<표 2> 서산, 태안군 담수어류상

종	류	역	해	와	고	염	성	가	소	근	안
뱀장어 (<i>Anguilla japonica</i>)					1						
붕어 (<i>Carassius auratus</i>)		169	31		46	56	216	293	16	20	234
흰줄납줄개 (<i>Rhodeus ocellatus</i>)		124	75		26	3					
달납줄개 (<i>Rhodeus atremius</i>)		29									
각시붕어 (<i>Rhodeus uyekii</i>)		37									
큰납지리 (<i>Acanthorhodeus macropterus</i>)		81	34								
참붕어 (<i>Pseudorasbora parva</i>)		41	72		77	85	2		3	5	142
돌고기 (<i>Puntungia herzi</i>)		2									

가는돌고기 (<i>Pseudopuntungia tenuicorpus</i>)				22					
줄물개 (<i>Gnathopogon strigatus</i>)	3								
긴물개 (<i>Squalidus gracilis majimae</i>)	80								
모래무지 (<i>Pseudogobio esocinus</i>)	8	9	9	4	1				
버들매치 (<i>Abbottina rivularis</i>)		7							
왜매치 (<i>Abbottina springeri</i>)	2	2		16					
돌마자 (<i>Microphysogobio yaluensis</i>)	4								
버들치 (<i>Moroco oxycephalus</i>)	36	77	6		26	33			
피라미 (<i>Zacco platypus</i>)	380	58	153	2	262				
갈겨니 (<i>Zacco temmincki</i>)	36	9				91			
왜물개 (<i>Aphyocypris chinensis</i>)						7			
치리 (<i>Hemiculter eigenmanni</i>)				20	5	1			
미꾸리 (<i>Misgurnus anguillicaudatus</i>)		16				1	1		
미꾸라지 (<i>Misgurnus mizolepis</i>)						170			6
점줄종개 (<i>Cobitis lutheri</i>)	8	6	4		2				
참종개 (<i>Cobitis koreensis koreensis</i>)	13								
쌀미꾸리 (<i>Lufua costata</i>)		30				125	1		3
빙어 (<i>Hypomesus olidus</i>)	27								

동자개 (<i>Pseudobagrus fulvidraco</i>)	1				1						
메기 (<i>Silurus asotus</i>)	1										
송사리 (<i>Oryzias latipes</i>)				5	2	3	19	2	11	12	
꺼정어 (<i>Trachidermus fasciatus</i>)	2										
농어 (<i>Lateolabrax japonicus</i>)										1	
송어 (<i>Mugil cephalus</i>)									18		
얼룩동사리 (<i>Odonbutis odonbutis interrupta</i>)	11	11	2		6		1				
검정망둑 (<i>Tridentiger obscurus</i>)				1	3						
갈문망둑 (<i>Rhinogobius giurinus</i>)						16	4			6	
틸어 (<i>Rhinogobius brunneus</i>)	19	10	1			15			1		
문절망둑 (<i>Acanthogobius flavimanus</i>)	2				5				2		
흰발망둑 (<i>Acanthogobius lactipes</i>)				23							
모치망둑 (<i>Mugilogobius abei</i>)									1		
꼭저구 (<i>Chaenogobius urotaenia</i>)	1	1	1305	135	536	36				9	
말뚝망둑어 (<i>Periphtalmus cantonesis</i>)			2								
버들붕어 (<i>Macropodus chinensis</i>)				1							
가물치 (<i>Channa argus</i>)			1		3						
과 수	11	7	5	9	10	7	5	3	6	6	

종	수	25	16	6	15	15	14	7	3	8	7
총	개	1117	448	175	1551	593	1219	355	21	59	412

* (역)---역천 (해)---해미천 (와)---와룡천 (고)---고대천
 (염)---염화천 (성)---성연천 (가)---가로림천 (소)---소원천
 (근)---근흥천 (안)---안면천

1. 역천

조사된 하천 가운데 가장 다양한 담수어의 분포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하천의 상류 지역에선 버들치, 갈겨니등이 우세하게 전재하고, 중·하류 지역에선 피라미, 흰줄납줄개, 긴물개, 참붕어 등이 단연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기수역권의 망둥어과 어류의 출현정도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역천하류의 경우 다른 하천들에 비하여 해수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돌고기와 들마자등은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보편종임에도 불구하고 조사하천 가운데 역천에서만 매우 희귀하게 출현하고 있는 것은 특이한 현상이다.

또한 과거의 기록에 따르면 역천에서 한국 특산종인 쉬리와 통사리가 채집된 기록도 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2. 해미천

해미천 역시 본 군내에서는 비교적 다양한 종 분포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천의 상류지역에서는 단연 버들치가 우점하고 있고, 갈겨니가 소수 출현하고 있다. 하천의 중하류 지역에선 피라미, 붕어, 흰줄납줄개, 참붕어, 쌀미꾸리 등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또한 쌀미꾸리는 서산군을 제외하고 충남지역에선 회소종에 속하는 종으로서 해미천에서 비교적 많이 채집되어 주목이 되는 어류이다.

3. 와룡천

와룡천은 하천의 길이가 짧아 출현되는 종수가 매우 단순하며 따라서 피라미에 의한 우점화의 경향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4. 고대천

고대천은 상류성 어종은 볼 수 없었고 하천의 중·하류지역에 붕어, 흰줄납줄개, 큰납지리가 우세하게 나타나며 기수역권 지역에서는 말뚝망둥어, 검정망둑, 회발망둑 등과 함께 꼭저구가 단연 우세종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염화천

하천의 상류 지역에선 버들치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중·하류지역에선 피라미, 붕어, 참붕어등이 우점하고 있으며, 기수역권 지역에선 꼭저구가 단연 우점종으로서 나타나고 있다.또한, 논이나 연못 늪지역의 웅덩이에서 주로 서식하는 버들붕어는 전국적으로 분포하지만 최근 농약오염에 따라 분포범위가 더욱 제한되어가는 실정으로서 본 조사에서도 단 1개체만이 채집되어 보호가 요망되는 종이다.

6. 성연천

하천의 상류지역에서는 갈겨니와 버들치가 우점종으로 나타난다. 특히 갈겨니가 다른 하천들에 비해서 풍부하게 분포하는 현상은 본 군내에서 매우 주목되는 일이다.

하천의 중하류 지역에서는 붕어, 미꾸라지, 쌀미꾸리가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기수역의 땔지역에선 망둥어과의 꼭저구가 단연 우세종으로 출현하고 있다.

7. 가로림천

붕어가 하천 전 지역에서 단연 우세하게 나타나며 그외 송사리나 꼭저구 등이 비교적 많이 분포하고 있다.

8. 소원천

붕어, 참붕어, 송사리등 단 3종만이 출현하여 조사하천중 가장 출현 종수가 빈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9. 근흥천

붕어와 송사리가 비교적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기수역 지역에선 송어나 망둥어과 어류들이 많이 출현하고 있다.

10. 안면천

붕어와 참붕어가 전 지역에서 우세하며 기수역 지역에선 말뚝망둥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외 우리나라의 서해와 남해에는 약 4천여개 이상의 섬들이 있으며 이곳에선 28개 내외의 담수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본 군내에 속하는 옹도, 고파도, 거아도, 내파수도, 난도, 신진도 등에서는 전혀 담수어가 서식하지 않고 있었으며 다만 가의도에서 무척추 동물인 민물가재 2개체만이 채집되었다.

I - 1 교재 담수어로서의 활용

본 군내에서 산출되는 담수어중 비교적 산출량이 많아 교재로서 활용할 수 있는 종은 다음과 같다. 버들치, 갈겨니, 피라미, 참붕어, 미꾸리, 미꾸라지, 쌀미꾸리, 흰줄납줄개, 각시붕어, 큰납지리 등을 들 수 있으며 송어나 꼭저구등의 경우 바다와 담수를 드나드는 기수역권 어류들의 경우 좋은 교재로서 활용가치가 있다.

I - 2 주목되는 담수어류

1. 돌고기

돌고기는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의 가장자리나 소등 유속이 완만하고 자갈이

잡린곳에서 살며 때를 지어 행동한다. 본 종은 전국적으로 분포하지만 본 군내에서는 역천에서만 소수 존재하고 있다.

2. 쌀미꾸리

쌀미꾸리는 수심이 얇고, 수초가 우거진 호소, 농수로, 유숙이 완만한 개울등에 산다. 수초 사이를 헤엄치며 소형종이어서 전장 70mm을 넘는 개체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본 종의 분포는 서산군을 제외하면 충청남도 지역에선 회소종에 속한다.

3. 버들붕어

극락어과의 버들붕어는 전장이 70mm를 넘지 못하는 소형종이지만 그 형태가 특이하고, 어항에서 기르기가 용이해서 일반에게 잘 알려진 종이다. 수초가 많은 곳의 수면에 기포소를 만들어 이곳에 산란하며 수컷은 다른 어종의 접근을 적극적으로 방위하는 산란습성을 지니고 있다. 본 종의 분포는 전국적이며 널리 분포하지만 그 수는 많지 않으며 특히 최근에 농약 오염에 따라 분포는 더욱 제한되어가고 있어 보호가 요망되고 있다.

4. 꼭저구

몸 색의 바탕은 담황색, 또는 담황갈색이며 주로 기수구역에 살면서 때로는 하천의 중류지역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수서곤충을 비롯하여 저서 소동물 등을 포식하며 산란기는 5~7월 사이로 추정된다. 본 군내에서는 고대천, 염화천, 성연천, 가로림천 등의 하천 하류 지역에서 대량 채집되었다.

I -3 한국 특산어류

1. 긴물개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로 흐르는 하천에 분포하는 한국 특산어류로서 몸은 길고 옆으로 납작하다. 입수염은 눈의 직경과 같거나 그보다 길다. 눈은 크고, 옆줄은

직선형이다. 등은 암갈색, 배는 은백색이며 몸 옆면 중앙부의 피부 밑에 흑색세로띠가 있는데 후반부의 색이 더욱 짙다. 유숙이 완만한 하천이나 호수에 산다. 수질오염에 대한 내성이 강하며, 소동물들을 주식으로 한다. 본 군내에서는 역천에서 많이 채집되었다.

2. 각시붕어

우리나라 서·남해로 흐르는 하천에 분포하는 한국특산종이다. 유숙이 완만하고 수초가 우거진 하천이나 호수에서 서식하며, 부착조류를 주식으로 한다. 수컷은 산란기때 등이 파랗고, 배부분이 붉은 매우 아름다운 혼인색을 띠게되어 관광용으로의 개발가치가 크다. 본 군내에서는 역천의 중·하류 지역에 많이 서식하고 있었다.

3. 얼룩동사리

금강 이북에 분포하는 한국 특산종으로서, 주로 하천 중·하류의 여울에서 살며, 밤에 주로 활동한다. 육식성이며 수서곤충이나 물고기등을 포식한다. 본 군내에서는 역천, 해미천, 와룡천 등 비교적 널리 분포하고 있다.

4. 참종개

우리나라 서해로 흐르는 일부의 하천에만 분포하는 한국 특산어류로서, 몸은 가늘고 긴 미꾸리형이다. 본 종은 하천 상·중류의 자갈이 깔린 곳에서 주로 서식하며 식성은 잡식성이지만, 수서곤충을 주로 포식한다. 산란기는 6-7월이며, 꼬리지느러미의 기부 등쪽에 소흑반점이 하나씩있다.

5. 모래무지

본 종은 하천의 중·상류에 모래바닥에 주로 서식하며 수서곤충을 주식으로 한다. 산란기는 5-6월, 모래바닥에 알을 낳고 묻는다. 전장 3cm를 넘게되면 성어와 같은 외형을 갖게 된다. 몸은 길고 원통형이며 뒤쪽으로 갈수록 옆으로 납작하다. 몸의

앞면 중앙부에는 6개 내외의 암색반점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다.

6. 돌마자

우리나라 서·남해로 흐르는 하천에 주로 분포하며, 몸은 원통형에 가깝지만, 배는 편평하다. 바닥에 모래나 잔 자갈이 깔려있는 곳에서 떼를 지어 헤엄친다. 산란기는 5-7월이며, 전장 2cm 내외가되면 거의 성체와 같은 외형을 갖추게 된다. 본 종은 역천에서만 소수 채집되었다.

7. 왜매치

우리나라 서, 남해로 유입되는 각 하천에 분포하는 본 종은 Banerescu와 Nalbant가 최근에 신종으로 발표한 한국 특산종으로 몸은 원통형에 가깝고, 주둥이는 짧으며, 등이 오목하다. 입수염은 한쌍으로 짧다. 옆줄과 등지느러미의 가장자리는 거의 직선형을 이룬다. 몸은 황갈색 내지 회갈색, 몸 옆에는 옆줄을 따라 7-8개의 흑색 반점이 있다. 가슴, 등, 꼬리 지느러미에는 소흑점이 흩어져 있다. 유속이 빠르지 않고, 바닥이 모래나 잔자갈이 깔린 여울에서 떼지어 헤엄친다. 본 종은 역천, 해미천, 고대천 등에서 채집되었다.

II. 해 산 어

우리나라 서해안은 계절에 따른 온도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많은 유용어류의 서식장소이며, 산란장으로서 연중출현하는 어종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에대한 자세한 조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이므로 본 군내에서의 해산 어류조사는 한국 해양연구소의 어류조사 자료와 농수산 통계자료와 서해안 지역에서 출현하는 난치어의 출현양상등의 관련된 문헌들을 참고로서 조사되었다.

서해안 일대에 출현하는 어종은 10목 30과 48종으로서 계절별로 춘계인 4월에 22종으로 가장많이 출현하였고, 동계인 12월에 5종으로 출현빈도가 가장 낮았다(표

3). 본 군은 많은 유용어류들의 산란장소로서 출현어종의 분포현황은 각 어종들의 산란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황줄배도라치, 삼세기, 쥐노래미, 학공치, 등의 어종은 본 군내에서 동계산란군을 이루고 멸치, 동갈양태류 등의 어종들은 본군 내에서 하계산란군을 이루는 종이다. 그러나 뱀망이, 멸치 등 대부분의 어종들은 4월에서 6월사이 해안근처에서 산란하며 성장하게 되고, 수온의 변화에 따라 외해로 이동하여 월동을 하게 되고, 산란기가 되면 다시 연근해로 모여 산란군을 이루게 된다. 망둥어과 어류의 날개망둑, 풀망둑과 가자미과 어류의 돌가자미등은 본 군 내에서 수온이 20℃ 내외가 되는 6-7월경 산란을 하며 부화 치어의 대부분이 처음 몇개월간은 해안선 가까이에서 성장함으로써 연중출현하는 저서성의 어류들이다.

본 군내에서 저서성의 어류로서 개체수나 생물량에 있어서는 참서대가 단연 우점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돌가자미, 쉬쉬망둑 등이 우점하고 있다. 참서대, 돌가자미, 풀망둑, 날개망둑 및 복섬등은 조간대에서 저인망으로 채집할 수 있으나, 양태, 홍어, 쉬쉬망둑, 쥐노래미, 등가시치 등은 저인망에서만 채집이 되는 어종들이다. 이와같은 개체군의 변이는 수온의 변화 이외에 치어들의 먹이나 어류들의 생활사 등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본 군내에서 어획되는 주요어종은 배도라치와 망둥어과 어류가 있으며, 배도라치 치어들은 유요생물자원으로서 가장 널리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지역에서 주목이 되는 어류로서 배도라치, 참돔, 뱀망이, 동갈양태류, 멸치 등이 있다.

〈표 3〉 서산, 태안군 해수 어류상

악상어목	Lamnida
강남상어과	Carcharinidae
까치상어	<i>Triakis scyllia</i>
홍어목	Rajida
가오리과	Rajidae
홍어	<i>Raja kenojei</i>

청어목 Clupeida

- 전어과 Dorosomatidae
전어 *Clupanodon punctatus*
청어과 Clupeidae
밴댕이 *Harengula zunasi*
멸치과 Engraulidae
멸치 *Engraulis japonica*
은어과 Plecoglossidae
은어 *Plecoglossus altivelis*

뱀장어목 Anguillida

- 뱀장어과 Anguillidae
뱀장어 *Anguilla japonica*
목봉장어과 Congridae
봉장어 *Asteoconger myriaster*

동갈치목 Belonida

- 학공치과 Hemiramphidae
학공치 *Hemiramphus sajori*
줄공기 *Hemiramphus kurumeus*

실고기목 Syngnathida

- 실고기과 Syngnathidae
실고기 *Syngnathus schlegeli*
해마 *Hippocampus coronatus*

농어목 Percida

- 꼬치고기과 Sphyraenidae
꼬치고기 *Sphyraena pinguis*
농어과 Serranidae
농어 *Lateolabrax japonicus*

하스돔과	Pomadasyidae
군평선이	<i>Hapalogenys mucronatus</i>
민어과	Sciaenidae
수조기	<i>Nibea albiflora</i>
도미과	Sparidae
감성돔	<i>Acanthopagrus schlegelii</i>
참돔	<i>Chrysophrys major</i>
전갱이과	Caranginae
전갱이	<i>Trachurus japonicus</i>
장갱이과	Stichaeidae
황줄배도라치	<i>Pholis taczanowskii</i>
등가시치과	Zoarcidae
등가시치	<i>Zoarces gillii</i>
돛양태과	Callionymidae
동갈양태	<i>Callionymus richardsoni</i>
망둥어과	Gobiidae
줄망둑	<i>Gobius pflaumi</i>
날개망둑	<i>Gobius gymnauchen</i>
얼룩망둑	<i>Chaenogobius murorana</i>
문절망둑	<i>Acanthogobius flavimanus</i>
풀망둑	<i>Acanthogobius hasta</i>
쉬쉬망둑	<i>Chaeturichthys sitgmatias</i>
아작망둑	<i>Triaenopogon barbatus</i>
두줄망둑	<i>Tridentiger trigonocephalus</i>
횃대목	Cottida
양볼락과	Scorpaenidae
황점볼락	<i>Sebastes oblongus</i>

우럭볼락	<i>Sebastes hubbsi</i>
쭈기미과	Synanceiidae
쭈기미	<i>Inimicus japonicus</i>
쥐노래미과	Hexagrammidae
쥐노래미	<i>Hexagrammos otakii</i>
양태과	Platycephalidae
양태	<i>Platycephalus indicus</i>
독중개과	Cottidae
걱정이	<i>Trachidermus fasciatus</i>
물수배기과	Psychrolutidae
삼세기	<i>Hemitripterus villosus</i>
가자미목	Pleuronectida
넙치과	Bothidae
별목탁가자미	<i>Bothus myriaster</i>
붕넙치과	Pleuronectidae
범가자미	<i>Verasper variegatus</i>
돌가자미	<i>Kareius bicoloratus</i>
문치가자미	<i>Limanda yokohamae</i>
참가자미	<i>Limanda herzensteini</i>
납서대과	Soleidae
궁제기서대	<i>Zebrias Zebrinus</i>
용서대	<i>Arelkiscus abbreviatus</i>
참서대	<i>Areliscus joyneri</i>
박대	<i>Areliscus rhomaleus</i>
복어목	Tetradontida
참복과	Tetraodontidae
자치복	<i>Fugu rubripes</i>
복섬	<i>Fugu niphobles</i>

II-1 주목이 되는 해산어류

1. 배도라치

서산지역에서 방언으로 실치 또는 뱀어로 불리어지는 종의 본종이다. 이같은 방언은 본종이 성체로 변태하기전의 백색의 유생을 나타내는 말이다. 몸이 길며 측편되어 있고 전선이 작은 둥근 비닐로 덮혀있으며, 빛깔은 회갈색으로 뚜렷하지 않은 흙갈색 반문이 있다. 본 종은 12월에서 3월사이 산란하며, 7월 이후에는 60mm 이상 성장하게 된다. 우리나라 전 연안과 일본의 전 연안, 사할린, 북중국에 분포한다.

2. 참돔

참돔, 참도미, 돔 등으로 불리우는 본종은 감성돔과 비슷하나 빛깔이 일반적으로 적색에 녹색 광택을 띠고있다. 감성돔의 경우 성전환 현상이있으나 참돔의 경우 암수가 존재하며 이는 산란시기에 수컷의 혼인색에 의해서 더욱 뚜렷하게 구별된다. 참돔은 산란기를 제외하고는 외양의 대륙붕 30-150m의 암초지대에 서식한다. 연안의 급류에서는 수압으로 인하여 부레의 조절이 불가능하기에 물 위로 떠오르곤 한다. 본종의 분포는 우리나라 전 연해, 일본, 동남중국해, 대만, 하와이 등지에 분포한다.

3. 뱀뱀이

뱀뱀이는 충남 서해안의 어류군집가운데 가장 많은 생물량을 차지하고 있으나 소형어류와 함께 잡어로 취급되어 동물의 사료나 젓갈재료로 이용되고 있다.

뱀뱀이는 외해에서 월동을 하고 5월이 되어, 수온이 100℃ 이상되면 해안 가까이로 접근한다. 이 어류는 1-3년생으로 크기가 85mm 이하의 1년생을 제외하고, 성숙한 난을 가지고있다. 이들의 산란은 주로 수온이 20℃정도되는 6-7월에 주로 이루어지며, 산란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4. 동갈양태류

본 군내에서 동갈양태의 난은 5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들의 치어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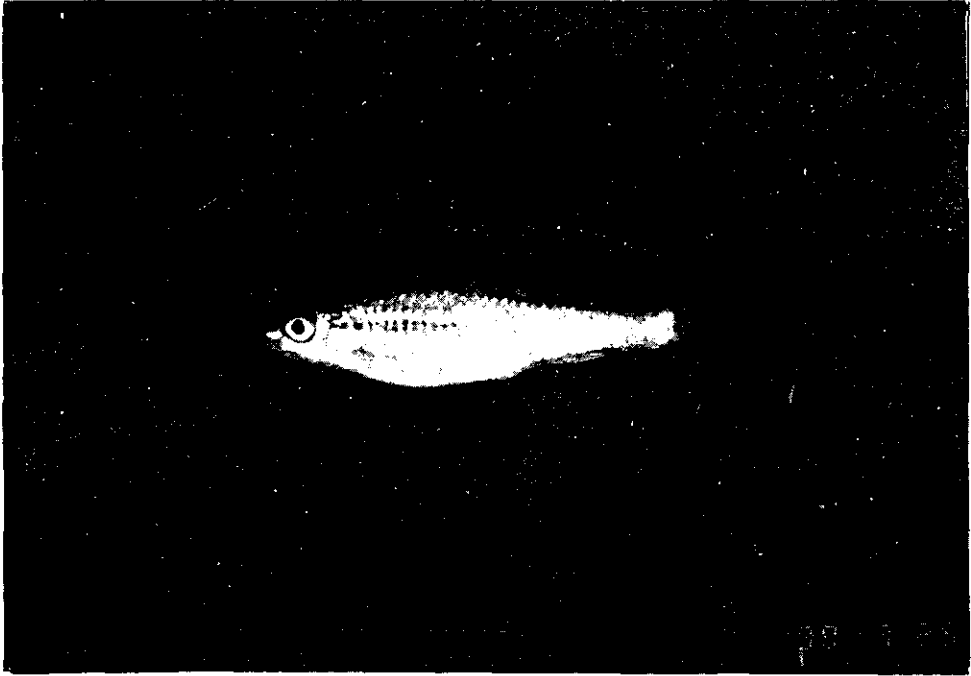
6월경부터 출현하였고 7-8월에 넓은 해역에서 가장 풍부하게 출현한다. 동갈양태류의 치어는 멸치 치어들의 산란습성이나 분포와 매우 흡사하나 멸치보다는 다소 고위도에서 출현한다.

5. 멸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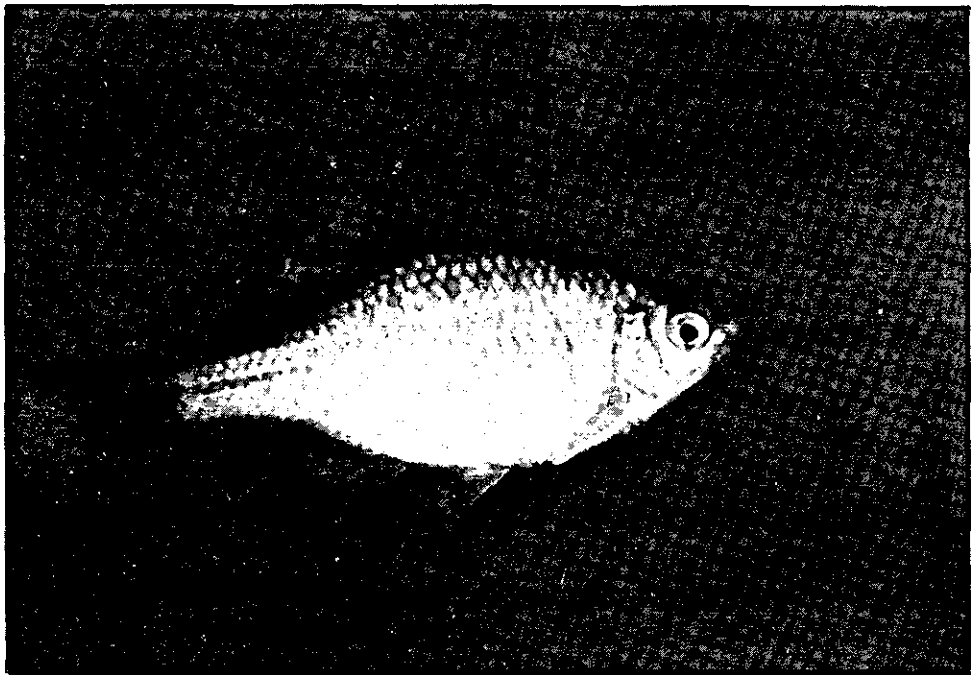
본 군내에서 하계산란군을 이루는 멸치는 주 산란기는 6월이며, 부화직후의 치어들은 연안쪽에서 주로 서식하나 7-8월 수온이 높아지면 수온이 낮은 외해로 이동하여 서식하게 된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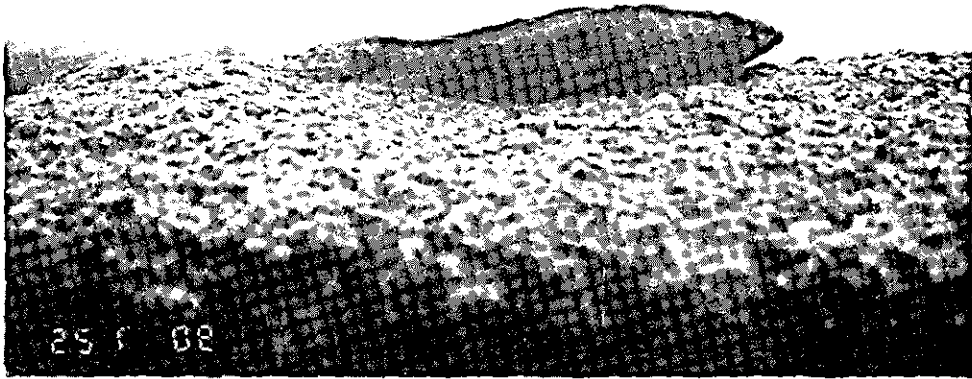
1. 충남의 자연, 최기철 저
2. 한국의 민물고기, 최기철
3. 원유제품 입출하 시설에 따른 환경 영향 평가, 극동정유
4. 한국어도보, 정문기
5. 충청남도지 동물편



[사진 1] 한국특산어류 (긴몰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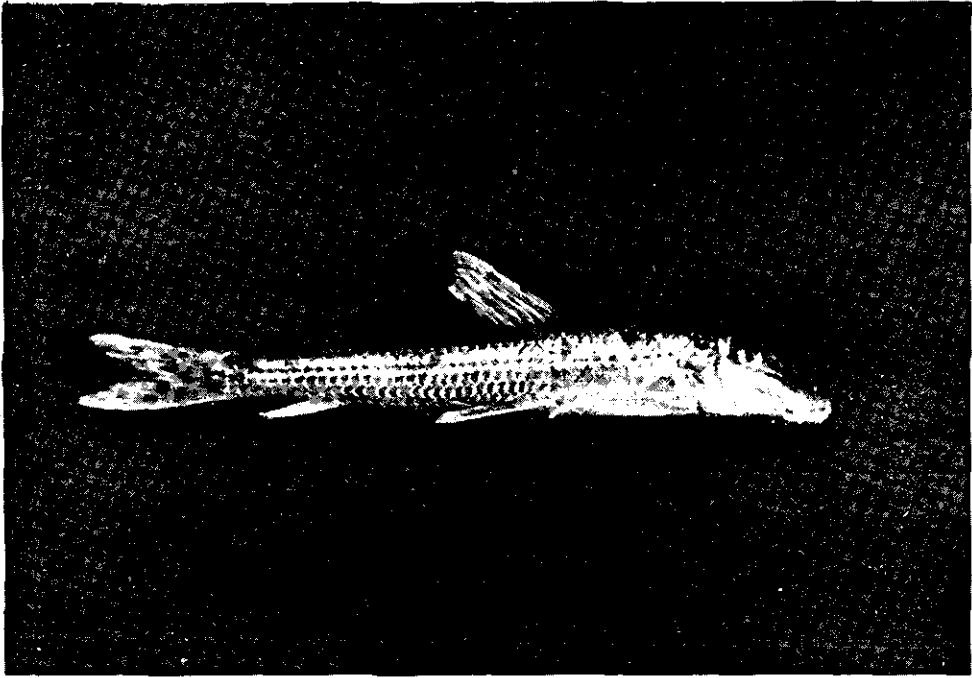
[사진 2] 한국특산어류 (각시붕어)



[사진 3] 한국특산어류 (얼룩동사리)



[사진 4] 한국특산어류 (참종개)



[사진 5] 한국특산어류 (모래무지)

瑞山・泰安 文化遺蹟(下)

1991年 1月 印刷

1991年 1月 發行

編輯：忠北大學校 考古美術史學科

發行：瑞 山 文 化 院

印刷：주성인쇄소(☎52-6005)
